E-Book

Leviathan

리바이어던

토마스 홉스 저 | 이정식 역 근대 국가론의 초석이 된 홉스의 대표작. 그가 평생에 걸쳐 연구한 모든 이론이 집약된 저서. 찰스 1세와 의회의 대립 중 왕당파로 의심받은 홉스가 프랑스 망명 중 집필한 책.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인 자연 상태로부터 개인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받고자 강력한 절대 권력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17세기 유럽 극심한 혼란기, 홉스가 꿈꾼 새 질서를 엿보며 현대판 '리바이어던'을 가늠해 볼 수 있다.

OLJE CLASSICS

OLJE CLASSICS
35

Leviathan

리바이어던

*본 문서에 대한 저작권은 사단법인 올재에 있으며, 이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12 Olje All Rights Reserved

사단법인 olje

올재의 꿈

올재는 지혜 나눔을 위해 2011년 9월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예술과 문화 속에 담긴 지식과 교양을 널리 소개하고 향유함으로써, 격변하는 세상의 지향점을 찾고, 올바르고 창의적인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올재의 꿈입니다. 특히 올재는 인문고전이나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지혜 나눔의 계기와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은 인문고전입니다. 〈올재 클래식스〉는 최고 수준의 번역본을 부담 없는 가격에 보급합니다. 각 종당 5천 권을 발행하며 4천 권은 교보문고에서 6개월간 한정 판매합니다. 미판매된 도서와 발행 부수의 20%는 복지시설, 교도소, 저소득층 등에 무료 기증합니다. 출간한 번역본은 일정 기간 후 올재 인터넷 홈페이지(www.olje.or.kr)에 게시합니다.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사단
법인 olje

올재의 벗

〈올재 클래식스〉《리바이어던》의 발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상당액은 〈올재 클래식스〉의 지혜 나눔 취지에 적극 공감한 SBS문화재단의 도움으로 마련됐습니다. 국내 최대의 서점 교보문고는 〈올재 클래식스〉의 유통 지원에 도움을 주셨고 코리아헤럴드와 헤럴드경제를 발행하는 (주)헤럴드는 출판인쇄와 교열을 도와 주셨습니다. 표지 제호를 재능 기부해 주신 강병인캘리그라피연구소 술통 대표 강병인 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선친의 귀한 번역본을 올재에서 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이상규 님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올재 클래식스〉 출간이 전국 곳곳에 인문고전 나눔으로 뜨겁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 〈올재 클래식스〉 출간에 많은 격려와 박수를 보내주신 벗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전합니다.

정기 후원과 일반 후원으로 올재의 지혜 나눔에 참여하세요.
올재의 벗들이 심은 작은 홀씨가 전국 곳곳에 인문고전의 꽃으로 피어납니다.

올재 후원함 | 예금주 사단법인 올재

국민은행 023501-04-184681
농협은행 301-0100-8607-71
신한은행 100-027-966986
우리은행 1005-401-996902
하나은행 162-910013-46904

올재 후원하러 가기

후원 문의처 | 올재 사무국

ⓣ 02)720-8278 ⓗ www.olje.or.kr ⓔ oljeclassics@olje.or.kr

@oljeclassics www.facebook.com/oljeclassics

지혜 나눔을 함께한 벗들

SBS 문화재단 KYOBO 교보문고 Calligraphy Sooltong

역자 해설

1. 홉스의 생애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 1588~1679)는 스페인의 무적함대〔Armada〕가 영국을 공격하던 해인 1588년 4월 5일 금요일 영국서 남해안 지방 맘즈베리(Malmesbery)의 웨스트포트(Westport)에서 찢어지게 가난한 이상성격의 한 무명 목사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스페인 함대의 침공 소식에 놀란 그의 어머니가 그를 조산했을 때부터 그는 숙명적으로 순탄치 못한 일생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예고하였던 것이다. 그의 아버지 토마스 홉스(동명임)는 토요일 밤늦게까지 트럼프놀이를 한 끝에 다음날 설교단 위에서 졸다가 급작스레 엉뚱한 고함을 치고 깨는 바람에 교회 안에서 예배 보던 신도들을 놀라게 한 일까지 있는 변태적 인간이었으며, 마침내는 다른 목사와 싸운 끝에 그의 부인과 2남 1녀의 자식을 버려둔 채 쫓겨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이 가난과 역경 속에서도 토마스 홉스는 유달리 뛰어난 재동으로 자라났으며, 그는 4살 때에 벌써 글을 읽고 쓸 줄 알았으며, 6살에 희랍어와 라틴어를 익혔고, 15세에는 영국의 명문인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했다. 그에게 별로 깊은 감명을 주지 못한 옥스퍼드에서 5년을 보낸 뒤인 1606년 학위를 취득한 후 그는 캐번디시(William Cavendish) 경에게 추천되어 그 집 장남 데본셔(Devonshire)의 가정교사로 지내게 되었고, 그 뒤부터 이 왕당파의 귀족들과 나날이 친분이 두터워졌다.

홉스는 캐번디시가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의 사상 형성에 많은 영향을 준 숱한 저명인사들과 베이컨, 하비(Willam Harvey, 1578~1657), 갈릴레이(Galileo Galilei, 1564~1642) 등 저명한 학자들을 접할 수 있었으며, 또한 재정적 도움을 얻어 1610년에는 프랑스, 이탈리아 등 대륙 여행을 하게 됨으로써 그 시대의 첨단적인 철학자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특히 베이컨(Francis Bacon, 1561~1626)의 개인적인 비서로서 교제하고 그의 학문 연구의 최초의 결과로서 투키디데스(Thucydides)의 《역사》를 번역하고 투키디데스의 정치적 혼란에 관한 연구에서 감명을 받았다. 또한 두 번에 걸친 대륙 여행에서 갈릴레이와 만나게 되었

고 이때부터 유클리드(Euclid)기하학에 심취되었다. 그는 수학적 · 자연과학적 방법을 사회 현상에도 적용함으로써 사회에 관한 학문의 무한한 발달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모든 것은 인간의 이지(理智)에 의한 논리적 방법에 입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인간의 의지 및 그것의 근원이 되는 감각의 연구에까지 미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영국은 점점 성장해 온 시민계급의 사회세력이 절대군주제의 어리석은 전제정치에 집착한 찰스 1세를 처형하고 크롬웰의 공포정치가 시작되던 초기였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반의회적 초기 저술과 왕족들과의 친분으로 인한 신변의 위험을 인식한 나머지 파리로 망명했다가 그곳에서 찰스 왕자(후에 Charles 2세가 됨)의 수학 교사가 되었다.

당시의 프랑스는 절대군주제의 극성기로서 루이 14세가 군림하고 있었으며, 1642년 그는 최초의 정치적 저서인《시민론(De Cive)》을 출간하여 세간의 높은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망명 중인 파리에서도 프랑스 성직자들이 그의 자연신교적 주장을 의심하여 적의를 느끼게 됨에 따라 홉스는 또 한 번의 공포와 피해의식으로 괴로워한 끝에 귀국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런던으로 돌아와(1651년) 정치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크롬웰 공화정부의 보호를 받았다. 그러나 공화정에서도 냉대를 받았으며 왕정복고까지를 조용히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1658년 9월 크롬웰 장군이 죽고 그의 아들 리차드가 호민관이 되었으나 혼란과 권력 싸움은 극도에 달해 결국 공화정은 붕괴되고, 1660년 4월 25일 협의국회(Convention Parliament)가 열려 망명했던 찰스 2세는 브레다 선언을 확약하고 국민의 환영을 받으며 왕위에 복귀하여 이른바 왕정복고를 하였다.

왕정복고 후 홉스는 찰스 2세의 비호 아래 은퇴 생활을 하면서《베헤모스(Behemoth or the Long Parliament)》를 비롯한 저작 활동을 하다가 1679년 12월 4일 92세의 나이로 요통(尿痛)과 중풍으로 사망하였다. 그동안 홉스의 가장 센세이셔널한 저서는 1651년 절대주의를 옹호하면서도 구교적 왕당파의 의심과 오해

를 크게 받은 희대의 저작인 《리바이어던(Leviathan or the Matter, Form, and Power of a Commonwealth Ecclesiastical and Civil)》을 내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일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파란만장의 역사를 기록하였으며, 그가 사망한 그 시기는 왕정복고의 후기에 속하는 것으로서 찰스 2세의 왕정은 암투와 부패가 격심하였으며 이로 인한 제2의 시민혁명인 이른바 명예혁명의 기운이 싹트고 있었던 때였다.
이리하여 홉스의 전 생애는 영국이 대의적으로 발전하는 시기이기는 하나 그 반면 영국의 절대군주가 확립하여 입헌군주제가 성립하려고 하는 시민혁명의 전 혼란기에 걸쳐 살았으며 그것이 홉스 사상의 저류를 이루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하겠다. 그는 대체로 군주제 지지파와 친근했고 그의 이론에 있어서도 실제상의 이유로 군주제를 최선의 정부 형태로 본 탓으로 절대군주체제의 이론적 강화에 공헌하는 결과가 되었으나 홉스의 공리주의적이고도 실용주의적인(pragmatic) 이론적 성향이 군주제를 도의적 측면에서 신비화하려는 보수적 절대왕정주의자의 구미에 맞을 리 없었다. 그리하여 희대의 천재 홉스는 이렇게 어두운 고독과 피해의식에 가득 찬 공포, 그리고 진퇴양난의 입장에서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불신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채 답답한 긴 일생을 보냈던 것이다.

2. 홉스의 사상과 《리바이어던》

홉스의 사상은 베이컨의 경험주의철학(經驗主義哲學)에 의하여 근본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는 존재의 세계에 속하는 모든 개별적인 것에 실제성이 존재하고 개별적인 것에 의한 감성적 지각으로부터 보편적 개념을 추상하려고 하면서 합리주의적 분석에 의하여 얻어지는 보편적 개념의 실제성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베이컨적 경험주의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기하학적 · 자연과학적 방법을 채택하여 기계론적(機械論的) 유물론(唯物論)으로서 그의 철학을 정립하였다. 또한 그에 의하면 개개의 사상은 외부에 존재하는 물체의 성질의 표상이며, 모든 사

상의 근원은 인간의 감각이며 이러한 감각에 의거하여 형성된 것이 사상이라 하였다.

홉스는 그의 국가 이론을 구성함에 있어서 인식론적 기초 위에 입각하고 있으며 사회적 형성체는 그것의 구성 요소의 총계 또는 다양성으로서 파악하였다. 그의 사회 형성체는 어떠한 의미에 있어서도 실제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기계적 구성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리바이어던, 즉 국가는 인공적이며 기교적인 괴수 즉, 형성체인 것이다. 그리하여 강력한 군주주권국가에 대하여 국민은 인간의 야만적 본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필요악으로서의 '거대한 리바이어던'이라고 했으며, 또한 '불멸의 신' 아래서 국민의 평화와 방위를 담당하고 있는 '멸하는 신(mortal God)'으로까지 그것을 미화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원래 사회적이 아니고 이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인간은 자기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을 획득하려고 하고 선악이 되는 것을 회피하려고 한다. 선 또는 행복도 자기 이익을 부단히 발전시키려고 하는 데 있어서의 상태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 성립 이전의 자연 상태에 있어서는 인간은 순수한 자연의 분자로서 자기의 능력을 실현시키는 것이 된다. 자연 상태 하에서는 인간은 공동 존재로서의 사회의 이해 관계에 대하여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연적 소지에 기초하는 자기 능력의 실현만을 위하여 자유로이 행동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그의 자연권(natural right)의 개념이 성립한다.

즉, 인간의 자연적 능력의 실현과 자기 보존적 본성의 자유로운 발동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자연권은 개인이 고유한 힘을 행사하는 자유이며, 그것은 인간이 자기의 판단과 이성에만 의거하여 자기의 물력과 힘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수단을 행사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런데 그에 의하면 자연 상태는 인간의 자연권 행사에 있어서의 외부적 장애가 전연 없는 데서 성립하는 상태이다. 여기에 인간은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능력에 있어서 평등하며, 인간이 그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희망도 평등하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인간의 자연권 행사의 대상은 풍부하지 않으며 그러므로 인간의 능력과 희망의 실현은 대상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그것의 평등한 향유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만인이 만물에 대하여 자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실제상 아무도 어떠한 물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연 상태에 있어서 인간은 각자 자기의 자연권을 행사하고 자기 목적의 실현에 노력하며 거기에는 타인을 굴복시키려고 한다. 이리하여 자연 상태는 인간의 상호 대립에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bellum omnium contra omnes)'이라는 비참한 상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합법과 불법, 정의와 불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공포와 위험만이 존재하는 상태이며 거기에서의 인간은 독립적이고 불행하며, 인간은 다른 동물과 같고 그 생명은 단기적이다. 그것은 그의 생존 시기의 변혁기에 처한 모든 혼란 상태를 자기 이익만을 도모하는 무교육적인 근대 시민의 개인주의적 활동에서 그것의 기본적 정신인 개인주의를 섭취하면서 자연 상태에서 이론화한 것이라 하겠다. 여기에 그의 이론의 추상성이 있다.

그의 자연 상태는 무질서한 개인의 상호 대립과 투쟁의 상태이므로 거기에서의 인간은 모두 일반적 불안과 적의를 가지고 생존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안으로부터 보존 · 해방되기 위해서는 타자(他者)에게 선수를 치는 방법 이외에는 적당한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자연권의 행사이기 때문에 정당한 것이며, 이리하여 인간은 자기 능력과 자기 보존을 목적으로 하여 그 자체를 부정하는 모순된 존재인 전쟁 상태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여 전쟁상태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 상태에 있어서의 인간 생활을 하게끔 하는 것이 이성이며 그 해결 방법이 자연법(Law of Nature)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그는 자연 상태의 자연권과 상반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자연법의 개념을 이끌어 낸 것이다. 그것은 인간적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성으로서 발견되는 모든 원칙이다. 그러므로 자연법은 자연적 인간의 행동에 대한 구속과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에 의하면 평화에 대한 욕구와 결부된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 제1의 자연법이 추출해진다. 즉 인간은 그가 생존에 관한 욕망이 존재하는 한 평화를 추구해야 하고, 평화를 얻을 수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쟁을 통하여 원조와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자연권의 합리적 관철을 위한 제1의 기본적 자연법이며 여기에서부터 제2, 제3의 자연법이 추출된다는 것이다. 제2의 자연법은 만일 평화와 자신의 방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한 사람도 그와 같은 것을 한다면 '만물에 대한 권리를 자진하여 양도(讓渡, transfering)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자기가 타자에 대하여 허용할 수 있는 한의 자유를 자기가 타자에 대하여 보유하는 데 만족해야 된다는 것이다. 즉 타자도 그렇게 한다는 조건으로서 방위를 위한 수단을 이용하는 권리를 양도한다는 것이며 그것은 '자연권의 포기(renouncing)'가 아닌 개인 상호 간의 규약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제3의 자연법은 계약의 이행을 의미하며 계약 이행이 정의이며, 그것의 불이행은 불의가 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평화와 상호계약의 이행에 대한 객관적 보증이 요청되며, 이 객관적 보증이 바로 제삼자의 강제력인 것이다. 대의적으로 적의 침략을 방어하고 대내적으로 각자의 자유로운 투쟁을 금지하는 강력한 단체를 만드는 것을 이성이 명령하고 있으므로 한 사람 또는 한 무리의 인간에게 주어진 강력하고도 불가침적인 권력을 국가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의 의지를 백성이 스스로의 의지로서 생각하여 절대적으로 복종한다는 것을 상호계약한다는 것이며 이 계약이 곧 '사회계약'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의 본질은 이러한 하나의 인격(one person)이며, 이 인격을 수행하는 자는 주권자이고 주권자는 최고 권력을 가지고 그 이외의 백성은 신민이다. 여기에 위대한 '리바이어던'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그에 있어서의 주권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사회계약을 강행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제삼자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권자는 평화를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 또는 법률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것을 준수하지 않아도 좋으며 또 정의, 도덕도 초월하는 무제한 한 절대적인

권력자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홉스에 의하면 주권의 성립에 의하여 백성의 자유가 소멸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①국가는 백성의 자유 의지에 의하여 성립되며, ②국가 내부에 있어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 있어서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는 자유가 있으며, ③적극적으로 혁명을 일으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주권자도 포함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 보존의 자연권이 관철되어 있다고 하느니보다 국가는 자기 보존의 수단인 것이다.

그런데 그에 의하면 이와 같은 주권이 존재하는 국가 형태에 있어서는 정치적 지배 자체가 부정인 경우가 없으며, 권력의 크고 작음에 따라 성질상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국가 형태의 우열 문제는 국가 설립의 목적, 즉 평화의 확보에 있어서 어느 국가가 가장 적당하느냐의 문제로서 고찰되어야 한다. 그에 의하면 주권의 성립에 있어서 두 가지 방도가 있다고 말하고, 그 하나는 자연적 실력에 의하여 수집되는 것과, 또 하나는 인간이 자발적으로 그것에 복종함으로써 수립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전자는 '획득에 의한 국가(Commonwealth by acquisition)'이며 후자는 '정치적 국가(Political Commonwealth)' 또는 '법제적 국가(Commonwealth by institution)'라고 말하고, 이것을 다시 전자의 국가를 구분하여 가부장적 국가와 정복국가로 나누고 후자를 군주국가, 귀족국가, 민주국가의 삼자로 분류하여 이 가운데 군주국가가 최선의 국가 형태라고 규정하고 군주국가 중에서도 세습적 군주국가가 좋다고 하였다.

홉스의 정치 이론은 주권자의 절대성을 개인주의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주의의 변호 논법으로 귀결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던닝(Dunning)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를 군주주의의 옹호자로서만 평가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반동사상가로서만 취급하는 것은 큰 오류인 것이다.

그는 사실상 혁명적 위기를 조성하는 요인으로서 이해 관계에 좌우되는 상업 시민

적 근성에 대하여 혐오를 느끼고 부르주아를 국가 및 국가 임무의 본래의 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무지한 인간이 평등하며 자유롭게 그 이성에 의하여 사회계약에 이르는 것으로 다룸으로써 근대적 시민의 역사적 진보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그 반면 그의 이론의 출발점에서 볼 수 있는 평등한 인간의 이성에 의하여 이끌어지는 이론은 독점적 특권 · 문벌 · 신분을 부정하는 것이며 군주권신수설론자(君主權神授說論者)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자연법인 입법의 소산이라고 규정하여 근대국가에 적응하는 일면을 발견할 수 있다. 더욱이 국가 통일과 국민통합을 위한 절대주권의 전제를 주장함에 반하여 백성의 적극적 혁명권을 부정하면서도 소극적인 저항권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그의 시대의 전환적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홉스의 대표작인《리바이어던》은 인간 본성 문제나 국가 기원 문제나 그리고 사회계약에 관한 이론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나 자연법 이론이 지니고 있는 혁명의 이론적 가능성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로크(John Locke, 1632~1704)의 사상과 흥미 있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하겠다.

3. 절대군주사상

홉스는 마키아벨리와 더불어 절대군주주의(絕對君主主義)를 옹호하는 대표적인 사상가로서 이 두 사상가의 이론적 배경에는 시대상의 반영이라는 특징과 개인이 처한 입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희대의 사상과 이론을 전개하여 통일과 조화의 원리를 군주주권에서 찾았다는 점이다.

고대 그리스 · 로마의 도시국가 체제에 있어서는 개인의 윤리와 국가의 도덕은 일치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정치와 도덕 사이의 대립은 없었다. 개인은 국가의 생활을 통하여 도덕적으로 완성된다는 견해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거의 보편화되어 있었다. 로마제국 시대에 있어서는 한때 이러한 정치 · 윤리관은 무너지는 경향은 있었으나 기독교가 유럽의 새로운 보편적인 종교로 등장함에 따라서 그러한 정

치와 도덕 사이에의 간격은 곧 해소되었으며, 기독교의 교리는 군주와 신민을 아울러 지배하는 절대적인 가치 원칙으로 군림함으로써 정치와 윤리는 또다시 통합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십자군운동 이후 르네상스 시대에 접어들자 기독교회의 영향력이 크게 동요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로마법왕은 세속권력의 대두를 크게 두려워하고 그것을 견제하는 데 부심하였다. 이 시대의 이탈리아는 5개의 도시국가로 분열되어 대립하고 있었으며, 거상 군주 · 봉건 군주들이 권력쟁탈전을 벌이는 활동 무대로 화하고 있었던 것은 이웃에 강대한 세속권력의 등장을 두려워하였던 법왕의 분열책동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동양과의 무역에 있어서 황금 항로였던 지중해로의 통로가 바로 이탈리아라는 점에서 이러한 이탈리아는 하루도 정변과 전쟁과 반목이 그칠 날이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탈리아에 정치적 안정과 외세의 방어를 위해서는 강력한 군주주권을 주장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조국 이탈리아의 통일을 앞서 생각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한 전제정치를 위한 권모술수의 대명사로 마키아벨리를 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후세에 이탈리아인들이 그를 이탈리아 통일의 선각자로 우러러보고 그를 위해 명비를 깎아 세운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홉스도 마찬가지로 절대군주 시대의 후기에 태어나 시민혁명의 기운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살면서 혼란한 영국을 강력한 통합된 영국으로 만들기 위하여 《리바이어던》을 저술하였다고 좋은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이 시대의 지배적 상황은 굽이치는 역사의 여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극적인 대립과 반목이었다. 영국교회(Anglican Church)와 청교도 간의 종교적 반목, 왕과 의회 간의 정치 권력적 투쟁, 그리고 사회적 · 경제적 구조 변동으로 새로이 성장한 신흥 시민 세력과 귀족적인 구세력 간의 알력이 곧 그것이었다. 이 17세기 전반의 어지러운 시대적 상황이 바로 홉스의 정치 철학을 형성하고 그로 하여금 국가 구성원에게 평화와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 이론에의 획기적 시도를 감행케 한

배경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여하튼 《리바이어던》은 홉스 이후 후세에 내려오면서 큰 영향을 끼쳤으며, 또한 많은 문제점을 남겨 주고 있다. 그러나 확고한 민주적 전통을 가진 영국을 중심한 해양 세력의 정치사상에 끼친 영향은 경미하나, 이에 반하여 그것이 권위주의적 전통을 가진 국가, 그리고 특히 20세기에 들어와 등장한 전체주의국가에 끼친 영향은 두드러지게 눈에 띈다. 파시즘이나 공산주의가 홉스류의 절대주의적 사상의 토대에서 성장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고, 또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국가의 개념에 관한 새로운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홉스의 국가론은 다시 연구되고 그의 이론의 또 다른 판독이 시도되고 있기도 하다.

4. 한국에 있어서 《리바이어던》 연구 현황

근대의 국가사상은 토마스 홉스의 정치사상, 보다 정확하게는 그의 《리바이어던》으로부터 시작한다. 근대국가의 형성 이래, 그 국가의 발전과 변화의 다양성은 사상과 사상사, 그리고 이론의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와 같은 이론의 다양성은 또한 홉스의 사상과 그의 역사적인 저서인 《리바이어던》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왜곡되게 풀이하여 자아적인 사상 또는 사상사적인 틀을 꾸며 이끌어 가려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그와 같은 홉스의 철학과 사상사 연구에 대한 자의성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그 극복의 노력은 사상사 연구에 있어서 그 대상을 정확하게 판독해야 하고, 그 대상 속에 깃들어 있는 논리를 파헤쳐야 할 필요성 등에 있고, 그럼으로써 그 논리의 역사적 의의를 분명히 밝혀야 할 필요성을 위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한 노력은 영국과 미국을 비롯하여 가까운 일본에서도 토마스 홉스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사업이 최근에 이르러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실증되고 있다.

홉스의 《리바이어던》은 그 제목이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만큼 널리

읽혀지지 않은 고전 중의 하나이다. 그와 같은 홉스의 사상, 특히 《리바이어던》에 관한 연구 소홀은 우리 학계의 경우도 결코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홉스 연구의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분야에 관한 연구의 관심이 되살아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경우처럼 넓게 그리고 보다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아쉬움이 아직도 있는 것이다. 라파엘(D. D. Raphael)이 분류 · 고찰하고 있는 것처럼 세분화된 전문 영역 간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뒤에 열거하는 그의 저서 《도덕과 정치(Hobbes: Morals and Politics)》 7장 참조).

홉스 연구의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앞날의 발전을 촉구하기 위하여 한국에 있어서 학술적으로 이룩된 《리바이어던》 연구를 제목에 따라 대체적으로 간추려 보기로 한다(석 · 박사학위 논문으로 다루어진 연구는 여기에서 제외하였다).

김경법, 《레바이아탄》, 《(고전해설) 사상계》(1958. 5), 221~226면.

최선홍, 《토마스 홉스의 정치사상연구》, 《서양사론》(7, 8) 4, 19~52면.

이정식 역, 《리바이어던(국가론)》, 《세계의 대사상》 제3권, 휘문출판사, 1972.
(제4부를 제외한 제1, 2, 3부와 총괄 및 결론의 부분역임).

김영두, 《탈이데올로기적 실리주의론—'리바이어던'과 그 운신》, 《고대 사회과학논문집》 제3집(1974. 11), 3~29면.

한승조 역, 《리바이어던》, 《세계사상전집》 제9권, 삼성출판사, 1982.
(제1, 2부의 부분역임)

D. D. Raphael(1977), Hobbes: Morals and Polities, London: Allen & Unwin.

최명관 역(1983), 《도덕과 정치》, 《삼성문화문고》 137권, 205면.

김홍명, 《토마스 홉스의 소유권론》, 《현대사회》(3/3)(1983. 10), 117~134면.

이종은, 《플라톤, 홉스, 루소에 있어서의 의무라는 개념의 구분》, 《전국정치학회보》 vol. 17(1983), 19~28면.

이의구, 《홉스와 혁명사상》, 대왕사, 1984, 359면.
(이 저서는 제1편 홉스의 정치사상, 제2편 영국의 혁명사상, 제3편 바뵈프의 사상 등의 3부로 이루어져 있음)
Sung-Hak Kang, 《Thomas Hobbes on Peace among Nations》, 《경희대 평화연구》 vol. 5, no. 5(1985), 157~182면.

일러두기

1 여기에 번역한 원서는 Leviathan, or the Matter, Forme, & Power of a Common-Wealth ecclesiasticaland civille , By Thomas Hobbes of Malmesbury,London, printed for Andrew Crooke, at the Green Dragon is St. Pauls Church-yard, 1951이다.

2 이 번역서는 역자가 이미 1972년에 시간과 지면 관계로 제4부를 빼놓고 때로는 직역하기도 하고 또 의역하기도 한 부분역을, 거의 새로이 번역하는 마음가짐으로 크게 손질하여 완역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전의 어려운 옛 표현과 낱말을 될 수 있는 한 쉬운 말로 바꾸어 보려고 애썼다. 그러나 고전적인 느낌과 맛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게을리하지 않았다.

3 성경의 많은 인용은 저자의 뜻을 충실하게 따랐으며, 우리나라의 판은 대한 성서 공회가 발행한 성경전서 개혁 한글판에 따랐고, 그 밖에는 관례에 따랐다.

4 고유 명사나 원어의 표음은 대부분 관습에 따랐고 그 밖에는 〈민중 국어 대사전〉의 〈로마자 외래어의 한글 표기〉에 따랐다.

5 원문의 난외(欄外) 이탤릭체 제목은 고딕체로 표시했고, 원문 속의 ( )은 괄호 안에 기울여 표시했다.원문 속의 대문자와 이탤릭체는 인용된 부분은 " "으로, 부분 인용이나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 '으로 표시했고 역문이 번잡해 보임을 피하기 위해 그 외에는 표시하지 않았다. 원문 중의 특이한 원어나 단어는 ( ) 안에 넣어 옮겼고, 음이 다를 시에는〔 〕안에 넣어 표시했다. 모든 역자주는 본문 하단에 각주를 달아 표시했고, 중에서 간단한 역주는 본문 안에 녹여 내거나〔 〕안에 넣어 표시했다. 편집주는 각주번호에 *를 붙여 표시했고, 원문의 ( ) 속 인용된 성경 구절 표시는 대부분 각주를 달아 표시했다. 서명 따위는 《 》로, 논문 따위는 〈 〉로 표시했으며, 끝으로 원저에 있는 초판의 페이지를 나타내는 난외의 숫자는 모두 생략했다.

6 원문의 난외 제목을 나열하여 차례의 세목으로 정리했다. 방대한 원저를 이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7 그리고 완역판으로서 구실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번역판을 모두 참고했음을 밝힌다. 한국판으로서는 삼성출판사의 사상전집으로 나온 한승조 교수의 부분(제1, 2부) 번역판(1983년)과 그리고 일본판으로는 암파문고의 수전양 씨의 제1부(1954년) 제2부(1964년) 제3부(1982년)와 아울러 일본의 하출서방의 세계의 대사상 총서로 나온 수전양, 전중호 양서의 번역(1966년) 등이다.

차 례

역자 해설 ····· 5

서설 ····· 20

제 1 부 ····· 26

제1장 감각에 대하여 ····· 27
제2장 상상력에 대하여 ····· 29
제3장 상상의 연속 또는 계열에 대하여 ····· 35
제4장 언어에 대하여 ····· 41
제5장 추리 및 학문에 대하여 ····· 50
제6장 보통 정념(情念)이라 불리는 의지에 의한 운동의 내적 동기 및 그것이 표현되는 언어에 대하여 ····· 58
제7장 논구(論究)의 종결 또는 해결에 대하여 ····· 69
제8장 일반적으로 지적(知的)이라 부르는 덕(德) 및 그 반대의 결함(缺陷)에 대하여 ····· 73
제9장 지식의 몇 가지 주제에 대하여 ····· 85
제10장 힘, 가치, 위계, 명예 및 적임성에 대하여 ····· 86
제11장 태도의 다양성에 대하여 ····· 96
제12장 종교에 대하여 ····· 105
제13장 인류의 행복과 비참에 관한 그들의 자연 상태에 대하여 ····· 120
제14장 제1의 자연법, 제2의 자연법 그리고 계약에 대하여 ····· 125
제15장 그 밖의 자연법에 대하여 ····· 138
제16장 인격, 본인 및 인격화된 것에 대하여 ····· 153

제 2 부 ····· 159

제17장 코먼웰스의 기원 형성 및 정의에 대하여 ····· 160
제18장 설립에 의한 주권자의 여러 권리에 대하여 ····· 165
제19장 설립에 의한 코먼웰스의 몇 가지 종류와 주권자의 승계에 대하여 ····· 175
제20장 가부장적 및 전제적 지배에 대하여 ····· 186
제21장 신민의 자유에 대하여 ····· 196
제22장 정치적 및 사적인 신민의 여러 단체에 대하여 ····· 208
제23장 주권자 권력의 공적 대행자에 대하여 ····· 221
제24장 코먼웰스의 보양(補養)과 생식(生殖)에 대하여 ····· 226

제25장 충고에 대하여 ····· 233
제26장 시민법에 대하여 ····· 241
제27장 범죄, 면죄 및 죄의 경감(輕減)에 대하여 ····· 264
제28장 처벌과 보수(報酬)에 대하여 ····· 281
제29장 코먼웰스를 강화시키거나 또는 와해의 원인이 되는 것들에 대하여 ····· 290
제30장 주권을 가지는 대표의 직무에 대하여 ····· 301
제31장 자연에 의한 신의 왕국에 대하여 ····· 319

제 3 부 ····· 332

제32장 그리스도교의 정치학의 여러 원리에 대하여 ····· 333
제33장《성경》의 여러 편의 수(數), 오래 됨, 의도, 권위 및 해석자들에 대하여 ····· 339
제34장《성경》의 여러 편에 있어서의 영(靈) · 천사 및 영감의 의의에 대하여 ····· 351
제35장《성경》에 있어서의 신의 왕국, 신성한 신에 바쳐진, 및 성례(聖禮)의 뜻에 대하여 ····· 366
제36장 신의 말에 대하여 그리고 예언자들에 대하여 ····· 376
제37장 여러 기적(奇蹟) 및 그것들의 효용에 대하여 ····· 395
제38장《성경》에 있어서 영원한 생명, 지옥, 구원, 내세 및 속죄의 의미에 대하여 ····· 405
제39장《성경》에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말의 뜻에 대하여 ····· 423
제40장 아브라함, 모세, 제사장들, 유대의 왕들에 있어서 신의 왕국의 여러 권리에 대하여 ····· 426
제41장 우리의 축복받은 구세주의 직무에 대하여 ····· 439
제42장 교회 권력에 대하여 ····· 448
제43장 사람이 하늘의 왕국에 수용되기 위해서 필요한 사물에 대하여 ····· 539

제 4 부 ····· 558

제44장《성경》의 그릇된 해석에서 오는 영적인 암흑에 대하여 ····· 559
제45장 악마학 및 그 밖의 이교도의 종교의 유물에 대하여 ····· 588
제46장 공허한 철학과 허구의 전설 등에서 오는 암흑에 대하여 ····· 613
제47장 그 같은 암흑에서 나오는 이익에 대하여 및 그 이익은 누구에게 귀속하는가 ····· 635

총괄과 결론 ····· 648

서설

자연(自然)*(신이 그것에 의하여 세계를 창조하시고 또 그것에 의하여 통치하시는 솜씨)*은 사람의 기술(Art)에 의해 다른 여러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공적인 동물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도 모방의 대상이 된다. 생명이란 사지의 운동에 지나지 않으며 그 운동은 어떤 내부의 중심 부분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모든 자동 기계(Automata)*(시계처럼 태엽과 톱니바퀴에 의해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기계)*는 인공적인 생명을 갖는다고 말해서 안 될 이치가 없지 않겠는가. 즉 심장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태엽에 지나지 않으며 신경은 그만큼의 수효를 지닌 가느다란 선이고, 관절은 그 숫자만큼의 톱니바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그들은 창조자가 의도하신 것 같은 운동을 전신에 주는 것이 아닐까? 기술은 더욱 나아가서 자연 중에서 이성적이며 가장 우수한 작품, 즉 인간을 모방하기에 이른다. 왜냐하면 기술에 의하여 코먼웰스(Commonwealth) 또는 국가(State)*(라틴 말의 키비타스(Civitas))*라 불리는, 저 위대한 리바이어던(Leviathan)[1]이 창조되지만 그것은 인공적인 인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인공적 인간은 자연적인 인간을 보호하고 방위할 목적을 지녔으므로 자연적인 인간보다도 크고 강하다. 그리고 인공적 인간에 있어서는 주권이 전신에 생명과 운동을 주는 인공의 혼이며, 각부의 장관들이나 그 밖의 사법 및 행정의 관리들은 인공의 관절이다. 보상과 처벌은 *(모든 관절이나 사지를 주권의 지위와 연결시켜 그 의무를 수행토록 하므로)* 신경이며 자연적인 인간의 육체와 같은 작용을 한다.

모든 개별적인 구성원의 부(富)와 재산은 힘이다. 국민 복지*(국민의 안전)*를 도모하는 일은 인공적 인간이 해야 할 역할이다. 고문관들은 인공적 인간이 잘 알고 있어야 할 모든 일에 대해 제안하는데 이 고문관은 기억이다. 형평과 법은 인공적인

1 《구약 성경》〈욥기〉 40~41장에 나오는 괴수의 이름이다. 41장 33~34절에 보면 '땅 위에는 그것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 없게 지음을 받았음이라.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 되느니라'라고 하여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극히 힘이 센 동물이며, 더욱 신의 힘은 이 동물을 넘어뜨릴 수 있다고 함으로써 신의 위대함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이성과 의지이다. 평화는 건강, 소요는 질병, 내란은 죽음이다. 끝으로 이 정치체(政治體)의 각 부분을 최초로 만들어 내고 모으고 결합한 약속 및 신약은 창세(創世)에 신이 널리 알리신 인간을 창조하자는 그 명령과 같은 것이다.

이 인공적인 인간의 성질을 서술하는 데 있어 나는 다음과 같은 것을 보고자 한다.

첫째, 그 소재(素材)와 창조자에 관한 것이지만 그것은 모두 인간이다.

둘째로, 어떻게 해서, 그리고 또 어떤 신약에 의해서 그것이 만들어지는가, 주권자의 여러 권리 및 그 정당한 권력 또 권위란 무엇인가, 더욱이 그것을 유지하고 와해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셋째로, 그리스도의 코먼웰스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암흑의 왕국이란 무엇인가?

첫째 점에 관해서 요즘 자주 역설되는 설(說)에 따르면 지혜라는 것은 책을 읽는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앎으로써 얻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결과 그 밖의 방법으로서는 자신의 지혜를 입증할 수 없는 태반의 사람들은 서로 그늘에서 사정없이 비난하는 것으로 자기가 사람에 관해 알게 됐다고 여기려고 하며 또한 그러함으로써 많은 기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대 자신을 알라'는 또 하나의 격언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사람이 애를 쓰기만 한다면 참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대 자신을 알라는 말의 뜻은 그것이 지금 쓰이고 있는 것 같은 권력자 밑의 사람들에 대한 야만스런 상태를 묵인하거나 신분이 낮은 사람의 높은 사람에 대한 건방진 태도를 장려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의 사고나 정념은 다른 사람의 그것과 비슷하므로 사람이 만약 자기 자신을 지켜보고 자기가 사고, 판단, 추리, 희망, 공포 등을 할 때 어떤 일을 하며, 또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하는가를 고찰한다면 이에 의해 사람은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다른 모든 사람의 사고나 정념이 어떤 것인가를 연구하고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있다.

여기서 나는 정념의 비슷함, 즉 모든 사람에게 있는 같은 욕망, 공포, 희망 등에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 정념의 대상, 즉 욕망, 공포 및 희망되는 것 등의 비슷함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같은 정념의 대상은 개인적인 자질이나 각 사람이 받는 교육에 따라서 극히 여러 가지이며 또 그것은 우리가 참으로 사물을 이해하도록 쉽사리 허용하지는 않는 것이므로 속임수의 거짓된 가짜의 또는 그릇된 교설(敎說)에 의해 요즘 볼 수 있는 것 같은 더럽고 혼동된 인심의 여러 성격은 마음을 탐구하는 자에게만 쉽게 판독될 수 있는 것들이다.

또 우리는 사람의 여러 행위로부터 때로는 그 의도를 탐지해 낼 수도 있으나 그것을 우리 자신의 행위와 비교하지 않고 사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조건과 구별하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것은 마치 암호를 푸는 열쇠 없이 암호문을 해독하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리고 탐독하려는 사람 자신이 선인(善人)인가 악인(惡人)인가에 따라서 지나치게 믿거나 또는 너무 의심하거나 해서 대부분 탐독을 그르치는 것이다.

그러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그의 행위에 의해 거의 완벽하게 안다고 해도 그것은 지극히 적은 수의 그의 친지에 대해서만 소용이 닿는 것이다. 전 국민을 통치하고자 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은 자기 자신 속에 이런 저런 개개의 인간이 아니고, 전 인류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어려운 일이며 어떤 어학이나 학문을 배우기보다도 어려운 것이며, 저자가 자기의 연구를 정연하고 명쾌하게 기술하면 다른 사람에게 남긴 노고는 다만 그도 역시 자기 자신의 내부에 같은 것을 볼 수 있지나 않을지 어떨지를 잘 생각해 볼 뿐일 것이다. 이런 일에 대한 학설에는 이 이외의 논증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나의 가장 존경하는 벗
고돌핀의 프랜시스 고돌핀 씨에게

존경하는 벗에게
귀하가 가장 아끼시던 종형이신 시드니 고돌핀 씨께서는 그의 생전에 본인의 졸작을 값어치 있는 것으로 생각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귀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종형께서는 나에게 그 모두가 위대한 내용의 참다운 증언을 보여 주셨고 그 분의 훌륭한 인격으로써 더욱 큰 은덕을 베풀어 주신 바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봉사케 하고, 조국을 위해 봉사하거나 시민 사회를 위해 봉사케 한다든지, 또는 절친한 우의관계를 지키도록 함에 있어서 그분께서는 평소의 대화 속에 이를 나타낸다든지, 또는 필요에 따라서, 아니면 기회를 보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천성 그 자체, 또는 그분의 고결한 자질 속에서 이 같은 덕성이 스스로 드러나게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그분을 존경하고 감사의 뜻을 나타내는 뜻에서 아울러 귀하에게 바치는 정성을 나타내는 뜻에서, 이 국가에 관한 나의 논술을 삼가 귀하에게 바치는 바입니다.
본인으로서는 이 책이 세상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지, 또한 이 책을 좋아한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 어떨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독자 가운데 이 책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어떤 쪽에서는 너무나 큰 자유라고 주장할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너무 많은 권위라고 주장하겠지만 사실 이 같은 쌍방의 논점을 상처 입히지 않고 빠져 나가기란 지극히 어려운 노릇입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소견으로서는 사회적 권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그 사회적 권력에 의해 비난받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 사람들이 이 같은 나의 노력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그 권력이 지나치게 크다고 생각한다고 단언하는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본인은 현재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권력의 지위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그 권외(圈外)에 있는 사람 또는 가령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친다면 내부에서 내부 사람에게 호감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노여움을 주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마치 로마의 카피톨 신전에 있던 단순 공평한 동물 거위(鵝鳥)가 그 속에 있던 사람들을 그들이 로마군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곳에 있었다는 이유에서 큰 절규를 나타내어 지켜 준 것이나 다름없는 이치입니다.
이 저술을 통해 가장 세상 사람들의 노여움을 사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되는 대목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보통 통용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목적으로 풀이하고, 본인이 《성경》의 몇 구절을 인용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 책의 논제를 살리기 위해)* 어찌할 수 없는 대목만 최선의 공경을 다해 인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성경》의 구절은 적의 외곽(外廓) 진지가 되어 그들은 거기를 거점으로 하여 사회적 권력에 대해 공격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저술에 대하여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되시면 변명해 주시는 번거로움을 아끼지 말아 주시고 본인은 나 스스로의 의견을 아끼는 사람이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인은 귀하의 종형을 존경하고 또 귀하를 존경함으로써 본인이 현재도 그러한 바와 같이 귀하의 가장 공경하고 순종하여야 하는 자격을 *(귀하의 양해 없이)* 분에 넘치게 얻었다고 하는 본인의 말을 모두 진실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리 1651년 4월 15일~25일
당신의 가장 겸허하고 가장 온순한 복종인
토마스 홉스

Leviathan, or the Matter, Forme, & Power
of a Commonwealth ecclesiastical and civille
리바이어던(국가론)
교회적 및 시민적 국가의 내용, 형태 및 권력

제 1 부

인간에 대하여

올재 후원하러 가기

제1장 감각에 대하여

사람의 여러 가지 사고에 관하여 나는 먼저 이 문제를 개별적으로 고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계열(系列)적으로, 상호 의존적인 것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개별적'으로 볼 때 이 사고란 어떤 질적인 사물의 '표상' 또는 '현상'이거나 인간 외적인 사물의 우연 상태를 말한다. 이 사물은 보통 대상(object)이라고 불린다. 이 대상은 눈이나 귀나 그 밖의 인체의 여러 부분에 작용하고, 여러 가지의 작용에 따라 여러 가지의 현상을 만들어 낸다.

모든 사고의 근원을 우리는 감각(sense)이라고 부른다. *(즉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는 개념은 모두 처음에는 전부 또는 일부씩 감각의 여러 기관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 나머지의 개념은 이 감각에 근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감각의 자연적인 원인을 안다는 것은 당장 해야 할 일로서 반드시 필요로 할 정도가 아니고, 또 나는 그것에 대해서도 다른 곳에서 상세하게 기술한 바 있다. 그렇지만 나의 학문적인 방법으로서 각각의 역할을 다하게 한다는 뜻에서 여기에서 그것에 관해 간단하게 논술하고자 한다.

감각의 원인은 외부 물체 즉 대상으로써 각 감각 기능에 대해 직접적으로는 미각과 촉각,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시각, 청각 및 후각 등의 기관에 대해 압력을 준다. 그리고 이 압력은 신경의 매개 또는 신체 근육과 박막(薄膜) 등의 매개를 거쳐 인체 내부로 들어와 두뇌와 심장에 이르게 되며, 이에 대한 저항, 반대 압력, 또는 심장 자체의 동계(動悸) 등을 자극시키게 된다. 그런데 이 같은 운동은 '외향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한 물체들이 외부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느끼게 마련이다.

그리하여 이 같은 '외관적'인 것이나 또는 '환상' 같은 것도 이른바 '감각'이라고 부른다. 또 우리는 눈으로 빛이나 '색채', 귀로는 '소리', 코로는 '냄새', 혀와 입천장으로는 '맛', 그리고 신체의 나머지 부분으로 '뜨겁고 차가운 것', '단단하고 부드러운 것', 그리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성질의 물체에서 '촉감'으로 그 특성을 식별하는 감각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부르는 성질의 모든 물체들은 그 물체의 원인이 되는 대상 속에 있기 때문에 사물의 수만큼의 여러

가지 운동에 지나지 않으며, 대상을 그 운동에 따라 우리의 여러 기관을 여러 가지로 압박하는 것이다. 압력이 더해진 우리의 내부에 있어서도 그것들은 또한 여러 가지의 운동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운동은 운동 이외의 그 어떤 것도 만들어 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운동이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게 될 때에는 그것은 환상이며 그것은 깨어 있으나 꿈속에 있으나 같은 것이다. 우리 눈을 누른다거나 문지른다거나 또는 자극을 줌으로써 우리에게 빛이 있다는 상상을 갖게 하고, 또 우리 귀에 압력을 줌으로써 소음을 생기게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하는 물체도 느끼지 못하지만 강한 작용에 따라 같은 일이 생기게 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같은 색채나 음향이 이를 발생케 하는 물체, 즉 대상에 그 색채나 음향을 대상으로부터 분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거울이나 메아리 속에서 그것들이 분리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있다고 알고 있는 장소와 그것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장소는 다르다. 그리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떨어지면 대상이 우리의 내부에서 생겨나게 한 환상을, 실제의 대상 그 자체가 속으로 가지고 있는 것같이 생각되지만 대상과 영상, 즉 환상은 다른 것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감각은 어떠한 경우에도 근원적인 환상에 지나지 않으며 이 환상은 *(내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우리의 귀나 눈,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필요한 여러 기관에 대하여 외부의 사물이 압박, 즉 운동을 일으켜 주는 것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스콜라 철학은 그리스도교 나라의 모든 대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서적을 바탕으로 하여 앞에서 논술한 학설과는 다른 학설을 가르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영상의 원인에 관해서는 우리 눈에 비치고 있는 사물이 여러 방향으로 '가시(可視)적인 종류(種類)', *(영어로 말하면)* 'visible species', '가시적인 표지〔visible shew〕'나 '현상〔apparition〕'이라든가 '외상(外相, aspect)', 또는 '보이는 것'을 내보내고 그것을 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시각'이며, '청각'의 원인에 관하여 말하면, 들을 수 있는 것이나 '청각적인 종류' 즉 '가청적인 상(相)', 또는 '들을 수 있는 것(audible being seen)'을 내보내어 그것이 귀에 들어옴으로써 '청각'이 생긴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이해하는 능력'의 원인에 대해서도 이해되는 것이 '가

지(可知)적인 종류', 즉 '사유(思惟)할 수 있는 것'을 내보내서 그것이 오성(悟性)에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나는 대학의 필요성을 부인하기 위하여 이러한 것을 논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나오는 코먼웰스에 있어서 대학의 할 일에 관하여 논급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무엇이 개혁되어야 하는가를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해 주기를 바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중요하지 않은 잔소리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도 그 한 예에 지나지 않는다.

제2장 상상력에 대하여

물체가 멈추고 있을 때에는 어떤 다른 것이 그것을 움직이지 않는 한, 그것은 영구히 정지한 그대로의 상태에 있을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의심치 않는 진리인 것이다. 그러나 물체가 운동하고 있을 때에는 무엇인가 다른 것이 그것을 저지하지 않는 한, 영원히 운동을 계속할 것이라는 것도 그 까닭은 앞의 경우와 같다고 해도 *(다시 말하면 어떠한 것도 그 스스로 변화할 수 없다)* 여간해서 손쉽게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이외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물체에 대해서도 자기 스스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자신이 운동 후에 고통과 피로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알고 다른 모든 것도 운동에 지치게 되어 저절로 쉬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의 사이에서 볼 수 있는 휴식에 대한 의욕은 어떤 다른 운동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으로부터 스콜라 철학은 무거운 물체는 그것에 가장 알맞은 곳에서 멈추어 그 본질을 보존하려고 하는 욕구에서 떨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터무니없는 것은 무엇이 그것의 보존에 있어 바람직스러운 일인가에 대하여 *(사람도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욕구와 지식을 무생물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

물체가 일단 운동하게 되면 그것은 *(무엇인가 다른 어떤 것이 저지하지 않는 한)* 영원히 운동을 계속하는 것이다. 만일 무엇인가가 그것을 저지한다면 곧바로는 아니지만 곧 그리고 천천히 그 운동을 끝내는 완전히 멈추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물에 대하여, 바람이 잔잔해진 뒤에도 오랫동안 물결이 출렁거리는 것을 멈

추지 않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이 사람의 내적 부분에서 생긴 운동에 대해서, 즉 사람이 보거나 꿈을 꾸거나 등등을 할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결국 어떤 대상이 없어지거나 또는 눈을 감은 뒤에도 그 사물을 현실적으로 보고 있을 때보다는 모호하지만 그 영상을 잃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라틴 사람들이 봄으로써 생기게 되는 이미지(image, 像)에서 이름을 따서 '상상력'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며 다른 모든 감각에도 적당하지는 않지만 꼭 같이 이 명칭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 사람들은 이것을 '환상'이라 부른다. 그것은 '현상'을 뜻하는 것이며, 각각의 감각에도 같이 알맞게 어울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상력이라는 것은 '쇠퇴해 가는 감각'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그 밖의 많은 생물에 있어 잠들고 있으나 깨어 있으나 똑같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깨어 있는 사람에게 있어 감각의 쇠퇴는 감각 속에서 생긴 운동의 쇠퇴가 아니라 그 운동을 많이 감추어 버리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햇빛이 별빛을 흐려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즉 별은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낮이나 밤이나 한결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눈이나 귀나 그 밖의 기관들은 외부의 물체로부터 받는 많은 자극 중에서 가장 강한 것만을 지각(知覺)하는 것이므로 태양의 빛이 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별의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인가 어떤 대상이 우리의 눈으로부터 없어지면 그 대상이 우리에게 준 인상은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뒤따라 보다 새로운 다른 대상이 나타나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한다면 낮 동안의 소란한 소리 속에 있어서의 사람의 소리와 같이 과거의 영상은 희미해지고 그리고 약해지는 것이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것, 즉 어떤 대상을 보고, 감각하고 난 후 시간의 경과가 오래되면 될수록 영상은 더욱더 쇠퇴해 간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체의 끊임없는 변화는 감각을 생기게 한 인체의 여러 부분을 곧 없애 버리고 시간의 간격과 장소의 간격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전적으로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장소의 간격이 크면 우리가 보는 것은 희미하게 보이고 또한 사소한 부분의 차이를 판연하게 볼 수 없고 또 소리가 약해져 불명(不明)해지는 것과 같이 시간적인 간격이 커지면 지난날에 대한 우리의 영상도 희미해져 간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미 스스로 본

적이 있는 도시에 관해서는 그 많은 가로(街路)를, 또 '지난날에 한'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의 사정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는 것과 같다. 이 '쇠퇴해 가는 감각'은 우리가 그 감각 자체, 즉 그 상상(fancy) 자체를 나타내려고 할 때에는 앞에서 논술한 바와 같이 '영상'이라 부른다.

기억 그러나 '쇠퇴'해 가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여 그 감각이 희미해져 낡은 지나간 것을 나타내려고 할 때는 그것을 '기억'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영상'과 '기억'은 다른 고찰의 결과 다른 명칭을 가지게 된 같은 것의 다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많은 기억, 즉 많은 것에 대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경험'이라 부른다. 또 한 번 되풀이하여 말하면 '영상'은 이미 전부를 단번에 또는 부분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감각으로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서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앞의 경우는 *(대상 전체가 감각에 지각된 대로 영상하는)* '단순 상상(單純像想)'이다. 예를 든다면 사람이 이전에 본 적이 있는 사람이나 또는 말(馬)을 연상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뒤의 경우는 '복합(復合) 상상'인데, 예를 들면 어느 한때 보았던 사람의 모습과 다른 때에 보았던 말의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반인반마(半人半馬)의 켄타우로스(Centaure)를 마음속에 그리는 것과 같은 경우가 그것이다. 이와 같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에 관한 영상과 다른 사람의 행위의 영상을 복합하여, 예를 들면 자기 스스로를 헤라클레스나 또는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이라고 상상한다면 *(이것은 이야깃거리를 읽고 그것에 완전히 매혹당한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지만)* 그것은 복합상상이며, 실제로는 마음의 가상(假想)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눈을 뜨고 깨어 있는 것이지만)* 감각 속에서 생기는 강한 인상에 의하여 사람에게 일어나는 다른 영상이 있다. 예를 들면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면 태양의 인상은 우리의 눈앞에 나중까지도 한참 오랫동안 태양의 영상을 남기는 것이며 또 오랫동안 열심히 기하학적(幾何學的) 도형에 쏟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둠 속에서도 눈을 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선(線)이나 각(角)의 영상을 보는 것과 같은 경우가 그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상상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논의(論議) 속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명칭을 가지지 않는다.

꿈 잠자는 사람들의 영상을 우리는 '꿈'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다른*

모든 영상과 같이) 이미 전체적으로 단 한 번에 또는 부분적으로 감각 속에 있었던 일이다. 그리고 감각에 있어서는 거기에 없어서는 아니될 기관인 두뇌와 신경은 수면 상태에서는 활발하지 않게 되고, 외적인 대상의 작용에 의하여 손쉽게 움직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수면 중에는 영상은 생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꿈은 인체의 내적 부분의 정신적인 흥분에 의하여 생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내적 부분은, 두뇌와 그 밖의 여러 기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앞의 것(두뇌)이 그 조화를 잃으면, 뒤의 것(여러 기관)을 계속 움직이는 상태에 있게 하여 거기에는 이미 만들어진 영상이 마치 사람들이 깨어 있을 때와 같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때는 감각의 여러 기관은 활동하지 않게 되어 있어 보다 강렬한 인상으로서 그들(기관)을 다스리거나 흐리게 하는 새로운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 감각의 정지 상태에서는 꿈은 반드시 우리가 깨어 있을 때의 생각보다도 더욱 명확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서 감각과 꿈을 엄격하게 식별한다는 것이 어렵고, 많은 사람들은 그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나 스스로서는 내가 꿈속에서, 깨어 있을 때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인물, 장소, 대상, 그리고 행위에 대하여, 자주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도 생각하지 않으며 또 계속적인 사고의 계열, 즉 꿈을 다른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또 깨어 있을 때는 가끔 꿈의 불합리성을 깨닫게 되지만, 내가 깨어 있을 때의 사고의 불합리성을 꿈으로 본다는 것은 결코 없으므로 꿈속에서는 스스로 깨어 있다는 것을 생각은 하지만, 깨어 있을 때에는 스스로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것이다.

꿈은 신체의 어느 내적 부분의 이상(異常)에서 생겨난다고 생각한다면 그 여러 가지의 정상이 아닌 것은 다른 꿈을 생기게 하는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두뇌에서 내적인 부분 운동과 내적인 부분으로부터 두뇌에로의 운동은 상호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춥게 자고 있으면 무서운 꿈이 나타나고, 어떤 공포의 대상에 대한 생각과 영상이 생겨나고 또한 우리가 깨어 있을 때라도 화를 내면 신체의 어떤 부분에 열기(熱氣)를 생기게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자고 있을 때는 그 부분을 과열(過熱)하면 노여움이 일어나 두뇌 속에 적(敵)의 영상을 만들어 내게 된다. 그와 꼭

같이 인간 본래의 애정이 우리가 깨어 있을 때에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의욕은 신체의 어떤 다른 부분에 열기를 일으키는 것과 같이, 수면할 때 그 부분을 과열하면 이미 받은 어떤 애정의 영상을 두뇌 속에 만들어 낸다. 요컨대 우리들의 꿈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의 영상이 반대의 방향을 택한 것으로서 그 운동은 깨어 있을 때는 한쪽 끝에서 시작하여 꿈을 꾸고 있을 때는 다른 쪽의 끝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환영(幻影) 또는 환상(幻像) 사람이 꿈과 그들이 깨어 있을 때의 그의 생각을 구별하는 것이 보다 더 어렵다는 것은 대수롭지 않는 일 때문에 자기가 잠을 잤다는 것을 깨닫지 않는 경우이다. 이러한 일은 사람의 마음이 두려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양심이 크게 시달리고, 더욱 의자에 앉아 선잠이 드는 것처럼 잠자리에 눕거나 옷을 벗을 경황도 없이 잠을 자 버리는 사람들에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즉 잠들기 어렵고 억지로 누워 잠들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기괴(奇怪)하고 종잡을 수 없는 환상이 나타날 때에 그것이 꿈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라고 쉽사리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마르쿠스 브루투스*(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 생명을 구제받고 그의 호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해한 사람)*가 필리피에서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와 교전(交戰)하기 전날 밤 공포에 가득 찬 환영을 보았다는 사실을 읽어 알고 있다. 역사가들은 일반적으로 이것을 환상이라고 보아 넘기지만, 당시의 정황을 생각해 보면 잠깐 동안의 꿈이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의 초조한 행위의 두려운 생각에 깊이 빠져 괴로워하면서 막사(幕舍) 속에 앉은 채 추위에 떨면서 자기도 모르게 깜박 잠들어 버린 이 사나이가 그를 무엇보다도 몸서리치게 괴롭히고 있는 일을 꿈속에서 본다는 것은 능히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이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점차 잠을 깨게 했고 아울러 그 환영을 사라지게 한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잠을 자고 있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꿈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환상이라고 믿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멀쩡하게 깨어 있는 사람들조차도 만일 그가 겁쟁이인데다 미신에 깊이 젖어 있고, 무서운 이야깃거리에 홀려 있을 때 어두운 곳에 혼자 있게 되면 앞에서 말한 그러한 환상에 빠지기 쉬운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유령이나 망령이 묘지에서 헤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믿지만 실은 그들의 상상에 지나지 않거나 또는 이와 같은 미신적인 공포심을 노리는 자의 장난인 것이다. 그런 사람은 밤중에 변장을 하고 들키지 않을 만한 장소로 가는 것이다.

이러한 꿈이나 그 밖의 강한 환상을 환영이나 환각과 어떻게 식별할지를 모르는 무지가 저 옛날의 숲 속의 정령(精靈), 목신(牧神), 요정(妖精) 등을 숭배하는 이방인의 종교의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무지한 사람들이 믿는 마녀, 유령, 요마(妖魔)에 대한, 또는 마녀의 마력에 대한 망상을 만들어 낸다. 마녀에 관해 말한다면, 나는 그 마력이 무언가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런 마녀들이 여러 가지 흉흉한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는 그릇된 신념이 퍼져 있고 만일 가능하기만 하다면 그런 짓을 하려는 악의를 지니고 있으므로 그런 여자를 처단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마녀들의 소행은 기술이나 과학이라고 하기보다는 새로운 종교에 가까운 것이다. 또 요녀(妖女)라든가 헤매고 다니는 유령에 대한 망상도 부적(符籍)이라든가 십자가, 성수, 그 밖의 성직자가 생각해 짜낸 비슷한 관행처럼 이것을 믿도록 일부러 가르치기도 어렵고 감히 반박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신만이 초자연적인 환영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일이며 이와 마찬가지로 신이 정지(停止)시키고 또 변화시킬 수 있는 자연적 행로의 정지 또는 변화에 대한 공포보다 더 큰 공포를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환영에 대해 지녀야 할 만큼 신이 이런 일을 빈번히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신앙의 주안점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악한 사람은 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구실로 삼아 대담하게도 스스로가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어떠한 말도 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의 말은 올바른 이성에 의해 확실하다고 신뢰할 수 있는 이상으로는 믿지 않는 것이 현명한 사람의 태도일 것이다. 만일 이런 망령에 대한 미신적인 공포심이 없어지게 되고 또한 점쟁이의 터무니없는 예언이나 이런 데 바탕을 둔 그 밖의 여러 가지 사실, 예를 들면 교활하고 야심을 품은 사람들이 순박한 사람을 악용하는 일이 없어진다면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국가에 순종하기 쉽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은 스콜라 학파가 해야 할 일인데도 그들은 오히려 그런 교리(敎

理)를 조장하고 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그들은 *(환상이나 감각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믿고 또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어떤 사람은 환상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므로 어떤 원인도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며, 또 다른 사람은 환상은 거의가 일반적으로 의지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또 선량한 생각은 신이 사람의 마음속에 불어넣고*(숨을 불어넣고)* 사악한 생각은 악마가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혹은 선량한 사고는 신이 인간의 마음속에 불어넣고*(유입시키고)* 사악한 사고는 악마가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더욱 어떤 사람은 흡사 물건을 차례로 넘겨주듯이 감각은 사물의 형상을 감각하여 이를 의식 일반에 넘겨주고 의식 일반은 이것을 상상에 넘기며 또 상상은 기억에, 기억은 판단에 넘겨주는 식으로 많은 어휘를 쓰고 있지만 무엇 하나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지 못한다.

이해 말이나 그 밖의 의지의 표시에 의해 인간 *(혹은 그 밖의 상상력이 있는 피조물)*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영상은 보통 우리가 '이해'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인간과 동물에 공통적인 것이다. 예를 들면 개는 주인이 부르는 소리나 질책 소리를 습관에 의해 이해하며 그 밖의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에게만 특유한 이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물의 이름으로 연결되고 구성되어 긍정이나 부정, 그 밖의 다른 말의 형태가 이루는 개념이나 사고까지도 이해하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이해에 대해서는 다음에 논하기로 하자.

제3장 상상의 연속 또는 계열에 대하여

사고의 '연속' 즉 '계열'이란 *(언어로 하는 말과 구별하여)* '마음속에서 하는 말'이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사고가 차례로 이어지는 것을 뜻한다.

사람이 어떤 물건이나 일에 대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다음에 계속되는 그의 사고는 피상적으로 생각되는 것처럼 전혀 우연적인 것만은 아니다. 즉 모든 사고는 어떤 사고든지 무차별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우리가 그에 대해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이전에 감각한 일이 없는 사물에 대해 그 영상을 가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의 영상에서 다른 영상으로 옮겨 가는 것도, 그에 대해 똑같은

일이 우리의 감각 속에서 아직 한 번도 진행된 일이 없었다면 성립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모든 상상은 우리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운동이며, 감각 속에서 진행된 이러한 운동의 흔적이기 때문에 감각 속에서 차례로 직접적으로 연결된 이러한 운동은 감각한 후에도 그대로 함께 연결되어 있게 된다. 만일 앞의 것이 재차 일어나려고 하여 그것이 두드러지게 뚜렷이 나타나면, 평평한 책상 위에 있는 물의 어떤 부분을 손가락으로 끌면 그 쪽으로 밀려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뒤의 것은 운동하는 물질의 응집력에 의해 딸려 오게 된다. 다만 감각에 있어서는 완전히 동일한 것이 지각된 경우에도 어떤 때는 이런 것이, 다른 때는 다른 것이 연속되기 때문에 결국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다음에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의 확실성이 없는 일이 된다.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전에 연속된 일이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 뒤를 이으리라는 사실이다.

지도되지 않은 사고(思考) 계열 사람의 사고의 계열 혹은 마음속의 말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지도되지 않고 의도도 없으며' 일정치 않은 그것이다. 여러 가지의 의욕이나 정념(情念)의 목적으로서 뒤따르는 여러 가지 사고를 자기 쪽으로 이끌어지도록 하는 것과 같은 강력한 사고의 경우가 그것이다. 이런 경우 그 많은 사고는 얼핏 종잡을 수 없으며 마치 꿈속에서처럼 서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말벗이 없을 뿐 아니라 특별히 마음을 끌 만한 관심사가 없는 사람들의 사고에 흔하다. 그런 경우에조차도 그들의 사고는 다른 경우와 똑같이 분방하게 활동하고 있으나 거기에는 조화라는 것이 없으며 마치 음정이 맞지 않는 악기를 다룰 때 나는 음처럼, 혹은 설사 음정이 맞더라도 그것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 소리를 냈을 때의 음과 흡사한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종잡을 수 없는 마음의 방황 속에서도 때로는 그 방향과 어떤 사고와 그 밖의 사고 사이의 의존 관계를 감지한다. 말할 나위도 없이 우리나라의 오늘날 내란에 대해 논란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로마 시대의 페니 은화의 가치가 어느 정도의 것이었는가를 따지는 것처럼 엉뚱한 의문은 다시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의문도 논리적 일관성이 확실히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 무슨 뜻이냐 하면 전쟁을 생각하면 국왕을 적에게 넘겨준다는 생각을 이끌어 내고, 이런 생각은 그리스도를

넘겨준 것을 생각케 되며 이것은 더욱 배신의 대가인 30펜스를 생각케 되어 이렇게 해서 그런 기분 나쁜 의문으로 쉽사리 이어진다는 것이다. 사고는 빠르기 때문에 이상과 같은 모든 일이 순식간에 진행된다.

규제된 사고 계열 두 번째의 사고 계열은 어떤 의욕이나 의도에 의해 '규제'되고 있어 앞의 것보다 지속적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욕이나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갖게 된 인상은 강렬하고도 또한 지구적이며 *(만일 그것이 한때 소멸했더라도)* 즉각 원상(原狀)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이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우리의 잠을 방해하고 또 잠을 깨울 정도가 되기도 한다. 의욕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을 이전에 획득케 해 준 일이 있는 몇 가지 수단을 생각케 된다. 이런 생각으로부터 그런 수단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생각케 되고 다시금 이런 식으로 자기의 능력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실마리를 잡을 때까지 이를 계속한다. 따라서 인상이 강하기 때문에 그 목적이 빈번히 마음에 떠오르므로 우리의 사고가 방황하기 시작하면 즉각 그 목적의 방향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이런 사실은 그리스의 칠현인(七賢人) 중의 한 사람인 '키론(Chiron)'이 논급했는데 지금은 이미 완전히 잊혀진 격언이지만 그는 '자기의 목적을 항시 명심케 하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것이 뜻하는 것은 그대가 행동을 할 때에는 그대가 찾는 것을 성취할 때까지 그대의 모든 사고의 침로(針路)가 바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자주 살피라는 것이다.

규제된 사고의 계열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상상한 어떤 결과에 대해 우리가 그런 결과를 이끌어 내는 원인이나 수단을 찾는 경우인데, 이것은 인간이나 동물에 공통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무언가 어떤 것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그것에 의해 이끌어 낼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결과를 알려고 하는 경우인데 이런 때는 우리가 그것을 소유한 연후에 그것에 의해 생길 수 있는 결과를 상상하는 경우이다. 나는 아직 한 번도 인간 이외의 것에서는 이런 경우의 어떤 흔적도 찾아보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의 호기심이라 할 수 있으므로 목마름, 욕정, 노여움과 같은 감각적인 것 외에는 아무런 감정도 갖지 않는 모든 생물의 본성을 고려할 때 전혀 생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마음속의 말이란 그것이 의도에 의해 지배되

는 한, '탐구'하고 발견하는 힘에 지나지 않은 것이며 라틴 사람들은 이것을 '통찰력' 또는 '탐구력'이라 불렀으며 이는 현재나 과거의 어떤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을 추구할 것이고 혹은 현재나 과거의 어떤 여러 결과를 추구하는 일이다. 사람은 때때로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때가 있다. 그때 그는 마음속으로 그가 그 물건을 잃어버린 사실을 깨달은 장소와 시간을 바탕으로 하여 그가 그전에 그것을 지니고 있었던 장소와 시간을 알아 내기 위해 차례로 장소와 시간을 거슬러 더듬어 간다. 즉 탐색하는 방법을 시작하기 위해 어떤 특정한 한정된 시간과 장소를 발견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다시 한 번 그의 사고는 이들 시간과 장소를 훑어보고 그가 그 물건을 잃어버렸으리라고 짐작되는 행동이나 기회를 찾아 내려고 한다.

회상 이것을 우리는 '회상' 또는 '상기(想起)'라 부른다. 라틴 사람들은 이를 '상기한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이전의 행위의 재음미를 뜻한다.

때때로 사람은 그가 찾으려는 범위 중에서 어떤 장소가 명확히 한정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그의 사고는, 보석(寶石)을 찾아 내기 위해 방안을 뒤지고, 또 스패니얼 개가 쫓는 짐승의 취적(臭跡)을 탐지할 때까지 들판을 돌아다니고, 또 시를 만드는 데 알맞은 운(韻)을 잡기 위해 알파벳을 죽 훑어보듯이 그 장소의 구석구석을 잘 훑어본다.

신려(愼慮) 때때로 사람은 어떤 행위의 결과를 알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는 그와 비슷했던 어느 과거의 행위와 그 결과를 하나씩 차례로 생각한다. 비슷한 행위에는 비슷한 결과가 따를 것으로 짐작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그것은 어떤 한 범죄자가 어떤 결과에 이를 것인가를 예측하는 사람이 이전의 비슷한 범죄가 어떤 귀결에 이르렀는가를 그 범죄, 관헌, 감옥, 재판관, 교수대라는 생각의 순서로 다시 살피는 것과 같다. 이러한 유(類)의 생각은 '예상(豫想), 신려(愼慮) 또는 신려(神慮)' 그리고 때로는 '지혜'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측은 모든 조건을 두루 살피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실수를 범하기 대단히 쉬우나 다음과 같은 것은 확실하다. 즉 과거의 일에 있어서 남보다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그만큼 사려 분별(思慮分別)이 깊고 그만큼 그의 기대는 적게 빗나간다는 사실이다. '현재'만이 자연 속에 존재하고 있으며

'지나간' 일은 기억 속에만 존재하며 '다가올' 일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미래'는 과거의 행위의 귀결을 현재의 행위에 적용한 마음의 가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미래에 대해 논하는 것은 가장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가장 확실하게 행할 수 있으나 그렇더라도 충분한 확실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결과가 우리의 기대에 부합할 때에는 그것은 신려(愼慮)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자체는 가정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가올 일에 대한 예측은 신려(神慮)이며 이는 의지에 의하여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신 자체에만 속하기 때문이다. 예언은 신에게서만 나오며 초자연적으로 생긴다. 가장 훌륭한 예언자는 당연히 가장 훌륭한 예측자이며, 그리고 가장 훌륭한 예측자는 그가 예측하는 일들에 대해 가장 정통하고 깊이 아는 자이다. 그는 예측을 위한 표징(表徵)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표징 '표징'이란 귀결의 전제(前提) 사상(事象)이며 비슷한 귀결이 전에 벌써 예측된 경우에는 반대로 전제의 귀결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관찰을 많이 했으면 그만큼 표징의 불확실성은 감소한다. 그러므로 어떤 유(類)의 일에 대해 가장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은 미래를 예측하는 데 필요한 표징을 가장 많이 가지며 따라서 가장 사려 분별이 깊다. 그리고 많은 청년이 아마도 반대 의견을 제시하겠지만 이런 일에 이제 겨우 발을 들여 놓은 자가 타고난 기민한 기지에 있어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로서는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정도의 사려 분별을 경험자는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을 동물과 구별하는 것은 그 신려(愼慮)가 아니다. 겨우 한 살짜리가 10세의 어린이보다 많은 것을 보고 무엇이 이익이 될지 보다 신중하게 추구하는 동물도 있으니 말이다.

과거에 대한 추측 신려가 '과거의 경험'에서 집약된 '미래'에 대한 '추정'인 것처럼 과거의 사물에 대한 추정이 *(미래가 아닌)* 똑같은 과거의 다른 사물에서 습득되는 경우도 있다. 즉 번영했던 국가가 어떤 과정과 단계를 거쳐 끝내는 내란에 말려들고 이어서 멸망에 이르렀는가를 목격한 일이 있는 사람은 다른 국가의 멸망을 보고 거기에도 비슷한 전쟁과 여러 과정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기 때문이다. 그러

나 이 추측은 미래에 대한 추측과 거의 같을 정도로 불확실한 것이다. 어느 경우이든 경험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타고나면서부터 인간에 안겨져 있고 따라서 그것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으로서 태어나 오감(五感)을 활용하며 살아가는 것만으로서 사는 것과 같은 사람의 마음의 작용 이외에는 나는 생각해 낼 수가 없다. 내가 이제부터 논하려고 하는, 또 인간에게만 고유한 것으로 보이는 그 외의 여러 가지 능력은 후천적인 것이고 연구와 노력에 의해 증대될 수 있는 것이며 이들 능력은 대개의 사람에 있어 지도와 훈련의 결과로 습득된 것이다. 그리고 이런 능력은 모두가 언어의 발명에서 생긴 것이다. 그 이유는 인간의 마음에는 감각, 사고, 사고 계열 이외에는 어떤 운동도 없기 때문이다. 똑같이 이러한 능력은 다만 언어와 수단의 도움으로 인간을 다른 모든 생물과 구별할 수 있는 고차적인 단계에까지 인간을 진보시킬 수 있다고 말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무한적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모두 '한정적'이다. 따라서 우리가 '무한하다'고 부르는 것에 대해 관념이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도 그 마음에 무한한 크기에 대한 영상을 가질 수는 없으며 무한한 속도, 무한한 시간, 또한 무한한 강도(强度)나 무한한 힘을 생각할 수도 없다. 우리가 어떤 사물이 무한하다고 말할 경우에는 그 사물의 종국이나 한계를 우리는 생각할 수 없다는 사실만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그 사물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능력의 결여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의 이름이 쓰이는 것은 우리에게 신을 개념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를 찬양하게끔 하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신은 이해(理解)를 초월한 존재이며 그의 위대함과 힘은 개념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내가 *(앞서 논한 바와 같이)* 우리가 개념화하는 것이 무엇이든 먼저 감각에 의해 전부를 일시에 혹은 일부분씩 지각한 것이므로 인간은 감각에 작용하지 않는 것을 표현하는 사고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하한 사람도 어떤 사물을 그것이 어떤 장소에 존재하고 확정적인 어떤 크기를 가지며 여러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라고 달리 생각할 수가 없다. 어떤 사물이 전부 이곳에 존재하면서 동시에 다른 장소에도 있다든가, 또 두 개 내지 그 이상의 사물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존재한다고도 생각할 수가 없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러한 일은 어느 쪽이나 아직 감

각에 생긴 일이 없고 또 생길 수도 없는 일이며 분명한 아무런 의미도 없으며 기만된 철학자나, 기만된 또는 기만되고 있는 스콜라 학자들로부터 믿고 차용해 온 불합리한 언어에 지나지 않는다.

제4장 언어에 대하여

언어의 기원 '인쇄술'의 발명은 참으로 교묘한 것이지만 '문자'의 발명에 비하면 대단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누가 최초로 문자의 사용법을 발견했는지는 모른다. 다만 이를 최초로 그리스에 가져 온 것은 페니키아 왕 아게노르의 아들 가드무스였다고 알려져 있다. 문자는 지난날의 기억을 지금까지 남기고 지구상의 무수히 많은,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인류를 서로 연결시키는 데 유익한 발명이기는 하지만 퍽 어려운 발명이기도 했다. 즉 그것은 혀, 입천장, 입술, 그 밖의 발성 기관의 복잡한 운동을 주의깊이 관찰하여 이 관찰에 의해 이들의 움직임을 기억하기 위한 같은 수의 문자가 만들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귀중하고 유익한 발명은 '명사' 바꾸어 말하면 '명칭' 및 이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언어의 발명이었다. 이 발명에 의해 사람들은 자기의 사고를 기록하고, 그 사고가 옛일에 속하는 것일 때는 그것을 생각해 내고, 그리하여 이러한 사고를 서로의 이익이나 교제를 위해 서로 전했던 것이다. 이것 없이는 인간 사회에는 사자나 곰이나 여우와 똑같이 코먼웰스도 사회도 계약도 평화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언어를 최초로 창조한 것은 '신' 자신이며 신은 '아담'에게 자기가 그의 눈앞에 보여 준 피조물을 무엇이라 부르는지를 가르쳤던 것이다. 《성경》은 이에 대해 그 이상 기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담이 피조물에 대해 경험을 쌓고 그것을 이용하는 동안에 그것이 계기가 되어 명사를 추가하고 또 스스로 이를 이해하기 위해 이것들을 차례로 결합하는 쪽으로 관심을 돌리도록 하는 데는 이것으로 충분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웅변가나 철학자가 필요로 할 만큼 풍부한 것은 못 되지만 그가 용도를 발견한 만큼의 언어를 얻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아담이 모든 형(形), 수(數), 척도, 색채(色彩), 음(音), 상상(想像), 관계(關係)의 명칭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추측을 할

수 있는 근거를《성경》속에서 하나도 찾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물며 '일반적인, 특수한, 긍정적인, 부정적인, 의문적인, 희망적인, 무한정적'이라고 하는 말이나 언어*(이것들은 모두 필요한 것이지만)*에 있어서 그러했고 특히 '실체, 지향성(志向性), 본질' 등 스콜라 학파의 무의미한 말에 대해서 그러했다.

그러나 아담과 그 자손에 의해 획득되고 증가된 이들 모든 언어는 다시금 바벨탑에서 잃게 되었다. 그때 모든 인간은 그 반역의 죄과에 의해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언어를 잊어버리는 천벌을 신의 손으로부터 받았던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지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온갖 종류의 말의 사용은 필요*(그것은 발명의 어머니이다)*가 가르쳐 준 것으로써 거기에 따라 이들 사람 사이에서 생겨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에 여러 곳에 여러 가지 말이 차차로 증가하게 된 것이 틀림없다.

언어의 효용 언어의 일반적 효용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말을 언어로 옮기거나 또는 우리의 사고의 계열을 언어의 계열로 옮기는 것으로서 따라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편리한 점이 있다. 그 하나는 우리의 사고의 연속을 기록하는 것의 우리가 번번이 잊기 쉽고 또 그것을 다시 생각해 내기 위해 새로이 고심하는 그런 연결관계가 그들에게 부호로서 붙여진 말에 의하여 또다시 상기시키는 일이다. 따라서 명칭의 최초의 효용은 회상의 '부호' 또는 '기호'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많은 사람이 같은 말을 *(그 결합과 어순에 의해)* 각각의 사물에 대해 무엇을 뜻하며 또는 그 말로 무엇을 생각하는가를, 또 그들이 무엇에 대해 욕망이나 공포, 그 밖의 감정을 품고 있는가를 상호 간에 알려 주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이다. 그리하여 이런 효용에 의해 이들 말은 '표징'이라 불린다. 언어의 특수한 효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첫째, 사고 활동에 의해 우리가 현재나 과거의 원인이라고 인지한 것, 또는 현재나 과거의 사물이 초래하여 결과할 것으로 인지한 것을 기록하는 일인데, 이상과 같은 것은 요컨대 학문의 획득을 가져온다. 둘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즉 서로 조언하고 가르치는 일이다. 셋째는 우리의 의지나 목적을 타인에게 전하여 서로 돕게 하는 일이다. 넷째, 우리의 말을 즐길 목적으로, 혹은 문장에 빛을 주기 위해 아무런 생각 없이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즐겁게 하는 일이다.

언어의 악용 언어의 이러한 효용에 맞먹는, 이에 대응하는 네 가지 악용의 예가 있다. 첫째, 사람들이 그들의 말의 부정적인 면 때문에 자기의 사고하는 바를 잘못 기록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 그들은 확실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생각한 듯이 기록하며, 그럼으로써 스스로를 기만한다. 둘째는 사람들이 말을 비유적으로, 즉 그 말이 정해진 이외의 의미로 쓰는 경우인데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 셋째는 사람이 말을 이용하여 스스로의 의지가 아닌 것을 자기의 의지라고 표명하는 경우이다. 넷째는 사람이 상대방을 서로 괴롭히기 위해 말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자연이 어떤 동물에는 이빨을, 다른 것에는 뿔, 또 다른 것에는 손으로 적을 괴롭히도록 무장시키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혀로 적을 괴롭히는 것은 우리가 그를 지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그 경우 이것은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교정(矯正)하여 개심시키기 위해 그러는 것이지만—를 제외하고는 언어의 악용 외에 달리 소용이 없을 것이다.

언어가 원인과 결과의 연속에 대한 회상의 역할을 하는 것은 '명칭'의 부여와 그들의 '결합'에 있다.

고유 명사와 공통 명사 명사 중에서 어떤 것은 '피터', '존', '이 남자', '이 나무'라고 할 때처럼 '고유'하고 오직 하나의 사물에 특유한 것이 있다. 또 어떤 것은 '사람', '말(馬)', '나무'라고 할 때처럼 많은 사물에 '공통적'인 것인데 이것들은 모두가 하나의 명칭에 지나지 않으나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개개의 사물에 대한 명칭인 것이다.

보편 명사 그래서 이런 유의 명칭은 일괄적으로 '보편적'이라 부른다. 이름이 붙여진 사물은 그 하나하나가 개별적이고 특수한 것이므로 명칭 이외에 보편적인 것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의 보편 명사는 많은 사물이 어떤 질이나 우연성에 있어서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사물에 부여된다. 그리하여 고유 명사는 하나의 사물밖에 생각나지 않게 하는 데 반해 보편 명사는 이들 수다(數多)한 사물 중에서 어떤 하나를 상기시킨다.

그리하여 보편 명사 중에서 어떤 것은 보다 넓은 뜻을, 어떤 것은 보다 좁은 뜻을

나타내어 넓은 것은 좁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 또 어떤 것은 같은 뜻을 갖고, 서로 다른 뜻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육체'라는 명사는 '사람'이라는 말보다도 넓은 뜻을 가지며 이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이나 '이성적'이라는 명사는 같은 뜻을 가지면서도 서로 다른 의미도 품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은 하나의 명사라고 하지만 문법의 경우처럼 오로지 하나의 말이라고 한정할 수 없고 때로는 완곡한 말을 돌려써서 많은 말이 똑같이 쓰이는 일이다. 예를 들면 '그의 행위에 있어서 그는 국법을 지키는 자'라는 말의 모든 것은 뜻을 '올바르다'는 이 한 마디와 같은 하나의 명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명사 중에서 어떤 것은 넓은 뜻을 가지며 어떤 것은 보다 엄밀한 의미를 나타내나, 명사의 이러한 의미 여부에 의해 우리는 마음속에서 상상한 사물의 논리적 귀결에 관한 계산을 명사의 논리적 귀결에 관한 계산으로 전화시킨다. *(예를 들면 선천적으로, 그리고 지금도 아직 완전한 농아자와 같이)*, 말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도 자기 눈앞에 삼각형을 놓고 그 옆에 두 개의 직각*(정방형의 우각(隅角)과 같은 것)*을 놓았을 때, 묵상(默想)에 의해 비교하고 그 삼각형의 세 개의 각은 그 옆에 있는 두 개의 직각과 같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 말한 삼각형과 모양이 다른 별개의 삼각형을 내놓으면 그는 새로이 애쓰지 않고는 이 삼각형의 세 개의 각도 역시 그 두 개의 직각과 같은지 어떤지를 알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삼각형의 세 개의 각과 두 개의 직각이 같은지의 여부는 삼각형의 변의 길이라든가 또는 다른 어떤 특수한 것의 귀결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변이 직선이며 각이 세 개라는 사실—이것이 그것을 삼각형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의 전부이다—의 귀결에 의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는 대담하게도 이러한 각도의 동일성은 어떤 삼각형에도 존재한다고 보편적으로 결론을 내린다. 그리하여 그는 이 발견을 '모든 삼각형은 두 개의 직각과 같은 세 개의 각을 가진다'는 일반적인 말로 기록할 것이다. 이와 같이하여 하나의 특수한 사례에서 발견된 귀결은 보편적 법칙으로서 기록되어 다시 읽히기에 이르며 매번 장소와 시간이 다를 때마다 마음속 계산으로 우리의 수고를 덜어 주며 최초의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든 심적 노고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이렇게 하여 '이곳에

서 지금' 진실로서 발견된 것을 모든 '시간과 장소'에 있어서도 진실일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우리의 사고를 기록하는 언어의 효용 중에서 계수(計數)만큼 그 효용이 뚜렷한 것은 없다. 1, 2, 3과 같은 수사(數詞)의 순서를 명확히 암기할 수 없는 천성(天性)의 바보라도 시계가 치는 것을 하나씩 관찰하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하나, 하나, 하나 하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몇 시를 쳤는지를 아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다. 또 이들 수의 낱말이 사용되고 있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산하고 싶은 사물이 있으면 한 손 또는 두 손의 손가락을 쓰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수사가 어떤 민족에 있어서는 10까지 밖에 없고 또 어떤 민족은 5까지 밖에 없어서 거기까지 이르면 다시 새로 시작하는 것은 이런 것에서 연유하고 있다. 10까지를 헤아릴 수 있는 자라도 터무니없는 순서로 그것을 헤아려 올라간다면 영문을 알 수 없게 될 것이며 언제 그 셈을 끝냈는지도 모르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은 더구나 가감이나 다른 모든 운산(運算)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언어 없이는 수를 계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더욱이 인류의 생존과 행복을 위한 계산을 필요로 하는 크기, 속도, 강도 및 그 밖의 여러 가지의 계산은 하지 못할 것이다.

두 개의 명사가 결합되어 귀결 또는 단정이 된다. 예를 들면 '인간은 태어나는 피조물'이라든가, '만일 그가 인간이라면 그는 출생하는 피조물'이라든가 하는 경우, 만일 뒤의 명사 즉 '태어나는 피조물'이 앞의 명사, 즉 '인간'이 뜻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면 이 단정 또는 귀결은 '진실'이며 그렇지 않으면 '허위'이다. 즉 '진위'는 언어의 속성이며 사물의 속성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언어가 없는 곳에는 '진실'도 '허위'도 없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을 일을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았던 일을 그러했다고 생각할 때 '오류'가 생길 것이며 그런 때에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은 진실하지 않은 이유로 비난받는 일은 없는 것이다.

정의의 필요 이때 진실이란 우리가 단정을 내릴 때 여러 명사를 바르게 배열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정확한 진실을 구하려면 그가 사용하는 명사가 각기 무엇을 뜻하는가를 회상하여 이에 따라서 배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새

덫에 걸린 새처럼 언어에 발목이 잡혀 허우적거리며 허우적거린 만큼 감기고 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이 인류에게 하사한 유일한 학문인)* 기하학에 있어서는 사람들은 그들의 언어의 의미의 결정에서 시작하여 이런 의미의 결정을 그들은 '정의'라 부르며 이것을 그들의 계산의 맨 앞에 놓는다.

따라서 진정한 지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이제까지의 저술가들의 정의를 검토하여 정의가 소홀하게 규정하고 있으면 정정하고 혹은 여러 가지의 정의를 자기 스스로 만드는 일이 왜 필요한가가 분명해진다. 왜냐하면 정의의 오류는 계산의 진행에 따라 저절로 커져서 사람들을 불합리에로 이끌며 그렇게 하여 이러한 불합리를 마지막에 가서야 깨닫지마는, 이러한 오류의 근거가 있는 발단의 부분에서부터 또 한 번 계산을 하지 않는 한 그것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즉 책을 신용하고 배우는 사람은 수다한 작은 합계를 집계하여 큰 합계가 되는 동안 이들 작은 합계가 올바로 산출된 것인지 어떤지를 생각해 보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꼴의 일을 하는 결과가 되어 마지막에 명백한 오류를 알아차리더라도 그 최초의 근거에 불신을 품지 않으므로 어떻게 해서 이를 밝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오직 앞뒤를 분별 못하고 책을 뒤적이기에 시간을 허비하고 만다. 이것은 마치 굴뚝으로 들어온 새가 방안에 갇힌 것을 깨달았으나 어디로 들어왔는가를 생각할 만한 지력이 없기 때문에 유리창의 반사광을 향해 날개를 퍼덕이며 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명사를 바로 정의하는 일에 언어의 제1의 효용이 있으며 그것이 학문의 습득인 것이다. 그리하여 잘못된 정의나 정의가 없는 데에 언어의 제1의 악용이 있으며 여기에서 모든 잘못된 어리석은 교설이 나오게 된다. 그리하여 이러한 교설은 책의 권위에서 지식을 숭상하는 것으로서 진정한 학문에 몸을 담은 사람은 스스로의 깊은 생각에 의해 지식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지한 사람들의 부류와 같은 상태로 볼만치 무지한 사람들만도 못한 상태가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무지는 진정한 학문과 잘못된 교리의 중간에 있기 때문이다. 타고난 감각과 상상력은 불합리에 빠지는 일은 없으며 자연 그 자체는 오류를 지니지 않는다. 사람은 퍽 많은 말을 가지고 있어 보통의 상태보다도 현명해지거나 이상해지거나 한다. 또 만일에 문자가 없다면 어떤 사람도 뛰어나게 현명

하거나 *(그의 기억력이 병이나 기관의 비정상 상태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는 한)* 형편 없이 되는 등의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즉 언어는 현자(賢者)의 계산기로서 그들은 그것에 의해서만 계산하나 한편 언어는 우자(愚者)의 화폐이기도 해서 그들은 그것을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키케로, 토마스라든가, 혹은 다른 학자라는 이름이 붙은 사람이면 그 권위를 빌어 거기에 값을 붙인다.

명사의 주체 계산할 수 있는 것, 계산하여 고찰할 수 있는 것, 또 어떤 수에 다른 수를 더해서 어떤 합계가 되는 사물, 어떤 수에서 다른 수를 빼서 어떤 나머지가 남는다든가 하는 것은 무엇이나 '명사의 주체'가 된다. 라틴 사람들은 금전의 계산서를 'rationes'라 부르며 계산하는 것을 'rationcinatio'라 부르고 전표나 장부에서 우리가 항목이라 부르는 것을 그들은 'nomina', 즉 명사라 부른다. 그래서 그들이 'ratio'라는 말을 다른 모든 일에 대한 계산 능력의 뜻에까지 확대시킨 것은 여기에서 연유하는 것 같다. 그리스 사람들은 '언어'와 '추리'와의 양쪽에 '로고스'라는 하나의 단어밖에 가지고 있지 않으나 그것은 그들이 추리 없이는 언어가 없다고 생각한 때문이 아니라 언어 없이는 추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추리의 절차를 '삼단논법'이라 불렀다. 그것은 어떤 용어의 다른 용어에의 연속을 요약하는 것을 뜻한다. 또 동일한 사물이라도 그 수다한 우유성(偶有性)에 의해 추정되므로 이들 명사도 *(그 다양성을 나타내기 위해)* 여러 가지로 합리화시키거나 변화시키거나 한다. 명사의 이 다양성은 다음과 같은 네 개의 일반적 항목으로 집약될 것이다.

명사 첫째, 어떤 사물은 '살아 있는', '감각하는', '이성적인', '뜨거운', '찬', '움직이는', '조용한'이라고 말하듯이 '물질'이나 '물체'로서 계산되며 이런 것은 모든 명사에 의해 '물질'이나 '물체'라는 말로 나타난다. 이런 것은 모두 물질의 명사이다.

둘째로, 그것은 우리가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우유성이나 질에 대해 계산하고 고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움직이고 있는', '그만큼 긴(長)', '뜨거워진' 등의 경우로서 그때 우리는 물(物) 자체의 명사를 약간 바꾸든지 해서 우리가 고찰하는 우유성의 명사를 만든다. 그리하여 '살아 있는'에 대해서는 '생명'이, '움직이는'에 대해서는 '운동'이, '뜨거운'에 대해서는 '열'이, '긴'에 대해서는 '길이' 등과 같이 바

꾸어 놓아 계산된다. 이러한 모든 명사는 어떤 물질이나 물체를 다른 것으로부터 구별하는 우유성이나 고유성의 명사이며 이런 것은 '추상 명사'라 불린다. 그렇게 불리는 것은 그것이 *(물질에서는 아니고)* 물질에 대한 설명에서 추출된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체의 고유성을 계산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즉 우리가 그 무엇인가를 볼 때 우리는 그것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그 모양, 색채, 관념을 보는 것이며, 또 그 무엇인가를 들을 때에는 그것 자체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관한 우리의 '귀'의 상상 내지 개념인 '청각', 즉 음만을 추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명사는 상상의 명사이다.

넷째로, 우리는 '명사' 자체 또는 '언어'를 계산하고 고찰하며 그렇게 해서 그것들에 명사를 부여한다. 즉 '일반적, 보편적, 특수적, 다의적'이라는 것은 명사의 명사이다. 또한 '단정, 의문, 명령, 서술, 삼단논법, 설교, 연설' 및 그 밖의 무수한, 이러한 것은 언어의 명사이다.

긍정적 명사의 효용 이것이 '긍정적' 명사의 모든 종류인데 긍정적 명사는 자연 속에 존재하는 것이나 혹은 사람의 마음을 가상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현실로 존재하는 물체로서, 또는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물체로서 표지(標識)하기 위해서, 또는 물체에 대해 존재하는 혹은 존재한다고 가상되는 고유성, 또는 말이나 언어를, 표지를 붙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부정적 명사와 그 효용 또 이와는 다른 명사가 있는데 그것은 '부정적' 명사라 불린다. 이것은 어떤 말이 어떤 사물의 명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한 기호이다. 예를 들면 '아무것도 없다', '아무도 없다', '무한의', '셀 수 없는', '불가능한' 등으로서 이것들은 어떤 사물의 명사도 아니지만, 그런데도 계산이나 계산의 정정(訂正)에 유효하며 우리의 과거의 사고 작용을 상기시켜 준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에게 올바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명사의 승인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뜻이 없는 말 그 이외의 모든 명사는 무의미한 음에 지나지 않는 다음의 두 종류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그것이 새로울 뿐 아니라 그 의미가 정의에 의해 명확히 규정

되지 않은 경우인데, 이러한 것은 스콜라 학자나 혼미한 철학자들에 의해 지금까지 무수하게 조작된 것이다. 또 하나는, 정반대의, 일치하지 않는 의미를 지닌 두 개의 명사로 하나의 명사를 만드는 경우인데 '무형의 물체', 또는 *(그것과 완전히 동일한 것에서)* '무형의 실체' 내지 그 밖의 여러 가지가 이와 흡사한 것들이다. 즉 어떤 단정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항상 그것을 구성하고 결합하여 하나가 된 두 개의 명사는 당연히 아무것도 뜻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사각형은 둥글다'는 것이 잘못된 단정이라면 '둥근 사각형'이라는 말은 아무런 뜻도 없으며 다만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덕이 흐른다, 혹은 불어 올라간다, 불어 떨어진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쏟아 넣은 덕', '불어넣은 덕'이라는 말은 '둥근 사각형'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무의미하다. 그러므로 어떤 무의미한 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 어떤 라틴어나 그리스어의 명사에서 뽑아 만든 것이다. 프랑스 사람들은 우리의 구세주를 '파롤(Parole, 聖言)'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좀체 들을 수 없고 '베르베(Verbe, 신의 아들)'라는 명칭으로 부르는 것을 때때로 들을 수 있지만 실은 '파롤'이나 '베르베'는 한쪽이 라틴어이고 다른 쪽은 프랑스어라는 사실 이외에 아무런 차이도 없다.

이해 사람이 어떤 말을 듣고 그 말의 단어 내지 단어의 결합이 뜻하는 대로 정해지고 구성된 여러 가지의 생각을 하는 경우, 그가 그것을 '이해'했다고 말한다. '이해'란 언어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잘은 모르는 일이지만)* 만약 언어가 인간에게만 특유한 것이라면 그 경우에는 이해도 역시 인간에게만 특유한 것이다. 따라서 불합리하게 잘못된 단정이 일반에게 널리 통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많은 사람이 그 말을 조용히 되풀이해서 쓰거나 마음속으로 외우는 것만으로 그것을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때에는 이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종류의 언어가 인간의 욕구나 혐오, 정념을 표현하는가, 또 이런 언어의 효용과 악용에 대해서는 저자는 정념에 대해 논할 때 기술할 것이다.

부정 명사(不定名辭) 모든 사람이 같은 일에 의해 똑같이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 같은 사람에 있어서도 항상 똑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

을 움직이게 하는, 즉 우리를 유쾌하거나 불쾌하게 하는 사물들의 명사는 사람들의 일상의 대화에 있어서는 그 뜻이 '한결같지 않다.' 즉 모든 명사는 우리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며 우리의 모든 감정은 개념에 지나지 않으므로 우리가 같은 사물을 여러 면으로 고찰할 때, 그것을 여러 가지로 이름을 붙이는 것은 무엇인가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물건의 성질이 가령 같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체질이나 편견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여러 가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모든 사물에 우리의 여러 가지 정념의 색도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추리할 때에는 사람들은 언어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언어는 그 성질에 대해 우리가 구상하는 의미 외에 다시 말하는 사람의 성질, 성향, 취미에 따르는 의미도 가지는 것이므로, 예를 들면 덕과 악덕에 관한 여러 명칭들이 그런 것이어서 어떤 사람이 '지혜'라 부르는 것을 다른 사람은 '공포'로 보며 어떤 사람이 '잔혹'하다고 말하는 것을 또 다른 사람은 '정의'라 부르고, 어떤 사람이 '낭비'로 보는 것을 다른 사람은 '도량(度量)'이라 부르며, 어떤 사람은 '침착'이라 부르는 것을 다른 사람은 '우둔'이라 부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명칭은 결코 이성 추리의 진정한 기초라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은 말의 비유나 은유의 경우에도 같아서 다만 이것은 앞의 경우와는 달라서 그 의미가 한결같지 않다는 것이 뚜렷할 뿐 위험성은 적은 것이다.

제5장 추리 및 학문에 대하여

추리란 무엇인가 사람들이 '추리'한다는 것은 필경 여러 부분을 덧셈하여 전체를 고려하며 혹은 어떤 전체에서 다른 부분을 뺄셈하고 그 나머지를 고려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이런 일이 말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모든 부분의 명사로부터 전체의 명사에로의 연속, 혹은 전체 또는 일부분의 명사로부터 다른 부분의 명사에로의 연속을 생각하는 일이다. 그리고 *(수(數)처럼)*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덧셈', '뺄셈' 이외의 다른 운산(運算)을 '곱셈' 또는 '나눗셈'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이것은 덧셈, 뺄셈과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곱셈은 같은 수를 합계하는 것이며 나눗셈은 어떤 수를 가능한 한 몇 번이고 빼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러한 운산은 숫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합계한다든가 하나의 사물을 다른 사물에서 빼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물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즉 수학자가 '수'에 대한 가감(加減)을 가르치는 것처럼 기하학자는 '선', *(입체 또는 평면의)* '도형', '각', '비례', '배율(倍率)', '속도', '강도', '힘'의 정도나 그 밖의 같은 것에 대해 같은 것을 가르친다. 또 논리학자도 '말'의 '연속'에 대해 같은 것을 가르치며 그들은 두 개의 '명사'를 합하여 단정을 내리고 두 개의 '단정'을 합하여 '삼단논법'을 만들며 여러 개의 '삼단논법'을 합하여 '논증'을 이루며 또 '삼단논법의 총계', 즉 '결론'에서 어떤 명제를 추출하여 다른 명제를 찾아 낸다. 정치학의 저술가들은 여러 가지 '계약'을 총합하여 인간의 의무를 찾아 내며 법률가들은 여러 가지 '법'이나 '사실'을 총합하여 개개인의 행위에 있어 무엇이 '정의'이고 '부정'인가를 찾아 낸다. 요컨대 어떤 사물이건 '덧셈', '뺄셈'의 여지가 있는 한 추리를 위한 여지는 있으며 반면에 앞의 경우의 여지가 없는 곳에서는 추리는 당연히 있을 수 없다.

추리의 정의 위에서 보아 온 바와 같이 우리가 추리를 마음의 여러 능력의 하나로 덧붙이는 경우 이 '추리'라는 말이 뜻하는 것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의*(바꾸어 말하면 결정)*할 수 있다. 즉 이런 뜻에 있어서 추리는 우리의 사고를 '기호'에 붙여 '표현'하기 위해 협정된 일반적 여러 명사의 연속의 계산*(즉 가감)*, 바로 그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 된다. 내가 '기호 붙이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계산하는 경우이며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계산을 남에게 제시하여 증명할 경우이다.

올바른 추리는 어디에 있는가 산술에 있어 익숙한 자가 실수를 하고 또 교수조차도 때때로 틀리거나 오산하는 것처럼 다른 어떤 추리의 문제에 있어서도 가장 유능하고 가장 주의 깊고 또한 가장 숙련된 사람조차도 잘못 생각해서 틀린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산술이 확실하고 오류가 없는 학술은 아니며 또 추리 그 자체도 항상 올바른 추리라고는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계산이 여러 사람에 의해 일치되어 인정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로 산출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어떤 한 사람의, 혹은 일정 수의 사람의 추리라고 할지

라도 그것이 확실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산에 대해 옳고 그른 것에 관한 싸움이 생길 경우에는 두 당사자는 자발적으로 어떤 중재자 또는 판정자의 추리를 올바른 추리로 정하고 쌍방이 모두 그 재결(裁決)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싸움은 자연에 의해 만들어진 정당한 추리가 결여되었기 때문에 주먹 사태가 일어나거나 미결 상태 그대로 끝날 것이 틀림없다. 어떤 종류의 토론이든 사정은 한결같이 이렇다. 그리고 자기가 남보다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판정자에게 옳은 추리를 제시하도록 귀찮게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그 일이 다른 사람들의 이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이성에 의해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인간 사회에서는 용서될 수 없는 일이며 이것은 마치 카드놀이를 하는 데 끝패가 결정된 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정한 패를 항상 끝패로 쓰려는 욕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서 지배적인 정념의 하나하나를 그때그때 옳은 이성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더구나 그것이 자기 자신의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며 이성에 대해 부당한 요구를 함으로써 스스로 올바른 이성의 결여를 폭로하는 것이다.

추리의 효용 추리의 효용과 목적은 명사와 최초의 정의나 그 결정된 의미와는 달리하나 또는 약간의 귀결의 요약이나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로부터 출발하여 하나의 귀결에서 다른 귀결에로 나아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추리의 기초가 되는 모든 단정이나 부정(否定)이 정확하지 않으면 최후의 결론의 확실성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집안의 주인이 결산을 함에 있어 모든 지불 감정서의 금액을 합계하여 총계를 낼 때 만일 그가 여러 감정서가 그것을 계산해 넘긴 사람들에 의해 어떻게 계산되었는가, 또 그는 무엇에 대해 지불하는가를 고려하지 않을 때에는 그는 각 계산자의 숙련과 정직성을 신뢰하여 계산을 대강 해치우는 것과 같은 일이어서 그 자신 하등 시비할 것이 없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사물의 추리에 있어서도 저자들을 신뢰하여 결론을 그대로 채택하고 모든 계산에 있어서의 최초의 항목*(그것은 정의에 의해 정해진 명사를 말한다)*에서 결론을 끌어 내지 않는 자는 헛수고만을 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이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믿고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

오류와 불합리에 대하여 사람이 말을 이용하지 않고 계산하는 경우, 그것은 개별적인 사물에 관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한 사물을 보고 무언가 그것에 앞서 간 듯한, 혹은 어떤 그것에 뒤따르는 듯한가를 추측할 경우에)* 만일 그가 뒤따르는 듯하다고 생각한 일이 뒤따르지 않았거나 그에 앞서 간 듯하다고 생각한 일이 앞서 가지 않았거나 하면 그것은 '오류'라 부르며 가장 신중한 사람조차도 이런 오류에 빠지기 쉽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를 갖는 말에 의해 추리하여 잘못된 일반적 결론에 이르는 경우, 그것은 보통 '오류'라 불리고 있으나 실은 그것은 '불합리'하거나 또는 무의미한 말이다. 왜냐하면 오류란 무엇인가가 지나갔다든지 또는 올 것이라는 것을 잘못 추측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런 경우 그것이 실제로는 지나가지도 혹은 오지도 않는다 하더라도 명확한 불가능이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일반적인 단정을 내릴 때에는 그것이 바른 단언(斷言)이 아니면 그 가능성은 분명히 생각할 수 없다. 우리가 음(音)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말은 '불합리', '무의미', '실없는' 소리라 부르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만일 나에게 '둥근 사각형'이라든가, '치즈 속의 빵의 우유성(偶有性)'이라든가 '실질이 없는 실체'라든가에 대해, 또는 '자유로운 신민'이라든가 '자유로운 의지'라든가, 장해에 의해 방해되지 않는다는 사실 이외의 어떤 '자유'에 관해 말한다면 나는 그가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는 말하지 않고 그의 말은 무의미하다, 바꾸어 말하면 불합리하다고 말할 것이다.

나는 이미 *(2장에서)* 인간이란 어떤 것이든 무엇인가를 개념화할 때 그 귀결이 어떤 것일까, 또 그 귀결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를 탐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뛰어나다는 사실을 논한 바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뛰어난 점에 관해 인간은 말에 의해 그가 발견한 여러 귀결을 '정리(定理)'라든가, '정의(定義)'라 불리는 일반 법칙의 형태를 만들 수 있으며 결국 인간은 수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것에 다른 것을 합하든지 빼든지 할 수 있는 모든 사물에 대해 추리하고 계산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덧붙여 놓고자 한다.

그러나 이 특성은 또 하나의 특성, 즉 불합리라는 특성으로 인해 약화된다. 인간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생물도 불합리라는 특성에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인간 중에서도 철학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다른 누구보다도 더욱 여기에 빠지기 쉽다. 키케로가 어디선가에서 철학자의 저술에서 볼 수 있는 것만큼 불합리한 것은 없다고 그러한 철학자에 대해 논하고 있는 것도 실로 지당한 일이다. 그 이유는 명백한데 그들 중의 어느 한 사람으로서 그의 이성적 추리를 스스로 사용하려는 여러 명사의 정의(定義)에서부터 출발하며 혹은 거기에서 이성적 추리를 발전시키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방법은 종래에는 기하학에서만 이용하던 방법이었던 것이며 그러한 이유 때문에 기하학의 결론은 다를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것으로 여겨져 왔던 것이다.

불합리의 여러 원인 1 불합리한 결론의 제1의 원인을 나는 사람들이 그 이성적 추리를 정의 혹은 그들의 말의 결정된 의미에서 출발시키지 않는다는 방법상의 결함에 귀착하나 그것은 그들이 1, 2, 3과 같은 수사(數詞)의 수치(數値)를 알지 못하고 계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그리고 모든 물체는 여러 가지 고찰에 의해 추정되며 *(이에 대해서는 앞 장에서 논했다)* 그리하여 이러한 고찰은 여러 가지로 이름이 붙여져 있어 이들 명사의 혼란이나 명사에서 단정을 내릴 때의 부적당한 결합에서 여러 가지의 불합리가 생긴다.

2 그러므로 불합리한 단정의 제2의 원인을 나는 물체 이외의 무엇에도 '부어 넣든가 숨을 불어넣는 일'은 있을 수 없으므로 '신앙을 부어 넣는다'든가, '숨을 불어넣는다'든가, 또는 '외연(外延)'은 '물체'이며 '환상'은 '정기(精氣)'라는 등 말하는 사람처럼 물체의 명사를 우유성에 혹은 우유성의 명사를 물체에 부여하는 데 되돌아간다.

3 제3의 원인, 나는 그 '색은 그 물체 속에 있다'든가 그 '음이 공중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외부에 있는 물체의 우유성'의 명사를 우리 자신의 '신체의 우유성'에 부여하는 데로 귀착시킨다.

4 제4의 원인을 나는 거기에 '보편적인 사물이 있다'든가, '생물이란 속(屬)'이라든

가, '일반적인 것'이라는 등 말하는 사람들처럼 '물체'의 명사를 '명사'나 '언어'에 부여하는 데 귀착시킨다.

5 제5의 원인을 나는 '사물의 본성은 그 정의이다'라든가 '인간의 명령은 그의 의지이다'라든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는 사람들처럼 우유성의 명사를 '명사'나 '언어'에 부여하는 데 귀착시킨다.

6 제6의 원인을 나는 본래의 말 대신에 은유나 비유나 그 밖의 수사상의 언어의 모습을 쓰는 데 귀착시킨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일상의 언어에 있어서는 '그 길이 이쪽이나 저쪽으로 간다든가 이끈다'든가 하고, '속담이 이것저것을 말한다'는 것은 *(길은 걸을 수 없으며 속담이 말할 수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하기는 하지만, 진리에 대한 계산이나 탐구에 있어서는 이런 식의 말은 허용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7 제7의 원인을 나는 '실체적, 구체화하는, 합체(合體)하는, 영원 속의 현재', 그 밖에 비슷한 스콜라 학자의 유행어처럼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스콜라 학파로부터 빌어 그대로 암기된 여러 가지 명사에 귀착시킨다.

이런 일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계산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앞서 간 것을 잊어버리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리 간단히 불합리에 빠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 똑같이 추리하며, 그리고 훌륭한 원리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적절한 추리를 하기 때문이다. 즉 기하학에 있어, 잘못되고 더구나 남이 그의 오류를 발견해도 그대로 고집을 부릴 정도로 덜된 사람은 아무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학문 따라서 추리는 감각이나 기억처럼 우리에게 타고난 것이 아니고 또 신려(愼慮)처럼 경험에 의해서만이 획득되는 것도 아니라 노력에 의해 획득되는 것임이 확실해진다. 그 노력은 최초에는 명사의 적절한 부여에 의해, 둘째로는 여러 요소, 바꾸어 말하면 명사에서 출발하여 그들 중의 어떤 것과 다른 것과의 결합에 의해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의 단정에 이르고 거기에서 하나의 단정이 다른 단정에의 결합인 삼단논법에 이르러 우리가 드디어는 당면한 문제에 관련된 여러 명사의 연속의 전체에 대한 지식에 도달하기까지의 질서 정연한 방법을 택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학문이라 부르는 것이다. 그리고 감각이나 기억이 과거의 지울 수 없는 사물로서의 사실에 대한 지식에 지나지 않는 데 대해 '학문'은 하나의 사실의 다른 사실과의 연속과 의존 관계에 대한 지식이다. 우리는 학문에 의해서 자기가 현재 할 수 있는 일에서 무언가 다른 일을, 다른 때에 하고자 하는 등 바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게 된다. 왜냐하면 어떤 사물이 어떤 원인에 의해, 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비슷한 원인이 우리의 능력의 통제 밑에 들어온 경우 어떻게 하면 그에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가를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린이들은 언어의 사용 방법을 체득하기까지는 사실상 이성이 부여되고 있지 않으나 그들도 오래지 않아 말의 사용 방법을 체득하리라는 명백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성적 피조물이라 부른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계수(計數)에 있어서와 같이 어느 만큼의 추리를 할 수 있으나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추리는 거의 쓸모가 없으므로 그들은 각자의 경험이 다르고 기억의 신속성, 여러 가지 목적에의 지향, 운이 좋고 나쁨, 서로의 오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잘 처신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쁘게 처신한다. 즉 그들은 '학문'이라든가 그들의 행위의 일정한 법칙이니 하는 것과는 너무나 인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들은 기하학을 속임수로 생각하고 있고 또 그 밖의 여러 학문에 대해서도 그것이 어떻게 획득되고 산출되었는가를 알 수 있듯이 그 학문의 발생이나 약간의 발전에 대해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이 점, 생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없는 어린 아이들이 자기의 형제들이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고 마당에서 주워 온 것이라고 어머니에게서 이야기를 들으면 그대로 믿어 버리는 것과 같다.

그런데도 '학문'을 쌓은 일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타고난 신려(愼慮)를 지니고 있으면 잘못된 추리 때문에, 또는 잘못된 추리를 하는 자를 신뢰한 때문에 잘못되고 불합리한 일반 법칙을 알아 내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훌륭하고 고상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의 원인이나 법칙에 대해 무지한 상태는 잘못된 법칙에 의존하거나 자기가 바라지도 않는 일의 원인이나 또는 오히려 반대되는 일의 원인들을

잘못 알 정도로 사람들을 그들의 본래의 길에서 이탈하게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인간 정신의 빛이란 명료한 언어이며 그것은 정확한 정의(定義)에 의해 우선 그 애매성이 일소되고 순화된 것을 뜻한다. '추리'는 그 '발걸음 폭'이고 '학문'의 증진은 그 '도정(道程)'이며 인류의 복리(福利)는 그 '목표'이다. 이에 반해 은유나 의미가 없는 애매한 언어는 마치 '도깨비불'과 같은 것으로 여기에 바탕을 둔 추리는 심한 불합리 속을 방황하며 그 가는 길에는 논쟁이나 소요(騷擾), 모욕이 깔려 있다.

신려(愼慮)와 학식(學識), 그리고 그들의 차이 많은 경험이 '신려'인 것과 같이 많은 학문은 '학식'이다.

즉 우리는 예사로 이들 두 가지에 대해 지혜라는 하나의 명사를 붙이고 있으나 라틴 사람들은 언제나 prudentia와 sapientia를 전자는 경험에, 후자는 학문에 귀결시켜 구별했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다시 명백히 나타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것을 상상해 보자. 즉 어떤 사람은 무기의 취급에 있어 선천적인 사용 능력과 기술을 가지며, 또 한 사람은 이 기술에 덧붙여 가능한 한의 모든 공방의 대비에 있어 그가 어디를 공격할 수 있고 또 적에게 어디를 공격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학문을 습득하고 있다고 하자. 전자의 능력과 후자의 능력의 관계는 신려와 학식의 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어느 쪽이나 유용하지만 후자는 무오류이다. 그러나 저작의 권위만을 신뢰하여 맹인(盲人)을 덮어 놓고 따르듯이 좇는 사람은 검술 사범의 잘못된 규칙을 믿고 건방지게도 적에 대항하는 자와 흡사하며 그 결과 살해당하거나 수모를 당하거나 한다.

학문의 징표(徵表) 학문의 징표, 그중 어떤 것은 확실무류(確實無謬)이며 어떤 것은 불확실하다. 확실한 것은, 어떤 사물에 관한 학문이 있다고 자처하는 자가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경우인데 바꾸어 말하면, 그에 대한 진리를 남에게 명료하게 논증할 수 있는 경우이다. 불확실한 것은, 약간의 특별한 사상(事象)만이 그의 생각대로 되고 더 나아가 대부분의 경우 그가 이러이러할 것이 틀림없다고 말하는 대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이다. 신려(愼慮)의 징표는 모두가 불확실하다. 왜냐하면 결과를 변경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경험에 의해 관찰한다고 상기하는 것은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그것을 처리하는 절대적으로 확실한 학문을 쌓지 않은 사람이 그 자신의 타고난 올바른 판단력을 저버리고 저술가들로부터 빌린 많은 예외를 포함하는 일반적 문장을 그 지침으로 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징표로서 보통 '현학'(衒學)이라 불리고 경멸당한다. 코먼웰스 회의에서 정치학이나 역사를 읽고 있음을 과시한 사람조차도 자기의 사사로운 일에 대해서는 충분한 신려를 가지고 있어 각자의 이해와 관련하는 신변의 여러 일에 대해서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공중 앞에서는 다른 사람의 일의 성공보다도 자기가 지력이 풍부하다는 평판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다.

제6장 보통 정념(情念)이라 불리는 의지에 의한 운동의 내적 동기 및 그것이 표현되는 언어에 대하여

생명적 운동과 동물적 운동 동물에는 그들에게 특유한 두 종류의 '운동'이 있다. 하나는 '생명적'인 것이라 부르는 것으로 출생과 동시에 시작되어 그 생애를 통해 끊임없이 그 운동을 계속한다. 그것은 '혈액', '맥박', '호흡', '소화', '영양', '배설' 등의 행로와 같은 것으로 이런 운동에는 상상력의 도움은 필요치 않다. 또 하나의 운동은 '동물적 운동', 다시 말하면 '의지에 의한 운동'이라고 부르며 우리가 미리 상상한 대로 '걸어가고', '말하고', 사지 중의 어느 것을 '움직이는' 것과 같은 일이다. 감각이란 인체의 여러 기관이나 내부의 여러 부분에서 하는 운동이며 이 운동은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등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며, 그리고 상상이란 감각의 뒤에 남은 그 운동의 잔해(殘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1장과 2장에서 논했다. 그리하여 '걸어간다'든가, '이야기한다'든가 등 그 밖의 비슷한 의지에 의한 운동은 이에 앞서는 '어디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이라는 사고에 항상 의존하는 것이므로 영상이 모든 의지에 의한 운동의 최초의 내적 동기가 되는 것은 명백하다. 무지한 사람들은 움직이는 것이 보이지 않거나 그것이 움직이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느낄 수 없거나 할 때에는 거기에 운동이 존재하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이런 운동이 존재하는 사실을 의심하는 것

은 아니다. 왜냐하면 만일 공간이 그렇게 좁지 않으면 앞서 말한 소공간(小空間)이 그 일부를 이루는 보다 큰 공간 속을 움직이는 것은 대개 그 소공간 속을 움직일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체내에 있어 걷는 일, 이야기하는 것, 때리는 일, 그 밖에 눈에 보이는 행위에 나타나기 전의 운동의 이러한 작은 동기는 보통 노력이라 부른다.

욕구, 의욕 이 노력이 그것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향할 때는 욕구 또는 의욕이라 부른다. 후자는 일반적 명사이다.

굶주림, 목마름 앞의 경우는 때때로 식물에 대한 의욕 즉 '굶주림〔飢〕'과 '목마름〔渴〕'을 표시하는 데 한정한다.

혐오 어떤 것에서 떨어지기 위해 노력이 행해질 때 이것을 일반적으로 혐오라 부른다. 이러한 '욕구'라든가 '혐오'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빌려 온 것으로 어느 것이나 운동을 나타내며 한쪽은 접근하는, 다른 쪽은 후퇴하는 운동을 표현한다. 이것과 같은 일에 관한 그리스어도 역시 같아서 그것은 오르메〔접근〕와 아포르메〔후퇴〕이다. 그 이유는 자연 스스로가 사람에게 믿도록 강요하는 진리는 장차 그들이 자연을 초월한 것을 탐구할 때에 때때로 반대로 좌절되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스콜라 학파는 가려고 한다든가, 움직이려 하는 등의 단순한 욕구 속에는 실제의 운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나 그렇더라도 무언가 운동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비유적 운동이라 불렀던 것이다. 그러나 말은 비유적이라 하더라도 지장이 없겠지만 물체나 운동은 그렇지 않으므로 이는 불합리한 말에 지나지 않는다.

사랑 · 미움 사람들이 의욕하는 것은 사랑한다고도 하고 혐오하는 것은 미워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의욕과 사랑은, 의욕이라 할 때는 언제나 대상의 부재를, 사랑이라 할 때는 대개는 보편적으로 그 대상의 존재를 표현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같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혐오라 할 때는 대상의 부재를, 증오라 할 때는 그 존재를 표현한다.

욕구의 혐오 중에서 어떤 것은, 예를 들면 식물에의 욕구, 배설이나 위의 부담을 가볍게 하려는 *(보다 적절히 말해서 몸 안에 있는 것에 대해 느끼는 혐오라 불러도*

좋은데) 그 밖의 경쾌하고 흔치 않은 욕구처럼, 인간이 태어나면서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 밖의 것은 개개의 사물에 대한 욕구로서 경험을 통해, 그리고 또 그것이 자기나 남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아는 데서 생긴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물 혹은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 사물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이상 그것을 즐기고 음미하려는 의욕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혐오는 우리를 해친 것을 알고 있는 사물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해를 끼칠지, 해를 끼치지 않을지 모르는 사물에 대해서도 느낀다.

경멸 우리가 의욕도 혐오도 하지 않는 사물은 '경멸'한다고 말한다. 경멸이란 일정한 사물의 충동에 동요하지 않는 마음의 부동의 상태 혹은 마음의 완고한 불복종 상태에 있는 것이며, 그것은 마음이 이미 더 한층 강력한 다른 대상에 의해 전혀 다르게 움직이거나 그러한 사물에 관한 경험이 없거나 한 데서 생긴다. 그리고 인간의 체질은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완전히 동일한 사물도 항상 자기 내부에 같은 욕구나 혐오를 끌어 내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완전히 같은 대상에 관한 의욕에 있어 모든 사람이 일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선 · 악 그러나 어떤 사람의 의욕이나 욕구의 대상이 무엇이건 간에, 그것은 그로서는 '선'이라 생각하는 것이며, 또 그의 증오나 혐오의 대상은 '악', 경멸의 대상은 '대단치 않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상이다. 결국 이러한 선악 또는 경멸한다는 말은 항상 그 말을 사용하는 인간과의 관련에 따라 쓰이는 것으로서 순수하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선 · 악 · 경멸이란 존재치 않으며 또 대상 자체의 성질에서 유출되는 선악의 일반적 기준도 있을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일반적 기준은 *(코먼웰스가 없는 곳에서는)* 각 개인에서, 또는 *(코먼웰스에 있어서는)* 그것을 대표하는 사람으로부터 혹은 서로 다투는 사람들이 동의에 의해 설정하고 그 판정을 그 일에 관련한 기준으로 하는 중재자나 판정자로부터 끌어 내는 것이다.
라틴어에는 선악에 가까운 뜻의 말이 두 개 있으나 이것들은 정확하게 같은 것은 아니다.

아름다움 · 더러움 이것은 풀크룸(pulchrum, 美)과 투르페(turpe, 醜)이다. 전자는 어떤 뚜렷한 징표에 의해 선을 예상케 하는 것을 뜻하며, 후자는 악을 예상케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 말 '영어'에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일반적 명사는 없다. 다만 우리는 pulchrum 대신에 어떤 사물에 대해서는 훌륭하다고 말하고 다른 사물에 대해서는 '깨끗한, 아름다운'이라든가 혹은 '용감한, 명예스러운, 보기 싫지 않은, 우아한'이라 말하고, 또 turpe 대신에 화제에 따라서 '더러운, 보잘것없는, 흉한, 천한, 구토가 날 것 같은' 등등으로 말한다. 모든 이런 말은 그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는 선 또는 악을 예상케 하는 표정 또는 용모를 표현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환희 · 유리(有利) 따라서 선에는 세 가지가 있다. 즉 예상되는 것에 관한 선, 즉 미와 의욕되는 목적과 같이 결과에 관한 선, 즉 jucundum '환희'라 부르는 것과, 수단으로서의 선, 즉 '유효한, 유리한'이라 부르는 것이다. 그리고 악에 대해서도 같은 수의 종류가 있어서 예상되는 것에 관한 '악'은 사람들이 추(醜)라 부르는 것이다.

불쾌 · 불이익 결과 및 목적에 관련된 악(molestum)은 '불쾌한, 귀찮은'이라 말하는 것이고, 수단에 있어서의 악은 '무익한, 불리한, 유해한'이라 부르는 것이다.

감각에 있어 우리 자신 안에 실제로 있는 것은 *(앞서 논한 바와 같이)* 외적 대상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것뿐이어서, 다만 현상이 시각에 대해서는 빛과 색채, 귀에 대해서는 음, 코에는 냄새 등으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대상의 작용이 눈이나 귀 그 밖의 기관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그 결과로 실제로 생기는 것은 운동 또는 노력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그것은 운동하고 있는 어느 대상에의 욕구 또는 혐오다.

환희 · 불유쾌 운동의 현상 또는 감각은 우리가 마음의 환희라든가 괴로움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이다.

유쾌 이 운동은 욕구라 부르며 그 현상은 '환희' 또는 '유쾌'라고 부르는 것으로, 그것은 생명 운동을 강화하고 이를 조장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환희를 불러일으키는 사물이 생명 운동을 조장하고 강화하는 데서 á jucundo '유쾌한'*(또는 à Juvando '조장하다')*이라 부른다.

노여움 그리고 이와 반대의 일이 생명 운동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데서 '화나는, 노

엽게 하는'이라 부르는 것은 부적당한 일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유쾌' *(혹은 '환희')* 는 선의 현상 또는 감각이며, '훼방' 또는 '불유쾌'는 악의 현상 또는 감각이다. 그 결과 모든 욕구나 의욕이나 애정은 많든 적든 어떤 환희를 동반하며, 모든 증오와 혐오는 많든 적든 불유쾌나 노여움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감각의 희열 유쾌 또는 환희의 어떤 것은 현존하는 대상에 대한 감각에서 생긴다. 그래서 어떤 것을 '감각의 희열'*(그것을 비난하는 사람만이 사용하는 '육감적'이라는 말은 법률의 존재 이전에는 존재의 여지가 없으므로)*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육체의 모든 섭취와 배설은 이런 종류의 것이며, 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져 보아' 유쾌한 모든 것과 똑같다. 또 하나의 종류는 어떤 사물의 종말이 귀결을 예견할 때 그 사물이 감각에 있어 유쾌하든지 불유쾌하든지 관계없이 그 감각에 수반하는 기대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정신의 희열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귀결을 끌어 내는 자의 '정신의 희열'이다.

기쁨 그것은 일반적으로 기쁨이라 부른다.

고통 · 슬픔 마찬가지로 불유쾌 중의 어떤 것은 감각 속에 있고 그것을 고통이라 불리며 다른 것은 귀결에의 기대 속에 있는 것이며 그것은 슬픔이라 불린다.

'욕구', '의욕', '애착', '혐오', '증오', '기쁨', '슬픔'이라 부르는 이들 단순한 정념은 갖가지 관찰에 의해 갖가지 명칭을 갖는다.

첫째, 그것들이 차례차례로 발생할 때 사람들이 자기들의 의욕하는 것을 획득할 가능성에 대해 품고 있는 관점에 의해서, 둘째로, 사랑하거나 혹은 미워하는 대상에 의해, 셋째로, 그들 다수를 함께 고찰하는 데 따라, 넷째로, 정념 자체의 변화나 연속에 의해 이들 단순한 정념은 갖가지로 불린다.

희망 즉 획득된다는 의견을 동반하는 '욕구'는 희망이라 부른다.

절망 똑같은 것이 이러한 의견을 동반하지 않을 때에는 절망이다.

공포 대상으로부터 '피해'를 받는다는 의견을 동반하는 '혐오'는 공포이다.

용기 똑같은 일이 저항에 의해 그 해를 제거한다는 희망을 동반할 때는 용기이다.

성냄(怒) 급작스러운 '용기'는 격노이다.

신뢰 항상 변하지 않는 '희망'은 우리 스스로에 대한 신뢰이다.

불신 항상 변하지 않는 '절망'은 우리 스스로에 대한 불신이다.

분개 다른 사람에 대해 행해진 커다란 타격에 대한 '노여움'은 우리가 그것을 부정한 행위에 의해 행해졌다고 생각할 때는 분개이다.

인자(仁慈) 다른 사람을 위해 잘 되기를 바라는 '의욕'은 인자, 호의, 자혜(慈惠)이다.

착한 천성 만일 그것이 인간 일반에 대해 잘 되기를 바라는 의욕이라면 '착한 천성'이다.

탐욕 재산에 대한 '의욕'은 탐욕이다. 이 명칭은 항상 비난의 뜻으로 쓰인다. 즉 이 의욕 자체는 재산을 구하는 수단에 따라 비난되거나 허용되거나 할 일이나 그것을 찾아 경쟁하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남이 그것을 획득함으로써 불유쾌하게 되기 때문이다.

야심 지위 혹은 사람의 상위에 올라서려는 '의욕'은 야심이다. 이 명칭도 역시 앞서 논한 이유에서 나쁜 쪽의 의미로 쓰인다.

소심(小心) 우리의 목적에 조금밖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물에의 '의욕', 또 약간의 장해밖에 안 되는 사물에의 '공포'는 소심이다.

도량 약간의 원조나 장해를 '경시하는' 것은 도량이다.

용감 죽고 다치는 위험에 당했을 때의 '도량'은 용감 · 강의(剛毅)이다.

기분파 기질 재산을 쓸 때의 '도량'은 기분파 기질이다.

인색 전술(傳述)한 경우의 '소심'은 좋든 혹은 싫든 간에 초라함, 가련, 인색이다.

친절 사교를 위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친절이다.

자연의 정욕 감각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의 정욕이다.

열락(悅樂) 회상 즉 과거의 즐거운 영상에서 얻은, 사람에 대한 '사랑'은 열락이다.

사랑의 정념 한 사람에게만 향하는 '사랑'은 오직 혼자서만 사랑하려는 의욕을 동반할 때, 그것은 사랑의 정념이다.

질투 그런 경우 상대가 사랑을 지니고 있지 않느냐 하고 염려를 동반할 때는 질투다.

복수심 다른 사람을 해침으로써 상대에게 상대 자신의 어떤 죄책을 벌하려는 '의

욕'은 복수심이다.

호기심 '왜' 또는 '어떻게' 하는가를 알려고 하는 '의욕'은 호기심이며 이것은 '인간' 이외의 어떠한 생물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그 이성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이 독특한 정념에 의해서도 다른 '동물'과 구별된다. 이들 동물에 있어서는 식물(食物)에 대한 욕구나 그 밖의 감각의 기쁨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원인을 알려고 하는 관심을 뒤로 미루고 만다. 그리하여 이 호기심은 끊임없이 끈기 있게 지식을 얻는 노력의 기쁨에 의해 일시적으로 격렬한 육욕적인 기쁨도 능가하는 정신적인 정욕이다.

종교 · 미신 · 진정한 종교 정신에 의해 가상(假想)되거나 또는 공공연히 인정된 이야기로 구상된,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공포'는 종교이며 그렇지 않은 것에 의한 것은 미신이다. 그리고 이 가상된 힘이 진실로 우리의 구상하는 바와 같은 것일 때는 그것은 진정한 종교이다.

근거 없는 공포 왜 그런가, 또 무엇 때문인가에 대해 이해되지 않은 공포는 근거 없는 공포이며, '빵의 신'이 그 창조자라고 하는 우화(寓話)에서 그렇게 불리고 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면 이와 같이 처음에 공포를 느낀 자는 항상 어떤 원인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서 남은 사람은 선례에 따라 도망가지만 각자는 그들 동료 중 누군가가 그 이유를 알고 있다고 상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감정은 군중 속에 있는 사람에게만 생긴다.

경탄 신기한 것을 이해하는 '기쁨'은 경탄이며 그것은 원인을 알려고 하는 욕구를 자극하므로 인간에 고유한 것이다.

득의(得意) 사람이 자기의 힘이나 능력을 상상하는 데서 생기는 '기쁨'은 득의라 불리는 마음의 앙양(昂揚)이다. 그것이 만일 그 자신의 이전의 행위에 대한 경험에 근거한다면 그것은 '자신'과 같은 것이나 그것이 다른 사람의 아첨에 바탕을 둔다든가 혹은 그 경과에 대한 환희 때문에 그 자신에 의해 가상되었을 뿐이라면 이것을 자기도취라 부른다. 이 명칭은 적절하다. 왜냐하면 충분한 기초를 가진 '자신'은 어떤 행위를 이룩하기 위한 노력을 낳는 데 비해, 능력의 가상은 그렇지 않고 따라서 '헛되다'라고 부르는 것은 옳기 때문이다.

실의(失意) 능력이 없다는 생각에서 생긴 '슬픔'은 실의이다.
자기가 그와 같은 능력을 갖지 못한 것을 알면서 그 능력을 속이거나 가상하는 데서 성립하는 '자기도취'는 청년들에게 특히 있기 쉬운 일이며, 그것은 또 용감한 인물의 역사나 소설에 의해 조장되지만 나이를 먹거나 일에 젖으면 점점 교정된다.
돌연한 득의 · 웃음 '돌연한 득의'는 웃음이라 부르는 '얼굴의 일그러짐'을 일으키게 하는 정념이다. 이것은 남을 기쁘게 하는 자기 자신의 어떤 돌연한 동작에 의해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언가 추악한 것을 보고 비교해서, 남이 돌연 자신을 칭찬하는 데 따라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일은 자기 자신에게 극히 약간의 능력밖에 없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흔히 있을 수 있다. 그들은 남의 결점을 보고 스스로 마음 흐뭇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남의 결점을 보고 크게 웃는 것은 소심의 표시이다. 왜냐하면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가 본래 함직한 일은 조소를 받고 있는 사람을 구하여 조소받지 않게 해 주며 자기 자신을 오직 가장 유능한 사람에 비교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돌연한 실의 · 울음 반대로 '돌연한 실의'는 울음을 초래하는 정념이다. 이것은 어떤 열렬한 희망이나 그들의 힘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사람을 돌연히 잃는 것 같은 사건에 의해 일어난다. 그리고 이런 일에 가장 빠지기 쉬운 것은 여자와 어린애처럼 주로 외부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은 남의 불친절에 울며,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복수심이 중재(仲裁) 때문에 돌연히 정지당하여 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웃거나 울거나 하는 것은 어느 쪽이나 돌연한 운동이어서 그것이 상습적인 행위가 되면 울지도 웃지도 않게 된다. 왜냐하면 누구든 오래 써먹은 농담에는 웃지 않으며 항상 있는 재난에는 울지 않는다.
수치 · 얼굴 붉힘 능력이 어떤 결점을 발견함으로서 일어나는 '슬픔'은 수치이며 이런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 얼굴 붉힘이다. 그리고 이것은 무언가 불명예스러운 일을 느끼는 일이며 청년에게 있어서는 평판을 소중히 여기는 증거이고 칭찬받음직한 일이다. 노인에 있어서도 그것은 같은 증거이기는 하지만 시기를 잃고 있으므로 가상한 이야기는 아니다.
건방짐 좋은 평판을 '경시(輕視)하는' 것을 건방지다고 말한다.

연민(憐憫) 다른 사람의 재난에 대한 슬픔은 연민이며 같은 재난이 자신의 몸에도 미칠지도 모른다는 상상에서 생긴다. 그러므로 그것은 공감이라고도 부르며 요즈음의 말씨로는 동정이라 부른다. 따라서 커다란 재앙에서 일어난 재난에 대해서는 최선의 인간은 최소의 연민밖에 모으지 못하며 또 이러한 재난에 부닥치는 일이 가장 적다고 생각하는 자도 그러한 재난에 당해 최소의 연민밖에 받지 않는다.

냉혹 다른 사람의 재난을 '경시'하며 혹은 조금밖에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냉혹하다고 불리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의 운명이 안전한 데서 생겨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다른 사람의 커다란 손실을 기뻐한다는 것은 그 자신의 '행로'가 이것과 다른 것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경쟁심 부나 명예 그 밖의 희망에 관련하여 경쟁자가 성공한 데 대한 '슬픔'은 그것이 우리 자신의 능력을 경쟁자와 동등하게 또는 그 이상으로 무리하게 억지로 내려는 노력과 결합되고 있을 때는 경쟁심이라 부른다.

선망(羨望) 그러나 이것이 경쟁자를 밀어 내고 그 자리를 뺏으려 하고, 또는 그를 방해하려는 노력과 결합되고 있을 때는 선망이라 부른다.

숙려 사람의 정신 속에 동일한 사물에 관한 욕구와 혐오, 희망과 공포가 엇갈려 생기고 또 그 주어진 사물을 이루고 혹은 회피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의 선의의 경과가 계속해서 우리의 사고에 들어와서 그 결과 우리가 어떤 때는 그것을 욕구로 느끼고 어떤 때는 그에 대해 혐오를 품고, 어떤 때는 그것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어떤 때는 그것을 성취하도록 노력하는 데 절망 혹은 공포를 느끼는 그런 경우에는 그 일이 이루어지든가 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까지 계속하는 의욕, 혐오, 희망 및 공포의 총계는 숙려라고 부른다.

따라서 과거의 사물에 대해서는 그것이 변경되는 것은 확실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숙려'는 존재할 수 없다. 또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일, 혹은 그렇게 생각되는 일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숙려가 보람 없는 일임을 알고 있으며 또 보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숙려'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보람 있는 일임을 알지 못하고 숙려할 때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숙려'라고 불리는 것은 자신의 욕구 또는 혐오에 따라 행동하거나

또는 회피하는 우리의 '자유'를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 욕구, 혐오, 희망 또는 공포의 엇갈리는 연속은 인간과 똑같이 다른 생활에도 있다. 그러므로 짐승도 숙려한다.
그래서 모든 '숙려'는 숙려하는 자가 그 대상을 완수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끝난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자신의 욕구나 혐오에 따라 행동하거나 회피하는 자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지 '숙려'에 있어서 행위 혹은 그 회피에 직접으로 연결되는 최후의 욕구 또는 혐오는 우리가 의지라고 부르는 것, 즉 '의지한다'고 하는 행위*(능력이 아닌)*이다. 그래서 '숙려'하는 동물은 또 반드시 '의지'를 가짐에 틀림없다. 스콜라 학파에 의해 일반에게 알려진 의지에 대한 정의, 즉 의지란 '이성적 욕구'라는 정의는 옳지 않다. 왜냐하면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이성에 '반하는 의지적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의지적 행위'는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 이외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만일 이성적 욕구 대신에 우리가 앞서 가는 숙려의 결과인 욕구라 한다면 그때 이 정의는 내가 여기서 논한 것과 같은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의지는 숙려에 있어서의 최후의 욕구'이다. 그리고 일상의 회화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한번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졌다든가 그런 것을 참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본래 단순한 경향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어떤 행위라도 의지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행위는 단순한 경향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최후의 경향, 즉 욕구에 의하는 것이며 또 만일 중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가 어떤 행위를 의지적으로 일어나게 한다면, 그때에는 똑같은 이유에 의해 모든 중간에 일어나는 모든 혐오가 그와 똑같은 행위를 비(非)의지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셈이며 따라서 똑같이 동일한 행위가 의지적인 동시에 비의지적인 일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에서 다음과 같은 것이 분명해진다. 즉 주어진 사물에 대한 탐욕, 야심, 정욕, 그 밖의 욕구에 그 동기를 갖는 행위만이 아니고 그 회피에 수반하는 여러 귀결에 대한 혐오나 공포에 그 말단이 있는 행위도 '의지적 행위'인 것이다.
정념에 대한 언어의 여러 형태 정념이 표현되는 언어의 여러 형태는 우리가 사고를 표현하는 그것과 부분적으로는 같고 부분적으로는 다르다. 첫째, 모든 정념은 일

반적으로 '나는 사랑한다', '나는 두려워한다', '나는 기쁘다', '나는 숙려한다', '나는 하고자 한다', '나는 명령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직접법'에 의해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정념 중에서 어떤 것은 그 특유의 어법을 갖는 것이 있으나 그것도 이런 어법은 그것이 우러나오는 정념의 추론 이외에 다른 추론을 세우는 데 구실을 하지 않는 한 긍정적 단정은 되지 않는다. 숙려는 '가정법'으로 표현된다. 그것은 상정을 그 귀결과 함께 나타내기 위한 특별한 언어이다. 예를 들면 '만일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그때에는 이런 일이 수반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추리가 일반적인 말에 의해 이루어지는 데 반해, 숙려는 대개의 경우 특수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별도로 한다면 추리의 언어와 다를 바 없다. 의욕과 혐오의 언어는 '이것을 하라', '저것을 단념하라' 등과 같은 '명령법'이다. 상대가 그것을 행하지 않고 혹은 단념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것은 '명령'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간원'이거나 혹은 '충고'이다. 자기도취, 분개, 연민, 복수심의 언어는 '희구법(希求法)'이다. 그러나 알려고 하는 의욕에 관해서는 '의문법'이라 부르는 특수한 표현이 있다. 예를 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언제 일어나는가',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왜 그런가' 하고 말하는 것이다. 이외에는 나는 정념의 언어는 모른다. 저주, 맹세, 매도(罵倒) 등은 언어로서 내놓을 수 없으며 습관적인 혀의 움직임으로써 제시되기 때문이다.

나는 언어의 이러한 여러 형태가 우리 정념의 표현, 즉 의지적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들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러한 정념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가에 관계없이 임의로 사용되므로 확실한 증거는 되지 않는다. 지금 품고 있는 정념을 가장 잘 나타내는 표징은 얼굴 표정, 몸의 동작, 행동 속에 있으며, 그리고 또한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이 품고 있음을 미리 알고 있는 목표, 즉 목적 속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숙려할 때의 욕구와 혐오는 우리가 숙려하는 그 행위의 좋은 경과 또는 나쁜 경과, 즉 그 행위의 결과로서 수반하는 것을 예견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므로 그 행위가 좋은 결과가 되는가 또는 나쁜 결과가 되는가는 일련의 긴 경과에 대한 예견*(누구든 좀처럼 그 종결점을 알 수는 없으나)*의 여하에 관련되어 있다.

좋은 또는 나쁜 외관 그러나 사람이 성찰할 수 있는 한에서 만일 이들 경과에 관해 선이 악보다 두드러져 있다면 그 전체는 저술가들이 '외관상 좋다'든가 '좋게 보인다'고 부르는 것이 된다. 그러나 반대로 악이 선보다 두드러져 있다면 그 전체는 '외관상 나쁘게 또는 나쁘게 보인다.' 따라서 경험 또는 추리에 의해 경과에 대한 최대의, 더욱이 가장 확실한 예상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가장 잘 숙려하는 사람이며 또한 그가 하려고 생각만 하면 다른 사람에게 가장 좋은 충고를 줄 수가 있다.

지복(至福) 사람이 그때그때 욕구하는 것을 획득하는 '계속적인 성공' 즉 계속적인 번영을 사람들은 지복이라 부른다. 나는 이 세계에서의 지복한 일을 말하고 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에는 정신의 영원한 평화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생명 자체는 운동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은 감각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욕구 또는 공포 없이는 결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신이, 마음속으로부터 그를 섬기는 자들에게 어떤 종류의 지복을 내렸는가를 사람들이 알 때는 즉 그것을 받아들일 때이다. 왜냐하면 그 기쁨은 스콜라 학자의 '축복받은 환영'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현재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찬(賞讚) 사람들이 어떤 사물의 좋은 점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나타내는 언어의 형태는 상찬이다.

찬미 어떤 사물의 힘과 위대성을 나타내는 말은 찬미(讚美)이다.

마카리스모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지복하다는 생각을 나타내는 말을 그리스 사람들은 마카리스모스(μακαρισμός)라 불렀는데 우리 말 '영어'에는 이에 대응하는 명칭이 없다. 정념에 대한 지금까지 논급한 정도로서 당면한 목적을 위해서는 충분할 것이다.

제7장 논구(論究)의 종결 또는 해결에 대하여

지식욕에 지배된 모든 '논구'에 대해서는 최후에, 획득 또는 포기에 의한 '종결'이 있다. 그리고 논구의 연쇄에 있어서는 그것이 중단된 곳에서 그때의 종결이 존재하는 것이다.

만일 논구가 단순히 심리적인 것이면 그것은 그 사물이 있을 것이라든가, 또는 없

을 것이라든가, 혹은 그것이 있었다든가 또는 없었다고 하는 서로 엇갈려 일어나는 생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당신이 어떤 사람의 논구의 이 연속을 어디에선가 절단하면 당신은 '그것이 있을 것이다'라든가 또는 '없을 것이다'라든가, 또는 '그것이 있었다'든가 '없었다'든가라고 하는 하나의 가정이 있는 곳에 그를 멈추게 하는 것이 된다. 통틀어 이런 것이 의견(意見)이 된다.

선악에 관해 숙의(熟議)할 때 엇갈려 일어나는 욕구에 해당하는 것을, '과거' 혹은 '미래'에 대한 진리를 구명할 때가 교대로 일어나는 의견이다.

판단, 즉 최종의 판결 숙려에 있어서 최후의 욕구가 '의지'라 불리는 것처럼 과거나 미래에 관한 진리의 구명에 있어서 최종의 판결은 '논구'하는 사람의 판단 혹은 '결정적이고 최종적인 의견'이라 부른다.

의문 그리고 선악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교대로 일어나는 욕구의 전 연쇄(全連鎖)가 숙려라 불리는 것처럼 진위(眞僞)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교대로 일어나는 의견의 전 연쇄는 의문이라 부른다.

어떤 논구도 지나가 버린, 혹은 오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절대적인 지식으로서 종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실에 대한 지식이란 미래는 감각이며 그 후에 기억이 되는 것이며, 또 내가 앞서 경과에 대한 지식은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논급했으나 그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조건부의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도 논구에 의해서는 이런저런 것이 있다든가, 있었다든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즉 절대적으로 알 수는 없으며 다만, 만일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면 저것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즉 조건부로만 아는 데 지나지 않으며 또 논구에 의해서는 어떤 사물의 다른 사물에의 연속이 아니고, 동일한 사물의 하나의 명사로부터 다른 명사에의 연속을 알 수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논구가 언어가 되어 말의 정의부터 시작하고 그 결합에 의해 일반적 단정으로 진척되고 다시 이들의 결합에 의해 삼단논법으로 나아간다는 경우에 종결, 즉 최후의 총계는 결론이라 부른다.

학문 그리고 이에 의해 표현되는 마음의 사고는 일반적으로 학문이라 불리는 조건부 지식, 즉 말의 연속에 대한 지식이다.

의견 그러나 가령 이러한 논구의 최초의 기초가 정의가 아니던가, 혹은 그 정의가 삼단논법을 만드는 데 옳게 결합되지 않은 경우 이 결론은 다시 의견이 되고 만다. 그것은 흔히 이해될 가능성이 없는 불합리하고 무의미한 말에 의해서지만 무언가 언급된 진리에 대한 의견이다.

공지(共知)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이 완전히 동일한 사물을 알고 있을 때 그들은 그것을 함께 의식하고 있다고 하며 이것은 함께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서로 혹은 제삼자의 사실에 관한 가장 적합한 증인이므로 어떤 사람에게도 그의 공지(conscience)에 반해서 말하거나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도록 타락시키고 혹은 강제하는 것은 더없이 악한 행위로 생각되었으며 또 언제나 그렇게 생각될 것이다. 그러므로 양심에 의한 해명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열심히 경청되어 왔던 것이다. 후일에 사람들은 이와 똑같은 말을 그들 자신의 비밀의 사실이나 사고에 대한 지식에 한하여 비유적으로 사용했다. 따라서 양심은 천 명(千名)의 증인과 같다고 수사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최후로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새로운 의견*(예를 들면 어떤 불합리한 사물이라도)*에 뜨거운 애착을 가지며 완강하게 그것을 유지하려고 할 때 마치 이런 의견을 변경하거나 이에 반대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불법으로 보이는 듯이 이들 의견에도 역시 양심이라는 저 존경받는 명칭을 부여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그들은 되도록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정도밖에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자기들은 진리를 알고 있다고 일컫는다.

사람들의 논구가 정의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떤 경우에는 그 자신의 어떤 다른 명상에서 시작하지만 그런 때에도 역시 의견이라 불린다. 혹은 그 논구는 진리를 알 수 있는 능력과 기만하지 않는 정직성을 그가 믿는 다른 사람의 어떤 언사에서 시작하는 것으로서 이런 경우에는 논구는 사물에 관해서이기보다는 차라리 인격에 관한 일이다.

신임, 신뢰 그래서 그 확신은 신임 또는 신뢰라 부른다. '신뢰는 인간에 대한 것'이며 신임은 인간과 더불어 그의 말의 진실성에서도 '관련되는 것'이다. 따라서 신임 속에는 두 개의 의견이 있는데, 하나는 그 사람의 말하는 것에 관련하고 다른 것은

그의 덕에 관련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신뢰를 품고 있다'든가, '어떤 사람을 신용한다'든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는 등 말하는 것은 모두가 동일한 일, 즉 그 사람의 성실성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들은 것을 믿는다'는 것은 다만 들은 것의 진실성에 대한 의견을 나타낸 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나는 믿는다'든가, 라틴어로 'Credo in'이라든가 그리스어로 'πιστέυω είς'라고 말하는 어구가 성직자들이 쓴 것 이외에는 결코 쓰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른 서적 속에서는 그러한 말 대신에 '나는 그를 믿는다', '나는 그를 신용한다', '나는 그에게 신뢰를 간직하고 있다', '나는 그에게 의뢰한다', 또는 라틴어로는 'credo illi, fido illi', 그리스어로는 'πιστέυω άύτώ'라고 쓰여 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의 교회적 사용 방법의 특수성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올바른 대상에 대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예를 들면 신조에 대해서처럼 '믿는다'는 것은 인격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신앙 고백과 교의(教義)의 용인을 뜻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교도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사람들도 신이 그들에게 고(告)하는 일을,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안 하고에 관계없이 모두 진리로서 받아들일 만큼 신을 믿고 있으며 그리하여 이것은 대체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같을 수 있는 신뢰, 신용의 최대한이며 그들의 전부가 그 신앙의 교의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즉 어떤 언사이든 사물 그 자체나 자연적 이성의 여러 원리에서 따온 논증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것을 말할 사람의 권위나 우리가 그를 높이 평가하는 데서 따온 논증에 의해 그것을 진리라고 믿을 때는, 이때 우리가 믿고 신용하는 것은 이야기한 사람, 결국 인격이며 그의 말을 우리는 자신의 신앙의 대상으로 한다. 그리하여 믿는다는 사실에 의한 찬송은 그에 대해서만 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신 자신으로부터의 직접적인 계시(啓示)를 받는 일이 없이 《성경》이 신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신임, 신앙, 신뢰는 교회에 대한 것으로, 우리는 교회의 말을 받아들여 그것을 묵종(默從)하는 것이다. 예언자의 말을 받아들여 그것을 찬송하고 그를 신용하며 그리하여 그가 진정한 예언자인가 거짓 예언자인가에 관계없이 그가 고하는 진리에 접했다

고 믿는다. 다른 모든 역사에 대해서도 그것은 똑같다. 즉 내가 만일 알렉산드로스나 카이사르의 빛나는 행위에 대해서 역사가가 쓴 것을 모두 믿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을 쓴 역사가는 어떻든 나는 알렉산드로스나 카이사르의 망령이나 그 밖의 다른 누군가가 화를 낼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만일 리비우스가 전에 신이 암소에게 말을 시켰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때 신을 신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리비우스를 신용치 않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 사실이 명백해진다. 즉 우리가 단순히 인간의 권위나 그들의 서적의 권위로부터 끌어 낸 이유 이외의 어떤 이유도 없이 믿는 것은, 가령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사람들이 신으로부터 내려졌는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그것은 다만 인간에 대한 신앙에 지나지 않는다.

제8장 일반적으로 지적(知的)이라 부르는 덕(德) 및 그 반대의 결함(缺陷)에 대하여

지적인 덕의 정의 덕이란 일반적으로 모든 문제에 대해 무엇인가 다른 것과 비교하여 두드러지게 뛰어났기 때문에 평가되는 것으로서 비교에 바탕을 둔 것이다. 만일 모든 사물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다면 아무것도 칭찬받을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적(知的)인 덕이라고 할 때는 늘 이해되기를 사람들이 칭찬하고 값어치가 높은 것으로서 누구나 자신 속에 있기를 바라는 정신의 능력이며,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훌륭한 여러 지력(知力)'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똑같이 '지력'이란 말은 또 역시 어떤 특정한 능력을 다른 것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해 쓰이는 때도 있다.

타고난, 또는 획득된 지력(智力) 이러한 덕에는 '타고난 것과 획득한 것'의 두 종류가 있다. 태어날 때부터 지닌 것이란 사람이 출생과 동시에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감각일 뿐인데, 감각에 있어서는 사람들은 서로 다르며 또 야수와도 전혀 다르며, 따라서 그것을 덕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내가 말하려는 것은 방법이나 교양의 지도 없이 관용이나 경험만으로 배우는 지력을 말한다. 이 타고난 지력은 주로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구상(構想)의 신속*(즉 하나의 사고에서 다른 사고에로의 빠른 연속)*과 어떤 승인된 목표에의 '확고한 지향

(指向)'이 그것이다. 반대로 느린 구상은 정신의 결함 · 결점이 되며 보통 지둔(遲鈍), 우둔이라 부르고 또 때로는 운동의 느림 혹은 움직이기 어려운 것을 표현하는 다른 명칭으로 불린다.

그래서 이 속도의 차이는,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다른 사람은 다른 일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정념의 차이에 기인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의 사고는 이런 방향으로 치닫고,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는 저런 방향으로 달리므로 이들은 그 구상을 통과하는 사물에 여러 가지로 포착되며, 그것들을 여러 가지로 관찰한다. 따라서 사람들의 사고의 계속에 있어서 그들이 사고하는 사물에 대해서는 이들이 어떤 점에서 서로 '닮았고 또 닮지 않았는가', 혹은 그것들이 '어떤 보탬이 되는가', '어떻게 해서 이런 목적에 보탬이 되는가' 하는 것 외에 관찰할 것은 없게 된다.

좋은 지력, 즉 상상력 그러므로 이러한 사물의 비교가 다른 사람에게 의해 극히 드물게밖에 관찰되지 않는 것이라면 이 비교를 관찰하는 사람들은 '좋은 지력'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다. 이때에는 그것은 '좋은 상상력'을 뜻한다.

좋은 판단 그러나 그들의 차이, 비슷하지 않는 것의 관찰은 어떤 사물을 다른 사물로부터 '구별하고 식별하고 판단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으나 만일 이런 식별이 손쉬운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좋은 '판단력'을 가졌다고 말한다. 특히 교제나 직업에 관한 일에 있어서는 때와 장소와 사람이 식별된다.

분별(分別) 이런 덕은 분별이라 불린다. 전자, 즉 상상력은 판단의 도움 없이는 덕으로서 칭찬받을 수 없다. 그러나 후자, 즉 판단과 분별은 상상력의 도움 없이 그것만으로 칭찬받을 수 있다. 좋은 상상력은 때와 장소와 사람의 분별이 필요한 외에 사람의 사고를 그 목표에, 바꾸어 말하면 자기의 사고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어떤 효용을 향해 때때로 향하는 일도 역시 필요하게 된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이 덕을 지닌 사람은 손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자기의 논의의 예증으로 활용하거나 새로운 적당한 비유로 논의를 장식할 뿐 아니라 거기에서 비범한 독창성을 짜내어 사람을 즐겁게 한다. 그렇지만 커다란 상상력이 어떤 확고한 목표 없이 목표에의 지향성을 갖지 않았다면 그것은 일종의 광란(狂亂)이다. 즉 사람이 어떤 논의를 시작할 때 자신의 사고에 떠올라오는 것이 있을 때마다 갑작스럽게 그 논의

의 목표를 잃고 몇 번씩이나 지루하게 탈선도 하고 삽입구를 끼어 넣는 등 자신도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유의 어리석음에 대해서는 특히 무엇이라고 불러야 좋을지 모르겠다. 그 원인은 때로는 경험의 결여 때문이므로 다른 사람에게는 새롭지도 신기하지도 않는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이며, 또 어떤 때는 소심한 것이 원인이어서 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사세(些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그에게는 중요한 일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새롭고, 중요한 일, 따라서 말하기에 알맞다고 생각하는 일은 모두 사람을 차차 논의의 예정된 방향에서 벗어나게 하고 만다.

뛰어난 시(詩)에 있어서는, 그것이 '서사시'이든, '극시(劇詩)'이든, '14행시'나 '풍자시', 그 밖의 어떤 시에 있어서나 똑같이 판단력과 상상이 함께 필요하지만, 그러나 상상 쪽이 탁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는 과장에 의해 기쁨을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무분별 때문에 불유쾌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뛰어난 역사에 있어서는 판단력이 탁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이유는 그것이 뛰어난 까닭이 방법, 진실성 및 그것이 알려지는 것이 지극히 유익한 이야기를 선택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상상은 문체를 장식하는 외에는 들어갈 여지가 없다.

상찬하는 연설이나 욕지거리에 있어서는 상상은 뛰어난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기도되고 있는 것은 진실성이 아니라 칭찬하거나 부끄럽게 하거나 하기 위한 것이므로 고상한, 또는 천박한 비유를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판단력은 오직 어떤 경우에 어떤 행위를 칭찬할 것인가 또는 책할 것인가를 시사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권고나 변호에 있어서는 진실과 기만의 어떤 것이 당면한 기도에 가장 큰 구실을 하는가에 따라 판단력 혹은 상상이 지극히 필요하게 된다.

논증이나 토의 또는 모든 엄밀한 진리의 탐구에 있어서는 판단력만으로 충분하다. 예외로서 때로는 어떤 적절한 비교에 의해 이해의 단서가 열릴 필요가 있으며 그 때에는 상상이 큰 몫을 한다. 그러나 비유에 대해 말한다면 이 경우에는 완전히 제외된다. 왜냐하면 비유는 공공연히 허위인 것을 표명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토론이나 추리 속에 넣는 것은 분명히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논의에 있어서도 분별의 결여가 명백하면 상상이 아무리 풍부하더라

도 그 논의 전체는 지력의 결핍의 증거로서 받아들여진다. 그리하여 분별이 명백할 때에는 상상이 아무리 평범하더라도 결코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

사람들의 속 깊은 사고는 수치도 없으려니와 비난을 받는 일도 없이 모든 사물, 즉 신성한, 불경한, 청백한, 오탁한, 중대한 또는 경솔한 일들을 편력한다. 그러나 이런 일은 말로 이루어진 논의로는 판단력이 때와 장소와 사람에 따라서 좋다고 하는 것을 지나쳐서는 안 될 일이다. 해부학자나 의사는 불결한 일들에 관한 자신의 판단을 이야기하거나 써도 괜찮다. 그것은 즐겁게 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익을 주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것과 같은 일에 관여할 방법도 없는 자기만이 즐기는 상상을 쓰는 것은 오물 속에 굴러들어간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것과 꼭 같은 일이다. 이 두 개의 경우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뒤의 경우에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모두가 마음의 긴장을 풀고 있는 경우,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는 사람은 말의 영향이나 애매한 의미를 멋대로 농간하고 때때로 엉뚱한 상상의 태도를 농해도 좋다. 그렇지만 설교 속에서나, 공식적인 일, 알지 못하는, 혹은 존경해야 할 사람들 앞에서는 아니꼬운 말을 되풀이하는 것은 한결같이 어리석은 짓으로 여겨진다. 그리하여 이런 경우의 차이도 역시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 없는가 하는 점에 달려 있다. 따라서 지력을 지니지 못하고 있을 때 부족한 것은 상상이 아니고 분별이다. 그러므로 판단력은 상상력 없이도 지력일 수 있으나 판단력 없는 상상은 그렇지 않다.

신려(愼慮) 어떤 의도가 있는 사람의 사고가 많은 일을 살피고 그것들이 그 의도에 어떻게 보탬이 되는가, 혹은 그것들이 어떤 의도에 보탬이 되는가를 관찰할 때 그의 관찰이 평범하지 않은 보통 이상의 것이라면 그의 이 지력은 신려라 불린다. 그리하여 그것은 이전의 같은 일과 그 과정에 관한 많은 경험과 기억에 의존한다. 이에 대해서는 사람들 사이에 상상이나 판단력에 관련될 만큼의 큰 차이는 없다. 왜냐하면 동년배의 사람들이 갖는 경험은 양에 있어서 크게 다른 것은 아니며 다만 각자는 각기 의도를 가졌고 경험을 얻는 기회가 여러 가지일 뿐이기 때문이다. 한 집안을 잘 다스리는 것과 왕국을 잘 다스리는 것과는 숙려의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일의 종류의 차이이다. 그것은 그림을 작게 그리는 것과 실물의 크기로 혹은 실

물보다 크게 그리는 것과가 예술의 정도의 차이가 아닌 것과 같다. 하찮은 농부도 자기 집안의 일에는, 추밀고문관(福密顧問官)이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숙려를 하고 있다.

간사한 지혜 흔히 사람들이 공포나 필요에서 생각해 내는 부정한 혹은 부정직한 수단의 행사를 당신이 신려에 포함시킨다면 당신은 간지라 부르는 비뚤어진 지혜를 갖고 있으며 이것은 소심한 증거이다. 왜냐하면 도량이란 부정 혹은 부정직한 도움을 경시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라틴 사람이 '농간'*(영어로는 '그때만 피하기 위한 발뺌')*이라 부르는 것, 즉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지불하기 위해 이 사람으로부터 빼앗는 것처럼 눈앞의 위험이나 곤란을 피하고 보다 큰 위험이나 곤란을 초래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간지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현재의 편리 때문에 고리(高利)로 차금(借金)하는 것을 뜻하는 '돌려쓰기'에서 농책(弄策)이라 불린다.

획득된 지력 획득된 지력*(즉 방법과 지도에 의해 획득된 것을 가리킨다)*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추리 이외에는 없다. 그것은 언어의 올바른 사용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학문을 이룩하는 것이다. 그러나 추리와 학문에 대해서는 이미 5장과 6장에서 논한 바 있다.

지력의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정념에 있다. 그리고 정념의 서로 다름은 일부는 체질의 다름에서, 일부는 교육의 다름에서 생긴다. 왜냐하면 만일 이 서로 다름이 두뇌의 상태나 내적 외적인 감각의 여러 기관으로부터 생긴다면 사람의 상상이나 분별의 서로 다름과 같은 정도로 시각이나 청각 그 밖의 감각에도 서로 다름이 생기는 이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은 정념에서 생기며 정념은 사람들의 육체의 다름뿐 아니라 관습이나 교육의 다름에 의해서도 달라지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력의 다름을 가져오는 정념은 주로 권력과 재산과 지식, 명예에 대한 크고 작은 의욕이다. 이것들은 모두 맨 앞의 것, 즉 권력의 의욕으로 돌아갈 수 있다. 재산이나 지식이나 명예는 권력의 여러 가지 종류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 사물의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이것이라고 꼬집어 말할 만한 정념을 갖지 않고 무관심이라고 불릴 수 있는 자는 다른 사람을 노엽게 하는 일이 없다는 뜻에서 선인(善人)이겠으나 그는 도저히 큰 상상력이나 깊은 판단력을 가질 수 있

는 사람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의욕에 대한 사과의 관계는 척후(斥候)나 간첩이 집 밖을 배회하며 하고 싶은 일을 달성하는 길을 찾아 내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정신의 운동의 모든 확고성과 신속성은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즉 어떤 의욕도 갖지 않는 것은 죽음인 것처럼 약한 의욕을 갖는 것도 지둔이다.

변덕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서 고루 의욕을 갖는 것은 변덕 또는 산만(散漫)이다.

광란 또 어떤 일에 대해 보통 다른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이상의 강하고 격한 정념을 가진 것은 사람들이 광란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념 자체와 거의 같을 정도로 많은 종류가 있다. 때로는 이상하고 극단적인 정념이, 신체 여러 기관의 구성이 잘못돼 있거나 그것이 손상된 데서 생기며 또 어떤 때는 정념이 격하고 또 오래 계속된 때문에 여러 기관은 손상하거나 서로 맞지 않는 상태가 일어나거나 한다. 그러나 그 어느 경우에도 광란은 모두가 같은 성질의 것이다. 과격성이나 지속성에 의해 광란을 일으키는 정념은 보통 '자만'이라든가 '자부심'이라고 불리는 대단히 큰 '자기도취'이거나 또는 큰 '실의(失意)'이다.

분노 자만은 어쨌든 사람을 노여움에 빠뜨리나 지나친 그것은 분노 또는 격노라 불리는 광란이 된다. 거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즉 지나친 복수욕은 그것이 상습화되면 기관을 해치며 분노가 된다. 질투를 동반하는 지나친 사랑도 역시 분노가 된다. 또 자신의 영감, 지혜, 학식, 자태 및 그 밖에 관한 지나친 평가도 산만과 변덕이 되며, 또 그와 같은 것이 선망과 결합하면 분노가 된다. 어떤 일의 진실성에 대한 열성적인 신념이 다른 사람에 의해 반박당하면 분노가 된다.

우울 실의는 사람을 이유 없는 공포에로 몰아넣는다. 그것은 보통 우울이라 부르는 광란이며 이것 역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쓸쓸한 곳이나 묘지에 즐겨 가는 것, 미신적인 태도, 이것저것 특별한 사물에의 공포 등으로 나타난다. 요컨대 기묘하고 수상치 않은 태도를 낳는 정념은 모두 광란이라는 일반적 명칭으로 불린다. 그러나 그런 수고를 할 사람이 있다면 여러 가지 광란에 대해 대단히 많은 것을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나친 정념이 광란이라면 정념이 악으로 기우는 경우에도 정념 자체로서는 같은 종류의 것이라는 사실은 틀림없다.

(예를 들면) 영감을 받았다는 신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의 어리석은 결과도 개인에 있어서는 이러한 정념이 바탕이 되어 무언가 더없이 엉뚱한 행위로 나오는 모습으로 남의 눈에 띈다는 데 그치지 않으나 그들의 다수가 공모하여 일을 저지를 때에는 그러한 많은 광폭은 충분히 눈에 띄는 일이 된다. 가장 친한 친구들을 상대로 소동을 피우고 폭행을 하여 돌을 던지는 일처럼 큰 광란의 증거나 따로 있겠는가? 더구나 그러한 군중이 행동할 것이라는 것과 비교한다면 사소한 일일 뿐이다. 그 이유는 그들은 지금까지의 생애를 통해 자기들을 보호하고 침해로부터 지켜 준 사람들을 향해서까지 소동을 피우고 싸우며 그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이것이 군중에 있어서의 광란이라면 그것은 각 개인에 있어서도 광란이다. 바다 한복판에서 자기 바로 가까운 부분의 물소리를 지각하지 않고도 그 부분은 같은 양의 다른 어떤 부분과 똑같이 해양(海洋)의 포효에 대해 이바지하고 있음을 충분히 확신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한 사람이나 두 사람에게는 하등 중대한 불온성(不穩性)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개인의 정념이 고민하는 국민의 소요적인 포효의 일부임을 충분히 확신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들의 광란을 드러내는 것이 달리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영감을 얻었다고 그들이 참칭(僭稱)했다는 사실이 이미 충분한 증거인 것이다. 만일 베들레헴 정신병원에서 어떤 남자가 당신을 진지한 담론으로 응대했다고 해서 헤어질 때 당신이 언젠가 그의 마음씨에 보답키 위해 그가 누구인가를 알고 싶어 했을 때 그가 당신을 향해 자기는 아버지인 신이라고 답했다 하자. 그런 때 당신은 그의 광란의 증거로서 이 이상 어떤 뜻밖의 엄청난 행위를 기대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런 영감을 받았다는 신념은 보통 내적 영(內的靈)이라 불리며 그것은 너무나 빈번하게도 다른 사람들이 널리 지니고 있는 오류를 다행하게도 발견하는 데서 비롯한다. 그리고 어떠한 추리의 인도에 의해 자기가 확실히 독특한 진리*(많은 경우, 그것은 그가 우연히 마주친 허위인 것을 그들은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에 이르른 것임을 모르고 혹은 기억하고 있지 않은 채 자신들을 전능한 신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신이 이 진리를 영감에 의해 그들에게 초자연적으로 계시한 것이라고 곧바로 우리 자신을 존경하기 시작한다.

또한 광란이 지나치게 밖으로 드러난 정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술이 미치는 효과로 추측할 수 있는데 그 효과는 여러 기관의 부조화가 가져오는 효과와 같은 것이다. 즉 술 마시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태도는 미치광이의 그것과 같은 것으로 그중의 어떤 사람은 분노하고 다른 사람은 사랑하며 다른 사람은 웃기도 하여 한결같이 모두가 과장하고 더욱 몇 가지의 지배적인 정념에 따라 그렇게 한다. 술의 효과란 다만 사람의 마음의 위장을 벗기고 자신의 정념의 흉한 모습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믿기를)* 가장 근엄한 사람들조차 기분을 풀고 마음을 쓰지 않기 위해 혼자 거닐고 있을 때, 그의 심중에 떠오르는 쓸데없는 엉뚱한 생각을 남의 앞에서 공표하기를 좋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방황하는 정념이 대개는 광란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다.

광란의 원인에 관한 고대 및 후세의 사람들의 의견은 두 종류가 있었다. 한 의견은 그것을 정념에서 구하고 또 다른 의견은 그것을 선악의 악마나 영에서 구해, 그러한 악마나 영이 인간 속에 들어가 그를 포박해 미치광이가 항상 그런 것같이 기묘하고 기괴한 모양으로 그의 기관을 자극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앞의 견해로는 그런 사람을 미치광이이라 불렀으나 뒤의 견해로는 그런 사람은 때로는 '악마가 붙었다'*(즉 영이 씌인 자)*고 불렀고 어떤 때는 energumeni, 즉 영에 선동되고 혹은 충동된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현재 이탈리아에서는 pazzi, 즉 미치광이라고 부를 뿐 아니라 spiritati, 즉 홀린 사람이라고 불리고 있다.

옛날 그리스의 압데라라는 마을에서 몹시 더운 날에 비극 〈안드로메다〉가 상연될 때 대군중이 모였다. 그때 퍽 많은 관중이 열병으로 신음했으나 더위와 비극의 양쪽이 원인이 되어 그들이 페르세우스와 안드로메다의 이름이 든 풍자시를 멋대로 웅얼거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것도 겨울이 오자 열병과 함께 가라앉았다. 그리하여 이 광란은 이 비극에서 감명을 받은 정념에서 생긴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마찬가지로 다른 그리스의 마을에서 광란의 발작이 유행했는데 그것은 젊은 처녀들만이 걸려 많은 처녀들이 그 때문에 목매어 죽었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악귀의 짓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처럼 아가씨들이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정념에 의한 것은 아닌가 의심하고 아가씨들이 그들의 명예도

똑같이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그처럼 목을 매어 자살한 자의 의복을 벗겨 나체로 전시할 것을 위정자에게 진언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렇게 해서 그 광란은 가라앉았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편으로는 같은 그리스 사람들이 때때로 광란은 에우메니데스[1] 또는 푸리아이의 조작의 탓으로 돌리고 때로는 또 케레스[2]나 포이보스[3]나 그 외의 여러 신의 조작의 탓으로 돌렸으며, 어떤 사람들은 유령의 탓이라 하고 그것을 기체의 생물이라 생각하여 보통 영이라 부를 정도였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는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과 같은 의견을 가진 것과 같이 유대 사람도 역시 그러했다. 즉 그들은 *(영을 선악의 어느 것으로 생각하는데 따라)* 미치광이를 예언자라 부르기도 하고 악마가 붙은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또 그들 중 어떤 사람은 예언자를 악마 붙은 미치광이라고 부르고 또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악마가 붙은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미치광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이방인(gentile, 기독교도 사이의 이교도)에 있어서도 그것은 전혀 이상야릇한 일은 아니었다. 그 이유는 병과 건강, 악덕과 덕, 자연의 무수한 사건은 그들에 의해 악마라 이름 붙여지고 악마로서 숭배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악마라고 할 때 사람은 악귀와 함께 *(때로는)* 그 기원을 이해해야 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은 다소 기묘한 일이다. 왜냐하면 모세도, 아브라함도 영을 지니기 때문이 아니라 신의 목소리에 의해 혹은 환영이나 꿈에 의해 예언자임을 주장했으며 또 그들의 도덕의 법이나 의례의 법속에는 그러한 신에 의해 붙들렸다는 사실이나 신들린 것이라고 그들을 가르친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민수기〉 11장 25절에서 신이 모세 안의 영을 꺼내 70인의 장로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말할 때, 신의 영*(그것을 신의 실체라고 생각하면)*은 분할될 수 없는 것이다. 《성경》에서 인간 속의 신의 영이라 할 때 그것은 신성(神性)에의 경향을 가진 인간의 영을 의미한다. 그리고 〈출애굽기〉 28장 3절에 '아론의 옷을 만들기 위해 자기가 지혜의 영을 가지고 가득 차게 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옷을 만들 수

1 Eumenides, 그리스의 복수의 여신으로 푸리아이(Furiae)와 같다.
2 Ceres, 고대 이탈리아의 농업의 신.
3 Phoebus, 아폴로.

있는 사람들 속에 나누어져 있는 하나의 영이 아니라 그런 종류의 일에 관한 그들 자신의 정신의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다. 같은 의미로 인간의 정신은 그것이 더럽혀진 영이라 부른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영도 언제나 그렇지는 않지만 이른바 덕이나 악덕이 이상한, 그리고 뛰어난 것일 때에 영이라 불린다. 《구약 성경》의 다른 예언자도 신에 의해 홀렸다든가, 신이 그들 속에서 이야기했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신은 목소리나 환영이나 꿈에 의해 그들을 향해 말했다고 했고 또 '주의 책임'이란 신들린 것이 아니고 명령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 유대 사람은 이 신들린다는 신념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것인가.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이유, 즉 자연적 원인을 탐구하고자 하는 호기심이 없거나 또 그들이 하찮은 감각의 쾌락과, 그러한 쾌락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복을 받았다고 하는 이외에는 그 이유를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의 정신에 무엇인가 기묘하고도 보통이 아닌 능력이나 결함을 보는 사람에게는, 그것과 함께 그것이 어떠한 원인에서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을 자연적인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서는 그들은 그것을 초자연적이라고 생각지 않을 수 없으며, 그렇게 되면 그것은 신이나 악귀가 그 사람의 안에 있다는 것 이외에 무엇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또 우리들의 구세주가 그를 미치광이라 의심하여 붙잡으러 밀려 나온 사람들에게 둘러싸였을 때[4] 율법학자(律法學者)들은 그가 바알세불[5]의 힘을 얻어 그것에 의해서 그는 심한 미치광이가 그렇지 않은 미치광이를 두렵게 만드는 것과 같이 악귀들을 몰아 낸다고 한 것과, 또 어떤 자가 그는 '악귀를 지니고 있는 미치광이'라고도 하고,[6] 그에 반하여 다른 사람은 그를 예언자라고 믿어서, '이것들은 악귀와 접한 자의 말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도 전술한 것과 같은 것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의 〈열왕기하〉 9장 11절에서 예후의 성유식(聖油式)에 참석한 사람들은 예언자였으나 동료 중의 어떤 자는 '예후여! 무엇 때문에 저 미치광이가 이

4 〈마가복음〉 3장 21절.

5 에크론 사람들의 의약의 수호신이지만, 여기에서는 악귀의 우두머리를 뜻함.

6 〈요한복음〉 10장 20절.

자리에 왔는가' 하고 물었다. 그것은 요컨대, 명백한 사실은 이상한 짓을 하며 행동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유대 사람에 의하면 선악의 어떤 영(靈)에건 홀렸다고 생각되었다라는 사실이다. 예외로는 사두개파[7]의 사람들로서, 그들은 그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어떤 영이 있다는 것을 전혀 믿지 않는 데서 심한 오류에 빠지고 있어서 *(그것은 명백히 무신론에 극히 가까웠다)* 그 때문에, 짐작컨대 다른 종파를 자극하여, 그들은 미치광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보다는 오히려 악마가 붙은 사람이라고 이름 붙이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들의 구세주는 그들을 구원함에 있어서 광기는 아니더라도 신이 들린 듯한 태도를 취하였던 것일까. 이것에 대하여 나는 《성경》이 한결같이 지동설을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과 같은 종류의 대답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신의 왕국을 제시하고 그들이 신의 유순한 백성이 되도록 마음의 준비를 시키기 위하여 쓰여진 것으로서, 현세와 그에 관한 철학에 대하여서는 사람들의 본래의 이성을 움직이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논쟁에다 맡겼다. 낮과 밤을 만드는 것은 지구의 운동이냐 태양의 운동이냐 하는 것이나 사람들의 탈선적인 행위가 정념에서 나온 것인가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리들은 그를 숭배하지 않는다)*, 또는 악귀에서 나오는 것인가 하는 것은, 《성경》이 쓰여진 목적인 전능한 신에의 우리들의 순종 및 순종에 관해서는 모두 어떠하여도 괜찮다는 것이다. 우리들의 구세주가 사람에 대하여 말하는 것과 같이 병에 대하여서도 말을 건넸다. 그것은 그리스도처럼 *(악귀를 상대했는지 어떤지는 별도로 하고, 마술사들도 그렇게도 행한다고 자칭하였듯이)* 말로 병을 치료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상투 문구였다. 즉 바람을 꾸짖었다고 일컬어지는[8] 것도 또한 그리스도가 아닌가. 열병을 꾸짖었다고 일컬어지는[9] 것도 또한 그가 아니었던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열병이 악귀라는 것을 논증하는 것은 아니다. 또 그들의 많은 악귀가 그리스도를 인정한 듯이 말하고 있으나 그러한 《성경》의 대목은

7 Saddukaios, 유대교의 한 종파.
8 〈마태복음〉 8장 26절.
9 〈누가복음〉 4장 39절.

미치광이가 그리스도를 인정했다는 것 이외의 해석을 내릴 필요는 없다. 또 우리들의 구세주는 더럽혀진 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즉 사람으로부터 나와서 물이 마른 사막을 방황하며 휴식을 구하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자기보다 악한 일곱 가지의 영을 이끌고 같은 사람에게로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다.[10] 이것은 확실한 비유로서, 쾌락을 버리기 위해서 조그만 노력을 한 뒤에 그러한 쾌락의 힘에 져서 이전의 7배나 더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을 암암리에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신들린 악귀 붙은 미치광이가 아닌 무엇인가 다른 것이었다는 신념을 요구하는 어떠한 일들도《성경》안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뜻이 없는 언어 어떤 사람들의 논의 가운데는 또 다른 결함이 있어서 그것 또한 광란의 종류로 헤아려도 좋다. 즉 이미 나는 5장에서 '불합리〔背理〕'라는 명칭으로 서술한 언어의 악용이 또한 그것이다. 그것은 조립하면 전혀 의미가 없는 말을 사람이 지껄이는 경우로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받아서 기계적으로 되풀이하는 말의 의미를 뒤바꿈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애매하게 만들어 기만하려는 의도에서 그것을 생각해 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스콜라 학자들처럼 생각할 수 없는 일이나 심원한 철학의 문제에 관하여 대화하는 사람에게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범인(凡人)은 의미를 알 수 없는 것은 좀처럼 말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비범한 사람으로부터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말들이 그것에 대응하는 것을 무엇 하나도 마음속에 떠올리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는 몇 가지의 예가 필요할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그것을 요구한다면 어떤 스콜라 학자의 예를 들어, 어떠한 어려운 문제에 관한 입장을 번역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즉 삼위일체, 신성, 그리스도의 본질, 성변화(聖變化), 자유 의지 등의 어려운 문제를 어떠한 근대어(近代語)로 번역을 해서 그것을 알기 쉽게 하거나 또는 라틴어가 민중 일반에게 두루 쓰였던 시대의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것과 같은, 어떠한 정확한 라틴어로 번역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다. 다음의 의미는 어떠한 의미일까. '제1원인은 제2원인이 그것

10 〈마태복음〉 12장 43~45절.

에 의해서 앞의 작용을 도움 줄 수 있는, 제2원인의 본질적 종속에 의해서, 무엇인가 다른 것을 제2원인에다 주입시키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것은 수아레스(Suarez)의 《신의 인간에의 협력과 운동과 구제에 대하여서》의 제1서 6장의 표제의 번역이다. 그들이 미치광이인 것인가, 또는 다른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책 전부를 이와 같은 내용만의 책으로 쓸 수가 있을 것인가. 특히 성변화(聖變化)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이야기가 서술된 다음에 희'기', 둥글'기', 크'기', 좋'기', 썩기 쉽'기' 등의, 그 어느 것도 무형의 일들이 성병(聖餠, Wafer)으로부터 빠져 나가서 우리들의 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신체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은, 이것들의 '무엇 같다'든가, '무슨 성질'이라든가를, 그리스도의 신체에 그만한 수의 영이 실렸다고 생각하고나 있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그들이 영이라고 할 때에는 항상 무형이긴 하지만, 더욱이 어떤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런 종류의 불합리(背理)는 많은 종류의 광란으로 헤아리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이 세상의 쾌락에 대하여서의 명백한 사고로 유도되고 있어, 위에서 서술한 듯이, 논하거나 쓰거나 하는 것을 참고 있을 때에는 모두가 미치광이의 평정기(平靜期)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상으로 지적인 덕과 결함에 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하였다.

제9장 지식의 몇 가지 주제에 대하여

지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서, 하나는 '사실에 관한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의 단정에서 다른 단정에의 연속에 관한 지식'이다. 전자는 감각과 기억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은 '절대적 지식'이고, 우리들이 행하여지고 있는 사실을 보거나 그것이 행하여진 것을 상기하거나 하는 경우의 것이다. 그리고 증인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지식은 바로 이런 것이다. 후자는 '학문'이라고 불리며, 그것은 '조건적 지식'으로서, 우리들이 '제시된 도형이 원(圓)이라면 그 중심을 통하는 직선은 그것을 이등분으로 나눌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경우와 같은 것이다. 그리하여 이것이 철학자에게 있어서, 즉 추리한다고 말하는 자에게 있어서 필요로 하는 지식이다.

'사실에 관한 지식'의 기록은 '역사'라고 불려진다. 그것에는 두 종류가 있어 그 하나는 '자연사'라고 불려진다. 그것은 '금속'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지역' 등의 역사와 같이 인간의 '의지'에 조금도 의존하고 있지 않는 것과 같은 자연의 사실 또는 효과에 대해서의 역사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사'로서, 그것은 여러 코먼웰스에 있어서의 인간들의 의지적 행위에 관한 역사이다.
학문의 기록은 하나의 단정이 다른 단정에의 연속에 관해서의 '논증'을 내용으로 하는 '서적'이 되고,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철학서'라고 불린다. 이것에는 여러 가지의 사물에 따라 많은 종류가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내가 다음 면의 도표에서 구분하였듯이,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제10장 힘, 가치, 위계, 명예 및 적임성에 대하여

힘 *(일반적인 생각으로)* '어떤 사람의' 힘이란 가까운 앞날에는 확실히 선(善)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획득하기 위하여 그가 현재 가지고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그것은 '원천'적인 것이거나 '수단'적인 것이다.
본인이 '타고난 힘'이란 비상한 힘이나 신중한 생각이나 기예(技藝)나, 웅변이나 관용이나 고귀함과 같은 신체 또는 정신적 여러 능력의 우수성을 말한다. '수단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과 같은 것에 의해서나, 또는 요행에 의해서 얻어진 힘이며 그것은 재산이나 평판이나 친구나 다른 사람들이 행운이라고 부르고 있는 신의 숨은 조력과 같은 것을 보다 많이 얻기 위한 방법이며 수단인 것이다. 즉 힘의 성질은 이런 점에서는 그것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욱 증대되는 명성과 닮은 것이며, 또한 앞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빠른 속도를 지니게 되는 무거운 물체와도 같은 것이다.
인간이 가지는 힘 가운데 최대의 것은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의 동의에 의하여, 사회적이나 또는 자연적인 한 인격에 결합된 힘의 합성력(合成力)으로서, 이 인격은 그들의 모든 힘을 코먼웰스 힘이 그러하듯이, 그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거나 또는 당파의 힘이나 여러 집단적인 동맹의 힘이 그러하듯이 각기의 의사에 따라 사용할 수가 있다. 따라서 종복(從僕)을 거느리는 것은 힘이며, 친구를 얻는 것

도 힘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합된 힘이 되기 때문이다.
너그러움과 결합된 재산도 또한 힘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친구를 얻으며 종복을 거느릴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그러움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힘이 아니다. 이러한 경우는 재산이 사람들을 지키지 않고 먹이(餌食)로서 질투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힘이 있다는 평판은 또한 힘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것에 의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밀착시키기 때문이다.
사람이 그 조국을 사랑한다는 평판*(즉 민중에게 사랑을 받는 것)*도 같은 이유로 힘인 것이다.
또한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거나 또 무서워하도록 만드는 모든 재능이나 그러한 재능을 가졌다는 평판도 또한 힘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원조와 봉사를 얻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훌륭한 성공은 힘이다. 그것은 지혜 또는 행운을 가졌다는 평판을 만들고 이 평판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두려워하게 하거나 또 의지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이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냥하게 처신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힘을 더욱 증대시키는 것이 된다.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획득하게 되기 때문이다.
평화나 전쟁의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한다는 평판은 힘이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들은 깊은 사려(思慮)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서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보다도 자진하여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위임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고귀함은 힘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떠한 곳에 있어서나 그러한 것이 아니고 고귀함이 특권을 가질 수 있는 코먼웰스에 있어서만이 그것은 힘이 된다. 그것은 그러한 특권에 그들의 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웅변은 힘이다. 그것은 깊은 사려가 있는 것같이 보이기 때문이다.
용자(容姿)는 힘이다. 그것은 좋은 일을 기대케 함으로 해서 사람을, 여성들이나 면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좋아지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학문은 작은 힘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눈에 뜨이지 않는 것으로서, 또 인정받는다고 하여도 소수의 사람들에게만이, 그것도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소수의 일에 관해서만이 인정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즉 학문이란 꽤 많이 획득한 사

람이 아니고서는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해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요새화(要塞化)하거나 병기나 그 밖의 무기 제조와 같이 공공에 이바지하는 기술은 방위와 승리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힘이다. 그리하여 그것들의 실제의 산모는 학문, 즉 수학이라고는 하나 그것들은 기술자의 손에 의해서 빛을 보기 때문에 *(산파가 세상에서는 어미로 통하듯이)* 그것들은 그의 생산품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가치 인간의 '가치' 즉 값어치란, 다른 모든 것들의 값어치와 마찬가지로 그의 값어치이다. 즉 그의 힘의 효용에 의하여 주어질 액면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와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군대의 유능한 지휘관은 전시나 또는 전쟁이 임박하고 있을 때는 커다란 값어치를 지니지만 평시에는 그렇지를 못하다. 학식이 풍부하고 청렴한 재판관은 평시에는 커다란 값어치가 있으나 전시에는 그렇지를 못하다. 그리고 다른 모든 일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인간에 대해서도, 파는 측에서가 아니라 사는 측에서 그 가격을 결정한다. 즉 어떤 사람이 *(보통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자기를 가능한 한 값을 올린다고 하여도 그 실제의 가치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평가되는 가치 이상이 못 되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서로 주고받는 가치의 표준은 보통 명예를 주는 것이거나 또는 불명예라고 불리는 것이다. 사람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그에게 '명예를 주는' 일이며 낮게 평가하는 것은 그를 '불명예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높다거나 낮다고 하는 것은 이 경우는 각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부여한 액면과 비교하여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위계(位階) 어떤 사람의 공공적인 가치는 코먼웰스에 의하여 그에게 주어진 가치이며 사람들이 보통 위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코먼웰스에 의한 그의 이 가치는 명령을 내리고, 재판을 행하며, 공무를 집행하는 그 직책에 의하여, 또는 이러한 가치를 구별하기 위하여 정해진 명칭과 칭호에 의하여 이해되는 것이다.

명예를 부여하거나 불명예로 만드는 일 어떠한 종류의 원조이건 그것을 다른 사람

에게 간청하는 일은 그에게 명예를 주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우리들을 도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사의 표시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 원조가 곤란한 것이면 곤란할수록 그 명예는 더욱 커지는 것이다.

복종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명예를 준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들을 돕거나 해치거나 하는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나 복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복종은 '불명예로 만드는 일'이다.

어느 사람에게 큰 선물을 한다는 것은 그에게 명예를 주는 일이다. 그것은 보호를 사서 구하는 일이며 힘을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 작은 선물을 한다는 것은 불명예로 만드는 일이다. 그것은 동냥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약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촉진시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아첨하는 것도 명예를 주는 일이다. 그것은 우리들이 그의 보호 또는 원조를 구하고 있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업신여기는 것은 불명예로 만드는 일이다.

무엇인가 이익이 있을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길을 비키거나 장소를 양보하는 것은 자기보다 상대가 힘이 크다는 것의 고백이기 때문에 명예를 주는 일이다. 교만한 행동은 상대를 불명예로 만드는 일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또는 두려워하는 어떤 표지를 나타내는 것은 명예를 주는 일이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것이나 두려워하는 것은 모두 상대를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벼이 여기거나 그가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도 적게 사랑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불명예로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낮게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을 높이고 칭송하며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명예를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선량함이나 힘이나 복이 높이 평가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욕지거리나, 모욕, 또는 동정하는 것은 불명예로 만드는 일이다.

정중하게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고 예의와 겸손을 가지고 사람의 면전에 나타나는 것은 노여움을 사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표시이므로 그에게 명예를 주는 것이다. 사람에게 무분별하게 말하거나 그의 앞에서 음탕하게, 단정하지 못하게, 뻔뻔

스럽게 그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불명예로 만드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은 그가 덕과 힘을 가진다는 생각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에게 명예를 주는 일이다. 믿음이나 신뢰를 주지 않는 것은 불명예로 만드는 일이다.
어떠한 종류이건, 사람의 충고나 의논을 경청하는 것은 우리들이 그를 현명하다든가, 웅변이나 또는 지력(知力)이 풍부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표시이기 때문에 명예를 주는 일이다. 졸거나 자리를 뜨거나 떠드는 것은 그를 불명예로 만드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그가 명예로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법이나 관습이 명예의 표시가 되는 것을 행동하는 것은 명예를 주는 일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칭찬을 인정함으로 해서 그는 사람들이 승인하고 있는 힘을 승인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불명예로 만드는 일이다.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그의 판단과 지혜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를 주는 일이다. 동의하지 않는 것은 불명예로 만드는 일이며, 또한 오류를 비난하거나 *(많은 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우매함을 비난하는 것으로 이 또한 불명예로 만드는 일이다.
다른 사람이 명예를 주는 사람들에게 명예를 부여하는 것은, 그의 판단을 시인한 표시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명예를 주는 일이다. 그 사람의 적에게 명예를 부여하는 것은 그 사람을 불명예로 만드는 일이다.
충고를 구하거나 곤란한 행동에 부딪쳐서 그 충고를 이용하는 것은 그가 지혜나, 그 밖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에게 명예를 부여하는 일이다. 이런 경우 이용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렇게 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그를 불명예로 만드는 일이다.
이들의 명예를 주는 방법은 어느 것이고 자연적인 것이며, 코먼웰스의 안에서이건 밖에서이건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코먼웰스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것은 무엇이든 명예의 표지로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상 말한 것 외에도 명예가 있는 것이다. 주권자는 신민(臣民)

에 대하여 어떠한 칭호, 직무, 등용(登用), 행위이건, 그 자신이 신민에게 명예를 주고자 하는 그의 의사의 표지로서 받아들여지는 것을 바라는 것에 의하여 명예를 부여한다.

페르시아 왕이, 모르드개(Mordecai)에게 왕의 의상을 입고서 왕의 말을 타고, 왕관을 쓰고 공작을 길잡이로 해서 '왕으로부터 명예를 주어지는 자들에게 대하여서는 이러한 일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알리면서 거리를 인도받도록 지령받았을 때에는 그에게 명예를 부여한 것이다. 더욱이 다른 페르시아 왕 또는 다른 때에 있어서의 같은 페르시아 왕은 큰 공을 세운 보상으로서 왕의 예복의 한 가지를 착용할 것을 요구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나 그때에는 그는 그 예복을 왕의 허수아비로서 착용한다는 점이 첨가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것은 불명예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하여서 사회적인 명예에 관해서는 그 원천(源泉)이 코먼웰스의 인격 안에 있으며, 주권자의 의사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현세적인 것으로서 '사회적 명예'라고 불리는 것이다. 관직, 직무, 칭호 등이 그러하며, 어떤 곳에서는 문장(紋章)이나 채색된 방패(楯)의 장식이 그러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이것들을 가진 사람을 코먼웰스에 있어서 특별한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는 표지로 그만큼 갖고 있는 자로서, 명예를 주는 것이며, 따라서 그 특별 대우라는 것은 힘인 것이다.

명예로운 일 어떠한 것을 소유하는 일이건, 어떠한 행위 또는 재능이건, 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명예로운' 일이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명예가 주어지며, 사랑을 받고, 또 두려움을 받는 것은 힘을 소유하는 증거로서 명예로운 것이다.

불명예로운 일 거의 또는 누구에게서나 명예가 주어지지 않는 것은 '불명예한' 일이다.

지배 및 승리는 명예로운 것이다. 그것은 힘에 의하여 획득된 것이기 때문이다. 곤궁이나 공포에 의한 예속(隷屬)은 불명예로운 일이다.

행운이 *(만약 오래 계속된다면)* 명예로운 일이다. 신의 은총의 표지이기 때문이다. 악운이나 실패는 불명예로운 일이다.

재산이 있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다. 그것은 힘이기 때문이다. 빈곤은 불명예로운 일이다. 큰 도량, 결단성, 희망, 용기, 신뢰는 명예로운 일이다. 그것들은 힘을 의식함으로 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심, 인색, 공포, 불신은 불명예로운 일이다.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시의(時宜)를 얻은 결단 또는 결정은, 약간의 곤란이나 위험을 극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로운 일이다. 그리고 우유부단은 사소한 장해나 이익을 과대평가하는 표시이기 때문에 불명예로운 일이다. 그것은 사람이 시간이 허용되는 데까지 어떠한 일의 경중을 생각하며, 더욱이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그 중요성의 차이는 거의 없으며, 따라서 만약 그가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그는 대수롭지 않은 일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것은 소심함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풍부한 경험, 학문, 분별, 지력에서 나오는, 또는 나오는 것같이 보이는 모든 행위와 말은 명예로운 것이다. 이들은 모두 힘이기 때문이다. 오류, 무지, 우매함에서 생기는 행위나 말은 불명예한 것이다.

침착은 그것이 무엇인가 다른 어떠한 것에 몰두하고 있는 정신에서 나오는 것같이 보일 정도라면 그만큼 명예로운 것이다. 왜냐하면 몰두는 힘의 표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침착한 듯이 보이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같이 보인다면 그것은 불명예로운 일이다. 전자의 침착은 상품을 적재한 배의 안정에 흡사하지만, 후자의 그것은 모래나 그 밖의 쓰레기의 하물을 실은 배의 안정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저명하다는 것, 즉 부유나, 직무나 위대한 행위나, 무엇인가 탁월한 미덕 때문에 알려지는 것은, 그를 뛰어나 보이게 하는 그 힘의 표지이기 때문에 명예로운 일이다. 반대로 무명(無名)한 것은 불명예로운 일이다.

저명한 조상의 후예라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의 원조나 조력을 다른 사람보다도 손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름 없는 혈통의 출신이라는 것은 불명예로운 일이다.

손실을 감수하고 공평을 위한 행위는 도량의 표지이므로 명예로운 일이다. 왜냐하

면 도량은 힘의 표지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교활, 술책, 공평의 무시 등은 불명예로운 일이다.

막대한 재산을 열망하는 일이나 커다란 명예에의 야심은 그것을 획득하고자 하는 힘의 표지이기 때문에 명예로운 일이다. 얼마 안 되는 이득이나 승진을 열망하는 일이나 그것에의 야심은 불명예로운 일이다.

어떤 행위가 *(위대하고 곤란하며, 따라서 힘이 큰 것의 표지라면)* 그것이 옳거나 부정한 것이거나 간에 명예로운 일엔 변함이 없다. 명예라는 것은 오로지 힘에 대한 평가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고대의 이교도들이 그들의 시 속에서 그들의 신들을 강탈, 절도, 그 밖의 위대하기는 하지만 부정 불결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다루었던 때에도, 그들은 신들을 불명예롭게 만들었다고는 생각지 않고, 크게 명예를 부여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즉 유피테르에 있어서는 그 간통보다 더 크게 칭송받은 것은 없었으며, 또한 메르쿠리우스(헤르메스)에 있어서도 그 기만과 절도처럼 크게 칭송받은 것은 없었던 것이다. 호메로스의 찬가(讚歌)에 있어 그에 대한 찬양 가운데 최대의 것은 아침에 출생하여, 점심때에는 음악을 만들고, 밤이 되기 전에 아폴로의 가축을 그의 목인(牧人)으로부터 훔쳐 갔다라는 것이다.

사람들과의 사이에 있어서도, 위대한 코먼웰스가 형성되기까지는 해적이나 공공연한 산적이었다는 사실은 별로 불명예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합법적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었다. 그것은 그리스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에게 있어서도 그러하였음이 고대의 역사에 의하여 명백히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사적인 결투가 존재하며, 또 사적인 결투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명예가 주어지며, 도전하는 자에게는 치욕이 주어지는 때가 이를 때까지는 사적인 결투는 비합법적인 것이나 항상 명예로운 일로 생각될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결투는 아직도 늘 용기의 결과이며, 용기의 바탕은 항상 강함과 역량이어서 그것은 곧 힘이기 때문이다. 더욱 일반적인 결투는 결투자의 한쪽 또는 쌍방이 분별이 없는 입씨름을 하거나 또 체면이 깎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데서 오는 결과이며, 그들은 급한 성격의 포로가 되어서, 설욕을 위해서 결투장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다.

문장(紋章) 방패의 장식, 즉 세습적인 문장은, 그것들이 현저하게 특권을 가지게 되는 곳에서는 명예가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러한 힘은 그러한 특권이라든가 재산, 또는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더라도 같은 명예가 되는 것과 같은 데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류의 명예는 보통, 좋은 가문으로 불리며, 그것은 고대 게르만 사람들로부터 전하여진 것이다. 즉 게르만적인 관습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는, 그러한 사실들은 전혀 몰랐던 것이다. 또한 게르만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았던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오늘날 그것은 이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지휘관들은 출정할 때에 자기들의 방패에 각기 좋은 문장을 그려 넣어 색칠했으며, 그러지 못한 방패는 빈곤의 표지이며 한 병졸임을 나타내는 정도였으나 그들은 그것을 세습 재산으로는 전하지는 않았다. 로마 사람들은 그들의 가족의 표장(標章)을 전하였으나 그러한 표장은 그들의 조상의 상이었지 조상의 문장(紋章)은 아니었다.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의 민족의 사이에서는 이와 같은 일은 전혀 없으며 또 전에도 존재하지 않았었다. 게르만 사람들만이 이 관습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그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잉글랜드, 프랑스, 에스파냐, 이탈리아에서 로마 사람들을 돕거나 또는 스스로 정복을 하던 때에 그 관습이 이들 세계의 서쪽의 지방으로 흘러들어갔던 것이다.

말하자면 게르만 족은 고대에 있어서는, 다른 모든 나라들이 그 초기에 있어서 그러하였듯이 무수한 소영주(小領主)나, 또는 족장(族長)으로 분할되어 있어서 그들은 부단히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들 족장(族長)이나 영주(領主)들은 주로 무장하였을 때에 추종자(追從者)와 식별되도록 할 목적으로 또는 일부는 장식의 목적으로 그들의 갑옷이나 방패 장식, 또는 겉옷에 짐승이나 그 밖의 것의 그림을 그렸으며, 다시 그들의 투구의 꼭대기에 한층 돋보이게 하는 표장(標章)을 붙였었다. 그리고 그 투구나 갑옷의 장식은 세습적으로 그들의 자손들에게 전하여졌으며 장남은 그대로 이것을 계승하였으나 다른 아이들은 노주인(老主人), 즉 독어로 herealt가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무엇인가 다른 기장(記章)을 함께 붙여서 계승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족(一部族)의 다수가 결합하여 보다 큰 왕국을 형성하였

을 때에는 방패 장식을 구별해야 하는 노주인의 의무는 독립된 개인의 직무가 되었다. 그리하여 이들 영주의 자손은 명문의 오랜 가문에 속하고 그 대부분은 용감함과 폭력으로 이름을 떨치는 여러 가지의 동물이라든가, 성(城)이나 흉갑(胸甲)이나 무기나, 검대(劍臺)나, 성문이나 성책(城柵)이나 그 밖의 전쟁에 관한 기장을 표지로 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는 군사적인 덕 이외에는 그 무엇도 명예로운 것이 못되었기 때문이다. 후대에 이르러서는 왕뿐만이 아니라, 민중적인 코먼웰스에서도 전장(戰場)에 나가는 사람이나 전장으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에 대하여 격려를 위하여, 또는 공(功)을 치하하기 위하여 여러 종류의 방패 장식을 내려 주었던 것이다. 주의 깊은 독자라면 그리스, 로마의 옛 역사에서 당시의 게르만 민족이나 그 풍습에 대하여 서술된 것 가운데서, 이상의 모든 일을 발견하였을 것이다.

명예의 칭호 공작(公爵) · 백작(伯爵) · 후작(候爵) · 남작(男爵)과 같은 명예의 칭호는 코먼웰스의 주권에 의하여, 그들에게 부여된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로운 것이다. 이것들의 칭호는, 옛날에는 직무와 지배의 칭호로서 그 어떤 것은 로마 사람에게서, 또 어떤 것은 게르만 사람이나 프랑스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공작(公爵)은 라틴어의 '수령(首領, duces)'이며, 전쟁에 있어서의 장군인 것이다. 백작(伯爵)은 우의(友誼)로서 장군에게 동반한 '동료(同僚, comites)'로서, 정복한 후 예정된 지방을 통치하며, 방위하기 위하여 남겨졌던 것이다. 후작(候爵)은 '변경백(邊境伯, marchiones)'으로서 변경 지방(邊境地方), 즉 제국(帝國)의 경계선 부근의 영토를 통치하였던 백작이었다. 공작, 백작, 후작이라는 이것들의 칭호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치세(治世) 당시에 게르만 사람의 '민병(民兵)'의 관습으로부터 제국에 들어온 것이었다. 그러나 남작은 갈리아 사람의 칭호였던 것같이 생각되며 그것은 왕이나 왕족의 부하로서, 전쟁 때에는 그들의 측근에서 보좌함과 같은 뛰어난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병사(vir)'에서 나와, 라틴어의 vir와 같은 것을 나타내는 갈리아 사람들의 언어인 'ber'와 'bar'가 되고, 다시 그것에서 'bero' 및 'baro'로 된 것 같다. 그리하여 이러한 사람들은 'berones' 다음에는 'barones'라고 불렸고, 다시 에스파냐에서는 'varones'라고 불려졌던 것이다. 그러하기는 하나, 명예의 칭호의 기원에 관하여, 더욱 자세하게 알고자 하는 사람은,

셀던[11]의 이 문제에 관한 극히 뛰어난 논술 가운데서 내가 본 것과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들 명예에 관한 직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떤 곤란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 또 훌륭하고 평화로운 통치를 위하여 단순한 칭호로 바뀌어 그것은 대체로 코먼웰스에 있어서의 신민 사이에서의 우월이나 지위나, 계서(階序)를 두드러져 보이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되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이 점령도 지배도 하지 않는 지방의 공작 · 백작 · 후작 · 남작이 되었고, 그 밖의 칭호도 같은 목적을 위하여 창안된 것이었다.

어울림 적절하다는 것은 사람의 값어치, 즉 가치와는 다른 것이며 그의 공적, 즉 공로와도 다르며, 그가 적임이라고 불리려는 데 대한 특수한 힘, 또는 능력이다.

적임성 이 특수한 능력은 보통, 적임성 또는 '적응성(適應性)'이라고 불려지고 있다. 즉, 지휘관 이라든가 재판관 또는 그 밖의 다른 어떠한 임무에 가장 적절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것을 잘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의 재능을 가장 잘 구비하고 있는 사람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재산에 가장 적절한 사람이라는 것은 재산을 잘 이용하는 데 필요한 재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사람은 그러한 재능 가운데 어떤 것인가를 가지고 있지를 않다고 하여도 그는 무엇인가 다른 적절한 사람이며 가치가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나아가서 또한 어떠한 사람이 재산이나 직무나, 등용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앞서서 그러한 것을 획득하는 권리가 주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그것에 적합하다는 것은 권리를 전제로 하여, 그 주어지는 것이 약속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주어져야 할 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것에 관해서는 뒤에 계약에 대하여 논할 때 상술(詳述)하기로 한다.

제11장 태도의 다양성에 대하여

여기에서 태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태도라고 여기에서 내가 말할 때, 사

11 John Selden, 1584~1654, 잉글랜드의 법학자, 법제사가, 동양학자, 그로티우스의 논적이며, 홉스의 친구였다.

람들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양치질을 하거나 이를 쑤시거나 그 밖의 '자질구레한' 도덕 항목과 같은 예법(禮法)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류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평화로운 통일성을 지니는 생활을 하는 일에 관한 여러 가지의 태도의 도덕적 특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하여 우리들은, 이 세상의 복지(福祉)는 만족스러운 정신의 평안한 가운데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생각해 두어야 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 도덕 철학자의 저서(著書)가 말해 주고 있는 것과 같은, '궁극 목적(究極目的, finis ultimus)'이라든가 '최고선(至高善, summum bonum)'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 의욕(意慾)이 있는 목표에 도달한 사람은 감각과 구상력(構想力)이 정지해 버린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미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복지라는 것은 하나의 대상으로부터 다른 대상으로의 의욕의 계속적인 진행이며, 전자의 획득은 더욱이 후자에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이 원인은 인간 의욕의 목적이 단 한 번만의, 또는 일순간만의 향수(享受)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장래의 의욕이 가야 할 길을 영원히 확보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의 의지적 행위(意志的行爲) 및 성향은 만족된 생활을 획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보하는 경향을 따라 거기에 이르는 방향에 관해서만이 다를 뿐인 것이다. 이 방향의 틀림은 일부에서는 각 사람에게 있어서의 정념의 다양성으로부터 생겨나고, 또 일부에서는 의욕된 효과를 가져다주는 여러 원인에 관하여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과 의견의 틀림에서 생기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힘에의 끊임없는 의욕 그래서 나는 제일 먼저 전 인류의 일반적인 성향으로서 차례차례로 힘을 얻고 죽음에 의해서만이 소멸되는 끊임없는 또는 휴식함이 없는 의욕을 든다. 이 원인은 사람들이 이미 얻은 것보다도 강도 높은 환희를 바란다는 것은 반드시 아니며, 또한 그가 평범한 힘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며, 그가 현재 가지고 있는 바의 안락하게 살기 위한 힘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을 더욱이 그것 이상 획득하여 두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런 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생겨난다. 즉 최대의 힘의 소유자인 왕은 국내에서는 법에 의하여, 국외에서는 전쟁에 의하여 그것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며 그런

것이 달성되면 새로운 의욕이 또 그것에 이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어떤 왕은 새로운 정복에 의한 명성을, 다른 왕은 안락과 육감적인 즐거움을, 또 다른 왕은 어떤 유의 기예(技藝)나 정신의 능력의 점에서 뛰어났다고 칭송되는 아첨을 듣는 것을 바라는 것이다.

경쟁 때문에 생기는 논쟁에의 애호 재산, 명예, 지배 또는 그 밖의 힘을 겨루는 경쟁은 논쟁, 반목, 투쟁으로 변하기 쉽다. 경쟁자의 한편이 그의 의욕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상대방을 죽이거나 복종시키거나 밀어치우거나 추방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찬양에 대한 경쟁은 고대의 숭배를 따르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살아 있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지 죽은 사람과 싸우는 것은 아니며 또 살아 있는 사람의 영광을 빼앗기 위하여, 죽은 사람에게 과분한 영광을 주고자 하기 때문이다.

생활을 편하게 만드는 것에의 애착에서 생기는 사회적 복종 생활을 편하게 하는 것이나 육감적인 쾌락에의 의욕은 사람들에게 공통의 힘에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와 같은 욕구에 의하여 자기 한 개인의 부지런함이나 노동에 의해서도 거의 획득할 수 있을 위험으로부터의 방위를 포기하기 때문이다.

죽음이나 상해에의 공포에서 생기는 것 죽음이나 상해에의 공포는 같은 생각을 품게 하며, 그 이유도 마찬가지이다. 거꾸로 궁핍한 사람들이나 자기들의 현상에 만족하지 않는 대담한 사람들은 군사적 지배의 야심을 가지는 모든 사람들도 또한 그러하듯이 전쟁의 요인을 지속시켜서 분쟁과 소요를 선동하는 경향이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쟁에 의하지 않고서는 군사적 명예는 없으며, 새로운 승부를 불러일으키는 이외에는 불리한 게임을 만회할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기예에의 애착에서 생기는 것 지식 및 평화적인 여러 가지 기예에의 의욕은 사람들에게 공통의 힘에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 그것은 이러한 의욕은 한가한 시간을 얻고자 하는 희망을 함께 하는 것이며,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힘이 아닌 어떤 다른 힘으로부터 지키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칭찬에의 애착에서 생기는 덕에의 사랑 칭찬을 받고자 하는 바람은, 자기가 그 판단

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칭찬받을 행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한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들이 멸시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우리들은 그 사람이 보내는 칭찬까지 경시하기 때문이다. 사후(死後)에 명성을 얻고자 하는 생각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사후에 있어서는, 기쁨이라는 것은 형용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에 싸이거나 지옥의 극도의 고통으로 소멸되는 것 중의 어느 하나이며,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칭찬과 같은 관념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후의 명성에의 의욕도 허황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은 이러한 명성과 그것에 의하여 자기들의 자손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예견함으로 해서 현재의 환희를 느끼기 때문이다. 그들은 현재 그것을 보지는 못하더라도 그것을 상상하는 것이며, 감각에 있어 즐거움이 되는 것은, 모두가 같이 상상에 있어서도 즐거운 것이다.

큰 은혜를 보답하기 어려운 데서 생기는 증오 우리들이 자기들과 동등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보답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욱 큰 은혜를 입는 것은, 위선의 사랑, 실은 남모르게 증오의 마음을 일으키게 한다. 그리하여 그것은 사람을 절망적인 채무자의 상태에 두게 됨으로써 그는 채권자를 만나는 것을 꺼리며, 그가 이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곳으로 채권자가 가 버리는 것을 은밀하게 바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은혜는 채무를 지는 일이며, 채무는 속박이며, 따라서 보답할 수 없는 채무는 영원한 속박으로서 그것은 동등한 사람일 경우는 증오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들이 자기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것은 애정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왜냐하면 그 채무는 새로운 억압이 아니며, 그리고 그 채무를 즐겁게 받는 일*(사람들은 그것을 '감사'라고 부른다)*은, 보통으로 그것에 대한 반례(返禮)라고도 볼 수 있는 채무자에게 바쳐지는 명예가 되기 때문이다. 또 동등자(同等者)나 열등자(劣等者)로부터 은혜를 받는 경우에도 그것을 보답할 가망이 있는 한에서는 애정을 일으키게 한다. 왜냐하면 받는 사람은 그 채무는 상호 간의 원조와 봉사의 채무로 생각하기 때문이며 거기에서 누가 은혜를 주는 데 있어서 더 많이 하느냐 하는 경쟁심, 즉 가능한의 가장 고상하고도 유익한 경쟁이 일어나며, 그 경쟁에 있어서는 승리자는 그 승리를 기

뻐하며, 상대편은 그것을 인정함으로 해서 그 원수를 갚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증오에 해당하는 것의 의식에서 생기는 것 어떤 사람에 대하여 그가 보상할 수 있는 이상의, 또는 그가 보상할 의사가 있는 것 이상의 해가 주어지는 것은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를 증오토록 만든다. 왜냐하면 가해자는 '상대의' 복수나 '상대에 대하여' 잘못을 비는 행위를 예기(豫期)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것은 어느 것이건 그에게 있어서는 가증(可憎)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공포로 사람을 손상시키려는 것 억압에의 공포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의 원조를 자진해서 구하게끔 만든다. 그 이외에는 사람이 자기의 생명과 자유를 확보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 자신의 지력에의 불신에 의하는 것 자기 자신의 총명함에 의심을 품는 사람은 동란이나 소요(騷擾)를 당하여 스스로를 현명 또는 기민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보다도 승리를 거두는 일이 많다. 그 이유는 한쪽은 즐거이 의견을 듣는데, 다른 쪽은 계략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우선 공격부터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요 때에는, 사람들은 항상 전선에 있기 때문에 단결해서 무력을 될 수 있는 데까지 완전하게 이용하는 것이 총명한 지력(知力)으로부터 나온 어떠한 것보다도 뛰어난 전략인 것이다.

자만(自慢)에서 생긴 부질없는 계획 자기가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명확히 자각할 수 없는데도, 스스로 용감하다고 생각하고 환희에 날뛰는 자만한 사람들은 그럴듯한 모양은 보이지만 실행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위험이나 곤란이 일어났을 때에는, 자기들의 무능이 명백히 되는 이외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에 관하여 참으로 아는 것에서 나온 확실한 희망의 근거도 없고, 다른 사람의 아첨이나 이전의 어떤 행운에 의하여 자기의 유능을 평가하는 자만스러운 사람들은 분별없는 일을 일으키기 쉬운데, 위험이나 곤란이 닥쳐오면, 될 수 있다면 퇴거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안전한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수제에 의해서도 만족스럽게 구제될 수 없는 생명을 위태롭게 하기보다는, 뒤에 변명에 의하여 두드려 맞추는 것과 같은 명예를 위태롭게 하는 길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유능하다는 생각에서 생기는 야심 통치하는 일에 관하여, 자기는 현명하다고 강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야심을 품기가 일쑤이다. 그 이유는 회의라든가 관직이라고 하는 공직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면 그들이 현명하다는 명예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웅변의 연설자는 야심을 품기가 쉽다. 웅변은 그들 자신에게 있어서나,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도 현명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작은 일의 과대평가로 생기는 불결단(不決斷) 소심은 사람들을 결단력 없이 만들며 그 결과, 행동을 일으키는 좋은 기회나 그 가장 적합한 기회를 잃게 만든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행동을 일으킬 때가 올 때까지 숙고한 뒤에도 어떻게 하면 최선인가가 분명치 않다면, 그것은 어차피 그 행동의 동기에는 크게 어긋남이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때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사소한 일을 저울로 재다가 그 기회를 잃는 일이며 그것은 소심인 것이다.

절약과 검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덕이지만)* 사람이 많은 사람의 힘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적합치 않다. 그 이유는, 그것은 보상에 의하여 힘이 나게 하며 활기를 확보하는 것과 같은 노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현명과 친절의 표지에 대한 무지에서 생기는 다른 사람에의 신임 아첨을 수반하는 웅변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웅변을 할 사람을 신용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왜냐하면 웅변은 현명하게 보이며, 아첨은 친절한 것같이 보이기 때문이다. 또 그런 것에 무용(武勇)의 평판까지 더하게 되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사람에게 귀의(歸依)하며, 복종할 생각을 가지게 한다. 앞의 두 가지는, 그로부터의 위해(危害)를 받을 염려가 없음을 사람들에게 보증하고 있으며, 후자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위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적 원인에 관한 무지(無知)에서 생기는 것 학문의 부족, 즉 원인에 대한 무지는, 다른 사람의 충고와 권위에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한다. 또는 오히려 의지할 것을 부득이하게 한다. 이유는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만약 그들이 자기 자신의 생각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자기들보다도 현명하다고 생각되며, 또 자기들을 속일 것이라고는 생각치 않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지할 것임에 틀

림이 없기 때문이다.

이해력의 부족에서 생기는 것 언어의 의미에 대한 무지는 이해력의 부족인 것이나 그것은 사람들에게 자기에게는 알 수 없는 진리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오류까지도, 아니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지니는 무의미한 것까지도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 왜냐하면 오류나 무의미한 것이나 말에 대한 완전한 이해력 없이는 탐지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일로 해서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정념의 틀림 때문에 똑같은 것에 전혀 다른 명칭을 붙이는 일이 생겨난다. 어느 개인적인 의견을 시인하는 사람은 그것을 정설(正說)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이설(異說)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것이 그러한 것이다. 그러나 이설이란 개인적인 생각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오직 그것은 분만(憤懣)의 느낌을 지니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또한, 그와 같은 일에서 다음과 같은 일도 생겨난다. 즉 사람들은 학문과 출중한 이해력을 가지지 않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하나의 행위와, 하나의 군중이 행하는 많은 행위와는 구별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예컨대 카틸리나[12]를 살해할 때의 전 로마 원로원 의원의 하나의 행위와, 카이사르를 살해할 때의 많은 원로원 의원의 많은 행위와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짐작컨대 어느 사람의 설득에 의하여 지도된 군중에 의하여 이루어진 많은 행위를 국민의 행위라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옳고 그른 것의 성질에 관한 무지에서 일어나는 관습에의 집착 권리, 형평, 법, 정의의 여러 원인과, 본원적(本源的)인 구조에 관한 무지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관습과 선례를, 그들의 행위의 법칙으로 만들기 일쑤다. 즉 부정이란 벌하는 것이 이제까지 관습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옳은 일이란 벌하여지지도 않으며, 선례 또는 판례(判例)*(법률가만이 정의에 대해서의 이 거짓의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지만, 그들은 그것을 난폭하게도 판례라고 부른다)*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12 카틸리나(Lucius Sergius Catiline, B.C.108~62) 로마 시를 불질러 없애고, 대관(大官) 암살을 키케로에게 탄로 나서 원로원의 공적(公敵) 선언을 받아 피스트리아에서 전사하였다.

생각하는 것이다. 그것은 양친이나 교사로부터 받는 엄격한 타이름 이외는 태도의 좋고 나쁨에 관한 법칙을 가지지 않는 아이들 같은 것이지만, 오직 아이들은 그 법칙에 충실하지만 어른들은 그렇지 않다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나이가 들어 완고하게 되면 자기에게 편하도록 관습을 버리고 이성에 호소하며, 또 이성을 버리고 관습에 호소하거나 하기 때문이다. 즉 자기들의 이익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관습으로부터 멀어지며, 또 이성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될 때마다 이성에 반대하는 것이다. 이상의 일이, 정사(正邪)의 설(說)이 문필과 검에 의해서 영구히 논쟁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선이나 도형에 대한 학설은 그렇지가 않다. 그 이유는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것이 진리이든, 그것은 누구의 야심이나 이익이나 쾌락에도 하등의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에 무관심한 것이다. 즉 '삼각형의 세 각은 정방형의 두 각과 같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 영토에 관한 누군가의 권리 또는 누군가의 영토를 가지고 있는 자의 이익에 어긋나는 일이었다고 하면 이 설은 그 진위까지가 논쟁되지는 않는다고 하여도, 기하학의 모든 서적을 소각시킴으로 해서 관계자에 대해 가능한 한 억압되고 말았던 것이다. 나는 이 일을 의심치 않는 것이다.

평화의 원인에 대한 무지에서 생기는 사사로운 개인에의 추종(追從) 원인에 대한 무지에 의하여, 사람들은 모든 사건을 그 직접적이며 수단적인 여러 원인에 귀속시키곤 한다. 이와 같은 것이, 그들이 알아 내야 할 모든 원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것이 생긴다. 즉 모든 곳에서 공공체(公共體)에의 지불을 개탄하는 사람들은 수세자(收稅者), 즉 징세 청부인(徵稅請負人)이나 징수인(徵收人) 및 그 밖의 공수인 관리(公收人官吏)에 대하여 자신의 노여움을 폭발시키며 그리고 공공체 통치(公共體統治)의 결점을 잘 들추어 내는 사람들에게 추종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렇게 해서 정당화될 가능성이 없는 일을 하였을 경우에는 벌을 받는 공포나, 용서를 받아야 하는 부끄러움 때문에 지상 권위(至上權威)에까지도 도전하는 것이다.

자연에 대한 무지에서 생기는 가벼운 믿음 자연적인 여러 원인에 대한 무지는 사람으로 하여금 때때로 불가능한 것을 믿게 되는 가벼운 믿음을 갖는 경향에 빠지게

한다. 그것은 그와 같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것들이 진실일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불가능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이라는 것은 친구들이 들어 주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벼운 믿음은 그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도록 만든다. 따라서 그 자체는 악의가 없는 무지도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만들며, 또는 거짓을 말하게 만들고 또 때로는 그것을 꾸며 내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배려로 생기는 알고자 하는 호기심 미래에 대한 걱정거리는 사람들에게 사물의 여러 원인을 알고자 하는 생각을 일으키게 한다. 왜냐하면 원인을 알고 있을 경우에는, 현재의 상태를 자기에게 가장 편리하도록 보다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것에서 생기는 자연적 종교 호기심, 즉 여러 원인에 대한 지식에의 사랑은 사람으로 하여금 결과에 대한 고찰로부터 원인의 탐구로, 그리고 다시 그 원인의 원인 탐구로 끌어 연결시킨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그는 필연적으로 다음의 사고에로 이르는 것이 틀림없다. 즉, 그것에 앞서 가는 원인이 없이 영원의 어떤 원인—그것을 사람들은 신이라고 부르지만—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적인 여러 원인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탐구를 하려면 그것에 의하여 하나의 영원한 신의 존재를 믿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나 그들은 신의 본성에 일치되는 것 같은 어떠한 신의 관념도 마음에 생각해 낼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으로서 사람들이 불에 의하여 덥게 만드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자신이 그것에 의하여 따뜻하게 되었을 때 그는 손쉽게 사람들이 불이라고 부르고 그가 느끼는 열의 원인이 무엇인가가 거기에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하며 또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는 연상할 수 없으며, 불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관념을 마음속에 간직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과, 그것들의 감탄할 만한 질서로부터 사람은 그들 사물의 원인, 즉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존재하는 것은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는 신에 대한 관념이나 영상(映像)을 마음속에 생각해 낼 수는 없는 것이다.

또 사물의 자연적인 여러 원인의 탐구를 거의, 또는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에게 크게 유익하게 하는 힘이나 해를 가하는 힘을 가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무지 그 자체로부터 나온 공포에 의하여 여러 가지 종류의 보이지 않는 힘을 상정하여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 버리고, 그리고 그들 자신의 상상한 것을 곤경하며 두려워하게 되고, 또 어려움에 이르렀을 때는 그것들에게 구원을 빌며 이와 마찬가지로 기대하였던 대로의 성공을 거두었을 때에는 감사를 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상상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것이다. 이리하여 다음의 일이 생기게 된다. 즉 무수한 여러 가지의 상상으로부터 사람들은 무수한 종류의 신들을 이 세상에 만들어 냈던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물들에 대한 이 공포는 각자가 자기의 경우에는 종교라고 부르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와는 다른 힘을 숭배하고 두려워할 경우에는 미신이라고 부르는 것의 자연적인 씨앗인 것이다.

그리하여 이 종교의 씨앗은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유지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것에 영양(營養)과 의상(衣裳)을 공급하게 법의 형태를 만들고, 또 그것에 그들 자신이 창안한 것, 즉 미래의 일어날 여러 원인에 관한 어떤 의견을 덧붙이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욱 잘 통치할 수 있으며 그들의 힘을 자기를 위해서 최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제12장 종교에 대하여

종교는 사람에게만 존재한다 인간에 있어서만이 '종교'의 표지나 과실(果實)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종교'의 씨앗도 또한 인간의 속에만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살아 있는 피조물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어떠한 특별한 성질, 또는 적어도 종교의 어떤 현저한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의심할 이유는 없다.

첫째로, 원인을 알고자 하는 그의 의욕에서 생긴다 첫째로, 인간의 본성에 특유한 것은 그들의 눈에 나타나는 일들의 원인에 관하여 탐구적이라는 것으로서, 이것은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적어도 인간인 이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운(運) · 불운(不運)의 원인을 찾아볼 정도의 호기심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사물의 시초에 관한 고찰에서 생긴다 둘째로, 무엇인가가 시작되는 것을 보면 그것에는 또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되고, 그 원인이 현재 시작된 때보다도 빠르지도 늦지도 않고, 마침 그때에 그 일이 시작하는 것을 결정하였다고 생각하는 것도 또한 그런 것이다.

사물의 귀추에 관한 그의 관찰에서 생긴다 셋째로, 짐승은 그들의 눈에 뜨이는 일들의 순서나 귀결이나 의존 관계를 관찰하거나 기억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장래에 대한 예견을 거의 또는 전혀 가지지 못하며 그 때문에 그들의 복지(福祉)는 일상의 식물이나 쾌락을 즐기는 이외에는 없지만, 그와 반대로 사람은 하나의 사건이 어떻게 해서 다른 사건에 의하여 생겨났는가를 관찰하여 그것들에 대한 전제와 귀결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물의 참다운 원인이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운 · 불운의 여러 원인은 대체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상상이 암시하는 것에 따라, 또는 자기의 편이며 자기보다도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의 권위를 신뢰하여 여러 가지의 원인을 상정하는 것이다.

종교의 자연적인 원인, 즉 장래에 대한 걱정 최초의 두 가지는 걱정을 만든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까지 일어난, 또는 앞으로 도달할 모든 일에는 무엇인가 원인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두려워하는 악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자기가 바라는 선(善)을 차지하고자 쉴 새 없이 노력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장래에 대하여 항상 걱정을 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 특히 지나치게 앞일을 걱정하는 사람은 프로메테우스에 닮은 상태가 된다. 즉, 프로메테우스*('신려(愼慮) 깊은' 사람이라고 풀이한다)*는 전망이 트인 코카서스의 언덕에 결박되고, 거기에서는 독수리가 그의 간장을 먹이로 삼아 밤사이에 회복한 만큼의 것을 낮 동안에 먹어 버린 것과 같이 사람이 장래에 정신을 쏟아서 훨씬 뒤의 일에까지 주의를 한다면, 아침에서 저녁까지 그의 마음은 죽음과 빈곤, 그 밖의 재난에 대한 공포로 고심을 하여 잠들고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걱정은 쉬거나 멈추는 일은 없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볼 수 없는 일들의 힘을 두렵도록 만든다 이 끊임없는 공포는 여러 원인에 대하여 무지(無知)인, 말하자면 암흑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인

류에게 항상 뒤따르는 것으로서, 그것은 대상으로서의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것이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라면 그들의 운 · 불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돌려야 하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힘', 또는 동인(動因)밖에는 없다는 것이 된다. 옛날의 시인들이, 신들은 최초에 인간의 공포심에 의하여 만들어졌다고 한 것은, 생각건대 이런 의미였을 것이다. 신들*(즉 이방인들의 많은 신들)*에 관하여 이와 같이 말하여진 것은 전적으로 올바른 일이다. 그러나 영원 · 무한 · 전능의 유일신(唯一神)의 승인은, 장래에 어떤 것이 쏟아져 내릴 것이라는 공포에서보다는 자연물이나 그 여러 가지의 능력이나 작용의 원인에 관하여 알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욕으로 이끌어지게 될 것이다. 즉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것에서 그다음의 직접적인 원인을 추리하고, 그리하여 여러 원인의 추구에 깊이 몸을 던지는 사람은 드디어는, 하나의 제1기동자(第一起動者)가 존재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는 생각에 *(종교가 다른 철학자들까지도 인정하고 있었듯이)* 이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모든 사물의 최초인 동시에 영원의 원인이며, 사람들이 신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이들의 추구에는 자기들의 운명에 관한 고려는 수반되지 않는 것이다. 즉 운명에 대한 근심이 있으면 공포를 품게 마련인 동시에 그들이 다른 사물의 여러 원인을 탐구하는 것을 저지하기 때문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신의 존재를 가상(假想)하는 사람들과 같은 수의 신들이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것들을 무형(無形)의 것으로 상정시킨다 그리하여 이와 같이 상상된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동인(動因)의 물질, 즉 실체에 관해서는 그들은 타고난 사고능력에 의해서는 실체란, 인간의 영혼의 실체와 같은 것이며 그리고 인간의 영혼은 잠들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꿈속에 나타나는 것과 또 깨어난 사람에 대하여 거울 속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실체를 가지는 것이라는 것 이외의 어떠한 개념에도 도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드러나는〔現出〕 것이 상상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재하는 외적(外的)인 실체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마침 라틴 사람들이 그것들을 '상(像)' 또는 '그림자(影)'라고 부른 것과 같이 사람들은 그것들을 유령이라고 부르고 영(靈), 즉 희박한 기

체(氣體)라고 생각하고 그리하여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동인도 오직 그것들이 생각한 대로 나타나거나 없어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것들에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영이 형태가 없다든가 또는 비물질적이라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결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는 없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영(靈)'과 '무형(無形)'이라는 반대의 뜻의 언어를 나란히 놓을 수는 있다고 하여도, 그것들에 대응하는 어떠한 영상을 결코 가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명상(瞑想)에 의해서 하나의 무한 · 전능 · 영원한 신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다면 신의 본성을 '무형'의 영으로 정의하여 그것에서 그들의 정의가 명료하지 못하다는 것을 고백하느니보다, 오히려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것이며, 그들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편을 선택하는 것이다. 또는 그들이 만약에 신에게 그러한 명칭을 부여한다고 하면, 그것은 신의 본성을 이해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교의상(敎義上)'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물체를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될 수 있는 데까지 동떨어진 의미를 가지는 여러 속성을 응용하여 신을 찬양하려는 '경건'한 마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어떤 사물을 어떻게 해서 발생시키는가는 알지를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들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의 동인이 어떻게 하여 그 효과를 이룩해 냈느냐, 바꾸어 말하면 사물을 있게 하기 위한 그러한 동인은 어떠한 직접적인 원인을 이용하였는가를 생각함에 있어서, '우리들이 원인이 되어 불러일으킨다'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즉 거의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다른 때, 즉 이전에 비슷한 결과에 앞섰던 것을 본 적이 있는 사물을 전제 사상(前提事象)과 후속 사상(後續事象)과의 사이의 어떤 의존 관계나 전후 관계도 전혀 알지 못하고서 관찰하며 회상하는 것밖에는, 추측을 위한 법칙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비슷한 것으로부터는 그들은 비슷한 일이 생겨나올 것을 기대하며, 그리고 그것을 불러일으키는 데 전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로부터 행운이나 불운이 일어나는 것을 미신적으로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예컨대 아테네

사람들이 레판토(Lepanto) 해전(海戰)에 있어서 제2의 포르미온[13]이 나타나 주기를 간절이 바랐고, 또 폼페이우스의 당파(黨派)가, 아프리카에서의 그들의 전쟁에서 제2의 스키피오[14]가 나타나 주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과 같은 것이며, 이후 다른 사람들도 다른 여러 경우에서 그러하였던 것과 같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자기들의 운명을 거기에 같이 있던 사람이나 장소의 좋고 나쁨이나 말한 이야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특히 기원이나 주문과 같이 *(마녀의 기도의 말이다)* 신의 이름〔名辭〕이 그러한 말 속에 있다고 탓하며, 돌을 빵으로 만들고, 빵을 사람으로 만들고, 또는 어떠한 것이든 다른 것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정도이다.

그러나 사람을 칭송하듯이 그것들은 칭송한다 셋째로,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하여, 보통 나타나는 숭배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사람에 대하여 항상 사용하는 것과 같은 존경의 표현과 꼭 같은 것이다. 즉 선물(膳物), 탄원, 감사, 정중한 언행, 신중한 응대, 진지한 행동, 미리 생각하였던 말, 그들에게 부름을 받을 때의 맹세, *(즉 약속을 서로 보증하는 일 등)*이 그런 것이다. 이성은 그 이상으로는 아무것도 시사하지 않고, 그 정도의 예의에 멈추어 두거나 또는 그 이상의 예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자기들보다도 현명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임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이상한 일들은 그것들에게 귀속시킨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은 뒤에 일어날 일들, 특히 사람들의 운 · 불운 전반에 관하여, 또 개개의 하는 일의 되고 안 되고에 관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느냐 하는 점에서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길이 막히고 만다. 다만 과거로 미루어 미래를 억측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연적인 일에 한두 번 부딪치면 그 뒤에는 항

13 포르미온은 펠로폰네소스 전쟁(B.C.431~404)에 있어서의 아테네의 제독으로 소수의 군함을 가지고 코린트 함대를 격파하였다.

14 스키피오(Scipio Africanus Major, B.C.235~183)는 제2 포에니 전쟁에서의 이름을 떨친 로마의 명장. 기원전 204~201년에 카르타고 군을 아프리카의 본국에서 격파하고, 자마에서 한니발에게 대승하여, 카르타고를 항복시켰다.

상 그것과 같은 일에 부딪칠 징조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지난날 존경하며 복종하였던 일이 있는 다른 사람들의 그와 같은 예측까지도 믿게끔 되기 쉬울 뿐이다.

종교의 자연적 씨앗인 네 가지의 일 그리고 유령에 대한 생각, 이차적 원인에 관한 무지(無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에의 귀의(歸依) 및 우연적인 일을 무슨 징조라고 생각하는 일, 이 네 가지의 것들에 '종교'의 자연적 씨앗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씨앗은 각 사람의 상상이나 판단이나 정념이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간이 가지는 의식(儀式)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태반이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각종의 의식이 되어 자라 왔던 것이다.

육성(育成)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되었다 즉 이들의 씨앗은 두 종류의 사람들에 의하여 길러져 왔다. 그 한 종류의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창의에 의하여 그것을 길러서 질서를 만들었던 것이며, 다른 한 종류의 사람들은 신의 명령과 지시에 의하여 그것을 행하였던 것이다. 그런 두 종류의 모두가 그들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을 복종, 법, 평화, 자비 및 시민 사회에 보다 잘 어울리게 하기 위하여 그런 일을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앞의 종류의 종교는 인간의 정치의 일부이며, 지상(地上)의 왕들이 그 신민에게 요구하는 의무의 일부의 목적을 가르치는 것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뒤의 종류의 종교는 신의 정치이며 신의 왕국의 신민이 된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의 계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방인의 코먼웰스의 창설자와 입법자의 모두는 앞의 종류에 속하여 신의 왕국의 각종의 계율을 우리들 속에 도입한 아브라함, 모세 및 우리의 '축복받은' 구세주는 뒤의 종류에 속하는 것이다.

이교(異敎)의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 그리고 종교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힘의 본성에 관한 의견으로 이루어지는 종교의 부분에 관하여 말한다면,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것의 거의 전부가 어디에선가 신 또는 악귀로서 존경받거나 또는 그들의 시인들에 의하여 어떤 영(靈)이 생기를 돋우고, 그 속에 편히 살게 하고 또는 신에게 홀렸다고 일컬어지고 있는 것이다.

세계의 형태가 짜여 있지 않고 있는 내용(內容)은 '혼돈(混沌)'이라 불리는 신이었다. 하늘, 대양, 불, 대지, 바람은 그만큼의 수의 신들이었다. 남자, 여자, 새, 악

어, 송아지, 개, 뱀, 양파, 민들레가 신화(神化)되었다. 그 밖에 그들은 거의 모든 장소를, '악마'라고 불리는 각종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즉 들판을 '남녀'의 빵, 즉 들의 정(精)으로, 숲을 목신(牧神)이나 요정(妖精)으로, 바다를 인어(人魚)나 그 밖의 요정으로 채우고, 모든 집들을 그 '가신(家神)', 즉 그 부리는 마귀로, 모든 사람들은 그의 수호신으로 채우고, 지옥을 유령들의 뱃사공 · 개 · 복수신과 같은 영적인 관리로 채우고, 그리고 또 밤에는 모든 장소를 라르바와 레무레스, 즉 사자(死者)의 유령 및 요녀와 요괴의 전 왕국(全王國)으로 채웠던 것이다. 또 그들은 시간, 밤, 낮, 평화, 화합, 사랑, 싸움, 덕, 명예, 건강, 지둔(遲鈍), 열(熱) 등과 같은, 단순한 우유성(偶有性)이나 성질에 신성(神性)을 부여하여, 그것 때문에 신전(神殿)을 구축하였다. 그들이 그러한 것을 바라거나 또 피하고자 기도를 할 경우에는 그들은 앞에 말한 것들을 향하여 마치 그들의 명칭의 유령들이 머리 위에서, 그들이 빌며 얻고자 하는 선(善) 또는 악(惡)을 주거나 또는 억제하고 있는 것같이 빌었던 것이다. 그들은 또한 자기들의 지혜를 '무사'[15]라고 부르며, 자기의 지혜 없음을 '운명'이라고 부르며, 자기의 쾌락을 '큐피드'[16]라고 부르며, 자기의 분노를 '푸리에스'[17]라고 부르며, 자기의 음부(陰部)를 '생식신(生殖神)'이라고 부르며, 그리고 그 시 속에 것의 타락(墮落)을 남녀 '몽중마(夢中魔)'[18]의 탓으로 돌렸다. 시인이 인격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에 이와 같은 '신'이나 '악마'로 만들지 않는 것은 거의 하나도 없을 정도였다.

이교도의 종교의 창시자들은 또한 종교의 제2의 근거, 즉 원인에 대한 사람들의 무지와, 그것 때문에 자신들의 운명을 어떠한 의존 관계도 명확치 않은 여러 원인에로 돌리는 그들의 경향에 주목하여 이차적인 원인 대신에, 일종의 이차적이며 보조적인 신들을, 사람들의 무지에 덩달아 강요하는 기회를 얻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생식의 원인을 비너스에 돌리고, 예술의 원인을 아폴로에, 교묘와 교활의 원

15 시나 학술 기예의 신.
16 사랑의 신
17 복수의 신.
18 수면 중에 정교(精交)를 맺는다고 전하는 괴물.

인을 메르쿠리우스(Mercurius)에 폭풍우와 우뢰의 원인을 아이올로스(Aiolos)에, 또 다른 여러 결과의 원인을 다른 신들에게 돌렸던 것이며, 이교도들 사이에서는 사물의 종류와 거의 같은 수의 여러 가지의 신들이 있을 정도였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그들의 신들에 대하여 쓰이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한 숭배, 즉 봉납 · 기원 · 감사 및 앞에 열거한 그 밖의 일에 관하여 앞서 말한 이방인의 입법자들은 회화(繪畫) 및 조각에 의하여, 신들의 영상(影像)을 더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한층 무지한 종류의 사람들*(즉 태반의 일반 민중들)*이 이러한 영상에 의해 나타나게 된 신들이 그 회화나 조각 안에 실제로 포함되어, 말하자면 그 안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여서 더욱 그것들을 두렵게 여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신들에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과는 구별된 토지 · 가옥 · 관리 · 수입까지도 공여(供與)하였다. 그것은 사람들의 우상이라는 것에 봉납하여 성화(聖化)시킨 것으로서 동혈(洞穴) · 수목(樹木) · 숲 · 산 · 섬 전체와 같은 것이 그것이다. 그리하여, 그러한 신들의 어떤 것에는 인간의, 어떤 것에는 짐승의, 어떤 것에는 괴물의 모습을 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나 짐승의 능력이나 정념까지도 부여하였던 것이다. 그 능력이나 정념이란 것은 감각 · 언어 · 성(性) · 색정(色情) · 생식*(그리고 이 일은 서로의 혼교(混交)에 의하여 신들의 종류를 더 불어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남녀와의 혼교에 의하여 바커스나, 헤라클레스나 그 밖의 여러 가지 잡종의 신들이나 천상(天上)의 동거인에 지나지 않는 것을 낳게 하는 것이다)*과 같은 것이며, 그 외에 분노나 복수심이나 그 밖의 생물이 가지는 여러 정념이며, 또 기만 · 절도 · 간통 · 계간(鷄姦) 등 그 밖의 힘의 효과, 또는 쾌락의 원인으로 생각되는 악덕과 같은 여러 가지의 정념 속에서 나온 잡다한 행위이며, 또 인간들 사이에서는 명예에 반(反)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법에 위반된다고 생각되고 있는 모든 악덕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예언은 자연적으로는 과거의 경험에 따른 추측에 지나지 않으며, 초자연적으로는 성스러운 계시이지만, 그것에 대하여 앞에 말한 바 있는 이교도의 종교의 창시자들은 일부에는 겉치레 경험에 의한 것이고, 다른 일부는 겉치레 계시에 의해서 그 밖의 무수한 미신적인 점치는 방법을 덧붙여서, 사람

들에게 자기들의 운명은 그것에 의해서 알 수 있다고 믿게 만들었던 것이다. 즉 그러한 방법은 때로는 델포이(Delphoe), 델로스(Delos), 암몬(Ammon) 및 그 밖의 유명한 탁선소(託宣所)의 신관(神官)들의 애매한 또는 무의미한 대답으로서, 이들의 대답은 예언하는 일들이 두 가지로 들리도록, 일부러 애매해졌거나 또는 유황동(硫黃洞)에 있어서 극히 자주 있은 일이지만, 그곳의 사람을 취하게 하는 기체에 의해서 사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때로는 또 무녀(巫女)의 폐백(幣帛)이 그것으로서, 그 예언에 관해서는 그것은 노스트라다무스[19]의 예언과 비슷한 것 같다. *(왜냐하면 현재 남아 있는 여러 단편(斷片)은 그 뒤의 시대에 안출(案出)된 것같이 생각되기 때문이다)* 로마 공화국의 시대에도 평판 높은 서적이 몇 권인가 나왔다. 때로는 성령이 들렸었다고 상상된 미친 사람들의 의미가 없는 말들이며, 이 신들린 사람을 그들은 광신(狂信)이라 부르고,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예언적인 일들은 신점(神占) 또는 예언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때로는 그들이 태어날 때의 별의 상(相)이며, 그것은 점성사(占星師)라고 불려서 점성술의 일부로 생각되었다. 때로는 그들 스스로의 희망과 공포에 의하여 안다고 하며, 그것은 듀머만시(Thumomancy)[20] 또는 선견(先見)이라고 불려졌다. 때로는 죽은 사람과 겉치레의 대담을 한다고 일컬어지는 마녀들의 예언이며, 그것은 요술 · 주법 · 마술이라고 불려지나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과 공모한 괘씸한 행위에 지나지 않다. 때로는 새가 우연하게 날거나 먹이를 먹기도 하는 일이며, 그것을 새(鳥)점쟁이라고 불리었다. 때로는 희생된 짐승의 내장이며 그것은 '복장(卜腸)'이었다. 때로는 꿈에 의하여, 때로는 까마귀의 지저귀는 소리나 새의 지저귐, 때로는 얼굴의 상(相)과 모양으로써 그것을 관상술이라고 불려졌다. 또는 소에 대한 우상술(牛相術), 또는 우연히 나온 언어로서 그것은 예언이라고 불려졌다. 때로는 일월식(日月蝕), 혜성(彗星), 진귀한 유성(流星), 지진, 홍수, 잘못된 출생(出生), 그 밖에 이전 일에 비슷한 일들과 같은 괴이하거나 이상한 사건으로서 그러한 일들을 그들

19 Michel de Nostradamus, 1503~1566. 프랑스의 유대인 의사로서, 점성술(占星術)의 대가(大家)라고 불리었다.

20 자기의 혼에 의한 예측.

은 '전조' 또는 '징조'라고 불렀다. 그 이유는 그것들이 닥쳐오려는 커다란 재액(災厄)을 전조가 되고 예시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때로는 화폐의 앞뒤, 광주리의 눈금 헤아리기, 호메로스나 베르길리우스의 시를 띄엄띄엄 주워 읽기, 그 밖의 수많은 이러한 엉터리없는 발상과 같은 단순한 제비뽑기 같은 것이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그들이 신용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을 무엇이든 손쉽게 믿도록 만들어졌던 것이며, 상냥함과 교묘함에 의해서, 그들의 공포와 무지를 포착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교의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의 심산(心算) 따라서 이방인들 사이에 있어서, 코먼웰스의 최초의 건설자 및 입법자들은 한결같이 인민을 복종시켜서 평화롭게 만들어 두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들은 어디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를 하였던 것이다. 첫째로, 종교에 관하여, 그들이 부여한 계율은 그들 자신의 창안에 의한 것이 아니고 어떤 신이나 다른 영의 명령이라고 생각케 하는 신앙, 또는 그들의 법이 보다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들 자신은 단순한 인간보다도 높은 특별한 자질을 가진다는 신앙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도록 유의하였던 것이다. 누마 폼필리우스[21]는 그가, 로마인 안에 수립한 여러 의식을 에게리아[22]의 요정(妖精)에게서 받았다고 말하고 또 페루 왕국의 최초의 왕이며 건설자였던 사람들은 자기와 그 아내는 태양의 아들이라고 말했고, 또 마호메트가 자기는 새로운 종교를 창설하기 위하여 비둘기의 모습을 한 성령과 협의한다고 말한 것은 그 때문이다. 둘째로, 그들은 법에 의하여 금지된 것은 마찬가지로 신들까지도 노엽게 만든다는 것을 믿게끔 유의하였다. 셋째는, 의식 · 기원 · 산 제물 · 축제를 정하도록 유의하였다. 그것에 의하여 사람들은 신들의 노여움을 진정시킬 수가 있고, 또 전쟁의 패전, 질병의 대유행, 지진, 각 사람의 개인적인 불행은 신의 노여움에서 오는 것이며, 그리고 그들의 노여움은 그들에 대해 더욱 숭배하게 만들며, 필요로 하던 여러 의식의 어느 부분을 잊고, 또는 잘못한 때문이라고 믿게끔 되었던 것이다.

21 로마의 2대 왕 B.C.714~671.

22 로마 신화의 샘(泉)과 출생의 여신.

고대 로마인 중에는, 시인들은 내세(來世)의 고락에 대하여 여러 가지 쓰여 있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았으며, 또한 그 나라에서 커다란 권위를 가지고 중히 여김을 받던 사람들이 그 '대중을 상대로 한 연설' 가운데, 공공연하게 그것을 비꼬아 모욕했으나 이 신앙은 버려지기는커녕 오히려 항상 마음속에 안겨져 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과 이 밖의 그러한 모든 여러 가지 제도에 의해서 그들은 일반 민중이 불행에 마주치게 되는 것은 그들이 그 의식을 등한시하거나 틀리거나 또는 그들이 법에 복종하지 않은 죄에 있는 것이라고 하였고, 그들의 통치자에 반항하는 경향을 될 수 있는 데까지 적게 줄이고, 아울러 신들을 받들기 위한 제례(祭禮)의 행렬이나 유희나, 공중 경기(公衆競技)에 의하여 즐겁도록 꾸며지기 때문에 그들이 국가에 대하여 불만을 품거나 불평을 중얼거리거나 폭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식물(食物)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하여, 코먼웰스의 평화라는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알려져 있던 세계의 최대의 부분을 정복한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도시 그 자체 안에서 어떠한 종교도 그것이 그들의 통치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한, 관용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으며, 또한 유대 사람들의 종교는 별도로 하고 거기에서 금지된 종교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서적 가운데서 보지 못하였던 것이다. 유대 사람들은 *(독특한 신의 왕국에 살면서)* 어떠한 현세의 왕이나 국가에 대한 신종(臣從)의 용인(容認)까지도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위의 일들로 미루어 보아 이방인의 종교가 어떻게 하여 그들의 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참다운 종교와 신의 왕국의 법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신 스스로가 초자연적인 계시에 의하여 종교를 수립한 곳에서는, 그는 또한 그 스스로를 위하여 특별한 왕국을 만들고, 그 스스로에 대한 행동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행동에 있어서도 법을 주었던 것이다. 그래서 신의 왕국에서는 정책과 시민법이란 종교의 일부인 것이며, 따라서 현세적(現世的)인 지배와 정신적인 지배와의 구별은, 거기에서는 전혀 존재의 여지가 없다. 신은 모든 대지의 왕이라는 것은 참으로 그러하지

만, 그리고 더욱 그는 특별히 선택된 국민의 왕일 수가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전군(全軍)의 총사령관이 특히 그 자신의 연대나 중대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는 별로 모순이 없기 때문이다. 신은 그 힘에 의하여 모든 대지의 왕이지만, 그러나 그의 선택된 인민에 대하여서도 그는 신약(新約)에 의한 왕인 것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자연의, 그리고 신약에 의한 신의 왕국에 대한 더욱 상세한 언급을 나는 다음 논구(論究) 중의 다른 장소(35장)로 미루기로 한다.

종교의 변화의 여러 원인 종교의 보급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최초의 종자, 즉 여러 원리에로 바뀌어져 가는 모든 원인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다. 최초의 종자는, 신성(神性)과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여러 힘에 대한 의견에 지나지 않지만,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그 최초의 종자를 폐기할 수는 절대 없는 것이며, 새로운 종교는 그러한 목적에 대하여 신망 있는 사람들에게 육성되어, 또다시 그들 종자로부터 발전케 될 것이다.

모든 형성된 종교는 처음에는 군중이 어느 한 사람에게 보내는 신앙에 바탕을 둔 것이며, 그들은 이 사람이 현자(賢者)로서, 그들의 행복을 가져다주기 위하여 일한다고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성인(聖人)으로서 신 스스로가 그를 향하여 그 의지를 초자연적으로 분명히 밝히는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종교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혜나 성실성이나 애정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을 때, 또는 그러한 사람이 신성한 계시의 그럴듯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을 때에는 필연적으로, 그들이 유지하고자 하는 종교는 의심을 받을 것이 틀림이 없고, 또 *(사회적 무력에 의한 공포가 없다면)* 반대되고 거부당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이 된다.

불가능한 일에 대하여 신앙을 강요하는 것 종교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의, 또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종교에 무엇인가 덧붙인 사람의 지혜가 있다는 명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모순된 일에 대하여 신앙을 강요할 때이다. 그 이유는, 서로 모순된 것의 쌍방이 같이 진실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따라서 그와 같은 신앙을 강요하는 것은 무지(無知)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 창시자가 무지함을 폭로하고, 그가 초차연적인 계시에 의한 것으로서 제의하는 다른 모든 일에도 불신감을 품게

하는 것이다. 사람은 확실히 자연의 이성을 초월하는 많은 것에 관하여 계시를 받는 일은 있으나 자연의 이성에 반(反)하는 어떤 일에 대하여서도 계시를 받는 일은 없는 것이다.

그들이 수립한 종교를 어기는 행동을 하는 것 성실하다는 평판을 떨어뜨리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신앙을 가지라고 요구하는 일을, 자기는 마치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거동을 보이는 짓을 하거나 또는 말할 때이다. 따라서 모든 이러한 언동은 위선적인 허위라고 지탄을 받게 된다. 그 이유는 그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교의 방해가 되게 하는 발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기 때문이며, 부정의 · 잔학 · 독신(瀆神) · 탐욕 · 사치와 같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즉 이러한 일들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행위를 일상 행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보다 작은 과오에 대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힘의 존재를 말하며 위협을 하여도 그가 그와 같은 것의 존재를 믿고 있다고 그 누가 믿을 것인가.

애정이 있다는 평판을 떨어뜨리는 것은, 개인적인 목적이 배후에 있음이 폭로되는 것과 같은 때이다. 가령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신앙이 특히 그들 자신만을 위한 지배나, 재산이나 위엄을 획득하거나 쾌락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는 도움이 되는 것과 같이 보일 때이다. 즉 그것에 의하여 그들 자신이 이익을 얻는 것과 같은 일은, 그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하는 일이므로 다른 사람에 대한 애정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케 하기 때문이다.

기적의 증거의 부족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천명(天命)을 제시할 수 있는 증거는 기적의 작용이나 참된 예언*(그것도 기적이다)*이나 넘치는 복 외에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기적을 행한 사람들로부터 계승되고 있는 종교의 요점은 여하튼 간에, 신명(神命)을 받고 있음을 기적에 의하여 밝히지 않은 사람들이 덧붙인 부분의 요점은 그곳에서 사람들을 교화(敎化)시킨 관습이나 법이 가져다주는 그 이상의 신앙을 심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자연적인 일들에 있어서 판단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자연적인 징표나 증거를 요구하듯이, 초자연적인 것에 있어서도, 그들은 내면적인 마음으로부터 동의하는 데는 초자연적인 표시*(그것은 기적이다)*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모든 원인은 아래의 여러 가지의 예 가운데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출애굽기〉 32장 1~2절 우리들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예를 들지만, 그들은, 기적과 그들을 적시(適時)에 이집트로부터 데리고 나감에 따라, 그들에 대하여 자기의 천명(天命)을 증명한 모세가, 불과 40일 동안 없던 때에 그들은 그가 권하던 참된 신을 숭배하는 일을 배반하고 황금 송아지를 그들의 신으로 삼아 최근 그곳으로부터 구출되어 온 이집트인의 우상 숭배로 되돌아가고 말았던 것이다.

〈사사기〉 2장 11절 다시 또 모세 · 아론 · 여호수아 및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신의 큰 위업을 보았던 세대가 죽어 간 뒤에는, 다른 세대가 나와 바알 신[23]을 받들었다. 이렇게 하여 기적이 쇠퇴하여짐에 따라서 신앙 또한 쇠퇴하여 갔던 것이다.

〈사무엘상〉 8장 3절 또한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에 의하여 브엘세바의 사사(士師)로 임명되어 뇌물을 받고 부정한 재판을 하였을 때, 이미 이스라엘의 인민들은 다른 인민의 왕과는 다른 방법으로 신을 그들의 왕으로 섬기는 것을 거절하여, 그것 때문에 그들은 사무엘에 대하여 여러 국민의 방법을 본떠 그들에게 왕을 골라 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하여 정의가 시들어 감에 따라 신앙 또한 시들어 갔던 것이며, 신이 그들을 다스리는 것을 포기했을 정도였다.

그리스도교가 뿌리를 내려감에 따라, 로마 제국의 모든 곳에서 탁선(託宣)이 소멸되고, 사도(使徒)나 복음 전도자의 설교에 의하여 매일 각지에서 그리스도교 신자의 수가 놀라울 정도로 증가하여 갔다. 이와 같이 성공한 것은 그 태반은 당시의 이방인의 제사(祭司)들이 그들의 부패와 탐욕과 왕후들에 대한 아첨에 의하여, 스스로 경멸을 받는 상태를 자초한 데 기인한 것이라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로마 교회의 종교도 또한 부분적으로는 같은 원인에 의해서 잉글랜드 및 다른 많은 그리스도교국(教國)에 있어서 폐지되었던 것이며, 목자(牧者)의 덕(德)의 타락이 인민의 신앙을 쇠퇴시켰던 것이다. 또한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스콜라 학자가 종교 안으로 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학설을 도입함으로써 거기에서 극히 많은 모순

23 페니키아 · 카르타고 · 바빌로니아 · 아시리아 등 동방의 여러 민족의 태양 신.

과 배리(背理)가 생겨났던 것이다. 그 때문에 성직자는 무지와 사기성이 깃든 의도를 지닌다는 세평을 받았고, 사람들은 프랑스나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그들의 왕후(王侯)의 의지와 상반되고, 또는 잉글랜드의 경우에는 그 의지와 합치되어 사람들은 성직자들을 저버리게 되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가 구제를 위하여 필요로 했던 여러 조항 가운데는, 법왕(法王)과 다른 그리스도교적 왕후의 영토 내에 살고 있는 그들의 정신적 백성에게 확실히 이익이 되는 일이 극히 많았기 때문에 만약 그들의 왕후가 경쟁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잉글랜드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모든 나라 밖의 권위를 전쟁이나 분쟁도 없이 손쉽게 배제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즉 승정(僧正)이 국왕에게 왕관을 수여하지 않는다면 국왕은 그 권위를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든가, 국왕이 제사(祭司)라면 결혼을 할 수가 없고, 왕자가 합법적 결혼에 의하여 탄생하였는지의 여부는 로마의 권위에 의하여 판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든가, 로마의 법정에 의하여 국왕이 이단(異端)이라고 판정되면 백성은 그 신종의무(臣從義務)로부터 해제될 수 있다든가, 국왕은 *(프랑크의 실페릭(Chilperic)과 같이)* 이유 없이 법왕에 의하여 *(자카리어스 법왕과 같이)* 폐위되어 그의 왕국은 그 신민의 한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다든가, 성직자와 수도자는 어떤 나라에 있어서도 죄를 범하였을 때에, 그들의 국왕의 사법권으로부터 제외된다든가 하는 일을 믿도록 만드는 것이 누구에게 이익을 주는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한 개인적 미사나, 연옥(煉獄)의 골짜기의 예금(禮金)이 그 밖의 개인적 이익의 표시임과 동시에, 만약 위정자나 관습이 *(그것은 내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사람들이 그들의 스승의 신성, 현명, 성실에 관하여 지니는 의견 이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더욱 생생한 신앙을 손상시키는 데 충분할 것이지만 그 표시와 더불어, 누구에게 이익을 주는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을 것인가. 따라서 나는 이 세상에 있어서의 종교의 변화를 모두 하나의 원인에다 돌려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즉 불쾌한 제사(祭司)들이며, 그들은 가톨릭교도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종교 개혁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인 교회의 안에도 존재하는 것이다.

제13장 인류의 행복과 비참에 관한 그들의 자연 상태에 대하여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다 자연은 인간을 신심(身心)의 여러 능력에 있어서 평등하게 만들었다. 즉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도 확실히 육체적으로 강하고, 또한 기민한 정신을 지녔다 하더라도, 그리고 더욱 모든 것을 하나의 집약된 것으로 생각한다면, 인간들끼리의 서로는 어떤 사람이 그것에 따라서 그의 것이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이익이란 어떤 것이든 간에, 다른 사람이 그와 마찬가지로 주장해서는 안 될 정도로 두드러진 차이는 없는 것이다. 즉 육체의 강한 것에 관하여 말한다면, 가장 약한 사람일지라도 은밀한 음모에 의하여, 또는 그 자신과 꼭 같은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과 공모하여 가장 강한 사람을 살해할 정도의 힘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신의 여러 능력에 대하여 말하면 *(언어에 바탕한 여러 가지 기술 및 특히 일반적이고 오류를 범하지 않는 모든 원칙에 따라 처치하는 기량(技倆), 그리고 학문이라고 불려지는 것, 즉 이런 종류의 것은, 우리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능력이 아니며, 또한—신려와 같이—우리들이 다른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동안에 얻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을 몸소 얻는 사람은 극히 적으며, 또 사소한 일에 관해서만이 몸소 얻을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나는 강함의 평등보다도 더욱 큰 평등이 사람들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신려(愼慮)라는 것은 경험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적용하는 일에 관해서 같은 시간을 소비하면 동등하게 그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평등성을 믿지 않도록 만든다고 생각되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지혜에 대하여 지니는 생각 이상의 자만에 불과한 것이며,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대중, 즉 자기와 소수의 다른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소수의 다른 사람이란 명성에 의하여, 또는 자기의 의견과 일치되는 것에 따라 그들이 시인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다. 즉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도 지력(知力)이 풍부하고 웅변으로 지식이 있는 것을 인정할 수는 있어도, 역시 자기만큼 현명한 사람은 그리 많이 있다고는 여간해서 믿으려 들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으로서, 그것은 그들이 자기 자신의 지력은 손 가까

이에서 보면서 다른 사람의 그것은 멀리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사람들이 그런 점에서 불평등하다기보다는 오히려 평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인 것이다. 왜냐하면 각 사람이 자기에게 돌아온 몫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 이상으로, 어떤 것이 평등하게 배분되고 있다는 커다란 증거가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존재치 않기 때문이다.

평등에서 불신이 생긴다 이 능력의 평등으로부터 우리들의 목표 달성에 대한 희망의 평등성이 생겨난다. 그러기 때문에 누군가 두 사람이 서로 같은 것을 요구하고, 더욱이 쌍방이 모두 그것을 즐겨 누릴 수 없다면 그들은 적이 되어, *(주로 자기 보존이나 때로는 환락에 지나지 않은)* 그들의 주된 목표에 이르는 도중에서, 서로 상대를 멸망시키거나 굴복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일이 생겨난다. 즉 침입자가 상대의 단독의 힘 이외에 두려운 것이 없는 경우에, 만약 상대가 밭을 갈아 씨를 뿌리고 쾌적한 거처를 만들거나 혹은 그것을 차지한다면, 침입자 측은 틀림없이 그 결속(結束)된 폭력에 의하여 그들의 노동의 성과뿐만이 아니라 그의 생명 또는 자유까지도 약탈을 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침입자도 또한 자신과 같은 상대로부터의 위험에 부딪치고 있는 것이다.

불신에서 전쟁이 발생한다 이 상호 불신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데는 선수(先手)를 쓰는 것만큼 적절한 방법은 없다. 즉 그것은 그가 힘이나 간계(奸計)에 의하여 자기를 위협할 정도의 다른 커다란 힘이 없게 될 때까지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을 지배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 일은 그의 자신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임에 틀림없으며 일반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일인 것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스스로의 안전을 위한 필요 이상의 정복을 추구하고 그 정복 행위에서 자기의 힘을 바라다보며 기쁨을 느끼는 사람도 있는 것이므로, 만약 그렇지 않으면 겸허한 한계 내에서 안락을 즐기고 있던 다른 사람들도 침해함으로써, 자기들의 힘을 증대시키는 일 없이 수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는 오래 생존해 나갈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지배를 이와 같이 증대시키는 일도 사람의 보존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허용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더욱이 또한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것을 위압(威壓)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곳에서

는 이웃을 만드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다*(반대로 굉장한 비애를 느끼는 것이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은 그가 자기에게 대하여 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그의 친구나 이웃들이 그를 평가하여 주는 것을 바라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자기가 경시된다거나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과 같은 모든 행동에 부딪치게 되면 자연히 자기를 경시하는 자에게는 손해를 주며, 제삼자에게는 그 본보기로서 억지로 자기를 보다 한층 높이 평가시키고자 *(그리고 이 노력은 공통의 제삼의 힘이, 위에 있어서, 그들을 진압하여 주지 않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서로의 처지가 파멸을 자초하기에 충분하다)* 할 수 있는 데까지의 노력을 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 안에서 우리는 싸움의 세 가지 주요한 원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첫째는 경쟁이며, 둘째는 불신이며, 셋째는 영광이다.

첫째의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획득물을 구하여, 둘째의 것은 안전을 구하여, 셋째의 것은 명성을 구하여 침해하는 것이다. 첫째의 것은 그들을 다른 사람들의 인격이나 처자나 가축의 지배자로 만들기 위하여, 둘째의 것은 그들을 방위하기 위하여, 셋째의 것은 한 마디의 말, 한 가지의 웃음, 서로 다른 의견, 그 밖의 과소평가의 표시와 같은 사소한 일 때문에 폭력을 쓰는 것으로 이런 경우, 그것이 직접 자기 일신에 관한 것이거나 간접적인 자기의 친척 · 친구 · 직업 · 가문 등에 대한 것임을 불문하고서이다.

사회 상태의 밖에서는 항상 각 사람 대 각 사람의 전쟁이 존재한다 이리하여 다음과 같은 일이 명백하여진다. 즉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위압해 두는 공통의 힘이 없이 생활하는 동안에는 그들은 전쟁이라고 불리는 상태에 있는 것이며, 그리고 이러한 전쟁은 모든 사람의 모든 사람에 대한 전쟁인 것이다. 왜냐하면 전쟁이란 전투나 투쟁 행위 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투에 의하여 싸우고자 하는 의사가 충분히 엿보이는 계속되는 기간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쟁의 본질에 관해서는 기후의 본질에 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간'의 개념이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불순한 기후의 본질은 한두 번의 소나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연일(連日)에 걸쳐서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이며, 그와 마찬가지로 전쟁의 본질은 실제의 투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투쟁에로의 명확한 지향(志向)에 있는 것이며, 그 기간 중은 반대의 방

향으로 향하는 어떠한 보장도 없는 것이다. 그 밖의 모든 기간은 평화인 것이다.

이와 같은 전쟁에 의한 온갖 장애 따라서 각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적(敵)인 전쟁의 시대임에 따라 일어나는 것은 모두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강함이나 연구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 이외에는 어떤 보장도 없이 생활하고 있는 시대에도 일어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태에 있어서는 근로의 여지는 없다. 왜냐하면 그 성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의 경작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항해도 해로(海路)에서 수입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사용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편리한 건물도 없고, 많은 힘을 필요로 하는 것을 운반하며, 이동시킬 도구도 없고, 지표(地表)에 관한 지식도 시간의 계산도 없고, 기술도 문자도 사회도 없다. 그리고 가장 나쁜 것은 계속적인 공포와 폭력에 의한 죽음의 위험이 존재하며, 인간의 생활은 고독하며, 가난하고, 험악하며, 잔인함과 동시에 짧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을 충분히 생각한 일이 없는 사람에게는 자연은 이러한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서로가 침해하여 서로를 멸망시키는 경향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그는 정념을 바탕으로 한 이 추론을 믿지 않고, 짐작컨대 그것이 경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바랄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는 자기의 행동을 살펴 보기 바란다. 즉 그가 여행을 할 때에는 무장을 하고, 더욱 충분한 동반자를 함께 데리고 가려고 할 것이며, 잠을 자고자 할 때에는 문에 자물쇠를 잠글 것이며, 자기 집에 있을 때에도 금고에 자물쇠를 잠근다. 더구나 이러한 행동은 그에게 가해지는 모든 침해를 복수해 주는 법이 있고 무장한 관헌이 있음을 알고 하는 것이다. 그가 무장하고 말을 탈 때에는 자기의 일당인 신민에 대하여, 문에 자물쇠를 채울 때는 시민 일당에게, 또 금고에 자물쇠를 채울 때에는 자기의 아들이나 하인에게 대하여 그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토록 해 보이는 것이다. 그는 내가 말로 하는 것과 같이 그는 행위로 인류를 비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나나 그도 같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인간의 본성을 비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의욕이나 그 밖의 정념은 그 자체만으로는 죄가 아니다. 그들의 정념에서 생기는 모든 행위도 그것을 금지하는 법을 그들이 알기까지는 마찬가지로 죄는 아니다. 이와 같은 법을 사람들은, 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알

수 없으며, 또 법을 만들 수 있는 인격에 관해서 그들이 협정을 맺을 때까지는 어떠한 법도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짐작컨대 이와 같은 전쟁 시대 또는 전쟁 상태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른다. 나는 전 세계에 걸쳐 일반적으로 그러하였다고 믿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많은 지방에서 사람들이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다. 즉 '아메리카'의 많은 지방의 야만 민족은 자연적 정욕(情慾)에 의하여 평화 상태에 있는 작은 여러 가족의 통치 외에는 전혀 통치라는 것을 가지지 않고, 내가 앞에 말한 것과 같은 잔인한 방법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든 간에 두려워할 공통의 힘이 없는 곳에서는 어떠한 생활 양식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전에 평화로운 통치 아래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내란에서 항상 빠져들기 마련인 생활 양식에서 엿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설혹 개개의 사람들이 상호 간에 전쟁 상태에 있던 시대가 전혀 있지 않았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시대에 있어서 국왕이나 주권자는 그들의 독립성 때문에 그칠 줄 모르는 질투 속에 있으며 검투사가 칼을 겨누는 식으로 서로 무기를 겨누며 눈을 떼지 않고 있다. 그들의 왕국의 경계선에 있는 요새(要塞)나 수비병이나 총포, 또는 끊임없이 보내는 간첩이 그러하며 이것은 곧 전쟁의 태세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들의 신민의 근로(생업)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개의 사람들의 자유에 따르는 비참은 그것에서는 생겨나지를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쟁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부정(不正)은 아니다 이러한 일로 미루어 보아 모든 사람이 각 사람에 대한 이 전쟁에 대하여서는 그 무엇도 부정이 아니라는 것에 귀결된다. 옳고 그른 것, 정의와 부정의의 관념은 거기에는 존재할 여지가 없다. 공통의 힘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 법은 없으며 법이 없는 곳에 부정의는 없다. 강력(强力)과 기만이란, 전쟁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주요한 덕(德)이 된다. 정의와 부정의는 인간의 육체 또는 정신의 기능은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들은 감각이나 정념과 같이 세계에 오직 한 사람만이 있는 인간에게나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정의와 부정의는 고독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사회 속에 있

는 사람들에게 관계되는 성질의 것이다. 또한 앞에 말한 상태의 필연적인 귀결로서 거기에는 소유도 지배도 없고, '나의 것'과 '당신의 것'의 구별도 없으며, 각자가 획득할 수 있는 것만이 그들의 것이며, 더욱이 그가 그것을 보존할 수 있는 한에서 그런 것이다. 사람이 단순한 자연에 의하여 실제로 놓여 있는 나쁜 상태에 관해서는 이쯤으로 해 둔다. 물론 거기로부터 빠져 나갈 가능성은 있는 것이며, 그 가능성의 일부는 인간의 여러 가지 정념에 있고 또 일부는 그들의 이성(理性)에 있는 것이다.

사람들을 평화에로 지향케 하는 여러 정념 사람들을 평화로 지향케 하는 여러 정념은 죽음에의 공포이며, 쾌적한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의욕이며, 그들의 근로〔노력〕에 의하여 그것들을 획득하고자 하는 희망이다. 그리하여 이성은 사람들이 서로 동의할 생각이 드는 적절한 평화의 여러 조항을 시사한다. 이들의 여러 조항은 자연의 여러 법칙이라고도 불려지는 것으로서 나는 그것들에 관해서는 다음 두 개의 장(章)에서 더욱 상세하게 기술할 것이다.

제14장 제1의 자연법, 제2의 자연법 그리고 계약에 대하여

자연권(自然權)이란 무엇인가 저술가들이 보통 '자연권〔jus naturale〕'이라고 부르고 있는 자연의 권리란, 각 사람이 그 자신의 자연, 즉 그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의 욕구하는 대로 자기의 힘을 사용하는 각자가 가진 자유이다. 따라서 자신의 판단과 이성에 따라 더욱 적당한 수단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일을 해내는 자유이다.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란 이 말이 본래 뜻하는 바에 따르면 외적 장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풀이된다. 그와 같은 장해는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내는 힘의 일부분을 간혹 제거하지만, 그러나 그에게 남겨진 힘을 그의 판단과 이성의 지시에 따라서 사용되는 것은 저지할 수 없는 것이다.

자연법이란 무엇인가 자연의 법〔lex naturalis〕이란 이성에 의하여 발견된 계율 또는 일반 법칙이다. 그것에 의하여 인간은 자기의 생명을 파괴하거나 또는 그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을 빼앗는 일을 해내는 것이 금지되며, 또 그것을 유지하는 데 보

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일을 회피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다.

권리와 법의 차이 이 문제에 관하여 논급(論及)하는 사람들은 간혹 '권리와 법(jus and lex, right and law)'을 혼동하고 있으나 이것들은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권리는 행하고 또는 행하지 않는 것의 자유에 있고, 이에 반해서 법은 그들 가운데의 어느 한쪽에 결정해서 구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과 권리는 의무와 자유와 같이 다른 것이며 양자는 동일한 일에 관해서는 일치될 수 없는 것이다.

자연적으로는 각 사람은 모든 일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인간의 상태는 *(앞 장에서 명백히 된 것과 같이)* 각 사람에 대한 각 사람의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각 사람은 자신의 이성에 의하여 통치되고, 거기에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기의 생명을 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태에 있어서는, 각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하여, 서로의 신체에 대하여서까지도,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의 모든 것에 대한 자연권(自然權)이 존속하는 한, 어느 누구에게도 *(제아무리 강력하고 현명하다고 하더라도)* 자연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삶을 허락하고 있는 시간을 살아가는 데에 대한 보증은 전혀 없는 것이다. 그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이성의 계율 또는 일반 법칙이 생기게 된다.

기본적 자연법 즉 '각 사람은 평화를 획득할 희망이 존재하는 한, 그것을 향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며, 그것을 획득할 수가 없을 때에는 전쟁의 모든 원조와 이익을 구하며 이용해도 좋다.' 이 법칙의 처음 부분은 제1의 또한 기본적인 자연법으로서 그것은 '평화를 구하여 그것에 따르라'라고 하는 것이다. 제2의 부분은 자연권의 요약으로서, 그것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우리들 자신을 방위하라'는 것이다.

제2의 자연법 기본적 자연법에 의하여 사람들은 평화를 향하여 노력하라고 명령받지만, 이 기본적 자연법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2의 법칙을 끌어 낼 수 있게 된다. 즉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또한 그러한 경우에는 평화와 자기 방위를 위하여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자진해서 모든 일에 대한 그의 권리를 버려야 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에 대하여 가지는 것을 그가 허락하는 것과 같은 자유를 다

른 사람에 대하여 자기가 가지는 것으로서 만족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각 사람이 그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이 권리를 보존하고 있는 한, 모든 사람들은 전쟁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다른 사람이 그와 마찬가지로 그 권리를 버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그런 경우에는 누구도 자기의 권리를 버려야 할 이유는 없다. 그것은 그 자신을, 평화로 향하게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먹이로 내던지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의무는 없다)* 이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해 주듯이 네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네가 행하라'는 《복음서(福音書)》의 법이며, 또한 '네가 너를 위하여 바라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말라'고 한 모든 사람의 법이다.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느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그 일에 대하여 그 권리를 즐겨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자유를 포기하는 일'이다. 즉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양도하는 다른 사람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지 않던 권리를,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은 세상에 나면서부터 어떠한 것에 대하여서도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오직, 다른 사람이 그에게 방해됨이 없이 자기의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를 즐겨 누릴 수 있도록, 물론 그 이외의 제삼자로부터의 방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뿐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권리가 없을 경우에 생겨나는 결과는 자기 자신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장해가 그만큼 감소된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권리의 포기란 무엇인가 권리는 단순히 그것을 포기하는 것에 의해서 또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일에 의해서도 없어지게 된다. '단순한 포기에 의해서'라는 것은, 그것에 관한 이익이 누구에게로 돌아가느냐 하는 것을 그가 고려 않을 경우이다.

권리의 양도란 무엇인가 양도에 의해서라는 것은, 그에게 관한 이익이 어느 특정인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의도되고 있을 경우이다.

의무화 의무화되고 그리고 사람이 그의 권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포기 또는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는 이 권리의 양도 또는 포기를 받은 사람들이 그러한 이익을 얻

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의무화되고 속박된다고 말하고 있다.

의무 그리고 그는 그 자신의 의지적 행위를 무효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그의 의무인 것이다.

부정의 이 같은 방해는 그 권리가 거기에서는 이미 포기되었거나 양도되어서 '무권리'가 된 이상, 부정의이며 침해이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논쟁에서 논위되는 '침해'라든가 '부정의'라든가 하는 것은 스콜라 학자의 논리에서의 배리(背理)라고 불려지고 있는 것과 어느 정도 비슷하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서는 어느 사람이 처음에 주장하였던 것에 대하여 반대되는 것을 말할 경우 '배리'라고 부르고 있지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처음에 의도적으로 해 오던 것을 의도적으로 해소하는 것을 부정의라든가 침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사람이 그의 권리를 단순히 포기하거나 또는 양도하는 방법은, 그가 그 권리를 받는 사람에 대하여서 그 권리를 그와 같이 포기 또는 양도하는 일, 또는 포기 또는 양도한 것이 의도적이며, 더욱이 충분한, 또는 한 가지, 또는 몇 가지의 증거를 명시 또는 표시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들의 증거는 언어만의 경우, 또는 행위만의 경우도 있지만 *(또한 극히 빈번하게 그러하듯이)* 언어와 행위의 두 가지일 경우도 있다. 증서문(證書文)도 또한 그러한 것으로서, 사람들은 그것에 의하여 속박되고 의무를 지는 것이다. 증서문은 그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약속처럼 손쉽게 깨어지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깨어 버림으로써 어떤 나쁜 결과가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게 됨으로 해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모든 권리가 이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느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양도, 또는 포기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대신으로 자기 자신에게 양도되는 어떠한 권리, 또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가 갖고자 하는 어떤 다른 이익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도적 행위로서, 각 사람의 의도적 행위는 무엇인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이익'이 되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어떠한 언행이나 그 밖의 표시로서도, 포기하고 또는 양도하였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약간의 권리가 있는 것이다. 첫째로, 사람은 그의 생명을 빼앗고자 폭력으로 덤벼드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저항하는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권리를 포기함으로 해서 그는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도 조금도 이익을 목적으로 하였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상해, 쇠고랑 채우기, 투옥에 대하여서도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의 인내는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거나 투옥되는 것을 방치해 두는 인내와는 달라서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며,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폭력을 가지고 그에게 위협할 때 그들이 그를 살해코자 의도하고 있는지 어떤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리의 이와 같은 포기 또는 양도가 이루어지는 동기나 목적은, 생명 및 살고 있는 것이 싫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유지하는 수단에 관하여 인격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므로 어느 사람이 언행 또는 다른 표시에 의하여 스스로 그러한 표시가 의도하고 있는 목적을 버리는 것이라 생각되어도 그는 그렇게 하고자 했다든가, 그것이 그의 의사였다고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언어나 행동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 가에 대하여는 그가 알지 못하였다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계약이란 무엇인가 권리의 상호적인 양도는 사람들이 계약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어떤 사물에 대한 권리의 양도와 그것 자체의 양도, 또는 교부(交付), 즉 인도하는 것과의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즉 사물은 현금으로 매매하거나 재화나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와 같이, 권리의 이전과 함께 인도되며, 또는 얼마 후에도 인도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신약이란 무엇인가 나아가서 계약자의 한쪽이 그가 지켜야 할 계약된 그 물품을 인도하고, 상대에게는 어떤 정해진 기간 후에 그 인도하는 것을 맡기고 그동안 상대를 신뢰하는 상태로 둘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그 계약은 상대측에게 있어서는 약속 또는 신약이라고 불려진다. 또는 쌍방이 현재 계약을 맺어 놓고 뒤에 이행한다고 치자. 이 경우에는 장래에 있어서 이행할 사람은 신뢰받고 있는 것이며, 그의 실행은 '약속의 준수' 또는 성실이라고 불려지며, 불이행은 *(그것이 스스로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면)* '성실의 파기(破棄)'라고 불려진다.

권리의 양도가 상호적이 아니고, 당사자의 한쪽이 그것에 의하여 상대 또는 친구들로부터나, 우정이나 도움을 얻고자 희망하며, 또는 동정이나 큰 명성을 얻고자

희망하며, 동정하는 아픈 마음의 괴로움으로부터 스스로의 마음을 해방시키기를 희망하며, 또는 천국에서 보상을 받고자 희망하여, 또는 그것들을 이룩해 낼 경우는 이것은 계약이 아니라, 증여(贈與), 무상 증여(無償贈與), 은혜(恩惠)이며 이러한 말들은 전부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계약의 표시는 '표현된 것'이거나 '추측'에 의하는 것이다.

표현된 계약의 표시 표현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해되어 말로 표현된 말이다. 그와 같은 말이라는 것은 '현재' 또는 '과거'에 관해서의 '나는 준다', '나는 허락한다', '나는 이것이 당신의 것이 되는 것을 바란다'와 같은 것이거나 또는 장래에 관해서의 '나는 줄 것이다', '나는 허락할 것이다'와 같은 것으로서 장래에 관한 이러한 말은 약속이라고 불린다.

추측에 의한 계약의 표시 추측에 의한 표시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언어로부터의 귀결이며, 어떤 경우는 침묵으로부터의 귀결이며, 어떤 경우에는 여러 행위로부터의 귀결, 어떤 경우에는 하나의 행위를 멈추는 일로부터의 귀결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계약자의 의사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표시라면 그 모두가 계약에 관한 추측의 표시가 되는 것이다.

현재 또는 과거의 말에 따라 주어지는 무상 증여 말만으로는 만약 그것들이 장래에 관한 것뿐으로서, 단순한 약속을 내용으로 한다면 그것은 무상 증여의 불충분한 표시이며, 따라서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만약 그것들이 '내일 나는 증여할 작정이다'와 같은 장래에 대한 것이라면, 그것들은 내가 아직 주지 않았다는 표시이고, 따라서 나의 권리가 양도되지 않고, 무엇인가 다른 행위에 의하여 내가 그것을 양도할 때까지 남아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나는 주어 버렸다'든가, '지금 주고 내일 인도하기로 한다'와 같이, 만약 말이 현재 또는 과거의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나의 내일의 권리는 오늘로서 양도되고, 그리고 나의 의사의 증거는 달리 없다 하더라도, 말에 의하여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 volo hoc tuum essc cars와 cras dobo라는 이들 두 가지 말의 뜻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그것은 '나는 이것이 내일 당신의 것이 되기를 바란다(I will that this be thine tomorrow)'와 '나는 내일 그것을 당신에게 주기를 바란다(I will give it thee

tomorrow)'와의 사이의 차이다. 즉 앞의 말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나는 바란다(I will)'는 말은 현재의 의사의 행위(give)를 나타내고, 후자에 있어서 그것은 장래의 의사의 행위(will)에 대한 약속을 나타낸다. 따라서 앞의 말은 현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장래의 권리를 양도하지만, 후자의 말은 장래에 관한 것으로서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에 거기에 말뿐이 아니라 무엇인가 달리 권리 양도의 의사 표시가 있다면 그 경우에는, 그 증여가 무상이라고 하더라도, 권리는 장래에 대한 말에 의해서 이전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어느 사람이 경기에서 제일 먼저 결승점에 들어온 자에게 상을 주고자 제안을 할 경우에는 증여가 무상이며, 말이 장래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권리는 이전한다. 즉, 그가 자기의 말을 이와 같이 해석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그는 경주를 시키는 것과 같은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계약의 표시는 과거 · 현재 · 장래에 관한 말이다 계약에 있어서 말이 현재 또는 과거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그것이 장래에 관한 것이더라도 권리는 이전한다. 왜냐하면 계약이라는 것은 모두가 권리의 상호적인 양도 또는 변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가 약속에 의한 이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오직 약속만을 하는 자도, 권리가 이전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되어야 할 것이다. 왜 그러냐하면 만약에 그가 그의 말을 이와 같이 풀이되는 것에 만족하고 있지 않다면 상대는 자기가 할 일을 먼저 이행하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매각이나 구입이나 그 밖의 계약의 여러 행위에 있어서도 약속은 신약과 같은 것이며, 따라서 의무를 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값어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계약의 경우에 먼저 이행하는 자는 상대의 이행에 의해서 그가 당연히 받을 것에 값어치가 된다고 일컬어지며, 그는 그것을 '당연히 받을 자가' 되는 것이다. 또는 승자(勝者)에게만 주어져야 하는 상이 많은 사람에 대하여 제안될 경우, 또는 화폐가 그것을 주운 자에게 주어지도록 많은 사람들 앞에 던져지는 경우에도, 이것은 무상 증여라 하더라도, 이렇게 이기고 또 줍는 것은 '값어치가 된다'는 것이며, 당연하게 받을 자로서 그것을 가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권리는 수상(授賞)을 제안하여 화폐를 던질 때에 양도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누구에게라도 하는 것은 경쟁의 결과에 의해서가 아니면 결정될 수 없으나 값어치가 된다는 이 두 가지의 종류의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즉 계약에 있어서는 나는 자기의 힘과 계약 상대의 필요에 따라 그만한 값어치가 되는 것이나 이 무상 증여의 경우에는 오직 전적으로 수여자의 은혜로운 자비에 의해서만이 값어치가 되는 것이다. 계약에 있어서 나는 계약의 상대측으로부터 말한다면, 그가 그 권리를 놓치는 데에 대한 값어치가 되는 것이다. 이 증여의 경우에는 나는 수여자(授與者)가 그의 권리를 놓치는 데에 대한 값어치가 아니라 그가 그것을 놓쳤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도 나의 것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값어치가 되는 것이다. 스콜라 학파에 있어서 '승인에 의해서 값어치가 된다'와 '가치에 의해서 값어치가 되는' 것과의 구별은, 이런 의미라고 나는 생각한다. 즉 전능의 신은 그가 정한 계율과 제한에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육욕(肉慾)에 방황하면서)*에게 낙원을 약속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생활하는 자는 '승인에 의해' 낙원으로 갈 값어치가 있다고 그들은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그 자신의 올바름이나 그 밖의 그 자신의 힘에 의하여 그것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의 무상의 혜택에 의해서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도 '가치에 의해서' 낙원에 대한 값어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진정 그 구별의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논쟁자들은 그들 자신의 학술 용어의 의미에 대하여, 그것이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는 동안밖에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의미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것도 단정하려고 생각지는 않는다. 내가 말하는 것은 오직 증물(贈物)이 경쟁에 대한 상과 같이 부정적으로 주어지는 경우에는, 승리한 삶은 그 상에 대한 값어치로서 그것을 당연히 받을 것으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상호 신뢰의 신약이 무효인 경우 만약 쌍방이 같이 현재 이행하는 것이 아니면서 상호 신뢰한다고 하는 신약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단순한 자연의 상태*(각 사람의 각 사람에 대한 전쟁 상태)*에 있어서는 무엇인가 두드러진 의혹이 있다면 무효가 된다. 그러나 그들의 쌍방의 위에 놓인 공통의 힘이 있어서, 이행을 강제하기에 충분한 권리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즉 어

떠한 강제력에 대한 공포가 없다면 언어의 고삐 줄은 사람의 야심이나 탐욕이나 그 밖의 정념을 구속하는 데는 지나치게 약하기 때문에 먼저 행하는 사람은 나중에 상대가 이행할 것이라는 보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강제력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며, 그는 자신의 공포의 정당성에 관한 재판관이 되듯이 단순한 자연의 상태에 있어서는 상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이행하는 사람은 실로 자기를 적에게 팔아넘기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자기의 생명과 생존 수단을 방위한다고 하는 *(결코 버릴 수가 없는)* 권리에 반(反)하는 일이다.

그러나 하나의 힘이 설정되어 있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기들의 성실을 짓밟으려는 사람들을 속박하는 사회 상태에 있어서는, 그러한 공포는 사리에 맞는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의해서 먼저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신약을 무효로 만드는 공포의 원인은 어떠한 새로운 사실이나 그 밖의 불이행의 의사의 표시와 같이 항상 신약이 맺어진 뒤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신약을 무효로 만들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약속을 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이행의 장해라고 인정될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목적에 대한 권리는 수단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어떠한 권리를 양도하는 사람은 그 권리를 즐겨 누리는 수단을 가능한 한 양도한다. 가령 토지를 매각하는 사람은 그 위에 자라고 있는 목초(牧草) 및 모든 것을 양도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또 물방앗간을 파는 사람은 그것을 움직이는 개울물을 따로 떼어 버릴 수가 없다. 그리고 어느 사람에게, 주권자로서 통치하는 권리를 주는 사람들은 군대를 유지하는 화폐의 징수권 및 재판을 실시하기 위한 관리의 임명권을 그에게 부여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짐승과의 신약은 없다 짖어 대는 짐승과 신약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권리의 어떠한 이전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수용하지도 않으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자에게 이전할 수도 없다. 그리고 서로 간의 수용이 없으면 신약은 없는 것이다.

신과의 신약도 특별한 계시가 없이는 있을 수 없다 신과 신약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계시에 의하거나 또는 그의 지배나 그의 이름으로 통치하는 대리자에 의해서나, 어느 편이든, 신이 그것에 의하여 말을 건네는 매개자로서의 작용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은 우리들의 신약이 수용되는지 어떤지를 알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떠한 자연법에 위반하는 것을 맹세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맹세를 이행하는 것은 부정이기 때문에 맹세를 하여도 헛일이며,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자연법이 명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맹세가 아니며, 사람들을 속박하는 법인 것이다.

가능하고, 또한 장래의 것이 아닌 것과 같은 신약은 없다 신약의 내용이나 주제는 항상 깊이 생각되어야 할 일들이다. *(왜냐하면 신약은 의사의 행위이며 그것은 숙려의 행위, 즉 최후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은 항상 장래의 일에 속하고 신약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행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일들이라고 이해된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것을 약속하는 것은 신약이 아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가능하다고 생각되었던 것이 뒤에 가서 불가능하다고 판명되었을 때에는 신약은 유효(有効)하며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 대가에 대하여 속박한다. 또는 될 수 있는 한까지 이행하고자 노력을 하여도 그래도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이상에 대하여서는 누구도 의무가 주어지지를 않는다.

신약은 어떻게 하여 무효가 되는가 사람들은 이행하느냐 면제되느냐 하는 두 가지의 방법에 의해서 신약으로부터 해방된다. 즉 이행은 의무의 당연한 종결이며 면제는 자유의 반환이고, 의무가 생긴 바로 그것의 권리의 재양도(再讓渡)이다.

공포에 의하여 강요된 신약은 유효하다 단순한 자연 상태에 있어서, 공포에서 체결된 신약은 의무적이다. 가령 내가 적에게 나의 생명의 대신으로 몸값을 지불하거나 봉사를 한다는 신약을 체결하면, 나는 그것에 의하여 속박당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계약으로서 거기에서 한쪽은 생존한다는 이익을 주며, 다른 쪽에서는 그 대신 화폐나 봉사를 얻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한 자연의 상태에서처럼)* 다른 법이 그 이행을 금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약은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가 그들의

몸값을 지불할 것을 신뢰받았다면, 그것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약한 왕후는 공포 때문에 세력이 있는 왕후와 불리한 화의(和議)를 체결하였다면 그는 그것을 지키도록 속박당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전쟁을 재개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정당한 공포의 원인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렇다. 코먼웰스의 안에 있어서도, 내가 도적에게 몸값을 주고 내 몸을 구하기 위하여, 그에 대하여 화폐를 지불할 약속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면, 시민법이 나에게 그 의무를 면제하여 주지 않는 한, 나는 그것을 지불하도록 속박당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의무화되지 않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공포에 의한 신약으로서 합법적인 것이며, 그리고 내가 합법적으로 신약한 일을 나는 합법적으로 깰 수가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에 대한 앞선 신약은 다른 사람에 대한 뒤의 신약을 무효로 만든다 앞선 신약은 뒤의 그것을 무효로 만든다. 즉 자기의 권리를 오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사람은 내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는 없다. 따라서 뒤의 약속은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아니고 무효인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를 방위하지 않는다는 신약은 무효이다 폭력에 대하여서 자기 자신을 힘에 의하여 방위하지 않는다는 신약은 항상 무효이다. 왜냐하면 *(내가 앞에서 말했듯이)* 그 누구도 자기를 죽음이나 상해나 투옥으로부터 면제시키는 자기의 권리를 양도 또는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이며 *(이들을 제거시키는 일이 모든 권리 포기의 유일한 목표이며, 따라서 폭력에 대하여 폭력으로 저항하지 않는다는 약속은 어떠한 신약에 있어서도 하등의 권리도 양도하는 것도 아니며, 의무를 지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이러한 일을 하지 않으면 나를 죽이라는 신약은 할 수가 있으나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나를 죽이러 올 때에 나는 저항하지 않을 것이다'라고는 신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인간이라는 것은 본래 저항하지 않고, 확실히 지금 죽는다라는 보다 큰 해악보다도, 저항해서 죽을지 모른다는 위험이라고 하는 보다 작은 해악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범죄자를 형장(刑場)이나 감옥으로 연행을 할 때에 그러한 범죄자가 그를 처형하는 법에 이미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무장한 사람들로 경비시킴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은 앞에 말한 사실을 진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자기를 고소하도록 의무가 주어지지를 않는다 용서를 받는다는 보증이 없이, 자기를 고소한다는 신약도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왜냐하면, 각 사람이 재정자(裁定者)인 자연 상태에 있어서는 고소의 여지는 없으며 사회 상태에 있어서는 고소는 처형이 뒤따르며, 처형은 또한 강제력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주어지지는 않기 때문이나 부모나 아내나 은인과 같은 사람들은 고소하는 경우와 같이 어떤 사람들에게 죄를 돌림으로써 자기가 불행하게 되는 것과 같은 고소에 대하여서 또한 같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즉, 그러한 고소자의 증언은 자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면 본질적으로 불순한 것으로 상정되며, 따라서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람의 증언이 신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것을 부여하는 의무도 생기지 않는다. 고문에 의한 고소도 증언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고문은 진리를 더욱 깊게 심리하며 탐구할 때의 추측의 수단 및 빛으로서만이 사용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때에 고백되는 것은 고문당하는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뿐, 고문을 하는 사람에게 지식을 주는 데는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 따라서 그것은 충분한 증언으로서 신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가 진실 또는 허위, 고소의 어떤 것에 의하여 자기를 해방시킨다 하여도, 그는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는 권리에 의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이다.

선서(宣誓)의 목적 언어의 힘은 *(앞서 주의한 바가 있지만)*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약을 이행시키도록 하는 데는 너무나 약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 속에는 그것의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두 가지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 그것은 약속을 파기하였을 때의 결과에 대한 공포, 약속을 파기할 필요가 없다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는 자만이나 자랑이다. 이 후자의 경우는 극히 드물게만 볼 수 있는 믿지 못할 큰 도량이라고 하겠으나 특히 인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富)나, 지배나, 육체적 쾌락의 추구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것이다. 믿을 수 있는 정념은 공포이며, 그것에는 두 가지의 극히 일반적인 대상이 있다. 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며, 또 하나는,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성을 내게 되는 사람들의 힘이다. 이들 두 가지 가운데서, 전자의 것이 큰 힘을 가지고 있으나, 후자에 대한 공

포의 편이 보통으로는 커다란 공포를 주는 것이다. 전자에 대한 공포는, 각 사람이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종교심인 것으로서 그것은 시민 사회 이전의 인간의 본성 안에 존재하고 있다. 후자는 인간의 본성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적어도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약속을 지키게 하는 데 충분할 정도의 존재를 가지고 있지를 않다. 왜냐하면, 단순한 자연의 상태에 있어서는, 힘의 불평등은 전투의 결과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식별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 사회 시대 이전에는, 또는 전쟁에 의하여 시민 사회가 중단되었을 때에는 협정된 평화의 신약을 탐욕, 야심, 육욕 그 밖의 강한 의욕의 유혹에 대하여 강화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공포밖에는 없으며, 이런 힘을 각 사람은 신으로서 숭배하여 자기의 배신행위에 대한 보복자로서 공포를 대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권력에 복종하지 않는 두 사람의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상대를 각자가 두려워하고 있는 신의 이름으로 서약케 하는 것이 고작인 것이다.

선서의 형태 이 '맹세' 즉 선서는 '약속에 덧붙여진 언어의, 하나의 형태로서, 그것에 의해서 약속을 하는 사람은 그가 만약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신의 은총을 받지 못한다는 것, 또는 그 자신에게 복수하도록 신에게 비는 일을 나타내고 있다.' 이교도의 형태는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 짐승을 죽이듯이 주피터(유피테르)로 하여금 나를 죽이도록 하라'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형태는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신이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각 사람이 제 나름의 종교에서 쓰이는 의례(儀禮) · 의식(儀式)이 더해져서 서약을 깨는 데 대한 공포가 더욱 증가되는 것이다.

신에 의한 이외의 선서는 없다 이것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일이 명확하게 된다. 즉 선서는 맹세를 하는 사람 자신의 취하는 형태나 의례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무효이며 선서가 아니다. 서약을 하는 사람이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에 이름을 걸고 맹세할 경우에도 서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공포나 아첨으로 그들의 왕의 이름으로 맹세하였지만,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해서, 신성한 명예를 왕에게 바쳤다고 생각되는 것을 바랐던 것이다. 그리고 필요도 없는데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 신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에 지나지 않

는다. 또 사람들이 일반의 회화에 있어서 하듯이 다른 것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 맹세가 아니며, 이야기에 열중한 나머지 생겨난 경건치 못한 관습이다.

선서는 의무에 어떤 것도 덧붙이지 않는다 또한 선서는 의무에 어떠한 것도 덧붙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명백하여진다. 왜냐하면 신약은 그것이 합법적이라고 한다면 선서를 하지 않아도 선서한 것과 마찬가지로 신의 앞에서 구속적인 것이며, 만약 비합법적인 것이라면 선서에 의하여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혀 구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15장 그 밖의 자연법에 대하여

제3의 자연법, 정의(正義) 유보(留保)되고 있다면 인류의 평화를 저해하는 것과 같은 여러 권리를, 우리들이 제삼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부득이하게 만드는, 그 자연의 법으로부터 계속 제3의 자연법이 생겨난다. 즉, '사람들은 맺어진 신약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그것이 없다면 신약은 헛일이고, 공허한 말에 불과하며 그리고 모든 사람의 모든 일에 대한 권리는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전히 전쟁 상태에 있는 것이 된다.

정의 · 부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정의의 원천은 이 자연법에 존재한다. 왜냐하면 신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어떠한 권리도 양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모든 사람은 모든 일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그때에는 어떠한 행위도 부정의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약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을 깨는 것은 '부정(不正)'이 되는 것이다. 그와 같이 부정의의 정의는 '신약의 불이행'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부정이 아닌 것은 모두가 '올바른' 일이다.

정의와 소유권은 코먼웰스의 설립과 더불어 비롯된다 그러나 상호의 신뢰에 의한 신약은 어느 측엔가에 불이행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앞 장에서 서술했듯이)* 무효이기 때문에 정의의 근원은 신약을 하는데 있다고는 하나, 그러한 두려움의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한, 실제로는 거기에는 부정의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와 같은 두려움의 원인을 제거하는 일은 사람들이 전쟁이라는 자연 상

태에 있는 동안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 및 부정의라는 명사(名辭)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신약 파기에서 기대하는 이익보다도 한층 더 큰 벌에 의하여 그들에게 평등하게 신약의 이행을 강요하며 또한 사람들이 서로 계약에 의해서, 그들이 포기하는 보편적 권리 대신으로 획득하는 소유권을 확보할 어떠한 강제력이 없으면 안 된다. 그와 같은 힘은 코먼웰스의 수립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정의에 관한 스콜라 학파의 통상(通常)의 정의로부터도 추론할 수가 있다. 즉 그들의 말에 의하면 '정의란 각 사람에게 각자의 것을 주고자 하는 끊임없는 의지이다.' 따라서 각자의 것이 없는 경우, 즉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부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또 강제력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곳, 즉 코먼웰스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코먼웰스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어떤 것도 부정은 아니다. 이와 같이하여 정의의 본질은 유효한 신약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다. 신약의 유효성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데 충분한 사회적 권력의 설립에 의해서만이 시작되며 그와 동시에 소유권도 또한 시작되는 것이다.

정의는 이성(理性)에 어긋나지 않는다 어리석은 자는 정의라는 것은 없는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때로는 말로 할 때도 있다. 그때 그는 진지하게 다음과 같이 논한다. 즉 각 사람의 보존과 만족은 각 사람 스스로의 배려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각 사람이 그것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신약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또 그것을 지키든 말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이익이 되었다면 이성에 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논할 때, 그는 신약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일,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깨지고, 때로는 지켜지는 일, 이러한 파약(破約)이 부정의라 불려지며, 그 준수(遵守)가 정의라고 불리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는 부정의는 신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 버리면 *(이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는 신이 없다고 했다)* 그것은 각 사람이 그 이익을 나타내는 이성과 때로는 나란히 서지 않는 것인가 특히 그것이 어느 사람을 다른 사람의 비난과 욕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힘까지도 무시

하는 것과 같은 입장에 두도록 하는 것과 같은 이익을 가져오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가 하고 의문을 갖는 것이다. 신의 왕국은 폭력에 의하여 획득된다. 그러나 그것이 부정한 폭력에 의하여 획득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에 의해서 해를 받는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이 해서 신의 왕국을 획득하는 것은 이성에 어긋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이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정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정의는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추리에서 성공된 간사하고 악독한 것이 덕(德)이라는 명칭을 얻었다. 또 다른 모든 일에 대하여서는 성실의 유린을 용서치 않던 사람들도, 그것이 왕국을 획득하기 위한 것일 경우에는 허용하였다. 그리고 사투르누스가 그 아들 유피테르에 의해서 배척되었다고 믿는 이교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피테르가 부정에 대한 복수자라고 믿고 있다. 이것은 코크(Edward Coke, 1552~1634)의 《리틀턴 주해(註解)》에 서술되고 있는 법칙에 어느 정도 비슷하다. 즉 거기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당한 왕위의 계승자가 반역의 오명(汚名)을 둘러쓴다고 하여도 그래도 오히려 그는 왕위에 오르며 그리고 '그 순간에' 그 오명은 무효가 된다. 이러한 예로부터 사람은 다음과 같이 추론하기가 쉽다. 즉 왕국의 명백한 계승자는 그 소유자를 설혹 아버지라 하여도 죽일 경우에 당신은 그것을 부정의라고 부르며, 또는 그 밖의 좋은 대로의 이름으로 불러도 좋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의지적 행위가 모두 그들 자신의 이익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그것은 결코 이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그들의 목적에 가장 도움이 되는 행위가 더욱 이성적인 것이다. 이 그럴듯한 추리는, 그렇지만 허위인 것이다.

왜냐하면 약속하는 당사자들의 위에 사회적 권력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경우와 같은, 어느 측에도 이행의 보증이 없는 서로의 약속이 문제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약속은 신약이 아니다. 그러하기는 하나, 당사자와 한쪽이 이미 이행했거나 또는 그로 하여금 이행시키는 권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대의 이행이 이성에 어긋난다든가, 즉 그의 이익에 어긋나는지 어떤지 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이성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여기에 관한 설명을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의 점을 생각하여 보면 된다. 첫째로, 사람이 무엇을 행하여, 그것이 모든 일을 예견해 맞추었다 하여도, 어찌됐든 자신의 파괴를 향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가 예기하지 못하였던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그것을 그의 이익으로 전환시킨다고 치자. 그러한 경우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그 행위가 이성적으로 또는 현명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둘째로, 모든 사람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눌러 놓는 공통의 힘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각 사람의 적이 되는 것 같은 전쟁 상태에 있어서는, 동료의 도움 없이 자기의 힘이나 지력(知力)에 의해서 자신을 파괴로부터 지키는 일을 어느 누구도 바랄 수가 없다. 거기에서는, 각 사람이 동맹에 의하여 모든 다른 사람과 같이 방위하고자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사람이 그를 원조하는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말로서 분명히 밝힌다면, 그는 당연히 자기만의 단독의 힘에 의하여 얻은 이외에는 안전을 위한 수단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을 깨고, 더욱이 이성에 위배됨이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분명히 밝히는 사람은 평화와 방위를 위하여 결합하고 있는 어떠한 사회로부터 잘못되어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그가 받아들여졌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과오(過誤)의 위험을 느끼지 않은 채 그가 그 안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러한 과오는 사람이 스스로의 안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당연히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그가 사회의 밑바닥에 남겨지고, 또는 내던짐을 당하였다고 하면 그는 멸망하며, 만약에 그가 사회 안에 살아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과오에 의한 것이다. 이 과오는 그가 예견하고 기대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의 자기보존에 관해서의 이성에 어긋난다. 그리고 그를 파괴하는 데 힘을 다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오직 무엇인가가 그들 자신의 이익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너그럽게 보아 사회의 안에다 살려 두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무엇인가의 방법에 의해서, 천국에 있어서의 평안하고도 영원한 복을 얻는다는 예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신약의 파기는 아니고 준수이기 때문이다.

반란에 의하여 주권을 획득한다는 다른 예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러한 일은 일어

날 수가 있으나 그것은 이성적으로 기대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이며, 또 주권을 그렇게 해서 획득하는 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이 해서 그것을 획득하는 것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이 이성에 어긋난다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정의, 즉 신약의 준수는 이성의 법칙인 것이며, 그 법칙에 의해서 우리들은 자기의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일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금지되고 있다. 때문에 그것은 자연의 법인 것이다.

어느 사람들은 이런 점을 다시 뛰어넘어서 자연의 법을 현세에 있어서의 인간 생명의 유지에 도움이 되는 여러 법칙으로서가 아니라, 죽고 난 후의 영원한 복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서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이 복을 얻기 위해서는 신약의 파기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결과 신약의 파기는 정당하고 또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들 자신의 동의에 의해서 그들의 위에 설립된 주권을 죽이거나 배척, 또는 그것에 배반하기도 하지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죽고 난 후의 상태에 대하여서는, 어떤 것도 스스로 얻을 수 있는 지식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실의 파기에 대하여 죽고 난 후에 주어지는 응보(應報)에 관해서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으로서, 오직 그것을 초자연적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서, 또는 그것을 초자연적으로 안 사람들을 다시 안 사람들로 알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근거를 두는 신념이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 성실의 파기는 이성, 즉 자연의 계율이라고는 불려질 수가 없다.

신약은 그것을 맺은 상대방의 악덕에 의해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실의 준수가 자연의 법인 것을 용인함에도 불구하고, 이교도나 다른 사람에 대한 신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보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느 일정한 인간에 대하여서는 예외를 만들고 있다. 이것도 또한 이성에 어긋난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결함이 우리들의 체결한 신약을 해제할 만하다면 그것은 당연히 신약을 맺지 않도록 하는 데도 충분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올바름이나 행동의 올바름이란 무엇인가 올바르다든가, 올바르지 않다라는 명사(名辭)는 사람에게 귀속시키는 때와, 행위에 귀속시키는 때는 서로 그 뜻을 달

리한다. 사람에게 귀속시키는 때는 그것은 이성에 대한 태도의 일치 또는 불일치를 나타낸다. 그런데 그것들이 행위에 귀속될 때는, 태도 또는 생활 태도는 아니고, 이성에 대한 개개의 행위의 일치 또는 불일치를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사람이란, 그의 여러 가지 행위가 모두 다 올바르도록 될 수 있는 데까지의 배려를 하는 사람을 말하며,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란 그것을 업신여기는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들은 우리들의 국어로는 just 또는 unjust라는 말보다도, 뜻은 같지만 righteous 및 uurighteous라는 명칭에 의하여 불려지는 편이 많은 것이다. 따라서 올바른 사람은 갑작스러운 정념이라든가, 사물이나 사람에 관한 오해에서 생겨나는 하나 또는 소수의 옳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그 칭호를 잃는 것은 아니다. 또 옳지 않은 사람은 그가 공포 때문에 행하며 또는 회피하는 여러 행위에 의해서 그 성격을 잃지는 않는다. 그것은 그의 의지는 정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의 눈에 보이는 이익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인간의 여러 행위에 정의의 빛깔을 주는 것은 용기의 특정한 고귀함과 우아함이 있다. *(요즘 보기 드문 것이긴 하지만)* 이것에 의해 생활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남을 기만하는 것이나 약속을 깨는 것을 경멸하는 것이다. 정의가 덕이라 불리고, 부정의가 악덕이라 불리는 경우에 이와 같은 태도의 올바름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행위의 올바름은 사람들에게 올바르다는 명칭이 아니라 '죄가 없다'라는 명칭이 주어진다. 그리고 여러 행위의 부정의*(침해라고 불린다)*는 그들에게 '죄가 있다'라는 명칭만이 주어진다.

태도의 올바름과 행위의 올바름 다시 또한 태도의 부정의란 침해하고자 하는 성향 내지는 경향이며 그것이 행위에 이르기 전부터, 그리고 누군가 개인이 침해당하는 것을 상정하지 않고서라도 부정의인 것이다. 그러나 어떤 행위의 부정의*(즉 침해)*는 침해당한 어느 개인, 즉 신약이 이루어진 상대의 인간을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간혹 어떤 사람이 침해되어 그 손해를 타인이 받는 일이 있다. 예컨대 주인이 하인에게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자에게 돈을 갖다 줄 것을 명령할 경우에 만약 그것이 행하여지지 않으면 침해는 하인이 이전에 복종을 신약한 주인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나, 손해를 입는 것은 그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자이며, 또 하인은 그 사람

에 대하여 하등의 의무도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침해를 할 수는 없다. 코먼웰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서 사사로운 사람들로서는 서로 자기들의 채무를 허용하여도 좋으나 그들이 손해를 입는 강탈과 그 밖의 폭행을 서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채무를 체불하는 것은 그들 자신에 대한 침해이지만, 강탈이나 폭력은 코먼웰스의 인격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이다.

사람에 대하여서, 그 자신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은 침해라고는 할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이 행위자(行爲者)에게 표시한 그 자신의 의사와 일치해서, 그에게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모두가 그에 대한 침해는 아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것을 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행위하는 본원적(本源的)인 권리를, 무엇인가의 선행(先行)하는 신약에 의해서 포기하고 있지 않다면, 거기에는 신약 파기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는 침해당한 것이 아니다. 또한 만약에 행위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고 있다면, 그 일을 시키겠다는 그의 의사의 표명은 그 신약의 해제이며 따라서 이 경우에는 또한 그에 대한 침해는 없다.

교환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 저작자들은 행위의 정의를 '교환적'인 것과 '배분적'인 것으로 나누고 있다. 전자는 산술적 비례에 있으며, 후자는 기하학적 비례에 있다고 그들은 말한다. 따라서 그들은 교환적인 정의를 계약된 사물의 가치의 균등성에 있다고 하며, 또 배분적 정의는 동등한 가치 있는 사람들에게 동등의 이익을 배분하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우리들이 산 것보다도 비싸게 팔거나 상대의 가치 이상의 것을 그에게 주는 일이 흡사 부정적인 것같이 보인다. 계약이 이루어지는 모든 사물의 가치는, 계약자의 욕구에 의하여 측정된다. 그러므로 올바른 가치는 그들이 만족해서 준 액수이다. 그리고 가치는 *(한쪽의 이행이 다른 쪽의 이행에 대한 값어치가 된다고 하는 신약에 의한 것, 즉 배분적이 아니고 교환적 정의에 속하는 것을 제외하면)* 정의에 의하여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은혜에 의해서만이 보답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별은 그것이 항상 선명되고 있는 의미에 있어서는 옳지가 않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교환적 정의란 계약자의 정의로서, 즉 매매, 임대차, 대차, 교환, 거래 및 그 밖의 계약상의 여러 행위에 있어서의 신약의 이행이다.

그리고 배분적 정의는 재정권(裁定權)을 가지는 자의 정의로서, 다시 말하면 무엇이 옳은가를 결정하는 행위이다. 이 경우에 *(그를 재정자로 삼는 사람들에 의하여 신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재정자)가 이 신뢰에 보답한다면, 그는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것을 배분(配分)한다고 일컬어진다. 그리고 참으로 이것이 올바른 배분인 것이며,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배분적 정의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하지는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형평이라고 부르는 편이 정확할 것이며 이것 또한 자연법인 것으로, 이것에 대하여서는 적당한 곳에서 논급키로 하겠다.

제4의 자연법, 즉 보은(報恩) 정의가 선행하는 신약에 근거를 두고 있듯이, 보은은 선행하는 은혜, 즉 선행하는 무상 증여에 근거를 두는 것으로서 제4의 자연법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표현된다. 즉 '상대로부터 단순한 은혜에 의해서 이익을 얻은 사람은 그것을 준 사람이 그의 선량한 의사를 후회하는 두드러진 원인을 갖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그 자신의 이익을 생각지 않고 주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즉 증여는 의지적인 것이며, 모든 의지적 행위의 목적은 각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이익인 것이다. 그것이 헛되이 되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인자(仁慈)나 신뢰도 이루어질 여지가 없으며, 따라서 서로의 원조도 어떤 사람과 상대와의 화해도 이루어지지를 않는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전쟁'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며 그 일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구하라'라고 명하는, 첫째이고도 기본적인 자연법에 어긋난다. 이 법에 어긋나는 것은 '배은(背恩)'이라고 불리며, 그것은 신약에 의한 의무에 대하여 부정의가 가지는 것과 같은 관계를 은혜에 대하여 가지는 것이다.

제5, 서로의 적응, 즉 순종(順從) 제5의 자연법은 순종, 즉 '각 사람이 자기 이외의 사람에게 자기를 적응시키고자 노력하는 일'이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일을 살펴본다. 사람들의 사회에 대한 적응성에는 그들의 감정의 차이에서 오는 성질의 차이로서, 그 차이는 큰 건축을 하기 위하여 모아진 돌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차이와 약간 비슷한 데가 있다. 왜냐하면 요철(凹凸) 때문에, 또는 형태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그 자신보다도 큰 공간을 다른 돌로부터 빼앗는 돌이나 또는 딱딱해서 손쉽게 평평해지지 않으며 그것 때문에 건축에 방해가 되는

돌은 건축사(建築士)에 의해서 필요가 없는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버려지는 것과 같이, 어떤 사람이 그 성질의 오목과 볼룩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필요하고 그 자신에게는 불필요한 것을 지키고자 노력하며, 그리고 그의 정념이 완고하기 때문에 바로잡아 고칠 수가 없다고 하면 그는 사회의 걸리적거리는 존재가 되어 외로워지거나 또는 버림을 받게 된다. 각 사람은 권리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자연의 필요에 의해서도, 또한 그 자신의 보존에 필요한 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가능한의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상정되고 있음을 생각한다면, 헛된 일 때문에 구태여 자기 보존에 대항하는 사람은 그 결과로서 생겨난 전쟁에 관하여 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평화를 구하라'고 명하는 기본적 자연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 법을 지키는 사람은 사교적이라고 불린다. *(라틴 말로는 그들을 적응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부른다)* 그 반대로는 '완고(頑固)', '비사교적(非社交的)', '고집 센 다루기 힘드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제6, 허용의 용이성 제6의 자연법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과거에 죄를 범한 사람이 후회하고 용서를 빈다면 장래에 대한 보증에 따라서 용서하여 주지 않으면 안 된다.' 허용은 평화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적의(敵意)를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어도 그것은 평화가 아니고 공포이다. 그러나 장래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주지 않는 것은 평화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의 증거이다. 따라서 그것은 자연법에 어긋난다.

제7, 복수에 있어서는 사람들은 장래의 이익만을 존중한다는 사실 제1의 것은 *(악에 대하여 악으로써 갚는)* '복수에 있어서 사람들은 지나가 버린 과거의 악이 컸음을 보지 말고 앞으로 닥칠 선의 크기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의해서 우리들은 범죄자를 바로잡아 고쳐 주는 것 또는 다른 사람의 교도(矯導) 이외의 생각을 가지고서 벌을 주는 것은 금지된다. 즉 이 법은 장래의 보증에 들어서서 허용할 것을 명하는 바로 앞의 법으로부터의 귀결인 것이다. 또 본보기와 장래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복수는 우쭐하는, 즉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는 자랑 같은 것으로 어떠한 목적도 가지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목적은 항상 장래의 그 무엇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목적도 없는 자랑은 허용으로서 이성에 어긋나며, 이유

도 없이 상해를 입히는 것은 전쟁으로 끌고 가기 쉽기 때문이다. 이 일은 자연법에 어긋나며, 일반적으로 잔혹하다는 이름으로 불려진다.

제8, 오만의 금지 증오나 경시의 모든 표시는 투쟁을 도발하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사람은 복수하지 않고 있는 것보다도 오히려 생명을 거는 일을 택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덟 번째의 자연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계율을 마련한다. 즉 '누구든지, 행위 · 언어 · 표정 · 행동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증오 또는 경시하고 있다고 표명하지 않는 일이다. 이 법에 어긋나는 것은 보통 '오만'이라고 불려진다.

제9, 자만(自慢)의 금지 누가 보다 좋은 사람인가 하는 문제는 단순한 자연의 상태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거기에서는 *(앞에 밝힌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은 평등한 것이다. 현재 있는 불평등은 시민법에 의해서 도입된 것이다. 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정치학》의 제1권에서 그의 학설을 기초로 하여,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은 지배하는 것에 적합한, 즉 현명한 부류*(그 자신을 그 철학 때문에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였듯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데 적합*(강한 육체는 가지고 있으나 그와 같이 철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을 가리킨다)*한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흡사 주인과 하인이 사람의 동의에 의하여 서가 아니고 지력(知力)의 차이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것과 같은 말투이다. 이 일은 이성(理性)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경험에도 어긋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통치당하는 것보다 자기가 통치하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어리석은 자는 극히 적을 것이며, 또한 현명하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의 현명함을 믿지 않는 사람과 힘으로 싸울 경우에는 반드시 항상, 또는 언제든지 승리를 하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자연이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들었다면 그 평등은 인정해야 할 것이며 또한 만약 자연이 사람들을 불평등하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평등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면 평화의 상태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평등이 시인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제9의 자연법으로서, '각 사람은 다른 사람을 태어나면서부터 그와 같은 자라고 인정할 것'을 마련해 둔다. 이 계율에 어긋나는 것은 자만이다.

제10, 존대의 금지 이 법으로부터 또 하나의 법이, 즉 '평화의 상태에로 들어설 때

에는 타인이 보류하면 자기가 만족하지 않는 것과 같은 어떠한 권리를 스스로에게도 보류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법이 나온다. 평화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자연권 안에 있는 것을 포기하는 일, 즉 자기들이 바라는 모든 것을 행하는 자유를 갖지 않는 것이 필요하듯이, 또한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의 신체를 지배할 권리, 공기, 물, 운동,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에로 가는 길 및 그것들이 없다면 생존하지 못하거나 또는 생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모든 것을 즐기는 권리와 같은 약간의 권리를 보류해 두는 일도 필요한 것이다. 만약 이 경우, 평화를 이룩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주고자 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요구한다면 그것은 자연적 평등의 용인(容認)을 명령한 앞에서 말한 제9의 자연법에 어긋나며, 따라서 그것은 자연법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이 법을 지키는 사람을 우리들은 '겸허'하다고 부르며, 위반자를 '존대'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 법의 위범을 'πλεονξία(욕심내어)' 자기 몫 이상의 것을 탐낸다고 부른다.

제11, 형평 또 '만약 어떤 사람이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판정하는 일을 맡았다고 하면 그들의 사이를 평등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것도 자연법의 계율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 없이는 사람들의 논쟁은 전쟁에 의하지 않고서는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판에 있어서 불공평한 사람은, 편견(偏見)을 가지고 행동하여 사람들은 재판관 및 중재자의 효용으로부터 멀게 만드는 것이므로 *(기본적 자연법에 어긋나서)* 전쟁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 법의 준수는 각 사람에 당연히 소속되어야 할 것을 평등하게 그 사람들에게 분배한다는 이유에서 형평이라고 불린다. 또한 그것은 *(내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배분적 정의로서 이 법에 대한 위반은 '편파적으로 사람을 존경한다(προσωπολη-φία)'는 것을 말한다.

제12, 공유물의 평등한 사용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의 법(자연법)이 나오게 된다. 즉 '분할할 수 없는 것은 공동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면 그렇게 하고, 그리고 만약 그것의 양이 허용한다면 제한 없이, 그렇지 않으면 권리를 가지는 사람의 수에 따라 그렇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분배는 불평등이 되어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제13, 추첨에 대하여 그러나 어떤 것은 분할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할 수도 없다. 이 때에 형평을 규정하는 자연법은 '모든 권리가 또는 (*교체로 이용하는 경우*) 최초의 점유가 추첨에 의해서 결정되기'를 요구한다. 왜냐하면 평등한 분배는 자연법에 의하는 것이며, 이 밖에 평등한 분배의 방법은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제14, 최초의 탄생 및 최초의 점유에 대하여 '추첨'에는 '임의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의 두 종류가 있다. 임의적이라는 것은 경쟁자들에 의하여 협정되는 것이며, 자연적이란 최초의 탄생*(그리스 사람은 이것을 클레로노미아(Κληρονομία)라고 부르며, '추첨에 의해서 주었다'의 뜻)*이거나 또는 '최초의 점유(占有)'이다.

따라서 공동 이용도 분배도 할 수가 없는 것은 처음의 점유자에게, 또 어떤 경우에는 먼저 태어난 사람에게 추첨에 의해서 획득된 것이라고 판정하여 주어져야 할 것이다.

제15, 중개자에 대하여 '평화를 중개(仲介)하는 모든 사람들의 행동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도 또한 자연법이다. 왜냐하면 '목적'으로서의 평화를 명령하는 법은 '수단'으로서 중재(仲裁)를 명령하고 또한 중재의 수단은 행동의 안전이기 때문이다.

제16, 중재에의 복종에 대하여 그리고 사람들은 아무리 그러한 법을 지키려고 하여도 그래도 인간의 행위에는 문제가 생겨난다. 첫째로, 그 일이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둘째는 *(만약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법에 위반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전자는 '사실'의 문제이고 후자는 '권리'의 문제라고 불린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를 다투는 양 당사자가 다른 사람의 판결을 지키는 것을 서로 신약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여전하게 평화로부터 멀리 있는 것이다. 이 제삼자 즉, 그의 판결에 그들이 따를 수 있는 자는 중재자라고 불린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논쟁하고 있는 사람은 그들의 권리를 중재자의 판결에 복종시키는' 일이 자연법에 알맞은 것이 된다.

제17, 누구도 자기 자신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각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소송 사건의 중재자로서 적당치가 않다. 그리고 만약 그가 극히 적당하다고 해도 형평은 쌍방에 평등의 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이 재판관이 되는 것을 허용한다면, 다른 쪽

에도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이하여서 전쟁의 원인이 되는 논쟁은 존속하여, 자연법에 어긋나고 있는 것이다.

제18. 당연하게 불공평이 되는 이유를 가지는 사람은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같은 이유로 한쪽의 당사자의 승리에서 다른 쪽의 승리보다도 많은 이득이나 명예나 쾌락을 명확히 얻는 사람은 어떠한 소송에 있어서도 중재자로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는 *(가령 부득이한 뇌물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뇌물을 받은 것이며, 누구도 그를 신뢰하도록 의무가 주어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또 논쟁이나 전쟁 상태는 존속하고 자연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제19. 증인에 대하여 '사실'에 관한 논쟁에 있어서, 재판관은 *(다른 증거가 없다면)* 한쪽을 다른 쪽 이상으로 신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삼자, 또는 제삼자와 제사자(第四者), 또는 다시 그 이상의 사람을 신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는 결정되지 않은 채로 힘에 맡겨져서 자연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것들이 군중으로서의 사람들을 보존하는 수단으로서 평화를 지령하는 자연의 여러 법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시민 사회에 대한 학설(學說)에만 관계되는 것이다. 이것들 이외의 일로 개개의 사람들을 파멸로 향하게 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크게 술에 취하거나 그 밖의 모든 무절제와 같은 것이 그것이다. 따라서 그것들도 또한 자연법이 금지한 일들 중에서 헤아릴 수 있을 것이나 이것들에 관해서는 논급할 필요도 없으며 여기에서는 적당치도 않다.

자연법을 쉽게 검사할 수 있는 법칙 그리고 이것은 자연법에 대하여서의, 너무나 정밀한 추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주의의 과녁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의 대부분은 식생활을 이끌어 가기에 바쁘며, 다른 사람들은 게으름 때문에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변명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그것들은 가장 능력이 적은 사람에게도 알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요약되어 있다. 즉 '그대가 그대 자신에 대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는 것과 같은 일을 상대방에 대하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에게 자연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오직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즉 다른 사람들의 여러 행위라든가, 그 자신의 그것과를 재서 비교할 때에 전자가 너무나 무겁게 보이면 그것들을 저울의 반대쪽에

놓고, 그 자신의 것을 대신 그 자리에 놓아서 그 자신의 정념이나 자애심이 어떠한 중량도 더하지 말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들의 자연법 가운데 어느 하나도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없을 것이다.

자연법은 항상 양심에 의무를 지우지만 결과에 있어서는, 오직 보증이 있을 때만이 의무를 지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연법은 '내면의 법정에서만이' 의무를 지운다. 다시 말하면 그것들은 그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욕을 갖도록 구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외부의 법정에 있어서', 즉 자연법이 행위로 옮겨 가도록 반드시 항상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누구도 겸허하거나 유순(柔順)하지 않으며, 만약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시대나 장소에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그 자신을 다른 사람의 먹이(餌食)로 만들어서, 그 자신의 확실한 파멸을 자초하는 데 지나지 않는 바, 그것은 자연의 유지를 의도하는 모든 자연법의 기초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같은 법을 지킨다는 충분한 보증이 있음에도, 스스로 그것들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평화를 구하지 않고 전쟁을 구하는 것이며, 그 결과로 폭력에 의해서 그의 본성의 파멸을 구하는 것이 된다.

'내면의 법정에 있어서' 구속하는 법은 모두가 그 법에 어긋나는 사실에 의해서 위법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법에 따르는 사실에 의해서도 사람이 그것을 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면 위법이 된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그의 행위는 법에 따르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목적은 법에 어긋난 것이며, 그것은 의무가 '내면의 법정에 있어서의' 것인 한에서는 위법인 것이다.

자연법은 영원하다 자연법은 영원불변이다. 즉 부정의, 배은, 오만, 자만, 불공평, 편벽 및 그 밖의 것은 결코 합법적으로는 될 수가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전쟁이 생명을 유지하며 평화가 그것을 파괴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 쉬운 것 이 *(같은)* 여러 법은 오직 의욕과 노력, 즉 거짓 없는 부단한 노력을 의무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러 법은 쉽게 지켜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법은 노력 이외의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법의 이행에 노력하는 사람은 그러한 법에 적합한 것이며, 법에 적합한 것은 올바른 것이다.

이러한 법에 관한 학문이 참다운 도덕 철학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학문이 진실하고 유일한 도덕 철학인 것이다. 즉 도덕이란 인류의 교제와 사회에 있어서의 선악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학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선이나 악이란 우리들의 욕구와 혐오를 나타내는 명사로서 그것들은 사람들의 기질, 관습, 주의(主義)가 다름에 따라서 서로 다르다. 또한 여러 사람들은 미각, 청각, 촉각, 시각에 주는 쾌(快) · 불쾌(不快)의 감각에 관한 판단이 다를 뿐만 아니라, 또 일상생활의 여러 행위에 있어서도 무엇이 이성에 적합하며, 무엇이 적합하지 않는가에 대한 판단에 관해서도 각기 다른 것이다. 아니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에 따라서는 달라지는 것으로서 다른 때에는 비난하며 악이라고 몰아세우던 것도 어떤 때에는 가령, 즉 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여기에서 의논이나 논쟁을, 그리고 드디어는 전쟁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욕구가 선악의 척도가 되는 한, 사람은 단순한 자연의 상태*(즉 전쟁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은 평화가 선이라는 것에 동의하며, 따라서 또한 평화에의 길, 즉 수단이 선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그것들의 수단이란 *(내가 앞서 말하였듯이)* 정의 · 보은 · 겸허 · 형평 · 인자(仁慈) 및 그 밖의 자연법으로서 바꾸어 말하면 도덕이며, 그 반대의 악덕(惡德)은 악이다. 그런데 덕과 악덕에 관한 학문이 도덕 철학이기 때문에 자연법에 대하여서의 참다운 교설(敎說)은 참다운 도덕 철학이다. 더욱 도덕 철학의 저작자들은 같은 덕과 악덕을 인정은 하면서도 그러한 덕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며, 또는 그것들이 평화로운, 사교적인, 쾌적한 생활에의 수단으로서 호칭을 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서 덕의 본질을 여러 정념의 중용성(中庸性)에 두고 있다. 그것은 흡사 대담(大膽)의 원인이 아니고 대담의 정도가 강인한 정신을 만드는 것 같으며, 증여의 원인이 아니고 증여의 양이 너그러움을 만드는 것 같은 것이다.

이들의 이성의 지시를 사람들은 법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나 타당한 것은 못 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지시는 무엇이 그들 자신의 보존과 방위에 도움이 되는가에 관한 결론 또는 정리(定理)이며, 이에 대하여서 법은, 본래는 권리에 바탕을 두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의 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들

이 같은 정리를 권리에 따라서 모든 사물을 지배하는 신의 말 속에 서술된 것으로서 고찰한다면, 그 경우에는 그것은 법이라고 불리기에 합당하다.

제16장 인격, 본인 및 인격화된 것에 대하여

인격이란 무엇인가 인격이란 '언어나 행위가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말하는 언어나 행하는 행위가 자신의 것으로 생각되는 것과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나 한편—그 진위(眞僞)는 여하튼간에 그것들이 뜻하고 있는—다른 사람 또는 그들의 언어나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 자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과 같은 사람을 말한다.'

자연적 인격과 인위적 인격 그러한 언어나 행위가 그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될 때에는 그는 '자연인'이라고 불리고, 그리고 그것들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언어나 행위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생각될 때에는 그는 '가상적' 또는 '인위적인' 인격이다.

인격이란 말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인격이란 말은 라틴어이며, 그리스 사람들은 그 대신에 프로소폰(πρόσωπον)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 그것은 얼굴(面)을 뜻한다. 이는 마치 라틴어의 '페르소나'라는 말이 무대에서 인간의 '분장(扮裝)'이나 '외관(外觀)'을 나타내며 때로는 특별히 가면(假面)이나 복면(覆面)과 같이 얼굴을 가장하는 부분을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 인격이라는 말은)* 무대에서뿐만 아니라, 극장과 같이 법정에 있어서도 언어나 행위의 대표자를 뜻하게끔 되었다. 그리하여 '인격'이란 무대 위에서나 일상의 회화 가운데서도 '배우'와 마찬가지인 것으로, '분(扮)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역을 맡는다'는 것, 즉 '대표'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의 역을 맡는 사람은 그 다른 사람의 인격을 담당한다거나 그의 이름으로 행위한다고 표현된다. *(키케로가 "나는 셋의 인격을 갖는다. 나 자신과 나의 적들과 재판관들의 인격이다"라고 말할 때 이와 같은 의미에 있어서 인격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경우에 따라 representer, representative, lieutenant, vicar, attorney, deputy, procurator, actor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 것이다.

대리인과 본인 인위적 인격의 안에 있는 것의 언어나 행위는 그들이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의 것으로서 인정받는다.' 이 경우에는 이 인격은 '대리인'이며, 그의 언행을 자기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본인이며, 이 대리인은 권한에 따라서 행위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재화나 재산에 대하여 말할 때에는 소유자라고 불리며, 라틴어로 '주인', 그리스어로 '퀴리오스(κυριος)'라고 불리는 것은, 행위에 관하여 말할 때는 본인이라고 불리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재산에 관한 권리가 소유권이라고 불리듯이, 어떠한 행위를 하는 권리는 권한이라고 불린다.

권한 그러기 때문에 권한이란 항상 어떤 행위를 하는 권리로 풀이된다. 그리고 '권한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허가 또는 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이다.

권한에 따른 신약은 본인을 구속한다 위의 일로서 다음의 일이 생겨난다. 즉 대리인이 권한에 따라서 신약하는 경우에는, 본인 자신이 신약한 것과 똑같이 대리인에 의한 신약은 본인을 구속하며, 본인은 신약에서 생기는 모든 결과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의 자격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 맺어지는 신약의 성질에 관하여 앞*(14장)*에 말한 모든 사항은, 그들이 그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행자, 대표자, 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도, 그들의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고, 그 범위 내에 있어서 진실인 것이다.

따라서 대리인이나 대표자가 권한이 위임된 것을 모르고 그들과 신약하는 사람은 자기의 위험을 걸고 신약을 맺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자기가 본인이 아닌 신약에 의무를 지지 않으며, 또한 그가 위임한 권한을 어기고, 또는 위임한 권한 이외의 것에 대하여 맺어진 신약에 의무가 지워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리인은 아니다 대리인이 본인의 명령에 의해서 무엇인가 자연법에 어긋나는 일을 할 때에는, 만일 그 대리인이 전에 맺은 신약에 의해서 본인에게 복종하도록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하면 자연법에 위반하는 것은 그가 아니고 본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리인의 행위가 자연법에 어긋난다 하여도, 그 행위는 그의 행위는 아니며 반대로 그것을 거부하는 일이 신약에 반대하는 것을 금하는 자연법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권한은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대리인이 어떠한 권한을 위임받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의 중개에 의해서 그의 말만을 받아들여서 본인과 신약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권한이 요구에 따라서 자기에게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의무를 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본인과 맺어지는 신약은 그의 이에 대한 보증이 없이는 무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이렇게 하여 신약하는 사람이 대리인의 말 이외의 어떤 보증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그때에는 신약은 유효이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는, 대리인은 그 자신을 본인으로 해서 행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권한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약은 대리인으로서가 아니고 본인으로서 의무를 지게 되나, 권한이 속임을 당하고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는 대리인 외에 본인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약은 대리인만을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이다.

인격화된 무생물 의제(擬制)에 의해서 대표될 수 없는 것은 거의 없다. 교회나 병원이나 교량(橋梁)과 같은 무생물(無生物)은 교구장(敎區長), 병원장, 교량 감시인에 의해서 인격화될 수가 있다. 그러나 무생물은 본인이 될 수가 없으며, 따라서 또한 그 행위자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도 없다. 그렇지만 대리인들은 그러한 것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인 사람들로부터 주어진 그것들을 보관하기 위한 권한을 가질 수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것은 어떤 시민 정부적인 상태가 성립하지 않고서는 인격화될 수가 없다.

비이성적인 것 마찬가지로 아이나 백치(白痴)나, 미치광이와 같이 이성을 활용할 수 없는 사람은 보호자나 후견인에 의하여 인격화된다. 그러나 그들이 *(이성을 다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그 행위를 이성에 적용한 것으로 추인(追認)하기까지는, 이들 대리인들이 *(그 기간 중에)* 행한 행위에 대해서 당사자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가 어리석은 동안에, 그 통치권자가 후견인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사회 상태에 있어서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태 이전에는 인격에 대한 지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거짓된 신들 우상(偶像), 즉 단순하게 두뇌가 만들어 내는 이교도의 신들과 같이 함으로써 인격화될 수 있다. 그러한 신들은 국가가 임명한 관리에 의하여 인격화되고, 사람들이 수시로 받들고, 봉납한 재산, 그 밖의 재화 및 권리를 보유하였다. 그러나 우상은 본래 존재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될 수가 없다. 그 권

한은 국가에 유래하는 것으로서, 그 때문에 이교도의 신들은 시민 정부가 성립되기 전까지는 인격화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참다운 신 참된 신은 인격화될 수가 있다. 그것은 예컨대 우선 모세에 의해서이며, 그는 이스라엘 사람*(그의 백성이 아니고 신의 백성이었다)*을 그 자신의 이름으로, 즉 '이렇게 모세는 말하노니'와 같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의 이름으로, 즉 이렇게 '주는 말씀하심'과 같이 하면서 통치하였던 것이다. 둘째로는 사람의 아들, 신 자신의 아들, 우리들의 축복을 받은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이며, 그는 그 자신으로서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의 아버지의 왕국으로 유대인을 돌려보내고 모든 국민을 인도하기 위해서 오게 하였다. 그리고 셋째로는 사도(使徒)들의 안에 있어서, 말하고 활동하는 신성한 영(靈), 즉 성령에 의해서 인격화되었다. 이 신성한 영은 그 자신으로부터 나온 성령이 아니고, 아버지인 신과 아들인 신과의 쌍방으로부터 보내어지고 오게 된 것이다.

사람의 군중은 어떻게 해서 하나의 인격이 되는가 군중이, 한 사람의 인간 또는 인격에 의해서 대표될 때에, 만약 그것이 그 군중 가운데의 각 사람의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그 군중은 '하나'의 인격으로 된다. 왜냐하면 인격을 '하나'로 하는 것은 대표자의 통일성이지, 대표되는 사람의 통일성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격을 짊어지는 것은 대표자이며, 더욱이 오직 하나의 인격이다. 이와 같이 하지 않고서는 군중 속에서 통일성을 이해할 수는 없다.

각 사람은 본인이다 그리고 군중은 본래는 하나가 아니고 다수이기 때문에, 그들의 대표자가 그들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하는 일에 대하여, 한 사람이 아니고 다수의 본인으로 생각된다. 각 사람은 그들의 공통의 대표자에게 각 사람으로부터 개별적으로 권한을 주는 것이며, 그리고 그들이 대표자에게 무제한으로 권한을 주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행하는 모든 행위를 승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 그들이 어떠한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그들을 대표하는가를 그들이 제한했을 경우에는, 그들 가운데의 누구도 그들이 그에게 행위하는 허가를 한 이상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리인은 다수결에 의해서 통일된 다수의 인간일 수 있다 만약에 대표자가 많은 사람으로 이루어진다면, 다수자의 의견은 그들 모두의 의견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소수자(少數者)가 *(예를 들면)* 긍정적으로 말하고, 다수자가 부정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그 경우에 부정적 의견은 긍정적 의견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으며, 부정적 의견 안에서 이 긍정적 의견에 이기고도 남은 초과 부분이 그 대표자가 가지는 유일한 의견이라는 것이 된다.

대표자는 짝수(偶數)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다 짝수의 대표자는 특히 그 수가 많지 않아서, 대립하는 의견이 자주 같은 수가 될 경우에는, 벙어리가 되고,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같은 수의 대립하는 의견도 문제를 결정지을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유죄의 판결을 하느냐 무죄를 언도하느냐에 관한 투표가 같은 수라고 한다면, 유죄의 판결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죄 언도를 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와는 거꾸로 무죄를 언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유죄의 판결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어떤 소송 사건이 심리(審理)될 경우에 유죄의 판결을 하지 않는 것은 무죄를 언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무죄를 언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유죄의 판결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현재 즉시 집행하거나 어느 땐가 다른 때까지 연기하느냐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도 같은 것으로서 의견이 동수인 경우에는 집행을 선고하지 않는 것은 연기의 선고이다.

부정적 의견 또는 세 사람 또는 그 이상의 홀수(奇數)의 *(사람들 또는 모임의)* 경우에 각 사람이 하나의 부정적인 의견에 의해서, 나머지 모든 사람의 긍정적 의견을 무효로 할 권한이 주어졌다면 이 일단(一團)의 사람들은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의견이나 이해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끔 더욱이 중대한 시기에 벙어리 인격이 되어 다른 많은 일들에 관해서와 마찬가지로 군중의 통치에 있어서, 특히 전시에는 적합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본인'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무조건 그렇게 불리는 것으로서, 나는 앞서 그것을 다른 사람의 행위를 무조건 자기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둘째는, 다른 사람의 행위나 신약을 조건부로 자기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이다. 즉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인정할 때, 또는 그 이전에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가 그

것을 한다고 보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조건이 붙여지고 있는 본인은 일반적으로 보증인이라고 불리며, 라틴어로는 '신뢰를 가지고 인정하는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 및 특히 채무(債務)에 관해서는 '공적(公的)으로 말하는 사람', 재판관이나 관헌(官憲)의 앞으로 출두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출두하는 사람'이라고 불린다.

제 2 부

코먼웰스에 대하여

올재 후원하러 가기

제17장 코먼웰스의 기원 형성 및 정의에 대하여

코먼웰스의 목적은 개인의 안전 *(스스로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 그러한 구속*(우리는 사람들이 코먼웰스 안에서 이 구속 밑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을 가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동기, 목적, 의도는 그 생명을 보존함으로써 더 한층 쾌적한 생활을 보내고자 하는, 즉 전쟁이라고 하는 저 비참한 상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통찰에서 나온 것이다. 이 상태는 눈에 보이는 권력, 즉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품게 하고 또 그들의 여러 신약의 이행과 14~15장에서 이미 논한 바 있는 그러한 자연의 여러 법을 준수하도록 징벌에 대한 공포에 의하여 사람들에게 의무를 지워 주는 그러한 권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앞 13장에서 논한 바와 같이)* 사람들의 타고난 여러 정념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개개인의 안전은 자연의 법으로부터 얻지 못하는 것이다 *('정의 · 평등 · 겸허 · 자비' 그리고 요컨대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해 주기를 바라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도 해 주는 것'과 같은)* 자연의 여러 법이 어떠한 권력에 의한 위협 없이 그것 스스로만으로 지켜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여러 정념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그들의 정념은 우리들을 편애 · 자만 · 복수 그리고 그 밖의 비슷한 것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 신조는 칼(劍) 없이는 말에 지나지 않고 사람들을 보호하는 힘을 전혀 갖지 못한다. 따라서 자연의 여러 법*(각 사람은 그것들을 지키는 의지가 있고 또한 그것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때는 그것을 지켜 왔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다든가 우리를 보호할 만큼 충분히 크고 세지 못했다든가 하면 각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경계하고 자기 스스로의 힘과 기교에 의지하려고 하고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작은 가족을 이루어 생활을 하고 있던 곳에서는 서로 강탈하고 약탈하는 일이 하나의 생업(生業)으로서 자연의 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곳이나 그들이 노획(蘆獲)한 약탈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의 명예도 컸던 것이다. 거기에서 사람들은 명예의 여러 법 외에는 어떠한 법도 지키지 않았지만, 그 법은 사람들의 생명과 경작 용구(耕作用具) 등을 빼앗지 않았고, 잔학을

저지르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는 작은 가족이 한 것과 꼭 같이 오늘날에는 여러 가족이 커진 것에 지나지 않는 여러 도시나 여러 왕국이 *(그들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위험이 몰아닥치고 있다는 여러 가지의 구실을 찾아 내어 침략당할 위험이 있다든가, 침략자에게 원조가 주어질 우려가 있다든가 하여 그 영토를 확장하거나 또 공공연한 무력행사나 은밀한 술책에 의하여 이웃들을 굴복시켜 무력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으나 그것은 다른 보증(保證)이 없는 것이므로 정당하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한 일로 말미암아 다음의 시대에 이르러 그 영광을 기억하게 된다.

개인의 안전은 소수의 사람들 또는 가족의 결합에 의해서도 얻을 수 없다 또 소수의 사람들이 결합해 있어도 개개인의 안전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수가 작은 경우에는 그들 중 어느 한쪽에 소수의 사람들이 가담해도 그 힘은 한쪽을 승리에로 이끄는 데 충분할 정도의, 따라서 다른 쪽을 침략하려는 생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크기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안전을 확신시키기에 충분한 사람의 수라는 것은 어떤 특정의 수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적과의 비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전쟁의 과정을 결정하는 경우 적의 나머지 사람 수가 그들로 하여금 전쟁을 할 생각을 일으킬 정도로 눈에 띄어 뚜렷한 것이 아니면 그 수로서 충분한 것이다.

일치된 의견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면 다수의 사람들이 있어도 개인의 안전은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들의 행위가 각기의 의견이나 욕구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그들은 공통의 적을 방위하는 일도 서로 간의 권리의 침해를 막을 것을 기대할 수 없다. 그것은 자기들의 힘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유효하게 이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서로 방해하기 때문이며, 서로 대항함으로써 그 힘을 완전히 무력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동의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소수의 사람들까지 쉽게 굴복시킬 뿐만 아니라 공통의 적이 없으면 각기의 이해 관계에 따라 서로 간에 싸움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많은 사람들은 그들 전체에게 두려운 생각을 갖게 하는 공통의 권력이 없어도 정의나 자연의 여러 법

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면 인류 전체의 경우에 관해서도 같다고 가정해도 좋은 것이며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서는 복종이 없어도 평화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시민적인 통치나 코먼웰스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한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면 개인의 안전은 얻을 수 없다 또 사람들은 안전이 그들 생애의 전 기간에 걸쳐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으나 어떤 하나의 전투에 있어서나 또는 어떤 하나의 전쟁에 있어서와 같이 한정된 기간만이, 하나의 판단에 따라 통치되고 이끌어지는 것도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외국의 적들에 대항하여 일치된 노력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공통의 적이 없거나 어떤 한 사람이 한쪽으로부터 적으로 여겨지고 다른 쪽으로부터는 우군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경우에는 그들은 이해 관계를 달리하기 때문에 분열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다시 그들 동료들 간에서 전쟁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성이나 언어를 갖지 못하는 부류의 동물들이 어떠한 강제 권력이 없어도 사회 생활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은 왜 그런가 분명히 꿀벌과 개미와 같은 부류의 동물들은 서로 사회 생활을 이끌어 가고 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은 정치적 동물 속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그러나 그들은 개별적인 판단과 욕구로 움직이는 것 이외에 어떤 다른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고, 또 각자가 공동의 이익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서로 나타내기 위한 언어도 가지고 있지 못한다. 따라서 인류는 왜 그들과 같이 할 수 없는가를 알고자 하는 생각도 있을 것이다. 그것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사람은 끊임없이 명예와 지위를 찾아 경쟁하고 있으나 이들 동물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경쟁에서 선망과 증오가 나타나고 드디어는 전쟁이 되지만, 이들 동물들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다.

둘째로, 이들 동물들 사이에서는 공통의 선(善)과 사적인 그것과는 일치를 이루고 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 사적인 이익을 쫓는 경향에 있고 그것은 아울러 공통의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즐거움은 자기와 다른 사람과를 견주는

데 있고, 그들의 즐거움은 무엇인가 뛰어나고 있는가라는 것뿐이다.

셋째로, 이들 동물은 *(사람들과 같이)* 이성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공동 작업을 하고 있어도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고 생각지도 않는다. 이것에 반하여 인간 사회에서는 공공체(公共體)의 통치에 당하여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들 쪽이 보다 잘 알고 있고 또한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이들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개혁하고 쇄신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혼란과 내란으로 몰아 떨어뜨린다.

넷째로, 이들 동물은 서로 그들의 의욕과 그 밖의 감정을 서로 알리기 위하여 어느 정도 소리를 이용하지만, 그들은 말이라는 기술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나 방금 말한 바와 같은 사람들은 말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선한 것을 악으로,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보여 전달할 수가 있으며 선과 악의 정도를 실제와는 다르게 가감(加減)하여 보일 수가 있으며, 그와 같이하여 사람들에게 불평과 불만을 품게 하여 평화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다섯째로, 이들 동물은 이성을 갖지 않으므로 '권리의 침해'와 '위해(危害)'를 구별 못 한다. 따라서 동물은 스스로가 안락하는 한, 자기 무리를 나쁘게 생각하는 일은 없다. 거기에 대해 사람은 더욱더 안락할 경우에 더욱 귀찮게 여긴다. 즉 사람은 스스로의 지혜를 나타내는 것을 좋아하여 코먼웰스를 통치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억제하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경우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들 동물의 화합(和合)은 자연적인 것이나 사람들의 그것은 신약에만 그 근거를 두는 것이며, 그것은 인위적인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의 화합을 항상적(恒常的)이고 계속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신약 이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더라도 조금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신약에서 그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두렵게 만들고 그 행위를 공통의 이익 쪽으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공통의 권력인 것이다.

코먼웰스의 생성 사람들을 외국인의 침입이나 서로의 침해로부터 지키고 또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의 노동과 토지로부터의 수확물로서 그 생명을 지탱하여 쾌적한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보호해 줄 능력을 지닌 공통의 권력을 수립하

기 위한 하나밖에 없는 길은 그들의 여러 가지 권력과 힘을 다수결에 따라 모든 의사를 하나의 의사가 될 수 있는 것과 같은 한 사람의 사람 또는 합의체에 주는 일이다. 그것은 한 사람의 사람 또는 합의체를 임명하여 그들의 인격에게 책임을 돌리는 일 또는 그와 같이 그들의 인격을 걸머진다는 것이 공통의 평화와 안전에 관한 일들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또는 이루어져야 하는 모든 것의 장본인은 자기 스스로라는 것을 각 사람들이 인정하고 승인하는 것이라고 말해도 같은 것이 된다. 여기에서 누구든지 그들의 의사를 그들의 의사에, 그들의 판단을 그들의 판단에 따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동의나 화합이라는 말로서는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것으로서 마치 각 사람이 각 사람을 대하여 '당신도 나와 같이 당신의 권력을 그에게 주어 그 모든 행위의 권한을 인정한다는 조건 위에서 나는 스스로를 통치하는 자기의 권리를 이 사람 또는 이 합의체에 주어 양도한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이 각 사람 대(對) 각 사람의 신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로지 하나의 인격 속의, 그들 모든 것의 참다운 통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다면 이 한 인격에로 통일된 군중은 코먼웰스(Commonwealth), 라틴 말로서는 키비타스(Civitas)라고 일컬어진다. 이것이 저 위대한 리바이어던 (Leviathan), 아니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보다 공손하게 말하면)* 저 '필사(必死)의 신'의 생성이며 우리들이 '불사의 신' 밑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 필사의 신의 은덕인 것이다. 왜냐하면 코먼웰스에 사는 각 사람이 부여한 이 권위에 따라 그는 이 부여된 더없이 강대한 권력과 힘을 이용할 수 있고 그 위협에 의하여 모든 사람의 의사를 나라 안의 평화를 유지하고 외적(外敵)에 대해 단결하여 대항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코먼웰스의 본질이 있는 것이다.

코먼웰스의 정의 코먼웰스란 *(그것을 정의한다면)* '하나의 인격으로서 군중 속의 각 사람이 서로 신약을 맺고 각 사람의 모든 것을 그 인격의 행위의 장본인으로 한 것으로서, 그와 같이 한 것은 그 인격이 목적이라고 생각한 바와 같이 사람들의 평화와 공동 방위를 위해 모든 사람의 힘과 수단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주권자 및 신민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인격을 이끌고 있는 것이 주권자라 불리고, 그는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그 이외의 모든 사람이 그의 신민인 것이

다.

이 주권은 두 가지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하나는 자연적인 힘, 사람이 자기의 아들이나 손자들에 대하여 만일 복종을 거부하면 그들을 파멸시킬 수 있다고 함으로써 그의 통치에 따르게 하는 경우, 또 전쟁에 의하여 적을 복종시키면 그 생명을 돕는다고 말하여 그의 의사에 복종시키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 또는 합의체에게, 그것이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보호해 준다고 믿고, 자발적으로 복종하도록 서로가 협정을 맺는 경우이다. 뒤의 경우는 정치적 코먼웰스 또는 '설립'에 의한 코먼웰스라고 불리는 것이고, 앞의 경우는 '획득'에 의한 코먼웰스라고 불리는 것이다. 여기에서 먼저 나는 설립에 의한 코먼웰스부터 말하기로 한다.

제18장 설립에 의한 주권자의 여러 권리에 대하여

코먼웰스를 설립하는 행위란 무엇인가 하나의 '코먼웰스'는 여러 사람의 '각 사람과 각 사람'이 다음과 같이 협정하여 '신약'했을 때에 '설립되었다'고 말한다. 즉 다수결에 의하여 그들 모든 인격을 나타내는 *(말하자면 그들의 '대표자'가 된다)* '권리'가 어떠한 '사람' 또는 '합의체'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각 사람은 그것에 '찬성 투표한' 사람이나 '반대 투표한' 사람도 똑같이 서로 평화롭게 생활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위해서 그 사람 또는 합의체의 행위나 판단을 모두 자기 스스로의 것인 양 '권위를 줄' 때인 것이다.

그러한 설립의 여러 귀결 모인 사람들과의 동의에 따라 주권이 주어진 사람들의 여러 '권리'와 '권능'은 참으로 이 코먼웰스의 설립에 따르는 것이다.

1. 신민은 통치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 첫째로, 그들은 신약했기 때문에 그것에 모순되는 일들을, 그 이전의 신약을 이유로 강제될 수 없다고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코먼웰스를 설립한 사람들은 그것에 따라 주권자의 행위와 판단을 자기의 것으로 인정하려고 신약에 의하여 의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주권자)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일에 관해서도 다른 누군가에 복종한다는 새로운 신약을 그들 무리끼리 맺는다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런 까닭에 어떤 군주에게 순

종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의 허가 없이 왕정(王政)을 포기하고, 무질서한 군중의 혼란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으며 또 그들의 인격을, 그것을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 또는 합의체에로 옮기는 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즉 그들은 이미 그들의 주권자가 되어 있는 사람이 하지 않고 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리라는 모든 일을 자기의 것으로서 인정하여, 그 장본인으로 여기도록, 모든 사람들 사이에 의무 지워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이 반대하면 나머지 모든 사람이 그와 맺은 신약을 어기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되지만, 그것은 부정(不正)인 것이다. 또 그들 모두는 그 인격을 지니는 사람에게 주권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사람〔주권자〕을 그만두게 하면 그들은 그로부터 그들 자신의 것을 뺏는 것이다. 이와 같이하여 그것도 또한 부정한 행위인 것이다. 더욱, 자기의 주권자를 폐지하려고 꾸미는 사람은 그 계략 때문에 주권자에 의하여 죽거나 처벌당하거나 하면 그는 설립에 따라 그의 주권자가 이룩하는 모든 일의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 스스로의 처벌의 장본인인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권위에 의하여 처벌당하는 어떠한 일을 하는 것도 불법의 행위이므로 그의 행위는 그 근거에서 말하더라도 부당한 일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주권자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신과의 사이에 새로운 신약을 맺었기 때문이라고 말해 왔으나 그것 또한 부당하다. 그 이유는 신과의 신약은 신의 인격을 대표하는 무엇인가의 매개에 따르지 않고서는 이룩할 수 없고 그것은 신 밑에서 주권을 갖는 신의 대리인 이외에는 이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과 신약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와 같이 말하는 사람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어 본다 하더라도 완전한 거짓말이므로, 그것은 부정한 의향을 가진 부도덕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천하고 수치스러운 행위인 것이다.

2. 주권은 신약 파기 때문에 상실되지 않는다 둘째로, 그들 모든 인격을 지니는 권리가, 그들이 주권자로 삼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들 서로의 신약에 따를 뿐, 그들 중의 누군가와 그 사람과의 신약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주권자의 쪽에서 저질러지는 신약 파기는 있을 수 없다. 그 결과 그의 신민은 모두 신약 파기에 의하여 상실되었다고 말하고, 그 순종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주권자가

되는 사람은 미리 그의 신민들과 어떠한 신약도 맺어 있지 않은 것은 명백하다. 그 까닭은 그는 모든 군중을 한쪽의 상대로 하여 신약을 맺든가 또는 각 사람과 개별적으로 신약을 맺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전체를 한쪽의 상대로 하는 것은 그들은 아직도 하나의 인격이 아니므로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또 만약에 그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수만큼의 개별적인 신약을 맺는다면 그들의 신약은 그가 주권을 얻은 다음에는 무효가 된다. 즉 그들 중의 누군가에 의하여 신약의 위배라고 일컬어지는 어떠한 행위라도 모든 사람의 개개의 인격과 권리에서 이루어지므로 그들 자신과 나머지의 모든 사람들과 쌍방의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들 중의 누군가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이 주권자가 설립을 맞이하여 맺은 신약의 위배가 저질러졌다고 말하고 또 그의 신민 중의 다른 사람과 또는 다른 한 사람, 혹은 주권자 자신만이 그와 같은 위배가 저질러지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그 경우에는 논쟁을 결정하는 재정자(裁定者)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경우에는 또다시 전쟁 상태가 되어 각 사람은 그 주권 설립의 의사에 어긋나서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스스로를 보호하는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리 신약을 맺어 주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뜻이 없다. 군주가 그 권력을 신약에 따라, 즉 조건부로 받아들인다는 설은 다음과 같은 부담이 가지 않는 진리 즉 신약은 어떠한 말이나 속삭임에 지나지 않으므로 공공의 칼, 다시 말해서 주권을 가진 그리고 그 행위가 주권자에게 맺어 합쳐진 모든 사람들에 의하여 시인되고 그들 모든 사람의 힘에 의하여 이룩되고 있다고 하는 사람 또는 합의체의 제한이 없는 권력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 이외에는, 신약은 누군가에게 의무를 지워 억압하고 강제하며 또 보호하는 힘을 가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합의체가 주권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설립에 당하여 무엇인가 그러한 신약이 맺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로마의 시민이 이러저러한 조건으로 주권을 보존한다는 신약을 로마 사람과 맺고, 그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로마 사람은 로마 시민을 폐기하고서도 합법적이라고 할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왕정에 있어서도 민중적 정치(民衆的政治)에 있어서도 이유는 꼭 같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는 것은 자기들이 즐겁게 생활하는 희망이 없는 왕정보다

도 참여하는 희망을 가지는 합의체의 통치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의 야심 때문인 것이다.

3. 다수자 쪽에 의하여 표명된 주권의 설립에 대하여 항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불법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셋째로, 다수자 쪽이 동의의 투표에 따라, 한 사람의 주권자를 밝혔으므로 그 경우에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다른 사람에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그는 주권자가 이룩하는 모든 행위를 인정하여 만족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 의하여 죽음을 당해도 부당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만약 그가 합의(合議)하는 모임에, 자유의사에 따라 참여했다면 그는 그 사실 때문에 여러 사람이 정하는 것을 지키는 의사를 충분히 나타냈다*(따라서 말 없는 가운데 신약했다)*는 것으로, 거기에서 만약 그가 그것을 지키는 것을 거부하거나 그의 명령의 어느 것에 항의하거나 한다면 그는 스스로의 신약에 어긋난다는 것, 따라서 불법한 행위를 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그가 이 모임에 속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관계없이, 또 그의 동의가 얻어진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관계없이 그는 그들의 명령에 복종하느냐 또는 앞서 그가 처해 있었던 전쟁 상태 그대로 남겨지느냐의 어느 것이어야만 한다. 그리고 전쟁 상태에 있어서 그가 누구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든, 부정이 저질러졌다는 것은 아니다.

4. 주권자의 행위를 신민이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 넷째로, 이 주권자의 설립에 있어 모든 신민은 설립자 주권자의 모든 행위와 판단의 장본인이므로 주권자가 무엇을 하던 그것은 그의 신민 속의 누구라도 침해하는 것이 되지는 않으나 또 그는 신민 중의 누구에게로부터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비난을 받을 까닭이 없다. 즉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권위에 바탕을 두고 무엇인가를 이룩하는 사람은 그 행위의 권위의 근원인 그 사람을 침해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즉 코먼웰스의 설립이 이루어졌으므로 각 개인은 주권자가 하는 모든 행위의 장본인이며 따라서 자기의 주권자로부터 침해당했다고 불평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장본인이라는 것에 대해 불평을 하고 있는 까닭이다. 거기에서 그는 자기 스스로 이외의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또 침해에 대한 자기 스스로를 비난해서도 안 된다. 즉 자기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주권자가 불공평한 일을 한 일은 있을지 모

르지만 본래의 뜻에 있어서 불법한 행위나 침해를 하는 일은 없는 것이다.

5. 주권자의 행위는 모두 신민에 의하여 처벌될 수 없다 다섯째로, 위에서 말해 온 바에 따라, 주권자가 처벌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신민에 의하여 처벌을 당하거나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그것은 모든 신민이 그 주권자의 행위의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가 한 행위에 따라 다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6. 주권자는 신민의 평화와 행위에 필요한 일들의 판정자(判定者)이다 그리고 이 설립의 목적이 그들 모든 평화와 방위이며 또한 그 목적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 수단에 대한 권리를 가지므로 다음과 같은 일은 당연히 주권을 가지는 사람이나 합의체에 속하는 것이다. 즉 평화와 방위의 수단 및 평화와 방위에 대한 장해나 방해가 되는 일들의 판정자가 되어 나라 안의 불화와 나라 밖으로부터의 침해를 예방함으로써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리, 또 평화와 안전을 잃었을 때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가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어떠한 교설(教說)이 사람들을 교육하는 데 적합하느냐 아니냐의 판정자이다 여섯째로, 어떠한 의견이나 교설이 평화에 어긋나는가, 또는 공헌하는가 하는 것은, 따라서 사람들이 어떠한 경우에 어느 정도로 무엇을 군중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허용되느냐 또 누군가 모든 서적의 교설을 그것을 펴내기 전에 검열해야 하는가에 대한 판정자가 되는 것도 주권에 속하는 것이다. 그 까닭은 사람들의 모든 행위는 그들의 의견에서 나와 평화와 화합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행위를 잘 규제하는 것은 그 의견을 잘 규제하는 일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설에 있어서의 문제에 대하여 진리만이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 일은 평화를 위한 교설을 규제하는 것과는 조금도 모순되지 않는다. 즉 평화와 화합은 자연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과 같이, 평화에 모순되는 교설은 진리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통치자나 교사들의 태만이나 미숙에서 오는 여러 가지의 그릇된 교설이 점차 일반에게 받아들여지게 된 코먼웰스에 있어서는 거기에 반대하는 여러 가지의 진리는 분명히 일반에게 싫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진리가 극히 갑작스럽게 거칠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결코 평화를 파괴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때로는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지

나지 않다. 그 까닭은 사람들이 태만한 통치를 받고 있어 어떤 의견의 옹호나 받아들이기 위하여 억지로 무기를 드는 정도라면 그들은 더욱 전쟁 상태에 있는 것이며, 그 상태는 평화가 아니라 서로의 공포에 의한 휴전에 지나지 않으며, 그들은 말하자면 끊임없는 전투 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평화에 필요한 일로서 의견과 교설에 관한 판정자가 되는 일, 또는 모든 판정자를 임명하는 일, 불화와 내란을 예방하는 일은 주권자에 속하는 일이다.

7. 신민의 각 사람에 대한 다른 신민이 권리의 침해를 하는 일 없이는 그들로부터 빼앗기지 않도록 그들 스스로의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한 여러 가지의 규칙을 만드는 권리 일곱째로, 주권자는 각 사람이 자기의 무리끼리인 신민들의 누구로부터도 간섭받지 않고 즐겨 가질 수 있는 재산은 무엇이며 또 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의 규칙을 정하는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소유권'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즉 주권의 설립 전에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은 모든 일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며 그것은 필연적으로 전쟁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이 소유권은 평화를 위하여 필요하고 주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주권이 공공의 평화를 위하여 하는 행위인 것이다. 소유권*(즉 '나의 것'과 '당신의 것')* 및 신민들의 행위의 '선 · 악 · 합법 · 비합법'에 관한 이들 규칙이 시민법 즉 여러 개개의 코먼웰스의 법률이다. 더욱 시민법이라는 명칭은 지금으로서는 로마 시의 고대 시민법에 한정되어 있지만, 이 로마 시는 세계의 넓은 부분의 수도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 여러 법이 그들의 부분에서는 시민법이었던 것이다.

8. 그들에게는 또 논쟁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권리가 있다 여덟째로, 주권은 사법권, 즉 시민법이나 자연법에 관해 또는 범죄 사실에 대하여 일어나는 것과 같은 모든 논쟁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처리를 가지고 있다. 즉 여러 논쟁이 결정되지 않으면 어느 신민이 다른 신민으로부터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보호받는 일은 없고 '나의 것과 당신의 것'에 관한 법률도 효과는 없고 또 각 사람은 자기 보존이라는 자연 또는 필연적인 욕구에 근거를 두어 각자의 힘에 따라 자기를 보호하는 권리가 그대로 남겨져 있고, 그것은 전쟁 상태이며 모든 코먼웰스가 설립되는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9. 그리고 그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선전(宣戰) · 강화(講和)를 하는 권리 아홉째로, 주권에는 다른 여러 국민이나 코먼웰스에 대하여 선전 · 강화를 하는 권리가 포함된다. 그것은 결국은 언제 그렇게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이 되는가를 판단하고, 그 목적을 위하여 어떻게 하여 큰 병력을 모여 무장하고 보복을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권리이며 그 경비를 지불하는 돈을 신민에게 물게 하는 권리이다. 인민을 방위해야 할 힘은 군대에게 있고, 군대의 세기(强)라는 것은 하나의 지휘권 밑에 그 힘을 집결하는 데 있다. 이 지휘권은 주권자가 설립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주권자가 갖는 것이다. 그것은 '군사(軍事)'의 지휘권은 무엇인가 다른 제도가 없어도 그것을 가지는 사람을 주권자가 되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군가 어떤 군대의 지휘관이 되더라도 주권자는 항상 총지휘관인 것이다.

10. 전시 · 평시 쌍방의 자문관과 대행자를 선발하는 권리 열째로, 주권은 전시 · 평시 어느 때에 있어서도, 자문관 · 대행자 · 장관 · 관리 등의 모든 것을 뽑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즉 그것은 주권자는 공통의 평화와 방위라는 목적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의 과제 수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수단을 이용하는 권한이 있다고 이해되기 때문이다.

11. 보상을 주고 처벌하는 권리, *(그 방법을 정한 법률이 없을 경우)* 자유로이 자의적으로 하는 권리 열한 번째로, 주권자에게는 그가 이전에 만들어 놓은 법률에 따라 또는 만약에 법률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코먼웰스에 봉사하는 용기를 북돋아, 그것에 해를 주는 것을 막는 데 더욱 보탬이 된다고 그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각 신민에 대하여 재산이나 명예에 따라 보상을 주고 체벌이나 벌금 또는 명예의 박탈에 의하여 처벌하는 권한을 위임받고 있는 것이다.

12. 명예와 질서를 정하는 권리 끝으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어떠한 가치를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것인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존경을 받고자 기대하는 것인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낮게 평가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 그들 사이에 끊임없이 경쟁, 말다툼, 파벌 싸움, 그리고 드디어는 전쟁이 일어나 서로 죽이고, 공통의 적에 대한 그들의 힘을 감축하는 것인지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명예에 관한 여러 법과 코먼웰스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만큼의 공적(功績)이 있는 사람들

이나 보상을 받기에 충분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값어치에 대한 공적(公的)인 평가가 없으면 안 되고 또 그 법을 시행하기 위한 권력이 누군가의 손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모든 '군사', 즉 코먼웰스의 병력뿐만 아니라, 모든 논쟁에 관한 사법권도 또한 주권에 속하는 것이라는 것은 이미 말했다. 따라서 명예에 관한 칭호를 주는 일, 각 사람이 어떠한 지위 또는 위계의 서열을 지켜야 할 것인가를 정하는 일, 또 그들이 공사(公私)의 모임에서 서로 어떠한 존경의 표시를 주어야 할 것인가를 정하는 일도 주권에 속하는 것이다.

이들의 여러 권리는 분리될 수 없다 이들이 주권의 중핵(中核)을 이루는 여러 권리이며, 그것은 주권이 어떠한 사람 또는 어떠한 사람의 합의체에 있고 또 속하고 있는가를 식별하기 위한 지표(指標)이다. 즉 그것은 나누어 주거나 쪼개어 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화폐 주조권(鑄造權), 미성년 상속자의 재산과 인격을 처분하는 권한, 시장에서의 선매권(先買權), 그 밖의 모든 대권 사항(大權事項)은 주권자에 의하여 양도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신민을 보호하는 권한만큼은 유보된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군사력'을 양도한다면 법률이 실시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사법권을 유보하고 있어도 그 보람이 없는 것이다. 또 만일 그가 화폐 징수권을 양도한다면,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보람이 없고 또 여러 학설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영(靈)적인 것에 대한 공포에 의하여 반란에로 몰아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에서 말한 여러 권리 중 어느 것이나 하나라도 고찰해 보면 그 권리 이외의 모든 것을 지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코먼웰스 설립의 목적인 평화와 정의의 유지에는 아무런 효과도 없다는 것을 곧바로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주권자 분할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분할된 왕국은 존립할 수 없다'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즉 그것은 처음에 이 분할이 되어 있지 않다면 군대가 서로 분열하여 대립한다는 것을 결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들 권한이 국왕 · 상원 · 하원에 분할되어 있다는 의견이 '영국'의 대부분의 모든 부분에 처음에 받아들여져 있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두 파로 나누어져 이 내란을 불러일으키는 일도 결코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처음에는 정치의 원리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중에는 종교의 자유에 관한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 사이의 내란이었

다. 이 내란이 주권의 권리의 이점(분여할 수 없고, 분할할 수 없는 것)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영국에서)* 이들의 권리가 분할될 수 없다는 것, 또다시 평화가 올 때는 그 일이 일반으로 인정되어 사람들이 '내란'의 참상을 잊을 때까지는 그대로 계속될 것이고, 또 사람들이 이 참상을 잊어버리면 일반 민중이 이전보다는 보다 좋은 교육을 받지 않는 한, 그것은 그 이상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주권의 직접적인 포기 없이는 어떠한 수여(授與)에 의해서도 양도될 수 없다 그리고 이들 여러 권리는 주권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며 분할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이 된다. 즉 이들 권리 중의 어느 것이 어떠한 말에 따라 양도되는 것같이 보여도 만일 주권 그 자체가 직접적인 말에 의하여 포기된 것이 아니고 또 그 양도자가 피양도자로부터 이미 주권자라는 명칭을 주어질 수 없는 것이 아니면 양도는 무효인 것이다.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양도해 버려도, 우리가 만약 주권을 양도하여 반환한다면 모든 것은 그것(주권)에 뗄 수 없이 부수되어 있는 것으로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민의 권력과 명예는 주권자의 앞에서는 사라져 없어질 수 있다 이 위대한 권위는 분할할 수 없는 것이며 주권과는 불가분하게 부수되어 있기 때문에 주권을 가지는 국왕에 관하여 국왕들은 그 신민들의 각자의 보다 큰 권력을 가지는 '보다 큰 개체(個體)'이기는 하지만, 신민의 모든 권력을 합친 것보다는 작은 권력을 가지는 '보다 작은 보편자(普遍者)'라는 사람들의 견해에는 대부분 근거가 없다. 즉 사람들이 만약 '모든 것을 합쳤다'고 말할 때 한 인격자로서의 집합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경우에는 '모든 것을 합친 것의 하나하나'는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되고, 이 말은 불합리하다. 그러나 만약 '모든 것을 합쳤다'고 말할 때 그들이 그것을 하나의 인격*(주권자가 그 인격을 지니고 있다)*을 나타낸다고 생각한다면 그때는 모든 것을 합친 권력이란 주권자의 권력과 같은 것이므로 이 말도 똑같이 불합리하다. 사람들은 주권이 인민의 합의체에 있을 때는 이 불합리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한 사람의 군주에게 있을 때는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주권은 그것이 누구의 손에 있든 똑같은 것이다.

그리고 권력이 그러한 바와 같이 주권자의 명예는 어떠한 신민의 명예보다도 또한 신민 모든 명예보다도 당연히 크다. 그것은 주권은 명예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경 · 백작 · 공작 · 왕후라는 위계는 그들이 만든 것이다. 주인 앞에서는 하인들은 평등하여 어떠한 영광도 없으나 주권자 앞에서의 신민도 그것과 같다. 그리고 주권자만이 보이지 않는 데에서는 그들 중에서도 보다 세게 빛나거나 약하게 빛나거나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권자의 앞에서는 그들은 태양 앞의 별의 빛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주권은 그것이 없을 경우처럼 해로운 것이 아니고 해악은 대개 소수자들 스스로 복종하지 않는 데서 나온다 그러나 여기에서 신민들은 이와 같은 무제한한 권력을 잡는 사람 또는 사람들의 정욕이나 흩어진 정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므로 그들의 상태는 더없이 비참한 것이다라고 이의를 말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른다. 그리고 어떠한 정치 형태이든 그들이 신민을 보호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완전하게 되어 있으면, 그 권력은 모두 같음에도 불구하고 군주 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왕정의 결함이라고 생각하여 민주 정치 또는 그 밖의 주권을 갖는 합의체 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불편을 코먼웰스의 그러한 형태의 탓으로 돌린다. 더욱 모든 형태에 있어서 그 형태가 그들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완전하다면 권력은 똑같은 것이다. 이 경우에 그들은, 인간의 상태는 어떠한 불편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어떠한 통치 형태에 있어서 일반 인민에 대하여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가장 큰 불편마저도, 내란과 더불어 빚어지는 비참과 두려워해야 할 재난과 견주어 보면 때로는 여러 법에 대한 순종 없이, 사람들의 손이 강탈과 복수에로 향하도록 속박하는 강제 권력이 없는, 지배자가 없는 사람들의 흩어진 상태에 뒤따르는 비참과 두려워해야 할 재난과 견주어 본다면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을 생각지 않는다. 또 그들은 주권이 있는 통치자들의 가장 큰 압력이 그들 신민들의 손해나 약화에 의하여 기대할 수 있는 즐거움이나 이익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의 강(强)함과 번영은 신민들의 활기에 있다는 것을 생각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들은 싫어하면서도 자기들의 방위를 위해 몸을 바칠 그들의 강한 정념에 따라 그들의 통치자들이 평화의 때에 할 수 있는 것만을 그들로부터 끌어

내어 어떠한 긴급할 때나 갑작스럽게 필요할 때에 그들의 적에게 저항하거나 선수(先手)를 쓰거나 하는 수단을 갖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훌륭한 확대경(擴大鏡)*(즉 그들의 여러 정념과 자애심(自愛心)이다)*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통해 보면 모든 작은 희생이 큰 고충으로 보이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희생 없이는 피할 수 없는 그들에게 드리워져 있는 비참함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볼 수 있는 망원경*(즉 도덕과 사회의 과학(학문))*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제19장 설립에 의한 코먼웰스의 몇 가지 종류와 주권자의 승계에 대하여

코먼웰스의 다른 형태는 세 종류밖에 없다 코먼웰스의 차이는 주권자, 즉 모든 군중 및 각 사람을 대표하는 인격의 차이에 있다. 주권은 한 사람의 사람이나 그 이상의 사람들의 합의체에 있고, 그 합의체에는 전체의 사람이 참가하는 권리를 갖거나 또는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과는 구별되는 일정의 사람들이 그 권리를 갖느냐 갖지 않느냐이므로 코먼웰스의 종류는 세 가지밖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즉 대표는 한 사람이나 혹은 그 이상의 사람이냐에 따라 틀림없고 만일 두 사람 이상이라면 그 경우에는 그것은 전체 사람들의 합의체이냐 일부 사람들의 합의체이냐이다. 대표가 한 사람의 사람인 경우에는 그 코먼웰스는 '왕정(王政, Monarchy)'이고, 그것이 거기에 모이는 전체 사람들의 합의체인 경우에는 그것은 '민주 정치(Democracy)', 즉 민주적 코먼웰스이며 그것은 일부 사람들만의 합의체인 경우에는 '귀족 정치(Aristocracy)'라고 일컬어지는 것이다. 그 밖의 종류의 코먼웰스는 있을 수 없다. 즉 한 사람인가, 그 이상인가, 전체인가의 어느 것인가가 주권*(분할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미 말했다)*의 전체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폭정(暴政)과 과두 정치(寡頭政治)는 왕정과 귀족 정치의 다른 명칭에 지나지 않는다 역사나 정치에 관한 서적 속에는 '폭정'이나 '과두 정치'라고 하는 것과 같은 무엇인가 다른 통치의 명칭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무엇인가 다른 통치 형태의 명칭이 아니라 같은 통치 형태에 대하여 불만을 가졌을 경우의 명칭이다. 결국 '왕정' 밑에 있으면서 그것에 불만을 갖는 사람들은 그것을 '폭정'이라고 부르고, '귀

족 정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과두 정치'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와 같이 '민주 정치' 밑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무정부(無政府)*(그것은 통치의 결함을 뜻한다)*라고 부르나, 나는 통치의 결함이 무엇인가 새로운 종류의 통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는 보지 않으며, 또 같은 이유에서 사람들이 어떤 통치를 좋아하는 때와 좋아하지 않는 때, 또는 통치자에 억압당하고 있을 때로서 통치의 종류가 다르다고 생각해야 한다고는 보지 않는다.

다른 권위에 종속하는 대표는 위험하다 절대적인 자유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합의체에서도 그러한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분명히 그들이 바란다면 한 사람의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그들 각 사람을 대표시킬 수가 있다. 따라서 그들이 좋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어떠한 대표에 대해서도 스스로를 절대적으로 군주에게 복종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주권이 수립되어 있는 곳에서는 같은 인민이 그 밖의 어떤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마련되어 있는 제한된 주권자에 의한 대표를 빼놓고 대표자를 가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즉 그것은 두 사람의 주권자를 세우는 것이 되기 때문이며 또 각 사람은 그 인격을 두 사람의 행위자에 의하여 대표되는 것이 되며, 그것 때문에 서로 대항함으로써 *(사람들이 평화 속에서 생활하려고 한다면)* 분할할 수 없는 권력의 분할이 불가피 해진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든 주권 설립의 목적에 어긋나는 전쟁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권을 가지는 합의체가 그 영토 내의 인민에 대하여 그들의 조언이나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대리인들을 보내도록 요청한다고 가정하면 이 대표자들이 주권적 합의체 보다 더 절대적인 인민의 대표자로 여겨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는 똑같이 왕정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것 또한 불합리하다. 그리고 그처럼 명백한 진리가 최근에는 거의 전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그 때문에 어느 왕국(영국)에서 600년의 세습에 의하여 주권을 가지며 그만이 주권자로 불리고 그의 신민의 각 사람으로부터 폐하(陛下)의 칭호를 받아, 신민들로부터 의심할 여지없는 그들의 왕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의 대표라고는 결코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를 나는 알 수 없는 것이다. 대표라는 명칭은 인민이 그 '국왕'의 명령에 따라 자기들의 여러 가지

청원을 내밀었기 때문에 또한 *(그가 허용한다면)* 조언을 그에게 하기 위하여 파견한 사람들의 칭호로서 아무런 모순 없이 쓰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인민의 참되고 또한 절대적인 대표들이 그 직무의 성질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 또는 그들이 믿고 맡긴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무엇인가 다른 일반적인 대표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주의해야 한다는 교훈으로서 보탬이 될 것이다.

왕정과 여러 주권 합의체와의 비교 이들 세 가지의 코먼웰스의 차이는 권력의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설립된 목적인 인민에게 평화와 안전을 가져오기 위한 편의성(便宜性) 또는 적합성(適合性)의 차이에 있다. 그리고 왕정과 다른 두 가지를 비교하기 위하여 다음의 점에 관하여 생각해 보자.

첫째로, 인민의 인격을 지니는 것, 또는 그것을 걸머질 합의체의 구성원은 누구든지 아울러 자기 스스로의 자연적 인격도 걸머지고 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정치적 인격에 있어 공통의 이익의 획득에 깊은 주의를 기울인다 해도 그 이상 또는 그것에 못지않게 자기 자신과 그의 가족, 친족, 벗들의 사적인 선(善)의 획득에 대해서도 깊은 주의를 쏟는다. 그리고 공익과 사익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에는 대개 사익을 택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사람들의 정념이 그 이성보다도 강한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익과 사익이 더욱더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익은 보다 더 증진되게 된다. 그런데 왕정에 있어서는 사익과 공익은 같은 것이다. 군주의 재산, 권력, 명예는 신민들의 재산, 힘, 명성에서 나온다. 즉 어떠한 군주라도 신민들이 가난하고 업신여겨지고, 또 쪼들려 가난하거나 불화에 의한 알력 때문에 적과의 전쟁을 이끌어 갈 수 없을 정도로 약해지거나 하면 그 군주는 부유하거나 영광스럽거나 안전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민주 정치나 귀족 정치에서의 공공의 번영은 부패한 야심적인 사람의 사적인 재산에 성실치 못한 조언이나 배신행위, 내란이 자주 주는 만큼 베풀지 않는다.

둘째로, 군주는 그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람 · 때 · 장소를 막론하고 조언을 받는다. 따라서 그가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관하여 정통한 사람들, 즉 신분이나 지위의 귀천을 불문하고 그들의 의견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권 합의체가

조언을 필요로 할 때에는 처음부터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밖에는 누구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대개 지식을 배워 얻은 것보다도 부(富)를 얻는 행위에 정통하고 있는 사람들이며 긴 논의를 통해서 그의 조언을 주려고 한다. 그것은 사람들을 행위하도록 몰아세우고 또 일반적으로 몰아세우기는 하지만 행위하는 사람들을 억제하지는 않는다. 즉 그것은 '이해력(理解力)'이 정념의 불꽃에 의하여 슬기와 재능이 널리 열리는 것이 아니라 현혹시키기 때문이다. 또 합의체는 그 자체가 많은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밀리에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장소나 시간도 없는 것이다.

셋째로, 군주가 결단하는 경우에는 사람의 본성에 의한 부정성(不定性)밖에는 지배를 받는 일이 없으므로 합의체에 있어서는 사람의 본성 이외에 수에 의한 부정성이 나타난다. 즉 한번 정해진 결정을 고집하여 이끌려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나오지 않거나 *(이것은 방심, 태만 및 사적인 장해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반대 의견을 갖는 소수의 사람들이 열심히 참석하거나 하면 어제 결정된 일이 모두 오늘 취소되는 것이다.

넷째로, 군주는 선망(羨望)이나 이익 때문에 자기 자신에 뜻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합의체에서는 그것이 있을 수 있고 더욱 내란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고조될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로, 왕정에 있어서는 한 사람의 권력에 의하여 마음에 드는 사랑스러운 사람이나 아첨하는 사람들은 유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신민이라도 그가 가지는 모든 것을 빼앗길는지도 모른다는 불편이 있다. 나는 그것이 크고 피하기 어려운 불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은 주권이 합의체에 있을 때에도 아울러 일어날 수 있다. 즉 그 권력은 똑같은 것이며 군주가 아첨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당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삐뚤어진 충고에 지배당하거나 웅변가들에 의하여 평을 당하거나 또 서로가 아첨하는 사람이 됨으로써 서로의 탐욕과 야심을 위해 번갈아 가며 봉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군주에게는 마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은 적은 수이고 더욱 그의 친척 이외에는 이익을 저울질하는 사람들을 갖지 않으나 합의체는 그 총애자(寵愛者)의 수는 많고 그 친척은 어떠한 군주의 경우보다도 훨씬

많은 것이다. 더욱 군주의 사랑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적을 상처 입혀 해칠 수도 있고 자기편을 구출할 수도 있으나 웅변가, 즉 주권 합의체의 총애자들은 상처 입힐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으나 도울 수 있는 힘은 거의 갖지 않은 것이다. 즉 그것은 *(사람의 본성으로서)* 비난하는 것은 변명하는 경우보다도 웅변을 필요로 하지 않고 죄를 처단하는 것은 죄를 면제하는 것보다도 더욱 정의같이 보이기 때문이다.

여섯째로, 주권이 미성년자나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할 수 없는 사람에게 전해질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왕정에 있어서 불편한 점인 것이다. 그리고 그의 권력 행사가 다른 사람 또는 어떤 합의체, 즉 그들은 그의 인격과 권위의 관리자 및 보호자로서 그의 권리에 의하여 그의 이름으로 통치하여야 하는 그 합의체의 수중(手中)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이 경우인 것이다. 그러나 주권의 행사가 어떤 사람 또는 합의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통치가 혼란과 내란보다도 불편하다는 것과 같다. 따라서 여기에서 위험하다고 꾸밀 수 있는 것은 큰 명예와 이익이 있는 직무를 향한 경쟁자들인 이 사람들의 투쟁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 이 불편은 우리가 왕정이라고 부르는 통치 형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보자. 즉 전임 군주가 그의 미성년 후계자를 누가 보호해야 하는가를 유서에 의하여 명백히 또는 그 경우에 인정되고 있는 관습을 억제하지 않고 암암리에 임명했다고 한다면, 앞에서 말한 불편은 *(만일 그것이 나타나면)* 왕정으로가 아니라 신민들의 야심과 부정의의 탓으로 돌려야 할 것이며, 그러한 불편은 어떠한 종류의 통치에 있어서도 인민이 그 의무와 주권의 여러 권리에 대하여 충분히 교육되어 있지 않는 곳에서는 아울러 나타나는 것이다. 또 전임의 군주가 그러한 보호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때에는 자연의 법이 충분한 규칙, 즉 그 규칙은 원래 이 미성년자의 권위를 유지하는 데 가장 큰 이익이 있고, 그의 죽음이나 그를 약하게 하는 것으로서 가장 작은 이익밖에는 얻지 못하는 사람이 보호해야 한다는 규칙을 마련해 놓은 것이다. 그 까닭은 사람은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자신의 이익과 승진을 좇는 것이므로 미성년자를 파멸시켜 그에게 해를 줌으로써 승진할 수 있는 사람들

에게 미성년자를 믿고 맡기는 것은 보호가 아니라 배신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통치하는 경우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싸움에 대하여 치밀하고 세심한 배려를 했다면, 예를 들어 공공의 평화를 어지럽게 하는 투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왕정이라는 형태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신민들의 야심이나 그들의 의무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탓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 또 다른 편으로, 주권이 큰 합의체에게 있는 방대한 코먼웰스에서 선전 · 강화 및 입법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것은 마치 미성년자의 군주가 통치하는 것과 같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즉 미성년의 군주는 주어진 조언에 대하여 이의를 말할 판단력이 없어 그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으나 그와 같이 합의체나 많은 사람의 조언에 대해 좋든 나쁘든 의의를 말할 자유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또 미성년자인 군주는 그 인격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보좌관이나 보호자를 필요로 하나, 아울러 *(방대한 코먼웰스에서는)* 주권 합의체는 모든 중대한 위기나 동란(動亂)을 당하여 '자유를 지키는 사람', 다시 말하면 독재자 또는 그 권위의 보호자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들은 임시적인 군주와 같이 그것에 대하여 그들(주권 합의체)은 자기들의 권리의 모든 행사를 일시적으로 믿고 맡기는 것이므로 *(그 기간이 끝날 때는)* 미성년의 군주들이 그 보호자나 섭정 및 그 밖의 후견자들에 의하여 권력을 빼앗기는 것보다 더욱 자주 그의 권력을 빼앗겼던 것이다.

이제까지 논한 바와 같이 주권의 종류에는 세 가지밖에 없는 것으로서, 한 사람이 주권을 갖는 왕정, 신민들이 일반적인 합의체가 그것을 갖는 민주 정치, 지명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나머지의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일정의 사람들에게 그것이 있는 귀족 정치 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 이제까지 존재해 온 또 지금도 존재하는 개별적인 코먼웰스를 고찰하는 사람은 그것을 이 세 가지로 줄이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이들이 혼합하여 나타나는 다른 여러 형태가 있다고 생각할는지 모른다. 예를 들면 왕이 어느 시기 동안만 주권을 그의 손에 주어지는 선거 왕국(選擧王國), 왕이 제한된 권력을 가지는 왕국의 여러 통치도 대부분의 저자들에 의하여 왕정이라고 불리고 있고 또 민주적 또는 귀족적인 코먼웰스가 적국을 굴복

시켜, 그것을 장관이나 대리관(代理官)과 그 밖의 시정관(施政官)들이 통치한다고 하면 그것은 처음 보기에는 민주적 또는 귀족적인 통치와 같이 생각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선출된 왕은 주권자가 아니라 주권자의 대행자이며, 제한 군주도 주권자가 아니라 주권을 가지는 사람들의 대행자이며, 다른 코먼웰스의 민주 정치나 귀족 정치에 종속하고 있는 여러 속주(屬州)는 민주적 또는 귀족적인 것이 아니라 왕정적으로 통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첫째로, 선출된 왕에 대하여 말하면, 그의 권력은 오늘날의 그리스도교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그러한 바와 같이 그의 한 대(代)에 한하는 것이거나 또는 로마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의 독재자의 권력과 같이 정해진 햇수 또는 달수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가 만일 자기의 후계자를 임명하는 권리를 가진다면 그는 이미 선거적이 아니라 세습적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그의 후계자를 선정하는 권력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 경우에는 그의 죽고 난 후, 새로운 왕을 선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은 이미 잘 알려진 누군가가 다른 사람 또는 합의체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코먼웰스는 그와 더불어 죽어 해체되어 전쟁 상태에로 되돌아간다. 만일 어떠한 사람들이 그의 죽고 난 후에 주권을 부여할 권력을 가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이전에 주권이 그에게 있다는 것도 또한 인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어떠한 사람도 차지할 권리나 자기들이 좋다고 생각하면 지킬 권리를 갖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줄 권리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처음에 선출된 사람의 죽음 후에 주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그는 후계자를 확정하여 그에게 통치를 신탁한 사람들을 내란이라는 상태에로 거꾸로 되돌리지 않도록 배려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며 더욱 나아가 그렇게 하기를 자연의 법에 의하여 의무가 주어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선출되었을 때는 절대 주권자였던 것이다.

둘째로, 권력이 제한되어 있는 군주는 그것을 제한하는 권력을 갖는 사람이나 또는 그런 사람들보다 뛰어나지 못하며, 그리고 뛰어나지 못한 사람은 가령 높은 사람, 즉 주권자는 아닌 것이다. 따라서 주권은 언제나 그를 제한할 권리를 가지는 합의체에 있고 거기에서 당연히 그 통치는 왕정이 아니라 민주 정치나 귀족 정치인 것이다. 예를 들면 옛 스파르타에서는 군주는 군대를 지휘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주권은 에포오리(Ephori)[1]에 있었던 것과 같은 것이다.

셋째로, 로마 시민은 이전에는 *(예를 들면)* 유대인의 나라를 장관에 의하여 통치되고 있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유대 나라가 민주 정치였다고는 말할 수 없다. 즉 그들은 자기들 누구든지 참가할 권리를 갖는 어떠한 합의체에 의하여 통치를 받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그들은 귀족 정치도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선거에 의하여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는 합의체에 의하여 통치를 받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 인격에 의하여 통치를 받고 있었던 것이며 그것은 로마의 시민에 있어서는 시민의 합의체, 즉 민주 정치였으나 통치에 참가하는 권리를 전적으로 갖지 않았던 유대의 인민에게는 군주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인민이 스스로 그들 중에서 선출한 합의체에 의하여 통치를 받고 있을 때는 그 통치는 민주 정치 또는 귀족 정치라고 말할 수 있으나 그들이 자기들끼리 선출하지 않은 합의체에 의하여 통치를 받고 있을 때는 그것은 왕정이기 때문이다. 더욱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한 국민이 다른 국민에 대한 것이다.

계승권에 대하여 이들 모든 통치 형태에 있어서 그 내용은 죽어 없어져 가는 운명에 있었고, 군주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합의체도 또한 죽어 멸망해 가는 것이므로 인공적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는 질서가 있었다는 것과 같이 사람들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명의 인공적 영원성(永遠性)이라고 볼 수 있는 질서가 존재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것이 없으면 합의체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임기마다 전쟁 상태에로 되돌아가고 말 것이며, 한 사람에게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 통치자가 죽자마자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인공적인 영원성은 사람들이 '계승'의 권리라고 일컫는 것이다.

계승의 결정이 현재의 주권자에게는 없는 것과 같은 완전한 통치 형태라는 것은 없다. 즉 만일 그것이 누군가 다른 특정의 사람이 사정인 합의체에게 있다면 그것은 순종하는 인격 속에 있고 주권자가 생각하는 대로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

1 스파르타 5명의 장관으로서 매년 인민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 국왕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으로서, 따라서 이 권리는 그들 자신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특정의 사람이 아니고 새로이 선정되는 대로 버려 두었던 것이라고 한다면 그 경우, 코먼웰스는 해체되는 것이며 그 권리는 그것을 획득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있고, 사람들이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영속적인 안전을 위하여 코먼웰스를 설립했다고 하는 그들의 의사에 어긋나는 것이다.

민주 정치에 있어서 통치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는 한 모든 합의체가 없어지는 일은 없다. 따라서 계승자에 관한 문제는 이 통치 형태에 있어서 전적으로 일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귀족 정치에 있어서는 합의체 속의 누군가가 죽었을 때는 그의 빈자리를 메꾸는 사람의 선거는 주권자인 합의체에게 있고 모든 충고자와 관리의 선택은 그 합의체에 속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표가 행위자로서 행동하는 것은 신민 각 개인인 장본인으로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권 합의체가 그 합의체를 보충하는 새로운 사람들을 선거하는 권한을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 하더라도 그 선거는 역시 그들의 권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와 같은 권위에 의하여 그 권한은 *(공공체가 필요로 하는 경우)* 소환(召還)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의 군주는 계승을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계승권에 관해서 더욱더 문제가 많은 것은 왕정의 경우이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언뜻 보기에는 누가 계승자를 임명해야 하는가 분명치 않고 또 가끔 그가 임명한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치 않을 때 나타난다. 즉 이들 두 가지의 경우는 모든 사람이 쓰기(使用)에 길들여진 것보다는 엄밀한 이성적 추리가 필요한 것이다. 주권자의 권위를 가지는 군주의 계승자를 누가 임명해야 하는가, 바꾸어 말하면 누가 상속의 권리에 대하여 결정해야 하는가 *(선거 왕후(選擧王侯)들은 주권을 소유권으로서가 아니라 사용권으로서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라는 문제에 관하여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승에 관해 결정할 권리를 갖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권리는 또다시 흩어져 버린 군중 속에 있는가의 어느 쪽이라는 것이다. 즉 주권을 소유권으로서 가지는 사람의 죽음은 군중을 주권자 없는 상태로 버려 두는, 다시 말하면 그들을 결합시켜 어쨌든 무엇인가 하나의 행위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대표 없는 상태로 버려 두는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떠한 새로운 군주마저도 선거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각 사람은 자기를 보호하기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자기를 복종시키는 평등의 권리를 모든 사람은 가지고 있는, 또 할 수 있다면 자기 자신의 칼로서 자기를 보호하는 평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은 혼란에로 되돌아가는 것, 각 사람 대 각 사람의 전쟁 상태에로 되돌아가는 것으로서 왕정이 그 설립 당초에 가지고 있던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왕정의 설립에 즈음하여 계승자에 관한 결정은 항상 현실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판단과 의사에 기댄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군주가 그 권력을 누구에게 계승시켜 상속시키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때때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관해서는 그것은 그가 분명히 밝힌 말이나 용서 또는 그 밖의 만족스러울 정도의 암암리에 나타나는 표시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계승은 분명히 밝혀진 말에 의하여 인정된다 분명히 밝혀진 말이나 유서에 의한다는 것은 그들의 생존 동안에 구두로 또는 서면으로 선언할 때, 예를 들면 로마의 최초의 황제들이 누가 그의 계승자이어야 하는가를 널리 알린 바와 같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즉 계승자라는 말은 그 자체로서는 어느 사람의 아들들이나 보다 가까운 친척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이든 그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자기의 지위를 계승해야 한다고 널리 알리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군주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자기의 계승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이나 서면으로 명백히 널리 알리면 그때는 그 사람은 그의 전임자가 죽고 난 후에 곧바로 군주된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다.

또는 관습을 억제하지 않음으로써 그러나 유서나 분명히 밝혀진 말도 없을 경우에는 그 밖의 다른 의사의 자연적인 표시에 따라야 할 것이며 그중 하나에 관습이 있다. 따라서 관습상 보다 가까운 친척이 절대적으로 계승하기로 되어 있는 데에서는 보다 가까운 친척이 계승의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즉 현실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의사가 그것과 달랐다고 한다면 그는 살아 있을 동안에 그 일을 쉽게 널리 알릴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다 더 가까운 친척의 남자가

계승하는 것이 관습이 되어 있는 데에서는 같은 이유로 계승권도 또한 보다 가까운 친척의 남자에게 있는 것이다. 또 만일 관습이 여자를 앞세우고 있는 것이라면 사정은 또한 같다. 그 까닭은 어떠한 관습이든 사람이 말로서 억제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가 그 관습을 그대로 놓아 두자는 자연적인 표시이기 때문이다.

또는 자연적인 애정의 추정에 따라 그러나 관습이나 유서도 미리 앞서 있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로, 군주의 의사는 통치는 왕정 그대로 존속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가 스스로 그 통치를 시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로, 그 자신의 아들이나 딸이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뽑혀야 한다는 것이다. 자연히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아들보다도 나의 아들을 앞세우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또한 원래, 남자는 여자보다도 노동과 위험이 뒤따르는 행위에 익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자보다도 남자를 앞세우려는 경향이 있다고 추정하기 때문이다. 셋째로, 그들 자신의 혈통이 끊어진 경우에는 모르는 다른 사람보다도 동족(同族)의 사람을, 더욱이는 혈통상 먼 사람보다는 가까운 사람이라는 말이 된다. 그 까닭은 보다 가까운 친척은 애정에서도 친밀하다고 항상 추정되기 때문이다. 또 사람은 항상 그에게 보다 더 가까운 친척의 위대함에 따라 가장 큰 영예를 받는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군주를 계승자로 정해도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계약이나 유서의 말에 따라 계승을 정하는 것이 군주에게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아마 다음과 같은 큰 불편을 들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즉 그가 그 통치의 권력을 외국인에게 팔거나 주어 버릴지도 모르며 그러한 짓은 다른 나라에 속하는 사람들*(같은 정부 밑에서 생활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고 또 같은 말을 쓰지 않는 사람들)*은 대개 서로 상대를 업신여기는 것으로서 이 군주의 신민에게 있어서는 억압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확실히 이런 일은 큰 불편이지만 그것은 반드시 외국 사람의 통치에 순종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관한 참다운 규칙을 알지 못하는 통치자들의 어줍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로마 사람들이 많은 국민을 복종시키고 싶을 때는 언제나 자기들의 통치를 받아들이기 쉬운 일이라 하더라도 방금 말한 불

평의 씨를 필요한 한 없앤 것으로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그들이 정복한 국민의 모두에게 때로는 그 각 국민의 으뜸이 되는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들이 갖는 특권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이라는 명칭을 붙여 주고 그들 가운데의 많은 사람을 로마 시에서마저 원로원이나 책임 있는 관직에 채용했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더없이 어진 왕이었던 제임스 왕[2]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라는 그들의 두 영토를 통합하려고 애쓸 때 목적으로 삼았던 것은 바로 이런 일이었다. 만일 그가 그 일에 성공했더라면, 지금 이 두 왕국을 비참한 상태에로 몰아넣고 있는 내란도 아마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군주가 그 의사에 따라 계승을 결정하는 것은 많은 왕후들의 잘못 때문에 때로는 불편한 일이 나타났다고 말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인민에 대한 침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런 일이 합법적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논증할 수 있다. 즉 왕국을 외국 사람에게 줌으로써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편은, 계승권이 이어지는 것과 같은 결혼을 외국 사람과 하여도 나타나므로 더욱 이러한 말은 누구든지 합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20장 가부장적 및 전제적 지배에 대하여

획득에 의한 코먼웰스 '획득에 의한 코먼웰스'란 주권이 힘에 의하여 획득되는 코먼웰스를 말한다. 그리고 힘에 의하여 획득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다수결에 따라 그들의 생명이나 자유를 생각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합의체의 모든 행위를 죽음이나 속박에 대한 공포에 근거하여 권위를 부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설립에 의한 코먼웰스와 어디가 다른가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지배 또는 주권은 설립에 의한 주권과 다음과 같은 것만 다르다. 즉 자기들의 주권자를 뽑는 사람들은 서로의 공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들이 설립하는 그 사람에 대한 공포 때

2 제임스 왕(1566~1625)은 1603년에 엘리자베스 1세의 뒤를 이어, 그때까지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던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 왕의 자리에 올라 제임스 1세가 되었고 스튜어드 왕조가 시작된다. 청교도 혁명 때 스코틀랜드 군이 의회파에 협력한 일이 혁명군 승리의 큰 요인이 되었던 것을 홉스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에는 그들은 자기들이 두려워하는 그 사람에게 순종한다는 것이다. 어느 경우에든 그들은 공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죽음이나 폭력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이루어진 모든 신약은 무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즉 이들의 생각이 옳다면 어떤 종류의 코먼웰스에 있어서도 누구든지 복종을 의무 지울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한 번 설립되고 또는 획득된 코먼웰스에 있어서도 죽음이나 폭력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이루어진 약속은 그 약속 사항이 법에 어긋난다면 신약이라고는 말할 수 없고, 또 의무 지워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이 이유는 약속이 공포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사람이 약속 사항에 대한 권리를 갖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다. 또 그들이 법에 어긋나는 일없이 이행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가 면제되는 것은 그 신약이 무효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권자의 판정에 따르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사람이 법에 어긋나는 일없이 약속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은 불법이지만, 그러나 행위자인 주권자가 그를 면제한다면 그 경우에는 그는 그 계약을 강요한 사람에 의하여 그러한 면제의 장본인으로서 면제되는 것이다.

주권의 여러 권리는 두 경우가 모두 같다 그러나 주권의 여러 권리와 여러 귀결은 두 경우가 모두 같다. 즉 그의 권력은 그 동의 없이는 양도할 수 없고 그것을 박탈당하는 일도 없다. 그는 신민의 누구로부터도 권리를 침해했다고 비난을 받는 일은 없고 신민들에게 처벌당하는 일도 없다. 그는 무엇이 평화에 필요한가에 관한 판정자이며 이러 교설(敎說)의 판정자이다. 그는 한 사람밖에 없는 입법자이며 여러 가지의 논쟁에 대한 최고의 판정자이며, 선전 · 강화의 시기와 적당한 기회를 정하는 최고의 판정자이다. 그는 장관, 충고자, 지휘자, 그 밖의 모든 관리나 대행자를 뽑고 또 보수와 처벌, 명예와 서열(序列)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 이유에 관해서는 앞 장에서, 설립에 의한 주권의 같은 여러 권리와 여러 귀결에 대하여 논술한 것과 같은 것이다.

부권적(父權的) 지배는 어떻게 하여 이루어지는가 지배는 두 가지의 방식, 즉 출생과 정복에 의하여 획득된다. 출생에 의한 지배의 권리란 부모가 그들의 아이들에

대하여 가지는 것으로서 부권적이라 일컬어진다.

출생에 의해서가 아니라 계약에 의하여 얻어진다 그리고 그것은 부모가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배를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바와 같이 출생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밝혀진 말이나 또는 다른 충분한 증거에 따라 널리 밝혀진 아이들의 동의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출생에 관하여 말한다면 신은 남성에 대하여 협력자를 정한 것이며 두 사람이 언제나 똑같이 부모인 것이다. 따라서 아이들에 대한 지배는 평등하게 두 사람에게 있는 것이며 아이들은 똑같이 두 사람에게 복종해야 하나, 그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람도 두 사람의 주인에게 순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남성의 쪽이 뛰어난 성(性)이라고 하여 지배를 남성에게만 귀속시켰으나 그 경우 그들은 오산(誤算)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즉 그것은 남녀의 사이에는 반드시 언제나 그 권리가 투쟁 없이 결정될 수 있을 정도의 힘이나 깊이, 생각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 코먼웰스에서 이 논쟁은 시민법에 의하여 결정되며, 대개의 경우 (*언제든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판결은 아버지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대개의 경우 코먼웰스가 가족 중 어머니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들에 의하여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문제는 단지 자연 상태에 있어서의 일이다. 거기에는 자연의 법과 남녀의 두 성(性) 서로 및 그들의 아이들에 대한 자연적인 경향밖에는 혼인에 관한 어떠한 법도 또 아이들의 양육에 대한 어떠한 법도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전적인 자연 상태에 있어서 양친은 아이들에 대한 지배를, 그들 자신 사이에서 계약에 의하여 정하거나 또는 전혀 결정하지 않는 것이다. 만일 그들이 그것을 결정하면 권리는 계약에 따라 이전하게 된다. 역사가 가르치는 바에 따르면 아마존[3]은 그 여자들이 아이들을 낳기 위하여 협력을 구하기 위하여 인접의 여러 나라의 남자들과 계약하고, 남자의 자손은 돌려보내고, 여자의 자손은 그들의 곁에 머물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여자들에 대한 지배는 어머니에게 있었던 것이다.

3 그리스의 전설적인 여성들의 나라

또는 양육(養育)에 의하여 얻을 수 있다 만일 계약이 없으면 지배는 어머니에게 있다. 즉 혼인의 법이 없는 전적으로 자연 상태에서는 누가 아버지인가는 어머니가 밝혀 말하지 않는 한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이들에 대한 지배의 권리는 그 여자의 의사에 달려 있으며 따라서 그 여자의 것이다. 더욱 갓난아이는 먼저 어머니의 지배 밑에 있고 어머니는 그를 양육하는 것을 유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일 그 여자가 그것을 양육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생명을 어머니에게 맡기고 있고, 따라서 다른 누구에게 대하는 것보다도 그 여자에게 복종하는 것을 의무 지우는 것이다. 그 결과 그것에 대한 지배는 그 여자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여자가 그를 유기하여 다른 사람이 그에게 눈여겨 양육한다면 지배는 그것을 양육하는 사람에게 있다. 즉 그것은 자기를 위태로운 것으로부터 보호해 준 사람에게 따라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라는 것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게 되는 것은 생명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각 사람은 자기를 구하거나 망하게 하거나 하는 힘이 있는 사람에게 복종을 다짐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양친의 한쪽이 다른 쪽에 이전부터 순종하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얻을 수 있다 만약 어머니가 아버지의 신민이라면 아이들은 아버지의 지배 밑에 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어머니의 신하라면 *(주권자인 여왕이 신민의 한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 아이들은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도 또한 그 여자의 신민이기 때문이다.

만약 두 왕국의 군주인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서 한 아들이 태어나 누가 그 아이를 지배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계약한다고 하면 지배의 권리는 계약에 따라 이전한다. 만약 두 사람이 계약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자기가 살고 있는 장소의 지배에 따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각국의 주권자는 그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지배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아이에 대한 지배권을 갖는 사람은 그 아이의 아이들에 대해서도 또한 지배권을 가지며 그들의 아이의 아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그것은 어떤 사람의 인격에 대하여 지배권을 갖는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지배권은 어떠한 효과도 없는 칭호에 지나지 않다.

계승의 권리는 소유의 규칙에 따른다 부권적 지배에 관한 계승권은 왕권에 관한 계승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져 간다. 후자에 관해서는 이미 앞 장에서 구체적으로 말한 바 있다.

전제적인 지배는 어떻게 하여 얻어지는가 정복이나 전쟁의 승리에 따라 획득된 지배권은 어떤 저작가(著作家)들이 '영주(領主)' 또는 '주인'을 뜻하는 데스포테스(Δεσπότης)에 근거하에 전제적(專制的, despotical)이라고 일컫는 것으로서 그것은 하인에 대한 주인의 지배권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 지배권은 패배자가 직면하는 죽음의 한 칼을 피하기 위하여 분명히 밝혀진 말이나 그 밖의 의사의 충분한 표시에 따라 그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가 허용되기만 한다면 승리자는 뜻한 대로 그것을 쓸 수 있다고 하는 신약을 할 때에 승리자에 의하여 획득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신약이 이루어져 패배자는 하인이 되는 것이며, 그 이전에는 하인이 아닌 것이다. 즉 '하인'이라는 말은 *(이 말이 servire, 즉 '봉사한다'는 말에서 나온 것인지, servare, 즉 '구출한다'는 말에서 나온 것인지에 관해서는 문법학자들에게 맡긴다)* 포로(捕虜)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포로는 그를 사로잡은 소유자 또는 사로잡은 사람으로부터 사들인 소유자가 그를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기까지는 옥속에 있거나 묶여 있는 것이다*(즉 이러한 사람들—보통으로는 노예라고 불린다—은 어떠한 의무도 갖지 않고 그 옥이나 결박을 파괴하고 또 그 주인을 죽이거나 포로를 데리고 사라져 버려도 부당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인이란 것은 사로잡혀 신체의 자유를 허용받아 도망하지 않고 주인에게 폭력을 쓰지 않는다는 약속에 따라 주인에게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승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패배자의 동의에 따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패배자를 지배하는 권리를 주는 것은 승리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신약인 것이다. 단 그들은 정복을 당했기 때문에 즉 타격을 받아 사로잡히고 패배하여 쫓겼기 때문에 의무가 지워진 것이 아니라 그가 자진하여 승리자에게 복종했기 때문에 의무가 지워진 것이다. 그리고 또 승리자는 *(목숨을 살려 주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이 그의 몸을 믿고 맡길 때 무조건 항복했다는 이유로 그의 목숨을 살려 줄 의무가 지워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승리자가 자기의 판단으로 적당히 처리하는 것

이상으로는 의무가 지워지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일컬어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항복자의 구명(救命)'*(그것을 그리스 사람은 '조그리아(Ζωγρία)', 즉 '살아 있는 채로 사로잡는 것'이라고 말했다)*을 바랄 때 그들이 하는 것은 승리자들의 당장의 크게 화내는 것에 복종함으로써 회피하고 자기들의 생명을 몸값이나 봉사로써 보상하여 갚아 주는 것이다. 따라서 목숨을 건진 사람은 그의 생명이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생각할 때까지 연기되는 것이다. 그것은 목숨을 살려 준다는 조건으로 항복한 것이 아니라 그의 판단에 맡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경우에는 그의 목숨은 저당으로 잡혀 있을 뿐이고 승리자가 그를 신뢰하여 신체의 자유를 주었을 때 그의 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옥에 매어 있는 발 쇠사슬을 찬 채 일을 하는 노예들은 그것을 의무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엄한 노동을 하게 하는 사람들의 학대를 피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하인의 주인은 하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즉 재화, 노동, 하인들, 아이들의 주인이며 자기가 알맞다고 생각한 만큼 몇 번이고 그것을 부릴 수 있도록 강요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하인은 주인에게 복종한다는 신약, 즉 주인의 모든 행위를 자기의 것으로 권위를 쌓게 함으로써 주인의 소유로 따르는 자기의 생명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그가 거역하기 때문에 주인이 그를 죽이거나 쇠사슬을 채우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의 복종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처벌했을 때에는 그는 스스로 그 일에 관한 장본인으로서 자기를 침해했다는 이유로서 주인을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간추린다면 '부권적' 및 '전제적'인 두 가지의 지배 권력과 그 귀결은 어느 것이든 설립에 따르는 주권의 경우와 전적으로 같은 것이며, 그 까닭도 또한 같다. 그 이유에 대하여 앞 장에서 밝혀 써 놓았다. 따라서 여러 국민의 군주로서, 한쪽의 나라에서는 집회(集會)를 이룬 인민의 설립에 따라, 다른 쪽의 나라에서는 정복에 따라, 즉 죽음이나 쇠사슬을 피하기 위하여 각 개인의 복종에 바탕을 가지고 주권을 갖는다고 하는 경우 그 군주가 한쪽의 국민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정복을 당한 국민이기 때문에 정복이라는 권리의 근거에 따라, 다른 쪽의 국민보다도 더욱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주권의 권리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행위인 것이다. 왜냐하면 주권자는 어느 것에 대해서도 똑같이 절대적인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주권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써 이 경우에는 각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를 보호한다는 것은 합법적이고, 만일 할 수 있다면 자기의 칼을 휘둘러도 좋고 그렇게 되면 전쟁 상태가 되는 것이다.

가족과 왕국과의 차이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것이 분명해진다. 즉 대가족이 만일 어느 코먼웰스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주권의 여러 권리에 관해서는 그 가족이 한 사람의 남자와 하인, 또는 한 사람의 남자와 그 아이들, 하인들의 모두 등 어느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하나의 소왕국이며, 거기에서는 아버지 또는 주인이 주권자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그 스스로의 수에 따라, 또는 그 밖의 유리한 조건에 따라, 전쟁의 위험을 가라앉히지 않고서는 그것을 정복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권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면 정말로는 코먼웰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극히 소수의 부대가 일군단의 기습을 받았을 때는 참살을 당하기보다 무기를 버리고 목숨 구하기를 빌거나 또는 도망하는 것과 같이, 몇 사람의 사람들이 결합하여 자기들을 방위하기에 분명히 약할 때에는 위험을 당하며 각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도망하거나 적에게 복종하거나 자기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이성을 활용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코먼웰스를 건설하여 그들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권력을 신탁한 군주나 합의체의 통치 밑으로 들어가는 경우, 인간의 본능과 필요와 구상으로부터 내가 사색하고 연역(演繹)하여 주권자의 여러 권리에 대하여 알아낸 일들에 관해서는 이상으로서 충분할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왕정의 여러 권리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여기에 관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보기로 하자. 모세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4] 이것은 모세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이다. 왕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신 스스로가 사무엘의 입을 빌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기케 하리니 그들이 그 병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기와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또 그가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십일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 떼의 십분의 일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5]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절대 권력으로서 마지막의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다'라는 말에 요약되어 있는 것이다. 또 그들의 왕이 어떠한 권력을 갖게 될 것인가를 물었을 때 인민은 더욱 거기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6] 여기에서 주권자가 군사와 모든 사법권의 그 두 가지를 갖는 권리가 확인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중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 한의 절대 권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또 솔로몬 왕의 신에 대한 기도는 이러하였다.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7] 따라서 '판정자'가 되는 것과 '선악'을 분별하는 규칙을 정하는 것은 주권자에게 속하는 것이다. 이들의 규칙은 법이며 따라서 그는 입법권을 갖는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지매 그의 하인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하여 그들을 못 하게 하고 있다. '내 주를 치는 것은

4 〈출애굽기〉 20장 19절.
5 〈사무엘상〉 8장 11~17절 등.
6 〈사무엘상〉 8장 20절 등.
7 〈열왕기상〉 3장 9절.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됨이라."[8] 하인들의 복종에 대하여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9] 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10] 부권적 또는 전제적인 지배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복종이 있는 것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11] 여기에 또한 단순한 복종이 있다. 그리고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하기도 한다.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게 하라."[12] 이 복종도 또한 단순한 것이다. 끝으로 우리의 구세주 자신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13]라고 말하는 경우에 왕이 사람들에게 물게 한 세금을 지불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신도 그러한 세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또 왕의 말은 필요가 있을 때는 어떠한 신민으로부터 어떠한 것을 얻어도 충분한 것으로서 왕이 그 필요에 관한 판정자이다. 왜냐하면 그 자신도 유대 사람의 왕으로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하여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고 다음과 같이 그의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새끼 나귀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하면 즉시 보내리라."[14] 그들은 그의 필요가 권리로서 충분한 것인지 아닌지 또는 그가 그 필요의 판정자인지 아닌지도 물으려고 하지 않고 주의 뜻에 따르는 것이다.

여기에 〈창세기〉의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리라"[15]도 덧붙일 수가 있다. 또 같은 11절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8 〈사무엘상〉 24장 6절.
9 〈골로새서〉 3장 22절.
10 〈골로새서〉 3장 20절.
11 〈마태복음〉 23장 2~3절.
12 〈디도서〉 3장 1절.
13 〈마태복음〉 22장 21절.
14 〈마태복음〉 21장 2~3절.
15 〈창세기〉 3장 5절.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라는 것도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즉 '선악'에 대한 식별 또는 사법권은 지식의 나무 열매라고 이름 붙여져 아담의 복종의 시련으로서 금지되어 있었던 것이다. 여자에게는 이미 그 열매가 아름답게 느껴지고 있었지만 마귀는 그 여자의 야심을 불태우려고 하여 그것을 먹으면 두 사람은 선악을 알고 신과 같이 될 것이라고 그 여자에게 말해 주었던 것이다. 거기에서 두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분명히 신의 직무, 즉 선악에 관한 사법권을 얻었으나 선악을 올바르게 구별하는 새로운 능력은 얻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먹고 자기들이 알몸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 장소에 관해서는 그 누구도 그들이 그 이전에는 눈멀었고 또 자기들의 살결을 보지 못했다고는 풀이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뜻은 분명한 것으로서 즉 그들은 처음으로 자기들의 알몸*(그와 같이 그들을 창조하는 것은 신의 뜻이었다)*을 추악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부끄러워함으로써 신 자신을 암암리에 비난했다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 신은 '네가 먹었느냐' 운운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그것은 마치 나에게 복종해야 할 네가 나의 명령을 판단하는 것을 떠맡는 것인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 분명히 *(비유적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명령권을 갖는 사람의 명령은 그 신민들에 의하여 비난을 받거나 논의의 대상이 되거나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주권은 어떠한 코먼웰스에 있어서도 절대적이어야 한다 거기에서 이성과 《성경》의 어느 것으로부터도 주권이라는 것은 그것이 왕정과 같이 한 사람에게 있던 민주적 · 귀족적 코먼웰스와 같이 사람들의 합의체에 있던 사람들은 크게 만들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는 한의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분명히 이해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와 같은 제한 없는 권력으로부터 많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없는 데서 나오는 결과, 즉 각 사람의 이웃 사람에 대한 끊임없는 전쟁이 그것보다 더욱 나쁜 것이다. 이 세상에서 사람의 생활에는 반드시 어떠한 불편은 붙어다니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코먼웰스에 있어서도 신민의 불복종이나 그 코먼웰스 존립의 기초인 신약의 파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 이외는 큰 불편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주권이 너무 강대하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제한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제

한할 수 있는 권력, 즉 보다 강대한 권력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가장 큰 반대는 실재적 입장에서의 반대로서 어디에서, 언제 그러한 권력이 신민들에 의하여 인정되었는가라고 사람들이 묻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들에게 대하여 언제, 어디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소요나 내란이 없었던 왕국이 있었느냐고 물어 보는 것이 좋다. 오래도록 이어 오고, 대외 전쟁 이외에는 멸망하지 않았던 코먼웰스의 국민의 경우에는 신민들은 결코 주권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았다.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코먼웰스의 목적이나 성질을 철저하게 밝혀낸 일도, 또 정확한 이성으로 비교 고찰한 일도 없었고, 그것에 관하여 무지에서 오는 비참한 상태로 나날이 괴로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 실제적인 입장에서만이 있는 논증은 타당성이 없는 것이다. 즉 왜냐하면 비록 세계의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터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일을 당연한 일이라고 추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코먼웰스를 이룩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수완은 산술과 기하가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확실한 여러 규칙에 따르는 것이지 *(테니스 경기와 같이)* 실제에만 따르는 것은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 여러 규칙을 찾아 낼 겨를이 없고 설사 겨를이 있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제까지 그것을 찾아 내기 위한 호기심이나 방법을 가진 일이 없었던 것이다.

제21장 신민의 자유에 대하여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liberty 또는 freedom)란 *(원래는)* 반대가 없는 것을 나타내며 *(반대란 운동의 외적 장해를 뜻한다)* 그것은 이성적인 동물과 같이 비이성적인 무생물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떠한 것이라도 묶여 있거나 포위되어 있거나 하여, 즉 어떤 외적 물체의 반대 때문에 한정된 정해진 공간 속에서만이 움직일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은 그 이상으로 더 나아갈 자유를 갖지 못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생물에 대하여 그것이 벽이나 쇠사슬로 감금되어 있거나 구속되어 있거나 할 때는 우리는 그렇게 말하거나 또는 보다 넓은 공간으로 번져 갈 수도 있는 물이 독이나 그릇 속에 갇히게 될 경우에는 우리는 그것들이 그러한 외적인 장해가 없을 때에 움직일 수 있도록 움직이는 자유를 가지지 못한다

고 항상 말한다. 그러나 운동의 장해가 그 물건 자체의 구조 속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은 자유가 없는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고 움직이는 힘을 가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면 돌이 조용히 가로놓여 있을 때라든가 사람이 병으로 침대에 못 박히듯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가 그것이다.

자유롭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본래의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말의 뜻에 따르면 자유인이란 '그의 힘과 재치에 의하여 그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그가 하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나 '자유로운' 또는 '자유'라는 말이 '물체' 이외의 것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잘못 적용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은 장해를 받는 일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를 들면)* 길이 자유롭다고 말할 때는 길이 자유라는 뜻이 아니라 멈추는 일 없이 거기를 걷는 사람의 자유를 뜻하는 것이다. 또 우리들이 증여는 자유라고 말할 때는 증여의 자유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자가 그것을 주는 것에 관한 어떠한 법이나 신약에도 구속되어 있지 않다는 그의 자유를 뜻하는 것이다. 그와 같이 우리가 '자유로이 말할 때는 그것은 소리나 발음의 자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가 말한 것과 다르게 말해야 하는 어떤 법에 의해서도 의무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람의 자유에 관한 것이다. 끝으로 '자유의사'라는 말의 용법은 의사, 의욕 또는 성향의 자유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자유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가 하려고 하는 의사나 의욕이나 성향을 가지는 일을 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공포와 자유는 양립한다 공포와 자유는 양립한다. 사람이 배가 물속으로 가라앉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의 재화를 바닷속으로 던져 버리는 경우, 그렇지만 그는 그 일을 극히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만약 그가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자유'였던 사람의 행위인 것이다. 그와 같이 사람은 때때로 옥에 갇히는 '공포' 때문에 부채를 지불하지만, 누구도 그가 늦추는 것을 방해한 것은 아니므로 그것은 '자유'로운 사람의 행위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코먼웰스 안에서 법에 대한 '공포' 때문에 하는 모든 행위는 행위자가 그것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자유를 가진 행위인 것이다.

자유와 필연(必然)은 양립한다 '자유'와 '필연'은 양립한다. 물의 경우, 그것이 물길을 따라 흘러내려가는 '자유'뿐만 아니라, 그 '필연성'도 가지고 있는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하는 행위에 있어서도 같다. 즉 그 행위는 그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므로 '자유'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것들은 '필연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즉 사람의 의사에 때로는 모든 행위 및 모든 의욕과 성향은 어떤 원인에서 생기고 그것은 또다시 다른 원인으로부터 계속적인 연쇄를 이루어 *(신의 손안에 있는 그 맨 처음의 반지는 모든 원인의 맨 처음이다)*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거기에서 이들 원인의 연관을 알게 된 사람에게 모든 사람의 의지적 행위의 '필연성'은 명백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그것을 정하는 신은 인간이 자기의 의지하는 것을 행하는 '자유'에는 신이 의지하는 것, 그것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만을 행하는 '필연성'이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즉 사람들은 신이 명령도 하지 않고 따라서 그 장본인도 아닌 많은 것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은 신의 의지에 따라 나타나는 욕구 이외는 그 무엇에 대해서도 정념이나 욕구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신의 뜻이 사람의지의 '필연성'을, 따라서 또 인간의 의지에 근거하는 모든 것의 필연성을 보충해 주지 않는다면 인간의 '자유'는 신의 전능과 '자유'에 모순되어 장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원래 '자유'라고 불리는 유일한 것인 자연적인 '자유'에 관해서는 *(당면한 문제에 관한 한)* 이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인공(人工)적인 속박, 즉 여러 가지의 신약 그러나 인간이 평화를 얻고, 자기 보존을 하기 위하여 코먼웰스라 불리는 인공적인 인간을 만든 것과 같이 그들은 또 '시민법'이라 불리는 인공의 쇠사슬을 만든 것이다. 그리고 이 쇠사슬을 그들 자신의 서로의 신약에 따라 한쪽의 끝을 그들이 주권을 준 사람 또는 합의체의 입에, 다른 한쪽을 그들 자신의 귀에 묶어 놓은 것이다. 이 속박은 그 자체의 성질은 힘없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그것을 파괴한다는 것은 큰 곤란한 일은 아니지만 파괴한다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지켜지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신민들의 자유는 신약으로부터의 자유에 있다 이들 속박에 관련하여 내가 여기에서 논하려고 하는 것은 '신민들의 자유'에 관한 것뿐이다. 즉 사람들의 행위나 말을 규

제하기에 충분한 규칙을 마련하고 있는 코먼웰스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세계 속의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법이 못 본 척 지나쳐 버린 모든 종류의 행위에 대하여 사람들은 그들의 이성이 더욱 이롭다고 판단하는 것을 행할 자유를 가진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자유를 원래의 뜻으로 이해하여 신체의 자유, 즉 쇠사슬이나 옥에 갇히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생각한다면, 그들이 이미 그렇게 명백히 즐기고 있는 자유를 요구하며 소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더없이 불합리한 일인 것이다.

또 만일 우리가 자유를 법의 면제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다른 사람은 그들의 생명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자유를 그와 같이 요구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앞의 경우에 못지않게 불합리한 일인 것이다. 더욱 그처럼 불합리한 것은 사람 또는 사람들의 손에 칼이 없으면 법에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힘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그와 같이 법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신민의 자유라는 것은 그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경우에 주권자가 묵과한 일들에만 있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서로 사고 팔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계약하거나 하는 것이나 자기의 주거 · 식물 · 생업을 고르기, 그의 아이들을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교육하는 것 등의 자유가 그것이다.

신민의 자유는 주권자의 무제한 권력과 양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와 같은 자유에 따라 죽고 사는 열쇠를 쥐고 있는 주권이 폐지되거나 제한되거나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주권적 대표가 신민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구실에 따르는 것이라 하더라도 원래 부정의라든가 침해라고 일컬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즉 신민 각 사람은 주권자가 하는 모든 행위의 장본인이며 따라서 그는 그 자신이 신의 신민으로서, 그 때문에 자연의 여러 법을 지키도록 구속되어 있다는 점 이외에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코먼웰스에서 신민이 주권의 명령에 따라 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일이 가끔 일어날 수 있으나 그 두 경우 모두가 상대에 대하여 부정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입다(Jeptha)가 그의 딸을

희생시킨 것과 같으며 이 경우 또 여기에 비슷한 경우에 그와 같이 죽어 가는 사람은 그 행위를 하는 자유를 가졌다는 것이며 그 행위 때문에 죽는 일이 있어도 본래대로 침해를 당한 것은 아니다. 이 행위는 *(다윗에 의한 우리야의 살해가 그러했던 것과 같이)* 공정(公正)에 어긋나기 때문에 자연의 법에도 어긋나는 것이나, 그것은 우리야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신에 대한 침해인 것이다. 우리야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윗이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을 해내는 권리는 우리야 자신에 의하여 주었기 때문이지만, 신에 대하여라는 것은 다윗은 '신'의 신민이었기 때문이며 자연의 법에 따라 모든 부정한 행위는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윗 스스로가 그 부정한 행위를 후회했을 때는 그 구별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당신에게 대해서만이 죄를 지었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이 아테네의 인민들은 그들의 코먼웰스의 최유력자(最有力者)를 10년 간 추방했을 때 자기들은 별로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생각지 않고 있었다. 더욱 그들은 그들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가는 문제삼지 않고 그가 어떠한 해롭고 나쁜 일을 할 것인가를 문제로 삼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추방하는 사람도 알지 못하면서 추방을 명령한 것이며 각 시민은 자기가 추방하고 싶다고 생각한 사람의 이름을 쓴 구조개를 시장터에 가지고 와 실제로는 그 사람을 고소하지 않고 때로는 아리스티데스[16]와 같은 사람을 정의의 평판(評判)이 있기 때문에 추방하거나 또 때로는 히페르볼루스(Hyperbolus)와 같은 상스러운 익살꾼을 농담꾼으로 만들기 위하여 추방했던 것이다.[17] 그렇다고 해서 아테네의 주권자인 인민에게 그들을 추방할 권리가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고 또 아테네 사람에게 농담을 하거나 정의이거나 하는 자유가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저술가들이 찬양하는 자유는 주권자들의 자유이지 개개인의 자유는 아니다 고대 그

16 아리스티데스(Aristides, c.530~490 B.C.). 아테네의 중산 계급 출신의 정치가로서 귀족파에 속하여 '정의 (正義)'라는 별명이 주어졌었다.

17 아테네에서 B.C.147에 니키아스와 알키비아데스(Alkibiades, c.450~404 B.C.) 간의 당쟁이 격렬했을 때 그 두 사람을 조개투표(Ostracism)에 붙여, 그 한쪽을 추방하는 대신 히페르볼루스를 추방하여 일시적인 화해를 했다.

리스 사람이나 로마 사람의 역사 · 철학에서 또는 모든 사람들이 정치학의 지식을 얻기 위한 원천이었던 사람들의 저작이나 연설에서 그와 같이 자주 더욱 찬양하여 논술되고 있는 자유는 여러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코먼웰스의 자유인 것이다. 그것은 신민법이나 코먼웰스도 없었을 때에 각 사람이 가져야 할 자유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되는 귀결도 또한 같다. 즉 주인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각 사람의 그 이웃 사람에 대한 끊임없는 전쟁 상태가 계속되고, 아이에게 남겨 주고 아버지에게 기대할 만한 상속 재산이나 동산 · 토지의 소유권도 없고, 어떠한 보호 수단도 없고 다만 있다는 것은 각 개인의 완전하고 절대적인 자유뿐이며, 그와 같이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국가나 코먼웰스 사이에서도 각 코먼웰스*(각 개인이 아니다)*는 그들의 이익에 더욱 보탬이 된다고 그가 판단하는 것*(다시 말하면 그것을 대표하는 사람 또는 합의체가 판단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아울러 그들은 끊임없는 전쟁 상태 속에 살고 있는 것으로서 변두리의 이웃 나라 사람들에 대하여 국경을 무장하여 굳히고 대포를 설치하고 전투 직전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테네 사람이나 로마 사람은 자유로웠으나 다시 말하면 자유로운 코먼웰스였으나 그것은 누군가 개개인의 그들 자신의 대표에게 저항하는 자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대표가 다른 국민에게 저항하거나 그것을 침략하거나 하는 자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루카(Lucca) 시의 성탑(城塔)에는 오늘날에도 남아 있는 큰 문자로 자유(libertas)라는 말이 쓰여 있지만, 그것으로부터 거기에는 어떤 개인이 콘스탄티노플에 있어서보다도 더 많은 자유, 즉 코먼웰스에 대한 봉사를 면제받고 있다고는 그 누구도 추론할 수 없다. 코먼웰스가 왕정적이든 민주적이든, 자유는 여전히 같은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자유라고 하는 허울 좋은 명칭 때문에 쉽게 속임을 당하는 것이며, 그것은 공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식별하는 판단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사적인 상속권이나 생득권(生得權)에 관한 것으로 잘못 생각한다. 그리고 그와 똑같은 잘못은 이 문제에 관한 저술에서 평판을 얻은 사람들의 권위에 의하여 확인되면 그것은 소유나 통치의 변혁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조금도 이상한 일은 아닌 것이다. 세계의 서(西)쪽 부분에 있는 나라에 사는 우리는 코

먼웰스의 제도나 권리에 관한 의견을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 그 밖의 그리스 사람이나 로마 사람으로부터 듣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으나 그들은 민주 국가에서 생활하고 있어 그들의 권리를 자연의 여러 원리로부터 이끌어 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민주적인 코먼웰스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그들의 서적에 기록해 두었다. 그것은 문법학자가 언어의 여러 규칙을, 그 시대에 실제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부터 이끌어 내 기술하고, 시(詩)의 여러 규칙을 호메로스나 베르길리우스의 시로부터 이끌어 내 기술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아테네 사람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통치를 변혁시키려는 욕구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하여)* 자신들은 자유인이며, 왕정 밑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노예라고 가르침을 받았다. 그런 까닭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한 것을 그의 《정치학》 6권 2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즉 '민주 정치에 있어서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밖의 어떠한 통치 밑에 있어도 자유는 아니라고 일반적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이 키케로(Cicero, B.C. 106~43)나 그 밖의 저술가들도 그 정치 학설을 로마 사람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위에서 세웠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기들의 주권을 폐지하고 로마의 주권을 자기들끼리 나누어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나중에는 그 사람들의 후계자들에 의하여 왕정을 미워하도록 가르쳤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와 라틴의 저자들의 서적을 읽음으로써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자유라고 하는 그릇된 이름 아래에서)* 소란을 좋아하고 그들의 주권자들의 행위를 멋대로 통제하며, 더 나아가 그렇게도 많은 피를 흘리면서 그들의 통제자를 통제하는 습관을 몸에 익혀 왔다. 따라서 이들 서쪽 부분의 나라들이 그리스 말과 라틴 말의 학문에 대하여 치른 비싼 값은 아직까지 없었다고 해도 틀림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신민들의 자유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그렇다면 신민들의 참다운 자유, 즉 그가 주권자의 명령을 받고 거부해도 부정이 아니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관해 상세하게 알기 위하여 우리는 코먼웰스를 설립할 때 어떠한 권리를 양도할 것인가 또는 자기들의 주권자로 하는 사람 또는 합의체의 모든 행위를 *(예외 없이)* 자기의 것으로 삼는 경우 우리는 어떠한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가라는 것을 고찰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무'와 '자유' 모두가 우리의 '복종'의 행위 속에 있으며 따라서 자유나 의무는 거기에서 이끌어 온 논거로서 추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운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있어서나 그들 자신의 어떤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과 같은 의무는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러한 논거는 '나는 그의 모든 행위의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명백히 밝혀진 말이 그 사람의 권력에 대해 자기를 복종시키는 그의 생각*(이 생각은 그가 그와 같이 복종하는 목적으로부터 이해되어야 한다)*으로부터 이끌어 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신민의 의무와 자유는 이런 말*(또는 이것과 비슷한 다른 것)*로부터나, 그렇지 않으면 주권 설립의 목적, 즉 신민들 사이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또 공통의 적을 방위한다는 것으로부터 이끌어 내야 한다.

신민들은 자기의 신체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사 그것이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방위할 자유를 갖는다 그러므로 첫째로, 설립에 따르는 주권은 각 사람에 대한 신약에 의한 것일 것, 그리고 획득에 의한 주권은 패자의 승자에 대한 또는 아이의 부모에 대한 신약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각 신민은 그 권리가 신약에 따른다 하더라도 양도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에 관하여 자유를 갖는 것은 명백하다. 나는 앞서 14장에서 자기의 신체를 방위하지 않는 것을 정한 것과 같은 신약은 무효라는 것을 시사했다.

그들은 자기들을 해치도록 구속당하지 않는다 만약 주권자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 *(정당하게 유죄의 판결을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자신을 죽이거나 상해하거나 불구로 만들거나 하도록 명령을 받거나 또는 그에게 공격을 해 오는 사람들에게 저항하지 말라고 명령하거나 또는 식량, 공기, 약 그 밖의 그것들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들의 사용을 금지하라는 명령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복종하지 않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범한 죄에 관하여 주권자 또는 그 권위에 의하여 심문을 받는다면 그는 *(사면의 보증이 없으면)* 자백하도록 구속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람도 *(내가 같은 장에서 시사한 바와 같이)* 자기를 고소하도록 신약에는 의무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밖에 주권에 대한 신민의 동의는 '나는 그의 모든 행위에 대해 권위를 인정하여 자기가 책임을 진다'는 말 속에 들어 있으나 그 속에는 그 스스로 이제까지의 자연적인 자유에 대한 제한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나는 '나를 죽일 것'을 그에게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가 명령할 때 자살하도록 구속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나나 또는 그의 동료들은 생각하는 대로 죽여도 좋다'라고 해도 '나는 자기나 또는 그 동료를 스스로 죽인다'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다.

어떠한 사람도 말 그 자체에 의하여 자기나 다른 누군가를 죽이도록 구속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람이 때때로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 어떤 위험한 또는 불명예로운 일을 할 의무를 다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복종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양해한 나머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복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는 주권이 설립된 목적을 파괴하는 것이라면 그 경우에는 거부의 자유는 없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거부의 자유가 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면 전쟁을 하도록 구속되지 않는다 이러한 근거에서 병사(兵士)로서 적과 싸울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거부하더라도 주권자는 그를 사형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올바르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그가 역량이 있는 병사로 대신하는 경우가 그것이고, 이 경우 그는 코먼웰스에 대한 봉사를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 타고난 겁쟁이라고 해서 부인*(그 여자들에게는 그러한 위험한 의무는 기대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여성과 같이 나약한 남자에게도 전투 거부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전투가 행해지면 한쪽 측 또는 쌍방 쪽에는 도망자가 있다. 그러나 그들이 배신에서가 아니라 공포심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면 그것은 올바르지 못한 행위가 아니라 불명예스러운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전투를 회피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행위가 아니라 겁쟁이인 것이다. 그러나 병사로서 등록하거나 선불(先拂)의 징병금(徵兵金)을 거두어들이고 있는 사람은 겁쟁이 성격이라고 하여 도망치는 것이 용납되는 것이 아니며 싸움터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대장의 허가 없이는 거기에서 도망치지 않는다는 의무가 주어져 있다. 그리고 코먼웰스의 방위를 위해 무기를 잡는 사람 모두의 협력을 곧바로 필요로 하는 경우

에는 각 사람에게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다. 즉 만일 그가 코먼웰스를 유지하기 위한 생각이나 용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러한 코먼웰스의 설립은 보람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죄가 있고 없고는 관계없이 그 사람을 방위하기 위하여 코먼웰스의 칼에 대하여 저항하는 자유는 그 누구도 가지지 않는다. 즉 그러한 자유는 주권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수단을 빼앗는 일로서 통치의 본질 그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과 결속하여 이미 주권자에게 대하여 올바르지 못한 저항을 하고 또는 사형에 해당하는 무거운 죄를 범하거나 했기 때문에 그들의 각자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때에는 그들은 결속하여 서로 원조하고 방위하는 자유를 갖지 않는 것일까? 분명히 그들은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지킬 뿐으로서 그것은 죄의 있고 없고는 관계없이 누구든지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처음부터 그 의무에 어긋나게 범했을 때는 확실히 올바르지 못한 행위를 한 것이지만 거기에 뒤이어 그들이 무기를 잡은 것은 그들이 이미 한 일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결코 새로운 부정행위는 아닌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그들의 신체를 지키기 위한 것뿐이라면 조금도 올바르지 못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죄의 용서가 상신(上申)되었을 때는 그 용서를 받는 사람에게는 자기 방위라는 핑계는 없어지고 그들이 남는 사람들을 계속 원조하고 방위하는 것은 불법이 된다.

신민들의 최대의 자유는 법의 침묵에 달려 있다 그 밖의 자유에 대해서는 그것은 법의 침묵에 달려 있다. 주권자가 어떠한 규칙도 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민은 자기의 생각하는 대로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자유는 주권자가 더욱더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어느 곳에서는 많이, 어느 곳에서는 적게, 어느 때는 많이, 어느 때는 적다는 이유가 된다. 예를 들면 잉글랜드에서는 사람이 자기의 토지에 힘으로 밀고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불법으로 차지하고 있던 사람의 점유를 빼앗는 것)*이 가능했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그 뒤의 시대가 되면 이 강제로 밀고 들어가는 자유는 의회에서 *(왕에 의해)* 제정된 법령에 의하여 제거되었다. 또 세계의 어느 지방에서는 사람들은 많은 아내를 갖

는 자유를 가졌고 또 다른 지방에서는 그러한 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만일 신민이 채무에 관하여 토지 · 동산의 소유권에 관하여 또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요구당한 봉사에 관하여, 또는 신체적 · 금전적인 형벌에 관하여 주권자와 기존의 법에 관한 논쟁을 하는 경우에는 그는 신민과 논쟁하는 경우와 같이 주권자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에게, 자기의 권리에 대하여 소송을 일으킬 자유도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주권자가 그의 권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존의 법에 의해 요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는 그 법이 정당하다는 것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소송을 일으키는 것은 주권자의 의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신민은 그의 소송 사건의 심리와 그 법에 따라 판결을 요구하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그 권리를 이유로 그 무엇을 요구하거나 얻거나 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일으킬 수는 없는 것이다. 그 경우에 그는 자기의 권력에 따라서 하고 있는 모든 것은 각 신민의 권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따라서 주권자에 대하여 소송을 일으키는 사람은 자기에 대하여 일으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만일 군주 또는 주권 합의체가 그 신민의 모든 것 또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자유를 인정하여 그 인정이 계속될 경우 신민의 안전을 유지할 수 없다면 그는 주권을 직접적으로 포기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하지 않는 한, 그와 같이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무효이다. 즉 이 경우 *(만일 그것이 그(주권자)의 의사였다면)* 공공연하게 그리고 명백한 말로서 주권을 포기 또는 양도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것은 그의 의사였던 것이 아니고 그러한 자유를 인정한 것은 그와 같은 자유와 주권과의 모순을 몰랐던 것으로부터 발생했다고 풀이해야 할 일이다. 따라서 주권은 변함없이 지켜지고 그럼으로써 선전 · 강화하는 권리 · 사법권, 관리나 고문관의 임명권, 증세권 그 밖의 18장에서 들어 말한 바와 같은 주권의 행사에 필요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 신민들은 주권자에 대한 복종을 면제받는가 신민들의 주권자에 대한 의무는 그가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권력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는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에만 계속 지킬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즉 그것은 다른 그 누구도 그

를 보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기 보호를 위해 타고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는 어떠한 신약에 의해서도 양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권은 코먼웰스의 넋이며 그것이 사람마다 육체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그 구성원인 여러 부분은 이미 그것으로부터 그들의 운동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복종의 목적은 보호에 있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칼에 의하든, 다른 사람의 칼에 의하든,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자연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을 보호하여 주는 힘에 복종하도록 하여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게 한다. 그리고 주권은 그것을 설립하는 사람들의 의도에 있어서 불사라 하더라도 그것은 그 자신의 성질로 보아 대외 전쟁 때문에 폭력사(暴力死)를 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무지와 여러 정념 때문에 그것은 틀림없이 설립의 때부터 국내적인 불일치에 의한 자연사(自然死)의 수많은 씨(種子)를 그 속에 지니고 있는 것이다.

포로의 경우 만일 신민이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 그의 신변이나 생활 수단이 적의 감시 밑에 있어 승리자에게 순종한다는 조건으로 생명과 신체의 자유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는 그 조건을 받아들이는 자유가 있다. 그것을 받아들여진다면 그는 그를 바로잡은 사람의 신민이 된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 이외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모든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만일 그가 외국에서 같은 조건으로 억류되었을 경우 사정은 같은 경우가 된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옥에 갇히게 되어 쇠사슬에 매이거나 신과의 자유를 속박당하거나 하면 그는 순종 신약에 구속된다고는 풀이되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한의 수단을 써 도망해도 좋은 것이다.

주권자가 그의 통치를 그 자신과 후계자들로부터 포기하는 경우 만일 군주가 그들 자신과 그 후계자들의 그 양자에 대해, 주권을 포기한다면 선민들은 자연의 절대적인 자유에로 되돌아간다. 왜냐하면 자연은 누가 그의 아들들이며 누가 보다 더 가까운 친척인가를 밝힐 수 있으나 누가 그의 후계자인가는 *(앞 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 자신의 뜻에 달려 있으며 따라서 만일 그가 후계자가 없을 것 같으면 주권과 따르는 신민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가, 알려진 친척도 없고, 또 후계자에 관해 밝히지도 않고 죽는다면, 사정은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 경우에는 후계자를 모르며, 따라서 당연히 어떠한 따르는 신하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추방의 경우 만일 주권자가 그의 신민을 추방한다고 하면 추방 기간 동안은 그는 신민으로서 따르지 않는다. 그러나 사절(使節)로서 파견되거나 허가를 받아 여행하고 있는 사람은, 본디대로 신민으로서 순종한다. 그러나 그것이 주권자 사이의 계약에 따르는 것으로서 순종하는 신민의 신약에 따르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영토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주권자들의 수호(修好) 또는 특별한 허가에 의하여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그곳에서의 모든 법에 복종하기 때문이다.

주권자가 다른 사람의 신민이 되는 경우 만일 군주가 전쟁에 져, 승리자의 신민이 된다면, 그의 신민들은 이전의 의무는 해제되어 승리자에 대하여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나 주권자가 포로로서 사로잡혀 있다면, 그 신체의 자유가 속박되어 있거나 할 때는 그는 주권의 권리를 포기했다고 풀이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신민들은 이전에 군주로부터 임명받은 장관들, 즉 그들은 그들의 이름으로서가 아니라, 군주의 이름으로 통치하고 있으므로 그들에게 충실하게 순종하도록 의무가 주어져 있는 것이다. 그의 권리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서, 문제는 다만 행정상의, 즉 장관이나 관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그들을 임명하는 수단이 없다면 그가 이전에 임명한 사람들을 승인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제22장 정치적 및 사적인 신민의 여러 단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의 단체 코먼웰스의 생성, 형태 및 권한에 대하여 이제까지 말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 여러 부분에 관해 말할 차례이다. 제일 먼저 여러 단체에 관해 말하지만 그것은 자연인의 육체와 같은 종류의 부분, 즉 근육에 비슷하다. 단체라는 것은 어떤 이해나 볼일 등에 의하여 결합한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단체에는 '정규적(正規的)인 것'이 있는가 하면, '비정규적인 것'도 있다. '정규적인 것'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사람이나 하나의 합의체가 전체 구성원의 대표로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 밖에는 모두가 '비정규적인 것'이다.

정규적인 것 중에는 '절대적 · 독립적'으로서 자기 자신의 대표 이외에는 어느 것에도 신민으로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런 것은 코먼웰스뿐이며, 그것에 관

해서는 이미 앞의 다섯 개의 장(17~21장)에서 논했다. 그 밖의 것은 비독립적으로서, 즉 각 사람은 그의 대표도 그러한 바와 같이 주권에 '순종'하고 있지만, 주권에 종속하고 있는 것이다.

종속적 단체에는 '정치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있다. '정치적인 것' *(정치체(政治體) 또는 법인격(法人格)이라고도 일컬어진다)* 이란 코먼웰스의 주권의 권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사적인 것'이란 신민 동료끼리, 또는 외국인의 권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왜냐하면 외국의 권력에의 한 권위는 다른 영토 안에서는 공적인 것이 아니라, 사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적인 단체에는 '합법적인 것'과 '비합법적인 것'이 있다. '합법적인 것'이란 코먼웰스가 승인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밖의 모든 것은 '비합법적인 것'이다. '비정규적'인 단체란 대표를 갖지 않고 사람들의 집합체에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예를 들면, 시장이나 구경거리나 그 밖의 해가 없는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집합체와 같은 것)*으로서, 코먼웰스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않다면 또는 나쁜 계획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 합법적인 것이다. 그러나 나쁜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만일 사람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거나)* 또 그 생각이 분명하지 않는 것은 비합법적인 것이 된다.

정치체는 모두 그 대표의 권력이 제한되어 있다. 정치체에 있어 대표의 권력은 언제나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그 한계를 정하는 것이 주권이다. 왜냐하면 무제한의 권력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떠한 코먼웰스에 있어서도 주권자가 모든 신민의 절대적 대표인 것이다. 따라서 그 이외의 사람은 누구든지 그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만이 그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표가 될 수 없다. 신민들의 정치체는 모든 계획과 목표에 관한 대표를 갖는 것을 인정한다면 코먼웰스의 그것만의 부분적인 통치를 포기하고, 지배를 분할하는 것이 되고, 그것은 그들의 평화와 방위에 어긋나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분명하고 또한 직접적으로 그들을 순종으로부터 해방하지 않는 어떠한 허가에 의해서도 주권자가 그러한 일을 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말에서 나오는 결과는 다른 것으로부터 나오는 결과가 반대의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에는 그의 뜻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잘못과 오산의

표시이며, 사람 전체는 더없이 그것에 빠지기 쉬운 것이다.

어떤 정치체에게 주어진 권력의 제한은 두 가지에서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영장(令狀), 즉 주권자가 발행하는 증서이고, 다른 하나는 코먼웰스의 법이다.

공개 증서에 의하여 제한된다 독립적인 코먼웰스의 설립 또는 획득에 있어서 대표의 권력은 불문(不文)의 자연의 법이 규정하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속박도 받지 않으므로 문서를 만들 필요는 없다. 그러나 종속적 단체에 있어서는 그 사업(事業) · 시기 · 장소에 관하여 여러 가지의 제한이 필요하며 그러한 제한은 더없이 여러 가지 종류의 여러 가지 모습이므로 증서가 없으면 기억할 수 없고 또 사람들이 읽고 또 인장(印章)을 찍든지 또는 인장이나 그 밖의 주권자 권위의 영원한 표시로서 증명된 공개적인 증서가 없으면 무시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 법에 의하여 제한된다 그리고 이러한 제한을 서류에 기록한다는 것은 반드시 손쉬운 일이 아니고, 또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므로 증서 자체에 대하여 아무 말도 없는 모든 경우에 걸쳐, 모든 신민에게 공통적인 보통의 법은 대표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표가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에게 인정되지 않은 행위는 그 혼자만의 행위이다 따라서 정치체에 있어서 대표가 한 사람인 경우라면 그가 단체의 인격으로서 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의 증서에 의하든 또는 법에 의하든 허용되어 있지 않으면 그 자신의 행위이지, 단체의 행위는 아니며 또 그 이외의 어떠한 구성원의 행위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 증서나 법률의 제한 이상으로는 그는 자기 이외의 어떠한 사람의 인격도 대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증서나 법률에 따라 하는 것은 각 사람의 행위이다. 즉 주권자는 각 사람의 무제한의 대표이기 때문에 각 사람은 주권자의 행위에 관한 장본인이며 주권자의 증서에 어긋나지 않는 그의 행위는 모든 주권자의 행위이며, 따라서 그 단체의 각 구성원은 그 장본인인 것이다.

그것이 합의체인 경우에는 동의한 사람만의 행위이다 그러나 만일 대표가 합의체라면 그의 증서나 법률에 따라 허가되어 있지 않은데도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 합의체 또는 정치체의, 또는 그 명령이 만들어지기 위하여 투표한 각 사람의 행위이지만, 출석하여 반대의 투표를 한 사람이나 위임에 의한 투표를 하지 아니한 부

재자의 행위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것은 다수자가 투표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체의 행위이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범죄 행위이라면 합의체는 비록 해체되거나 또는 그들의 증서가 몰수당하거나*(그것은 이러한 인공적이고 가공적인 단체에게는 치명적이지만)*, 또는 *(만약 합의체가 공동 재산을 가지고 있고 결백한 구성원은 누구도 그 안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금전의 과료에 의하여 가능한 한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연은 모든 정치체로부터 신체적인 처벌을 면제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합의체는 그들의 증서가 허가하지 않고 있는 것들에 관해서는 누구든지 대표할 수 없으므로 투표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무죄이며 합의체의 상호 관계가 되는 일도 없는 것이다.

대표가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가 돈을 빌리거나 계약에 의하여 그것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면 그에게만 책임이 있고 구성원에게는 책임이 없다 만일 정치체의 인격이 한 사람의 사람에게 있고, 같은 단체의 구성원이 아닌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린다고 하면 *(왜냐하면 빌리는 일에 대한 제한은 갚는 일을 제한하는 사람과 자신의 성향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증서도 그것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 채무는 대표자의 것이 된다. 즉 만일 그가 자기의 빌린 것을 구성원들에게 갚도록 하는 권리를 그의 증서에 의하여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결과로부터는 그들에 대한 주권을 갖는 것이 되고 따라서 그와 같은 권리를 주는 것은 인간성에 흔히 있기 쉬운 오류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 수여자의 의사가 만족스럽지 못한 표시이기 때문에 무효이거나 또는 그것이 수여자에 의하여 인정된 것이라면, 그 경우에는 대표자가 주권자인 것으로서 종속적인 단체만을 다루고 있는 눈앞의 문제를 넘어서 버리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대표자 자신 이외의 어떠한 구성원도 이와 같이하여 빌리거나 채무를 갚거나 하는 의무를 지울 수 없는 것이다. 즉 그것은 그것을 빌리는 사람은 그 단체가 가지는 증서나 권한에 대하여서는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약속에 따라 의무가 지워진 사람만을 자기의 채무자라고 이해하기 때문이며, 대표자는 다른 그 누구도 아닌 그 자신을 약속에 따라 의무를 지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신만이 채무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공동 재산*(만일 어느 정도가 있다면)*에서 또는 *(그것이 없다면)* 그 자신의 재산에서 갚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그가 계약 또는 과료에 의하여 채무가 된다 하더라도 사정은 같다.

그것이 합의체인 경우에는 동의한 사람들만이 책임을 갖는다 그러나 대표가 합의체이고 채무가 구성원이 아닌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그것을 빌리기로 한 또는 그것을 갚기로 한 계약에 대해 또는 과료가 과해진 범죄 행위에 대하여 투표한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만이 이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들 사람들의 각자는 투표에서 그것을 찾을 것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즉 그 차용 행위의 장본인인 사람은 모든 채무까지도 의무가 지워지는 것이다. 그러나 누가 그것을 갚아 주면 그는 면제받게 된다.

만일 채무가 합의체의 한 사람에 대한 것이라면, 그 단체만이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나 만일 채무가 합의체의 한 사람에게 대한 것이라면, 합의체만이 그들의 공동 재산으로 *(그들이 그것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면)* 갚도록 의무 지워진다. 즉 그는 투표의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일 그가 돈을 빌려야만 하겠다는 투표를 한다면, 그는 그것을 갚아야 한다는 투표를 하는 것이 된다. 또 만일 그가 그것을 빌려서는 안 된다고 투표를 했거나 또는 그 장소에 없었을 경우에도, 그러나 그는 빌리는 데 있고 갚는다는 투표를 하는 것이므로 그는 자기 이전의 투표와는 모순하는 것이 되어 뒤의 경우에 의무가 지워져 빌리는 사람이기도 하고, 갚은 사람이기도 하다는 상태가 되어, 그 결과 어떠한 개인도 갚을 것을 요구하지 못하며 공동 금고(金庫)에서만이 갚을 수 있을 뿐이다. 그것이 없다면, 그는 어떠한 구제 수단도 갖지 못하며 그 자신에 대해서밖에는 불평을 할 수 없다. 그 자신은 이 합의체의 행위 및 그의 빚을 갚을 수단의 당사자이며 그리고 강제당하지 않고도 그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자기의 돈을 빌려 준 것이다.

정치체의 명령에 대한 항의는 때로는 합법적이지만, 주권에 대한 것은 결코 그렇지 못하다 그러한 것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것이 분명해진다. 즉 주권에 종속되어 순종하는 정치체에서 한 개인이 대표 합의체의 명령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항의하고, 그의 반대 의견을 기록시키거나 그것에 관한 증인을 찾거나 하는 것은 때로는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약된 채무를 갚을 것이 의무 지워질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

해서도 책임을 지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권 합의체에 있어서 이 자유는 다음의 두 이유에서 인정될 수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항의하는 사람은 그들의 주권을 부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며 또한 주권에 따라 명령을 받는 일은 무엇이든 신민에 관해서는 *(신의 눈으로는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명령에 따라 정당화되는 것이다. 각 신민은 그러한 명령의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속주(屬州) · 식민지 · 도시의 통치를 위한 정치체 정치체의 종류는 거의 무한정하다. 왜냐하면 정치체는 그것을 설립할 필요의 여러 가지 업무에 따라 차이가 있고 그 업무에는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다양성이 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때와 장소와 구성원의 수에 관하여 많은 제한을 받는 것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의 업무라는 관점에서 말하면 통치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도 있다. 예를 들면 첫째로, 속주의 통치는 모든 결정을 다수결에 따르는 합의체에 위임된다. 그 경우에는 이 합의체는 정치체이며 그들의 권력은 위임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이 속주라는 말은 일의 부담 또는 배려라는 뜻을 나타내며, 이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를 위하여 또는 그의 지배 밑에서 운영되도록 그 부담이나 배려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의 코먼웰스 속에는 여러 가지의 나라가 있어 서로 다른 법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통치의 관리는 여러 사람에게 위임되는 것으로서 주권자가 거기에 살지 않고 위임에 의하여 통치를 받는 나라는 속주(屬州)라고 일컬어진다. 그러나 속주 그 자체에 있는 합의체를 통하여 그것을 통치하는 예는 극히 드물다. 로마 사람은 많은 속주의 주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들을 로마 시나 이웃에 있는 여러 영토를 통치한 것과 같이 합의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총독이나 대리관에 의하여 통치했던 것이다. 잉글랜드로부터 버지니아나 사마르 섬에 식민(植民)을 하기 위하여 이민(移民)이 보내졌을 때도 또한 같았으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통치는 런던에 있는 합의체에게 위임되었으나 이들의 합의체는 그 통치를 함에 있어 그 땅의 어떠한 합의체에도 결코 위임하는 일 없이 각 식민지에 지사(知事)를 파견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도 자기가 출석할 수 있는 곳에서는 통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타고난 욕망을 가지고 있으나 그들이 출석할 수 없는 곳에서는

그들의 공통이익의 관리를, 민주적 형태보다도 오히려 왕정적 형태의 통치에 위임한다는 것, 이것 또한 타고난 경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적으로 넓은 영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또한 분명한 것으로서, 그들은 자기 일의 관리에 힘쓰고 싶지 않을 때는 친구들이나 또는 하인들의 어느 합의체보다도 한 사람의 하인에 위임하는 쪽을 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은 어쨌든 합의체에게 속주나 또는 식민지의 통치를 위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여기에서 내가 논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이 합의체가 어떠한 채무 계약을 하든 또는 어떠한 불법의 법령을 명령하든 앞에서 말한 이유에서 그 행위는 동의한 사람들만의 것이며,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부재(不在)였던 사람들의 행위는 아니었던 것이다. 또 합의체가 그 통치하는 식민지의 경계 밖에 있을 경우, 그것은 그 식민지의 밖에서는 어디에서든지 어느 식민지 사람들의 신체나 재화에 대해서도 그것들을 채무나 그 밖의 의무를 위하여 차압(差押)하는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다른 장소에서는 어떠한 사법권이나 권위도 없기 때문에 그곳의 법이 그들 합의체에게 인정하는 구제(救濟) 조치에 맡겨 놓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합의체는 그들이 만든 법률을 지키지 않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과료를 부과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그 식민지 밖에서는 그것을 행사하는 권리를 갖지 않는다. 또 여기에서 속주나 식민지의 통치를 위한 합의체의 권리에 관하여 논한 것은 도시 · 대학 · 단과대학 · 교회의 통치, 또는 그 밖의 사람들의 신체를 구속하는 어떠한 통치에도 알맞은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정치체에 있어서 개개의 구성원이 단체 자체에 의하여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면 그 소송 사건에 관한 재판권은 주권자와 이러한 소송 사건의 재판관으로서의 주권자가 정해 놓은 사람들, 또는 그 특정의 소송 사건을 위하여 주권자가 정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지 단체 자체에게는 없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단체 전체가 그의 동료 신민이기 때문이며 주권 합의체의 경우와는 다르다. 왜냐하면 그 경우에 그것은 주권자 자신의 소송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가 재판관이 아니라고 한다면 재판권이 전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교역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여러 정치체 외국 무역을 잘 처리해 가기 위한 정치체에

게 보다 더 편리한 대표는 모든 구성원으로 이루어지는 합의체이다. 즉 화폐를 투자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만일 그러한 의사가 있다면, 단체의 모든 심의와 결정에 출석할 수 있는 합의체가 그것이다. 그 증거로서는 우리는 상인들이 그 상품을 사고 팔거나 수출입을 자기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합하여 하나의 조합(組合)을 만들 목적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이다. 확실히 국내에서 신상품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수출하기 위하여 또는 외국에서 산 상품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수입하기 위하여 한 척의 배를 빌리려고 하는 상인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들은 결속하여 하나의 단체를 만들 필요가 있으며 거기에서 각 사람은 그 투자의 비율에 따라 이득의 분배에 맡기거나 또는 그가 수송 또는 수입하는 것을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가격으로 팔아 자기의 이득을 얻거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체가 아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다른 모든 신민에게 공통의 법 이외의 다른 법에 대하여 그들을 의무 지워 주는 공통의 대표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조합을 만드는 목적은 보다 많은 이득을 올리기 위한 것이었고 그것은 국내와 국외의 양쪽에서 독점적인 구입과 독점적인 판매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상인의 모임에 대하여 조합 또는 정치체임을 허가하는 것은 그들에게 이중(二重)의 독점을 허가하는 것으로서 그 하나는 독점적 구입자일 것, 다른 하나는 독점적 판매자이라는 것이다. 결국 어느 것이나 특정의 외국에 대하여 조합을 만든 모임이 있어 그들만이 그 나라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국내에 있어서는 구입을 독점하고 국외에 있어서는 판매를 독점하는 것이 된다. 즉 국내에서는 오로지 한 사람의 구입자만이 있고 국외에서는 오로지 한 사람의 판매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상인들은 국내에서는 보다 싼 가격으로 구입하고, 국외에서는 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그 어느 것이나 그에게 있어서는 유리한 것이다. 그리고 국외에서는 외국 상품의 하나밖에 없는 구입자이고, 그것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도 하나밖에 없으므로 그 어느 것이나 또 투자자들에게는 유리한 것이다.

그 이중의 독점은 한쪽에서는 국내의 인민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며, 다른 쪽에서는 외국인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국내에서는 수출을 독점

함으로써 인민의 농업이나 수공업에 대하여 생각대로 가치를 정하고 또 인민이 필요로 하는 모든 외국 제품의 수입을 독점함으로써 생각했던 대로의 가격을 정하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어느 것이나 그들 인민을 위한 것이 되지 못한다. 반대로 국산 상품의 국외에 있어서의 판매를 독점하고 그곳에서의 외국 상품의 구입을 독점함으로써 그들은 앞의 경우의 가격을 비싸게 올리고 뒤의 경우의 가격을 내려 외국인에게 불이익을 준다. 왜냐하면 한 사람만이 판매하는 곳에서는 상품은 보다 비싼 값이 되고, 한 사람만이 구입하는 곳에서는 보다 싼 값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조합은 독점에 지나지 않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외국 시장에서는 하나의 단체에로 결속하여 국내에서는 각 사람이 어떠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판매하여도 자유라고 하면 코먼웰스에게는 극히 유리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런데 상인들의 이들 단체의 목적은 단체 전체의 공동 이익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개인적인 투자로부터 배의 건조(建造) · 구입 · 식량 비축 · 선원 배치를 위하여 공제(控除)되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공동의 재산은 없다)* 각 투자자의 개인적인 이득이기 때문에 각 사람은 자기의 투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는 지에 대해 숙달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즉 각 사람이 합의체에 속하여 투자금을 운영하는 권한을 가지며 또한 그 경리(經理)에 정통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단체의 대표는 그 단체의 모든 구성원이 협의에 출석하려고 하면 출석할 수 있는 합의체가 아니면 아니된다.

만일 상인들의 정치체가 그들의 대표 합의체의 행위에 의하여 그 단체 외의 사람과 채무 계약을 맺으면 각 구성원은 각자가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왜냐하면 단체 외의 사람은 단체 내의 사적인 규칙을 모르며, 그들을 그의 구성원의 수만큼의 개인으로 보고 누구든지 한 사람의 변제(辨濟)가 모든 것을 변제할 때까지는 각 사람은 전부를 변제하도록 의무 지워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채무가 그 집단 중의 한 사람에게 대한 것이라면 채권자를 전체라는 입장에서 보아 자기의 채무자이며,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떠한 공동 재산이 있으면 거기에서만이 채무를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코먼웰스가 그 단체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면, 그것은 각 구성원에 대하여 집

단 내의 그들의 개별적인 투자에 비례하는 세금을 물도록 하는 것이라고 풀이된다. 왜냐하면 이 경우 그들의 개별적인 투자로서 이루어지는 것 이외에는 어떤 공동 재산도 없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불법적인 행위 때문에 그 단체에게 과료를 물게 한다면 이 행위를 명령하도록 두둔한 사람들 또는 그것을 실시하도록 협력한 사람들에게만 책임이 있다. 즉 그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그 단체에 속하고 있다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죄도 없기 때문이며 그것이 만일 범죄라 하더라도 *(그 단체는 코먼웰스의 권위에 의하여 정해졌기 때문에)* 그의 죄는 아닌 것이다.

만일 구성원의 한 사람이 그 단체에 대하여 채무를 지면 단체에 의하여 소송을 당하게 될 것이나 단체의 권위에 의하여 그 재화가 몰수당하거나 신변이 감금당하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코먼웰스의 권위에 의해서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만일 그가 그것을 그 자신의 권위에 의하여 할 수 있다면 그들은 자기들의 권위에 의하여 그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질 것이며 그것은 그들 자신의 소송 사건에서 재판관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주권자에게 충고하기 위한 정치체 사람들의 통치나 교역의 관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단체에는 영구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문서에 정해진 기간 동안만의 것도 있다. 또 기간이 한정되어 있지만 그것도 일의 성질에 한해서만이 기간이 정해진 단체도 있다. 예를 들면 주권자인 군주 또는 주권 합의체가 도시나 그 밖의 그들 영토의 각각 지역에 명령하여 그 대표자를 그의 밑으로 파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자. 이들 대표자는 전국을 대표하는 한 인격인 것처럼 신민의 상태나 궁상을 그에게 알리거나 또는 훌륭한 입법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그에게 충고하거나 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대표자들은 그 모임의 장소와 기간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는 또 그 기간에는 그 영토의 신민 전체를 대표하는 정치체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주권자 권위에 의하여 그의 파견을 바라는 사람, 또는 합의체가 그에게 제한하는 것 등에 관해서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이상으로 제안되는 것은 없고 그에 의하여 토의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선언되면 그 단체는 해산되는 것이다. 즉 만일 그가 인민의 절대적인 대표라고 한다면 그때

에는 그들은 주권 합의체이며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두 개의 주권 합의체 또는 두 사람의 주권자가 같은 인민에게 대하여 존재하는 것이 되며 그것은 인민의 평화와 일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한번 주권자가 정해진 곳에서는 그 주권을 지닌 주권자 이외는 인민의 절대적 대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단체는 어느 정도까지 모든 인민을 대표하는가라는 한계에 대하여서는 그의 파견을 요구하는 문서에 정해져 있다. 그리고 인민은 주권자로부터 그들에게 보내 온 문서 속에 쓰여 있는 것 이외의 의도를 가지고 그 대표자를 뽑을 수는 없는 것이다.

가족과 같이 정규(正規)적이고 합법적인 사적 단체 정규의 합법적인 사적인 단체라는 것은 다른 모든 신민에게도 공통적인 법을 별도로 한다면, 증서 그 밖의 문서에 의하여 권위가 주어지지 않고 구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대표적인 한 인격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정규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아버지 또는 주인이 전체의 질서를 세우고 있는 가족이 그러하다. 즉 그는 그의 아들이나 하인들을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의무를 지운다. 더욱 법을 넘어서서는 의무를 지울 수 없는 것으로서 그 이유는 아들이나 하인들은 누구든지 법이 하는 것을 금하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복종하도록 구속을 받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그들이 집안의 통치 밑에 있는 동안은 그 아버지나 주인은 직접적인 주권자에 대하는 것처럼 순종한다. 즉 아버지나 주인은 코먼웰스의 설립 이전에는 그 자신의 가족에 있어서 절대 주권자였던 것이며, 그 이후에도 코먼웰스의 법이 그들로부터 철회되는 것 이상으로는 그의 권위를 잃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정규적이기는 하지만 비합법적인 사적 단체 정규적이기는 하지만 비합법적인 사적 단체라는 것은 전에 어떠한 공적인 권위도 갖지 않고 자기들을 대표적인 한 인격으로 결합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걸식(乞食), 도적, 방랑자들의 구걸, 훔치는 일들을 보다 잘 처리하기 위한 단체가 그것이며 또 어떤 외국의 인격의 권위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영토 안에서 그 코먼웰스의 권력에 반대하는 학설의 선포를 쉽게 하거나 반대의 당파를 만들기 위하여 결합하고 있는 사람들의 단체가 그것이다.

사적인 동맹(同盟)과 같이 비정규적인 단체 비정규적인 단체는 본질적으로 동맹에 지나지 않으며 때로는 사람들은 단순한 모임에 지나지 않으며 어떤 특정의 계획 때문에 결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해 의무를 지우지 않고 다만 의지와 성향을 같이 하는 것에서 생긴 것이다. 그것은 그 속의 각 개인의 계획〔의도〕, 즉 그들의 계획〔의도〕은 동맹을 맺는 필요성에서 이해되어야 하는데, 그 계획〔의도〕의 합법 · 비합법에 따라 합법적인 것 또는 비합법적인 것이 된다.

(동맹은 보통은 상호 방위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신민들의 동맹은 코먼웰스*(그것은 모든 신민이 결합한 동맹에 지나지 않는다)* 안에서는 대개의 경우 필요하지 않으며 비합법적인 기미가 있는 계획을 가지는 것이며 그러한 이유 때문에 비합법적이며, 보통으로는 당파 · 도당(徒黨)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즉 동맹은 신약에 따르는 사람들의 단체이기 때문에 만일 거기에서 어떠한 사람이나 합의체가 *(단순히 자연 상태에 있어서와 같이)* 사람들에게 '신약의 이행'을 강제하는 권력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당한 불신의 원인이 생기지 않는 한에서만이 효력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코먼웰스 사이의 동맹은 그 위에 그들 모든 사람을 두려운 상태에 머물게 하는 인간적인 권력이 존재하지 않으나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존속하는 한 이롭기도 하다. 그러나 코먼웰스에서는 각 사람은 그 권리를 주권자에 의하여 획득할 수 있지만, 하나의 코먼웰스 안에서의 신민들의 동맹은 평화와 정의의 유지를 위해서는 불필요하며 또한 *(동맹의 계획이 흉악하거나 코먼웰스에 알려져 있지 않는 경우에는)* 비합법적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사적인 개인들의 힘의 전적인 결합이 흉악한 의도 때문이라면 올바르지 못한 일이고, 의도가 분명치 않을 때 공공체에게 위험스런 말을 감추기 때문에 올바르지 못하다.

비밀의 도당 만일 주권이 하나의 큰 합의체에 있고, 수많은 사람들, 즉 합의체 안의 당파가 어떠한 권위를 갖지도 않은 채, 나머지의 사람들을 지도하려고 기도하여, 별도로 떨어져 협의한다고 하면 이것은 그의 개별적인 이해를 위하여 합의체를 어지럽게 하는 사기 행위이므로 비합법적인 당파이며 도당이다. 그러나 만일 자기의 사적인 이해가 합의체에서 토론되거나 판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다면 많은 자기편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그는 합의체 안의 당파는 아니므로, 그렇게 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부정한 일은 아니다. 그리고 그가 그러한 자기편을 돈으로 매수한다 해도 *(그것을 금지하는 명백한 법률이 없는 한)* 그래도 부정한 일은 아닌 것이다. 즉 *(사람들의 풍습이 그러한 바와 같이)* 때로는 돈이 없다면 재판은 할 수 없고, 또 각 사람은 자기의 소송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할 때까지는 자기의 주장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적인 여러 가족 사이의 불화(不和) 모든 코먼웰스에서 만일 한 사인(私人)이 그의 영토의 통치와 그의 합법적인 일을 위하여 필요로 하기보다는 많은 하인을 거느리고 있다면 그것은 당파이며 비합법적인 것이다. 그는 코먼웰스의 보호를 받고 있어 사병에 의한 방위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완전히 문명화되지 않은 나라 안에서는 수많은 큰 가족이 끊임없이 적대(敵對)적으로 생활하고 있어 사병을 가지고 서로 침범했으나 전적으로 분명한 것은 그들이 한 일은 옳지 못했던 것이며 부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들은 코먼웰스를 지니지 못했다.

통치를 위한 여러 당파(黨派) 그리고 혈연에 의한 당파가 부정인 것처럼 법왕파(法王派), 신교도(新敎徒) 등과 같은 종교에 관한 통치를 위한 여러 당파, 고대 로마의 귀족파(貴族派), 고대 그리스의 귀족파와 민주파(民主派)와 같은 국가의 통치를 위한 여러 당파도 또한 부정한 것이다. 그들은 인민의 평화와 안전에 반대하여 주권자의 손으로부터 칼을 빼앗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무리 사람들의 무리는 비정규적인 단체로서 그것이 합법적인 것인가 비합법적인 것인가는 무리진 사람들의 이유와 사람 수에 따라 결정된다. 만일 그 이유가 합법적이고 명백하다면 그 무리는 합법적이다. 예를 들면 교회나 공개적인 구경거리의 모임을 갖는 데 있어 사람들의 평소의 무리에서 사람들의 수가 평상적일 때가 그것이다. 즉 수가 이상하게 많으면 이유가 명백하지 않고 따라서 자기가 그 속에 있다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상당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은 비합법적으로서 불온한 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천의 사람이 재판관 또는 장관에게 제출되는 청원(請願)에 가담하는 것은 합법적이겠지만, 만약 그것을 제출하는 데 천 명이 밀려오면 그것은 불온한 모임이다. 그 목적을 위해서

는 한 사람이나 두 사람으로서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그 모임이 비합법적이라고 결정하는 기준은 어떤 정해진 사람의 수가 아니라 그곳에 있는 관리들이 억압하고 처벌할 수 없는 사람의 수가 어떤가에 따른다.

이상할 정도의 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고소하기 위하여 모였다면 그 모임은 비합법적인 불온한 행위이다. 그들은 그 고소를 소수의 사람 또는 한 사람인 장관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의 경우가 그것으로서 거기에서는 데메드리오(Demetrius)와 그 밖의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모아 '위대할 진저 에베소의 아데미라(Artemis)'고 외치면서 바울 동료 중 두 사람을 장관 앞으로 데리고 왔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들은 무리가 자기들의 종교나 직업에 반대하는 학설을 사람들에게 가르친 일에 대하여 그들을 재판에 넘기도록 요구했던 것이다. 이 사람들의 소송에 대하여 그 근거는 정당하지만 그 모임은 비합법적으로 생각되며 거기에 대하여 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그들을 힐책하고 있는 것이다. 즉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18] 여기에서 그는 사람들이 그것에 관하여 정당한 설명을 할 수 없는 모임을 '소란(소요)'이라 부르고 또 사람들이 책임질 수 없는 것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내가 사람들의 여러 단체 및 여러 모임에 대하여 말하려고 한 전부로서 그것은 (내가 말한 바와 같이) 인체와 같은 종류의 여러 부분에 견주는 것이다. 합법적인 것은 근육에, 비합법적인 것은 나쁜 체액(體液)의 이상한 합류에 의하여 생긴 혹, 담즙(膽汁), 농양(膿瘍)에 견줄 수가 있는 것이다.

제23장 주권자 권력의 공적 대행자에 대하여

앞 장에서 나는 코먼웰스를 인체의 비슷한 여러 부분에 관하여 말했다. 이 장에서

18 〈사도행전〉 19장 38~40절.

는 기관(器官)의 여러 부분 즉 공적인 대행자들에 관하여 말하기로 한다.

공적 대행자란 누구인가 공적 대행자란 주권자*(군주이든 합의체이든)*에 의하여 어떤 일에 쓰이고, 그 일에 당하여 권위를 가지고 그 코먼웰스의 인격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주권을 가지는 각 사람 또는 합의체는 두 개의 인격을 대표하며 즉 *(보다 일반적인 표현 방법에 따르면)* 하나는 자연적인 것, 또 하나는 정치적인 것의 두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군주는 코먼웰스의 인격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의 인격을 가지는 것이며, 주권 합의체의 인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자격에 있어서 그들의 하인들은 공적인 대행자가 아니라 공적인 일의 운영에 있어서 그들에게 종사하는 사람들만이 그러하다. 그러기 때문에 귀족정치나 민주 정치에 있어서 합의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할 따름이지, 합의체에 종사하는 접수 · 안내하는 사람 그 밖의 다른 관리들은 공적인 대행자는 아니고 또 군주의 가정(家庭)을 도맡는 집사 · 시종 · 출납계 그 밖의 관리들도 왕정에 있어서 공적 대표자는 아닌 것이다.

일반 행정을 위한 여러 대행자 공적인 대행자들 중에는 영토 전체에 걸쳐, 또는 그 일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인 행정을 위임한 임무를 지는 사람이 있다. 전체에 관한 것은 미성년의 왕의 전임자로부터 보호자나 섭정에 대하여 그가 미성년인 동안만 그 왕국의 모든 행정을 위임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그가 만든 법령이나 그가 부여한 명령이 왕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주권과 모순되지 않는 한, 모든 신민은 복종의 의무가 지워지는 것이다. 일부 또는 속주에 관한 것으로는 군주 또는 주권 합의체가 그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총독 · 총독 대리 · 지방 장관 · 부왕에게 부여하는 것 등이 있다. 이 경우에도 또한 이 속주의 모든 사람들은 그가 주권자의 이름으로 행하고 주권자의 권리는 모순되지 않는 모든 일에 관하여 의무가 지워지는 것이다. 즉 이러한 보호자 · 부왕 · 총독은 주권자의 의사에 달려 있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권리도 갖지 않으며 그들에게 주어지는 위임도 주권 양도가 분명히 밝혀진 확실한 말이 없으면 그러한 의사의 선고라고는 풀이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부류의 공적인 대행자들은 자연인의 육체의 각 손발을 움직이는 신경이나 힘줄을 닮았다.

예를 들면 경제와 같은 특별한 행정을 위한 것 다르게는 특별한 행정, 즉 나라 안팎의 어떤 특별한 일에 관한 임무를 갖는 자가 있다. 나라 안에서는 첫째로, 코먼웰스의 경제에 관하여, 예를 들면 공납(貢納) · 세금 부과 · 사용료 · 과료 또는 모든 공적인 수입에 관한 '재무'에 대하여 그것들을 징수하고 · 수납하며 · 급부하고 또 계리(計理)하는 권위를 갖는 사람들은 공적인 대행자이다. 대행자라는 것은 그가 대표적인 인격에게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그의 명령에 어긋나든가 또는 그러한 권위가 없다면 어떠한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적이라는 것은 그가 그의 정치적 자격에 있어서 그에게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군사'에 관해서 무기 · 요새 · 운항을 책임지거나 병사의 징집이나 봉급 지급이나 지휘를 하거나 육상이나 해상의 전쟁에서 쓰기 위한 필수품을 조달하는 권위를 갖는 사람은 공적인 대리자이다. 그러나 명령권을 갖지 않는 병사는 비록 코먼웰스를 위하여 싸운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 인격을 대표하지는 못한다. 거기에서는 그것을 대표해야 할 상대가 있기 때문이다. 명령권을 가지는 사람은 모두 그가 명령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만이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다.

인민의 지도를 위한 것 인민에 대하여 주권에 관한 그들의 의무를 가르치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가르치도록 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지식에 대하여 그들을 이끌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더욱 그들 동료끼리 신을 공경하며 평화롭게 생활하고 공공의 적에게 저항하도록 시킬 수 있는 권위를 가지는 사람들도 공적 대행자이다. 그러한 것을 그들은 자기들의 권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위에 의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행자인 것이며 그리고 공적이라는 것은 그들이 주권자의 권위 이외의 어떠한 권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하기 *(혹은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군주 또는 주권 합의체만이 인민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권위를 신이 직접적으로 주신 것이며, 그 밖의 어떠한 사람도 아니고 주권자만이 '신의 은혜를 입어서만이' 즉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이 그 권력이 주어진 것이다. 그 밖의 모든 것은 그들의 권력을 신과 그들의 주권자의 은총과 배려에 의하여 주신 것으로서 예를 들면 왕정에 있어서 '신의 은혜'와 '왕의 은혜에 의하여' 또는 '신의 배려'와 '왕의 의지에 의하여' *(그 권력이)* 주어진 것이

다.

사법을 위한 것 사법권(司法權)이 주어져 있는 사람들도 또한 공적인 대행자이다. 즉 그들은 재판하는 자리에서 주권자의 인격을 대표하고 그 판결은 그 자신의 판결이다. 왜냐하면 *(앞에서 명백히 한 바와 같이)* 모든 사법권은 주권자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서 부속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모든 재판관은 주권을 갖는 사람 또는 사람들의 대행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논쟁에는 두 종류, 즉 '사실(事實)' 문제와 '법률' 문제가 있으므로 판결에도 사실에 관한 것과 법률에 관한 것 등이 있다. 따라서 같은 논쟁에 있어서도 두 사람 중 한쪽은 사실에 대한, 다른 쪽은 법률에 대한 재판관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논쟁의 어느 것이든 비난을 받는 측과 비난을 하는 측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난다. 그들은 한결같이 주권자의 신민이기 때문에 이 논쟁이 공평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쌍방의 동의에 의하여 승인된 사람들이 재판해야 할 것이다. 즉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소송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권자가 재판관이 된다는 것은 이미 쌍방의 동의를 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 소송 사건을 스스로 심리하여 결정하든가, 그들의 쌍방이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하든가 하는 어느 쪽을 택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의 동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로, 만일 피고(被告)가 그의 재판관들 중에서 어느 사람 즉 사람들과의 이해 관계가 그에게 의혹을 품게 하는 사람들을 기피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즉 원고의 경우 그는 이미 자기의 재판관을 뽑았기 때문에)* 그가 기피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가 스스로 동의한 재판관이다. 둘째로, 만일 그가 누군가 다른 재판관에 대해 공소(控訴)한다면 그는 그 이상으로는 공소할 수 없다. 그 공소는 그가 뽑았기 때문이다. 셋째로, 만일 그가 주권자 자신에게 공소하고 주권자 스스로 또는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대리(代理)에 의하여 판결될 수 있다면 그 판결은 마지막이 된다. 왜냐하면 피고는 그 자신의 재판관들, 즉 그 스스로에 의하여 재판을 받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정당하고 이성적인 사법권의 이들의 특성을 생각할 때, 나는 영국의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에 대해서 확립되어 있는 여러 법정의 훌륭한 구성에 관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민사 재판이란 원고 · 피고 모두가 신민인 경우이고, 형사 재판이란 *(왕좌 재판(王座裁判)이라고도 부른다)* 원고가 주권자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두 계층의 사람들이 있어 하나는 귀족, 다른 것은 평민이었다. 귀족은 모든 죽음에 비길 만한 범죄에 있어서 귀족만 그리고 그들 중 출석을 희망하는 사람 수만큼만 재판관으로 한다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보다 더욱 은총에 의한 특권으로서 인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재판관은 그들 자신이 바랐든 사람들 이외에는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모든 논쟁에서 각 신민은 *(민사에 관한 논쟁의 경우에는 귀족도 그러했지만)* 논쟁 속의 문제가 있는 지방의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했던 것이다. 그는 자기들이 기피하지 않고 동의하는 사람이 마지막에는 열두 사람이 될 때까지 기피할 수 있어 그 열두 사람의 사람들로부터 재판을 받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그는 자기 자신의 재판을 가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당사자는 그 재판이 마지막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못했다. 주권에 의하여 인민을 지도하거나 재판하거나 하는 권위를 받은 이들 공적인 인격은 자연인의 육체에서 소리를 내는 여러 기관에 비기는 것이 적합한 코먼웰스의 구성원인 것이다.

집행을 위한 것 주어진 판결을 집행하고 주권자의 명령을 공표하고 소요를 진압하고 죄인을 체포하여 투옥하고, 또한 그 밖에 평화의 유지에 보탬이 되는 행위를 하는 권위를 주권자로부터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또한 공적인 대행자이다. 이러한 권위에 의하여 그가 해야 하는 행위는 코먼웰스의 행위이며 그의 직무는 자연인의 육체에서 손이 하는 일과 일치하는 것이다.

나라 밖의 공적인 대행자라는 것은 외국에 대하여 그들 자신의 주권자의 인격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다. 공적인 권위에 의하여 공적인 직무를 위해 파견되는 대사 · 사절 · 대리인 · 사자(使者) 등과 같은 사람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내분(內紛) 중에 있는 나라의 사적인 당파의 권위에 의해서만이 파견되는 사람들이란 가령 그들이 접견된다 하더라도 그 코먼웰스의 공적인 대행자나 사적인 대행자도 아니다. 이들의 행위는 조금도 그 코먼웰스를 장본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축하 · 조위 의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왕후가 파견하는 대사도 그 권위는 공적인 것이지만 그 직무는 사적인 것이며 자연적 자격에 있어

그에게 속하고 있기 때문에 사적인 인격이다. 또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의 비밀 계획이나 병력을 탐색하기 위하여 은밀히 파견된다면 그 권위나 직무도 공적이기는 하나 거기에서는 어떠한 사람도 그들 속에, 그 자신 이외의 사람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사적인 대행자에 지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코먼웰스의 대행자이자 자연인의 육체의 눈(目)에 견줄 수가 있을 것이다. 또 인민의 청원이나 그 밖의 정보를 받기 위하여 임명되는 경우 공공의 귀(耳)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공적인 대행자로서 그 직무에 있어 그의 주권자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다.

조언을 할 뿐 그 밖의 직무가 없는 고문관들은 공적인 대행자는 아니다 고문관이나 고문 회의가 사법이나 명령의 권위를 갖지 않고, 얻을 수 있다면 주권자에게 조언을 하고, 얻을 수 없을 때는 조언을 제안한다는 권위 밖에는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공적인 인격이 아니다. 왜냐하면 조언은 주권자에게만 말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의 인격이 그의 앞에서 그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의하여 대표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문관의 단체가 다른 권위, 즉 사법이나 직접 행정에 관여하는 권위를 전적으로 갖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왕정에 있어서 그들은 군주의 명령을 공적인 대행자에게 전하는 데 있어 그를 대표하는 것이다. 민주 정치에 있어서는 회의 또는 원로원은 그의 심의의 결과를 의견으로서 인민에게 제안하지만, 그들이 재판관을 임명하고 소송 사건을 심리하며 대사들을 접견할 때에는 그것은 인민의 대행자의 자격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귀족 정치에 있어서는 고문 회의는 주권 합의체 그 자체로서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있는 것이다.

제24장 코먼웰스의 보양(補養)과 생식(生殖)에 대하여

코먼웰스의 보양은 바다와 육지의 재화로부터 섭취된다 코먼웰스의 보양은 생활에 보탬이 되는 '풍부한 재료'와 그 '분배'에 의하여 섭취된다. 즉 그 '조합(調合)' 또는 '조정(調整)'과 *(조합되었을 때는)* 편리한 도관(導管)에 의하여 그것을 공공의 사용을 위해 '수송(輸送)하는 것'에 의하여 섭취되는 것이다.

물자의 풍부함이라는 것은 자연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사물이다. *(우리의 공통의 어머니의 두 개의 유방)* 즉 육지와 바다로부터 신이 일반적으로 인류에게 무상으로 주거나 노동에 대하여 주는 재화가 그것이다.

즉 이 보양물은 동물 · 식물 · 광물로 이루어지며 신은 그것들을 우리의 앞에, 즉 대지의 표면이나 표면 가까이 부담 없이 놓았기 때문에 다만 그것을 받기 위하여 노동과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건이 풍부하다는 것은 *(신의 은총에 버금하여)* 전적으로 사람들의 노동과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으로 재화라고 불리는 물질에는, '국산'도 있고 '외국산'도 있다. '국산'이란 그 코먼웰스의 영토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외국산'이란 외국에서 수입된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코먼웰스의 지배 밑에 있는 영토가 *(극히 광활한 것을 빼놓고)* 그 전체의 유지와 활동에 필요한 것 모든 것은 산출할 수 없고 또 대개의 경우, 필요 이상의 것은 무엇인가 산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얻어진 나머지의 재화는 결코 나머지가 아니고, 그것에 의하여 외국이 가지고 있는 재화를 교환이나 정당한 전쟁이나 노동 등 어느 것에 의하여 수입함으로써 국내에서의 부족한 양을 보충하는 것이다. 인간의 노동도 또한 다른 모든 것과 같이 이익을 얻기 위하여 교환할 수 있는 재화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들이 살 수 있을 따름인 영토밖에 갖지 않는 코먼웰스가 있었지만, 거기에서는 한쪽에서는 어떤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에로의 교역의 노동에 의하여, 또 다른 쪽에서는 다른 장소에서 가져 온 재료를 근거로 한 제조품을 팔아 그들의 힘을 유지해 올 뿐만 아니라 키워 왔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정당한 배분에 따른다 이 보양의 재료의 분배는 '자기의 것'과 '그대의 것'과 '그의 것', 즉 한마디로 말하면 '소유권'을 설정하는 것이며 그것은 모든 종류의 코먼웰스에 있어 주권에 속하는 것이다. 즉 코먼웰스가 없는 곳에서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각 사람의 이웃에 대한 영원의 전쟁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그것을 힘에 의하여 획득하고 보존하는 사람의 것이며 그것은 '소유권'도 '공동 소유'도 아닌 '불안정한 상태'인 것이다. 이것은 극히 명백한 것으로서 키케로*(열정적인 자유의 옹호자)*까지도 공개 변론에서 모든 소유권은 시민법에 있다

고 생각했을 정도이다. '시민법이 한번 폐기된다고 하자. 또는 *(압박받는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소홀하게밖에 지킬 수 없다고 하자. 그러한 사람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았거나 후손에게 남겨 물려주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확신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시민법을 없앤다면 누구든지 무엇이 자기 자신의 것이며 무엇이 다른 사람의 것인지를 알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소유권의 발생은 코먼웰스가 생긴 결과이며 코먼웰스는 그것을 대표하는 인격에 의하여만이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그것은 주권자만의 행위이다. 그리고 그것은 법률에 의하는 것으로서 법률은 주권을 갖지 않고서는 누구도 만들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사람들은 옛날부터 알고 있다. 그들은 우리가 법이라 부르는 것을 '노모스'*(즉 분배)*라고 부르고 각 사람에게 '그의 것을 분배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었다.

모든 사적인 토지 재산은 원래 주권자의 제멋대로의 분배에서 나타났다 이 분배에 있어서 첫째의 법은 토지 그 자체의 분할을 위한 것으로서 거기에서 주권자는 각 사람에 나누어 줄 것을 할당하지만 그것은 어떠한 신민이라도 어느 수의 신민들도 아니고 그 자신이 형평과 공동 이익에 일치한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스라엘의 자손은 광야 속에서 코먼웰스를 이룩하고 있었으나 그들은 약속의 땅의 지배자가 될 때까지는 대지의 재화가 부족하고 있었다. 나중에 그 약속의 땅은 그들 사이에서, 그들 자신의 재량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사(祭司) 엘르아살과 그들의 장군 여호수아의 재량에 따라 나누어졌다. 거기에는 열두 종족이 있어 그들은 요셉 종족의 재(再)분할 때문에 열세 종족이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분할은 열둘밖에 만들 수 없었다. 그리고 레위의 종족에는 토지를 정하지 않고 모든 수확의 십분의 일을 그들에게 쪼개 나누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분할은 제멋대로의 것이었다. 그리고 한 민족이 전쟁에 의하여 한 나라를 차지하게 되더라도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과 같이)* 반드시 옛날부터 살아 온 주민들을 몰살시키지 않고 그들 중의 많은 사람들이나 대부분의 사람 또는 모든 사람에게 그 소유지를 남겨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분명히 훗날이 되어 그것들은 잉글랜드의 민중이 그들의 모든 것을 정복왕 윌리엄의 분배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승리자의

분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신민의 소유권은 주권자의 지배를 배제하지 않고, 다른 신민의 지배만을 배제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신민이 그의 토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란 다른 모든 신민이 그것을 사용할 것을 배제하는 권리를 말하며 그것이 합의체이든 군주이든 주권자를 배제하는 권리에 관한 것은 아니다. 주권자 즉 코먼웰스*(그가 그 인격을 대표하지만)*는 공통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만이 행위한다고 풀이되지만 이 토지의 분배도 같은 것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풀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는 그것을 해치려고 하는 분배가 어떠한 것이든 자기의 평화와 안전을 그의 재량과 양심에 맡기고 있는 각 신민의 의사에 어긋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 각자의 의사에 따라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권자인 군주 또는 주권 합의체의 대부분이 그들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서, 그것은 신뢰 및 자연의 법에 위반하는 일이지만, 그들의 정념을 이룩하려고 많은 것을 하도록 명령하는 일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신민이 그 주권자에 대하여 전쟁을 걸어오거나 또는 그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고소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의 욕을 한다든가 할 정도의 행위를 하는 것은 신민에게 권위를 주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의 모든 행위를 권위 지우는 것으로서 주권을 부여할 때에는 그들의 행위를 자기들의 것으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는 주권자들의 명령이 형평 또는 자연의 법에 어긋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뒤의 다른 곳에서 보기로 한다.

공공체에게는 규정식(規定食)을 주어서는 안 된다 토지의 분배에 있어서 코먼웰스 자체가 하나의 몫을 가지고 그것을 그들의 대표가 차지하여 개량해야 한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또 이러한 몫은 공통의 평화와 방위를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모든 비용을 꾸려 가기에 충분한 것이 될는지 모른다. 만일 사람의 정념이나 결함을 전에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대표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옳다. 그러나 사람의 성질은 보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코먼웰스를 위해서는 공공지(公共地) 또는 어떤 일정한 수입을 정하는 것은 보람이 없는 일이며 또 그것은 군주나 합의체의 것이 되자마자 항상 통치의 해체, 또 전적인 자연 상태 · 전쟁

상태에로 기우는 경향을 갖는다. 군주나 합의체도 화폐에 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하기 때문에, 또는 공공 재산을 장기(長期)의, 더욱이는 비싼 값을 치르는 전쟁에 쓰인다는 점에서 너무나 위험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코먼웰스는 규정식으로서는 견딜 수 없다. 왜냐하면 코먼웰스에 쓰이는 비용은 그들 자신의 욕구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깥의 재해나 그들 이웃들의 욕구에 의하여 정해져 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 재산은 긴급한 경우에 필요로 하는 것 이외에는 제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잉글랜드의 정복자(윌리엄)는, *(자신의 오락이나 목재(木材)의 유지를 위해 숲이나 사냥터를 차지한 것 이외에)*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토지를 보유하고 그가 신민들에게 준 토지에 대해 여러 가지의 부역(賦役)을 보유(부과)했지만, 그들은 공적인 자격에 있는 그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연적인 자격에 있는 그를 유지하기 위하여 보유한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나 또는 그의 후계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모든 신민의 토지에 대해 제멋대로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또 만일 이들의 공공의 토지나 부역이 코먼웰스를 충분히 유지하는 것으로 정해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잇따른 세금 부과가 보여 주듯이)* 불충분하며, 또한 *(최근 왕실의 빈약한 수입에서 보듯이)* 양도되고 감소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설립의 목적에 어긋났던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코먼웰스에게 한몫을 할당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로서 코먼웰스는 그것을 팔아넘기거나 양도하거나 할 수 있고 그것이 그들의 대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제로 팔아넘기거나 양도하거나 하고 있는 것이다.

무역의 장소와 내용은 그것의 분배와 같이 주권자에 따른다 나라 안에 있어서 토지의 분배와 같이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재화에 대하여 신민이 외국과 무역을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주권자에게 속한다. 즉 그것은, 만일 자기들의 자유재량으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사적인 인력에 속하고 있다면 이득에 이끌려 코먼웰스를 해치는 수단을 적에게 주고 또 사람들의 욕구를 즐겁게 해주는 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해롭고, 또는 적어도 득이 되지 않는 것을 수입함으로써 스스로 그것을 해롭게 하는 사람도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외국 무역의

장소와 내용의 쌍방에 대하여 허가와 불허가를 정하는 것은 코먼웰스에 *(즉 주권자에게)* 속하는 것이다.

소유권의 양도에 관한 법도 또한 주권자에게 속한다 더욱 각 사람이 토지의 몫이나 약간의 재화의 소유권을 가지고 또는 어떤 유용한 기술에 있어 타고난 특성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만으로서는 코먼웰스를 유지하기에 충분치 않으며, 또 이 세상의 기술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생존과 행복을 위해 필요치 않는 것은 없으므로 사람들이 교환이나 상호 계약에 의하여 서로 간에 자기들에게는 남는 것을 나누어 주고 거기에 따르는 그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리고 때문에 신민들 사이의 *(매매 · 교환 · 대차 · 임대차 등)* 여러 가지 종류의 계약은 어떻게 하여 이루어져야 하는가 또 어떠한 말과 표시에 따라 그것은 유효하다고 풀이되어야 하는가를 지정하는 것은 코먼웰스*(즉 주권자)*에 속하는 것이다. 코먼웰스의 각 구성원에 대한 보양(補養)의 내용과 분배에 대하여서는 이것으로 *(전체적인 일의 모양을 비추어 볼 때)* 충분하다.

화폐는 코먼웰스의 혈액이다 조합(調合)이란 지금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영양을 위해 보유하는 모든 재화를, 같은 가치를 지니며, 더욱 사람들이 어떤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에로 옮겨 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운반할 수 있는 그 어느 것으로 되돌아가는 것, 즉 그 목적은 사람이 어떤 장소에 있던 거기에서 산출되는 영양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은 금 · 은 · 화폐에 지나지 않는다. 즉 금과 은이란 *(지금 그러하듯이)*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으므로 여러 국민들 사이에서, 그 밖의 모든 것의 가치를 측정하는 편리한 척도이기 때문이다. 또 화폐는 *(코먼웰스의 주권자에 의하여 어떠한 물질로 주조(鑄造)되든)* 그 코먼웰스의 신민들 사이에서는 그 밖의 모든 것의 척도로서 충분한 것이다. 이들의 척도에 따라 동산 · 부동산의 모든 재화는 어떤 사람이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장소 안에서나 밖에서나 그가 옮겨 가는 모든 장소에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코먼웰스 안에서 사람으로부터 사람으로 돌아 그 각 부분을 *(통과하여)* 영양을 주면서 순환한다. 이와 같이하여 조합은 말하자면 코먼웰스의 혈액 순환인 것이다. 그것은 자연의 혈액도 이와 같이 땅의 작물에서 만

들어져 순환하면서 그 도중에 인체의 각 부분에 영향을 주며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 · 은은 그들의 가치를 그 물질 자체에 지니고 있으므로 그것은 첫째로, 그것들의 가치가 하나 또는 두셋의 코먼웰스의 권력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다는 특권을 가진다. 그들은 모든 장소의 재화를 재는 공통의 척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질(低質) 화폐는 손쉽게 그 가치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하기도 할 것이다. 둘째로, 그것들은 코먼웰스를 움직일 필요가 있다면 여러 외국의 안으로까지 그 손을 뻗치게 하여 그리고 사사로운 사람으로서 여행하고 있는 신민뿐만 아니라 모든 군대에게도 식품을 공급시킨다는 특권도 가진다. 그러나 그 나라의 각인(刻印)이 없으면 물질 자체로서는 대단치 않는 어떤 주화는 환경의 변화에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많이 효과를 가진다. 그리고 나라 안에서도 또한 법의 변화에 따르고 그것에 따라 그 가치를 낮추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끔 손해를 주는 것이다.

화폐가 공공의 사용에 이르는 도관(導管)과 통로 화폐가 운반되어 공공의 사용에 이르는 도관과 통로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그것을 공공의 금고에로 운반하는 것이고 다른 또 하나는 공공의 지불을 위하여 그것을 다시 교부하는 것이다. 첫째의 종류에는 징수관 · 수취관(受取官) · 재무관과 각기의 공적 · 사적인 대행자의 지불을 위하여 임명된 관리들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한 인공적인 인간은 자연인과의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자연인의 동맥은 신체의 각 부분으로부터 혈액을 받아 그것을 심장으로 운반하여 거기에서 생기가 주어지고 심장은 동맥에 의하여 다시 그것을 밖으로 내보내고 신체의 모든 부분에 생기를 불어넣고 그것이 운동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코먼웰스의 아이들은 이민이다 코먼웰스의 출산(出産), 즉 아이들은 우리가 식민(植民)이라든가 이민이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그것은 주민이 이전부터 없거나, 그 때 전쟁 때문에 없게 됨으로써 비어 있는 외국에 살기 위하여 지휘관이나 총독의 밑에서 코먼웰스로부터 내보내지는 많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민이 정주(定住)한 경우에는 그들은 *(고대의 많은 코먼웰스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을 내보낸 그

주권자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해방된 자기 자신의 코먼웰스가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로마 인민의 이민과 같이 그들의 모국과의 결합을 계속 유지한다. 앞의 경우에는 그들을 내보낸 코먼웰스는 그들의 모국 또는 어머니라고 불리고, 그것이 그들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들이 부권을 해제하여 그 집안의 통치로부터 해방된 아이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 이상은 아니고, 그것은 존경과 우정 정도이다. 그리고 뒤의 경우에는 그들은 그 자체로서는 코먼웰스가 아니라 속주에 지나지 않으며 그들을 내보낸 코먼웰스의 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민단의 권리는 *(그들의 모국에 대한 존경과 동맹을 제외하면)* 그들의 주권자가 그들에게 식민(植民)할 권위를 준 허가증이나 증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다.

제25장 충고에 대하여

충고란 무엇인가 충고와 명령의 두 경우 또는 그 밖의 많은 경우에 있어서 명령법(命令法)의 말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두 경우에 혼동이 나타나는 것처럼 말의 일반적인 불확실한 사용 때문에 사물의 성질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는 명백하게 알 수는 없다. 즉 '이것을 해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하는 사람의 말일뿐만 아니라 충고하는 사람의 말이기도 하며 또 권고하는 사람의 말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누구이며, 그것이 누구를 향하고 있고, 어떠한 경우인가를 알면, 이것들이 크게 다른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않고 그것들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글로 쓰인 말을 사람들의 저작(著作) 속에서 찾아 내어 일의 앞뒤를 고찰하지 못하거나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않거나 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추론하려고 하는 결론이나 시인하려고 하는 행위에 더욱더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로서, 때로는 충고자의 가르침을 명령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으로 잘못 이해하거나 때로는 그 반대의 짓을 하는 것이다. 이들의 잘못을 피해서 이들 명령 · 충고 · 권고라는 말에 대해 그들에게 고유(固有)하고 명확한 뜻을 주기 위하여 나도 그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명령과 충고의 차이 명령이란 그것을 말하는 사람의 의사 이외의 어떠한 이유도 예상하지 않고 '이것을 하라' 또는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의 경우이다. 여기

에서 다음과 같은 것이 명백해진다. 즉 명령하는 사람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자신의 이익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명령한 까닭은 그 자신의 의사뿐이지 각 사람의 의사의 본래의 목적은 그 자신에 있어 어떠한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충고란 사람이 '이것을 하라'라든가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그것에 따라 그가 그것을 말하는 상대에게 돌아오는 이익에서 자기의 까닭을 추론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명백한 것은 충고를 하는 사람은 그가 그것을 해 주는 상대의 이익만을 *(그 의도가 무엇이든)*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충고와 명령 사이의 하나의 큰 차이는 명령은 그 사람 자신의 이익에 뜻을 두고, 충고는 다른 사람의 이익에 뜻을 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으로부터 또 하나의 차이가 생긴다. 즉 사람은 복종하도록 신약했을 때와 같이 명령받은 것을 이룩하도록 의무 지워지는 일은 있으나 그는 충고를 받은 대로 이룩하도록 의무가 지워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에 따르지 않는 데서 생기는 해는 그 자신의 일이기 때문이며, 또 만일 그가 그것에 복종한다고 신약하면 그 경우에 그 충고는 명령의 성질로 바뀌기 때문이다. 충고와 명령의 세 번째의 차이는 어떠한 사람도 다른 사람의 충고자가 될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에 의하여 자기 자신에게 이익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는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계획을 알려고 하는 뜻, 또는 그 자신을 위하여 무엇인가 다른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며 그것은 *(내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각 사람의 의사의 본래의 목적인 것이다.

다음과 같은 것도 또한 충고의 본질에 필연적으로 속한다. 즉 어떠한 충고를 받든 그것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충고를 비난하거나 처벌하거나 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충고를 받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충고를 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권자*(군주이건 합의체이건)*는 충고를 받고자 할 때에는 충고하는 사람은 그것이 대부분의 의견과 일치하고 있든 없든, 토의되고 있는 제안과 일치하고 있든 없든, 그것 때문

에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공평한 것은 아니다. 즉 그것은 만일 합의체의 의향을 토의가 끝나기 전에 알게 되면 그들은 그 이상의 충고를 바라지 않고, 또 제의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합의체의 의향이란 토론을 결정하고 모든 심의를 끝내는 일이다. 또 일반적으로 충고를 바라는 사람은 그 충고의 장본인이고 따라서 그 충고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주권자가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어떠한 사람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한 사람의 신민이 다른 신민에게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도록 충고를 한다면 그 충고는 나쁜 의도이기 때문에, 다만 무지(無知)에서 생긴 것과는 관계없이, 그것은 코먼웰스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다. 왜냐하면 각 사람이 순종하고 있는 여러 법을 알아 두도록 의무가 지워져 있는 데에서는 법을 몰랐다는 것은 만족스러운 구실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권고 및 간언이란 무엇인가 권고 및 간언이란 충고로서 그것을 주는 사람들 중에 그것을 들어 주기를 열렬히 바라는 표시가 아울러 같이 있는 것이다. 또는 그것을 다시 간단하게 말한다면 '열렬하게 강요된 충고'이다. 즉 권고를 하는 사람은 그가 해야 한다고 조언하는 것의 귀결을 추론하고, 그 추론을 함에 있어 참다운 추리를 엄밀하게 이룩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충고하는 사람에게 행위하도록 용기를 불어넣는 것이다. 그것은 간언하는 사람이 상대에게 행위를 삼가 하도록 하는 것과 같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그 이유를 추론함에 있어 그 말 속에 사람들의 공통의 정념이나 의견을 중요하게 보고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자기의 조언에 따르는 효용(效用)이나 명예나 정의에 대하여 설득하기 위하여 직유나 은유 또는 예시나 그 밖의 웅변의 수단을 이용한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것이 추론된다. 첫째로, 권고와 간언은 충고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이익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이익으로 향하게 하는 것은 충고자의 의무에 어긋나는 것이 된다. *(충고의 정의에 따라)*충고자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그가 조언하는 사람의 이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에 관한 길고 열렬한 설득이나 일부러 꾸민 것 같은 충고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 충분히 밝혀지는 것이며, 그것은 그에 대하여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그 자신의 필요에서 나온 것이므로 주로 그 자신의 이익에 향해 있고, 충고를 받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만 우연히 향하거나 또는 전적으로 향해 있지 않다.

둘째로는, 권고와 간언은 사람이 군중을 바라보고 말할 때에만 효용이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말이 한 사람에 대하여 말해지는 것이라면 그는 말의 상대를 가로막아 그의 *(권고나 간언의)* 이유를 군중의 속에서 할 수 있다는 것보다는 엄밀하게 음미(吟味)할 수 있기 때문이며, 군중은 사람 수가 많으므로 그들 전체에게 동시에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사람과의 토론이나 대화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로, 충고를 하도록 요청을 받고 있는데, 권고하고 간언하는 사람들은 타락한 충고자로서, 말하자면 그 자신의 이해(利害)에 따라 매수(買收)당한 것이다. 즉 그들이 주는 그 충고는 더없이 훌륭한 것이라 하더라도 본디대로 그 충고하는 사람은 보수를 받기 위하여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올바른 재판관이 아닌 것과 같이 좋은 충고자는 아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의 가정에 있어서와 같이, 또 통솔자가 군대에 있어서와 같이 사람이 합법적으로 명령할 수 있는 데에서는 그의 권고와 간언은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필요하기도 하고, 칭찬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 경우에는 그들은 이미 충고가 아니고 명령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힘든 노동을 해내야 할 경우라면, 필요에 따라 때때로 또는 인도(人道)상으로는 언제나 전달하기 위하여, 격려에 따라 또는 엄격한 명령 투가 아니라 충고 어린 말투와 말솜씨로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다.

명령과 충고의 차이를 우리는《성경》속에서 그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말의 여러 형태에서 예를 들어 말할 수 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등과 같은 것은 명령이다. 즉 우리가 그것들에게 따르는 이유는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의무 지워져 있으며 우리의 주이신 신의 뜻에서 비롯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19] 등의 말은 충고이다. 즉 그것은 우리가

19 〈마가복음〉 10장 21절.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우리 자신의 이익에서 나오기 때문이며, 그 이익이란 우리가 '천국(天國)에서 보배'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을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노새와 그 망아지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라. 그를 풀어 내게로 데려오라'[20]는 말은 명령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그들의 주인의 뜻에서 이끌어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개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리라'[21]는 말은 충고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배반한다 하더라도 더욱 왕다운 전능한 신의 이익에 보탬이 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이익에 보탬이 되기 때문이며 우리는 자기들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뻗쳐 덮치는 처벌을 피하는 수법이 이것밖에는 달리 없기 때문이다.

적당한 충고자와 부적당한 충고자의 차이 충고와 명령의 차이는 충고를 받는 사람이 그들의 제안하는 행위의 필연적이고 또 가능한 여러 귀결로부터 자기를 위하여 나오는 이해(利害)를 추론하는 그러한 충고의 본질에서 이끌어 냈지만 '적당한' 충고자와 '부적당한' 충고자의 차이도 같은 데서 이끌어 낼 수 있다. 즉 경험이란 이전에 관찰된 비슷한 행위의 여러 귀결의 기억에 지나지 않으며, 충고란 그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말에 지나지 않으므로, 훌륭한 충고와 만족스럽지 못한 충고는 훌륭한 지성(知性)과 만족스럽지 못한 지성과 같다. 코먼웰스의 인격에 대해서는 그의 충고자들이 기억과 마음속의 이야깃거리를 대신(代身)하도록 힘쓴다. 그러나 코먼웰스와 자연인과의 이와 같이 비슷한 것은 하나의 더없이 중요한 차이가 뭉쳐져 있다. 그것은 자연인은 그의 경험을 감각의 자연적인 대상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이 대상은 그들 자신의 정념이나 이해에 대한 관심도 없이 그들에게 작용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에 반해 코먼웰스의 대표적인 인격에 대해 충고를 해 주는 사람들은 그들의 개별적인 목적이나 정념을 지닐 수 있고 때로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들의 충고를 언제나 의심스러운 것으로 보고 때로는 성실하지 못한 것으로 만든다. 따라서 우리는 훌륭한 충고자의 첫째 조건으

20 〈마태복음〉 21장 2절.
21 〈사도행전〉 2장 38절.

로서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충고자의 목적이나 이해에 대한 관심이 그가 충고하는 상대의 목적이나 이해에 대한 관심과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충고자가 해야 할 일은 어떤 행위를 깊이 생각할 때 충고를 받는 사람이 그 여러 귀결을 진실로 그리고 명백하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밝히는 것이므로, 충고자는 조언을, 진실이 더욱더 명백히 밝혀질 수 있는 형태로 제안해야 한다. 즉 증거가 허락하는 한, 확고한 추리에 의하여 얻은 결론과 그 뜻을 전하는 정확한 말로서, 더욱 간결하게 해야 한다. 따라서 '경솔하고 증거가 없는 추론'*(실례 또는 서적의 권위에서만 뽑아 낸 것이나 좋고 나쁜 논증이 없는 사실은 의견의 증언만 있는 조언)*이나 '모호하고 혼돈되고 애매한 표현' 및 '체념을 북돋우는 경향이 있는 모든 비유적인 말'도 또한 *(왜냐하면 그러한 추론, 그러한 표현은 우리가 충고를 주는 상대를 속이거나 그 자신의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끌거나 하기 위해서만이 유효하기 때문에)* '충고자로서의 역할에는 모순되는 것'이다.

셋째로, 충고하는 능력은 경험과 오랜 연구의 결과에서 나오는 것이며, 어떠한 사람도 대규모의 코먼웰스의 운영을 위하여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 모든 일에 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사람도 그가 만족스럽게 능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성찰하고 고찰한 일에 관해서만이 훌륭한 충고자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즉 코먼웰스의 일은 인민을 위해 국내에서는 평화를 유지하고,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그들을 방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이 인류의 성향, 통치의 여러 권리, 형평 · 법 · 정의 · 명예의 본질에 대한 연구를 함으로써 비로소 얻을 수 있는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것이다. 더욱 자신의 나라와 이웃 여러 나라와의 쌍방의 힘 · 재화 · 위치에 대하여, 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자기들을 곤란하게 할지도 모르는 모든 국민의 성향이나 계획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일은 풍부한 경험이 없이는 이룩할 수 없다. 이런 일들 중에서 그 전체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일에 관해서도, 또한 한 사람의 몇 년에 걸친 또는 통상을 넘어서는 연구에 의한 세월과 관찰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충고를 위해 필요로 하는 지혜라는 것은 앞(8장)에서 논한 바와

같이 판단력이다. 이 점에 관한 사람들의 차이는 여러 가지 종류의 연구나 일에 대하여 사람들이 각자 받은 교육의 차이에서 나타난다. 만일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이치에 어긋나지 않는 *(기관이나 건축에 있어 기하학의 규칙과 같이)* 여러 가지의 규칙이 있다면, 세계 속의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서도 이 규칙을 배우고 또는 찾아낸 사람의 충고에 비길 수 없다. 이런 규칙이 없을 때에는 그 개별적인 종류의 일에 관한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지는 사람이 그것에 관한 가장 좋은 판단을 가지며 가장 훌륭한 충고자이다.

넷째로, 다른 코먼웰스에 관한 일에 대해 충고를 주기 위해, 거기에서 나오는 '정보나 문서 및 두 나라 사이의 조약이나 그 밖의 나라 사이의 협정 등 모든 기록을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으며' 그것은 대표가 적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외의 어떠한 사람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충고하기 위하여 소집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는 무리하게 강요할 수 있는 훌륭한 충고를 전적으로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로, 충고자의 수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그들을 별도로 떼어 놓고 듣는 것이 합의체로서 듣는 것보다는 보다 좋은 충고를 얻을 수 있다. 거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다. 첫째로는 그들로부터 별도로 들음으로써 각 사람의 조언을 얻은 것이나 합의체에 있어서는 그들의 대부분은 자기 자신의 의향에 따라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웅변에 의하여 움직이고, 또는 반대함으로써 앞에서 말한 사람들이나 합의체 전체를 불쾌하게 하지는 않을까 또는 반대 의견에 찬성한 사람들보다도 이해력이 둔하다고는 생각지 않는가라고 두려워하여 자기들의 조언을 단지 '그렇다' 또는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과 발로 전하는 것이다. 둘째로, 여러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합의체에 있어서 공공체는 반대의 이해를 가지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으므로 이들 사람들은 그들의 정념을 격하게 흥분시키고, 정념을 웅변으로 만들고, 웅변은 다른 사람들을 같은 조언으로 끌어들인다. 즉 사람들의 정념이 산산이 흩어져 있다면, 한 토막의 타다 남은 나무의 열과 같이 온건한 것이 되나 합의체에 있어서는 많은 나무가 서로 불을 붙이는 것같이 *(특히 그들이 달변(達辯)으로 불붙일 때는)* 코먼웰스에게 충고한다는 구실로서 그것에 불을 낳게 한다. 셋째로, 각

사람이 개별적으로 들을 때에는 가끔 말을 중단시키거나 반대 의견을 내거나 하여 그가 충고하는 이유나 근거의 진실성이라든가 또는 가능성 등을 *(필요하다면)* 음미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합의체에 있어서는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으로서 거기에서는 *(모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사람은 그가 의당히 택해야 할 진로(進路)에 관해 알게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것에 관한 논의의 다양성에 놀라 현혹당하게 된다. 거기에다 더욱 조언을 위하여 소집된 여러 사람으로 이루어진 합의체 속에는 웅변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 정치학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려는 야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없다고도 말할 수 없다. 그들은 제안된 일에 특히 뜻을 두지 않고 많은 저술가들의 여러 가지의 색(色)들여진 연결이나 조각으로 이루어진 다채로운 달변에 대해 칭찬을 받고자 먼저 마음을 쓰면서 조언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진지한 토의의 시간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일이며 그것은 하나하나 떼어서 충고한다는 비밀의 방법으로서 쉽게 피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로, 비밀로 해 두어야 할 심의에 대하여 *(공적인 일에 있어서는 이러한 경우가 많다)* 수가 많은 특히 합의체에 있어서의 충고는 위험하며 그러기 때문에 큰 합의체는 그러한 일에 더욱 정통하고 있고 또한 그 성실성을 그들이 더욱 믿고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보다 수가 적은 합의체에게 위임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자기 아이들의 결혼, 토지의 처분, 집안일의 통제, 사적인 재산의 관리에 대하여 충고자의 대규모의 합의체에 대해 충고의 노고를 끼치거나 그 충고를 받아들이거나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 것인가. 더욱이 그들 중에는 그의 번영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사람들은 많은 현명한 충고자의 도움을 받아 그 일을 해 나가고, 더욱 각 사람은 별도로 그에게 어울리는 영역에 관한 충고를 한다면 테니스를 칠 때, 올바른 위치를 차지하는 유능한 보조자들을 쓰는 사람과 같이 그 사람은 자기의 일을 더욱더 잘 할 수 있는 것이다. 자기의 판단만을 활용하는 사람은 차선이며, 보조자 없이 테니스를 치는 것과 같다. 그러나 과반수의 찬성 의견이 없으면 변경할 수 없고, 그것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선망이나 이해 관계에서)* 찬성하지 않는 쪽에 의하여 방해를 받기도 하지만, 충고의 틀 안에서 동요하면서도 자기의 일을 해 나가는 사람은

더욱 서툴게 그 일을 이룩한다. 이 사람은 마치 뛰어난 경기자들에 의하여 공이 있는 곳까지 뛰어 옮겨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손으로 끄는 수레나 그 밖의, 그것만으로도 무거운 수레의 틀 속에 들어 있고, 또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하나하나 흩어져 있는 판단과 노력에 의하여 방해를 받는 사람과 같은 것이다. 이 손으로 끄는 수레를 위해 손을 빌려 주어 협조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은 더욱더 심하게, 또 그 속에는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이 그가 실패하기를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더욱더 서툰 일인 것이다. 확실히 많은 눈은 하나의 눈보다 많은 것을 보지만, 그것은 충고자가 많다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라고는 풀이할 수 없고, 한 사람이 마지막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만 그와 같이 풀이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많은 눈은 같은 물건을 여러 가지의 방향에서 보는 것이며, 그들의 사적인 이익의 방향으로 곁눈질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목적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표적을 찾으려고 주위를 살피는 경우에는 두 눈을 쓰나 겨냥할 때에는 한 눈만 쓴다. 그러기 때문에 민주적인 큰 코먼웰스는 바깥 적에 대하여 결속되고 있는가, 그들 중의 어느 한 사람의 뛰어난 인물의 명성에 의한 것인가, 소수자의 비밀의 충고에 의한 것인가, 대등한 당파의 서로 간의 두려움 이외에는 합의체의 공개에 관한 협의에 의해서 이제까지 유지되어 온 일은 없었다. 그리고 극히 작은 코먼웰스에 대해 말하자면 그들이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서도 강대한 이웃 여러 나라들에 대한 질투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밖에는 이 코먼웰스를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제26장 시민법에 대하여

시민법이란 무엇인가 시민법이라고 말할 때 나는 이런저런 개별적인 코먼웰스가 아니라, 코먼웰스라고 하는 것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키도록 구속되는 법이라고 풀이한다. 즉 개별적인 여러 법의 지식은 각 나라의 법률 연구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의 일이지만 시민법 일반에 대한 지식은 어떠한 사람에게도 관계되는 것이다. '로마의 고대법은 코먼웰스를 말하는 '도시(都市, civitas)'라는 말에서 그들의 '시민법'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미 로마 제국의 통치 밑에서 그 법에 의하

여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중에서 그들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보존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그 부분을 그때 이후 그들 자신의 시민법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하여 시민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내가 논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나의 계획은 여기저기의 법이 무엇인가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 그 밖의 여러 사람들이 법의 연구를 직업으로 삼지 않고 해 온 바와 같이 무엇이 법인가를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첫째로, 분명한 것은 법 일반은 충고가 아니라 명령이며 또 임의(任意)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명령이 아니라, 이전에 그 사람에게 복종하도록 의무가 지워진 사람을 향하여 그만이 할 수 있는 명령이다. 또한 시민법에 관해서는 '도시의 인격(Persona Civitas)', 즉 코먼웰스의 인격이지만, 명령하는 인격의 이름만이 기록될 수 있다.

위의 점으로 미루어 생각하여 나는 시민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시민법이란 '모든 신민에 대한 규칙이며 그 규칙은 코먼웰스가 말이나 편지나 그 밖의 의사를 나타내기에 충분한 표지에 따라, 각 신민에게 명령한 것이며 그것은 올바르고 그른 것의 구별, 즉 무엇이 그 규칙을 어기고 무엇이 어기지 않는가를 구별하는 데 쓰이기 위한 것이다.'

이 정의의 내용은 언뜻 보기에는 명백한 것이다. 각 사람은 법에는 모든 신민 일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개별적인 속주(屬州)나 직업이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법은 이 명령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 중의 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똑같이 또한 각 사람은 어떤 법을 어기지 않으면 어떠한 부정(不正)을 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여러 법이 옳고 그른 것에 관한 규칙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의 신민은 코먼웰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코먼웰스 이외의 어떤 것도 법을 만들 수 없다는 것, 또 그 명령은 만족스러운 표지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어떻게 하여 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표지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정의로부터 나오는 필연적인 귀결에 따라 이끌어 나오는

것은 모두 진리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나는 위에서 말한 것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것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1. **주권자가 입법자이다** 모든 코먼웰스의 입법자는 주권자 이외에는 없고 그가 왕정에 있어서처럼 한 사람이든, 민주 정치와 귀족 정치에 있어서와 같이 사람들의 합의체이든 그러하다. 입법자라는 것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코먼웰스만이 우리가 법이라고 부르는 여러 규칙을 정하여 그것을 준수할 것을 명령한다. 그러기 때문에 코먼웰스가 입법자이다. 그러나 코먼웰스는 인격이 아니라 대표*(즉 주권자)*에 따르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주권자가 유일한 입법자인 것이다. 같은 이유에서 주권자 이외에는 어떠한 사람도 만들어진 법을 폐지할 수 없다. 즉 법은 그것이 실시되는 것을 금지하는 다른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폐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2. **그리고 시민법에는 복종하지 않는다** 코먼웰스의 주권자는 합의체이든 한 사람이든 시민법에는 복종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여러 법을 만들기도 하고 폐지하기도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권자가 바란다면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을 만듦으로써 그 법에 복종하는 것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그러하기 이전부터 자유였다는 것이다. 자기가 바랄 때에 자유롭게 될 수 있다면 그는 자유이기 때문이다. 또한 어떠한 인격을 위해서도 자기 자신에게 구속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즉 구속할 수 있는 사람은 면제도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에게만 구속당하는 사람은 구속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3. **관습은 시간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권자의 동의에 의하여 법이 된다** 오래 지속된 관습이 법의 권위를 얻는 경우, 그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시간의 오래됨이 아니라, 주권자가 침묵 속에서 밝힌 그의 의지이며 *(왜냐하면 침묵이란 때로는 동의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관습은 주권자가 그것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는 한에서만 법인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주권자가 그의 현재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전에 만들어진 법에 바탕을 둔 권리에 대하여 의문을 품는다면 시간의 오래됨에 의하여 그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형평에 의하여 판정되어

야 한다. 왜냐하면 수많은 부당한 소송이나 불공평한 판결은 만인의 기억이 아득할 정도의 오래된 예부터 통제되지 않은 채 그대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률가들은 합리적인 것 이외의 어떠한 관습도 법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쁜 관습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이 합리적인가 또 무엇이 폐기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판결은 법을 만드는 사람, 즉 주권 합의체나 군주에게 속하는 것이다.

4. 자연의 법과 시민법은 서로가 서로를 포함한다 자연의 법과 시민법은 서로 다른 법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같이 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연의 법은 형평 · 정의 · 보은 및 그들에게서 비롯되는 여러 도덕에 매여 있는 것이나 그것은 전적인 자연 상태에서는 *(앞의 15장 끝에서 논한 바와 같이)* 원래는 법이 아니라 사람들을 평화와 복종을 향하게 하는 성질의 것이다. 코먼웰스가 일단 성립되면 그때에는 그것은 현실적으로 법이 되는 것으로서 그때까지는 법이 아닌 것이다. 즉 그 경우에는 그것은 코먼웰스의 명령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그들은 시민법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종하도록 의무 지워지는 것은 주권이기 때문이다. 즉 사적인 인간의 의견의 차이가 있는 가운데서 무엇이 형평이고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도덕인가를 밝히고 그것을 구속적인 것으로 이룩하기 위해서는 주권의 명령이 필요하며 거기를 어기고 범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벌칙이 정해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들의 명령은 시민법의 일부이며 따라서 자연의 법은 세계 속의 모든 코먼웰스에 있어서 시민법의 일부인 것이다. 또한 거기에 대응하여 시민법도 또한 자연의 명령의 일부인 것이다. 왜냐하면 정의, 다시 말하면 신약(新約)을 지키는 것과 각 사람에게 각자의 것을 준다는 것은 자연의 법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먼웰스의 각 신민은 *(그들이 공통의 대표를 만들기 위하여 모이는 경우와 같이 각 사람이 서로 신약하든가 또는 칼로써 굴복당하여 그 생명을 용서받기 위하여 그가 복종을 신약하는 경우와 같이 한 사람씩 대표 자신을 신약하든가 했든 관계없이)* 시민법에 복종하기를 신약했다. 따라서 시민법에 대한 복종 또한 자연의 법의 일부인 것이다. 시민법과 자연법은 다른 종류의 법이 아니라 법의 다른 부분이며 그중 한쪽은 쓰여 있기 때문에 시민법이라고 일컬어지고, 다른 쪽은 쓰여 있

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의 권리, 즉 사람의 자연적인 자유는 시민법에 의하여 축소 또는 억제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을 만드는 목적이 적어도 이러한 억압을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이러한 것이 없다면 도저히 평화는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법이 태어나게 된 것은 서로 해치지 않고 서로 도우며 공통의 적에 대항하여 결속하도록 개개인의 자연적인 자유를 제안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5. 속주(屬州)의 법은 관습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권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만일 어떤 코먼웰스의 주권자가 다른 성문법에 바탕하여 생활해 온 한 국민을 굴복시켜서 그 후, 이전에 그들이 통치받고 있던 것과 똑같은 법률에 따라 통치한다 하더라도, 이들의 법은 승리자의 시민법이지 패배한 코먼웰스의 신민법은 아니다. 왜냐하면 입법자는 그 권위에 의하여 맨 처음에 법을 만든 사람이 아니고, 그 권위에 의하여 현재 그 법을 법답게 계속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코먼웰스의 영토 안에서 여러 가지의 속주가 있어 그들의 속주에 일반적으로 그 각 속주의 관습이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의 법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는 그들의 관습은 시간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효력을 갖는다고 풀이할 수는 없다. 그렇지 않고 그들은 그들 속주의 주권자가 제정한 것 또는 법문(法文)으로서 쓰여 있거나 다른 방법으로 발표되거나 한 법이었다는 것, 또 오랫동안 사용되었기 때문에 공인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주권자들이 제정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법이 된다고 풀이해야 한다. 그러나 한 속주의 여러 속주 안에서 어떤 불문의 법이 일반적으로 지켜지고 있고 그것을 쓰고 있어도 어떠한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 법은 모든 인류를 한결같이 의무 지워주는 자연의 법에 지나지 않는다.

6. 입법에 관한 법률가들의 약간의 어리석은 견해 따라서 법은 성문이든 불문이든 그 권위와 효력은 코먼웰스의 의지, 즉 대표의 의지에서 얻으며 그 대표라는 것은 왕정에 있어서는 군주, 그 밖의 코먼웰스에 있어서는 주권 합의체라고 본다면, 사람들은 몇몇 코먼웰스의 저명한 법률가들의 저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견해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고 이상하게 여길 것이다. 그 견해는 직접적으로 또는 결과적으로 입법권을 사사로운 개인 또는 하위의 재판관들에게 돌리고 있다. 예를

들면 '보통법(普通法)은 의회 이외의 통제자를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지만, 이것은 의회가 주권을 가지고 그들 자신의 재량에 따라서만이 소집도 해산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올바르다. 왜냐하면, 만일 그들을 해산하는 권리가 다른 누군가에 있다고 하면 그들을 통제하는 권리도 따라서, 그들의 통제를 통제하는 자라도 다른 누군가에 있기 때문이다. 만일 또 그러한 권리가 없다면 그 경우에는 법의 통제라는 '의회'가 아니라 '의회에 있어서의 왕'이다. 그리고 의회가 주권자인 곳에서는 그것이 그들에게 순종하는 여러 지방에서, 어떠한 대의명분에 바탕하여, 얼마나 많은 현명한 사람들을 소집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따라 이와 같은 합의체가 입법권을 자기들만이 받았다고는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코먼웰스의 두 팔은 힘과 정의로서 앞의 것은 왕에게 있고 뒤의 것은 의회의 손에 맡겨져 있다'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정의가 명령하고 통치하는 권위를 갖지 않는 사람의 손에 힘이라는 것이 맡겨져 있어도 코먼웰스는 존립할 수 있을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7. 법은 결코 이성을 어길 수 없다는 것 법이란 문자*(즉 그것의 각 구성 부분)*가 아니라 입법자의 의도에 일치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률가들이 동의하는 바이다. 그리고 그것은 정당한 것이지만, 문제는 어떠한 사람의 이성이 법으로서 받아들여져야 할 이성인가라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사적인 이성을 뜻하지 않는다. 사적 이성이 법인 경우에는 스콜라 학파에 있어서와 같이 여러 법속에 많은 모순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에드워드 코크 경의 《리틀턴 주해》 97장의 b 그것은 또 *(에드워드 코크 경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오랜 세월에 걸친 연구, 관찰, 경험에 의하여 얻어진 이성의 인공적인 완성'*(그의 이성이 그러했던 것처럼)*도 아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을 연구하고 있는 동안에 잘못된 판결문의 수를 늘릴 수도 있고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릇된 바탕 위에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하면 할수록 그 와해도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같은 시간과 부지런함을 가지고 연구하고 관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추리와 해답은 변함없이 일치하지 않는 그대로이고 또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것은 '법의 신려(愼慮)' 즉 하위의

재판관들의 지혜가 아니면, 이런 우리의 인공적인 인간, 즉 코먼웰스의 이성과 명령인 것이다. 그리고 코먼웰스는 그 대표에 있어서 오로지 하나의 인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법 사이에서 어떠한 모순이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 않으며 그것이 나타날 경우에는 이 똑같은 이성이 해석 또는 변경에 의하여 그 모순을 없앨 수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의 법정에서 주권자*(그것은 코먼웰스의 인격이다)*는 재판을 하는 사람이다. 하위의 재판관은 주권자에게 그러한 법을 만들게 한 이성을 존중하고 그의 판결이 그것과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그 경우, 그 재판은 주권자의 판결이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그 자신의 것으로서 올바르지 못한 것이다.

8. 법이 만들어져도 발표되지 않으면 법이 아니다 법은 명령이며 명령은 명령하는 사람의 의지나 소리나 서면(書面) 그 밖의 그것에 대한 충분한 증거에 의한 선언 또는 표명(表明)이지만, 이러한 것으로부터 우리는 코먼웰스의 명령은 그것을 아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만이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어리석은 사람, 어린이, 미치광이에게 있어서는 이성을 갖지 않는 짐승과 같이 법은 존재하지 않고 또 그들은 옳고 그른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신약하는 힘이나 그 귀결을 이해하는 힘뿐만 아니라 그 밖의 어떤 것도 갖지 않으며 따라서 그들은 자기의 코먼웰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같이 주권자의 행위를 스스로 권위 지운다는 것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태어나면서 또는 사고(事故)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든 법의 인식을 빼앗긴 사람들과 같이 자기 자신의 태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어떠한 사고 때문에 어떤 특별한 법을 아는 수단을 빼앗기고 있는 사람은 모두 그가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용서받게 되는 것이며, 정당하게 말한다면 이 법은 그에게는 법이 아닌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무엇이 법인가, 다시 바꾸어 말하면 왕정이든 그 밖의 통치 형태이든 무엇이 주권자의 의지인가를 알아 내기 위한 충분한 증거와 표지는 무엇인가에 관해 여기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불문(不文)의 법은 모두가 자연의 법이다 그리고 첫째로, 만일 모든 신민을 예외 없이 의무를 지워 주고 또 쓰여 있지도 않으며 그 밖에 그것을 알아야 할 곳에서 공포(公布)도 되어 있지 않는 것이 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연의 법이다. 왜냐하

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고 각 사람 스스로의 이성에 의하여 법으로서 알아야 할 것은 모두 만인의 이성에 의해서도 동의할 수 있는 것에 틀림이 없으며 그것은 자연의 법 이외의 어떠한 법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자연의 여러 법은 '그대 자신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하면 불합리하다고 그대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모든 세계에서 시인되고 있는 이 하나의 격언에 들어 있는 것으로서 공포나 포고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둘째로, 만일 사람들의 어떤 상태만을 또는 특정 개인에게만 의무 지워 주는 하나의 법이 있어 그리하여 그 법이 쓰여 있지도 않고 말에 의하여 공포도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도 또한 자연의 법으로서 그것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어떤 사람과 다른 신민들과를 구별하는 것과 같은 증거나 표지에 의하여 알려진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법을 법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에 의하여, 성문화도 되어 있지 않고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공포도 되어 있지 않은 것은 그것에 복종해야 할 사람의 이성에 의해서만이 알려질 수 있으며, 그러기 때문에 그것 또한 시민법일 뿐만 아니라 자연법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만일 주권자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문서로 된 지시를 주는 일도 없이 한 사람의 공적인 대행자를 쓴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성의 명령을 지시로 여기도록 의무 지워지는 것이다. 즉 그가 재판관은 그 판결을 자기의 주권자의 이성과 일치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주권자는 항상 공평한 것이라고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그러한 바와 같이 자연법에 구속되어 있다. 또 대사(大使)를 임명한다고 하면 그는 *(문서로 된 지시 이외의 모든 일에 관하여)* 이성이 그의 주권자의 이익에 더욱더 보탬이 된다고 명령하는 것을 지시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공적이든 사적이든 다른 모든 주권의 대행자에 관해서도 같다. 자연적인 이성의 모든 이러한 지시는 '성실(誠實)'이라는 하나의 명칭 속에 포함될 수 있다. 그것은 자연적인 정의의 일부분이다.

자연의 법 이외의 다른 모든 법에 있어 더없이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그러한 법에 복종하도록 의무 지워지는 각 사람에게 대하여 주권자의 권위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이나 서면이나 그 밖의 행위에 의하여 알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의지는 그 자신의 말이나 행위 또는 그

의 의도나 목적으로부터 나오는 추측에 따르지 않으면 이해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의지는 코먼웰스의 인격에 있어서 형평과 이성에 항상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옛날, 문자가 일반적으로 쓰이기 이전에는, 법은 가끔 시(詩)의 꼴로 만들어졌으나 그것은 그들의 시를 노래하거나 읊거나 하며 즐기고 있던 미개(未開)의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다 쉽게 기억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같은 이유에서 솔로몬은 어떤 사람에게 십계(戒)를 그 열 개의 손가락에 매도록 조언하고 있다.[22] 그리고 모세가 신약을 갱신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법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23] 남자, 여자, 아이들 등 백성을 모아 그들에게 이것을 들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24]라고 모세는 명령하고 있다.

입법자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 것도 법이 아니다 법은 또 쓰이거나 공포되거나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밖에도 그것이 주권자의 의사에서 나왔다는 명백한 표지가 없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만일 사사로운 개인들이 그 부정한 음모를 잘 이룩해 내거나 또는 그 야심적인 목적을 안전하게 이룩해 내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하면 그들은 입법의 권위도 가지지 않으면서도 또 그것과는 반대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법의 포고뿐만 아니라 권위가 주어지는 사람과 그 권위에 대한 만족스러운 표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권위를 가지는 사람, 즉 입법자는 각 코먼웰스에서 뚜렷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그는 주권자로서 각 사람의 동의에 따라 세워지고 각 사람에게 충분히 알려져 있다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은 무지나 방심 때문에 대개 그들이 처음에 코먼웰스를 세웠을 때의 기억이 희미해지면 누구의 힘에 따라 자기들은 항상 그의 적의 방위를 받고 있는가 또는 누구의 힘에 따라 자기들의 근로(勤勞)가 보호를 받고 있으며, 침해를 받았을 때는 권리를 회복받을 수 있는가를 잊어

22 〈잠언〉 7장 3절.
23 〈신명기〉 11장 19~20절.
24 〈신명기〉 31장 12절.

버릴 정도이지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명백한 일이기 때문에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를 모른다는 구실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도 그 권력, 즉 그가 다른 사람들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요구하고 스스로 받아들인 그 권력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자연적인 이성, 즉 틀림없이 자연의 법이며 명령이다. 그러기 때문에 누가 주권자인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람도 자기의 태만이 아닌 이상, *(간사하고 나쁜 사람이 무엇을 말하든)* 의심을 사게 할 수는 없다. 여기에서 어려운 일은, 그로부터 나온 권위를 입증하는 일로서 그 어려움을 없애는 것은 공공의 기록, 공공의 회의, 공공의 대행자, 공공의 인장(印章)에 관한 지식에 달려 있고, 그것들에 의하여 모든 법이 충분히 입증된다.

입법과 권위를 지워 주는 것의 차이 나는 입증된다고 말했지, 권위가 지워지는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입증이란, 증명과 기록에 지나지 않으며 법의 권위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의 권위는 주권자의 명령에만 있는 것이다.

법은 하급 재판관에 의하여 입증된다 따라서 사람이 만일 자연의 법, 즉 공통의 형평에 관계되는 침해라는 문제에 부딪치면 그러한 소송 사건을 심리하는 권위를 위임에 따라 갖게 되는 재판관의 판결은 그 하나의 사건에 있어 자연법의 만족스러운 입증이 된다. 왜냐하면 법의 연구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의 조언은 말다툼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나, 그것은 조언에 지나지 않으며 논쟁의 심리를 함에 있어서는 무엇이 법인가를 사람들에게 밝혀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은 재판관이기 때문이다.

공공의 기록에 의하여 그러나 문제가 성문법에 있어서의 권리의 침해나 범죄에 관련되는 것인 경우에는 각 사람은 그가 그러한 침해를 하고 죄를 범하기 전에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기록을 조회하여 그것이 침해가 되는가 아닌가를 *(그가 원한다면)* 충분히 알 수 있다. 오히려 그는 그렇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하려고 하는 행위가 정당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의심스럽고 더욱 하고자 생각할 때 알아보지도 않고 그것을 한다는 것은 불법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람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것을 조사하고 고찰할 수 있는 성문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건에 있어 자신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가 만일 법

을 조사해 보기 전에 불평을 한다면 그는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며 자기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공개 증서 및 공공의 인장에 의하여 문제가 공공의 관리에 대한 것이나 복종에 관한 것이라면 공공의 인장을 찍은 위임장을 보이도록 하고 그것을 읽어 들리도록 하며, 또는 사람이 바란다면 그것에 관해 알 수 있는 방법을 주는 것은 관리의 권위를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각 사람은 그 자신의 이후의 행위에 관계있는 모든 성문법에 대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의무가 지워져 있기 때문이다.

법의 해석은 주권에 바탕을 둔다 입법자가 알려져 있고 여러 법이 서면이나 또는 자연의 태양 빛 아래에서 충분히 공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의무가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극히 중요한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법의 본질은 문자가 아니라, 그 의도나 뜻, 즉 법의 권위 있는 해석*(그것은 입법자의 의향이다)*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법의 해석은 주권자의 권위에 바탕을 두어 해석자는 주권자*(신민은 그에게만 복종한다)*가 임명하는 사람들 이외에는 있을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해석자의 재간에 따라 법은 주권자의 의향과는 반대되는 의향을 갖게 되고, 그것에 따라 해석자는 입법자가 되는 것이다.

모든 법은 해석을 필요로 한다 성문, 불문에 관계없이 모든 법은 해석을 필요로 한다. 불문의 자연의 법은 공평무사하고 정념에 사로잡히는 일 없이 자연적인 이성(理性)을 활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해석은 손쉬운 것이며, 따라서 그 침범자에 대하여 조그만한 핑계도 용서치 않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의 경우에 이기심이나 그 밖의 정념 때문에 눈이 가려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으며, 적어도 전에 없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자연의 법은 모든 법 중에서도 보다 더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며 따라서 능력 있는 해석자를 더욱 필요로 한다. 성문법이 짧으면 한두 개 낱말에 대한 여러 가지 말뜻 때문에 오해하기 쉽고, 길면 많은 여러 가지의 말뜻 때문에 또다시 그 성문법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수의 또는 다수의 말로 전달되는 성문법은 모두 그 법이 만들어진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완전한 이해 없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이 궁극적인 목적은

입법자가 알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는 법속에 있는 어떠한 매듭도 그것을 풀기 위한 목적을 찾아 내는 것보다는, 또는 입법권에 의해 *(알렉산더가 고르디우스의 매듭에 대해 그의 칼을 가지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생각대로의 목적을 만듦으로써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다른 해석자가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법의 권위 있는 해석이란 저술가들의 그것은 아니다 코먼웰스에 있어서 자연의 여러 법의 해석은 도덕 철학의 서적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다. 코먼웰스의 권위가 없으면 저술가들의 권위는 그들의 의견을, 가령 그것이 얼마나 진실이라 하더라도 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여러 도덕에 대하여 또 평화를 가져오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하여 이 논고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법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며 세계의 모든 코먼웰스에서 그것이 시민법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즉 그것이 본래 이성적인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법일 수 있는 것은 주권에 바탕을 두는 것이다. 자연의 여러 법에 대해서는 수많은 책이 공간(公刊)되고 서로 또는 그 자체 속에 수많은 모순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으므로 그것을 불문의 법이라 부르는 것은 큰 잘못이다.

법의 해석자는 모든 개별적인 소송 사건에서 구두(口頭)로 판결을 하는 재판관이다 자연의 법의 해석은 그것에 관한 논쟁을 심리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주권자의 권위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의 판결 속에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재판에 있어 재판관은 당사자의 요구가 자연적인 이성과 형평에 일치하고 있는가 아닌가라는 것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그의 판결은 자연의 법의 해석이 된다. 이 해석은 그의 사적인 판결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가 그것을 주권자의 권위에 의해 내리고, 그것 때문에 그것이 주권자의 판결이 되기 때문에 권위 있는 것이 되는 것이며, 그것이 그 경우의 소송 당사자에 대한 법이 되는 것이다.

어떤 한 재판관의 판결은 그 스스로나 또는 다른 재판관에게 그 후의 같은 소송 사건에 있어 같은 판결을 내리도록 구속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급 재판관이나 주권자도 형평을 주종(主宗)으로 하는 판결에 있어서 전적으로 잘못이 없

다고는 말할 수 없으므로 만일, 나중에 그가 같은 소송 사건에서 반대의 판결을 하는 것이 보다 더 형편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는 그렇게 하도록 의무가 주어진다. 누구의 잘못이든 결코 그 자신의 법이 되지는 않으며 그것을 고집하도록 그에게 의무가 지워지는 일도 없다. 또는 *(같은 이유에 따라)* 다른 재판관들이 그의 판결에 따르도록 맹세를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에게 대해서는 법이 될 수는 없다. 즉 주권자의 권위에 의하여 내려진 잘못된 판결이라도, 그(주권자)가 알고 있어 허용한다면, 변화할 수 있는 여러 법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사소한 사정이 같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게 되나, 자연의 여러 법과 같은 불변의 법의 경우에는 그 이후 영구히 같은 여러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재판관을 위한 법이 될 수는 없다. 왕후들은 차례로 계승하여 한 사람의 재판관이 물러가면 다른 재판관이 오며 그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도 변하는 것이겠지만 자연의 법의 권원(權源)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이다. 그것은 신의 영원한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까지 선임한 재판관들의 여러 가지 판결을 가지고도 자연적인 형평을 어기는 법을 만들 수는 없고 또 이전의 재판관들의 어떠한 선례도 부조리한 판결을 정당하다고 하거나 현직의 재판관이 *(판결하는 경우에)* 그 자신의 자연적 이성의 여러 원리로부터, 무엇이 형평인가를 연구하기 위한 노고를 벗어나거나 하는 일은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죄가 없는 사람을 벌한다는 것'은 자연의 법을 어기는 것이며, 그리고 죄가 없는 사람이란 재판에 의하여 무죄가 되고 재판관에 의하여 죄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여기에서 그러한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어떤 사람이 사형에 처할 만한 무거운 죄 때문에 고소당했으나 적의 힘이나 원한의 뜻, 재판관들에게서 가끔 볼 수 있는 수뇌나 불공평을 알고, 사태가 되어 가는 것을 두려워하여 도망하고, 나중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지고, 자신은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죄도 없었다는 것을 충분히 밝혀 그것에 대해서는 무죄의 선고를 받으면서도 더욱 나아가 그의 재화는 몰수된다는 선고를 받는다고 하자. 이것은 분명히 죄가 없는 사람에 대한 유죄의 선언이다. 그러기 때문에 나의 의견으로는 이것이 자연의 법의 해석이라든가 그와 같은 일을 한 전임 재판관들의 판결에 따라 하나의 법이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세계 속의 어디에도 있을 수 없다.

즉 그것은 처음에 재판한 사람이 부정하게 재판한 것이며 부정은 그 후의 재판관들에 의한 판결의 모범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성문법에서는 죄가 없는 사람들이 도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그들이 도망했기 때문에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람이 이미 재판에서 죄를 면제받은 후에는 침해당한다는 공포 때문에 도망했다는 것이 유죄의 추정을 위하여 채택된다는 것은 추정의 본질을 어기는 것으로서, 판결 후에는 추정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이것은 영국의 보통법이라고 하여 어느 대법률가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만일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는 말한다)* 무거운 죄의 이유로 고소를 당해, 그것에 대한 공포 때문에 도망한다면 가령 그가 재판에 의하여 그 중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언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가 그 무거운 죄 때문에 도망한 것을 알면 그는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재화 · 토지 임차권 · 채권 · 직무를 몰수당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것의 몰수에 관해서는 법은 그의 도망에 대한 법의 추정을 위해서는 어떠한 반증(反證)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당신은 '재판에서 무죄가 된 사람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성문법이 사람이 도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무죄 방면(放免) 후에는 '법의 추정에 바탕을 두어' 그가 가지는 모든 재화를 몰수하도록 선고받을 것을 알게 된다. 만일 법이 그의 도망에 관하여 범행 사실, 그것은 사형을 받을 만한 무거운 죄였을 추정을 한다면 그 판결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을 것이다. 만일 그 추정이 범죄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그는 그 재화를 몰수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따라서 이것은 영국의 법이 아니라 그 유죄 선고는 법의 추정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재판관들의 추정에 바탕을 둔 것이다. 또 법의 추정에 대하여 어떠한 반증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법을 어긴다. 왜냐하면 주권자이든 하급 재판관이든 모든 재판관은 증거의 심리를 거부하는 것은 재판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판결이 올바르다고 하더라도 제출되는 증거를 심리하는 일 없이 유죄의 선고를 하는 재판관들은 올바르지 못한 재판관이며, 그들의 추정은 편견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서 어떠한 사람도 그러한 편견을, 선행(先行)의 판결이나 선례에 따른다는 구실에 따라 재판하는 자리에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성질의 내용은 또 다른

데도 있는 것으로서, 거기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판단이 선례를 믿었기 때문에 나쁜 길로 빠지게 되었다. 재판관의 판결이 그 소송 당사자에게는 법이 된다 하더라도, 그 직무에 있어 그를 계승하는 재판관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법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에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하여 문제가 성문법의 뜻에 관한 것이라면 그것들의 주석(註釋)을 쓴 사람이 해석자는 아니다. 왜냐하면 주석은 원문보다도 트집잡히기를 당하기 쉽고, 따라서 더욱이는 주석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이와 같이하여 그러한 주석이 끝없이 계속되어 가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주권자가 권위를 지워 준 해석자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하급 재판관들이 해석자의 지위에 있게 되기 때문에 해석자는 보통 재판관 이외는 될 수 없으며 그것은 그들이 불문법의 경우에 그러한 것과 같다. 그리고 그들의 판결은 소송을 일으키는 사람들에 의하여 그 개별적인 경우의 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다른 재판관들이 같은 경우에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재판관은 성문법의 해석에 대해서까지도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에 하급 재판관의 오류가 주권자의 일반적인 편견인 법을 변경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법의 조문과 취지(趣旨)와의 차이 성문법에 있어서 사람들은 법의 조문과 취지를 흔히 구별하고 있지만 조문이라는 것은 단순한 말로부터 추측할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을 구별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말의 뜻은 그것 자체 또는 그들의 비유적인 사용에 따라 막연한 것이 되고, 논의해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뜻을 자아내게 되는 것이나 법의 뜻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조문이라는 것이 문자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법의 조문과 그 취지 즉 의도와는 전적으로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문자의 뜻이라는 것은 입법자가 그 법의 조문에 따라 표현되도록 의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법자의 의도는 공평하다고 언제나 가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재판관이 주권자와는 다른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크게 오만한 일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그 법의 말이 합리적인 판결에 충분한 권위를 지니지 않고 있을 때에는 자연의 법으로서 그것을 보안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사건이 어려워지면 그가 보다 많은 권위를 받을 때까지 판결을 연기해야

한다. 예를 들면 성문법은 자기 집에서 힘으로 쫓겨난 사람은 힘에 의하여 그것을 되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부주의 때문에 자기 집을 비우고 외출하고, 힘에 의하여 되돌아오는 것을 저지당하는 일이 일어나도 그 경우에는 어떠한 특별한 법은 정해 있지 않다. 이 경우에는 같은 법에 포함되는 것은 명백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 대한 구제는 전혀 없는 것으로서 그것은 입법자의 의도를 어긴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 법의 말은 증거에 따라야 하는 것을 재판관에게 명령하고 있어 어떤 사람이 어떤 *(범행)* 사실에 대하여 허위의 죄를 씌워, 재판관 자신도 범행이 고소당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알았다고 한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법의 조문은 죄가 없는 사람에게 유죄 선고를 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으며 재판관도 증인의 증언을 어기고 판결해서는 안 된다. 법의 조문은 그것과는 정반대이며, 재판관은 주권자가 별도의 다른 사람을 재판관으로 하여, 그 자신을 증인으로 하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하여 성문법의 단순한 말과 더불어 나타나는 불편은 그를 법의 의도에까지 이끌어 그것에 의하여 같은 것을 보다 잘 해석하도록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떠한 불편이 있든 법을 어기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용서되지 않는다. 그것은 옳고 그른 것을 정하는 재판관은 모두 무엇인가 코먼웰스에 대하여 무엇이 편리하고 무엇이 불편한가에 대한 판정자는 아니기 때문이다.

재판관에게 필요로 하는 능력 법의 뛰어난 해석자, 즉 뛰어난 재판관에게 필요로 하는 능력은 변호사의 그것, 즉 여러 법의 연구와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재판관은 증거에서만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과 같이, 법령이나 주권자의 포고(布告)에서만이 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 명령과 포고는 변론의 경우에 주장되거나 주권으로부터 그것들을 고지(告知)하는 권위를 가진 사람에 의하여 그에게 밝혀지는 것이며, 거기에서 그는 어떻게 판결해야 하는가를 미리 고려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사실에 관하여 그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증거에 의하여 내려지는 것이다. 법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변론의 경우에 그것을 제지하고 그 장소에서 권위에 의하여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로부터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잉글랜드에 있어 의회의 귀족은 재판관이며 더욱 곤란한 소송 사건은 그들에게 의하여

심리되고 결정된 것이었으나 그들 중에서 법의 연구에 정통한 사람은 드물고, 그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더욱 적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목적을 위하여 거기에 출석하도록 임명된 법률가들도 상담했다고 하지만 판결을 내리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들뿐이었다. 그와 같은 권리에 대한 일반적인 재판에서는 열두 사람의 평민이 재판관이며, 사실뿐만 아니라 권리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리며, 그들은 원고와 피고 중 어느 한쪽에 유리한 선고를 할 따름이지만, 그것은 즉 그들이 사실뿐만 아니라 권리에 대해서도 재판관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범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그들은 그것이 이루어졌는가 아닌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모살(謀殺), 타살, 중죄(重罪), 폭행 등의 어느 것인가도 결정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법의 결정인 것이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법을 알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재판해야 할 개별적인 경우에 법에 관해서는 그들에게 가르치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람이 그들에게 밝히도록 판결을 내리지 않아도 그들은 자기의 양심을 어기고 있거나 보수(報酬) 때문에 매수당하거나 한 것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한, 그들은 그것 때문에 어떠한 형벌을 받는 일이 없는 것이다.

뛰어난 재판관 또는 뛰어난 법의 해석자를 만드는 것은 첫째로, '형평'이라 불리는 제일의 자연의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저술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의 자연 이성과 성찰의 뛰어남에 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성찰하기 위한 여가와 성향을 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다 더 깊다고 생각된다. 둘째로는 '불필요한 재산과 승진을 가볍게 낮추어 보는 태도'이다. 셋째로는 '판결을 당하여 여러 가지 공포심 · 노여움 · 증오 · 애착 · 연민을 버리는 것'이다. 넷째 마지막으로 '심리를 할 때의 인내, 심리를 할 때의 방심하지 않는 주의력, 그리고 자기가 심리한 것을 기억하고 납득하고 적용하기 위한 기억력'이다.

법의 구분 여러 법의 차이와 구분은 그것에 관하여 쓴 사람들의 방법의 차이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 왔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연에 따라서가 아니라 저술가의 의도에 따르는 것이며 각 사람의 고유한 방법을 좇는 것이다.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에서 우리는 7종류의 시민법을 본다. 1. '왕후', 즉 황제의 '포고 · 칙령 · 서한' 등이 그것이며 인민의 모든 권력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것은 잉글랜드 국왕의 포고가 있다.

2. '원로원'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을 경우의 '로마 전 인민*(원로원을 포함)*의 고시(告示)'가 그것이다. 이것은 처음에는 인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법일 수 있었으며, 이것들 중에서 황제들에 의하여 폐기되지 않은 것은 그 권위에 의하여 그대로 법으로서 남아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구속력을 가지는 법은 모두 그것을 폐기하는 권력을 가지는 사람의 권위에 따라 법이라고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들 법이 어느 정도 닮은 것은 잉글랜드의 의회의 법령이다.

3. '호민관(護民官)'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을 경우의 일반 인민*(원로원은 제외함)*의 '고시'가 그것이다. 즉 그들 중에서 황제들에 의하여 폐기되지 않은 것은 그 권위에 의하여 그대로 법으로서 남아 있었다. 이것들에 닮은 것은 잉글랜드의 하원의 명령이다.

4. '원로원의 여러 가지 충고', 즉 '원로원의 명령'이 그것이다. 로마의 인민의 수가 불어 크게 많아져 그들을 모이도록 하는 것이 불편하게 되었을 때, 인민들에게 상담하는 대신, 원로원에게 상담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황제가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정도 고문 회의 법령을 닮고 있다.

5. '사법 장관의 포고' 및 *(어떤 경우에는)* '감찰관(監察官)의 포고'가 그것이며 그들은 잉글랜드 여러 법정의 재판관과 같은 것이다.

6. 신려(愼慮)의 여러 가지 회담(回答)이 그것이다. 그것은 법을 해석하는 권위와 그의 조언을 필요로 하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회답하는 권위를 황제로부터 받은 법률가의 판결과 의견으로서 재판관들은 판결을 함에 있어 그 회답을 지킬 것을 황제의 칙령에 의하여 의무가 지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잉글랜드의 법에 의하여 다른 재판관이 판결 기록을 지키도록 구속을 받는다고 하면 그 판결 기록과 같은 것들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잉글랜드 보통법의 재판관들은 본래의 재판관이 아니고 '법률 고문'에 지나지 않으며 그들에 대하여 귀족이든, 지방의 12인*(평민 재판관을 말함)*이든 재판관은 법률상의 조언을 요청해야 한다.

7. '불문(不文)의 관습' *(그것 자체의 본질에 있어서 법의 모방이다)* 또한, 만일 그것들이 자연의 법을 어기지 않으면, 황제의 무언(無言)의 동의에 의하여 바로 법이 된다.

또 다른 법의 구분에는 '자연적인 것'과 '실정(實定)적인 것'이 있다. '자연적인 것'이라 처음부터 계속해서 법이었고 자연적이라고 불릴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법이라고도 불리며 정의와 형평, 평화와 자혜(慈惠)에 도움이 되는 모든 정신적인 관습과 같은 여러 도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에 관해서는 이미 14장과 15장에서 논했다.

'실정적인 것'이란 처음부터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주권을 가지는 사람들의 의지에 의하여 법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성문(成文)이 된 것이다. 또는 무엇인가 그 외의 입법자의 의지의 증거에 의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다.

또 다른 법의 구분 또다시 실정법(實定法)에는 '인정(人定)적인 것'과 '신(神)적인 것'이 있다. 그리고 인정적인 실정법에는 '분배(分配)적인 것'과 '형벌(刑罰)적인 것'이 있다. '분배적인 것'이란 시민들의 여러 권리를 정하는 것으로서 각 사람에 대하여 그의 토지나 재화의 소유권, 행위의 권리 또는 자유를 얻게 하여 지키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널리 밝혀 알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든 시민에게 알리는 것이다. '형벌적인 것'이란, 법을 어기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형벌이 주어져야 하는가를 밝히고 그것을 시행하도록 임명된 대행자나 관리에게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각 사람은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처벌을 받을 것인가를 미리 알려야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은 죄를 범한 사람 *(그들이 자신을 성실하게 처벌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지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형벌의 시행(施行)을 감독하기 위하여 임명된 공적인 대행자에 대하여 내려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형벌에 관한 법은 대개 분배적인 법과 더불어 성문화되어 있어 때로는 판결이라고도 불린다. 즉 모든 법은 입법자의 일반적인 판단, 즉 판결인 것으로서 그것과 같이 각각의 개별적인 판결은 소송 사건에서 재판을 받은 사람에게는 법인 것이다.

신의 실정법은 어떻게 하여 법이라는 것을 알릴 것인가 신의 실정법*(이란 자연법은*

*영원하고 또한 보편적이기 때문에 모두 신(神)적인 것이다)*이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그것은 신의 계율 *(즉 처음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알려지는 것도 아니며, 특정의 국민이나 특정의 인격에게만 알려지는 것)*으로서 신이 그것들을 널리 밝혀 알리도록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널리 알려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신의 실정법이 무엇인가를 널리 알려야 할 사람의 권위는 어떻게 알려지는가. 신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그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할 것을 명령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의무가 지워진 사람이 그것을 널리 알리는 사람의 권위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법의 본질에 속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 권위가 신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자연적으로는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 사람은 초자연적인 계시가 없어도 널리 선포하여 알리는 사람(선지자)이 받아들인 계시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또는 '어떻게 하여 그는 그것에 복종하도록 의무가 지워지는가.' 첫째의 문제, 즉 어떤 사람이 그 자신에 대하여 개별적인 계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한 계시에 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보는 여러 기적으로부터 또는 그의 생활의 비상한 신성함이나 그의 행위의 비상한 지혜나 더없는 행복을 보는 것으로부터 그러한 계시를 믿게 되는 것이며 이들 모든 것은 신의 비상한 은총의 표지지만 사람들은 그 특별한 계시의 증거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는 되지 않는다. 기적은 놀랄 만한 기술이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는 놀랄 만한 것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는지도 모른다. 신성함이란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도 모르며,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더없는 행복도 아주 드물게 자연의 일반적인 원인에 의한 신의 소행인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다른 사람이 신의 의지의 초자연적인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자연 이성에 따라 어김없이 알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신앙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각 사람은 *(그 표지가 보다 크게 보이거나 또는 보다 작게 보임으로써)* 확고하거나 또는 약한 신앙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둘째로, 어떻게 하여 그는 거기에 복종하도록 의무가 지워지느냐에 대해서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만일 널리 알려진 법이 자연의 법(그

*것은 의심할 필요 없이 신의 법이다)*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그가 거기에 순종한다고 맹세한다면 그는 그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의무가 주어진다. 나는 거기에 순종하도록 의무가 지워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믿도록 의무가 지워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신앙이나 내면의 생각은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또는 비상한 신의 작동(作動)에 의해서만이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초자연적인 법에 대한 신앙은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동의하는 것뿐이며 그것은 우리가 신에 바치는 의무가 아니라 신이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는 증여인 것이다. 아울러 또한 불신앙(不信仰)은 어떠한 신의 법을 실제로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의 자연법을 빼놓은 모든 것을 거부하는 일이 된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에 관한 실례와 증거에 따라 더욱 명백해질 것이다. 신이 아브라함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맺은 신약은 '이는 너와 나 사이에 또 너 이후의 너의 자손과 나 사이에 지켜야 할 신약이니라'[25] 고 하는 것이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 계시를 받지 않고 또 실제로 있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이 신약의 당사자이며, 아브라함이 신의 법으로서 그들에게 널리 알린 것에 복종하도록 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부모에 대해 짊어지고 있는 복종에 의해서만이 이와 같이 의무가 지워져 있다. 그런데 이 부모들은 *(만일 그들이 이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다른 이 세상의 권력에 순종하고 있지 않으면)* 그들의 아이들이나 하인에 대하여 주권을 가지는 것이다. 더욱 신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해서 지상의 모든 백성이 축복을 받을지니라. 왜냐하면 나는 네가 너 이후의 너의 자손과 가족들에게 주의 길을 지키고 옳은 것과 판단을 지키도록 명령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26]는 경우에는 분명히 계시를 받지 않은 그의 가족이 복종하는 것은 그들의 주권자에게 복종한다고 하는 그들 이전의 의무에 바탕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시나이 산(山)에서 모세만이 신 가까이 가고 인민은 가까이 가는 것을 죽음의 제제(濟濟)로서 금지당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모세가

25 〈창세기〉 17장 10절.
26 〈창세기〉 18장 18~19절.

그들에 대하여 신의 법으로서 널리 알려야 할 모든 일에 복종하도록 의무가 지워졌던 것이다. 그들 자신의 이 복종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에 바탕을 두어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27]라고 말할 것인가. 이 두 곳에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은 코먼웰스에 있어서는 신의 의지에 관하여 그들 자신에 대한 개별적으로 확실하게 확신시키는 계시를 받지 않은 신민은 그것에 대해서는 코먼웰스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꿈과 상상, 또는 사사로운 개인의 꿈과 상상을, 신의 계명(戒命)이라고 여기는 자유를 갖는다면 무엇이 신의 계명인가에 대하여 두 사람이 일치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더욱 각 사람이 그들의 계명은 중히 여기고 코먼웰스의 계명을 가볍게 여기게 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도덕법(道德法)*(즉 자연법)*을 어기지 않는 모든 일에 있어 모든 신민은 코먼웰스의 여러 법에 따라 신의 법으로서 널리 알려지는 것에 복종하도록 의무가 지워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이성에서도 분명하다. 왜냐하면 자연의 법을 어기지 않는 것은 모두 주권을 가지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신의 이름으로 제출되는 경우에는 사람들은 이전의 경우보다도 더욱 적게 의무를 지게 되어야 한다는 이유는 있을 수 없다. 더욱 세계의 어떠한 곳에 있어서도 코먼웰스에 의하여 신의 계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 이외의 것을 사람들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허용되어 있지 않다. 그리스도교의 나라에서 그리스도교를 어기는 사람들을 처벌하며, 그 밖의 모든 여러 나라에서는 그 나라가 금지하고 있는 종교를 들여오는 사람들을 처벌한다. 즉 어떠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그 코먼웰스에 의하여 규제되어 있지 않으면 각 사람은 평등하게 그의 자유를 즐기는 것은 형평*(그것은 자연의 법이며 따라서 영원의 법이다)*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법의 구분 법의 구분에는 더 하나가 있으며, '기본(基本)적인 것'과 '기본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나누어진다. 나에게는 기본법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27 〈출애굽기〉 20장 19절.

어떠한 저술가들의 책을 읽어도 아직 잘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법을 이와 같이 구별하는 것은 더없이 합리적인 일이다.

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즉 각 코먼웰스의 기본법이란, 그것이 없어지면, 그 코먼웰스는 바탕이 파괴된 건물과 같이 쇠퇴하여 모두 해체하게 이르는 것과 같은 법에 관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기본법은 군주이건 주권 합의체이건 주권자에게 주어지며, 그것 없이는 코먼웰스가 존립할 수 없는 권력을 지지하도록 신민들에게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따라서 그 권력이란 선전 강화의 권리, 사법권 관리, 선임권 및 그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이룩하는 권력이다. 기본적인 것이 아닌 것이란 그것을 폐기해도 그 코먼웰스를 해체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신민과 신민 사이의 논쟁에 관한 여러 법과 같은 것이다. 법의 구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법과 권리의 차이 나는 '시민법'과 '시민권', 즉 '시민의 법과 권리'라는 말이 최고의 학식을 지닌 저술가들에게 있어서까지 같은 것으로 혼동되고 있는 것을 보지만, 그것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권리'라는 것은 '자유', 즉 시민법이 우리가 하는 대로 놓아 두는 자유이며 '신민법'이란 '의무'이며, 자연의 법이 우리에게 준 자유를 우리로부터 빼앗아 가는 것이다. 자연은 각 사람에게 자기 자신의 힘에 따라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키고, 의심스러운 이웃에 대해서는 선수를 써서 침략한다는 권리를 준다. 그러나 시민법은 법의 보호가 안전하게 지속될 때에는 모두 이 자유를 빼앗아 간다. '법'과 '권리'라는 것은 '의무'와 '자유'가 다른 것과 같다.

법과 특허장(特許狀)의 차이 이와 마찬가지로 '법'과 '특허장'도 혼동되어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특허장은 주권자의 인가(認可)이지, 법은 아니고 법의 면제이다. 법의 어법(語法)은 jubes, injungs 즉 '나는 명령한다' 또는 '나는 과(課)한다'는 것이며, 특허장의 어법은 pedi, concessi 즉 '나는 주었다' 또는 '나는 용서했다'이지만, 어떤 사람에게 받았다든가 용서받았다든가 하는 것은 법이 그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법은 코먼웰스의 모든 신민에게 의무를 지우도록 하는 것이지만 자유, 즉 특허장은 인민 중 한 사람뿐이라든가 또는 어느 일부뿐이라는 것에 관한 것이다. 즉 그것은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코먼웰스의 모든 인민이 자유를 갖는다는 것은,

법이 전혀 만들어져 있지 않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만들어져 있기는 했지만 지금은 폐기되었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제27장 범죄, 면죄 및 죄의 경감(輕減)에 대하여

죄악(罪惡)이란 무엇인가 '죄악'이란 법을 어기는 것만이 아니라 입법자를 조금이라도 업신여기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한 번의 업신여김은 그의 법의 모든 것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법이 금지하는 행위의 '수행(遂行)'이나 '발언' 또는 법이 명령하는 것의 '회피'뿐만 아니라, 어기려고 하는 '의도(意圖)' 즉 결의(決意)에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법을 어기려고 하는 결의는 그 법의 시행을 감독하는 사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업신여김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재화, 하인, 아내를 폭력이나 사기에 의하여 그들로부터 뺏으려는 의도 없이 다만 그것들을 차지하고 있다. 상상하고 기뻐하는 것만으로는 '억지로 바라서는 안 된다'는 법을 어기는 것이 되지는 않는다. 또 그 사람이 살아 있으면 자기에게 손해를 입히고 불쾌하게 한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는 사람이 죽는 것을 상상하거나 꿈을 꾸거나 하는 것으로서 어떤 사람을 유쾌하게 하는 것도 죄악이 아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바라는 어떤 행위를 실제로 이룩하려고 결의하는 것은 죄악이다. 왜냐하면 현실이라면 사람을 유쾌하게 하는 것을 상상함으로써 유쾌하게 되는 것은 사람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생물의 본성에 강하게 눌러 붙어 있는 정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을 죄악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하면 나에게는 마음의 맨 처음의 운동(움직임)이 *(신에 대한 공포에 의하여 못 하게 되었더라도)* 죄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나는 이쪽(상상)에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반대쪽(실행)에서 저지르는 것보다는 안전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범죄란 무엇인가 범죄라는 것은 죄악으로서 그것은 법이 금지하는 것의 *(행위 또는 말로서)* 수행 또는 법이 명령하고 있는 것의 회피이다. 그러므로 모든 범죄는 죄악이기 때문에 죄악의 모든 것이 범죄는 아니다. 훔치거나 죽이거나 하려고 의도하

는 것은 그것이 결코 말이나 사실로 나타나지 않아도 죄악이다. 왜냐하면 신은 사람이 의도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인 재판관이 그 의도를 밝히는 것과 같이 무엇인가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함으로써 밖으로 나타날 때까지는 범죄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리스 사람은 이 구별을 '하마르테마(ἀμάρτημα)'와 '헤클레마(ἔγχλημα)' 또는 '헤더아(αιτία)'라는 말로 말하고 있다. 앞의 말*(그것은 '죄악'이라고 번역한다)*은 어떠한 법에서부터이든 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뜻하지만, 뒤의 두 말*(그것은 '범죄'라고 번역된다)*은 그것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고소할 수 있는 죄악만을 뜻하는 것이다. 어떠한 외적인 행위로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의도에 대해서는 사람은 고소할 여지는 없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악'을 뜻하는 라틴 말의 peccatum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뜻하며, crimen*(그들은 이 말을 '지각(知覺)하는' 것을 나타내는 cerno에서 이끌어 내고 있다)*에 의하여 다만 재판관의 앞에서 밝힐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단순한 의도가 아니라 죄악을 뜻하고 있다.

시민법이 없는 곳에서는 범죄는 없다 이 죄악의 법에 대한 관계와, 범죄의 시민법에 대한 관계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첫째로, 법이 없어지면 죄악도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의 법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신약 위배(信約違背), 배은망덕, 오만 그리고 무엇인가 도덕을 어기는 모든 행위가 죄악이 아닐 수 없다. 둘째로, 시민법이 없어지면 범죄도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것은 자연의 법 이외의 법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할 여지가 없으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재판관이 되어 자기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만이 고소를 당하게 되고 자기 자신의 의도의 고결함에 따라 결백하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그의 의도가 올바르면 그의 행위는 죄악이 아니고 만일 올바르지 못하면 그 행위는 죄악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범죄는 아닌 것이다. 셋째로, 주권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범죄도 또한 없어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권력이 없는 곳에서는 법에 의한 보호는 없고 그러기 때문에 각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보호해도 좋다. 즉 그것은 어떠한 사람도 주권을 설립할 때, 자기 자신의 신체를 유지할 권리를 양도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그 안전을 위하여 모든 주권은 정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을 보

호하는 권력을 없애는 일에 참가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라고 풀이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은 처음부터 범죄였기 때문이다.

자연의 법을 모른다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 모든 범죄의 근원은 이해력의 부족, 추리의 경우의 그르침, 또는 정념이 갑작스럽게 오르는 데 있다. 이해력의 부족은 '무지'이며, 추리의 그것은 '그릇된' 의견이다. 또다시 무지에는 세 종류, 즉 '법'에 관한 것, '주권자'에 관한 것, '형벌'에 관한 것들이 있다. 자연의 법을 모른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성을 활용함에 있어 모든 사람은 자기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인도에서 와서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이도록 여기의 사람들에게 설득하거나 이 나라의 법에 복종하지 말도록 하는 그 무엇을 그들에게 가르치거나 하면, 비록 그가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것의 진실성에 관하여 어떠한 변명도 없이 믿고 있어도 그는 범죄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도 정당하다. 그것은 그의 설교가 거짓이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하여 시인하지 않는 것, 즉 여기에서 그곳으로 가서, 그곳의 종교를 변경하려고 애쓰는 일을 그가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이 그에게 시민법이 널리 알려질 때까지는, 시민법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변명이 되는 것이다. 그때까지는 어떠한 시민법도 의무를 지우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시민법을 모른다는 것은 때로는 변명이 된다 이와 같이하여 어떤 사람이 자신의 나라의 시민법을 알려고 여긴다면 알 수 있도록 충분히 널리 알려져 있지 않거나 또는 그 행위가 자연의 법을 어기고 있지 않다면, 알지 못한다는 것은 훌륭한 변명이 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시민법을 모른다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

주권자를 모른다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 주권자를 모른다는 것은 사람이 평소에 살고 있는 장소에서는 변명이 되지 않는다. 즉 그것은 그가 거기에서 스스로 계속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권력에 대해 주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형벌을 모른다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 형벌을 모른다는 것은 그 법이 널리 알려진 곳에서는 누구에게 있어서나 변명이 되지 않는다. 즉 다음에 올 형벌에 대한 공

포를 느끼는 일 없이 어기게 되는 법은, 법이 아니라 속이 비어 있는 말에 지나지 않으며, 그는 그 형벌이 무엇인지 몰라도 형벌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알려져 있는 귀결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모든 코먼웰스에서 법을 범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알려져 있는 귀결이기 때문이다. 이 처벌이 이미 법에 의하여 결정되어 있으면 그는 그것에 따르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그는 제멋대로의 처벌에 따르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의지에 따르는 제한 외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는 상태에서 침해하는 사람은, 그것에 의하여 스스로의 법을 어긴 사람의 의지 외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는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범행 이전에 공표된 처벌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범행 이후에 공표되더라도 그것은 면제된다 그러나 법 자체 속에 범죄로서 형벌이 덧붙여 기록되어 있거나, 비슷한 경우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과해져 왔던 형벌이 있을 경우에는 죄를 범한 사람은 그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는 일은 없다. 즉 미리 알려진 처벌이 사람들에게 그 행위를 못 하게 할 정도로 무거운 것이 아니면 그것은 행위를 하게 하는 유혹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할 때의 이익과 그것에 대한 처벌이 주는 손해를 비교할 때 그들은 자연의 필연에 의하여 자기들에게 더욱 좋다고 생각되는 쪽을 택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 법이 이전에 그 법이 정하고 있던 것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하거나 또는 같은 범죄에 대하여 다른 사람보다도 무겁게 처벌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사람들을 유혹하거나 기만하거나 하는 것은 법 그 자체인 것이다.

범행 이후에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는 어떤 일도 범죄라고 할 수 없다 범행 이후에 만들어진 법에서는 그것을 범죄라고는 할 수 없다. 그것은 그 범행이 자연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면, 그 범행 이전에는 그 법이 있었던 것인데, 실정법은 그것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알 수 없었고, 따라서 의무를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범행을 금지하고 있는 법이 그 범행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만들어져 있을 경우에는, 만일 그 후에 정해진 형벌보다도 가벼운 형벌이 서면에 의해서나 전례에 의해서도 알려져 있지 않았다면 그 범행을 하는 사람은 그 후에 정해진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 이유는 바로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옳고 그른 것에 관한 잘못된 여러 원리는 범죄의 원인이 된다 추리에 있어서의 결함 때문에 *(즉 오류 때문에)* 사람들은 세 가지의 방법으로 법을 어기기 마련이다. 첫째는 잘못된 원리의 추정에 의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어떻게 모든 장소나 시대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가 그것을 이룩한 사람들의 힘과 승리에 따라서 권위가 지워져 왔는가라는 것, 또 어떻게 유력자들이 그 나라의 분명치 않은 법을 어기고 있으면서 세력이 약한 사람이나 그 모험에 실패한 사람들만이 범죄자로 다루어져 왔는가라는 것을 사람들이 관찰하고, 여기에서 그들의 추리의 원리나 기초를 채택하는 경우가 바로 이것이다. 이것은 즉 '정의(正義)라는 것은 속이 빈 말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 '사람이 자기 자신의 근면과 모험에 의하여 획득될 수 있는 것은 모두 자기의 것이라는 것', '국민의 모두가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은 부정일 수 없다는 것', '앞서 간 시대의 선례는 같은 것을 두 번 다시 하기 위한 충분한 논거라는 것', 그리고 더욱 많은 이러한 종류의 것들이다. 이런 것들이 허용된다면 어떠한 행위도 그 자체로서는 범죄가 될 수 없고,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의 성과에 따라 그렇게 되는 것이 틀림없고 그리고 같은 행위가 운명이 바라는 대로 미덕이 되거나 악덕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 결과 마리우스[28]가 범죄라고 한 것을 술라[29]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카이사르[30]는 *(같은 법이 그대로 있는데도)* 코먼웰스의 평화를 영원히 방해하는 범죄라고 또다시 뒤엎을 것이다.

거짓된 교사들의 자연의 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 둘째로는, 거짓된 교사들 때문인 것이다. 그들은 자연의 법을 잘못 해석하여 그것을 시민법에 일치되지 않는 것으로 하거나 또는 신민의 의무와 양립하지 않는, 그들 자신의 학설이나 앞서 간 시대의 전통을 법이라고 가르치므로, 그렇게 한다.

28 마리우스(Gaius Marius, B.C.156~86)는 로마 공화정 말기에 평민파(平民派)의 지도자로서 귀족파의 지도자인 루키우스 코르넬리우스 술라(Lucius Cornelius Sulla, B.C.138~78)와 서로 다투었고 B.C.107에 정권을 잡았다.

29 마리우스에 이어 B.C.93에 정권을 잡았다.

30 술라에 이어 B.C.45에 독재권을 수립했다.

그리고 진실한 여러 원리로부터의 교사들에 의한 그릇된 추리 셋째로는, 올바른 여러 원리로부터의 그릇된 추론에 의한 것이다. 그것은 보통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결론이나 결의를 내리는 경우에 성급하고 경솔한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은 예를 들면 자기 자신의 이해력에 대하여 지나치게 믿고 또한 이 성질의 것들이 시간과 연구를 필요로 하지 않고 어떠한 사람에게도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경험이나 뛰어난 타고난 재치 등을 필요로 할 뿐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다. 그런데 그것과 같이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지식은 오랜 연구 없이는 어떠한 사람도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는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추리할 때 이들의 결함 중에는 자기의 사사로운 일을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어떠한 사람의 범죄도 면제할 수 있는 것은 *(그들 중 어느 정도는 업신여길 수 있지만)* 전혀 없고 더군다나 공적인 임무를 도맡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하다. 그들은 이성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지만, 이성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구실을 위한 근거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정념에 의하여 그리 드물게 범죄의 원인이 되는 정념의 하나는 허영심, 즉 자기 자신의 값어치에 대한 어리석은 지나친 평가이다. 그것에 따르면 값어치의 차이는 마치 그들의 재치, 재산, 혈통 또는 그 밖의 어느 정도의 타고난 성질에 따르는 것으로서, 주권자의 권위를 가지는 사람들의 의지에 따르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여기에서 법에 의하여 정해지고 모든 신민에게 보편적으로 미칠 수 있는 처벌이 그들에 대해서는 '일반 민중'의 이름으로 감싸지는 가난하고 천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 대하는 것과 같이 엄하게 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재산에 대한 추정 그러기 때문에 스스로를 그 부(富)의 크기로써 평가하는 사람들이 공공의 정의를 돈으로 사므로써 처벌을 빠져 나가거나 화폐나 그 밖의 보수로써 용서를 받고자 하는 기대를 품고 일부러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흔히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친구들에 대하여 그리고 수많은 영향력이 있는 친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대중 속에서 명성을 얻어 인기가 있는 사람들은 법을 시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억압할 수 있다는 기대를 품고 짐짓 법을 어긴다.

현명(賢明)에 대하여 그리고 자기 자신의 현명에 대하여 지나치게 믿고 잘못된 평가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사람은 그들은 통치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비난하며 그 권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이렇게 하여 그들 자신의 속마음에서 보아 범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외에는 결코 범죄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공개적인 논의로써 법을 어지럽힌다. 또한 이 사람들은 교활하고 자기의 이웃들을 기만하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범죄를 범하기 쉽다. 그들은 스스로의 기도(企圖)〔속셈〕가 너무나 교묘하여 누구에게도 눈에 띄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그들 자신의 현명함에 대하여 잘못된 추정의 결과라고, 나는 말한다. 즉 코먼웰스를 어지럽히는 *(이것은 반드시 내란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놓아 두지는 않지만)* 기동자(起動者)들 중에는 그들의 새로운 기도가 세워지는 것을 볼 때까지 오래 살아남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거기에서 그들의 범죄의 이익은, 후세의 사람들과 그리고 그것을 바라는 것이 적었던 사람들에게 되돌아간다. 이것은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현명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증거로서 보여 주는 것이다.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 것을 기대하고 기만하는 사람은 대개 자기를 기만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들이 사람을 기만하고 숨어 있다고 믿고 있는 어둠은 그들 자신이 눈을 감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눈을 가리고, 몸 전체가 숨겨졌다고 생각하는 아이들과 같은 것으로서 현명하지는 않은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허영심이 강한 많은 사람들은 모두 *(겁쟁이가 아니면)* 노여움을 잘 내는 사람이다. 그것은 서로 말을 주고받는 가운데서 평소의 겸손 없는 표현을 자신을 업신여기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욱 강하기 때문이다. 대개의 범죄는 노여움에서 나타나기 마련이다.

증오 · 정욕 · 야심 · 탐욕은 범죄의 원인이다 증오 · 정욕 · 야심 · 탐욕 등의 정념에 관하여, 그것들이 어떠한 범죄를 만들어 내기 마련인가는 각 사람의 경험과 지식으로부터 극히 명백하며, 다음과 같은 것을 빼놓으면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즉 그것들은 인간과 그 밖의 모든 생물의 양쪽에 태어나면서부터, 속성으로서 따라다니는 약점으로서, 이성(理性)을 아주 잘 활용하는 것, 또는 그것들을 끊임없이 엄하게 처벌하지 않고서는 그것들의 여러 결과를 막을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증오하는 것 중에는 그들이 계속적으로 불가피한 장애물을 보는 것이며, 거기에서는 사람의 참고 견디는 것이 영속적이어야 하는가, 그를 괴롭히는 것의 힘을 없앰으로써 편안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의 어느 쪽이기 때문이다. 앞의 경우는 곤란한 일이며, 뒤의 경우는 가끔 무엇인가 법을 어기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야심과 탐욕도 또한 끊임없이 의지하며 밀어대는 정념으로서, 이것에 반해 이성은 그들에 저항하기 위하여 한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벌을 받지 않고 지나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면 언제나 그러한 여러 결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정욕에 관해 말하자면 영속성은 없으나, 모든 가벼운 또는 확실치 않는 처벌에 대한 불안을 압도하기에는 충분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위험이 지금 있지 않거나 육체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공포는 때로는 범죄의 원인이 된다 모든 정념 중에서 사람들이 법을 보다 더 적게 어기도록 하는 것은 공포이다. 오히려 *(어떤 아량 있는 성질의 사람들을 제외하면)* 공포는 *(법을 어기는 것으로서 얻는 이익이나 즐거움이 분명한 경우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법을 지키도록 하는 유일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포로부터 이루어는 경우도 많다.

왜냐하면 모든 공포는 그것이 이룩해 내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위해(爲害)에 대한 공포에서만이 정당화 될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육체적 공포라고 부른다. 그리고 사람이 육체적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를 이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이 습격을 받아 죽음의 공포에 부딪혀 습격해 오는 사람을 상처 입히지 않고서는 그 부딪힌 죽음으로부터 빠져 나갈 수 없다고 하자. 만일 그가 상대를 상처 입혀 죽게 했더라도 그것은 범죄는 아니다. 그것은 어떠한 사람도 코먼웰스를 만들기 위하여 법이 자기를 돕는 데 때를 맞추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기의 생명이나 손발을 지키는 것을 포기한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내가 어떤 사람의 행위나 위협을 보고 그가 죽게 될 때는 나를 죽일 것이라고 논증할 수 있다고 하여 *(주권의 보호를 요구하는 시간과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죽이는 것은 범죄이다. 또한 사람은 창피한 말을 받거나 또는 어떤 작은 침해를 받아왔을 때 *(법을 만든 사람은 그것에 대해 어떠*

한 처벌도 정하지 않았으며, 또 이성을 활용하는 사람은 마음에 걸릴 만한 값어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기가 복수를 하지 않으면 업신여김을 받게 되고 따라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와 똑같은 침해를 받기 쉽다는 것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피하기 위해 법을 어기고 사사로운 개인적인 복수의 위협에 호소하여 장래를 위해 스스로를 보호하는 일이 있으나 이것은 또한 범죄이다. 왜냐하면 그 위해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공상적인 것이며, 그리고 *(세계의 한 구석에서는 무분별한 청년들 사이에서 생긴지 많은 햇수가 지나지 않았지만, 하나의 관습으로 쉽게 인정되었지만)* 용감한 사람이나 자신의 용기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마음에 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소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또한 그들 자신의 미신 때문에 또는 이상한 꿈이나 환상에 대하여 그에게 말해 주는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믿어 심령들에 대한 공포에 빠진다. 그리고 그것에 의하여 여러 가지 짓을 하거나 회피하거나 하는 것이 법을 어기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이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회피케 하거나 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위해를 더 해 오는 것이라고 믿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하거나 회피하거나 하는 것은 이 공포를 이유로 하여 죄를 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가 된다. 즉 *(2장에서 말한 것처럼)* 꿈이란 원래가 우리의 감각이 깨어 있을 때 받은 인상 중에서 잠자고 있을 때 남아 있는 상상에 지나지 않으며, 그리고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이든지 자기가 잠자고 있었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환상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꿈이나 거짓말의 환상에 바탕을 두고 또는 코먼웰스에 의하여 허용된 것 이외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심령의 힘에 대한 상상에서 일부러 법을 어기는 사람은 자연의 법을 버리나 그것은 어떤 종류의 범죄이기도 하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사로운 개인의 두뇌 속의 영상이 무엇인가를 뜻하고 있거나 또는 무엇인가를 뜻하지 않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꿈을 말하는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 영상에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만일 모든 사사로운 개인이 해도 좋다고 허용된*(누군가 한 사람에게 허용된다면 자연의 법에 의하여 그들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다면, 그 경우에는 어떠한 법도 있을 수 없게 되고, 이렇게 하여 모든 코

먼웰스는 무너지게 된다.

여러 범죄는 모두 같지 않다 이들 범죄에는 그 나타나는 방법에 여러 가지의 차이가 있으므로 모든 범죄가*(고대 스토아학파가 주장한 것처럼)* 같은 질(質)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분명할 것이다. 면죄의 여지가 있어 범죄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로 인해 전혀 그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의 경감의 여지가 있으면, 무겁다고 여겼던 범죄가 그로 인해 가벼워지는 경우도 있다. 즉 직선(直線)을 벗어나고 있는 것은 한결같이 비뚤어진 것과 같이 모든 범죄는 한결같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이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스토아학파는 올바르게 관찰하고 있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범죄가 다 같은 정도로 올바르지 못하다고 할 수는 없다. 모든 비뚤어진 선(線)이 똑같은 정도로 비뚤어진 선이 아닌 것과 같은 것이다. 스토아학파는 그렇게는 보지 않고, 법을 어긴 암탉을 죽이는 것은 사람이 그의 아버지를 살해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범죄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전면적인 면죄 어떤 범죄 사실을 전적으로 면죄하고 그리고 범죄의 성질을 제거한다는 것은, 아울러 그 법에 대한 의무를 제거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 왜냐하면 한 번 법을 어겨 이룩한 범죄 사실은 만일 그것을 행한 사람이 그 법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져 있다면 곧바로 범죄이기 때문이다.

그 법을 알기 위한 방법이 없었을 때에는 전적으로 면죄를 받는다. 사람이 그것에 대하여 아는 방법을 가질 수 없는 법은 의무를 지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고자 하는 부지런함이 없을 때는 방법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또 자기의 일을 처리해 나가는 데 충분한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연의 여러 법을 아는 방법을 가지지 않았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자연의 여러 법은 그가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이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것으로서 아이들과 미치광이만이 자연법을 어겨도 면죄받는다.

사람이 사로잡혀 있거나 적의 지배 밑에 있을 경우에는 *(적의 지배 밑에 있다는 것은 사람이 그 신변이나 생활 수단이 그러한 때의 경우이다)* 만일 그것이 그 자신의 책임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면 법에 대한 의무는 없다. 즉 그는 적에게 복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그러한 복종은 범죄는 아닌 것

이다. 어떠한 사람도 *(법의 보호가 없을 경우에는)* 그가 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서 자기를 보호하지 않도록 의무가 지워져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사람이 만일 맞부딪힌 죽음의 위협 때문에 법을 어기는 범죄 사실을 저지르도록 강제를 당한다면, 그는 전적으로 면죄받게 된다. 어떠한 법도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유지하는 것을 그만두도록 의무가 지워질 수는 없다. 그리고 그와 같이 법이 의무 지워졌다고 가정하더라도, '사람은 만일 스스로 그것(위법 행위)을 하지 않았다면 그는 당장 죽을 것이고, 만일 자기가 그것을 한다면 그 스스로는 보다 훗날이 되어 죽기 때문에 그것을 함으로써 살아남아 오래도록 시간을 벌 수 있다'라고 추리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자연은 그에게 그 범죄 사실을 행하도록 강요한다.
사람이 먹을 것이나 그 밖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갖지 못해서, 법을 어기는 어떤 범죄 사실을 저지르지 않고서는 스스로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예를 들면 큰 굶주림 때문에 그는 화폐를 가지고도 또는 지혜로서도 먹을 것을 얻을 수 없어 힘으로써 빼앗거나 훔치거나 했을 경우, 또는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칼을 빼앗을 경우 등에는 바로 앞에서 논한 이유에서 그는 전적으로 면죄받게 된다.
장본인에 대한 면죄 더욱 다른 사람의 권위 때문에 법을 어기고 이루어지는 범죄 사실은 그 권위에 의하여, 그 장본인에 대해서는 면죄된다. 어떠한 사람도 자기의 도구(道具)에 지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한 행위를 비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에 의하여 침해당한 제삼자에 대해서는 면죄받지 않는다. 법을 어겼다는 점에서는 장본인이나 행위자도 더불어 범죄자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주권을 가지는 사람 또는 합의체가 어떤 사람에게 종래의 법을 어기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는 경우, 이 행위는 완전히 면죄받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법을 어긴 본인은 주권자 자신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자신에게 유죄라고는 할 수 없고, 주권자에 의하여 정당하게 유죄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어떠한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정당하게 처벌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주권자가 그 자신의 종래의 법을 어기고 이루어져야 하는 어떤 것을 명령하는 경우 그 명령은 그 특정한 사실에 대해서는 법의 폐기가 된다.

만일 주권을 가지는 사람 또는 합의체가 주권에 의하여 본질적인 어떤 권리를 폐기하고 그것에 따라 주권, 즉 코먼웰스의 존재 그 자체와 양립할 수 없는 어떤 자유가 그 신민에게 생겼을 때, 신민은 이와 같이하여 허용된 자유를 어기는 어떠한 명령에도 따르는 것을 거부한다고 하면, 이것은 죄악으로서 신민의 의무를 어기는 것이다. 그는 무엇이 주권과 양립하지 않는가를 알아야 하고,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자유는 그 나쁜 귀결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음으로써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시행하는 공적인 대행자에게 거역한다면, 그 경우에는 그것은 범죄가 된다. 왜냐하면 그는 *(어떠한 평화도 파괴하지 않고)* 하소연함으로써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범죄의 정도는 여러 가지의 저울에 의해 잴 수 있다. 첫째로, 그 근본, 즉 원인의 악의성(惡意性)에 의하여, 둘째로, 그것을 흉내 내는 행위의 전염력(博染力)에 의하여, 셋째로, 그 결과의 해악에 의하여, 그리고 넷째로, 때와 장소와 인물과의 공존 관계에 의해서이다.

힘이 있다는 추정은 범죄를 무겁게 한다 법을 어기고 행해지는 같은 범죄 사실이 만일 법을 시행하는 사람들에게 저항하는 힘이나 재산이나 자기편이 있다는 추정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면, 그것을 찾아볼 수 없다든가 도망하여 면제받고자 하는 기대에서 나왔다고 하는 경우보다도 그 범죄는 무겁다. 왜냐하면 힘에 의하여 벌을 면제받고자 하는 추정은 언제나 여러 가지의 유혹에 의하여 모든 법에 대한 경멸이 나타날 근원이기 때문이며, 반면 그것을 어긴 후자의 경우에는 사람을 도망시키는 위험을 두려워하는 마음가짐이 그 후의 그를 보다 더 순종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범죄라는 것을 알고 한 범죄는, 그것이 합법적이라는 허위의 설득에서 저지른 범죄보다는 무겁다. 왜냐하면 그 자신의 양심을 어기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의 힘이나 그 밖의 힘 때문에 버릇없이 굴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그가 또다시 같은 짓을 하도록 도와 주는 것이지만, 그것을 그릇되게 한 사람은, 그 잘못이 알려진 후에는 그 법에 대하여 순종하게 되기 때문이다.

나쁜 교사들에 의하는 것은 가벼워진다 법에 대하여 공적으로 권위가 지워져 있는 교사나 해석자의 권위에서 스스로의 오류가 생긴 것은, 자기 자신의 원리와 추리

를 독단적으로 고집하는 데서 그러한 오류가 생기는 것에 비해, 그 죄는 무겁지 않다. 왜냐하면 공적인 권위에 의하여 가르치는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들은 코먼웰스가 가르치는 것들로서 그와 같은 권위가 그것을 통제할 때까지는 법과 비슷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권을 부인(否認)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고 또 명백히 법을 어기지도 않은 모든 범죄는 전적으로 면죄를 받는다. 반면에 자기의 행위를 그의 개인적인 판단에 바탕을 두고 한 사람들은 그것이 올바른가 그릇된 것인가에 따라, 일어서거나 또는 쓰러지거나 하는 것이다.

처벌받지 않는 선례는 죄를 가볍게 한다 같은 범죄 사실이라도 만일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언제나 처벌을 받고 있었다면 처벌받지 않은 많은 선례가 있을 경우보다도 그 범죄는 무겁다. 이들의 선례는 주권자 자신이 그와 같은 처벌받지 않는 선례의 수만큼 바라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이 법을 어기는 것을 돕는 것과 같은 희망과 자비의 추정을 제공하는 사람은 그 위범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가 위범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예비 음모는 그 죄를 무겁게 한다 돌발적인 정념에서 일어난 범죄는 같은 범죄를 오래도록 계획하여 일으킨 경우처럼 무겁지는 않다. 즉 앞의 경우에는 사람의 본성의 일반적인 약점으로서 죄를 가볍게 할 여지가 있지만, 예비 음모에 의하여 그것을 행한 사람은 법에 대하여, 처벌에 대하여, 그 인간 사회에로 되돌아가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 주의력을 쏟았으며, 그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그것들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의 욕구보다도 업신여겨 뒤돌림해 버린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돌발적인 정념이라 하더라도, 전적으로 면죄를 받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 법을 알고서 그 범죄 사실을 이룩해 낼 때까지의 모든 시간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즉 그는 그 법을 생각해 보고 그의 정념에 의한 불규칙적인 행위를 고쳐야 하기 때문이다.

법이 공적으로 그리고 간결하게 모든 사람들의 앞에서 읽히고 해석되고 있는 곳에서는 그 법을 어기며 행하는 범죄 사실은, 사람들이 그러한 지도를 받지 않고 그것을 어려움과 불확실과 그들의 직업을 중단하며 찾으려고 하고, 공적인 자격이 없

는 사사로운 개인들이 알려 주는 것에 맡겨 버리는 곳에서보다도, 그 범죄는 더욱 무겁다. 왜냐하면 뒤의 경우에는 잘못된 것의 일부는 일반적인 약점의 탓으로 돌려지나, 앞의 경우는 주권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업신여김의 느낌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분명한 잘못이기 때문이다.

주권자의 암암리의 시인(是認)은 죄를 가볍게 한다 법은 명백히 유죄라고 하고 있지만, 입법자가 그 밖에 그의 의지의 명백한 표지에 의하여 암암리에 시인하고 있는 범죄 사실은 같은 범죄 사실이라 하더라도 법과 입법자의 쌍방에 의하여 유죄가 되고 있는 경우보다도 그 범죄는 가볍다. 왜냐하면 입법자의 의지는 법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두 개의 모순되는 법이 나타나게 된 것이므로 이것은 만일 사람들이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 제시된 이외의 증거를 보고, 주권자의 암암리 시인에 관해 알도록 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전적인 면죄가 된다. 그런데 그 경우에는 주권자의 위범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법을 지키는 데에 대해서도 처벌이 같이 따라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주권자가 부분적으로 법을 어기는 원인이므로 따라서 위범자에게 범죄의 모든 것을 씌우는 것은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법은 결투를 유죄로 하고 그 처벌은 사형이라고 하고, 그 뒤에서는, 결투를 거부하는 사람은 업신여김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 법적인 구제가 없으면 때로는 주권자 자신에 의해서도, 전시(戰時)에 있어서 어떠한 책임을 맡겨 임무를 줄 만한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자. 거기에서 만일 어떤 사람이 주권을 가지는 사람들의 호평을 얻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애쓰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생각하고 결투를 받아들인다면, 당연히 그는 엄하게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잘못의 일부는 처벌자에게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내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사사로운 복수의 자유나 무엇인가 그 밖의 종류의 불복종을 바라고 있어서가 아니라 통치자들이 직접적으로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장려하는 일이 없도록, 그들이 주의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왕후들의 실례는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법 자체보다도 사람들의 행위를 통치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제까지 계속 효력을 지니고 있었고, 또한 현재에도 효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왕후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지만, 신이 사람들에게 그 계율에 따르도록

하기 위하여 보통이 아닌 초자연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전까지는 그 의무는 결코 이룩되지 않을 것이다.

범죄의 그 결과에 따르는 비교 그리고 만일 우리가 여러 가지의 범죄를 그들의 결과의 해악에 의하여 비교한다면, 첫째로, 같은 범죄 사실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가 적은 수의 사람에게만 해악을 주는 경우보다 그 범죄는 무겁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범죄 사실이 현재에 해를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례가 되어서)* 장래에도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현재에 있어서만이 해를 주는 경우보다도 그 범죄는 무겁다. 앞의 경우는 번식력이 강한 범죄로서 증가하여 많은 사람에게 해를 주지만, 뒤의 경우는 불임(不妊)이기 때문이다. 코먼웰스에 확립되어 있는 종교에 반대하는 여러 교설(敎說)을 주장하는 것은, 권위가 주워진 설교자의 경우가 사사로운 개인의 경우보다도 그 잘못은 크다. 또 신을 모독하는 무절제한 생활을 하며 무엇인가 어떤 비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관해서도 그러하다. 그와 똑같이 법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주권을 약하게 하려는 경향의 논점을 주장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거나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그러하는 것보다 더 그 범죄는 무겁다. 또 많은 사람이 그 충고를 따르고 그 행위를 흉내 낼 정도로 현명한 평판이 있는 사람이 법을 어기는 범죄 사실은, 다른 사람이 행하는 같은 범죄 사실보다도 그 범죄는 무겁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법이라고 하여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범죄는 현명하다고 평판이 있는 사람들의 발에 걸려 방해가 되는 꼴이 됨으로써, 즉 자기들이 나아갈 길보다도 다른 사람이 자기들 앞에서 가지고 가는 빛을 바라보는 약한 사람에게 발을 걸어 방해가 되는 돌이 되기 때문에 보다 무겁게 된다.

불경죄(不敬罪) 코먼웰스의 상태에 대한 적대적인 범죄 사실도 또한 사사로운 개인에 대한 같은 행위보다도 그 범죄는 무겁다. 왜냐하면 그 해악은 그 자체가 전체에게 미치기 때문이다. 코먼웰스의 병력을 적의 손아귀에 팔아넘기거나 비밀을 적에게 새나가게 하는 것이 그런 것이며, 또 군주이든 합의체이든 코먼웰스의 대표에 대한 모든 공격이나 그들의 것인 권위를 현재에 있어서든 후계자에 있어서든 멸망시키려는 말 또는 행위에 의한 모든 노력도 또한 그런 것이다. 이런 범죄를 라틴

사람들은 '존경을 훼손하는 범죄(crimina lalsal majestatis)'라고 이해하는 것이며, 기본법에 어긋나는 기도(企圖) 또는 행위인 것이다.

수회(收賄)와 위증(僞證) 그와 같이 판결을 효과 없는 것으로 만드는 범죄는 한 사람 또는 적은 수의 사람들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침해보다도 그 범죄는 무겁다. 예를 들면 올바르지 못한 판결이나 증언을 하기 위하여 돈을 받는 것은 똑같은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사기하는 것보다 그 범죄는 무겁다. 그러한 판결 때문에, 재판에 지는 사람이 손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판결이 도움이 되지 않으며, 폭력과 사사로운 복수의 필요성을 돕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공금 횡령 또 공공의 재산이나 수입을 강제로 빼앗거나 또는 써 없애 버리는 것은 사사로운 한 사람에 대한 강탈이나 사기보다도 그 범죄는 무겁다. 공공으로부터 강탈하는 것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한 번에 강탈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권위를 위조하는 일 공적인 대행직의 위조에 의한 사용, 공적인 인장(印章)이나 공적인 주화(鑄貨)는 사사로운 개인의 신변이나 그의 인장의 위조보다도 그 범죄는 무겁다. 이것에 대한 사기는 많은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사사로운 개인에 대한 여러 범죄의 비교 법을 어기고 사사로운 개인에 대하여 저지르는 여러 범죄 사실 중에서 보다 무거운 범죄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의견에서 그 손해가 보다 더 잘 느껴지는 경우이다. 따라서 법을 어기고 죽이는 것은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다른 어떠한 침해보다도 그 범죄는 무겁다. 그리고 고통을 주며 죽이는 것은 단순하게 죽이는 것보다 무겁다. 그리고 손발을 자르는 것은 사람의 재화를 약탈하는 것보다 무겁다. 그리고 죽음이나 상해의 위협에 의하여 사람의 재화를 약탈하는 것은 은밀하게 훔쳐 내는 것보다 더욱 무겁다. 그리고 은밀하게 훔쳐 내는 것은 사기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획득하는 것보다 더 무겁다. 그리고 폭력에 의하여 정조를 유린하는 것은 달콤한 말로 하는 것보다 무겁다. 그리고 기혼의 여성에 대한 것은 미혼의 여성에 대한 것보다 더 무겁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모든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위범이 같아도 어떤 사람은 더욱 무겁고, 어떤 사람은 보다 가볍게 느끼는

것이지만, 그러나 법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고 인류의 일반적인 성향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말이나 몸짓에 의한 모욕에 대해 사람들이 화를 내도, 치욕을 당한 사람들의 당장의 해악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리스 사람, 로마 사람 그 밖의 옛날이나 지금의 코먼웰스의 법에서도 무시되어 왔었다. 이러한 해악의 참다운 원인은 모욕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욕은 자기의 덕(德)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앞세울 만한 일이 아니다)* 그것에 의하여 화를 내게 된 사람의 옹졸함에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사사로운 한 개인에 대한 범죄도 또한 사람과 때와 장소에 따라 크게 무거워진다. 즉 어버이를 죽이는 일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욱 그 범죄는 무겁다. 왜냐하면 어버이는 *(그가 자기의 권력을 시민법에 양도했다고 할지라도)* 주권자다운 영예(榮譽)를, 본래 자연이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질 만하다. 또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강탈하는 것은 부유한 사람으로부터 강탈하는 것보다도 그 범죄는 무겁다. 가난한 사람은 그 손해를 보다 크게 느끼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에게 몸을 바치기 위하여 정해진 때와 장소에서 저질러지는 범죄는, 다른 때 또는 장소에서 저질러지는 범죄보다도 무겁다. 그 범죄는 법에 대한 보다 크게 업신여기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무거워지거나 가벼워지거나 하는 많은 경우를 더욱더 덧붙일 수 있겠으나 여기까지 내가 기술해 온 것으로써, 다른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도 누구든지 그 무거움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공적인 범죄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태반의 범죄에 있어서 사사로운 개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코먼웰스에 대해서도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범죄라도 코먼웰스의 이름으로 고소를 당하게 될 때는 공적인 범죄라고 일컬어지고, 사사로운 개인의 이름으로 고소를 당할 때는 사적인 범죄라고 일컬어진다. 그리고 재판도 그것에 따라 공적인 것, 즉 '공적 재판' 또는 '왕좌 재판'이라 불리고, 후자는 '사적 재판'이라고 불린다. 예를 들면 살인의 고소에 있어서 고소인이 사사로운 개인이라면 그 재판은 사적인 재판이고 고소인이 주권자이라면 그 재판은 공적인

재판이다.

제28장 처벌과 보수(報酬)에 대하여

처벌의 정의 처벌이란 '공적인 권위에 의하여 입게 된 해이며, 그 권위에 의하여, 법에 어긋난다고 판결을 받을 행위 또는 그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대하여, 사람들의 의지가 보다 더 잘 복종에로 향하도록 하는 목적을 위해 입게 된 것'이다.

처벌의 권리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내가 이 정의로부터 무엇인가를 추론하기에 앞서 답하지 않으면 안 될 극히 중요한 하나의 문제가 있다. 그것은 도대체 처벌의 권리와 또 권위는 어느 문으로 들어왔는가 하는 것이다. 즉 이제까지 논한 바에 따라 어떠한 사람도 폭력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신약에 따라 의무 지워진다고는 생각할 수 없고, 따라서 그는 자기의 신체에 대하여 더해지는 어떠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코먼웰스를 만들 때 각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방위하는 권리는 포기하지만, 자기 자신을 방위하는 권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주권을 가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처벌하는 경우에 주권자를 돕도록 자기 스스로에게 의무를 지우나, 자기 자신이 처벌을 받을 때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나 주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 주권자를 돕도록 신약하는 것은, 그것을 신약하는 사람이 스스로 그러한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면 주권자에게 처벌의 권리를 주는 것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명백히 코먼웰스*(즉 이것을 대표하는 사람 또는 사람들)*가 가지는 처벌하는 권리는 신민들의 양보나 증여에 바탕을 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은 코먼웰스의 설립 전에는, 그가 자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대한 권리와 어떠한 것도 해낼 수 있는 권리, 또는 그것 때문에 누구든지 굴복시켜 상처를 입혀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그리고 이것이 각 코먼웰스에서 행사할 수 있는 저 처벌의 권리를 위한 바탕이 되는 것이다. 즉 신민들이 그 권리를 주권자에게 준 것이 아니라 다만 그들 자신의 것을 포기함으로써 주권자가 그들 전체의 유지를 위해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들 자신의 것을 쓰도록 강요당했다. 따라서 처벌의 권리는 주권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권자

에게 더욱이는 주권자에게만, 남겨진 것이며, 그리고 *(자연법이 그에게 정해 준 제한을 제외하면)* 전적인 자연 상태, 즉 각 사람이 그 이웃에 대한 전쟁 상태에 있어서와 같이 원래의 그것대로 남겨진 것이다.

사사로운 개인적인 침해 및 복수는 처벌이 아니다 처벌의 정의에서 보아 나는 첫째로, 사사로운 개인에 대한 사적인 복수나 침해는 정당하게 처벌이라고는 일컬을 수 없다고 추론된다. 그들은 공적인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승진(昇進)을 거부하는 것도 처벌이 아니다 둘째로, 공적인 승진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거나 뽑혀 추천을 받지 못하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에 의하여 새로운 고통이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다만 그가 이전에 있었던 지위에 머물러 있게 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공적인 심리(審理) 없이 주어지는 고통도 처벌이 아니다 셋째로, 미리 공적인 유죄 판결 없이, 공적인 권위에 의하여 입혀지는 해는 처벌의 이름으로 일컬어질 수 없고, 적대 행위의 이름으로 일컬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처벌을 당하는 범죄 사실은 먼저 공적인 권위에 의하여 법을 어긴 것이라는 판결이 내려져야 하기 때문이다.

빼앗은 권력에 의하여 주어지는 고통도 처벌이 아니다 넷째로, 빼앗은 권력이나 주권자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지 아니한 재판관이 주는 고통은, 처벌이 아니라 적대적인 행위라는 것이다. 빼앗은 권력의 행위는,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의 인격을 당사자로 삼을 수 없기 때문이며, 따라서 공적인 권위의 행위는 아닌 것이다.

장래의 선(善)을 생각하지 않고 주는 고통도 처벌이 아니다 다섯째로, 위법을 저지른 사람 또는 *(그를 본보기로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법에 따르도록 하는 의도 또는 가능성 없이, 주게 되는 모든 해는, 처벌이 아니라 적대적인 행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이 없으면 어떻게 상해가 입혀진다 하더라도 그 명칭 속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연적으로 나쁜 귀결은 처벌이 아니다 여섯째로, 일정한 행위에는 자연적으로 여러 가지의 해로운 귀결이 따르는 것이므로, 예를 들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여 자기 자신이 죽게 되거나 상처를 입거나 하는 경우에, 또는 그가 어떤

불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병을 얻게 될 경우에는, 그러한 고통은 자연의 창조자인 신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따라서 신의 처벌이라고도 말할 수 있으나, 그것은 인간의 권위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련에 있어서는 처벌의 명칭에는 들지 않는다.

입히게 되는 해가 침범에 의한 이익보다도 적으면 그것은 처벌이 아니다 일곱째로, 만일 입히게 되는 해가, 저질러진 범죄에 자연적으로 따르는 이익이나 만족보다도 적으면 그 해는 앞에서 논술한 정의 속에는 들지 않으며, 범죄의 처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대가 또는 보상이다. 처벌의 본질은 사람들을 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해는 *(그것이 만일 법을 어기는 이익보다도 적으면)* 그 목적을 이룩하지 않고 반대의 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처벌이 법에 덧붙여 기록되어 있을 때, 그것보다 더 큰 해는 처벌이 아니고 적대적인 행위이다 여덟째로, 만일 처벌이 법 그 자체 속에 정해져 규정되어 있더라도 범행을 하고 난 후 그것보다도 무거운 처벌이 주어진다면, 그것을 초과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적대적인 행위이다. 즉 처벌의 목적은 복수가 아니라 위협에 있고, 또 알지 못하는 무거운 처벌에 대한 위협이 그것보다 가벼운 처벌의 선고에 의하여 없어지게 되므로, 예측하지 아니한 덧붙여진 것은 처벌 속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적으로 어떠한 처벌도 법이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어지는 것은 모두 처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그 속에 형벌이 정해져 있지 않는 법에 대하여 불법을 저지르려는 사람은, 한정이 없는, 즉 제멋대로의 처벌을 미리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이 있기 이전에 저질러진 범죄 사실 때문에 주어지는 해는 처벌이 아니다 아홉째로, 그것을 못 하게 한 법이 있기 이전에 저질러진 범죄 사실 때문에 주어지는 해는, 처벌이 아니라 적대적인 행위이다. 즉 그 법이 있기 전까지는 그 법의 침략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처벌은 판결이 내려진 범죄 사실이 법을 침범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며, 그러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입혀진 해는 처벌이 아니라 적대적인 행위이다.

코먼웰스의 대표는 처벌될 수 없다 열째로, 코먼웰스의 대표에 대하여 주어지는 해는 처벌이 아니라 적대적인 행위이다. 왜냐하면 처벌의 본질은 공적인 권위에 의

하여 주어지는 것인데, 그 대표 자체의 권위이기 때문이다.

반역(叛逆)한 신민에 대한 해는 전쟁의 권리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지 처벌로서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적이라고 널리 밝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해는 처벌의 이름 속에 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까지 법에 복종한 일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어길 수 없거나, 또는 이제까지 그것에 복종하고 있어 이후에는 그렇지 않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그 귀결로서 그들이 그것을 어기는 것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해는 적대적인 행위라고 생각되어야 한다. 그러나 적대적인 것이 선언된 것이라면 어떠한 해를 주더라도 합법적이다. 그러기 때문에 만일 어떤 신민이 행위 또는 말로써 일부러 아니면 깊이 생각해서 그 코먼웰스의 대표의 권위를 부인한다고 하면 *(미리 반역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그가 대표의 뜻대로 어떻게 처분된다 하더라도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복종을 부인함으로써 그는 법에 정해져 있는 처벌을 부인하는 것이며, 그러기 때문에 코먼웰스의 적으로서, 즉 대표의 의지에 따라 해가 주어지는 것이다. 법에 정해져 있는 처벌은, 신민에 대한 것으로서, 자신들의 행위에 의하여 이제까지 신민이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고 반역하여 주권을 부인하는 사람들과 같은 적에게 대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처벌의 첫 번째의, 더욱더 일반적인 분류는 '신의 것'과 '사람의 것'과의 분류이다. 앞의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다 더 적당한 데서 논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인간적인 것'이란 사람의 율법에 의하여 주어지는 처벌로서 '육체적인 것'인가, '금전적인 것'인가, '치욕'인가, '감금'인가, '추방'인가, 이것들을 혼합한 것인가의 어느 것이다.

육체적인 처벌 '육체적인 처벌'이란 직접적으로 또한 그것을 주는 사람의 뜻에 따라 육체에 대하여 주어지는 처벌이다. 예를 들면 매질이나 상해나 이전에는 합법적으로 즐기던 육체적 즐거움의 박탈 등이 그것이다.

생명에 관련되는 무거운 것 그리고 이들 중에는 '생명에 관련되는 것'과 '생명에 관련되지 않는 것'이 있다. 생명에 관련되는 것이란 죽음의 처벌을 하는 것이며, 단순한 것인가 고통을 같이 하는 것인가의 어느 것인가가 있다. 생명에 관련되지 않

는 것이란 매질, 상해, 쇠줄 묶기 등 그 밖의 여러 가지의 육체적인 고통으로서 그것 자체의 성질로 보아서는 생명에 관계되지 않는 것이다. 즉 만일 처벌을 함에 있어, 처벌을 하는 사람의 뜻은 아니었지만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그 해는 예견할 수 없는 이유에 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며, 그 처벌은 생명에 관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죽음의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당기는 것이 된다.

금전적인 처벌 금전적인 처벌이란 어떤 액수의 화폐를 뺏는 것뿐만 아니라 보통 화폐로 사고파는 토지 그 밖의 모든 재화를 빼앗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처벌을 정하는 법이, 그 법에 어긋나는 것을 저지르는 사람들로부터 화폐를 모으려고 하는 계획 밑에서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본래의 처벌이 아니라 특권과 법의 면제의 대가이며, 그 법은 그 행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화폐를 지불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그 법이 자연적인 것 또는 종교의 일부인 경우에는 다르며, 그 경우에는 그것은 법의 면제가 아니라 법을 어기는 것이다. 예를 들면 법이 신의 이름을 남용하는 사람들로부터 금전적인 과료를 강제로 징수하는 경우, 그 과료의 지불은 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 면허장의 대가가 아니라, 법의 위법에 대하여 면제될 수 없는 처벌이다. 그와 같이 만일 법이 침해당한 사람에게 어느 액수의 화폐를 지불하도록 처벌했다면, 이것은 손해를 받은 사람에 대한 변제에 지나지 않으며, 침해당한 당사자의 고소를 소멸시키지만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의 범죄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치욕(恥辱) '치욕'이란 불명예가 될 만한 해를 입히는 것, 또는 코먼웰스에 의하여 명예가 될 만한 이익을 빼앗는 것이다. 즉 용기 · 대담 · 힘이 되는 것 · 지혜 그 밖의 몸과 마음의 여러 능력의 효과와 같이 자연에 의하여 명예가 되는 것도 있고 또 그 밖에 기장(記章) · 칭호(稱號) · 직무 그 밖의 모든 주권자에게는 특수한 표징과 같이 코먼웰스에 의하여 명예스러운 것이 되는 것들이다. 앞의 경우의 명예는 *(자연에 의하여 또는 우연에 의하여 쇠퇴되는 일이 있다고는 하지만)* 법에 의하여 없앨 수는 없으며, 따라서 그들의 상실은 처벌이 아니다. 그러나 뒤의 경우의 명예는 그것들을 명예로운 것이 된 공적인 권위에 의하여 없어지는 것이며, 그것이 본래

의 처벌이다. 그것은 예를 들면 유죄가 된 사람들의 기장 · 칭호 · 직무가 낮아지는 것, 또는 그들이 장래에 그러한 것들을 가질 자격이 없다 선고하는 것 등이다.

감금 '감금'이란 사람이 공적인 권위에 의하여 자유를 빼앗기는 경우로서 두 개의 다른 목적에서 생긴다. 그 하나는 고소당한 사람의 예방 구속(拘束)이고, 또 하나는 유죄가 된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다. 앞의 것은 처벌이 아니다. 어떠한 사람도 법에 합당하게 심리된 유죄 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는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의 소송이 심리되기 전까지는 그를 확실하게 구속하기에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쇠고랑이나 속박에 의하여 벌을 받게 되는 해는 모두 자연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나 뒤의 것은 처벌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해이며, 공적인 권위에 의하여 법을 위법했다고 판결이 내려지는 어떤 경우에 대하여 그와 똑같은 권위에 의하여 해가 입혀졌기 때문이다. 이 감금이라는 말에 따라서 나는 외적인 장해에 의하여 불러일으켜지는 모든 운동에 대한 속박을 포함한다. 그 장애가 감옥이라고 일반적인 명칭으로 불리는 건물이건 또는 사람이 그 속에 유폐(幽閉)된다고 말하는 경우와 같은 섬이든 또는 고대에 있어 사람들이 채석장(採石場)으로, 현대에서는 갤리선(galley船)에로 유죄 선고를 받는 것과 같이 사람이 거기에서 노등을 당하는 장소이건, 또는 그것이 쇠사슬이나 그것과 비슷한 다른 어떠한 장해이든 감금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추방 '추방'(放逐)이란 사람이 범죄 때문에 코먼웰스의 영토 또는 그 특정의 부분에서 떨어져, 미리 정해진 기간 또는 영구히 거기에로 되돌아오지 않도록 선고를 받는 경우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 자신의 성질로 보아, 다른 사정이 없으면 처벌이 아니라, 오히려 도망 또는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하라는 공적인 명령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리고 키케로는 로마의 도시에서는 결코 이와 같은 처벌은 정해져 있지 않았다고 말하고, 그것을 위험에 빠진 사람들의 피난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만일 방축당한 사람이 그러고도 더욱 그의 재화나 토지 수입을 즐겨 받아들이는 것을 용서받는다면, 단순한 공기(환경)의 변경은 어떠한 처벌이 아니고, 또 그것은 모든 처벌이 정해진 이유인 코먼웰스의 이익*(즉 사람들의 의지가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에 보탬이 안 되고, 때로는 코먼웰스에 대해 손해를 주는 쪽으로

보탬이 된다. 왜냐하면 방축당한 사람은 이미 그를 방축한 코먼웰스의 구성원이 아니므로, 코먼웰스의 합법적인 것(적(敵))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그 밖에도 그의 토지나 재화를 빼앗긴다면, 처벌은 추방에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처벌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죄 없는 신민을 처벌하는 것은 자연의 법에 어긋난다 죄 없는 신민들을 처벌하는 것은 모두 무겁든 가볍든 자연의 법에 어긋난다. 처벌은 다만 법에 대해 위법할 때에만 주어지는 것이며, 그러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에 대한 처벌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첫째로, 모든 사람들이 그 복수를 함에 있어 어떤 장래의 이익 이외의 것을 얻으려고 바라는 것을 금지하는 자연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죄가 없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코먼웰스에게 어떠한 이익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로, 배은망덕을 금지하는 자연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주권은 원래 신민 각자의 동의에 의하여 그들이 순종하는 한, 그것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는 목적을 위하여 주어져 있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의 처벌은 이익 대신에 해악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셋째로, 형평을 명령하는 법을 어기는 것이다. 즉 그 법은 정의의 평등한 배분으로서, 죄 없는 사람을 처벌해서는 그것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에 있어서 죄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해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신민이 아닌 죄 없는 사람에 대하여 어떠한 해를 주려고 하더라도, 만일 그것이 코먼웰스의 이익이 되고 어떤 이전의 신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자연의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신민이 아닌 모든 사람은 적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앞서 있던 신약에 의하여 적이기를 그만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들에게 대하여 위해를 주려고 하는 코먼웰스가 판단하는 적에 대하여 전쟁하는 것은 본디의 자연의 권리에 의하여 합법적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있어서, 칼로써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또한 승리자가 지난날에 죄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구별을 하는 것이 아니며, 그 자신의 인민의 이익에 보탬이 되는 것 이외에는 자비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선언된 반란(反亂)에 대하여 주어지는 것도 그렇지 않다 그리고 확립된 코먼웰스의

권위를 깊이 생각한 나머지 부인하는 신민들에 대해서도 또한, 앞에서 논술한 이유에서 보복을 아버지들뿐만 아니라,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따라서 그들이 고통을 받는 범죄 사실에 대하여 죄가 없는 제삼, 제사(弟四)의 세대에까지 미쳐도 합법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이 법을 어기는 것의 본질은 신하가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는 데 있으며, 그것은 보통 반란이라 불리는 전쟁 상태에로 되돌아가는 것이며, 이와 같이하여 배반하는 사람들은 신민으로서가 아니라 적으로서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즉 반란이란 또다시 시작된 전쟁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보수는 급료나 은혜의 어느 하나이다 보수는 '증여'나 '계약'에 의하는 어느 하나이다. 계약에 따르는 경우는 그것은 '급료' 및 '임금'이라 불리고, 그것은 수행되거나 또는 약속된 봉사에 대하여 당연히 받아야 할 이익이다. 증여의 경우에는 그것은 그것을 주는 사람과의 '은혜(恩惠)'에서 나오는 이득으로서, 그들에게 대하여 봉사하도록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힘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코먼웰스의 주권자가 어떠한 공적인 직무의 급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받는 사람의 정의(正義) 때문에 자기의 직무를 해내도록 의무가 지워지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다만 명예 때문에 감사와 보답을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가 지워지는 것이다. 즉 사람들은 보수나 급료도 없는데 공공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그 사사로운 일을 그만두고 내던지도록 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어떠한 합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는 없으나 그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자연법에 따라 의무가 지워지는 것이 아니며,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 봉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코먼웰스의 규정에 따라 의무가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주권자는, 가장 일반적인 병사라 하더라도 그의 전투의 임금을 채무로써 요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의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공포 때문에 주는 이득은 보수가 아니다 어떤 신민이 가지는 코먼웰스에 대해 위해를 줄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을 두려워하여, 주권자가 그에게 주는 이득은 원래는 보수가 아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은 이미 코먼웰스에 대해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의무가 지워져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계약이 이루어졌다고는 결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은 급료가 아닌 것이다. 또 그들은 주권에 의하여 원래 일

어날 수 없는 공포에 의해서 억지로 빼앗겼기 때문에 은혜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헌상(獻上)하는 것으로서 주권자(*코먼웰스의 인격으로서가 아니라 그의 자연적인 인격으로서 생각되었다*)가 그 자신보다도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불만을 가라앉히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복종에 대해서가 아니라, 거꾸로 더욱 더 강탈을 계속 늘리도록 돕는 것이다.

일정한 급료와 임시의 급료 그리고 급료에는 공공의 금고에서 얻는 일정한 것과, 그 급료가 정해져 있는 직무를 다함으로써 얻는 정해 있지 않는 임시적인 것이 있다. 뒤의 것은 재판의 경우처럼, 어떤 경우에는 코먼웰스에게 해로운 것이 있다. 왜냐하면 재판관이나 법적의 대행자의 이득이 그들에게 심리를 받기 위하여 제기된 소송 사건의 수에 따르는 경우에는, 다음 두 가지의 불편이 일어나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하나는 소송이 많을수록 이득이 많기 때문에 소송을 조장(助長)하는 것이 되고, 다른 하나는 재판 관할권을 둘러싸는 경쟁에 의하는 것으로서 각 재판소가 가능한 한 많은 소송 사건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의 직무에 있어서 그 일은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노력하더라도 더 많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처벌과 보수의 성질에 관해서는 이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그들은 말하자면 코먼웰스의 손발과 관절을 움직이는 신경과 힘줄이다.

여기까지 나는 사람(*그의 자만과 그 밖의 여러 정념들이 그로 하여금 스스로 통치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의 성질[본성]을, 그의 통치자의 강대한 권력과 더불어 논술해 왔다. 뒤의 것[통치자]에 대해 나는 '리바이어던(Leviathan)'에 견주고, 그 비교를 〈욥기〉 41장의 마지막의 두 개 절[33~34절]에서 인용해 왔다. 여기에서 신은 '리바이어던'의 강대한 권력에 관해 말하고, 그것들을 교만을 부리는 자들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땅 위에는 그것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 없게 지음을 받았음이라,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 되느니라'라고 신은 말한다. 그러나 그는 다른 모든 땅 위의 피조물이 그러한 것과 같이, 반드시 죽는 것, 시들기를 면치 못하는 것, 또 하늘 위(*땅 위가 아니나*)에는 그가 두려워하는 것, 그가 복종해야 할 법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다음의 여러 장(章)에서

그의 병, 그의 죽음의 원인 그리고 그가 어떠한 자연의 여러 법에 따르도록 의무가 지워져 있는가에 관해 논하기로 한다.

제29장 코먼웰스를 강화시키거나 또는 와해의 원인이 되는 것들에 대하여

코먼웰스의 해체는 그 설립이 불완전한 것에서 나온다 죽음을 면치 못할 운명의 것이 만드는 것은 모두 죽지 않을 수 없는 것이므로, 만일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이성(理性)을 활용하고 있었더라면, 그들의 코먼웰스를 적어도 속병에 의한 멸망으로부터 지킬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코먼웰스는 그것의 설립의 본질에 의하면, 그들이 그것들에게 생명을 주는 인류, 자연의 여러 법, 정의 그 자체 등과 아울러 살며 오래도록 이끌려고 계획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들이 외적인 폭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적인 혼란에 의하여 해체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은 그것의 '내용'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제정자(制定者)' 및 '정돈자(整頓者)'로서의 사람에게 있다. 즉 사람들이 규율 없이 서로 떠밀고 토막 내기에 지쳐 빠져 하나의 확고하고 영속적인 건물을 지으려고 마음으로부터 바란다면, 사람들의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적당한 법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지 못하거나 사람들의 지금 정도의 조잡하고 귀찮은 점을 없애는 것을 참기 위한 겸허와 인내심이 없거나 하면, 그들은 극히 유능한 건축가의 도움 없이는 흔들흔들하는 건물밖에는 만들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건물은 겨우겨우 그들 자신의 시대밖에는 계속할 수 없고, 그들 자손의 머리 위에서 무너져 떨어질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코먼웰스의 '여러 약점' 중에서 내가 제일 먼저 들고 싶은 것은 불완전한 설립에서 생기는 것으로서, 그것은 결함 있는 생식(生殖)에서 태어난 자연인의 육체의 병을 닮고 있는 것이다.

절대 권력의 결여 그중의 하나는 '사람이 왕국을 손에 넣는 경우, 그 코먼웰스의 평화와 방위를 위해 필요로 하는 것보다는 작은 권력으로 만족한다'는 것이 있다. 거기에서 다음과 같은 것이 나온다. 즉 버려져 있던 권력의 행사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또다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그것은 여러 사람에 대해 *(기회가 주어진다면)*

반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올바르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것과도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꼭 병을 지니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이들의 육체가, 어려서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나쁜 수태(受胎) 때문에 생기는 병든 체질을, 담즙이나 개선(疥癬) 등을 불어 밖으로 내보냄으로써 깨끗하든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왕들이 이러한 필요한 권력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항상 그들이 떠맡는 직무에 있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 아는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때로는 그렇기도 하지만)* 대개는 그들이 좋다고 할 때는 또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그들은 만족스러울 정도로 추리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을 그 약속에 묶어 놓으려는 사람들은 그들에 대하여 외국의 코먼웰스에 의하여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코먼웰스는 그들 자신의 신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들의 이웃들의 상태를 '약하게 하는' 아주 잠깐의 기회마저도 놓치지 않는다. 헨리 2세에 반대하고 법왕의 지지를 받은 캔터베리의 대사교 토마스 베켓(Thomas Becket, 1118~1170)이 그러했다. 성직자들의 코먼웰스에 대한 신민으로서의 순종은 정복왕 윌리엄이 용인하여 그가 교회의 자유를 범하지 않을 것을 선서했을 때 특면(特免)을 받고 있었다. 또 존 왕(King John, Lacklan, 1196~1216)에 대한 반란에 있어서 프랑스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던 '귀족들'도 그러했다. 윌리엄 루퍼스[31]가 *(그의 형으로부터 계승권의 양도에 관하여 그들의 원조를 받을 정도로)* 귀족들의 권력은 주권과 양립할 수 없을 정도까지 증대되었다.

또 이러한 것은 왕정에 있어서만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고대 로마의 코먼웰스의 칭호는 '원로원'과 로마의 '인민'이었기 때문에, 원로원도 인민도 어느 쪽이나 모든 권력을 갖는다고는 주장하지 않았다. 이런 것이 먼저 티베리우스 그라쿠스(Tiberius Gracchus), 가이우스 그라쿠스(Gaius Gracchus), 루키우스 사투르니누스(Lucius Saturninus) 및 그 밖의 소수를 불러일으켰던 것이며, 나중에

31 Willian Rufus, 1056~1101. 정복왕 윌리엄의 삼남으로 부왕의 총애를 기화로 맏형을 물리치고 왕위에 올랐다.

는 마리우스와 술라의 통치 밑에서, 또다시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의 통치 밑에서, 원로원과 인민 사이의 전쟁을 불러일으켜 그들의 민주정을 멸망케 하고 왕정을 다시 시작했던 것이다.

아테네의 인민은 다만 하나의 행위만은 하지 않도록 약속했다. 살라미스(Salamis) 섬을 위한 싸움을 다시 하도록 제안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으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솔론이 스스로를 미쳤다고 밖으로 밝히고, 그 후에는 미치광이의 거동이나 습성으로 또 시(詩)를 읊거나 하며, 그의 주변에 무리지어 모인 인민들에게 그런 일을 제안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는 그 도시 성문 부근에서까지도 끊임없이 준비를 다 갖추고 기다리고 있는 적들이 있었다. 자기 스스로의 권력을 더없이 작게 한정한 모든 코먼웰스는 그러한 손실이나 책략을 어찌할 수 없이 당하게 했다.

선악에 대한 사적인 판단 둘째로, 나는 선동적인 학설의 해독(害毒)에서 생기는 코먼웰스의 '병'에 관해 보기로 한다. 그중의 하나는 '각 사사로운 개인이 선악의 행위의 판정자이다'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시민법이 있지 않았던 그대로의 자연의 상태에 있어서는 진실이며, 또한 시민 정부의 통치 밑에서 법에 의하여 정해 있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그러나 그밖에 대해서는 선악의 행위를 위한 척도는 시민법이며, 판정자는 언제나 코먼웰스의 대표인 입법자라는 것은 명백하다. 이 잘못된 학설에서 사람들은 코먼웰스의 명령에 관해 논의하고, 반박하며, 그 후에는 그들의 사적인 판단에 따라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에 따르거나, 배반하거나 하게 된다. 이런 것에 의하여 코먼웰스는 혼란에 빠지고 '약해지는' 것이다.

그릇된 양심 시민 사회에 어긋나는 또 하나의 학설은 '사람이 그의 양심을 어기고 하는 것은 모두 죄악이다'라는 것으로서, 그것은 그 자신을 선악의 판정자로 한다는 추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왜냐하면 사람의 양심과 그 판단은 같은 것이며, 판단과 같이 양심도 또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시민법에도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자신의 이성(理性) 이외에는 복종해야 할 어떠한 규칙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자신의 양심을 어기고 하는 모든 것에 있어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겠지만, 코먼웰스에서 생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법이 공적인 양심이며, 그것에 의하여 이끌어져야 할 것을 그는 이미 약속했기 때문이다. 만일 위와 같지 않다고 한다면 사적인 의견에 지나지 않는 사적 양심에서 볼 수 있는 다양성 때문에 코먼웰스가 혼란에 빠질 것이 틀림없고, 어떠한 사람도 그것이 자기 자신의 눈에는 선(善)으로 보이는 것 이외에는 억지로 주권에 따르려고 하지 않게 된다.

영감을 받았다고 위장하는 것 '신앙과 신성함은 연구와 이성(理性)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영감 또는 주입에 의하여 얻어져야 한다'는 것도 또한 이제까지 일반에게 가르쳐져 왔다. 만일 이런 일이 인정된다면, 왜 누구든지 자기 신앙의 추리에 의한 설명을 하는지, 또는 왜 모든 그리스도 교도는 동시에 예언자가 아닌지, 더욱 왜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영감보다도 자기 나라의 법을 자기 행위의 규칙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들은 나에게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선악의 판정자로서 임무를 잘못 맡은 것, 또는 초자연적인 영감을 받았다고 위장하는 사사로운 개인들을 그 판정자로 하는 잘못에 다시 빠져들어, 모든 시민 정부의 해체를 가져오게 된다. 신앙은 듣는 것으로부터 나오며, 듣게 되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말하는 사람들의 앞으로 이끌려 가는 우연한 사건에서 나오고, 이들 사건은 모두 신이 계획한 것이지만, 초자연적인 것은 아니고, 다만 하나의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데 많은 사건들이 작용하고 있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뿐이다. 신앙과 신성함은 사실로 자주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들은 기적이 아니라 교육, 훈련, 교정 그 밖의 자연적인 방법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이며, 신은 이들 방법에 의하여 그들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그들이 뽑은 사람들로 하여금 작동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평화와 통합에 대해 위험한 위의 세 가지 의견은, 세계의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주로 배우지 못한 성직자들의 혀나 붓에서 생긴 것이며, 그들은 《성경》의 말을 이성이 동의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르게 써서 모아, 신성과 자연적인 이성은 모순된다고 사람들에게 믿도록 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는 것이다.

주권은 시민법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 코먼웰스의 본질에 어긋나는 네 번째의 의견은 '주권자는 시민법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확실히 주권자들은 모두 자연의

여러 법에 복종한다. 이러한 법은 신의 것이며, 어떠한 사람도 코먼웰스에 의하여 버림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권자 스스로 즉 코먼웰스가 만드는 여러 법에는 그는 복종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법에 복종하는 것은 코먼웰스에 대해, 즉 주권자 대표에 대해, 즉 자기 자신에 대해 복종한다는 것이며, 그것은 복종이 아니라 법으로부터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주권자 위에 법을 두기 때문에 잘못이며, 그 잘못은 재판관들도 주권자들의 위에 두고, 그를 처벌하는 권력도 주권자 위에 두는 경우이다. 그것은 새로운 주권자를 만드는 것이며, 더욱 같은 이유로, 둘째의 것을 처벌하기 위하여, 셋째의 것을 만드는 것이며, 이와 같이 끊임없이 계속하여 코먼웰스의 혼란과 해체를 불러오는 것이다.

신민에게는 절대적인 소유권이 있다고 하는 것 코먼웰스를 해체에로 향하게 하는 다섯째의 학설은, '모든 사사로운 개인은 그의 재화에 대하여 주권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것 같은 절대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확실히 각 사람은 다른 시민의 권리를 배제하는 소유권을 가진다. 그는 주권자를 주권자로부터만이 얻는 것으로서 주권자의 보호가 없으면, 그와 같은 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도 모두 평등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주권자의 권리 또한 배제된다면, 시민들이 주권자에게 맡긴 직무, 즉 시민들을 외적(外敵)과 서로의 침범이라는 것으로부터 방위하는 것을 다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이미 코먼웰스는 존재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만일 시민들의 소유권이 그들의 재화에 대한 주권자 대표의 권리를 배제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사법이나 행정을 위한 직무에 대해서도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이 이들 직무는 주권자 자신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권은 분할할 수 있다는 것 코먼웰스의 본질에 대해 분명히 그리고 또한 직접적으로 어기는 여섯째의 학설은 '주권은 분할할 수 있다는 학설'이다. 즉 분할된 여러 권력은 서로 멸망하게 하는 것이므로 코먼웰스의 권력을 분할한다는 것은 코먼웰스를 해체하는 것 이외의 무엇이겠는가. 이러한 학설은 법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오는데 이들은 입법권이 아니라 자기들의 학식에 따라 법을 만드는 일에 주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다.

이웃 여러 국민의 모방 그리고 잘못된 학설과 같이 이웃 여러 국민의 다른 통치의

예도 또한 때로는 이미 정해진 형태를 변경하려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하여 유대의 인민은 신을 거부하고, 여러 다른 국민의 수법을 따라 예언자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 달라고 선동당했다. 그와 똑같이, 그리스의 군소 도시도 귀족파와 평민파의 소요 때문에 계속적으로 흩어졌다. 거의 모든 코먼웰스의 내부에서 그 일부는 라케다이몬(Lacedaemon) 사람을, 다른 쪽은 아테네 사람을 모방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다 더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는 통치 형태를 변경하는 것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낮은 땅의 여러 나라를 모방하고 잉글랜드에서 일어나는 최근 분쟁을 보고 만족하게 여긴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은 사실이다. 즉 인간성이라는 것은 그 자신의 새로운 것을 바라는 것으로서, 그것에 의하여 부유하게 된 사람들이 있는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그러한 자극을 받으면 그것을 개혁에로 유도하는 사람들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들은 혼란이 계속되어 슬프더라도 그 시작을 좋아하는 것이며, 그것은 옴에 걸린 성급한 사람이 그 이상 욱신욱신 아픈 것을 참을 수 없을 때까지 손톱으로 긁어 대는 것과 비슷하다.

그리스 사람과 로마 사람의 모방 그리고 특히 왕정에 대한 반란의 원인 중에서 가장 빈번한 것 중 하나는 고대 그리스 사람이나 로마 사람의 정치에 관한 책이나 역사를 읽는 것이며, 그것들에 의하여 청년들이나 그 밖의 확고한 이성이라는 해독제를 갖추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이나 로마 사람들의 군대 지휘관들이 해낸 위대한 전쟁의 솜씨에 대하여, 강렬하고 매혹적인 인상을 받게 되어, 그들이 이룩한 그 밖의 모든 것에 관해 기분 좋은 인상을 받고, 또한 그들의 위대한 번영은 개개인이 패(敗)하지 않으려는 노력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통치가 민중적인 형태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경우 소요나 내란이 가끔 일어난 것은 그들의 정치가 불완전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한 책을 읽음으로써 사람들은 그들의 왕을 죽이려고 꾸몄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나 라틴의 저술가들은 정치에 관한 그들의 책이나 논고에서 사람이 '그것'을 하기 전에 상대방을 폭군이라고 부르면, 누구든지 '그것'을 해내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칭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왕의 시해', 즉 왕을 죽이

는 것이 아니라 '폭군 시해', 즉 폭군을 죽이는 것으로, 그것을 합법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군주의 통치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들의 책 속에서, 민중적인 코먼웰스의 신민은 자유를 즐겨 받아들이고 있고, 왕정의 통치 밑에서는 자기들은 모두 노예라는 생각을 품게 되는 것이다. 되풀이하여 말하면 왕정 밑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이지 민중적 통치 밑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볼 수 없으므로 그런 생각을 품지 않는다. 간추려 말하면, 그 해독을 빼내 없애는 데 적합한 생각 깊은 교사라고 할 수 있는 조정제(調整劑)를 곧바로 먹지 않은 채로 이러한 책이 공공연히 읽는 것을 허락하는 것처럼 왕정에 해로운 일은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그 해독을 의사가 '광수병', 즉 '물에 대한 공포'라고 부르는 병과 같이 어느 미친개에게 물린 상태와 비교할 수 있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그와 같이 물린 사람은 끊임없이 목마름에 고통을 받으면서도 물을 몹시 싫어하는 것이며, 또한 그 해독이 그를 개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은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다. 그와 똑같이 왕정도 계속 그 상태에 대해 으르렁대는 민주적인 저술가들에게 한번 무섭게 물리고 나면, 그것은 강력한 군주를 바라기만 할 뿐, 막상 그러한 군주를 갖게 되면 일종의 '폭군 공포', 즉 강력하게 통치를 받게 된다는 공포 때문에 그를 몹시 싫어하는 것이다.

사람에게는 세 개의 혼(魂)이 있다고 주장한 박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코먼웰스에도 하나 이상의 혼*(즉 하나 이상의 주권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들은 '주권'에 대하여 '최고권'을, 법에 대하여 '교회법'을, '시민적인 권위'에 대하여 '영혼(靈魂)적인 권위'를 내세우고, 말과 구별을 앞세워 사람들의 마음을 작동시키고 있으나, 그들의 말이나 구별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것도 뜻하는 것이 없고, 암흑 속에서 말하자면 요정(妖精)의 왕국과 같은 또 다른 왕국*(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눈에 안 보이는)*이 배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없는 모호한 말로는)* 어렴풋이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시민적인 권력과 코먼웰스의 권력은 같은 것이며 최고권, 즉 교회법을 만들어 종교적인 기능을 허용하는 권력이 코먼웰스를 뜻하는 것은 명백하므로, 거기에서 한쪽이 주권적이다. 다른 쪽이 최고 적이며, 한쪽이 법을, 다른 쪽은 교회법을 만들 수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서는 같은 신

민에 대하여 두 개의 코먼웰스가 있을 수 없고, 그 왕국은 그 자체 속에서 분할되어 견고한 것이 되지 못한다. 즉 '현세적'과 '영혼적'이라는 뜻 없는 구별을 앞세우면서도, 그것은 또한 두 개의 왕국이며, 각 신민은 두 사람의 주인에게 신민으로서 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영혼적'인 권력은 무엇이 죄인가를 선고하는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그 귀결로서 무엇이 법인가를 선고하는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며*(죄는 법을 어기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시민적인 권리도 또한 무엇이 법인가를 선고하는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각 시민은, 두 사람의 주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 두 사람 모두 그들의 명령이 법으로서 지켜지기를 바라는 것이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지 않고 만일 그것이 하나의 왕국이라고 한다면, 코먼웰스의 권리인 '시민적'인 권리가 '영혼적'인 권리에 복종하느냐, 또는 '영혼적'인 권리가 '현세적'인 권리에 종속하느냐의 두 가지 중의 어느 한 가지이어야 한다. 그리고 앞의 경우에는 '영혼적'인 것 이외에는 주권은 없고, 뒤의 경우에는 '현세적'인 것 이외에는 '최고권'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권력이 서로 대항하는 경우에는 코먼웰스는 내란과 해체라는 큰 위험에 부딪히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시민적'인 권위의 쪽이 보다 보기 쉽고, 또한 자연적인 이성이 보다 밝은 빛 속에서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인민의 극히 많은 부분을 가까이 끌어당기지 않을 수 없으며, 그리고 '정신적'인 것은 스콜라적으로 구별 짓는 것과 이해하기 어려운 말 사이의 어둠 속에서 있다고는 하지만, 암흑이나 영혼에 대한 공포는 다른 공포보다도 크기 때문에, 코먼웰스를 괴롭히고, 때로는 파괴하기에 충분한 당파(黨派)가 항상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인의 육체에 있어서 *(유대 사람들은 영혼이 미치게 되는 것의 한 종류라고 생각한)* 지랄병에 비교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는 병이다. 왜냐하면 이 병에서는 신경의 뿌리를 방해하는 부자연스러운 영혼이나 바람이 머릿속에 있어, 여러 신경을 심하게 움직이고, 그것들이 자연적으로 두뇌 속에 있는 혼의 힘에서 받아야 할 운동을 놓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신체의 여러 부분에 대해 심하고 불규칙적인 운동*(사람들은 그것을 경련이라고 부른다)*을 불러일으켜 거기에 사로잡혀 사람은 감각을 빼앗긴 사람과 같이 때로는 물속에 때로는 불속에까지 넘어질 정도이다. 이것과 같이 정치 체제에 있어

서도 또한 영적인 권력이 코먼웰스의 구성원을 처벌의 위협이나 보수의 기대*(코먼웰스의 신경이다)*에 의하여 시민적 권력*(코먼웰스의 혼이다)*에 의하여 그들이 움직여지는 것과는 달리, 움직일 경우 이로써 기묘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그들의 이해력을 질식(窒息)시키는 경우에는, 인민을 혼란케 하여 코먼웰스를 억압하여 괴롭히거나 또는 그것을 내란의 불 속으로 내던지는 것과 같다.

혼합 통치 때로는 전적으로 시민적인 통치에 있어서도 하나 이상의 혼(魂)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화폐 징수권*(영양(營養)의 권능(기능))*은 일반적인 합의체에게, 지휘 명령권*(운동의 권능)*은 한 사람에게, 입법권*(이성의 권능)*은 위의 두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제삼자를 포함한 우연(偶然)의 동의에 있는 경우가 그러하다. 이런 코먼웰스는 때로는 좋은 법에 대한 동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대부분은 생명과 운동에 필요한 영향이 없기 때문에 코먼웰스를 위험으로 빠뜨리는 것이다. 즉 극히 적은 수의 사람은 이러한 통치는 통치가 아니라 세 개의 당파에 대한 코먼웰스의 분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혼합 왕정이라고 부르는 것이지만, 그것은 사실상 하나의 독립한 코먼웰스가 아니라 세 개의 독립한 당파이며, 또한 하나의 대표적인 인격이 아니라 세 개의 대표적 인격인 것이다. 신의 왕국에서는 세 개의 독립한 인격이 있더라도 다스리는 신의 통일을 깨뜨리는 일없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의견의 서로 다름이 엄격한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는 곳에서는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만일 왕이 인민의 인격을 닮고, 일반적 합의체 또한 인민의 인격을 닮으며, 또 다른 하나의 합의체도 인민의 일부의 인격을 닮는다고 하면, 그들은 하나의 인격도 하나의 주권자도 아니고, 세 개의 인격과 세 개의 주권자인 것이다.

자연인의 육체에 있는 어떠한 병이 이 변칙적인 코먼웰스에 정확하게 견주어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나는, 이미 어떤 사람의 옆구리에서 그 자신의 머리, 팔, 가슴, 위장을 가진 또 한 사람이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본 일이 있다. 만일 그의 또 한쪽의 옆구리에서 또 한 사람의 인간이 자라나고 있다면, 그 경우에는 이 비교도 정확한 것이 되었을 것이다.

화폐가 없는 것 나는 여기까지 코먼웰스의 병 중에서도 가장 크고 보다 더 막다른

위험을 지니게 된 것을 논해 왔다. 그 밖에도, 그것 정도로 위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고찰해 보아도 나쁘지 않는 것이 있다. 첫째는 코먼웰스에 필요한 활용을 위해 특히 전쟁이 가까워질 때의 화폐 조달의 어려움이 있다. 이 어려움은 각 신민이 그 토지와 재화의 소유권을 가지고 주권자가 그것을 사용하는 권리가 배제된다는 의견에서 나온 것이다. 거기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생긴다. 즉 코먼웰스의 필요와 위험을 미리 내다보는 주권은 *(공공의 금고에로 향한 화폐의 통로가 인민들의 고집 때문에 저해를 받았다고 보고)* 그러한 위험은 처음에 미리 막으려고 애써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될 수 있는 한 체면을 차리다가 드디어는 그것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극히 적은 액수를 얻기 위하여 법적인 책략에 의하여 인민들과 다투고, 그 액수로서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도리어 그는 폭력으로써 막혀 버린 보급의 길을 트든가,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는 길밖에는 없다. 또 가끔 이와 같은 궁지에 빠지면 드디어는 인민이 그 정상적인 상태에로 되돌아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코먼웰스가 멸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이 정상이 아닌 상태는 옛날과 비교하면 극히 정확하다. 옛날에는 육체의 부분이 응결되어 줄어들거나 해독 있는 물질 때문에 저해당하거나 하여 자연의 행로에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정맥(靜脈) *(당연히 그리 해야 하는 것과 같이)* 동맥으로부터 공급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 먼저 손과 발이 차져 수축과 떨림이 일어나고, 그 후에는 혈액의 통로를 뚫어 열려고 하는 심장의 거센 노력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이 그런 일을 할 때까지는 한때 차〔冷〕지는 것과 같은 것에 의하여 잠깐 동안 기분을 상쾌하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으나, 결국 *(체력이 충분히 강하면)* 저해를 받은 굳은 부분을 깨고 독을 땀 속에 흘려버리지만, 반면에 *(체력이 너무나 약하면)* 그 환자는 죽거나 하는 것이다.

독점이나 세수인(稅收人)의 지위의 남용 또다시 코먼웰스에서는 때로는 늑막염과 닮은 병이 있다. 그것은 코먼웰스의 보배로운 재물이 그 정당한 행로에서 나와 독점 또는 공적인 수납인의 청부(請負) 제도에 의하여 한 사람 또는 적은 수의 사사로운 개인의 손안에 너무나 많이 모이게 되는 경우로서 마치 늑막염에 있어서 혈액이 가슴의 얇은 막(膜) 속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열과 고통스럽게 몸을 쑤시는 아픔이 따르는 염증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인기 있는 사람들 힘이 있는 신민의 인기도 또한 *(코먼웰스가 그들의 성실에 대하여 극히 주의 깊게 경계하지 않으면)* 위험한 병이다. 왜냐하면 인민*(그들은 주권자의 권위로부터 움직임을 받아야 한다)*은 어떤 야심을 가지는 사람의 덕이나 계획에 대하여 어떠한 지식도 없기 때문에 따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일반적으로 왕정에 있어서보다도 민중적 통치에 있어서가 보다 더 위험한 것이다. 왜냐하면 군대라는 것은 자기들이 인민이라면 쉽게 믿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과 사람의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민에 의하여 내세워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자신만이 군대의 애정을 얻어 원로원과 인민의 쌍방의 주인이 된 것은 그러한 방법에 의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인기가 있고 야심을 지닌 사람들의 행동은 분명히 반란이며, 마술의 효과를 닮은 것이다.

도시가 너무나 크고 조합(組合)이 너무나 많은 것 코먼웰스의 또 하나의 약점은 도시가 적합하지 않도록 크고, 그 자체의 범위 안에서 하나의 대규모적인 군대의 구성원과 비용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이다. 조합이 너무나 많은 것도 그러하며, 그것은 말하자면 큰 코먼웰스의 배(腹) 속에 수많은 작은 코먼웰스가 있어, 자연인의 내장 속의 기생충과 같은 것이다.

주권에 대하여 논박하는 자유 정치적인 신려(愼慮)를 위장하는 사람들이 절대적인 권력에 대하여 논박하는 자유도 하나의 병으로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대부분 쓸모없는 사람들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이지만, 그릇된 학설에 의하여 활기를 북돋고 항상 기본법을 잡동사니로 만들어, 코먼웰스를 괴롭힘히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의사가 '회충'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 밖에 우리에게는 영토 확장에 대한 고칠 수 없는 욕심, 즉 탐욕증이 있는데, 그것에 의하여 적으로부터 낫지 않는 상처를 자주 입는다. 그리고 통일될 수 없는 여러 정복지라고 하는 '혹'도 그러한 것으로서 그것은 가끔 부담이 되어, 보존하는 것보다는 잃어버리는 것이 위험이 덜하다. 또 안일(安逸)이라는 기면증(嗜眠症)이나 폭동이나 보람 없는 낭비라는 '폐병'도 그러하다.

코먼웰스의 해체 마지막으로 대내외적인 전쟁*(대외적 및 내부적인)*에 있어서 적이 최후의 승리를 얻어*(그 코먼웰스의 군대가 이미 싸움터를 지키지 못하고)* 충성을

다한 시민들을 그 이상 보호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에는 코먼웰스는 해체된 것이며,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재량(裁量)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자기를 보호해도 관계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권자는 코먼웰스에 대해 생명과 운동을 주는 공공의 혼이며, 그것이 소멸되어 버리면 그 구성원은 그것에 의하여 통치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사람의 시체는 그를 떠난 *혼(결코 죽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에 의하여 통치를 받지 않는 것과 같다. 즉 주권자인 군주의 권리는 다른 행위에 의하여 소멸될 수 없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의무는 소멸될 수 있다. 왜냐하면 보호받고자 하는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그것을 구할 수 있고, 그것을 그가 구했을 때에는 *(공포에 의하여 복종을 당하고 있다는 사기와 같은 변명도 하지 않고)* 그의 보호자(새 주권자)를 그가 할 수 있는 한, 보호하도록 의무가 지워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합의체의 권력이 한번 억압당할 때는 그 권리는 전적으로 소멸된다. 왜냐하면 합의체 자체가 절멸(絕滅)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주권은 또다시 들어설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제30장 주권을 가지는 대표의 직무에 대하여

인민의 이익의 획득 주권자의 직무는 *(그것이 군주이건 또는 합의체이건)* 그가 그것을 위해 주권이 신탁(信託)된 목적, 즉 '인민의 안전'의 획득에 있다. 그는 그것을 자연의 법에 의하여 의무가 지워지고 또 그 법의 창조자인 신에 대해서만이 그것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안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각 사람이 코먼웰스에 대해 위험이나 해악을 주지 않고, 합법적인 근면에 의하여 자기의 것으로서 획득할 수 있는 생활을 해 나가기 위한 그 밖의 모든 만족을 뜻하는 것이다.

교도(敎導)와 법에 의하여 그리고 이것은 개개인에 대하여 그가 침해를 당했다고 불평을 하소연하는 경우에 그를 보호해 주는 것에 그치며, 보편적 배려는 교설(敎說)이나 실례에 따르는 공적인 교도와 개개인이 자신의 경우에 맞는 뛰어나게 좋은 법의 작성 및 시행 속에 들어 있는 일반적인 심려(愼慮)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 서 있는 것이다.

주권의 어떠한 본질적인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주권자의 의무를 어긴다 그리고 만약 주권의 본질적인 권리*(18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술한)*가 제거된다면 그것에 따라, 코먼웰스는 해체되고 각 사람은 다른 각 사람과의 전쟁 상태, 즉 전쟁의 참화에로 되돌아가는 것이므로 *(그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해악이다)* 그들의 권리를 완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주권자의 직무이다. 따라서 첫째로, 그들 중의 어느 하나라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스스로 포기하거나 하는 것은 그의 의무를 어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수단을 포기하는 사람은 그 목적을 포기하는 것이며, 그리고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 자신이 시민법에 복종하는 것을 인정하고 다음의 여러 권리, 즉 최고의 사법권, 스스로의 권위에 의하여 행하는 선전 강화의 권한, 코먼웰스의 필요를 판단하는 권한, 자기의 양심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판정했을 때 필요하다고 판단한 만큼의 양의 화폐와 병사를 징집하는 권한, 선전 강화의 관리나 대행자의 임명권, 교사를 임명하고, 인민의 방위와 평화와 이익을 위하여 어떠한 교설이 합당하고 또 어기는 것인가를 심리하는 권한을 포기하는 사람은 그 수단을 포기하는 사람이다.

또는 인민이 그들의 기초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도록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것도 그러하다 둘째로, 그의 본질적인 여러 권리의 기초나 여유에 관하여 인민을 무지(無知)의 그대로 또는 잘못 전해진 그대로 놓아 두는 것도 그의 의무에 어긋난다. 왜냐하면 그렇게 놓아 두면 코먼웰스가 그들의 행정과 운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사람들은 그에게 저항하도록 유혹당하여 꾀기 쉽게 된다.

그리고 이들의 권리의 기초는 어떠한 시민법이나 법적인 처벌의 위협에 의하여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더욱더 열심히 올바르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반란*(및 그와 같은 모든 주권의 본질적인 권력에 대한 저항)*을 금지하는 시민법은 *(시민법으로서는)* 어떠한 의무도 지워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성실의 위범을 못 하게 하는 자연의 법에 의해서만이 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것이며, 사람들이 만일 그 자연적인 의무를 모르면 그들은 주권자가 만드는 어떠한 법에 대한 권리도 알 수 없으며, 또 그들은 처벌에 대해서도 그것을 적대적인 행위로만 생각하여, 자기들이 충분히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들은 그것을

적대 행위에 의하여 회피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절대 주권을 위한 여러 원리는 없다고 하며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정의란 실체가 없는 말에 지나지 않다고 말하고, 또한 사람이 힘이나 기술에 의하여 자기 스스로 획득하는 것은 모두 *(전쟁 상태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코먼웰스에서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일이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미 논했다. 이와 같이 또한 주권을 절대적인 것이 되게 하기 위한 본질적인 여러 권리를 지지하는 기초, 즉 이성의 여러 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만약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어디에선가 볼 수 있었을 것이지만, 그들의 권리가 승인되거나 거부당하거나 한 코먼웰스는 지금까지 그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경우에 그들의 논증은 아메리카의 야만인들이 그런 재료들로 오랫동안 한 존속하는 집을 세우기 위한 기초, 즉 이성의 여러 원리를, 그들은 아직까지 한 번도 그와 같이 잘 세워진 집을 본 적이 없다고 해서 부인하는 것처럼 잘못된 것이다. 시간과 근로(勤勞)〔노동〕가 나날이 새로운 지식을 낳는 것이다. 그리고 뛰어난 건축 기술은 *(빈약한 것이기는 하지만)* 인류가 건축하기 시작해서 한참 후에 여러 재료의 성질이나 여러 가지의 형태나 크기의 효과에 대하여 오래도록 연구한 부지런한 사람들에 의하여 관찰되고, 이성의 여러 원리로부터 이끌어 낸 것이다. 그것과 같이, 사람들이 불완전하고 무질서에로 되돌아가기 쉽기는 하지만, 코먼웰스를 구성하기 시작해서 한참 나중에 *(외적인 폭력에 의한 경우는 빼놓고)* 그 구성을 영속적인 것이 되게 하기 위한 이성의 여러 원리가 부지런한 성찰에 의하여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논고(論考)에서 논술해 온 것은 그러한 것들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한 이성의 원리들을 이용하는 권력을 가지는 사람들의 눈에 들지 않거나, 또는 그들에 의하여 무시당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는 것에 관해서는, 당장 나는 특별한 관심을 전혀 갖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말한 것들이 그러한 이성의 여러 원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그들이 《성경》의 권위에서 나온 원리들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그러한 것을 나는 신약에 의한 신의 특수한 인민인 유대 사람에 대한 신의 왕국*(모세에 의한 지배를 받는)*에 관하여 나중에 논술할 때 명백히 밝히기로 한다.

서민의 무능력에서 나오는 반대 그러나 그들은 더욱이, 가령 그 원리가 올바르다 하더라도 일반 인민은 그것을 이해할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나는 왕국의 부유하고 권세 있는 신민들이나 더욱더 학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반 인민과 같이 무능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즐겁게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종류의 교설(敎說)에 대한 장해는 어떤 사물들의 어려움보다도 그것을 배우는 사람들의 이해(利害)에서 생기는 것을 모든 사람은 알고 있다. 권세가들은 그들이 애착을 느끼고 있는 것을 제한하는 권력을 수립하는 어떠한 것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학식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잘못을 찾아 냄으로써 그들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어떠한 것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나, 이와는 반대로, 일반 인민의 정신은 권세가에게 기댐으로써 감염되어 있거나 그들의 박사(博士)들의 의견이 갈겨 써 있는 것이 아니면 백지와 같은 것으로서, 공적인 권위에 의하여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에 적합한 것이다. 모든 국민이, 이성을 넘어서는 그리스도교의 위대한 신비에 묵묵히 따르게 하고, 수백만의 사람은 같은 물체가 같은 때 수많은 장소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이성에 어긋나는 것을 믿도록 하고 있다. 하물며 사람들은 법에 보장되어 있는 그들의 가르침과 설교에 의하여, 편견 없는 사람이 배우기에는 그것을 듣기만 해도 좋다고 할 정도로 이성에 일치하고 있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일까. 따라서 나는 주권의 본질적인 여러 권리*(그것은 자연적 및 기본적인 법들이다)*에 관하여 인민을 교도할 때에는 *(주권자가 그의 권력을 완전히 가지고 있는 한)* 주권자 자신의 잘못이나 그가 코먼웰스의 운영을 위탁한 사람들의 잘못 등에서 나타나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곤란도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러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와 같이 교도를 받도록 하는 것이 주권자의 의무이며 또한 단순히 그의 의무일뿐만 아니라 그의 이익이기도 하며, 그리고 반란에 의하여 자연적인 인격에 있어서 그 스스로에게 미칠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한 보증이기도 하다.

신민들이 통치의 변경을 좋아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로, 인민이 이웃 여러 국민들의 통치 형태를 보고 그들 스스로의 것보다도 애착을 느끼거나 *(그들과 다른 방법으로 통치를 받고 있는 이웃의 여러 국민*

이 현재 어떻게 번영하고 있는가를 보든) 그것을 변경하려고 생각하지 않도록 인민을 가르쳐야 한다. 왜냐하면 귀족적 또는 민주적인 합의체에 의하여 통치를 받고 있는 인민이 번영하고 있는 것은, 귀족 정치나 민주 정치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신민들의 복종이나 화합에 의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또 인민이 왕정에 있어 번영하는 것은 한 사람이 그들을 통치하는 권리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에게 복종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종류의 국가에 있어서도 복종이 없으면 *(따라서 인민의 화합이 없으면)* 그들은 번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마 안 가서 해체될 것이다. 그리고 불복종으로서 코먼웰스의 개혁만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그것에 의하여 *(신화에서의)* 펠레우스의 어리석은 딸들과 같이, 코먼웰스를 파괴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그 딸들은 노쇠한 아버지의 젊음을 되찾기 위하여 메디아(Medea)의 충고에 따라 아버지를 토막으로 잘라 기묘한 약초와 같이 구웠지만,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지는 않았다. 이 변경의 욕구는 신의 첫째의 계율을 어기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신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Non habebis Deos alienos*)'[32]는 것이며,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왕들'에 대하여 그들이 바로 '신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주권자에게 반대하고) 인기 있는 사람들에게 밀착하여 따르지 않을 것 둘째로, 그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동료 신민 중의 누군가가 그 코먼웰스 속에서 얼마나 빼어나든 혹은 어떻게 눈에 띄어 빛을 내고 있든지 간에 *(주권 합의체 이외의)* 어떠한 합의체이든, 그들의 덕(德)에 대한 칭찬에 이끌린 나머지 그들에게 *(각자의 지위에서)* 대표하는 주권자에게만 잘 어울리는 복종이나 존경을 주어서는 안 되며, 또는 그들에게 주권자의 권위로부터 전달되는 것 이외의 어떠한 영향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 등이다. 왜냐하면 인민에 대하여 질투하지 않고 그들이 인기 있는 사람들의 아첨 때문에 그 충성을 저버리게 되는 것을 견뎌 내는 주권자는 자기의 백성을 올바르게 사랑하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민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가끔 있었던 것처럼, 설교자에 의하여 '교회의 면전(in facie Ecclesial)'에서에서

32 〈출애굽기〉 20장 3절.

그들과의 긴밀한 동맹을 널리 밝히고 또 그것을 큰 길에 널리 알림으로써 비밀리에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그것을 행할 정도이다. 이것은 십계 중 제2계명[33]을 어긴 것에 비교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주권에 대하여 논박하지 않을 것 셋째로, 앞에서 논술한 것의 귀결에서, 주권적인 대표*(한 사람이든 또는 사람들의 합의체이든)*의 욕지거리를 한다든가, 그 권력에 대하여 논증하거나 논의한다든가, 그의 이름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불경(不敬)하게 씀으로써 그가 인민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그들의 *복종(코먼웰스의 안전은 거기에 있는 것이지만)*이 약해질지도 모르는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이 가르침은 제3계명[34]에 비교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의무를 배우기 위한 날짜를 별도로 잡아 둘 것 넷째로, 어떤 일정한 시간을, 사람들의 일반적인 노동과는 별도로 잡아 두고 그때에 그들을 지도하도록 임명된 사람들의 앞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들은 앞에서 말한 것을 배우지 않았거나 배웠다 하더라도 기억하지 못하며 한 세대가 지나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가 되기 때문이다. 즉, 어떠한 시간이 정해져 있어 그때에는 그들이 모두 모여 *(주권자 중의 주권자인 신에 기도를 올려 신을 찬양하고 난 후에)* 그들의 의무가 고(告)해지는 것을 듣고, 그들의 모든 것을 일반적으로 관계있는 실정법을 읽히고, 설명되는 것을 듣고, 그것들을 법이 되도록 하고 있는 권위를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 목적을 위하여 유대 사람들은 일주일마다 안식일을 가져, 그날에는 법을 읽고 설명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의식에서 그들은 그들의 왕이 이 세계를 6일로 만들고, 7일 때에 쉰(休) 신이라는 것을 마음에 명기시켰던 것이며, 그들은 스스로를 이집트에 있어서의 노예와 같이 뼈

33 〈출애굽기〉 20장 4~6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34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가 으스러지는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 신을 축복한 뒤, 법에 의하여 인정된 휴양(休養)에 따라 그들 자신도 즐기기 위한 시간을 준 그 신이 그들의 왕이라는 것을, 그날에, 그들의 노동을 쉼으로써 마음에 깊이 새기게 했다.[35] 따라서 십계의 처음의 표(表)는 모두 신으로서가 아니라 약속에 의한 *(특히)* 유대 사람의 왕으로서 신의 절대적인 권력의 골자(骨子)를 그리고 아이들의 마지막 교도는 그 어버이의 배려에 의하는 것이므로 그들이 어버이의 보호 밑에 있을 동안에는 어버이에 대하여 순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나중에 *(보은의 자연법이 요구하는 것처럼)* 존경의 외적인 표지에 의하여 어버이의 교육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목적을 위하여 원래 각자의 어버이는 그에 대하여 생살여탈(生殺與奪)의 권력을 가진 주권자였다는 것, 또는 여러 가족의 어버이들이 코먼웰스의 설립을 위해 그 절대적인 권력을 양도했을 때에는 그들이 시켜 준 교육에 대하여 의당히 받아야 할 존경을 잃는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주권의 설립에는 필요하지 않았으며, 또한 사람들이 나중에 아이들로부터 받을 이익이 만일 다른 데서 포식하는 데 낭비하고 있다면,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의 동의에 의하여 주권이 주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그들이 어떠한 교설을 그 신민들에게 가르쳐야 하는가를 알기 위한 빛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어버이를 존경해야 한다 자녀가 성장한 뒤 받는 이익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이익과 같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아이들을 가지기를 바라거나 그들을 길러내 교도하도록 배려하거나 하는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제5계명[36]에 합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침해를 저지르는 것을 피하도록 한다 또다시 각 주권자는 정의를 가르치도록 하여야 한다. 그것은,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폭력 또는 사기에 의하여 그들의 이웃들로

35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36 〈출애굽기〉 20장 12절.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부터 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권자의 권위에 의하여 가르치도록 해야 한다. 소유권에 의하여 지켜져야 할 것 중에서 사람들에게 있어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의 생명과 손발이며, 그다음에는 *(대개의 경우)* 부부의 애정에 관한 것이며, 그다음에는 그들의 재산과 생활 수단에 관한 것들이 있다. 따라서 인민은 사사로운 개인의 복수에 의한 서로의 신체에 대한 폭행, 부부의 정조의 유린 및 서로의 재화가 지니는 힘의 모든 것을 약탈이나 사기에 의한 횡령을 삼가 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다시 재판관 또는 증인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올바르지 못한 판결이 내려진 나쁜 결과가 그들에게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나쁜 결과에 의하여 소유권의 구별은 없어지고 재판은 효과를 잃고 마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들 모든 일은 제6~9계명에서 암시되고 있다.[37]

그리고 이들 모든 것을 마음으로부터 성실하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올바르지 못한 범죄 사실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려고 하는 기도나 의도도 *(우연한 사건에 의해 방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부정의이며, 부정의라는 것은, 행위의 불규칙성과 마찬가지로 원래가 의지의 타락에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제10계명[38]이 뜻을 둔 것이며 두 번째 표(表)의 개요(槪要)로서, 첫째 표의 개요가 그들이 신을 그때 새로이 그들의 왕으로서 받아들인 것이지만 그 '신에 대한 사랑'으로 뭉쳐진 것과 같이, 그 모든 것은 서로의 자애(慈愛), 즉 '네 이웃을 너와 같이 사랑하라'는 이 하나의 계율로 뭉쳐진 것이다.

대학의 효용 인민이 이 교도(敎道)를 받기 위한 수단이나 통로에 대하여 우리는 허약하고 그릇된 여러 원리들이 바탕으로 하여 이유의 평화에 어긋나는 그렇게 많은 교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깊이 사람들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은 어떠한 수단에 의한 것인가를 탐구해야 한다. 이들 교설이란 앞 장(29장)에서 내가 상세하게 논한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사람들은 무엇이 합법적이고 무엇이 비합

37 〈출애굽기〉 20장 13~16절.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38 〈출애굽기〉 20장 17절.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가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법적인가를 법 그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양심에 의하여, 즉 그들 스스로의 사적인 판단력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 신민은 코먼웰스의 명령을 스스로가 먼저 합법적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면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죄를 저지르는 것이 된다는 것, 그들의 재산에 대한 그들의 소유권은 코먼웰스가 그들에게 대하여 가지는 지배권을 배제한다는 것, 신민들이 폭군이라 부르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그들로서는 합법적이라는 것, 주권은 분할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과 비슷한 경우가 있으나 그것은 다음과 같은 수단에 의하여 인민들에게 조금씩 가르치게 된다. 궁핍과 탐욕 때문에 자기의 할 일이나 노동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과 그것과는 반대로 남아 넘치는 재산이나 태만에 의하여 감각적인 쾌락을 좇고 있는 사람들*(이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인류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은 자연적인 정의(正義)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학문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 진리의 연구가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깊은 성찰을 더해야 할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의무에 대한 관념을 주로 설교대(說敎臺)의 성직자들로부터 받아들인다. 또한 부분적으로는 그들의 이웃이나 친하게 잘 아는 사람들 중에서 손쉽게 그리고 그럴싸하게 논의할 능력이 있어 법이나 양심의 문제에 대하여 자기들보다 더욱 현명하여 잘 연구하고 있는 것과 같이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인다. 그리고 성직자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로서 학식을 자랑해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그들의 지식을 대학과 법률 학교로부터 또는 그들의 학교나 대학의 이름난 사람들에 의하여 발간된 서적에서 이끌어 내는 것이다. 따라서 명백히 인민의 교도는 전적으로 대학에 있어서 청년의 올바른 교육에 매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가 말할는지는 모르지만)* 영국의 대학은 이미 그것을 해내기에 충분한 학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는 그대는 여러 대학을 가르치려고 계획하고 있는가라고 말하는 것은 어려운 질문이다. 그래도 앞의 경우에 대하여 나는 분명히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한다. 즉 헨리 8세의 끝날 무렵까지 주로 대학에 의하여, 코먼웰스의 권력에 반대하고, 법왕의 권력이 항상 지지를 받고 있었다는 것, 또 거기에서 교육을 받은 수많은 설교자나 법률가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에 의하여 왕의 주권에 반대하는 여러 교설이 주장되었던 것은 대학이 그들의 그릇된 교설의 창조자는 아니

라 하더라도 어떻게 하여 진리를 심어야 할 것인가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충분한 증거이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의견이 서로 엇갈리는 것은 사람들이 충분히 교도되지 않은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그들이 시민적인 권위에 대해 반대하도록 처음부터 맛들이게 한 미묘한 음료수의 맛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 하더라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뒤의 경우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 또는 아니다라는 것은 나에게는 적절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인민의 안전은 더욱 주권을 가지는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 대하여 어떠한 계층의 인민에 대해서도 평등하게 재판이 이끌어지기를 바란다. 즉 부유하여 권세가 있는 사람이나 가난하여 이름이 없는 사람이나 그가 받은 침해에 대해서는 평등하게 권리를 회복해 주기를 바라고, 아울러 상류(上流)의 사람이 하층(下層)의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그 명예를 상처 입히거나 그 밖의 어떠한 침해를 했을 때, 뒤의 경우에 속하는 누군가가 앞의 경우에 속하는 누군가에게 그러한 일을 저지른 것 이상의 면죄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에 형평이 있음으로써 그것이 자연의 법의 계율이기 위해서는, 주권자는 그것에 대해 그의 인민의 가장 하층의 사람과 똑같이 복종하기 때문이다. 법을 어기는 모든 것은 코먼웰스에 대해 어기는 것이지만, 그와 같이 어기는 것은, 또한 사적인 인격에 대하는 것도 있다. 코먼웰스에만 관계되는 것은 형평에 대해 어기는 것이 아니면 용서될 수 있다. 각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의 판단에 따라 용서해도 좋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사로운 개인에 대해 어기는 것은, 침해를 받은 사람의 동의나 합리적인 배상(賠償)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평에 있어서 용서받을 수 없다.

신민의 불평등은 주권의 여러 법령으로부터 나오므로 주권자의 앞, 즉 법정에서는 있을 수 있는 여지는 없고 그것은 왕 중의 왕,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왕과 신민과의 사이에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상류 사람들의 명예는 그들이 하층 사람들에게 은혜와 원조를 베푸느냐 베풀지 않느냐로써 평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저지르는 폭행, 억압, 침해는 그들이 상류 사람이기 때문에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다루어진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저지를 필요가 더욱 적기 때문이다. 상류의 사람들에 대한 편파성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즉 형의 면죄는 오만을 낳고, 오만은 증오를 낳으며, 그리고 증오는 모든 억압적이고 오만한 상류 사람을, 예를 들면, 코먼웰스의 파멸이 따른다 하더라도 타도하려는 노력을 낳는다.

평등한 조세 평등한 정의를 위해서는 또한 조세의 평등한 부과도 관련된다. 여기에서 평등은, 재산의 평등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의 방위를 위하여 코먼웰스에 대해 지고 있는 채무의 평등에 따르는 것이다.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동하는 것만으로써는 충분하지 않고, *(만일 필요하다면)* 자기의 노동을 확보하기 위하여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유대 사람들이 포로(捕虜)로부터 돌아와 사원(寺院)을 다시 세웠을 때와 같이, 한 손으로 건축하고 다른 손으로 칼을 잡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대신하여 싸울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주권에 의하여 인민에게 부과되는 부과금은 개개인이 각자의 일이나 직업을 이끌어 가는 것을 방위하기 위하여 공공의 칼을 갖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지불해야 할 임금(賃金)에 지나지 않는다. 거기에다 각 사람이 받는 이익은 생명의 향유이며, 생명은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나 부유한 사람에 있어서도 똑같이 소중한 것이므로 가난한 사람이 그의 생명을 방위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지는 채무는, 부유한 사람이 그의 방위에 대하여 지는 채무와 같은 것으로서, 다만 가난한 사람들의 봉사를 받고 있는 부유한 사람은 그들 스스로의 신체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더욱 보다 많은 사람들의 신체에 대한 채무자이기도 하다는 것이 다르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부과금에 대한 평등은 소비하는 사람들의 재산의 평등보다도 오히려 소비되는 것의 평등에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많이 노동하고 그 노동의 열매를 저축하여 조금만 소비하는 사람은, 게을리 생활하여 조금밖에 얻지 못하고 얻은 모든 것을 낭비해 버리는 사람보다 더욱 많이 부과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 앞의 경우는 뒤의 경우보다도 더욱 많이 코먼웰스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의 소비하는 것에 부과가 지워지게 될 때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사용한 것에 대하여 똑같이 지불하는 까닭으로, 코먼웰스는 사사로운 개인

의 사치스러운 낭비에 의하여 속여 빼앗기는 일도 없다.

공공의 자혜(慈惠) 또 피할 수 없는 우연한 사건에 의하여, 그들의 노동으로써 스스로를 유지해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나, 그들은 사사로운 사람의 자혜에 맡겨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필요가 요구하는 정도까지는)* 코먼웰스의 법에 의하여 맡겨져야 한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약자를 무시하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서도 무자비한 것과 같이, 코먼웰스의 주권자가 그들을 그와 같은 불확정한 자혜의 위험에 드러내 놓는 것도 무자비한 일이기 때문이다.

태만(怠慢)의 예방 그러나 건강한 신체를 가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정은 다르다. 그들은 일을 하도록 강제를 해야 하고 그리고 일을 찾아 낼 수 없다는 구실을 무효로 만들기 위하여 항해 · 농업 · 어업 그리고 노동을 필요로 하는 수공업과 같은 여러 가지 종류의 기술을 장려하는 여러 법이 있어야 한다. 가난하지만 건장한 사람의 수는 더욱 늘어나고 있으므로 그들은 인구가 적은 여러 나라에로 옮겨 심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다 가깝게 도우며 살도록 또, 거기에서 눈에 띄는 것을 잡아채기 위하여 널따란 토지를 찾아 헤매는 일 없이 각각의 작은 지면(地面)이 시절(時節)이 오면 그들에게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물건들을 주는 것과 같이 기술과 노동으로써 애쓰도록 강제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세계의 인구가 넘치게 되면 모든 것에 있어 마지막의 구제는 전쟁이며,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승리가 아니면 죽음을 주는 것이다.

좋은 법들이란 무엇인가 주권자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에는 좋은 법을 만드는 것이 들어간다. 그러나 좋은 법이란 무엇인가? 내가 좋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법을 뜻하지 않는다. 법은 부정(不正)일 수가 없다. 법은 주권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며, 그러한 권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인민의 각자에 의하여 정당하게 되고 그리고 각 사람이 그와 같이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코먼웰스의 법에 있어서도 경기의 법칙과 같은 것으로서 모든 경기자가 동의한 것은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부정은 아니다. 좋은 법이란 '인민의 선(善)'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 더욱 '알기 쉬운 것'이다.

필요한 것들 법*(그것은 권위가 지워진 것에 지나지 않다)*의 효용은 인민에 대하여

모든 의지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충동적인 욕구나 성급함이나 무분별 때문에 스스로 상처 입지 않도록 하는 운동의 범위 내에로 인도하여 지키는 데 있다. 그것은 마치 울타리가 여행자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마련된 것과 같다. 따라서 필요하지 않는 법은 법의 참다운 목적을 갖지 않으므로 좋은 법은 아니다. 법은 그것이 주권자의 편익이 된 때에는 인민에게 있어서는 필요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권자와 인민의 이익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약한 신민을 가지는 주권자는 약하고, 뜻대로 인민을 지배하는 권력이 없는 주권자를 가지는 인민은 약한 인민이다. 불필요한 법은 좋은 법은 아니고, 돈벌이를 위한 책략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은 주권의 권리가 인정되어 있는 곳에서는 필요 없이 남아도는 것이고, 그것이 인정되어 있지 않는 곳에서는 인민을 지키기에 충분하지 못한 것이다.

명료한 것 명료하다는 것은 법 자체의 말에 관한 것보다도, 오히려 그것이 만들어진 원인이나 동기가 밝혀져 있는가 아닌가이다. 즉 명료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입법자의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으로서, 입법자의 의도가 알려져 있으면, 법이 많은 말을 낭비한 것보다는 말이 적은 것이 쉽게 이해된다. 즉 그것은 말은 모두 애매한 것이 되기 쉽고, 그러기 때문에 법의 본문의 말이 많아진다는 것은 애매함이 많아진다는 것이며, 그러기 때문에 (너무나 부지런하여) 말로 표현되지 않은 것은 모든 법의 범위 밖에 있다고 둘러서 말하고 있는 것같이 생각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불필요한 소송의 원인인 것이다. 즉 옛날의 법이 얼마나 짧고 또 그것이 얼마나 때에 따라 점점 더 길어졌는가를 생각할 때, 나는 법을 만든 사람과 변호인 사이의 논쟁, 즉 앞의 사람은 뒤의 사람을 억압하려고 하고, 뒤의 사람은 그 억압을 빠져 나가려고 하지만, 변호인이 승리를 얻어 온 것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 법이 만들어진 이유를 명료하게 하고, 법 그 자체의 본문은 가능한 한 짧고, 그러나 정확하고 뜻이 있는 말로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입법자*(한 사람이든 합의체이든, 모든 코먼웰스의 최고 대표자이다)*의 할 일이다.

처벌 처벌과 보수의 올바른 적용 또한 주권자의 직무에 속한다. 그리고 처벌의 목적은 복수 또는 불덩이의 발산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사람을 바로잡아 주거나 또는 그를 예로 삼아 다른 사람을 바로잡아 주는 데 있는 것이므로, 보다 더 무거운 처벌은 공공체에 대하여 더욱더 위험한 범죄에게 주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이미 있어 온 통치에 대한 적의(敵意)로부터 나오는 것, 재판을 모독하는 것, 많은 사람을 격분시키는 것, 즉 권위 있는 사람의 아이들이나 하인이나 총애를 받는 신하가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처벌을 하지 않으면 격분은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르지 못한 행위를 한 사람이나 본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해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권력에 대해서까지도 분노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타르퀴니우스[39]의 경우에 그 아들의 하나가 무례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가 로마에서 쫓겨나고, 왕정 그 자체가 해체된 것과 같다. 그러나 심한 도발이나 큰 공포나 혹심한 곤궁에서 생기는 것과 같은, 또는 그 범죄 사실이 무거운 범죄인가 아닌가에 대하여 전에 알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것과 같은 결함에 의한 범죄는 코먼웰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도 너그럽게 처치할 여지가 가끔 있으며, 그리고 그러한 여지가 있을 때에는 관대한 처치가 자연의 법에 의하여 요구되게 된다. 충성을 버리도록 설득당한 가난한 인민이 아니라, 반란의 지도자나 교사들의 처벌은 그들이 처벌을 당했을 때에 그것을 예로 듦으로써 코먼웰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인민에 대하여 혹독하게 하는 것은 그 태반은 주권자의 책임으로 되돌아가는 무지(無知)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이 보다 잘 지도를 받지 못한 것은 주권자의 책임이었다.

보수(報酬) 이와 똑같이 주권자의 직무와 의무에는 그들이 주는 보수에서 코먼웰스의 이익이 생기도록 항상 그것을 유효하게 쓰는 것도 들어 있다. 거기에는 보수의 효용과 목적이 있는 것이며 또한 그것이 이루어졌을 경우라는 것은 코먼웰스를 위해 훌륭하게 힘을 다한 사람들이 가능한 한 적은 공통의 금고(金庫)로부터의 지출로서 만족스러운 보수를 받고, 그것으로서 다른 사람도 그러한 일을 가능

39 루시우스 타르퀴니우스(Lucius Tarquinius, B.C.534~510). 로마 건국기의 마지막 왕으로서, 아들 섹스투스(Sextus)가 루크레티아(Lucretia)에게 폭행을 했기 때문에 인민의 노여움을 사 추방당했다.

한 한 성실하게 다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보다 잘 해낼 수 있기 위한 기술을 연구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다는 경우이다. 인기 있고 야심적인 신민이 점잖아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그만두도록 돈이나 승진으로서 사는 것은 보수(그것은 해에 대한 것이 아니고 지난날의 봉사에 대하여 정해지는 것이다)의 성질을 전적으로 지니지 않으며, 보은의 표지도 아니고, 공포의 표지를 가지는 것이다. 또 그것은 공공체에 대해 이익은 아니라 하더라도 해를 주는 경향을 지니는 것이다. 그것은 야심과의 싸움으로서 헤라클레스(Hercules)와 괴물 히드라(Hydra)와의 관계와 같은 것이다. 히드라는 많은 머리를 가지고 있어 그중의 하나가 정복당할 때마다 세 개씩 생겨난다. 즉 이것과 같이 다루기 어려운 한 사람의 인기 있는 어떤 사람이 보수로 극복당하는 경우에는 *(그 예에 따라서)* 똑같은 이익을 얻으려고 바라며, 똑같은 해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더욱 많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수공업과 같이, 악의도 또한 팔 수 있음으로써 늘어나는 것이다. 때로는 이러한 방법으로 내란이 늦추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위험은 더욱 커져서 공공체의 파멸은 보다 더 확실한 것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나라의 평화를 어지럽힘으로써 훌륭하게 되려고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보수를 주고 그리고 한참 나중에 보다 큰 위험을 당하고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조그마한 위험이 있을 때, 이러한 사람을 억누르지 않는 것은 공공체의 안전을 믿고 맡기고 있는 주권자의 의무에 어긋난다.

충고자 주권자가 가지는 또 하나의 일은 뛰어난 충고자를 뽑는 일이다. 충고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돕는 말이 코먼웰스의 통치로 받아들여야 할 사람에 관한 것이다. 즉 이 '충고(counsel, consilium)'라는 말은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considium)'이라는 말이 잘못 전해진 것으로서 그것은 넓은 뜻을 지니고 있어, 이제부터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또 지난날의 사실과 오늘날을 위한 법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하여 모여 앉은 사람들의 모든 합의체를 포함하는 것이다. 나는 여기에서는 그것을 맨 처음의 뜻만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 뜻에 있어서는 민주 정치이든 귀족 정치이든 충고를 선택하는 기회는 없다. 충고하는 인격은 충고를 받는 인격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

고자를 뽑아 정하는 것은 왕정에게만 특별하게 있는 것이며, 거기에서 각각의 종류에 따라, 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 정하도록 애쓰지 않는 주권자는 그가 해내야 할 그의 직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보다 더 유능한 충고자들이란, 그들이 가장 나쁜 충고를 해 주어 얻는 이익이 가장 적고, 또 그 코먼웰스의 평화와 방위에 보탬이 되는 일들에 관하여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누가 공공체의 분쟁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가를 안다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의혹을 품기에 충분한 표지는 부조리하고 또는 어찌할 수 없는 불평불만을 갖는 인민을, 날마다의 비용을 지불하기에도 충분치 않는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달래고 있는 경우가 그러하며, 또한 그것을 알리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쉽게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적인 일에 관하여 누가 보다 더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안다는 것은 더욱 어려우며, 또한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 극히 드물다. 즉 거의 모든 종류의 기술에 관한 규칙을 알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를 안다는 것은, 그 기술에 대하여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서, 그 규칙을 이해하는 것을 처음에 이미 배운 사람들 이외에 어떠한 사람도 다른 사람의 규칙의 진실성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떠한 기술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가장 훌륭한 표지는 그것에 대해 친숙해 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에 대해 끊임없이 좋은 결과를 올리는 것이다. 뛰어난 충고는 제비에 의해서나 상속에 의해서도 얻을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학의 연구에 있어 *(기하학 연구가 그러하듯이)* 단순히 관찰자라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방법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요새의 크기를 그릴 수 없는 것과 같은 구실로서 부유하고 또 고귀한 사람으로부터 나랏일에 대해서도 뛰어난 도움말을 바랄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학이 기하학보다 더 어려운 학문이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도 이들 지방에서는 상속에 따라서 나라의 최고 회의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정해진 사람들의 권리라고 생각되고 있었지만, 이것은 옛날의 게르만 사람의 정복에 그 기원이 있는 것으로서 거기에서는 많은 절대적인 영주가 다른 국민을 정복하기 위하여 연합했지만, 그들은 장래에 있어서 자기의 아들딸과 신민의 아들딸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표지가 될 만한 특권을

얻는 일 없이는 연합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특권은 주권과 양립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그것을 주권자의 은혜에 의하여 보존하고 있는 것같이 보일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권리로서의 특권들을 위하여 싸울 경우에 차례로 그것을 놓치고, 결국에는 그들의 능력에 본래 살아 있는 것 이상의 명예 이외에는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충고자들이 어떤 일에 대하여 얼마나 유능하든 각 사람에게 별도로 도움말을 주고 그 까닭을 말하는 것이 합의체에 있어 연설의 방식에 따르는 것보다도 그 충고의 편익이 크고, 또 그들이 미리 깊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급작스럽게 말하는 것보다도 더욱 크다. 그 까닭은 어느 경우라도 그들이 행위의 여러 귀결을 대충 살필 수 있는 시간이 더 많고, 또 질투, 경쟁심, 그 밖의 의견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여러 정념 때문에 모순에 빠질 경향이 적다는 점에 있다.

다른 국민에 관한 일이 아니고, 내부만을 바라보는 여러 법에 의하여 신민들이 즐길 수 있는 안락과 이익에만 관련된 가장 좋은 충고는, 각 지방 인민들의 일반적인 소식이나 불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을 더욱더 잘 알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이 주권의 본질적인 권리를 훼손하는 것과 같은 것을 전에 요구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열심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본질적인 권리가 없으면, *(앞에서 가끔 말한 것처럼)* 코먼웰스는 존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휘관 군대의 총지휘관은 만일 그에게 인기가 없다면 그의 군대에 의하여 그가 그렇게 되어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이 사랑을 받거나 공포를 당하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는 그의 직무를 훌륭하게 이룩해 낼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능력이 있고 또한 사병들을 사랑한다는 평판을 받기 위해서는 근면, 강직(剛直), 원만, 관용 그리고 행운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인기라는 것이며 사병들에게 그의 애정을 살 수 있도록 의욕과 용기를 낳게 하고 장군(將軍)은 반항적 또는 태만한 사병들을 *(필요한 때에는)* 처벌하는 엄격함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병들의 애정은 *(만일 지휘관의 충성심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한다면)* 주권에 대해서는 위험한 것이며, 그것이 인기 없는 합의체의 손안에 있을 때에는 특히 그러하다. 따라

서 지휘자임과 아울러 성실한 신민이어야 한다는 것이 인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주권자 스스로에게 인기가 있을 때, 즉 그가 그 인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을 때에는, 하나의 신민에게 인기가 있을 때 생기는 것과 같은 위험은 전혀 없다. 왜냐하면 사병들이 주권자에게 대립하여 아무리 그 대장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 대장의 인격뿐만 아니라 그 대의명분을 사랑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대장의 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일반적으로 불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에 의하여 합법적인 주권자의 권력을 억누르는 사람은 그들 스스로가 그의 지위에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들을 받아들인다는 수치로부터 인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자격을 어떻게 해서든지 생각해 내야 한다는 어려움에, 이제까지 계속하여 부딪혀 왔던 것이다. 주권의 권리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기를 얻는 뛰어난 성질로서, 그것을 가지는 사람은, 그 자신의 동료에 대해서는 신민들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리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가족을 다스리는 데 아주 유능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도록 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이며, 또 그의 적에 대해서도 그 군대를 해체하는 것으로서 충분할 정도이다. 즉 인류의 가장 크고 또한 활동적인 부분은 이제까지 결코 현상(現狀)에 대해 충분하게 만족한 일은 없었던 것이다.

한 주권자의 다른 주권자에 대한 의무는 일반적으로 '여러 국민의 법'이라고 불리는 법속에 들어 있으나, 그것들에 관해서는 내가 여기에서 언급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여러 국민의 법과 자연의 법과는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주권자는 그의 인민의 안전을 얻기 위하여 모든 개인이 자기의 신체의 안전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과 같은 권력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시민 정부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무엇을 이룩하고 무엇을 회피해야 하는가를 지시하는 그 같은 법이 코먼웰스, 즉 주권자 왕후나 주권을 가진 합의체의 양심에 대하여, 같은 것을 지시하는 것이다. 자연적인 정의의 법정은 양심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서 거기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 다스리고, 신의 여러 가지 법*(법 중에서 모든 인류에게 의무를 지우는 것)*은 신에 대해서는 그가 자연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자연적'이며, 같은 신

에 관하여 그가 왕(王)의 왕이기 때문에 '여러 법'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왕의 왕으로서, 또한 특정 인민의 왕으로서의 신의 왕국에 대해서는 나는 이 논고(論考)의 나머지 부분에서 논하기로 한다.

제31장 자연에 의한 신의 왕국에 대하여

뒤의 여러 장(章)의 목적 전적인 자연 상태, 즉 주권자도 신민도 아닌 사람이 갖는 절대적인 자유의 상태는 무정부(無政府)의 상태이며, 전쟁의 상태이며, 사람들이 이 상태를 회피하도록 이끄는 계율은 자연의 여러 법이며, 코먼웰스는 주권이 없으면 실체가 없는 말에 지나지 않으며 존립할 수 없다는 것, 신민은 그 복종이 신의 여러 법에 거역하지 않는 모든 것에 관하여 주권자에게 단순히 복종해야 하는 것 등의 위의 것들을 내가 이제까지 기술해 온 것으로써 충분히 증명했다. 시민적인 의무의 완전한 지식에 관하여 거기에서 다루지 못한 것은 신의 여러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뿐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그가 시민적인 권력에 의하여 무엇인가 명령을 받게 될 때에, 그것이 신의 법에 어긋나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지 못하고, 거기에서 지나친 시민적인 복종 때문에 신에 대한 존경을 거역하거나 또는 신에게 거역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코먼웰스의 계율을 어기는 것이다. 이들 양쪽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신의 여러 가지 법이란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모든 법에 대한 지식이 주권에 대한 지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보고, 나는 뒤에서 신의 왕국에 대하여 조금 언급하고자 한다.

〈시편〉 97장 1절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땅은 즐거워하며'라고 〈시편〉의 작자는 말하고 있다.

〈시편〉 99장 1절 다시 또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들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운동할 것이로다'라고도 말하고 있다.

누가 신의 왕국에 있어서 신민인가 사람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그들은 항상 신의 권력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의 존재나 신의 뜻을 부정함으로써 사람들은 그들의 안락을 흔들는지도 모르지만, 그들에게 지운 멍에를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인간뿐만 아니라 야수(野獸)나 식물이나 생명이 없는 것까지에 이르는

이 신의 권력을 왕국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말을 비유적으로 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의 신민을 그의 말에 의하여 또한 그것에 복종하는 사람에게는 보수를 약속하고, 복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처벌로서 위협함으로써 통치하는 사람만이 정당하게 지배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것이나 이성적인 것이 아닌 피조물은 결코 신의 왕국의 신민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떠한 계율도 자기의 것으로서 이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무신론자도 신이 인류의 행위에 대하여 마음을 써 주고 있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떠한 말도 자기의 것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보수에 대한 기대나 위협에 대한 공포도 갖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세계를 통치하고 인류에게 계율을 주고 보수와 처벌을 바치는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신의 신민으로서, 다른 모든 것은 거기에 대해 적대(敵對)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신의 삼중(三重)의 말, 즉 이성(理性), 계시, 예언 말로서 지배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말이 명백히 알려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은 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법의 본질에는 모른다는 변명을 허용치 않는 것과 같이 충분히 명백한 공포(公布)가 들어 있는 것으로서, 그것은 사람의 법에 있어서는 다만 하나의 종류, 즉 사람의 소리에 의한 선포(宣布)나 공포밖에는 없다. 그러나 신은 그의 법을 세 가지 방법으로 선고한다.

'자연적 이성'의 명령에 따라, '계시'에 따라, 또 그가 기적(奇蹟)의 작용에 따라 나머지 사람들의 신용(信用)을 얻게 한 '사람의 소리'에 따라서이다. 거기에서 '이성적', '감각되는', '예언적'이라는 신의 세 겹의 말이 나오고 거기에 '올바른 이성', '초자연적인 감각', '신앙'이라는 세 겹의 청취(聽取)가 서로 같은 것이다. 초자연적 감각은 계시 또는 영감에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편적인 법칙도 그러한 것으로서 주어져 있지 않다. 왜냐하면 신은 개별적인 여러 인격에 대해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 다른 말을 하기 때문이다.

신의 이중(二重)의 왕국, 즉 자연적인 것과 예언적인 것 신의 말의 다른 두 가지 종류, 즉 '이성적'인 것과 '예언적'인 것과의 차이에서 두 겹의, 즉 '자연적'인 및 '예언

적'인 왕국이 신에게 속하게 된다. 자연적이란 인류의 속에서 신의 뜻을 인정하는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이성의 자연적인 명령에 따라 통치하는 것이며, 예언적이란 어떤 특정의 국민〔유대 사람〕을 그 신민으로서 뽑아 내, 그들만을 자연 이성(自然理性)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신성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그가 그들에게 준 실정법에 따라 통치하는 것이다. 신의 자연적 왕국에 대해서 나는 이 장에서 논술할 계획이다.

신의 주권의 권리는 그의 전능(全能)에서 나온다 신이 사람들을 통치하고 그의 여러 법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자연의 권리는, 그가 그들을 창조했다는 것에서 그의 은혜에 대한 보은으로서 그가 복종을 요구한다는 것과 같이 이끌어 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저항할 수 없는 힘'에서 이끌어 내야 한다. 나는 이미 어떻게 하여 주권자의 권리가 약속에서 나오는가를 밝혔다. 같은 권리가 어떻게 하여 자연에서 나오는가를 밝히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 그것이 결코 제거될 수 없는가를 밝히는 것만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일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은 각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권리는 힘에 의해서는 이룩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이 권리를 포기하고 공통의 동의에 따라 그들을 지배하고 방위하기 위하여 *(주권자의 권위를 가지는)* 사람들을 세운다는 것이 각 사람의 안전을 위하는 것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만일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힘의 우월(優越)에 의하여 모든 사람들에 대한 지배가 당연히 되돌아간다. 따라서 이 힘으로부터 창조자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왕국 및 생각하는 대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며, 그 권리는 당연히 깊은 은혜를 베푼 자로서가 아니라 전능자(全能者)로서의 만능(萬能)의 신에게 속하는 것이다. 또 처벌이라는 말은 죄 때문에 생긴 괴로움이라고 이해되기 때문에, 처벌은 죄에 대해서만이 당연히 주어져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괴롭히는 권리는 반드시 사람들의 죄로부터가 아니라, 신의 힘으로부터 이끌어 내는 것이다.

죄가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아니다 '왜 나쁜 사람이 흔히 번영하고, 착한 사람은 불행으로 괴로움을 당하는가'라는 문제는 고대의 사람들에 의하여 한참 토론된 것이

었으나, 그것은 '어떠한 권력에 의하여 신은 이 세상의 번영과 불행을 나누어 베푸는 것인가'라는 우리의 문제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신의 신려(神慮)에 대한, 서민뿐만 아니라 철학자들 더욱이는 성자(聖者)들의 신앙을 동요케 할 정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시편〉 73장 1~3절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그리고 욥은 그의 올바름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많은 괴로움에 대하여 어떻게 열심히 신에게 간언(諫言)하고 있는가. 이 문제는 욥의 경우에는 욥의 죄에서 이끌어 낸 논증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 스스로에 의하여 그 '신(神)' 자신의 힘에 따라 결정되었다. 즉 욥의 친구들이 그의 괴로움으로부터 그의 죄를 논증하고, 욥은 양심을 걸고 스스로의 무죄를 변호한 데 대하여, 신은 이렇게 말했다.

〈욥기〉 38장 4절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등과 같이 그의 힘에서 이끌어 낸 논증으로서 그 괴로움을 정당화하고 그것에 의하여 욥의 무죄를 인정함과 아울러 그의 친구들의 그릇된 교설을 책망했던 것이다. 이 교설에 일치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었던 사람에 관한 우리 구세주의 다음과 같은 판결이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40] 그리고 '죄로 인하여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도다.'[41] *(이 뜻은 만일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결코 죽지 않았을 것이다. 즉 결코 그의 넋은 육체로부터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거기에서 그가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신이 그를 괴롭혔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그것은 죄를 저지를 수 없는 다른 살아 있는 피조물을 신이 괴롭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신의 여러 법 자연에만 오로지 바탕을 두는 것으로서의 신의 주권의 권리에 대하여

40 〈요한복음〉 9장 3절.
41 〈로마서〉 5장 12절.

논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우리는 신의 여러 법, 즉 자연적 이성의 여러 명령이란 무엇인가를 고찰해야 한다. 이들의 법은 사람들 서로의 자연적인 의무나 우리의 신성한 주권자에게 당연히 바쳐야 할 존경에 관한 것이다. 앞의 것은 내가 이미 논고(論稿)의 14~15장에서 논한 것과 같은 자연의 여러 법, 즉 형평 · 정의 · 자비 · 겸손 그리고 그 밖의 여러 도덕이다. 그러므로 남은 것은 신에 대한 존경과 숭배에 관하여, 사람들에 신의 말이 별도로 없어도 사람들의 자연적 이성만으로도 어떠한 계율이 명령 내려지는가를 고찰하는 것이다.

존경과 숭배란 무엇인가 존경이란 다른 사람의 힘이나 선량(善良)에 관한 속으로의 생각이나 평가이다. 따라서 신을 존경한다는 것은 그의 힘이나 선량을 될 수 있는 한 높이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 평가가 사람들의 말이나 행위에 나타난 외적인 표지가 '숭배(worship)'라고 불리는 것이다. 그것은 라틴 사람들이 '배려(cultus)'라는 말로서 이해한 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배려란 원래, 그리고 언제나, 사람이 그것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 목적으로 어떤 일에 대해 쏟는 노동을 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익을 얻는 것이란 우리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 쏟는 노동의 당연한 결과로서 그들이 산출해 내는 이익이 생기는 것인가 또는 우리에게 지배를 받지 않고 그들 스스로의 뜻에 따라 우리의 노동에 보답하는 것인가의 어느 것이다. 첫째의 뜻에 있어서 대지(大地)에 투하된 노동은 '육성(育成)'이라 불리고, 아이들의 교육은 그들의 정신의 '육성'이라 불린다. 뒤의 뜻은 사람들의 의지가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호의(好意)에 의해서 우리의 목적을 위하여 일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남의 비위를 맞추는 것, 즉 칭찬이나 힘의 승인이나 그 밖에 우리가 이익을 구하는 상대를 즐겁게 하는 여러 가지에 의하여 호감을 사서 은혜를 바라는 것과 같은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원래의 '숭배'로서 이 뜻에 있어 '푸블리콜라(publicola)'가 인민의 숭배자로서, '신에 대한 배려(cultus pei)'가 신의 숭배로서 이해되는 것이다.

존경의 여러 가지 표지 힘과 선량에 대한 평가를 이룩하는 내면적인 존경에서 세 가지의 정념이 나온다. 선량에 관해서는 '사랑'이, 힘에 관해서는 '희망'과 '공포'가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칭찬', '찬미', '축복'이라는 외부적인 숭배의 세 가지 부분

이 나온다. 칭찬의 주요한 내용은 선량이고, 찬미와 축복의 중요한 내용은 힘으로서 그 목적은 최고의 행복이다. 칭찬과 찬미는 말에 의해서도 행위에 의해서도 나타난다. 말에 의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선량하다든가 위대하다든가라고 말하는 경우이고, 행위에 의해서는 우리가 그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힘에 복종하는 경우이다. 다른 사람이 행복하다는 평가는 말에 의해서만이 표현되게 된다.

자연적인 숭배와 자의(恣意)적인 숭배 여러 가지의 속성 중에서 '선', '정의', '관용' 등이나 여러 행위 중에서 '기도', '감사', '복종' 등과 같이 *(속성에 있어서나 행위에 있어서)* 자연적인 존경의 표지가 있다. 그 밖의 것은 사람들의 제도나 관습에 의하여 그렇게 되는 것이며, 어떤 때나 장소에서는 존경을 나타내는 것, 다른 때나 장소에서는 모욕을 나타내는 것이 되고, 또 다른 때나 장소에서는 무관심한 것이 되는 것이다. 여러 경우의 때나 장소에서 여러 가지로 사용되는 인사(人事)나 기도나 감사의 몸짓 등과 같은 것이 그러하다. 앞의 경우는 '자연적', 뒤의 경우는 '자의적'인 숭배이다.

명령(命令)된 숭배와 자유로운 숭배 그리고 자의적인 숭배에는 두 가지의 다른 것이 있다. 즉 그것은 때로는 '명령'된 숭배이고 때로는 '자발적'인 숭배이다. 명령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숭배를 받는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하는 경우이고, 자유로운 것이란 숭배자가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경우이다. 명령된 경우에는 말이나 몸짓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숭배인 것이다. 자유로운 경우에는 숭배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평가 여하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명예를 주려고 생각하는 말이나 행위가 만일 그들에게 있어 엉뚱하고 오만무례하게 보이면, 그것들은 존경의 표지는 아니기 때문에 숭배가 아니고, 또 왜 존경이 표지가 아닌가 하면, 표지는 그것을 주는 사람에 대한 표지가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는 상대, 즉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공공적인 숭배와 사적인 숭배 또다시 '공공적'인 숭배와 '사적'인 숭배가 있다. 공공적이란, 코먼웰스가 한 인격(人格)으로서 하는 숭배이다. 사적이라는 것은 사적인 인격이 밖으로 나타나는 숭배이다. 공공적인 것은 모든 코먼웰스에 대해 말하면 자유이지만, 개개인에 대해서 말하면 그렇지 않다. 사적인 것이란 사람의 눈에 띄

지 않는 곳에서는 자유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눈앞에서는 법률이나 사람들의 의견에 의한 어떤 종류의 제한을 받지 않고는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제한은 자유의 본질에 어긋난다.

숭배의 목적 사람들 사이의 숭배의 목적은 힘이다. 즉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숭배를 받고 있는 것을 보는 경우, 앞의 경우의 사람은 뒤의 경우의 사람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뒤의 경우의 사람에게 복종하기 마련이며, 이것은 뒤의 경우의 사람의 힘을 더욱더 세고 큰 것으로 만든다. 그러나 신은 목적을 가지지 않는다. 그에 대한 우리의 숭배는 우리의 의무에서 생기는 것이며 그것은 약한 사람이 보다 힘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익을 바라거나 손해를 두려워하거나 그로부터 이미 받은 이익에 감사하거나 하는 경우에 의당히 해야 한다고 이성(理性)이 명령하는 존경에 관한 여러 가지의 규칙에 따라 그리고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다.

신에의 존경의 속성 자연의 빛이 신에 대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숭배를 가르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하여 먼저 나는 그의 여러 속성으로 시작하기로 한다. 거기에서 첫째로, 우리는 신에게 '실재'를 속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왜냐하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두 존경하려고 하는 뜻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로, 세계 또는 세계의 혼은 신이 전부라고 한 철학자들은 신에 대하여 만족스럽지 못하게 말하고 있을 뿐이고 그의 실재를 부인한 것이다. 왜냐하면 신이라고 말할 때, 이해되는 것은 세계의 원인이며 그리고 세계가 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계에는 원인이 없는, 즉 신이 없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로, 세계는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은 원인을 갖지 않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부인한 것이다.

넷째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신에게 안락이 속하도록 하여 그가 인류에 대하여 마음을 쓰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존경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존경의 뿌리가 되는 사람들의 그에 대한 사랑과 공포를 빼앗아 없애 버리기 때문이다.

다섯째로, 위대함과 힘을 나타내는 것들 중에서 그는 '유한(有限)'하다는 것은 그를 존경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신에게 대하여 우리가 이룩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욱 작은 것을 속하게 하는 것은 그를 존경하는 뜻의 표지가 아니기 때문이며, 또한 유한이란 그것에 대하여 다시 덧붙이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작다.

따라서 그에게 '모습'을 속하게 하는 것은 존경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 모든 모습은 유한하기 때문이다. 또 우리가 그에 관하여 상상하고 구상하거나 우리의 마음 속에 그에 관한 '관념'을 갖는다는 것도 존경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상상한다는 것은 모든 유한하기 때문이다. 또 그에게 '부분'이나 '전체성'을 속하게 하는 것도 존경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로지 유한한 것만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또 그가 여기 또는 저기의 '장소'에 있다고 하는 것도 존경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장소를 정하고 있는 것은 모두 한계를 정한 유한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그가 '움직여진다' 또는 '멈추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존경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들의 속성은 아울러 그에게 장소를 되돌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 이상의 신들이 있다는 것도 존경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 모두가 유한하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며, 무한(無限)한 것은 하나 이상이 있을 수 없다. 또 그에게 후회, 노여움, 자비와 같은 슬픔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의 정념 또는 욕구, 희망, 의욕과 같은 욕망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정념, 또는 어떤 정념적인 능력에 관계되는 여러 정념을 되돌리는 것도 *(비유적으로 정념이 아니라 정념의 효과를 뜻하는 것이 아니면)* 존경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정념이란 어떤 다른 것에 의하여 제한된 힘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에게 '의지(意志)'를 되돌리는 경우 그것은 사람의 의지와 같이 '이성(理性)적인 욕구'로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신이 그의 의지에 의하여 모든 것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이해되어야 한다.

우리가 그에게 '보는 것' 그리고 그 밖의 감각의 여러 행위를 되돌리는 경우나, '지식'이나 '이해력'을 되돌리는 경우 또한 존경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있어 신체의 기관의 여러 부분을 압박하는 외적인 것에 의하여 생기게 된 정신

의 격동에 지나지 않는다. 즉 신에게는 그러한 것은 없고, 그러한 것은 자연적인 여러 원인에 바탕을 두는 것이므로 그에게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다.

신에 대하여 자연의 이성(理性)에 따라 보증되는 것만이 속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한정이 없는', '영원한',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여러 속성이 아니면, '가장 높고, 가장 크고' 하는 것과 같은 최상급이거나 또는 '좋고 올바르고 신성한 창조자'라는 무한정한 것 중의 어느 하나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을 그가 누군가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것은 그를 우리의 상상의 범위 안에서 가동 수 있는 것이므로)* 얼마나 많이 우리가 그를 칭찬하고 얼마나 스스로 우리가 그에게 복종하려고 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려고 하는가라는 뜻에 있어서 사용해야 한다. 그것은 겸손의 표지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를 존경하려고 하는 뜻의 표지이다. 즉 그의 본질에 관한 우리의 개념을 나타내는 명칭은 하나밖에 없으며, 그것은 '나는 존재한다(I am)'라는 것이며, 또 우리에 대한 그의 관계에 관해서도 하나의 명칭밖에 없으며 그것은 '신'으로서 이 말 속에 '아버지, 왕, 천주'가 들어 있는 것이다.

신에의 존경의 표지인 여러 행위 신에의 숭배에 관한 여러 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이 신을 존경하는 의도의 표지이어야 한다는 것이 이성의 보다 일반적인 규칙이다. 예를 들면, 첫째로, 기도(祈禱)와 같은 것이다. 즉 조각가들이 우상을 만들었을 경우, 그들은 그것을 신으로 섬기도록 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고, 그들에게 '기도한' 인민이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둘째로, '감사(感謝)'로서 그것이 신을 숭배하는 기도와 다른 것은 기도는 은혜에 앞서고, 감사는 그것에 뒤따른다는 것 이외에는 없다. 양쪽의 목적은 원래가 신을 지난날에 대해서는 물론 앞날에 대해서도 한결같이 모든 은혜의 창조자로서 인정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증여(贈與)', 즉 '산 채로의 제물'이나 '진상'은 *(그것이 최상의 것이라면)* 존경의 표지이다. 그것들은 감사의 표지이기 때문이다.

넷째로, 신에 의해서만이 맹세를 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존경의 표지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만이 사람 마음의 깊은 바닥을 알고 있고, 맹세를 어긴 사람에 대한

신의 복수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람의 지혜나 힘으로도 사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로, 깊이 생각하며 신에 관하여 말한다는 것은 이성적인 숭배의 한 부분이다. 그것은 그에 대한 두려움을 밝히고 그리고 그 공포는 그의 힘을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신의 이름을 경솔하게 목적 없이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남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선서로써 또 코먼웰스의 명령에 따라 판결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여러 코먼웰스 사이의 전쟁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목적이 없는 것이 된다. 그리고 신의 본질에 대하여 토론하는 것도 그에 대한 존경에 어긋난다. 왜냐하면 이 신의 자연의 왕국에서는 무엇을 알려고 하든, 자연의 이성에 의하는 것 이외의, 즉 자연 과학의 여러 원리에 의하는 것 이외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되나 그것들은 우리 스스로의 본질도 또 가장 작은 살아 있는 피조물의 본질마저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는 것과 같이, 신의 본질에 관하여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자연 이성의 여러 원리에서 신의 여러 속성을 토론한다면 그들은 신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에 지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에게 주는 여러 가지 속성에 있어서 우리는 철학적인 진리를 나타내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될 수 있는 한의 가장 큰 존경을 그에게 바치도록 하는 경건한 의도를 나타내도록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깊은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신의 본질에 관하여 논하는 서적들이 나온 것이며, 그것들은 신에의 존경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지혜나 학식에 대한 존경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며, 그의 신성한 이름을 무분별하고 가볍게 남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섯째로, '기도, 감사, 헌납(獻納), 산 채로의 제물'에 있어서 그것들이 각각의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며 보다 더 존경을 나타내는 것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이 자연 이성의 명령이다. 예를 들면 기도와 감사는 갑작스럽고 경솔하며, 평민적인 말이 문장으로서가 아니라, 아름답고, 잘 짜여진 말이나 문장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에게 할 수 있는 한의 존경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교도는 우상을 신으로서 숭배한다는 불합리한 일을 했지만, 그것을

시(詩)나 성악이나 기악으로써 했다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다. 또 그들이 산 채로의 제물로써 헌납한 짐승이나 그들이 헌납한 증여나, 그들의 숭배의 행위가 충분히 복종의 뜻을 나타내고, 신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었다는 것은 그를 존경하는 의도에서 나온 행위로서 이성에 합치한 것이다.

일곱째로, 이성(理性)은 신을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숭배할 뿐만 아니라, 또 특히 공공적으로 더욱 사람들의 눈앞에서도 숭배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존경받고 가장 받아들이기 손쉬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를 존경하도록 권하는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끝으로 신의 여러 법에의 *(즉 이 경우에는 자연법에의)* 복종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큰 숭배이다. 왜냐하면 복종은 산 채로의 제물보다도 신의 뜻에 부합하기 때문이며, 그와 똑같이 그의 계율을 업신여기는 것은 명예를 더럽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논한 것이 자연의 이성이 사사로운 개인에게 명령하는 신에의 존경에 관한 여러 법이다.

공공적인 숭배는 그 통일성(統一性)에 있다 그러나 코먼웰스는 오로지 하나의 인격이기 때문에 신에 대해서도 또한 오로지 하나의 숭배를 나타내야 한다. 그리고 숭배는 사사로운 개인에 의하여 공공적으로 나타내야 한다고 코먼웰스가 명령하는 경우에는 이 오로지 하나의 숭배는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것이 공공적인 숭배이고 그 특성은 '통일적'이라는 것이다. 즉 여러 사람들에 의하여 여러 가지로 이룩되는 행위는 공공적인 숭배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사사로운 개인들의 여러 가지의 종교에서 생기는 많은 종류의 숭배가 허용되고 있는 곳에서는, 공공적인 숭배가 있다고는 할 수 없고 그 코먼웰스는 종교를 갖는다고는 전혀 말할 수 없다.

모든 속성은 시민법에 바탕을 둔다 사람들이 동의하여 설정함으로써 그 뜻을 가지는 것이므로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랐던 여러 가지의 속성은 명예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성 이외에는 어떤 법도 없는 곳에서 개개인의 뜻에 의하여 이룩되는 모든 것은 코먼웰스의 뜻이나, 시민법에 의하여 이룩된다. 그리고 코먼웰스는 의지를 갖지 않으며, 주권을 가지는 사람 또는 여

러 사람들의 뜻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 이외에는 법을 만들지 않으므로, 주권자가 신을 숭배할 때 존경의 표지로서 정한 여러 속성은, 사사로운 개인들에 의하여 그의 공공적인 숭배에 있어서 존경의 표지로서 생각하며 사용해야 한다.

모든 행위는 아니다 그러나 모든 행위가 설정에 의한 표지가 아니고, 자연적으로 존경의 표지인 것도 있고, 오만의 표지인 것도 있다. 뒤의 것은 *(사람들은 그것들을 자기들이 존경하는 사람의 눈앞에서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사람의 힘에 의하여 신에의 존경의 일부분이 될 수는 없고, 앞의 *것(예를 들면 점잖고, 심중하고 겸허한 태도)*은 결코 신에의 존경과는 떼어 낼 수 없다. 그러나 관계없는 성질을 가지는 수많은 행위나 몸짓이 있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 코먼웰스가 존경의 표지나 신의 숭배의 한 부분으로서 공공적 더욱이는 보편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정하는 것은 신민들에 의하여 그런 것으로 생각되어 쓰여야 한다. 그리고 '사람보다도 신에게 따르는 것이 더 좋다'라고《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자연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약속에 의한 신의 왕국에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연적인 처벌 위에서 신의 자연적인 왕국과 그 자연법에 관하여 간단하게 논술했기 때문에 나는 이 장에서 신의 자연적인 처벌에 대하여 짧은 설명을 덧붙이고자 한다. 이 세상에서 사람의 행위는 모두 극히 오랜 과정의 연쇄의 시작으로서 어떠한 인간적인 배려를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 끝까지 전망을 준다는 것은 만족스럽지 못할 정도이다. 그리고 이 연쇄에 있어 즐거운 사건과 유쾌하지 못한 사건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어,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에 붙어 따라다니는 모든 고통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고통은 착한 것보다 더 많은 해악의 실마리인 여러 행위의 자연적인 처벌인 것이다. 거기에서 다음과 같은 것이 나타난다. 즉 무절제는 병에 의하여, 무분별은 재난에 의하여, 올바르지 못한 것은 적의 폭력에 의하여, 자만은 파멸에 의하여, 겁쟁이는 억압에 의하여, 왕후들의 태만한 통치는 반란에 의하여, 반란은 학살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처벌은 여러 법을 어긴 결과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처벌은 자연의 여러 법을 어긴 자연적인 귀결임에 틀림없고, 그러기 때문에 자의적이 아니라 자연적인 결과로서 자연의 여러 법에 따르는 것이

다.

제2부의 결론 주권자들의 설정(설립), 본질 및 권리에 대하여, 또 자연 이성의 여러 원리로부터 이끌어 낸 신민들의 의무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끝내기로 한다. 그러나 이 교설이 세계의 대부분, 특히 그 도덕적인 지식을 로마와 아테네로부터 물려받은 이들 서쪽 부분(서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또 주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깊은 도덕 철학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나는 여기 나의 노력이 플라톤의 코먼웰스와 같이 보탬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정도이다. 즉 그도 또한 내란에 의한 국가의 무질서와 통치의 변경에 대해서는 주권자가 철학자가 되기 전까지는 결코 없애 버릴 수 없다는 의견을 지니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정의에 대한 과학(학문)만이 주권자나 그의 주요한 대행자들에게 필요한 유일한 과학이며, 사람들에게 수학적인 여러 과학(학문)의 연구를 장려하는 좋은 법에 따르는 이상에는 *(플라톤에 의하여 주어져 있었지만)* 그들은 수학적 여러 과학(학문)을 하도록 할 필요가 없다는 것, 플라톤도 또한 이제까지의 다른 어떠한 철학자도 도덕 학설의 모든 이론을 잘 정리하여, 충분히 또는 처음부터 증명하여 사람들이 그것에 의하여 어떻게 통치해야 하는가와 더불어 어떻게 복종해야 하는가를 배우도록 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희망을 되찾게 된다. 그 희망이란, 나의 이 저술이 언젠가 주권자의 손에 들어가 그들이 그것을 사심이 있거나 질투심이 강한 해석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고찰하여 *(왜냐하면 이 저작은 짧고 명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공공연하게 가르치는 것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이 깊은 생각에 있어서의 진리를 실제적으로 효용 있게 쓸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다.

제 3 부

그리스도교의 코먼웰스에 대하여

올재 후원하러 가기

제32장 그리스도교의 정치학의 여러 원리에 대하여

예언자들에 의해서 전해진 신의 말이 그리스도교의 정치학의 주요한 원리이다 나는 주권의 여러 권리와 그에 대한 국민의 의무를 자연(自然)의 여러 원리에서만 이끌어 냈다. 그 자연의 여러 원리라는 것은 경험에 의해서 진실이라고 알게 된 것, 또는 *(말의 사용에 관한)* 동의가 진실되게 된 것이며, 다시 말하면 경험에 의해서 우리들이 알게 된 사람의 본성에서, 그리고 *(모든 정치적인 추리에 있어 필수적인 말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동의된 여러 정의(定義) 등이다. 그러나 내가 다음에 다루려고 하는 것, 즉 그것은 그리스도교 코먼웰스(Christian Commonwealth)의 본성과 여러 권리이며, 그 안에서는 대개가 신의 의지의 초자연적인 계시에 따르는 것이므로, 그러한 것에 있어서는 신의 자연적인 말뿐만이 아니라 예언적인 말도 나의 논구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연의 이성(理性)이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우리의 여러 감각과 경험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또 *(의심할 수 없는 신의 말인바)* 우리의 자연의 이성을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의 축복받은 구세주의 재림까지 우리가 어떻게든 뚫고 나갈 수 있도록 그가 우리 수중에 둔 것이며, 따라서 은밀한 신앙의 냅킨에 싸 둘 것이 아니라, 정의와 평화와 진실한 종교의 구매(購買)에 사용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신의 말 속에는 이성을 넘어서는 사물, 다시 말하면 자연의 이성에 의해서는 논증도 논파(論破)도 할 수 없는 사물이 많다고 하더라도, 자연의 이성에 어긋나는 사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며, 그것이 그렇게 보이는 경우에는 우리의 서투른 해석이라든가 잘못된 이성 추리에 결함이 있는 것이다.

때문에 무엇인가 거기에 쓰여 있는 것이 우리의 검사에 있어서 너무 곤란하면, 우리는 우리의 이해력을 그 말에 밀착시켜야 할 것이며, 이해도 못 하고 자연 과학의 어떤 법칙에도 굴하지 않는 여러 신비 속에서 논리에 의하여 하나의 철학적 진리를 끄집어 내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즉 그것은 우리 종교의 여러 신비에 대해서는 환자를 위해 이익이 되는 환약에 관한 것과 같은 것이어서, 그것을 통째로, 삼키면 치료할 능력을 가지지만, 씹으면 대부분은 효과 없이 다시 토해 내게 되는 것

이다.

이해력을 밀착시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나 우리의 이해력의 밀착이라는 것은 지적 능력을 어떤 다른 사람의 의견에 종속시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이 당연한 곳에 있어서 의지를 복종에 종속시키는 것을 뜻한다. 즉 감각 · 기억 · 이해력 · 이성 · 의견은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필연적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고찰하는 사물이 우리에 대하여 시사하는 그대로의 것이며, 그런 까닭에 우리의 의지의 결과가 아니고 그것들의 결과가 우리의 의지인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의 이해력 및 이성을 밀착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대립을 회피할 경우, 우리가 *(합법적인 권위에 의해서)* 명령된 대로 말하는 경우,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생활하는 경우인 것이며, 그것은 요컨대 예를 들어 그러한 마음이 이야기된 말에서 어떠한 관념도 얻을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말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다.

신은 어떻게 사람에게 말하는가 신이 사람에게 말할 때, 그것은 직접이든가 혹은 전에 그 자신이 직접 말한 일이 있는 제삼자의 매개에 의한 것이었는가 중의 어느 것임에는 틀림없다. 신이 어떻게 하여 직접 말한 사람들에게 말하는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해되겠는가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닐지라도, 어려운 것이다. 즉 만약 어떤 사람이 나에게 신이 자기에게 초자연적으로 직접 말했다고 주장하고, 내가 그것을 의심한다고 할 때, 내가 그것을 믿지 않을 수 없도록 어떤 증거를 그가 제공할 수 있을는지 나는 쉽사리 마음속에 그릴 수 없다. 확실히 만약 그가 나의 주권자이면 그는 나를 복종의 의무를 지울 수 있으며, 그것에 따라서 나의 이성이 나에게 설득하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는 결코 생각하게 할 수는 없으나 내가 그를 믿지 않는다면 행위 또는 말로 선고하지 못하도록 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만약 나에게 그러한 권위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 같은 것을 주장한다면, 거기에는 신앙과 복종과의 어느 것도 강요하는 것이 없다.

왜냐하면, 신이 《성경》에서 그에게 말했다고 하는 것은 신이 그에게 직접적으로 말했다는 것이 아니며, 예언자들, 사도들, 혹은 교회를 매개로 하여 다른 모든 그

리스도교적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하였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사람에게 꿈속에서 말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신이 자신에게 말하는 것을 꿈꾸었다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은 다음 것을 알고 있는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신앙을 획득할 힘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라는 것은 꿈의 대부분이 자연적인 것이며, 이전의 여러 사고(思考)에서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꿈은 사람이 자신을 특별한 계시의 은혜에 미칠 만한 값이 있었다고 생각하도록 만든, 자신의 두터운 신앙심이나 그 밖의 덕(德)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기만이나 어리석은 과장과 허위의 소견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가 환영(幻影)을 보았다든가 목소리를 들었다든가 하는 것은, 결국 그가 잠과 눈뜬 사이에서 꿈을 꾸었다는 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여 사람은 자기의 졸음을 잘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꿈을 환영으로 생각하는 수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초자연적인 영감에 의해서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말하고 싶어 하는 열렬한 의욕을 가졌다는 것이거나 그가 그것에 관해서 자연적이고 충분한 이유를 내세울 수 없는 어떤 강한 의견을 자신에 대하여도 가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능의 신은 꿈 · 환영 · 목소리 · 영감에 의해서 사람에게 말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신이 자기에게 그렇게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말하는 그대로 신이 했다고 하는 것을 믿도록은, 어느 사람에게도 의무 지우지는 않는다. 그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틀릴지도 모르고, *(더욱이)* 거짓말을 할지도 모르는 것이다.

어떤 표지에 의해서 예언자들은 알게 되는가 그러면 신이 지금까지 그 의지를 *(자연의 이성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계시를 받은 일이 없는 사람이, 자신은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전하여진 말에 어떤 경우에 복종해야 할 것인가, 혹은 복종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어떻게 하여 알 수 있을 것인가? 이스라엘 왕이 라못 길르앗에 대하여 그가 치룬 전쟁에 대해서 충고를 구한 4백 명의 예언자들 중에서 미가야만이 진실한 예언자였다.[1] 여로보암에 의해서 차려진 제단에 반대하여

1 〈열왕기상〉 22장

예언하기 위해서 보내어진 예언자는 진정한 예언자였으며,[2] 그가 있는 곳에서 행해진 두 가지 기적으로 인해서 신이 보낸 예언자임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도 다른 늙은 예언자에게 속임을 당했으며, 뒤의 경우의 사람은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도록 그것이 신의 입에서 나온 것처럼, 앞의 경우의 사람을 설득한 것이다. 만약 어떤 예언자가 다른 예언자를 속인다고 한다면, 신의 의지를 알 수 있는 확실성은 이성에 따르는 이외에 무엇에 따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나는《성경》안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며, 그 답으로는 두 가지 표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따로따로가 아니라 합쳐서 진정한 예언자를 알게 되는 것이다. 한 가지는 기적을 이룩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미 세워진 이외의 어떤 종교도 가르치지 않는 것이다. 분리하여서 보면 *(감히 말하지만)* 이것들 중의 어느 것도 충분한 것은 아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네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너의 하느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면 너희 하느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꾀어 내려고 말하였음이라."[3] 이러한 말 속에, 두 가지 사항이 관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로, 신은 기적을 그 예언자의 소명을 승인하는 증거로서 보탬이 될 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명기〉 13장 3절에서 보듯이)* 그에 대한 귀의(歸依)의 항상성(恒常性)을 시험해 보는 데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도 가지리라는 것이다. 즉,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하는 짓들이 모세의 그것들과 같이 훌륭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역시 훌륭한 기적이었다. 둘째로, 그 기적이 어떠한 훌륭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만약 왕에 대하여, 혹은 왕의 권위에 의해서 통치하는 것에 대하여 반역을 불러일으키는 경향을 가진 것이라면, 그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은 왕에 대한 충성을 시험하기 위해 보낸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는 없다는 것이다. 즉 '너희

2 〈열왕기상〉 13장
3 〈신명기〉 13장 1~5절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한다'는 말은, 여기서는, '너희들의 왕을 배반한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시나이 산 기슭에서의 계약에 의해서 신을 그들의 왕으로 하였었기 때문이며, 그 신은 모세에 의해서만 그들을 지배하며, 말하자면 그만이 신과 말하며 그때그때에 따라서 신의 계율을 백성에게 선고했던 것이다.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구세주인 그리스도가 그들의 사도들에게, 그가 구세주라는 것 *(다시 말하면 유대 국민이 매일 신에 의해서 기름이 발려진 자를 그들의 왕으로서 기다리면서 그가 왔을 때는 거부하였다)*으로 인식시켰으나, 기적의 위험에 대해서도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4]*(라고 그는 말한다).* 그것으로 본다면 거짓 예언자들은 기적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우리들은 그들의 교의(敎義)를 신의 말로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다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여러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다.[5] 그 복음이란,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받아들여진 그 왕의 권력에 반대하는 모든 설교는 이러한 언어의 귀결로서, 성 바울에 의해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연설은 그의 설교에 의해서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서, 즉 유대 사람의 왕으로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향해져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옛 법에 있어서의 예언자의 표지, 그 법에 일치하는 기적과 교의 그리고, 신이 세운 교의의 설교를 수반하지 않는 기적과 마찬가지로, 참된 교의의 설교로 기적을 이룩하는 것을 수반하지 않으면, 직접적 계시의 충분한 증거는 아니다. 즉, 만약 거짓 교의를 가르치는 일이 없는 어느 사람이 아무런 기적도 내보이지 않고 자신이 예언자다라고 주장한다고 하면, 그는 그렇다고 해서 그의 주장대로라고 보아야 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것은 〈신명기〉 18장 21~22절에 의해서 명백하다. '네가 혹시

4 〈마태복음〉 24장 24절
5 〈갈라디아서〉 1장 8절

심중에 이르기를 그 *(예언자의)*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러나 사람은 다시 여기서 물을지도 모른다. 그 예언자가 어떤 것을 예언할 경우, 그것이 실현하느냐 않느냐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사람의 생존 기간보다도 긴, 일정한 시간 뒤에 오고야 말 것으로서 예언할지도 모르며, 또는 부정적으로 언젠가 어느 때에 실현할 것이다라고 예언할지도 모른다. 그럴 경우, 예언자라는 이 표지는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예언자를 믿도록 우리를 의무 짓는 기적은, 직접 또는 너무 뒤늦어지지 않는 사건에 의해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명백히 신이 세운 종교를 가르치는 것과 눈앞에 기적을 나타내 보이는 것과는 함께 묶어서 《성경》이 해야 할 참다운 예언자를, 다시 말하면 직접의 계시를 가지는 경우의 유일한 표지였던 것이다. 그런 것들 중의 어느 것도 단독으로서는, 그가 말한 것을 지키도록 어떠한 다른 사람을 의무 지우는 데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적이 없어지면 예언자들도 없어지고, 《성경》은 그들의 지위에 따라 바꿔진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기적이 없어진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사사로운 개인이 계시 또는 영감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그에 의해서 승인할 수 있는 아무런 표지도 남겨져 있지 않으며, 또 《성경》에 일치하는 것 이외의 어떤 교의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의무도 없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의 구세주 이래, 다른 모든 예언을 대신하고 있으며,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을 충분히 보충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현명하고 학식 있는 해석과 주의 깊은 이성 추리에 의해서, 신과 사람과의 쌍방에 대한 우리의 의무에 관한 지식에 필요한 모든 규칙과 계율을, 열광이나 초자연적 영감을 수반하지 않고서도 쉽사리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성경》이야말로 내가 거기서, 지상의 최고 통치자인 사람들의 여러 권리에 대하여, 즉 그리스도교의 코먼웰스에 대하여 즉 그리스도 교도인 신민의 그들의 주권자에 대한 의무에 관한 나의 논구의 여러 원리를 채택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나는 다음 장에서 《성경》의 여러 편과 필자들과 의도 및 권위에 대하여 말할

것이다.

제33장 《성경》의 여러 편의 수(數), 오래 됨, 의도, 권위 및 해석자들에 대하여

《성경》의 여러 편에 대하여 《성경》의 여러 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교적인 생활의 정전(正典), 즉 여러 규칙이 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키도록 양심에 대하여 구속되어 있는 생활의 모든 규칙은 법이므로, 《성경》에 대한 의문은 모든 그리스도 세계에 걸쳐서, 자연적이며 또한 정치적이기도 한, 법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의문인 것이다. 즉 그리스도교인 모든 왕이 어떠한 여러 법을 그의 여러 영토에 세워야 할 것인가는 《성경》 속에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여러 법을 그가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은 결정되어 있다. 따라서 내가 이미 증명한 바와 같이, 여러 주권자가 그들 자신의 영토에 있어서의 유일한 입법자들이라는 것으로 볼 때, 모든 국민에게 있어서, 주권적 권위에 의해서 정전적(正典的)인 것으로 확립되어 있는 여러 편(篇)만이 정전이며 즉 법인 것이다. 신이 모든 주권자의 주권자라는 것, 따라서 그가 누구이든 간에 신민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떠한 땅 위의 힘 있는 사람이 모순된 일을 명령하더라도 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진실이다. 그러나 의문은 신에의 복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언제 무엇을' 신이 말했는가이며, 그것은 초자연적인 계시를 가지지 못한 신민들에게는 저 자연의 이성에 의해서가 아니면 알 수가 없다. 그 자연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이끌고 평화와 정의의 획득을 위해서, 그들 각자의 코먼웰스, 즉 그들의 합법적인 주권자들의 권위에 복종시킨 것이다. 그 의무에 따라서 나는 《구약 성경》 중에서는 잉글랜드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성경》으로서 승인되어야 할 것이 명령 내려진 것 이외의 여러 편을, 그것이라고 승인할 수는 없다. 이것들이 어떤 여러 편인지는 여기에 그것들의 목록이 없어도 충분히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것들은 성 제롬(Jerome)[6]에 의해서 승인된 것과 같은 것이며, 그는 그것 이외의, 즉 〈솔로몬의 지

6 히에로니무스(Eusebius Sophronius Hieronimus, 345~419). 영어 이름 제롬(Jerome), 가톨릭 성인. 라틴 번역 성경을 완성한 사람.

혜〉, 〈에클레시아스티쿠스〉, 〈유디트〉, 〈토비트〉, 〈마카베오기 1서 · 2서〉*(그러나 그는 〈마카베오기 1서〉를 히브리 말로 조사했다)* 및 〈에스드라 3서 · 4서〉를 외전(外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정전(正典)에 대해서는,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시대에 저작(著作)한 학식 있는 유대 사람 요세푸스가, 히브리어 알파벳과 그 수를 일치시켜서 22로 계산했다. 성 제롬도 같은 것이었으며,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 그것들을 계산했는데도 그러하다. 왜냐하면 요세푸스(Flavius Josephus, c.37~100)는 모세의 5경, 즉 예언자들 자신의 시대의 역사를 쓴 *(그것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예언자들의 저작과 어떻게 일치하는가를 우리는 뒤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언자의 13편' 및 '성가(聖歌)와 도덕적 계율의 4편'을 세어 넣고 있다. 그러나 성 제롬은 '모세의 5경, 예언자의 8편' 및 그가 하기오그라파(ἁγιογραφα)에 속한다고 하는, 그 밖의 신성한 저작의 '9편'을 셈에 넣고 있다. 70인, 즉 유대의 법을 히브리 말에서 그리스 말로 번역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왕 프톨레마이오스(Ptolemaeus Philadelphus B.C.309~246)에 의해서 초청을 받은, 70인의 유대의 학식 있는 사람들은, 잉글랜드 교회에로 받아들여진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리스 말로 쓰인 《성경》으로서 우리에게 다른 아무것도 남기지는 않았다.

《신약 성경》의 여러 편에 대하여 말하면, 그것들은 아무튼, 어느 편이나 정전으로서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모든 그리스도 교도의 교회 및 그리스도 교도의 모든 종파(宗派)에 의해서 똑같이 승인되어 있다.

그것들의 오래됨 《성경》 몇 편의 원래의 저작자들이 누구였던가는 다른 사서(史書)의 어떠한 충분한 증언*(그것이 사실 문제에 대한 유일한 증거이다)*에 의해서도 명백히 된 일이 없었으며, 자연 이성(自然理性)의 어떠한 논증으로도 명백히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성은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귀결에 대한 진실을 이해시키는 것만이 보탬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의문에 있어서 우리들을 틀림없이 이끌 빛(光)은, 여러 편 그 자체에서 우리에게 비춰 오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에게 모든 편의 저작자를 나타내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들이 쓰인 시대에 대해서의 지식을 우리에게 주는 데에 있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첫째로, 《오경(五經, Pentateuch)》에 대해서 말하면, 그것들이 모세의 5

경이라고 불린다고 해서 그것이 모세에 의해서 쓰인 것이라고 하는 충분한 증거는 없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열왕기〉라고 하는 표제가 그것들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사사에 의해서, 룻에 의해서, 또는 열왕에 의해서 쓰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충분한 논거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여러 편의 표제에는 저작자가 표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때로 주제가 표시되기 때문이다. 《리비우스의 역사》는 저작자를 나타내지만, 《스칸데르베그[7]의 역사》는 주제에 의해서 이름 지어진 것이다.

《모세 오경》은 모세에 의해서 쓰인 것은 아니다 우리는 〈신명기〉[8]의 마지막 장 6절에 있어서, 모세의 무덤에 대하여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느니라.' 즉 그러한 말이 쓰인 날짜까지라고 하는 것을 읽을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말은 그가 매장된 뒤에 쓰인 것은 명백한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 자신의 무덤에 대해서 *(예언이었다고 할지라도)* 그가 아직 살아 있던 날까지 그것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것은 기묘한 해석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명기〉 전체가 아니고 마지막 장만이 누군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쓰인 것이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고 아마도 주장할 것이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창세기〉 12장 6절에서 우리가 보는 다음의 것을 고찰하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레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이것은 반드시,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살지 않았던 때에 쓰인 것의 말임에 틀림없으며, 따라서 거기에 오기 전에 죽은 모세의 말이 아니다. 〈민수기〉 21장 14절도 마찬가지이며, 저작자는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표제의 다른 가장 오래된 편(篇)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 홍해(紅海)에 있어서의, 그리고 아르논 골짜기에 있어서의 모세의 여러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모세의 5경이 그의 시대의 얼마만큼 뒤에 쓰였는가는 그만큼 명백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뒤에 쓴 것만은 충분히 명백한 것이다.

7 스칸데르베그(George Castrota Scanderbeg, 1403~68), 알바니아의 국민적인 영웅.

8 'Deuteronomy=Deuternômion는, 제2의 법을 뜻한다. 또한, 5경이라고 번역한 것은 Pentateuch=Pentateukh로서, 5경으로 구성된 것을 의미하며, 모세의 5서라고도, 율법의 서라고도 불린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것에 속한다.

그러나 모세가 그것들의 편 전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는 그가 썼다고 거기서 전해진 모든 것을 쓴 것이다. 예를 들면 〈신명기〉 11장~27장까지 계속되는 여러 장에 들어 있는 율법 조항들이 바로 그것이며,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에 있어서, 역시 돌에 기록할 것을 명령받은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모세는 스스로 써서 이스라엘의 사제(司祭)들 및 장로들에게 건네주고, 7년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하여 회막〔幕舍〕의 제전(祭典)에 있어서의 그들의 모임에서 낭독되어야 할 것으로 했다.[9]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왕들이 *(그 통치 형태를 확립해야만 했을 때)* 사제나 보조 사제(補助司祭)에게서 베껴 두도록 신이 명령한 법인 것이며, 그리고 모세가 사제나 보조 사제에게, 계약궤 곁에 두도록 명령한 법인 것이다.[10] 그리고 그것은 잃어버렸다가[11] 훨씬 뒤에 가서 다시 힐기야에 의해서 발견되어 요시야 왕에게 보낸 법인 것이다. 요시야는 그것이 백성에게 읽힐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과 그들과의 계약을 새로이 맺었다.

〈여호수아〉는 그의 시대의 뒤에 쓰였다 〈여호수아〉도 또한 여호수아의 시대의 훨씬 뒤에 쓰였다는 것은 그 책 자체의 많은 곳에서 추정될 것이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기념비로서 요르단 가운데에 돌 열둘을 세웠고,

〈여호수아〉 4장 9절 그것에 대하여 저작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즉 '오늘까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을 넘어서는 옛날의 어느 때를 나타내는 말투인 것이다.

〈여호수아〉 5장 9절 같은 것으로서 주가, 자신은 이집트의 수치를 백성으로부터 굴러 없어지게 했다고 하는 말에 대하여, 저작자는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Gilgal)이라 하느니라'라고 한다. 그것이 여호수아의 시대에 말하여졌다고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았다. 그와 같이 또 아간(Achan)이 삶의 진영(陣營) 속에서 일으킨 분쟁에서 비롯된 아골 골짜기의 이름이,

9 〈신명기〉 31장 9~11절.
10 〈신명기〉 31장 26절.
11 〈열왕기하〉 22장 8절, 23장 1~3절

〈여호수아〉 7장 26절 '오늘날까지'라고 저작자는 말한다. 그것은 따라서 반드시 여호수아의 시대보다 훨씬 뒤임이 틀림없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논거는 이 밖에도 많이 있을 것이다. 가령 〈여호수아〉 8장 29절, 13장 13절, 14장 14절, 15장 63절 등이다.

〈사사기〉와 〈룻기〉는 사로잡힌 훨씬 뒤에 쓰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사기〉 1장 21~26절, 6장 24절, 10장 4절, 15장 19절, 17장 6절 및 〈룻기〉 1장 1절은 같은 논거에 의해서 명백하나, 특히 〈사사기〉 18장 30절이 그러하며, 거기서는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라고 말하고 있다.

〈사무엘기〉에 대해서도 같다는 것 〈사무엘기〉도 또한 그 자신의 시대의 뒤에 쓰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논거가 있다. 〈사무엘상〉 5장 5절, 7장 13절,15절, 27장 6절, 30장 25절이 그것이며, 30장 25절에서는 다윗이 군수품을 지킨 사람들에게, 전투한 사람들에게와 똑같은 분배의 전리품을 주도록 재정(裁定)해 버린 뒤에,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느니라'라고 저작자는 말하고 있다.

〈사무엘하〉 6장 6~8절 또 다윗이*(웃사(Uzzah)가 언약궤를 붙들기 위하여 그의 손을 뻗은 것에 대해서, 신이 웃사를 죽인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여)* 그 장소를 베레스 웃사라고 불렀을 때, 그것이 '오늘까지' 그렇게 불리고 있다고 저작자는 말한다. 따라서 그 편을 쓴 시대는 그 사실의 시대보다 훨씬 뒤, 즉 다윗의 시대의 훨씬 뒤임이 틀림없는 것이다.

〈열왕기〉 및 〈역대〉 〈열왕기상 · 하〉 및 〈역대상 · 하〉에 대해서 말하면, 저작자가 말하듯이 그들 자신의 나날까지 남아 있던 기념물을 들고 있는 여러 개별적인 장소 외에, 〈열왕기상〉 9장 13절, 21절, 10장 12절, 12장 19절, 〈열왕기하〉 2장 22절, 8장 22절, 10장 27절, 14장 7절, 16장 6절, 17장 23절, 34절, 41절, 〈역대상〉 4장 41절, 5장 26절이 그러한 것이다. 그것들이 바벨론에 있어서의 사로잡힌 뒤에 쓰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역사가 그 시대까지 계속되어 있는 것이 충분한 논거이다. 왜냐하면 기록된 여러 사람들은 항상 기록보다는 오래된 것이며, 그

리고 이 편들의 여러 곳에서 독자에게 유대 여러 왕의 역대지(歷代志),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역대지, 예언자 사무엘, 예언자 나단, 예언자 아히야의 여러 편, 예도의 환영(幻影), 예언자 세르비아 및 예언자 아도의 여러 편을 참조하기를 요구하도록 하여, 그 기록에 언급하고,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여러 편보다도 훨씬 오래된 것이기 때문이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라〉 및 〈느헤미야〉의 여러 편은 확실히 사로잡혀서부터 그들이 돌아온 뒤에 쓰였다. 왜냐하면 그들의 되돌아옴, 예루살렘의 벽과 집의 재건, 계약의 갱신, 그들의 정치의 질서 수립이 그 속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에스더〉 왕비 에스더의 역사는 사로잡힌 그때의 것이다. 그리고 따라서 저작자는 그것과 동시에 또는 그 뒤의 사람이었음이 틀림없다.

〈욥기〉 욥기는 그 속에 그것이 쓰인 시대에 대한 표지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가 만들어진 인물이 아니었음은 충분히 명백하다고 할지라도 *(〈에스겔〉 14장 14절 및 〈야고보서〉 5장 11절)* 그렇지만 그 편 자체는 역사가 아니고, 옛 시대에 크게 논쟁이 된 하나의 의문에 대한 논문인 것처럼 보인다. 그 의문은 '왜 사악한 사람들이 때때로 이 세상에서 번영하며, 선량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 왔는가'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처음부터 욥의 호소가 시작되는 3장의 3절까지는 히브리 말이 산문으로 되어있고, 거기서부터 마지막 장의 6절까지는 육보격(六步格)의 운문, 그 장의 나머지는 다시 산문으로 된 것으로서, 그만큼 한층 더 진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여 논쟁은 모두 운문이며 산문은 덧붙여졌지만 처음 서문 및 최후의 결어로서인 것이다. 욥과 같이 자신이 커다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혹은 그의 친구들처럼 그러한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보통 문체가 아닌 운문을 사용하였고, 철학, 특히 도덕 철학에서도 그러했으며, 고대에는 자주 그러했던 것이다.

〈시편〉 〈시편〉은 대부분 다윗에 의해서 성가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쓰인 것들에다가 모세 그 밖의 다른 성자들의 몇 개의 노래가 덧붙여 있으며 그리하여 그런 것들 중의 어떤 것은 137장 및 126장과 같이 사로잡힐 때부터 돌아온 뒤에 그렇게 된 것이며, 거기서 〈시편〉이 정리되어 현재 그것이 지니고 있는 형태로 된 것은 유

대인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뒤인 것이 명백하다.

〈잠언〉 〈잠언〉은 현명한 말, 신앙심 깊은 말의 수집이며, 일부분은 솔로몬의, 일부분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일부분은 왕 르무엘의 어머니의 것이다. 그러니까 아굴 또는 르무엘의 어머니에 의해서이기보다는 차라리 솔로몬에 의해서 수집된 것이라고는 아마도 생각할 수가 없다. 더구나 여러 장(章) · 구(句)가 그들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것들을 이 한편에 모으는 혹은 정리한다는 것은, 그들 모두의 뒤에 살아 있던 어느 다른 신앙심 두터운 사람의 일이었다.

〈전도서〉와 〈아가(雅歌)〉 〈전도서〉와 〈아가〉의 여러 편은, 표제 또는 기명(記銘)을 제외하고, 솔로몬의 것이 아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왕, 다윗의 아들인 전도자의 말' 및 '솔로몬의 노래 중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그 후 《성경》의 여러 편에 수집되어서 일체(一體)의 법이 되었을 때에, 교의(教義)뿐만 아니라, 저작자들도 또한 함께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도 생각되기 때문이다.

예언자들 예언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은 스바냐,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야 등이며, 그들은 유대족 왕들인 아마샤, 아사, 그렇지 않으면 웃시야 시대에 살아 있었다. 그러나 〈요나서〉는 정말은 그의 예언의 기록이 아닌 *(왜냐하면 그것은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러한 몇 말 가운데 들어 있기 때문이다)* 것이며, 신의 명령에 대한 그의 고집과 논쟁의 역사 즉 이야기인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주제인 것을 보면 그가 저자인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아모스〉는 그의 예언이다.

예레미아, 오바댜, 나훔, 하박국은 요시야의 시대에 예언했다.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는 바벨론 유수 시대에 사로잡힌 속에서 예언했다. 언제 요엘과 말라기가 예언했는지는 그들이 저작으로서는 명백하지 않다. 그러나 그들의 여러 편의 제명(題銘) 또는 표제를 고찰해 보면, 구약의 모든 성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양으로 공표된 것은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그들이 사로잡힘에서 돌아온 뒤,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 필라델포스의 시대보다도 앞섰었던 것은 명백히 밝히기에 충분한 것이며, 그가 그것을 70인에 의해서 그리스 말로 번역한 것이며, 그 70인

은 그 목적을 위해서 유대에서 그에게로 보내졌던 것이다. 그리고 만약 외전(外典)의 여러 편*(그것들을 교회에 의해서 정전(正典)으로서는 아니지만, 우리를 지도하기 위한 유익한 여러 편으로서 우리에게 추천된다)*이, 이 점에 있어서 믿을 수 있는 것이라면 《성경》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모양으로 공표된 것은 에스드라(에스라)에 의해서였다. 그것은 그 자신이 2편 14장 21~22절 등의 절에서 말하는 것으로 알게 될 그대로이다. 거기에서 그는 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신의 법은 불태워졌다. 따라서 누구도 당신의 행하여 온 일 또는 시작될 일을 모른다. 그러나 만약 내가 당신 앞에서 은총을 발견한다고 하면 나에게 성서를 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창세 이래 거기서 행해져 온 모든, 즉 당신의 율법에 쓰여 있던 것을 써서 사람들이 당신의 길을 찾아 낼 수 있도록 하며, 뒷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겠나이다.' 그리고 45절, '그리고 40일이 채워졌을 때, 지고(至高)한 자가 다음과 같이 말한다고 하는 일이 일어났다. 네가 쓴 첫째의 것을 공개하여 귀천한 자와 함께 그것을 읽도록 하라. 그러나 마지막 70은 간직하여 두었다가 백성 중에서 현명한 사람들에게만 네가 배포할 수 있도록 하라.' 《구약 성경》 여러 편의 저작 시기에 관하여는 이것뿐이다.

《신약 성경》 《신약 성경》의 저작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승천보다 한 대(代) 이내 늦게 살아 있었으며, 그들의 모두는 우리의 구세주를 보았으며, 성 바울과 성 누가를 제외하고는 그의 제자였다. 따라서 그들에게 의해서 쓰인 것은 무엇이든 열두 사도의 시대와 같이 오래된 것이다. 그러나 《신약 성경》 여러 편이 교회에 의해서 그들의 저작으로 받아들여져 승인된 것은 결코 그토록 오래되지는 않았다. 즉 《구약 성경》 여러 편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은, 그것들이 없었을 때에 신의 영(靈)의 지시에 의해서 그것들을 복구한 에스라의 시대보다도 먼 것은 아닌 것과 같은 것이며, 초고(草稿)도 많지 않았으며, 모두가 어느 한 사람의 사사로운 개인의 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쉽지 않았던 《신약 성경》의 여러 편은 교회의 통치자들이 그것들을 그 이름으로 그것을 평소에 쓰고 있는 사도들과 제자들의 저작으로서 수집하고 인정하여 우리에게 추천한 시대보다도 먼 데서 끌어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신 · 구약 성경》 쌍방의 모든 편 중에서 처음으로 열거된 것은 열두 사도의

여러 정전(正典) 중에 있으며 로마의 주교 클레멘트 1세*(성 베드로의 후임)*에 의해서 수집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며, 많은 사람이 의문시했으므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바로서는 라오디게아의 회의(Councel of Laodicea)가 비로소 당시의 그리스도교 여러 교회에 《성경》을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저작으로서 추천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회의는 그리스도 이후 364년째에 행해졌다. 그때에는 교회의 훌륭한 박사들 사이에 야심이 지배적이었으며, 이미 황제들을 그들이 그리스도 교도일지라도 백성의 목자(牧者)로는 보지 않았고 양으로 보았으며, 그리고 그리스도 교도가 아닌 황제들을 이리(狼)로 생각할 정도였으며, 그들의 교리를 설교자로서의 충고나 보고로서가 아니라 절대적 통치자로서의 여러 법으로서 통용시키려고 노력하였으며, 그리고 백성을 그리스도교의 교의에 한층 더 복종시키려는 경향이 있는 여러 기만(欺瞞)을 경건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는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위조하지는 않았다고 확신한다. 《신약 성경》의 여러 편의 초고(草稿)는 성직자들만의 손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뜻을 지니고 있었더라면, 그들은 틀림없이 그것들을 그리스도 교도인 군주들 및 정치적 주권에 대한 그들의 권력에 대해 현재 그것들이 그러한 것보다도 더욱 유리한 것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나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예언자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행하여지고 말하여진 사물의 진실한 기록임을 의심할 아무런 까닭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의 여러 편 중에서 외전(外典)이라고 불리는 몇몇 편에 대해서도 만약 그것들이 나머지 것들과의 교의의 불일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히브리어로 발견되지 않은 것만의 이유로 정전(正典)의 밖으로 밀려난 것이라면 아마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왕의 아시아 정복 후에는 학식 있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 말이 완전치 못한 사람은 극히 적었기 때문이다. 즉, 성서를 그리스 말로 옮긴 70인의 통역은 그 모두가 히브리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유대인이었던 필론(Philon B.C.10~A.D.50)과 요세푸스의 저작이 그들에 의해 유창한 그리스 말로 쓰여서 남아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어떤 편을 정전으로 삼는 것은 그

저작자가 아니라 교회의 권위인 것이다.

그것들의 의도 그리고 이것들 여러 편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하지만 저작자들이 모두 틀림없이 똑같은 정신을 받았다는 것은 명백한 것으로서 왜냐하면 그들은 '신'의, 즉 '아버지[성부]'와 '아들[성자]'과 '성령'의 왕국의 여러 권리를 공포한다고 하는, 바로 같은 목적을 향하여 협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창세기〉는 이 세상의 창조에서 이집트 행에 이르기까지 신의 백성의 발생사(發生史)를 추론한다. 그 밖의 모세의 4편은 그들의 왕으로서의 신을 선택하는 것, 그들의 통치를 위한 그가 정한 여러 법을 내용으로 한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의 여러 편은 '사울' 때까지 신의 백성의 여러 행위를 서술하고 그들이 신의 멍에를 동맹이 벗어 버리고 이웃 여러 나라의 국민들처럼 왕을 가지는 것을 요구한 때까지 이른다. 《구약 성경》의 나머지 역사서들은 '다윗'의 혈통의 계승을 추론하여 사로잡힘에 이르는 것이며, 그 혈통 중에서 신의 왕국의 회복자(回復者)가, 그리고 우리의 축복받은 구주 아들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된 것이다. 그의 도래(倒來)는 예언자의 여러 편에서 미리 말해졌던 것이며, 그의 이후에는 복음서의 저자들이 그가 땅 위에 살고 있었던 동안의 생활, 행위 및 왕국에 대한 그의 권리의 주장을 쓴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의 행전 및 편지가 성령이신 신의 도래와 그가 유대인을 인도하고 이방인을 부르기 위하여 사도들과 그 계승자들에게 위임한 권위를 밝힌다. 요컨대 《구약 성경》의 역사서와 예언, 《신약 성경》의 복음서와 편지는 바로 같은 목적을 가졌던 것이며, 그것은 사람들을 첫째로, 모세와 제사(祭司)들에게 있어서의, 둘째로는 인간 그리스도에 있어서의, 셋째로는 사도들과 사도 권력의 계승자들에 있어서의 신에 대한 순종으로 마음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다. 즉 이런 것들 세 가지는 각각 때에 따라서 신의 인격을 대표했다. 모세와 그 계승자인 유대족의 제사장들과 왕들은 구약에 있어서, 그리스도 자신은 그가 지상에 살고 있을 때에 있어서, 그리고 사도들 및 그 계승자들은 오순절*(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했을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인 것이다.

《성경》의 권위에 대한 문제의 제시 그리스도 종교의 여러 가지 종파들 사이에서 크게 논의되고 있는 문제는, '《성경》은 그 권위를 어디에서 끌어 낼 것인가'라는 것

이다. 이 문제는 또한 때로는 다른 말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것들이 신의 말씀인 것을 아느냐, 혹은 우리는 왜 그것들을 그러한 것이라고 믿는가'라는 문제로서 표현된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어려움은, 주로 그 질문 자체가 표현되어 있는 언어의 부적당함에서 생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것들의 최초의 본원적(本源的)인 '저자(Author)'가 신인 것은 널리 믿어지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논의되고 있는 문제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그것들이 신의 말씀이라는 것은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 교도는 그것을 믿고 있다고 할지라도)*, 신 자신이 그것을 초자연적으로 제시한 상대의 사람들 이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것이며, 따라서 그 문제는 그것에 대한 우리들의 지식에 관해서는 정당하게 제의된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우리들의 '신념'에 관하여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이유에 의해서 믿도록 움직여지는 것이므로, 그들 모두에게 대해서 하나의 일반적인 대답이 주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정당하게 제시된 문제는, '어떤 권위에 의해서 그것들이 법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다.

《성경》의 권위와 해석 그것들이 자연의 여러 법과 다르지 않는 한 그것들은 자연의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신의 법이며, 권위를 갖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권위는 이성(理性)에 일치하는 다른 모든 도덕학설(道德學說)의 권위와 다른 것은 아니다. 그것(이성)의 여러 지시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여러 법인 것이다.

만약 그것들이 신 스스로에 의해서 법이 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은 쓰여진 법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며, 그것들이 법이라는 것은 다만, 누구도 그것들이 신의 법이라는 것을 몰랐었다고 하여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신이 만족스럽게 공포한 상대의 사람들에게 대하여서이다.

따라서 《성경》이 신의 것이란 것을, 혹은 그것들을 공포한 사람들은 그에 의해서 보내진 사람이란 것을, 신으로부터 초자연적 계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 명령이 이미 법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외의 어떤 권위에 의해서도 그것들에 복종하도록 의무 지워지지는 않는다. 즉, 입법 권력(立法權力)을 가진 유일한 주권자 속

에 있는 코먼웰스의 권위 이외의 어떠한 권위에 의해서라도, 권위가 지워지는 것이다. 또다시 그것들에게 법의 힘을 주는 자가 코먼웰스의 입법적 권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으로부터 끌어 낸 무엇인가 다른 사적 또는 공적(公的)인 권위가 아니어서는 안 된다. 만약 사적인 권위라면 그것이 의무 지우는 것은 다만 그것을 신이 계시한 특정한의 사람들뿐인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개개의 사람이 개인적인 영감 또는 계시를 구실로 하여 강요하는 것을, 신의 법이라고 생각하도록, 각자가 의무 지워진다고 하면*(교만 또는 무지에서 자신들의 꿈이나 터무니없는 환상이나 미친 짓을 신의 영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야심으로 그와 같은 신의 가르침을 얻었다고 거짓말하며, 또한 자기의 양심을 어기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것처럼 수많이 있을 때)*, 어떠한 신의 법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공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코먼웰스나 교회의 권위이다. 그렇지만 교회는, 만약 그것이 하나의 인격이라고 하면, 그리스도 교도의 코먼웰스와 같은 것이며, 그것은 하나의 인격, 즉 그들의 주권자에 있어서 하나로 합쳐진 사람들로부터 통일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코먼웰스'라고 불리며, 그리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교적 주권자에 있어서 하나로 합쳐진 그리스도교적 사람들로부터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불린다. 그러나 만약 교회가 하나의 인격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그것은 전연 권위를 가지지 못한다. 그것은 명령할 수도 없으며 전연 아무런 행위를 할 수도 없다. 그것은 어떠한 권력, 혹은 어떠한 사물에의 권리도 가질 수 없으며, 어떠한 의지, 이성, 혹은 소리(聲)도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능력은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교의 모든 수(數)가 하나의 코먼웰스의 속에 들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의 인격이 아니며, 그들에 대하여 무엇인가의 권위를 가진 하나의 보편적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성경》은 보편적 교회에 의해서 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혹은 만약 그리스도 교도가 하나의 코먼웰스 속에 들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모든 그리스도교적인 군주와 국가는 사적 인격(私的人格)이며, 모든 그리스도 세계의 보편적 주권자에 의해서 재판되고 폐위되고 처벌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성경》의 권위에 대한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되돌아간다. '그리스도교적 왕 및 그리스

도교적인 여러 코먼웰스에 있어서의 주권 합의체(主權合議體)가 직접 신의 아래서 그들 자신의 영토에 있어서 절대적인가, 혹은 보편적 교회의 전체에 걸쳐서 설정된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대표자 법황(法皇)에게, 그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도움이 된다든가 필요하다든가 생각하는 대로 재판되고 단죄되고, 폐위되고, 죽음에 이르게 될 사람으로서 신종(臣從)하는가'라고 하는 것이다.

그 문제는, 신의 왕국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고찰을 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며, 거기서 또한 우리는《성경》을 해석하는 권위를 판정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느 저작에 대해서 그것을 법이 되도록 할 수 있는 합법적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그것의 해석을 승인하며 혹은 부인하는 권력도 가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34장《성경》의 여러 편에 있어서의 영(靈) · 천사 및 영감의 의의에 대하여

물체와 영은《성경》가운데서 어떻게 생각되고 있는가 모든 참다운 이성 추리(理性推理)의 바탕이 말의 한결같은 뜻의 표현에 있는 것으로서 그것은 다음에 논술하는 교의에서 *(자연 과학에 있어서와 같이)* 저작자의 의지나 *(일반적인 대화에서와 같이)* 통속적인 사용에도 의존하지 않고, 그러한 말들이《성경》에서 지니는 뜻에 의존한다. 이런 것으로 본다면 내가 이 이상 어느 정도라도 앞으로 나가기 전에 말의 애매함 때문에 내가 그것들에 의해서 무엇을 추론할 것인가를 흐리게 하거나 혹은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말의 뜻을《성경》가운데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물체 및 영, '정신'이라고 하는 말로부터 시작하고 싶다. 그것들은 스콜라 학파의 말로는, '유형의 또는 무형의 실체'라고 불리고 있다.

물체라는 말은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바에 따르면 어떤 일정한 공간 혹은 상상된 장소를 채우고 혹은 점유하는 것, 그리고 상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우주(宇宙)'라고 부르는 것의 실재적인 일부분인 것을 뜻한다. 왜냐하면, '우주'는 모든 물체의 집적(集積)인 것이므로 그것의 실재적인 부분임과 아울러 물체가 아닌 것은 없기 때문이며, 또한 무엇이든 진실한 물체이며, 동시에 *(모든 물*

체의 집적인) 우주의 부분이 아닌 것은 없기 때문이다. 같은 것이 또 여러 가지의 우유성(偶有性)에 대한 '실체(實體)', 즉 '주체(主體)'라고 불리는 것이며, 그 이유는 여러 물체는 변화를 받는, 즉 살아 있는 피조물의 감각에 대한 표현의 다양성 아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때로는 움직여지고, 때로는 멈춰져 있고, 그리고 우리의 감각에 있어서 때로는 뜨겁고, 때로는 차가운 것처럼 때로는 어떤 빛깔, 냄새, 맛, 혹은 소리를 가지며 때로는 다른 그것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보는 방법의 이 다양성*(우리의 감각의 여러 기관에 대한, 여러 물체의 작용의 다양성에 의해서 이룩되는)*을 우리는 작용하는 여러 물체의 변화에 돌리고 그것들을 그 여러 물체의 '여러 속성'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말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르면 실체와 물체와는 같은 것을 뜻하며, 따라서 '무형(無形)의 실체(實體)'라고 하는 말은, 그것들이 함께 결합되면 사람이 '무형의 물체'라고 할 수 있다고 할 경우와 같이 서로 파괴한다.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의 감각에 있어서는 우주의 모든 것이 물체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감촉(感觸)이라고 하는 감각에 의해서 그들에게 저항하는 것으로서, 또는 그들의 눈〔目〕의 감각에 의해서 그들의 그 이상의 전망(展望)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그들이 구분할 수 있는 부분만이 그렇게 불린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보통 말로서는 '공기(空氣)' 및 '공기와 같은 여러 실체'는 '여러 물체(物體)'라는 것으로 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의 효과를 여러 번 느낌에 따라서)*, '바람〔風〕' 혹은 '숨결〔息〕' 혹은 *(같은 것이 라틴 말로서는 '스피리투스(spiritus)'로 불리는 까닭에)* '영(靈)'이라고 불린다. 예를 들면, 그들은 어떠한 살아 있는 피조물의 신체에 있어서도 그것에 대해 생명과 운동을 주는, 저 공기와 같은 실체를 '생명적' 및 '동물적인 영(靈)'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거울 속에서, 꿈속에서 혹은 눈 뜨고 있는 정상(正常)을 잃은 두뇌(頭腦)에 대해서와 같이 거기에 없는 여러 물체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두뇌의 우상(偶像)들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들은 *(사도가 모든 우상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과 같이)* 아무것도 아니다. 굳이 말하지만 그것들이 있는 듯이 보이는 곳에는 전연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두뇌 그것 속에는 여러 대상의 행위에서 생기든가, 혹은

우리의 여러 기관의 질서의 흐트러진 동요에서 생겼든가, 한 동란(動亂)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거기서 다른 것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의 여러 원인을 찾게 되면, 그들 자신으로서는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부를 것인지를 모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이 지식을 존경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손쉽게 설득되어, 어떤 것은 그것들을 '물질(物質)'이라고 부르며 그것들을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압축된 공기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으며, 또 어떤 것은 그것들을 '영(靈)'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이며, 왜냐하면 촉감은 그것들이 보이는 곳에 있어서 아무것도 그들의 손에 저항하는 것을 식별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통 이야기 속에서의 '영'의 뜻은 희미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물체이든가 유령이든가 혹은 다른 상상하는 우상 또는 환각(幻覺)이다. 그러나 비유적인 뜻이라고 한다면 많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때때로 마음의 성향 또는 경향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며,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의 말하는 것을 억누르는 성향에 대하여 우리가 '대립의 정신'이라고 하는 경우가 그런 것이다. '불결(不潔)함에 대한 성향'에 대해서는 '불결한 정신', '고집스러움'에 대해서는 '거만한 정신', '음울함'에 대해서는 '음산한 정신', 그리고 '믿음의 깊음'이나 '신에 대한 봉사'에의 경향에 대해서는 '신의 영(靈)'이라고 하며, 때때로 무엇인가 뛰어난 능력, 또는 이상(異常)한 정념 또는 마음의 병에 대해서도 '신의 영'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훌륭한 지혜'가 '지혜의 정신'이라고 불리는 경우와 같이, 그리고 '미친 사람'들이 '영에 들려 있다'고 불리는 경우처럼 말하는 것이다.

'영(靈)', 즉 정신에 대한 다른 뜻을 나는 어디서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 중의 어느 것도 《성경》 속의 그 말의 뜻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인간의 이해력에는 속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의견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순종에 있다. 신이 '영'이라고 말해지기도 하고 '신의 영'에 의해서 신 자신이 뜻이 되는 모든 곳에 있어서와 같다. 왜냐하면 신의 본성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 즉 우리는 '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않고, '그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그에게 주는 여러 속성은, '그가 무엇인가'를 서로 이야기하기 위해서도, 그의 본성

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 자신의 사이에서 대단히 명예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여러 명사(名辭)로서, 그에게 명예를 주려는 우리의 의욕을 나타내는 것이다.

신의 영은 《성경》 속에서, 때로는 바람(風) 또는 숨결(息)로 풀이되고 있다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만약 '신의 영'에 의해서 신 자신을 뜻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운동', 따라서 '장소'가 신에게 되돌아가는 것이지만, 그것들은 여러 물체에 대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며, 무형의 여러 실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거기에서 그 장소는 우리의 이해력을 넘어서고 있다. 우리의 이해력은 장소를 바꾸지 않는 것, 혹은 넓이를 가지지 않는 것이 움직였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무엇이든 넓이를 가지는 것은 물체인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말들의 뜻은 비슷한 부분, 즉 〈창세기〉 8장 1절에 의해서 가장 잘 이해된다. 거기에서는 대지(大地)가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물에 뒤덮였을 때, 신은 물을 줄게 하고 다시 마른 땅을 나타나게 할 것을 의도하여 비슷한 말을 사용한다. '나는 나의 영을 대지 위에도 가져오게 하리니 그러하면 물은 감해질 것이니라.' 이 부분에서 '영'에 의해서 이해되는 것은 '바람'*(즉 '움직여진' 공기 혹은 '영')*인 것이며, 그것은 신이 하는 일이었으므로 '신의 영'이라고 불려도 좋았던 것이다.

둘째로 이해력의 비범한 자질(資質)로서 〈창세기〉 41장 38절, 바로는 요셉의 지혜를 '신의 영'이라고 부르고 있다. 즉 요셉이 그에게 현명하고 분별 있는 사람을 찾아 내어서 이집트의 국토를 지배하도록 권고했기 때문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리고 〈출애굽기〉 28장 3절, *(신은 말한다)* '너는 무릇 다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여기에서, 의복을 짓는 것에 대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비범한 이해력이 신의 선물(자질)이므로 신의 영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같은 것이 〈출애굽기〉 31장 3~6절 및 35장 31절에도 또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사야〉 11장 2~3절, 거기서 예언자는 구세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

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여기서는 명백히 그만큼 많은 유령들이 아니라 신이 그에게 부여할 그것만큼의 많은 뛰어난 '은총'을 뜻하고 있다.

셋째로 탁월한 애착으로서 〈사사기〉에서는 신의 백성에 대한 방위에 있어서의 탁월한 열정과 용기가 신의 '영'으로 불려져 있다. 그것이 옷니엘, 기드온, 입다, 삼손을 분발시켜서, 그들을 예종(隷從)에서 해방시키는 것으로 행하게 했을 경우, 즉 〈사사기〉 3장 10절, 6장 34절, 11장 29절, 13장 25절, 14장 6절, 19절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사울에 대하여, 암몬 사람인 야베스 길르앗의 사람들에게 대한 무례한 보고를 들었을 때, '하느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怒)*(라틴어에 있는 대로는 그의 분노)*가 크게 일어나서'라고 말하고 있다.[12] 거기에서는 아마도, 유령을 뜻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암몬 사람들의 잔혹함을 벌하고자 하는, 탁월한 '열정'을 뜻하고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이하여 사울이 노래와 음악으로 신을 칭송한 예언자들 가운데 있을 때, 그에게 내려온 신의 '영'[13]에 의해서, 이해되어야 할 것은 유령이 아니고, 그들의 귀의(歸依)에 참가하려고 하는 예기하지 못한 급작스러운 '열정'인 것이다.

넷째로 꿈 및 환영에 의한 예언의 재능으로서 거짓 예언자 시드기야가 미가야에게 말한다.[14]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네게 말씀하더냐.' 그것은 유령에 대해서라고는 이해될 수 없다. 왜냐하면 미가야는 이스라엘과 유대 국왕들 앞에서, 싸움이 되어 가는 모양을 그의 안에서 말하는 '영'에 의한 것으로서가 아니라 '환영(幻影)'에 의한 것으로서 공언하였기 때문이다.

같은 것으로서, 예언자들의 여러 편에 있어서 다음의 것이 명백히 된다. 즉 그들은 신의 영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예언이라는 특별한 은총에 따라 말했지만, 그래도 미래에 대해서의 그들의 지식은 그들의 안에 있는 유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떤 초자연적인 꿈 또는 환영에 의한 것이었다.

12 〈사무엘상〉 11장 6절.
13 〈사무엘상〉 19장 23절.
14 〈열왕기상〉 22장 24절.

다섯째로 생명으로서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spiraculum vitae)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라고 말하고 있다. 거기에서 신에 의해서 불어넣어진 '생기'라는 것은 신이 그에게 생명을 준 것 이상의 아무것도 뜻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으니'[15]라는 것은 '내가 살아 있는 한'이라고 하는 것 이상의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에스겔〉 1장 20절의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퀴가 살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16]라는 것은, 나는 '자신의 생명력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이며, 어떠한 유령 또는 무형의 실체가 그의 육체에 들어가서 그것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도 아니다.

여섯째로 권위에의 종속(從屬)으로서 〈민수기〉 11장 17절에서, '내가(라고 신은 말한다)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즉 그들이란 70인의 장로를 말하는 것이다. 그 70인 중의 두 사람이 회막 안에서 예언을 하고 있다고 하며, 그들에 대해서 누구인가가 불만을 말하자,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그들을 못 하도록 말리기를 바랐을 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 했다. 이 경우, 명백하게 되는 것은 다음의 사실이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그렇게 할 권리를 받아서 모세의 마음에 따라, 즉 모세 자신의 '영'에 종속하는 '영' 또는 '권위'에 따라서 예언했다고 하는 것은 몰랐던 것이다.

같은 뜻으로서 우리들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라'[17]고 쓰여 있는 것을 읽는다. 그것은 그가 모세에 의해서, 모세가 스스로 시작했지만 *(특히 신이 백성을 약속된 땅으로 데려오게 한 것)* 죽음의 방해를 받아 끝내지 못한 일의 집행을 '명령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같은 뜻으로서, 〈로마서〉 8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

15 〈욥기〉 27장 3절.
16 〈에스겔〉 2장 2절.
17 〈신명기〉 34장 9절.

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 뜻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유령이 아니고 그의 설교에의 '종속(從屬)'이다. 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18]라고 하는 것도 같은 것이며, 그에 따라서 뜻하는 것은 꺾이지 않는 그리스도교의 정신, 즉 예수는 그리스도*(기름을 발린 자)*이다라고 하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주요 조항에의 종속이며 그것은 유령에 관한 것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말, 즉 '예수께서 성령*(그것은 〈마태복음〉 4장 1절 및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밝혀지고 있는 것처럼, '성령'을 말한다)*의 충만함을 입어'[19]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이신 신에 의해서 그것을 위해 그가 보내어진 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열정'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유령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신 자신*(우리의 구세주는 신이었으므로)*이 신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이며, 그러한 것은 지극히 부적당하고 뜻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영'을 하늘 위에서나 땅 위에서나, 사람의 두뇌 속의 상상의 서식자(棲息者) 이외의 아무것도 뜻하지 않는, '정령'이라는 언어로 번역하기에 이르렀는가를 나는 검토하지 않는다. 그 대신 나는 다음 것을 말하고자 한다. 원전(原典)에 있어서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그러한 것을 뜻하지 않고, 본래(本來)로는 실재하는 '실체(實體)'이든가, 비유적으로는 정신 또는 육체의 무엇인가 이상(異常)한 '능력' 또는 '애정'이든가 하는 것이다.

일곱째로, 공기와 같은 여러 물체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가 바다 위를 걷는 것을 보고,[20] 그가 '영'이라고 생각했다. 이 경우, 공기와 같은 '물체'를 뜻하는 것이며 환각(幻覺)으로서는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그를 보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것은 두뇌의 망상(妄想)에 대한 것이라고는 이해할 수 없으며 *(그것은 눈에 보이는 여러 물체가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에게 아울러 공통되는 것은 아니며 상상의 차이 때문에 개별적인 것이다)* 여러 물체에 대한 것만으로 이해될

18 〈요한1서〉 4장 2절.
19 〈누가복음〉 4장 1절.
20 〈마태복음〉 14장 26절, 〈마가복음〉 6장 49절.

수 있다. 그가 같은 사도들에 의해서 영이라고 생각되었던 때에도 마찬가지인 것이며[21] 성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도 역시 그러한 것이어서 그것은 믿어지지 않았으며, 그가 문턱에 있다고 하녀가 말했을 때에 그들은 그것을 그의 '천사'라고 했다. 그것으로 하여 하나의 모양이 있는 실체를 뜻한 것이 틀림없으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제자들 자신이 유대 사람과 이방인과의 두 사람들에게 공통되는 견해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의견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나타나는 것은 구성상(構成上)의 것이 아니라 실재적(實在的)인 것이며, 그것들의 존재에 대하여 인간의 상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유대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이 같은 것을 여러 '악마'의 이름으로 부른 것처럼 선(善) 또는 악(惡)의 '여러 영(靈)' 및 '여러 천사(天使)'라고 불렀다. 그리고 약간의 그러한 나타남은 실재적이며 실체적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신이 모든 것을 형성한 것과 같은 힘에 의해서 형성할 수 있는 정묘한 여러 물체로, 그가 좋아하는 대로 정상이 아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서 그의 의지를 밝히고 그것을 집행하는 데 대행자 및 사자(천사)를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그들을 그와 같이 형성한 경우에는, 그들은 넓이가 주어져 공간을 차지하는 실체로서 장소에서 장소에로 움직여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물체에 특유한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무형의 유령은 아니다. 즉, '어떤 장소에도 없는', 즉 '어디에도 없는', 즉 '무엇인가로 보이면서' '아무것'도 아닌 유령은 아닌 것이다. 그렇지만 만약 유형(有形)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 방법에 따라서, 우리들의 외적 감각(外的感想)에 의하여 지각(知覺)되는 것과 같은 여러 실체(實體)로서 이해되는 것이라면, 그 경우에는 무형의 실체는 구성상의 것이 아니라 실재적인 것, 즉 희미한 실체로서 보이지 않으나 좀 더 부피 있는 여러 물체에 있는 것과 같은 넓이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천사란 무엇인가 천사(天使)라는 이름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뜻하는 것은 '사절(使節)'이며, 흔히 '신의 사절'을 가리킨다. 그리고 신의 사절이 뜻하는 것은 어떤 것이

21 〈누가복음〉 24장 37절.

든 그가 보통이 아니게 나타나는 것을 알리는 것, 즉 그의 힘이 비상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解)하는데, 꿈 또는 환영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천사들'의 창조에 대해서는 《성경》 중에 아무것도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이 영이라는 것은 여러 번 되풀이되지만, 그러나 영이라는 이름은, 《성경》 속에서나 통속적으로도, 또한 유대 사람들 사이에서나 이방인 사이에서도 모두 때때로 희박한 여러 물체를 뜻한다. 예를 들면 공기, 바람, 산 피조물의 생명적 및 동물적인 여러 정신, 또 때로는 꿈과 환영에 있어서 상상 속에서 생기는 여러 영상(影像)이 그런 것이다. 그런 것들의 여러 영상은 실재하는 실체도 아니며, 그것들이 나타나는 꿈 또는 환영보다 조금도 오래 계속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들이 나타나는 것은 실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두뇌의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신이 그의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을 초자연적으로 불러 낼 때 그들은 신의 사자, 즉 그의 천사라고 이름 붙여지는 것은 부당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흔히 있는 일로서 두뇌의 영상을 그들 없이도 실재하며 상상에는 의존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들로부터 좋고 나쁜 '여러 악마'라고 하는 그들의 견해를 모습으로 만들어 냈다. 그것들이 실재하는 것처럼 보였으므로 그들은 '실체'라고 불렀으며, 그들의 손으로 그것들을 느낄 수 없었으므로 그들은 '무형'이라고 불렀다.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 또한 똑같은 근거에 바탕을 두고 《구약 성경》 중에서는 그들을 거기에로 억지로 내밀어 낼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가졌었다(*'사두개' 인의 종파를 제외하고). 즉 (신이 때때로 그 자신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상상 속에 생겨나게 하는 것을 좋아하여 따라서 그의 '여러 천사'라고 불렀다)* 그것들의 나타남은 상상에 의존하는 일 없이 신의 영구적인 피조물인 여러 실체라는 견해이다. 그것들 중에서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서는 좋다고 생각한 것을, 그들은 '신의 여러 천사'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자신들을 해친다고 생각한 것을 그들은 '나쁜 여러 천사' 혹은 '나쁜 영'들이라고 불렀다. 후자는 피톤(Python)의 영 및 미치광이들, 정신 이상자들, 간질병자들의 여러 영들과 같은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러한 병들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악령(惡靈)이 붙은'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천사에 대하여 말해진 여러 곳을 우리가 고찰한다면, 그 대개의 경우 그곳은 '천사'라는 말로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어느 초자연적인 일을 해내는 데 있어 신의 나타남을 보이기 위하여 *(초자연적으로)* 상상 속에 불러일으켜진 어떤 영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따라서 그 밖의 그들의 성질이 나타나 있지 않는 곳에서는 마찬가지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즉 우리는 〈창세기〉 16장에서, 똑같은 나타남이 '천사'라고 불릴 뿐 아니라 '신'이라고 불리는 것을 읽을 수 있다. 거기서는 주의 '천사'라고 불리는 것*(7절)*이 10절에 있어서 하갈에게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고 말한다. 그것은 즉 신의 인격으로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나타남은 또 모양을 지닌 상상물이 아니라 목소리였다. 그것으로서 명백한 것은, 거기서 뜻하는 '천사'는, 하갈에게 하늘에서의 목소리를 초자연적으로 알게 한 신 자신에 다름없다는 것, 혹은 차라리 신의 거기에 있어서의 특별한 나타남을 증거로 내세우는 초자연적인 목소리에 다름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롯에게 나타나서 *(〈창세기〉 19장 12절에서)* '그 사람들'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여러 천사', 그리고, 그들이 두 사람이었는데도 롯은 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22] 그들에게 말하는 그 '여러 천사', 그리고 신으로서의 그 한 사람이, *(왜냐하면 말은,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였기 때문에)* 왜 앞에 천사가 상상된 목소리라고 이해된 것과 같이 상상 속에서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해될 수 없단 말인가. 천사가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늘에서부터 이삭을 죽이려는 손을 멈추도록 소리쳤을 때[23] 거기에는 나타나지 않고 목소리만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는 신의 사자, 즉 천사라고 불리는 것이 완전히 적절했었던 것이며, 왜냐하면 그것은 신의 의지를 초자연적으로 널리 밝히는 것이었으며, 무엇인가 영속적(永續的)인 유령을 생각하는 수고스러움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야곱이 하늘의 사다리 위에서 본 천사들[24]은 그의 잠 속에서 오는 환영이었다. 따라서 공상이

22 〈창세기〉 19장 18절.
23 〈창세기〉 22장 11절.
24 〈창세기〉 28장 12절.

며 꿈에 지나지 않지만, 그래도 초자연적이고 신의 특별한 나타남의 징조이기 때문에, 그런 나타남이 천사라고 불려지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야곱이 다음과 같이 말한 경우도 똑같이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25] 즉, '꿈에 하느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이라고 하는 경우이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대하여 그의 잠 속에서 이루어진 나타남은, 모든 사람이 꿈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그러한 꿈이 자연적이거나 초자연적인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야곱이 천사라고 부르는 것은 신 자신이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천사가 '나는 벧엘의 하나님이라'[26]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홍해를 향해 이스라엘 군대의 앞을 인도하고 나서 그의 뒤로 간 천사도 주 자신이다.[27] 그리고 그는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은)* 불기둥의 모양으로 나타났었으나 그래도 이 기둥은 모두 나타남이었으며, 천사는 군대의 안내에 대하여 모세에게 약속한 것이었다.[28] 왜냐하면 그 구름기둥은 내려 와서 회막의 제전(祭殿)의 입구 쪽에 서서 모세와 말했다고 전해지기 때문이다.

거기에서 당신들은 천사들에게 돌리고 있는 운동과 말이 구름에 돌려져 있는 것을 본다. 왜냐하면 그 구름은 신이 나타나는 표지로서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며,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대단히 아름다운 사람 또는 어린이의 모습을 가졌다고 하는 경우에 못지않게, 혹은 일반 민중에 대한 거짓된 지도를 위한 통상적으로 그려져 있는 것처럼 날개를 가진 것에 못지않게 천사였었기 때문이다. 즉, 그것들을 천사가 될 수 있게 한 것은 모습이 아니라, 그것들의 쓰임새였던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의 쓰임새는 초자연적인 작용에 있어서, 신의 나타남을 나타내는 것이며, 예를 들면 모세가 신에 대하여 더불어 회막에 가는 것*(황금의 송아지를 만들기 전까지는 언제나 그가 그랬듯이)*을 바랐을 때, 신은 '내가 가리라' 또는 '나는 나의 대신

25 〈창세기〉 31장 11절.
26 〈창세기〉 31장 13절.
27 〈출애굽기〉 14장 19절.
28 〈출애굽기〉 33장 9절.

에 천사를 보내리라'라고 대답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 그것이다. 즉 '나의 나타남이 너와 함께 가리라.'[29]

천사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는《구약 성경》의 모든 부분을 말한다는 것은, 너무 길어질 것이다. 따라서 말하자면 그것들을 모두 한꺼번에 이해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원문(原文)은 잉글랜드 교회가 정전(正典)으로 여기고 있는《구약 성경》중에는 없다. 그 원문이란 거기에서 우리들이 양(量)을 가지지 않고 또한 분할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는 영속적인 그 무엇이 있다든가 창조되었다든가 결론지을 수 있는 원문이다. 분할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일부분씩 고찰할 수 없는 것으로서 어느 부분이 어느 장소이고, 다음 부분이 그것에 이어지는 다음의 곳이라고 하듯이 고찰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요컨대 *(물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이며, 즉 어딘가에 있다고 하는)* 유형적(有形的)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어느 부분에서도 양식(良識)은 천사를 사자(使者)로 하는 해석을 지지할 것이다. 세례자 요한이 천사라고 불리며, 그리스도가 신약의 천사라고 불리는 것처럼이며, 그리고 *(같은 비유에 따라서)* 비둘기[30] 및 불과 같은 혀[31]가 신의 특별한 나타남의 표지였기 때문에 역시 천사라고 불린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다니엘〉에 있어서 천사의 두 가지 이름, '가브리엘'과 '미가엘'을 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원문 자체가 확실한 것은 '미가엘'에 의해서 천사로서가 아니라 군주로서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다는 것[32]이며, 그리고 '가브리엘'은 *(다른 신성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의 수면 중에 이루어진 비슷한 나타남과 같이)* 초자연적인 환상에 지나지 않다고 하는 것이므로 그 환상 때문에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그의 꿈속에서 두 사람의 성자가 말을 주고받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다른 쪽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한 것처럼 느꼈었던 것이다.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33]

29 〈출애굽기〉 33장 14절.
30 〈마태복음〉 3장 16절.
31 〈사도행전〉 2장 3절.
32 〈다니엘〉 12장 1절.
33 〈다니엘〉 8장 16절

즉 신은, 그의 하늘 위의 심부름꾼들을 이름으로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이름은 죽어갈 사람들의 짧은 기억에만 쓸모가 있는 것이다. 《신약 성경》에서도 천사들이 *(신이 사절로서 그의 말의 대행자로 삼은 사람들에게 대하여 보내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영구적이며 더욱 무형적인 사물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곳은 아무 곳도 없다. 그들이 영구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세주 자신의 말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이며 거기서 그는 마지막의 날에 간사하고 악독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34] 그 부분은 명백히, 나쁜 천사들의 영구성을 지지하는 것*(우리가 악마와 그의 천사들이란 이름으로, 여러 교회의 적들과 그들의 대행자들이 이해되리라고 생각지도 않는 한)*으로서 명백하지만,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그것은 그들의 비물질성과 일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영겁(永劫)의 불은 모든 무형의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 여러 실체에게 있어서는 처벌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천사들은 거기에서 무형이라는 것이 증명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성 바울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35]라고 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또 즉,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지라'[36]고 하는 것이 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37] 하는 것은, 천사의 본성의 영원함을 증명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물질성까지도 확실히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38]라고 했는데, 그러나 부활에 있어서 사람들은 영원한 것이며 무형적이지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천사들도 또한 그런 것이다.

34 〈마태복음〉 25장 41절.
35 〈고린도전서〉 6장 3절.
36 〈베드로후서〉 2장 4절.
37 〈유다서〉 1장 6절.
38 〈마태복음〉 22장 30절.

그와 같은 결론을 꺼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또 다른 데도 있을 것이다. '실체' 및 '무형적'이라는 이들의 말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형적'이란 희박한 물체라고 풀이되는 것이 아니라 '비물체(非物體)'로 풀이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말들은 모순을 지니는 것이며, 그 때문에 천사 혹은 영*(그 뜻으로서의)*이 무형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천사도 영도 전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거의 같아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 있어서의 천사라고 하는 말의 뜻과 자연의 평소의 방법에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꿈 및 환영의 성질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는 다음의 견해대로 기울어지게 된다. 즉 여러 천사는 신의 특별하고 보통이 아닌 작용에 의해서 생겨나게 된 환상(幻想)에 의한 초자연적인 나타남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신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나타남과 여러 계율을 인류에게, 주로서 그 자신의 백성에게 알리는 것이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많은 곳과 우리의 구세주 스스로가 한 말 그리고 개악(改惡)할 의심이 없는 《성경》의 원문에 있어서, 나의 희미한 이성에게, 실체적이며 영구적인 천사들도 또한 존재한다고 하는 승인과 신념을 강요했다. 그렇지만 그들은 어느 곳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즉 (간접적으로라도)*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을 무형의 것으로서 지니든 없다는 것이든 《성경》에 의해서 명백히 밝힐 수는 없는 것이다.

영감(靈感)이란 무엇인가 '영'이라는 말의 뜻에 영감이라는 말의 뜻이 매여 있다. 그것은 먼저 정당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서, 그 경우에는 사람이 주머니를 그의 입김으로 채우는 것처럼 하여, 사람이 속에 어떤 희미한 공기 또는 바람을 불어넣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 만약 여러 영이 유형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환영을 불어넣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불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환영은 무엇인가가 아니라, 있는 듯이 보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말은 《성경》 속에서는 비유적으로만 사용되어 있다. 예를 들면, '신이 사람 속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었다'[39]고 할 경우 신이 그의 속에 생명적 운동을 준 것을 뜻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즉 우리는 신이 처음

39 〈창세기〉 2장 7절.

으로 살아 있는 숨결을 만들고, 그리하여 아담이 만들어진 뒤에 그것을 아담 속에 불어넣었다고 하는 것은 그 숨결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었다고 하는 것[40]에만, 즉 사람을 산 피조물이 되게 한 것에만 그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41]라고 말하고 있고, 거기서는《구약 성경》에 대하여 말하고 있을 경우, 그것은 다음 것을 나타내는 알기 쉬운 비유이다. 즉 신이 그것들의 저작자의 영 또는 마음을 사람들이 올바른 생활의 길을 걸을 때에 가르치고, 꾸짖고, 고치고, 이끄는 데에 보탬이 되는 것을 쓰도록 느끼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 베드로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42]라고 하는 경우 성령에 의해서 뜻하는 것은, 꿈 또는 초자연적 환영 속에서의 신의 목소리이고, 그것은 '영감'이 아니며, 또한 우리의 구세주가 그의 제자들에게 숨결을 불어넣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했을 때 그 숨결은 영이었던 것은 아니며, 그가 그들에게 준 영적인 은총의 표지였던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 자신에 대해서, 그는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하더라도 그래도 그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신의 실체의 '불어넣음'으로써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혹은 연구 및 부지런함에 의해서 획득된 그의 증여물의 축적(蓄積)이라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생명과 말과 또는 그 밖의 비슷한 것의 고결함이라는 자질*(증여물)* 등이 그런 것이다. 즉 그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들은 신의 증여물이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하여 신이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43]라고 하는 경우, 우리는 그것을 본래의 뜻으로 그의 영이 물처럼 흘러나가고 또는 흘러들어오는 것같이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신이 그들에게 예언적인 꿈과 환영을 줄 것을 약속한 것처

40 〈사도행전〉 17장 25절.
41 〈디모데후서〉 3장 16절.
42 〈베드로후서〉 1장 21절.
43 〈요엘〉 2장 28절.

럼 이해해야 되는 것이다. 즉 신의 은총에 대해서 말할 때에, '부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잘못 쓰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의 은총은, 여러 능력이고 여기 또는 거기에 운반되는 물체는 아니며, 통(桶) 속에서나 마찬가지로 사람들 속에 부어지는 물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하여 영감을 본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든가 착한 영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예언을 시킨다든가 악한 영이 정신착란, 미치광이, 간질병이 된 사람들 속에 들어갔다든가 하는 것은 그 말을 《성경》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영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여러 원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신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다음 것과 마찬가지이다. 즉 거기서는, 성령강림제(聖靈降臨祭)의 날에 사도들이 모여 있던 집을 가득히 채운다고 말하고 있는 바람[44]은, 성령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대한 신의 특별한 활동의 외적(外的)인 표지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그 활동은 그들의 사도로서의 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하다고 그가 생각한 내면적인 은총과 신성한 덕성(德性)을 그들 속에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다.

제35장 《성경》에 있어서의 신의 왕국, 신성한 신에 바쳐진, 및 성례(聖禮)의 뜻에 대하여

신의 왕국은, 성직자들에 의해서 비유적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성경》에 의해서 정당하게 이해되고 있다 '신의 왕국'은 성직자들의 저작 속에서, 특히 신앙에 대한 설교나 논설에 있어서 극히 평범하게 이 세상 다음의 최고의 천국에서의 영원한 더없는 행복이라고 이해되고 그것을 그들은 영광의 왕국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때로는 성화(聖化, 지복(至福)의 보증)라고 이해되어 그것을 그들은 은총의 왕국이라고 이름 짓는다. 그러나 신이 어떠한 신민들의 위에 그들 자신의 동의에 의해서 획득한 신의 왕정, 즉 주권에 관한 것이라고는 결코 이해하지 않는 것이며, 그것이 왕국의 정당한 뜻인 것이다.

44 〈사도행전〉 2장 2절.

그것과 반대로 나는 신의 왕국이, 《성경》의 대부분의 곳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특정한 방식에 따르는 투표에 의하여 세워진 왕국이라고 이름 짓는 것이 정당한 것을 뜻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거기에 있어서 그들은 신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의 소유를 약속한 것에 바탕을 두고 그들이 신과 맺은 신약에 따라 신을 그들의 왕으로서 택했던 것이다. 그리고 비유적으로 뜻을 지니게 되는 것은 드문 경우이며, 그런 경우에는 그것은 죄에 대한 지배로서 이해된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있어서만 그러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지배는 각 신민이 신의 왕국에 있어서 더구나 주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 없이 가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창조의 바로 그때부터 신은 모든 사람을 그의 힘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통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특정'의 신민을 가졌던 것이며, 그는 그들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듯 목소리로써 명령했다. 그러한 방식으로 그는 아담을 통치하고 좋고 나쁜 것을 식별하게 한 나무를 피하도록 한 계율을 그에게 주었다. 거기서 그가 계율에 복종하지 않고 그것을 맛보았으며 자신이 신으로서 떠맡고 좋고 나쁜 것을 그의 창조자의 계율에서가 아니라, 그 자신의 감각에 의해서 판단했을 때 그에게 내려진 벌은, 신이 처음 그를 창조한 영원한 생명이란 상태를 빼앗는 것이었다. 그리고 뒤에 신은 그의 자손을 그들의 악덕에 대하여 8인을 제외한 모든 것을 일반적인 홍수로써 벌했다. 그리고 이 8인 가운데 '신의 왕국'이 있었던 것이다.

신의 왕국의 시초 이후에 신은 아브라함에 말하고, 그와 더불어 다음의 말로 신약을 맺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45] 그리고 이 신약의 기념 및 표지로서 그는 '할례(割禮)라는 성례(聖禮)'[46]를 정한다. 이것이야말로, '오래된 신약', 즉 '구약'이라고 불리는 것이며, 신이 아브라함과의 사이에 맺은 계약을 내용으로 한다. 그것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그 자신

45 〈창세기〉 17장 7~8절.
46 〈창세기〉 17장 11절.

과 그의 자손을 특정의 방식으로 신의 실정법에 신종(臣從)하도록 의무 지우는 것이니, 왜냐하면 도덕법에 대해서는, 그는 그보다 먼저, 충성의 서약에 의한 것과 같이 의무 지워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왕의 명칭은 아직 신에 대하여 주어지지 않았고 '왕국'의 명칭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 대해서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러한 일들은 마찬가지로서 즉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신의 특정적인 주권의 약속에 의한 설립인 것이다. 그것은 같은 선약이 모세에 의하여 시나이 산에서 갱신됨에 있어서 명백하게 유대 사람에 대한 특정의 '신의 왕국'이라고 불리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하여 *(모세에 대해서가 아니라)* 성 바울은 그는 '성실한 자의 아버지'[47]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신에 대해서 충성하고 당시는 할례에 의해서, 뒤에는 세례(洗禮)에 의한 새로운 신약에 있어서 신에 대하여 서약된 그들의 충성을 짓밟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다.

신의 왕국이란, 올바르게는 특정의 백성에 대한 약속에 의한 신의 정치적 주권(政治的主權)이라는 것 이 신약은 시나이 산의 기슭에서 모세에 의하여 갱신되고 거기서 주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백성에게 말하라고 명령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48] '특정의 백성'에 대하여 라틴 말로 번역된 《성경》(불가타(Vulgata) 성경)은 '모든 국민 중에서의 *(신의)* 금(金, peculium de cunctis populis)으로 되어 있고, 제임스 왕 치세의 처음에 이룩된 영어 번역은 '나에게 있어서 모든 국민보다 나은 특정의 보배', 제네바 판 프랑스 번역은, '모든 국민 중에서도 가장 귀중한 보석'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가장 진실한 번역은 맨 처음의 것이므로 그것은 성 바울 자신에 의해서 확인[49]되어 있기 때문이며, 거기서 그는 그곳을 은연 중 귀띔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들의 축복된 구세주는, '우리들을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

47 〈로마서〉 4장 11절.
48 〈출애굽기〉 19장 5절.
49 〈디도서〉 2장 14절.

는 친 백성*(즉 보통이 아닌)*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은 그리스 말로는 '페리우시오스(περίουσιος)'이며 그것은 보통, '헤피우시오스(ἐπιουσιος)'에 마주 있게 된다. 그리고 이 말은 '통상의', '일상의' 혹은 *(주기도문에 있어서와 같이)* '나날이 쓰이는'이라는 것을 뜻하는 데 대해 다른 쪽 말로는 '나머지'의 '저축된' 및 '특수한 방식으로 즐겨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그것을 라틴 사람들은 '재보(財寶, peculium)'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부분이 이런 뜻을 가지는 것은, 곧 그것에 잇달아서 신이 그것에 대하여 준 바 있는 까닭에 의해서 확인된다. 그 속에서 그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라고 덧붙여져 있으며 그것은 '세계의 모든 국민이 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 것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여서가 아니라 '특별한 방식으로서'인 것이다. 즉, 그들은 모두 나의 힘을 이유로 하여 나의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너희들의 동의나 신약에 의하여 나의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국민에 대하는 그의 평소의 권리에 더 하나 보탬인 것이다.

그러한 것은 같은 본문 속에서, 또다시 명백한 말로서 확인되어 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틴 말 번역은 그것을 '제사왕국(祭司王國, regnum sacerdotale)'이라고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하여 '왕과 같은 제사(祭司, regale sacerdotium)', 즉 '왕인 제사 신분(祭司身分, a regal priesthood)'이라고 하는, 그 대목[50]의 번역이 일치한다. 제도 그 자체도 또한 제사장(祭司長)을 빼놓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지성(至聖)'의 곳에는 들어가서 안 되는 것이었으며, 다시 말하면 제사장을 제외한 어떤 사람도 신의 의지를 신 자신에 대하여 직접 찾아서는 안 되었던 것이다. 앞에서 말한 영어 번역은, 제네바의 그것〔《제네바 성경》〕에 따라서 제사들의 왕국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제사장에서 다른 제사장의 계승을 의미하든가 혹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성 베드로와도, 제사장 신분의 행사와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사장만을 제외하고 그 밖에는 신의 의지에 대하여 백성에게 알리는 사람은 결코 없었으며, 또 제사의 어떤

50 〈베드로전서〉 2장 9절.

집회에도 '지성의 장소'에 들어가는 것을 결코 허락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신성한 국민'이라고 불리는 이름이 같은 것을 확인한다. 왜냐하면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권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특별한 권리에 의해서 신의 것이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모든 땅은 *(그 본문(本文)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신의 것이나 모든 땅이 신성한 것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아니며, 유대인의 국민이 그랬던 것처럼 그에게의 특별한 봉사를 위해서 분리되는 것만이 그러한 것이다. 따라서 이 한곳에 의해서 '신의 왕국'이 본디 다음과 같은 코먼웰스를 뜻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명백한 것이며, 그 코먼웰스라는 것은 그들의 정치적 통치를 위해서, 또한 그들의 왕인 신에 대한 그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정의에 대하여 서로가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행동, 평화와 전쟁에 있어서 쌍방이 다른 여러 국민에 대한 행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그것에 신종해야 할 사람들의 동의에 의하여)* 설립된 코먼웰스이다. 본래 그것은 신이 왕이었고, 제사장이*(모세가 죽은 뒤에)* 그의 유일한 부왕, 혹은 대리인이 되어야 할 왕국인 것이었다.

그러나 같은 것을 명료하게 증명하는 곳은, 다른 데에도 많이 있을 것이다. 첫째의 것으로서,[51]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의 아들의 부패를 탄식하여)* 왕을 필요로 했을 때, 사무엘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고 주에게 기도했다. 그리고 주는 대답하여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것에서 그때 신 자신이 그들의 왕이었다는 것, 그리고 사무엘은 백성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신이 그때 그때마다 그에게 지시한 것을 그들에게 전달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하다.

다시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52]라고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는 경우에, 신이 그들의 국왕이었

51 〈사무엘상〉 8장 7절.

52 〈사무엘상〉 12장 12절.

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코먼웰스라는 정치 국가를 통치하였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을 거부해 버린 뒤에, 예언자들은 그의 복위(復位)를 예언했다. 예를 들면 '그때에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53] 여기서 그는 분명하게 시온 및 예루살렘에 있어서의, 즉 땅 위에 있어서의 그의 통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다시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治理)하리라.'[54] 이 시온 산은 대지 위의 예루살렘에 있다. 또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 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단정코 다스릴지라.'[55] 그리고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맬 것이다.'[56] 즉 나는 너희들을 통치할 것이며, 너희들이 모세에 의해서 나와 맺고, 사무엘의 시대에 있어서의 너희들의 나에 대한 반역과, 또한 너희들이 다른 왕을 선택한 것으로서 깨뜨린 신약을 너희들에게도 지키게 할 것이다.

그리고《신약 성경》에서는 천사 가브리엘이 우리의 구세주에 대해서 말한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57] 이것 또한 땅 위의 왕국인 것이며, 그것에 대해서의 청구권을 위해 그는 카이사르의 적으로서 죽음을 당한 것이다. 그의 십자가에 쓰인 이름은 유대 사람의 왕인 나사렛의 예수였다. 그는 조롱 속에서 가시 면류관이 씌워졌다. 그리고 그의 일을 선포한 것에 대하여, 사도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58] 따라서 신의 왕국은 현실적인 왕국이지 비유적인 왕국은 아니다. 그리고《구약 성

53 〈이사야〉 24장 23절.
54 〈미가〉 4장 7절.
55 〈에스겔〉 20장 33절.
56 〈에스겔〉 20장 37절.
57 〈누가복음〉 1장 32~33절.
58 〈사도행전〉 17장 7절.

경》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있어서도 그렇게 이해되고 있다. '우리가 이 왕국, 이 권력과 영광은 당신의 것으로서 있다'[59]라고 할 때, 그것은 신의 힘의 권리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약의 힘에 의한 신의 왕국에 대해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왜냐하면 앞의 경우와 같은 왕국은 신은 언제나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당신의 왕국이 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의 반란에 의해서 사울을 선택한 것으로써 중단되어 있던, 저 신의 왕국의 그리스도에 의한 부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면 공연한 짓이었을 것이다. 혹은 또, '하늘의 왕국이 가까워졌다'고 하든가, '당신의 왕국이 가까웠다'고 기도 드린다든지 하는 것은, 만약 그것이 아직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면 정당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이 해석을 확인하는 부분은 다른 데에도 대단히 많을 것이나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그리스도 교도인 왕들에게 교회 통치에 대한 그의 권리를 알기 위한 너무나 많은 빛을 준다는 것을 빼놓고, 그 이상으로 커다란 조심이 그것에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상하다고 해야 할 정도이다. 이것을 그들은 알아차리고 '제사적 왕국(祭司的王國)' 대신 '제사들의 왕국'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왕인 제사 신분(祭司身分)'을 *(성 베드로의 경우와 같이)* '왕들의 제사 신분'이라고 번역해도 좋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특정의 백성에 대하여 '귀중한 보석'이라든가, '재보(財寶)'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어느 장군의 특별한 연대(聯隊) 또는 중대(中隊)를 그 장군의 귀중한 보석, 혹은 그의 재보로서 불러도 좋았던 것이다.

요컨대 신의 왕국은 정치적 왕국(政治的王國)이었으며, 그것은 처음에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속으로 가져오고, 뒤에 잠시 동안 제사장이 '지성의 장소(Sanctum Sanctorum)'의 '회막〔케루빔, Cherubim〕' 앞에서 그들에게 전달해야 했던 여러 법에 대한 그들의 의무에 있었다. 그리고 그 왕국은 사울을 선택함으로써 인연을 끊어 버렸으므로, 예언자들은 그것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흥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우리의 주기도문에 있어서, '나라에 임하옵시며'라고 할 때 우리는 매일 그것의 부흥을 비는 것이며 우리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59 〈마태복음〉 6장 13절.

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덧붙일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권리를 승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의 선포가 사도들의 설교였으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복음의 교사들에 의하여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 복음을 받드는 것*(다시 말하면 신의 통치에 대해서 복종을 약속하는 것)*은, '은총의 왕국'에 있는 것이며,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위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재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는 '영광의 왕국'이라고 불리는 그 자신의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서 올 적에, 그 이후는 신의 신민*(즉 아들)*이 되는 힘을, 신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은총에 의해서' *(무상으로)* 주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신의 왕국*(영광에 충만해 있는 것, 그 왕좌가 경탄할 만큼 높은 것으로 하여, 하늘의 왕국이라고도 불린다)*의 신의 규범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그의 대리인들 혹은 대행자(목자)들에 의해서, 신이 지상에 실시한 왕국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신이 누구에 의해서 우리에게 말하느냐에 대하여, 저토록 많은 논쟁과 전쟁은 없었을 것이며, 많은 제사가 영적인 사법권에 대해서 고민할 것도, 어떠한 왕이 그것을 그들에 대하여 거부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신성한 것이란 무엇인가 '신의 왕국'에 대해서 글자 그대로의 해석에서, 또 신성한(Holy)이라는 말의 참다운 해석도 나온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이 그들의 왕국에서 '공공' 혹은 왕들을 부르는 데 사용하는 말로서 신의 왕국에 있어서 대응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나라의 왕도 '공공'의 인격, 즉 그 자신의 모든 신민의 대표자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인 신은 이스라엘의 '신성한 것'이었다. 한 사람의 지상의 주권자에 신하로서 따르는 국민은, 그 주권자 즉 공공의 인격의 국민이다. 따라서 신의 국민이었던 유대 사람들은, '신성한 국민'이라고 불려졌다.[60] 왜냐하면 '신성한'이라고 할 때, 항상 신 자신 혹은 소유권에 있어서 신에 속하는 것이 이해되는 것으로서, 그것은 공공이라고 할 때, 항상 코먼웰스 자신의 인격을 뜻하는 것이거나 혹은 어떤 사적 인격(私的人格)도 그것에 대한 어떠한 소유권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코먼웰스의 것인 어떠한 것을 뜻하는가의 어느 쪽인가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60 〈출애굽기〉 19장 6절.

따라서 안식일*(신의 날)*은 '신성한 날'이며, 신전(神殿)*(신의 집)*은 '신성한 집'이며, 살아 있는 제물 10분의 1의 세(稅), 공물(貢物)은 '신성한 의무'들이며 그리스도의 부하인 제사들, 예언자들, 기름이 묻은 왕들*(신의 대행자)*은 '신성한 사람들'이며, 하늘 위의 대행자들인 영들*(신의 사자들)*은 '신성한 천사들'이며, 그 밖의 것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신성한'이라는 말이 정당하게 풀이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동의에 의해서 획득된 소유권에 대한 그 무엇을 역시 뜻하고 있다. '당신의 이름은 성화된 것일지어다'라고 할 때, 우리는 다만 신에 대해서 '그 이외의 신들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첫째의 계율을 지킴에 대하여 은총을 구하고 있을 따름인 것이다. 인류는 신이 소유하는 국민이다. 그러나 유대인들만이 '신성한 국민'이었다. 그것에는 그들이 신약에 의해서 그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 이외의 까닭이 있겠는가.

그리고 '세속의(profane)'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보통의(common)'와 같은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그것들의 반대는 '신성한(holy)' 및 '고유한(proper)'이며 신의 왕국에 있어서도 또한 같은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형용적(形容的)으로는 이 세상의 의도를 모두 포기해 버리고, 신에 대하여 완전히 몸을 바치고, 주어 버린 것과 같은 신앙심 두터운 생활을 이끈 사람들도 '신성한'이라고 불려진다. 본래의 뜻에서는 신이 그 자신의 사용을 위해서 혼자 갖거나 혹은 떼어 갔거나 함으로써 '신성한' 것으로 한 것을 제4계명에 있어서의 제7의 날과 같이 신에 의해서 '성화되어 있다(sanctified)'고 한다. 또 《신약 성경》에 있어서 뽑힌 사람이 신앙심 깊은 영을 받았을 경우 '성화(聖化)되었다'고 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신에게 바쳐졌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들의 헌납에 의해서 '신성한(sacred)' 것이 되어, 신의 공공의 예배에만 사용하도록 신에게 주어지는 것은 신에게 '바쳐진(consecrated)' 것이라고도 불리며, 신에게 바쳐진 물건이라고 말한다. 신전 및 그 밖의 공공의 기도의 집, 그 기구, 제사, 대행자, 살아 있는 제물, 공물(貢物), 성례(聖禮)의 외면적인 것들과 같은 것이다.

신성함의 정도 '신성한 것'에 대해서는 정도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신에 대한 봉

사를 위해서 분리된 사물들 중에, 어떤 것은 더욱 가깝게 더욱 특별한 봉사를 위해서 다시 분리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국민은 신에 대하여 신성한 백성이었지만, 더구나 레위의 종족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신성한 종족이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들은 더 한층 신성한 것이었으며, 제사들 중에서 제사장은 더욱더 신성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유대의 땅은 신성한 땅이었으나 신이 그 속에서 예배를 하는 성도는 다시 더 신성한 것이었다. 또다시 신전은 그 도시보다도 신성하며 지성의 장소는 그 신전의 나머지 부분보다도 신성하였다.

성례(聖禮) 성례라는 것은, 어떤 볼 수 있는 것을 평소의 사용에서 분리시키는 것이며, 그것은 신에의 봉사를 위해서 신에게 바쳐진 것으로 하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들이 신의 왕국으로 그의 특정의 백성의 수(數)에 넣어서 받아들인다는 표지를 위해서, 혹은 같은 것의 기념을 위해서 이루어진다. 《구약 성경》에 있어서는 수용의 표지는 할례였으며, 《신약 성경》에 있어서는 세례인 것이다. 그 기념물은 《구약 성경》에 있어서는 *(일정한 시기가 지나서, 즉 주년제(周年祭)에)* '유월제에 어린 양 고기를 먹는 것'[61]이며, 그것으로서 그들은 자신들이 이집트에 있어서의 구속에서 구출된다는 밤을, 마음에 새겼던 것이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있어서는 '주의 만찬'을 축복하는 것이며, 그것으로서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의 우리의 축복된 구세주의 죽음에 의하여 죄의 구속에서 우리가 구출된 것을 마음에 새기게 된다. '수용(受容)'의 성례는 한 번만 사용해야 할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수용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들의 구출에 대해서, 자신들의 충성에 대해서 때때로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으므로, '기념'의 성례는 반드시 되풀이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것들이 주요한 성례이며, 말하자면 우리의 충성에 대하여 행하는 엄숙한 맹서인 것이다. 신성한 것이 되게 하는 것으로서 성례라고 불러도 좋으리라는 것은, 그 말이 신의 봉사를 위해서 신성한 것이 되게 하는 것을 뜻하는 것만이라면 다른 데에도 또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신에의 충성을 맹

61 〈출애굽기〉 12장 3~11절

세 혹은 약속을 뜻하는 것으로서는, 《구약 성경》에 있어서의 '할례'와 '유월절의 양 고기를 먹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며, 《신약 성경》에 있어서는 '세례'와 '주의 만찬'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제36장 신의 말에 대하여 그리고 예언자들에 대하여

말이란 무엇인가 '신의 말' 혹은 '사람의 말'에 대하여 논할 때, 그것은 문법학자들이 명사(名詞)라든가 동사(動詞)라든가 하고 부르듯이 이야기의 일부분, 즉 그것을 뜻이 있는 것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여러 말들과의 조립을 가지지 않는 어떠한 단순한 소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것은 완전한 이야기 혹은 설화인 것이며, 이야기하는 쪽은 그것으로서 '긍정하고 부정하고 명령하고, 약속하고, 협박하고, 희망하고 혹은 질문하는' 것이다. 그러한 뜻에서 그것은 하나의 말을 나타내는 낱말(Vocabulum)이 아니고, Sermo(*그리스어로는 로고스(λόγος)*), 즉 어떤 '이야기', '설화', 혹은 '말씀하는 것'이다.

신에 의해서 말씀해진 말과 신에 대한 말은 모두가 《성경》 속에서는 신의 말씀으로 불린다 더욱이 만약 우리들이 '신'의 또는 '사람'의 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때때로 이야기하는 쪽의 말로서*(신이 말씀해 버린 말이든가, 혹은 사람이 말해 버린 말처럼)* 이해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성 마태복음'이라고 할 때, 우리는 성 마태를 그것의 필자라고 이해하는 것이다. 또 그것은 때때로 주제에 관한 것으로도 이해된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신약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또는 유대 왕들의 시대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읽을 때, 그 시대에 이루어진 여러 행위가 그러한 말의 주제였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유대어〔히브리어〕식의 말투를 많이 지니고 있는 그리스 말에서는 신의 말씀은 때로는 신에 의해서 말씀된 말이 아니라 신 및 그의 통치에 관한 말, 바꾸어 말하면 종교의 학설을 뜻한다. 즉 '신의 로고스'라는 것이 '신학(神學)'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할 정도이다. 그것은 다음의 여러 곳에서 밝혀지는 바와 같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신학'이라고

부르는 학설인 것이다.[62]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여기서 신의 말씀으로 불리는 것은, 그 앞에 있으므로 해서 명백히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 종교의 교의였었다. 그리고 사도들에 대하여, 천사가 사도들에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63]라고 말하는 경우 이 생명의 말로써 뜻하는 것은 복음의 교의이며, 그것은 그들이 제전의 뜰에서 행한 사실들에 의해서 명백한 그대로이며, 또 같은 장의 마지막 절에서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기름이 발려진 것)*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64]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대로이다. 그곳에서 명백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생명의 말씀'의 주제, 또는 *(완전히 같은 것이지만)* 우리의 구세주가 그들에게 제공한 이 '영원한 이 생명의 말씀'의 주제였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의 말씀은 그것이 그리스도 왕국에 대한 교의를 포함하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이라고 불리며,[65] 또 같은 말이 *(〈로마서〉 10장 8~9절에서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불린다. 그것은 즉, 거기에서 표현되어 있는 그대로 와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된 그리스도의 교의인 것이다. 그와 같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66]라는 것도 그러한 것으로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그 왕국에 대한 교의인 것이다. 더욱이 같은 말이 '흥왕하여 더하더라'[67]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복음의 교의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되지만, 신의 목소리, 곧 말씀에 대해서는 곤란하고 기묘한 것이다. 같은 뜻으로 '악마들의 교의'라는 것은 어떠한 악마의 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교도인들의 '귀신' 및 그들이 신들로서 숭배하는 유령들에 대한 교의인 것이다.[68]

62 〈사도행전〉 13장 46절.
63 〈사도행전〉 5장 20절.
64 〈사도행전〉 5장 42절.
65 〈사도행전〉 15장 7절.
66 〈마태복음〉 13장 19절.
67 〈사도행전〉 12장 24절.
68 〈디모데전서〉 4장 1절.

신의 말씀에 대해서의 이러한 두 가지의 뜻을 《성경》에서 풀이된 대로 고찰한다면, 뒤의 뜻에서*(거기에서 그것은, 그리스도 종교의 교의라고 풀이되어 있다)* 《성경》 전체가 신의 말씀이라는 것은 명백하지만, 앞의 뜻에서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면 십계명의 뒷부분에 '나는 여호와 너의 신' 등등이라는 말은 신이 모세에게 말한 것이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들을 하고 그리고 가셨다'는 서언(序言)은 그 신성한 역사를 쓴 말이라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신의 말씀은, 그가 말해 버린 것이라고 풀이되는 경우, 때로는 '엄밀하게' 또 때로는 '비유적'으로 이해된다.

신의 말씀은, 비유적으로는 먼저 신의 법규 및 권력에 관한 것으로 사용된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가 그의 예언자들에게 말씀해 버린 말로서이고, '비유적'으로 말하면 세계를 창조함에 있어서의 그의 지혜와 권력과 영원한 법규로서이며, 이런 뜻에서는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인간을 만들자' 등등의 여러 명령'[69]이 신의 말씀인 것이다.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70]라고 같은 뜻으로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71] 즉 그의 말의 힘으로서, 다시 말하면 그의 힘에 의해서 '유지하는' 그리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72]라든가, 그 밖의 많은 같은 뜻으로 많은 다른 곳에서 말하고 있다. 그와 꼭 같이 또한 라틴 사람들 사이에서는, 엄밀하게 말해져 이야기한 말을 나타내는 '숙명(宿命)'이라는 명사가 같은 뜻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둘째로, 그의 말의 효과에 있어서 둘째로, 그의 말의 효과로서 즉 그의 말로서 긍정(肯定)되고 명령받고, 협박받고 또는 약속받는 일 그 자체로서 요셉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감옥에 갇히었다'[73]라고 말해지고 있는 것과 같다. 그것은 곧

69 〈창세기〉 1장.
70 〈요한복음〉 1장 3절.
71 〈히브리서〉 1장 3절.
72 〈히브리서〉 11장 3절.
73 〈시편〉 105장 19절.

그가 바로의 관원장에게, 그대는 그대 스스로의 직무에 복귀하게 되리라고 예언한 그 일이 나타날 때까지에 관한 것이다.[74] 왜냐하면 거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한다'는 것은, 그 일 자체가 나타나게 되리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하여 또 엘리야는 신을 향하여,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즉 명령에 의해서 행했다고 말하는 대신에 '나는 이 모든 당신의 말씀을 행하는 것들'[75]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가 준다고 위협한 해악은 어디에 있는가'[76]라고 말하는 대신에 '어디에 주의 말씀이 있느냐'라고 밝히게 된다. 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77]라고 말하고 있어, '말'에 따라 이해되는 것은 신이 그의 백성에게 약속한 일들인 것이다. 그리고《신약 성경》에 있어서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78] 즉 내가 약속 혹은 예언한 것으로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또 이 뜻에 있어서 복음 전도자인 성 요한이, 더욱 나의 생각으로서는 성 요한만이 우리들의 구세주 자체를 육(肉)에 있는 것으로서의 '신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요한복음〉 1장 14절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부른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온다는 말, 즉 약속을 말한 것이다. '그는 처음에 신과 함께 있었다'[79]라고 하는 것은, 아들 신의 목적 속에 아들인 신을 이 세상에 보내어 영원한 생명의 길에 대하여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 아버지 신의 목적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까지 실시되지 않았고 실제로는 육화(肉化)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우리의 구세주는 거기에서 그가 약속한 때문이 아니라, 약속된 일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이 부분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를 신의 '말씀*(동사(動詞))*'이라고 부르는 것이 보통이지만 원문을 한층 더 애매하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그를 신의 명사로 이름 지었더라도 좋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명사에 의해서와 같이 동사에 의

74 〈창세기〉 40장 13절.
75 〈열왕기상〉 18장 36절.
76 〈예레미야〉 17장 15절.
77 〈에스겔〉 12장 28절.
78 〈마태복음〉 24장 35절.
79 〈요한복음〉 1장 2절.

해서도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은, 이야기의 일부분, 목소리, 음(音)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며, 그것은 긍정도, 부정도, 명령도, 약속도 하지 않으며, 유형적 혹은 정신적인 어떠한 실체도 아니다. 따라서 그것은 신이라고도 인간이라고도 말할 수 없으나 한편 우리의 구세주는 그 양자(兩者)인 것이다. 그리고 성 요한이 그의 복음 속에서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80]으로 불리고,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영원한 생명'[81]이라고 불린다. 따라서 그가 영원의 생명 즉, 스스로가 육(肉)이 됨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라고 불리는 경우 이외의 어떠한 뜻에서도 그는 말이라고는 부를 수 없다. 그와 같이 또한 사도는 피, 곧 신앙에 젖은 옷을 입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며 그의 이름은 '신의 말씀'이라고 한다.[82] 그것은 마치 그(그리스도)의 이름이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고 그(사도)가 말한 것처럼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태초부터의 신의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예언자들에 의해서 전해진 신의 말씀과 약속에 따라서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어느 말의 육화(肉化)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으며, 아들이신 신의 육화에 대한 것이 있을 뿐이며, 따라서 그의 육화가 그 약속의 실행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라고 불리는 것이다.[83] 그것은 성령이 '그 약속'이라고 불리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이다.[84]

셋째로, 이성(理性)과 공정(公正)의 말로서 이성과 공정에 일치하는 것과 같은 말은, 때로는 예언자에 의해서 말해지는 것도, 신성한 사람에게 의해서 말해지는 것도 아닌데도 그러한 말을 '신의 말씀'으로서 나타내고 있는 곳도 《성경》 속에는 몇 군데 있다. 즉, 이집트 왕 느고는 우상 숭배자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자(使者)에 의해서 선량한 왕 요시야에 대하여 갈그미스에 대한 자신의 행군에 방해하지 않도록 충고한 말은, 신의 입에서 나온 것으로 되어 있다. 더구나 그 말에 귀

80 〈요한1서〉 1장 1절.
81 〈요한1서〉 1장 2절.
82 〈요한계시록〉 19장 13절.
83 〈사도행전〉 1장 4절.
84 〈누가복음〉 24장 49절.

를 기울이지 않았던 요시야는 그 싸움에서 죽었다. 그것은 〈역대하〉 35장 21~23절에 쓰여 있는 그대로이다. 특히 같은 이야기가 〈에스드라 전서〉에서 이야기 했을 때에는, 이집트 왕이 아니고 예레미야가 이러한 말들을 신의 입으로 요시야에게 말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외전(外典)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던, 정전(正典)에 믿음(信)을 두어야 할 것이다.

거기서 '신의 말씀'은 그것이 《성경》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 새겨져야 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성 및 공정한 여러 지시로서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시편〉 37장 31절, 〈예레미야〉 31장 33절, 〈신명기〉 30장 11절, 14절 및 그 밖에 많은 동일한 부분이 그러한 것이다.

예언자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받아들이는 방법 예언자라고 하는 명칭은, 《성경》 속에서는 때로는 '대변자(prolocutor)', 즉 신으로부터 인간에게, 혹은 인간으로부터 신에게 말하는 사람을 나타내고 그리고 때로는 '예보자(豫報者)', 즉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하여 먼저 말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 때로는 착란(錯亂)한 사람들과 같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말하는 사람을 나타낸다. 그것이 가장 자주 사용되는 것은 신으로부터 백성들에게 대하여 말하는 뜻에서였다. 따라서 모세, 사무엘,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및 그 밖의 '예언자'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뜻에서 제사장은 '예언자'였다. 왜냐하면 그만이 '지성의 장소'에 신을 구하러 들어갔던 것이며, 신의 답을 백성에게 밝혀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가야바가, 백성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어도 좋다고 말했을 때, 성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느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85] 또 그리스도교의 집회에서 백성을 가르친 사람들[86]은, 예언한다고 말한다. 그와 같은 뜻에서 신은 모세를 향하여 아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85 〈요한복음〉 11장 51~52절.

86 〈고린도전서〉 14장 3절.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87] 여기서 대언자(spokesman)인 자가 예언자로서 해석되는 것으로서 즉 *(신은 말한다)*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라.'[88] 인간으로부터 신에게 말한다는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이 예언자로 불리는 것이며 거기서는 신이 꿈속에서 아비멜렉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89] 그것에 따라 또 다음의 것도 추측될 수 있다. 즉, 예언자라는 명칭이 그리스도교의 여러 교회 속에 있으므로 집회에 대신하여 공공의 기도를 말하는 소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부적당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같은 의미로서, 높은 곳*(즉 신의 언덕)*에서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과 함께 내려온 예언자들[90]과 그들 중의 사울[91]은 예언을 한다고 말하는 것으로서 이럴 때 그들은 그러한 방식으로 공공하게 신을 찬송한 것이다. 같은 뜻으로, 미리암[92]은 여자 예언자라고 불린다. 성 바울이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이라고 하는 경우[93]도 또한 그것은 그렇게 납득되어야 할 것이다. 곧, 그 부분에 있어서 예언이라는 것은, 찬미가와 성가로서 신을 찬송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여자들은 그런 일을 교회 내에서, 그들에게 있어서 집회를 향하여 말하는 것이 법에 합당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 의미에서, 이 교도의 시인(詩人)들이 그들의 신들을 찬송하는 찬가나 그 밖의 종류의 시를 지으면, 그들은 '와테스(vates)*(예언자들)*'라고 불리었으며, 그것은 이방인에 관한 여러 편(篇)에 걸쳐 있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충분히 잘 알려져 있는 대로이며, 성 바

87 〈출애굽기〉 4장 16절.
88 〈출애굽기〉 7장 1절.
89 〈창세기〉 20장 7절.
90 〈사무엘상〉 10장 5절.
91 〈사무엘상〉 10장 10절.
92 〈출애굽기〉 15장 20절.
93 〈고린도전서〉 11장 4~5절.

울이 그레데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의 예언자가 그들은 거짓말쟁이라고 말한 것을 진술하고 있는 것[94]으로서 명백한 그대로이다. 그렇지만 성 바울은 그들의 시인들을 예언자들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고 예언자라고 하는 말이 보통, 시에 있어서 신의 명예를 축복한 사람들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의 우발 사항(偶發事項)의 예보는 반드시 언제나 예언은 아니다 예언에 의해서, 미래에 우발 사항의 예보, 즉 미리 말하는 것을 뜻하는 경우 신의 대언자인 것이며 신이 미리 그들에게 이야기 해 놓은 일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미리 말한 사람들이 예언자인 것만은 아니며, 또한 친근한 영의 도움으로 혹은 과거의 사건들에 대한 미신적인 점(占)에 의해서 허위의 여러 원인에 바탕을 두어 앞으로 다가올 때에 있어서의 동일한 사건을 미리 앞질러 말한다고 하는 모든 사기사(詐欺師)도 역시 그러한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미 이 논구의 12장에서 명백히 말해 둔 것처럼)* 많은 종류가 있겠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에 알맞도록 억지로 맞추기만 한다면, 하나의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실패로 해서 다시금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예언을 한다는 명성을, 보통 종류의 사람들의, 의견 속에서 얻는 것이다. 예언은 기술이 아니며 *(그것을 예보하고 풀이하는 경우에는)*, 일상적인 직업도 아니고, 신으로부터 온 이상하고 일시적인 임무인 것이며, 더욱 때로는 선량한 사람의 것이지만 또 때로는 사악한 사람들의 것이기도 하다. 친근한 영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그것으로 사무엘의 환영을 불러 내고, 그리하여 사울에 대하여 그의 죽음을 미리 말했다고 하는 엔돌의 여인[95]은, 그렇다고 해서 여자 예언자였던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그러한 환영을 불러 낼 수 있는 어떠한 과학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며, 그것을 불러 내도록 신이 명령했다고도 생각할 수 없다. 그 여자는 다만 그 기만(欺瞞)으로 사울을 공포와 낙담에 빠뜨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리고 그 결과로서 그가 쓰러진 패전의 수단으로서 조종한 것이다. 또 일

94 〈디도서〉 1장 12절.
95 〈사무엘상〉 28장 6~8절.

관성이 없는 말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예언이라고 풀이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탁선된 예언자들은 어떤 영기(靈氣)에 의해서 즉 델포이에 있어서의 퓨티아의 탁선(託宣)의 동굴에서 오는 증기(蒸氣)에 의해서 취(醉)해 있었으며, 그때는 정말로 광기였고, 미치광이처럼 말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정리되지 않은 말들에서 모든 물체가 '제일물질(第一物質)'에서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어떠한 일에도 적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뜻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가능했었을 것이다. 《성경》 가운데에 그것이 그렇게 풀이되어 있는 것을 나는 다음의 말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 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서 야료*(예언)*하는 고로.'[96]

신이 예언자들에게 말한 방식 이렇게 하여 《성경》에서는 예언자라고 하는 말에 이렇게 많은 뜻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다음과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고 풀이되고 있는 경우가 보다 많다. 그것은 신이 직접 어떤 것을 말하는 사람이고 예언자는 그것을 신으로부터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혹은 백성에게 말하는 것이 된다. 그리하여 여기에 있어서 하나의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어떠한 형식으로 신은 그러한 예언자들에게 말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다. *(누군가가 말할지도 모른다)* 신이 인간과 같이 혀 또는 그 밖의 기관을 가졌다고 엄밀하게 말할 수 없다면 그가 목소리와 언어를 가진다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예언자 다윗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97] 그러나 이것은 *(통상적으로)* 신의 본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명예를 안겨 주고자 하는 우리들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한다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즉 '보는' 것, '듣는' 것은 명예의 여러 속성인 것이며, 신의 전능하신 권력을 *(우리의 능력이 마음에 그릴 수 있는 한의)* 명백히 나타내기 위해서 그에게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엄밀한 본래의 의미에서 납득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사람은 신이 인간의 모든 다른 부분을 만든 것이므로 신은 또

96 〈사무엘상〉 18장 10절.
97 〈시편〉 94장 9절.

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것과 꼭 같이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해도 좋았을 것이다. 그런 것들 중의 대부분은 그에게 돌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최대의 무례(無禮)일 만큼, 그것들은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신이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신이 자기의 의지를 그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방법*(그것이 무엇이든)*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것을 행하는 방법은 많이 있으나《성경》가운데서만 찾아야 할 것이다. 거기서는 신이 이러저러한 인물들에게 말했다든가 어떻게 해서 그러했는가라는 형식은 밝히지 않고 가끔 말하고 있으나 역시 많은 곳은 그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의 현존(現存)과 명령을 승인해야 하는 표적도 전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곳에서 그는 어떻게 하여 나머지의 많은 것에 관하여 말했던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구약 성경》의 통상적이 아닌 예언자들에 대해서 그는 꿈 또는 환상에 따라서 말했다

신이 어떠한 방식으로 아담과 이브와 카인에게, 그리고 노아에게 말했는가는 명시(明示)되어 있지 않으며, 아브라함에 대하여 그가 자기 나라를 나와서 가나안 땅의 세겜에 왔을 때까지, 어떻게 하여 그에게 말했는가도 그러했다. 그리고 그때 신이 그에게 '나타나서'라고 되어 있다.[98] 그러므로 신이 그에게 대하여 스스로의 현존을 밝히는 하나의 방법이 거기에 있는 것이며, 즉 현출(現出) 혹은 환영(幻影)에 의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다시, 주의 말씀이 환영 속에서 아브라함에 임했다.[99] 즉 말하자면 그에게 말하기 위해서 신의 사자(使者)로서 나타난 신의 현존한 표적으로서이다. 또 주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세 사람의 천사라는 현출에 의해서,[100] 그리고 아비멜렉에 대해서는 현몽으로서 나타났다.[101] 롯에 대하여는 두 사람의 천사라고 하는 현출에 의해서[102] 그리고 하갈에 대해서는 한 사람의 천사라는 현출로서,[103]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에 대하여는 하늘로부터의 목소리라는 현출에 의해서 그렇

98 〈창세기〉 12장 7절.
99 〈창세기〉 15장 1절.
100 〈창세기〉 18 장 1절.
101 〈창세기〉 20장 3절.
102 〈창세기〉 19장 1절.
103 〈창세기〉 21장 17절.

게 한 것이다.[104] 그리고 이삭에 대해서는 밤중에 *(즉 그의 잠 속에서 혹은 꿈에 의해서)*,[105] 그리고 야곱에 대해서는 꿈속에서, 즉 '꿈에 본즉 사다리가……'*(이라고 본문의 말 그대로)*,[106] 그러했다. 또 천사들이란 환상(幻想)에 의해서 그러했다.[107]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는 떨기나무 불꽃이라는 현출로서 그러했다.[108] 그리고 모세 때 이후로는 *(그때에는 신이 어떻게 해서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말했는가는 《구약성경》 속에 명시되어 있다)* 그는 항상 환영으로서, 혹은 현몽으로서 말했던 것이며, 기드온,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에스겔 및 그 밖의 예언자들에게 말한 대로이다. 또 《신약 성경》에 있어서 때때로 그러했으니, 요셉에 대해서, 성 베드로에 대해서, 성 바울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있어서의 복음 전도자 성 요한에 대하여 한 그대로이다.

모세에 대해서만 그는 더욱 일반적이 아닌 방법으로 시나이 산에서, '회막의 제전'에서 말했던 것이며 또 제사장에게만 회막의 제전에서, 그리고 신전 속의 '지성의 장소'에서 그러했던 것이다. 그러나 모세와 그의 이후에는 제사장들은 신의 은총을 받는 정도와 지위가 다른 것보다 탁월한 예언자였다. 그리고 신 자신이 명언한 말에 다음과 같이 선고했다. 즉 다른 예언자들에 대해서는 그는 현몽과 환영으로서 말하지만, 그의 종인 모세에 대해서는 사람이 그 친구에게 말하듯 하는 방식으로 말한다는 것이다. 그 말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109] 그리고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

104 〈창세기〉 22장 11절.
105 〈창세기〉 26장 24절.
106 〈창세기〉 28장 12절.
107 〈창세기〉 32장 1절.
108 〈출애굽기〉 3장 2절.
109 〈민수기〉 12장 6~8절.

여 말씀하시며.'[110] 더욱 모세에 대한 신의 이런 대화는 천사 또는 천사들의 매개에 의한 것으로서 〈사도행전〉 7장 35절 및 53절,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명백히 알게 된 그대로이다. 따라서 이 대화는 다른 예언자들에게 주는 환영보다도 더욱 확실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역시 환영인 것이며, 그리고 이것에 일치하여 신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111]라고 하는 경우의 뒤의 말은 앞의 말의 풀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112]라고 하는 경우도 또한 '예언'이라는 말이 꿈과 '환영(幻影)'에 의해서 설명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신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재산과 명예를 약속하여 말한 것도 같은 방식에 의한 것이었다. 즉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솔로몬이 깨어 보니 꿈이더라.'[113] 그러므로 일반적으로는 《구약 성경》에 있어서의 통상적이 아닌 예언자들이, 신의 말에 대하여 안 것은 그들의 꿈 또는 환영으로 뿐이었다. 즉 그들이 자신들의 잠 속에서 혹은 황홀경에서 가진 상상으로서 뿐이었으며, 그러한 상상들은 모든 진실한 예언자에 있어서는 초자연적인 것이었지만, 허위의 예언자들에게 있어서는 자연적이든가 거짓인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예언자들이 영에 의해서 말한다고 한다. 예언자가 유대인들에게 대하여, 그들이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114]라고 하는 것과 같다. 그것으로서 명백한 것은 영에 의해 혹은 영감에 의해 말한다는 것은, 영에 의해서 말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통상적이 아닌 예언자였을 경우에는 환영과는 다른 특별한 신의 말씀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그 예언자들이란 각각의 새로운 탁선에 대하여 개별적인 임명, 혹은 *(완전히 같은 것이지만)* 하

110 〈출애굽기〉 33장 11절.
111 〈신명기〉 13장 1절.
112 〈요엘〉 2장 28절.
113 〈열왕기상〉 3장 15절.
114 〈스가랴〉 7장 12절.

나의 새로운 꿈 또는 환영(幻影)을 받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영구의 소명에 의한, 또한 최고의 예언자들에 대해서는, 신은 《구약 성경》에서는 자비의 좌(座)에서 《성경》에 명언(明言)되어 있지 않은 방식으로 말했다 《구약 성경》에 있어서 영구의 소명에 의하여 그러했던 예언자들 가운데, 어느 사람들은 '지고'의, 어느 사람은 '종속적'인 것이었다. 지고한 것은 먼저 모세였고, 그의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각자 그 시대에 있어서 제사의 지위가 왕과 같았었든 한 그러했다. 그리고 유대인의 백성들이 신을 거부하고 그가 이미 그들을 통치하는 일이 없게 된 이후에는 신의 통치에 스스로 복종한 왕들이 역시 그의 중요한 예언자들이었다. 제사장의 직무는 대행자적인 것으로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신의 의견이 요구되었을 때에는, 그들은 제복(祭服)을 입고 왕이 그들에게 명하는 대로 주에게 물었던 것이며, 왕이 적당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들은 그 직무를 박탈당했던 것이다. 즉 사울왕은 화목제물(和睦祭物)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으며,[115] 그는 제사장에게 '하느님의 궤를 그의 가까이로 가져오라'고 명령한다.[116] 그리고 *(19절)* 다시, 그가 자기의 적들에 비해서 우세함을 보았으므로, 그것을 그대로 둘 것을 명령한다. 그와 같은 장(章)에서 사울은, 신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다윗 왕은, 그가 왕국을 소유하기 전이었으나 기름을 발리 운 뒤에는 자기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하여 그일라에서 싸울 것인가를 '여호와에게 묻자와'[117]라고 말하고 있고*(9절)*, 다윗은 제사에게 자신이 그일라에 머무를 것인가 아닌가를 물어 보기 위해서 제사장의 법의(法衣)를 자기에게 가져오도록 명령한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제사장의 지위를 아비아달로부터 박탈하여,[118] 그것을 사독에게 주었다*(35절)*. 따라서 모세, 제사장들, 그리고 모든 통상적이 아닌 기회를 맞이하여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혹은 어떤 뜻하지 않는 일에 직면할 것인가를, 신에게 물을 신앙 깊은 왕들은 모두 주권적 예언자였다. 그러나 어떠한 형식으로 신이 그들에게 말했는가는 명백하지 않다. 모세

115 〈사무엘상〉 13장 9절.
116 〈사무엘상〉 14장 18절.
117 〈사무엘상〉 23장 2절.
118 〈열왕기상〉 2장 27절.

가 시나이 산중의 신이 계시는 곳으로 올라갔을 때, 그것이 다른 예언자들이 가진 것과 같은 꿈 혹은 환영이었다는 것은, 신이 모세와 다른 예언자들 사이에 지었던 구별에 반대된다.[119] 신이 그 자신의 본성에 있어서 그러한 것처럼, 말했다든가 나타났다든가 하는 것은 그의 무한성(無限性), 불가시성(不可視性), 포괄불가능성(包括不可能性)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가 성령의 영감 또는 불어넣음에 의해서 말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신성(神性)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모세를 그리스도와 동등한 것으로 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에게만이 신성은 *(성 바울이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적으로 깃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성령에 의해서 말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성령의 은총 또는 증여를 나타내기 위해서 신에게 아무것도 초자연적인 것을 귀속시키지 않는 것이다. 즉 신은 사람들의 기분을 교의에 의해서, 실례에 의해서, 자연적 및 통상적인 가지가지의 기회에 의해서 믿음 깊음, 정의, 자비, 진실, 성실 및 도덕적 또는 지적인 여러 가지 형식의 덕성을 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들이 시나이 산에서 모세에게 말한 때의 신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은 역시 자비의 좌(座)에서 제사장들에게 말할 때의 그에게도 적용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신이 그에게 묻는 것이 직분이었던 《구약성경》의 주권적 예언자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말했는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신약 성경》의 시대에는 주권적 예언자는 없고, 우리의 구세주가 있었다. 그는 말한 신이기도 했으며, 신이 말한 상대로서의 예언자이기도 했던 것이다.

영구의 소명을 지닌 종속적인 예언자들에 대해서는, 신은 영으로서 말했다 영구의 소명을 지닌 종속적인 예언자들에 대하여, 나는 신이 그들에게 초자연적으로 말한 것을 증명하는 어떠한 부분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며, 다만 자연적으로 그가 사람들의 기분을, 즉 다른 모든 그리스도교적인 사람들의 기분을 신앙심 깊음, 믿음, 올바름 및 그 밖의 덕성으로 향하게 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그것을 보는 것이다. 이 방법은 소질, 지도, 교육과 사람들이 그리스도교의 여러 덕성에 대하여 느끼는 필

119 〈민수기〉 12장 6~8절.

요와 유인(誘引)에 있는 것이나 그래도 역시 진실로 신의 영, 혹은 신성한 영*(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말로 성령이라 부른다)*의 작용에 돌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신의 작용이 아닌 선량한 기분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의 작용은, 반드시 언제나 초자연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어느 예언자가 신의 영으로서 혹은 신의 영에 의해서 말한다든가 할 때에, 우리는 최고의 예언자에 의해서 선고된 신의 의지에 따라서 말한다고 하는 것 이상을 이해할 필요가 없다. 즉 영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의미는, 어느 사람의 의도, 정신 또는 성향을 표현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모세의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영에서 예언한 사람은 그 자신 외에 70인이나 있었다. 어떤 방법으로 신이 그들에게 말했는가는, 〈민수기〉 11장 25절에서 명언이 되어 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이것으로서 명백한 것은 첫째, 백성들에 대한 그들의 예언은 모세의 예언에 대하여 보조적 종속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며, 왜냐하면 신이 모세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였으므로, 그리하여 그들은 모세가 그들에게 시키고 싶은 대로 예언하였으며,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전연 예언하는 것을 허용되지 못했던 것이다. 즉 그들에게 대하여서 모세에게 대해 행하여진 불만의 호소가 있어서*(27절)*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그들을 금지시키려고 했으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나를 위하여 시기를 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이다. 둘째, 그곳에 있어서의 신의 영은 통치의 운영에 있어서 모세에 따르며, 그를 도와 주려고 하는 정신과 성향 이외의 것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명백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만일 그들이 실질적인 신의 영을 가진 것을 뜻한다고 하면 결국은 신의 본성이 그들의 속에 불어넣어졌다는 것을 뜻한다고 하면, 그러한 경우에는 그들은 그것을 그리스도 자신에 뒤지지 않는 방식으로서 가진 것이 되기 때문이며, 그리스도에게만 신의 영은 육체적으로 깃들인 것이다. 따라서 모세와 협조하도록 그들을 인도한 신의 증여와 은총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며, 그들의 영은 그 모세로부터 이끌어 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 자신이 백성들의 장

로 및 관리로서 임명해야 할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120] 즉 그 말은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네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으로 오라'라는 것이며, 거기에 있어서 '네가 아는 자'라는 것은, 그러한 것으로서 '네가 임명할 혹은 임명해 버린'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에서, 모세가 그의 장인(丈人) 이드로의 권고에 따라서,[121] 신을 두려워하는 듯한 사람들을 백성들에 대한 재판관 또는 관리로 임명한 것을 듣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 중에, 신이 모세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함으로써 왕국의 운영에 있어서 모세를 도우려는 기분을 일게 한, 그 70인이 있었던 것이다. 그 의미에서, 신의 영이 다윗에게 기름을 바를 때에 현존하였고, 다윗 위에 임하고 사울을 떠났다고 하였다.[122] 신은 그들의 백성을 통치하도록 그가 선정한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고, 그가 사람으로부터 은총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에 의해서 뜻하는 것은, 신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기분인 것으로서 그 어떤 초자연적 계시는 아니다.

신은 때때로 제비뽑기에 의해서도 말했다 신은 또 흔히 제비뽑기의 결과에 의해서도 말했던 것이니, 그 제비는 그가 자신의 백성에 대한 권위를 준 자에 의해서 처리되었다. 그럼으로써 우리들은 사울이 뽑도록 한 제비에 의해서, 신이, 백성이 앞세운 맹세를 배반하고 꿀을 먹은 것으로서, 요나단이 범한 잘못을 밝힌 것을 읽는 것이다.[123] 또 신은 가나안의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여호수아가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은'[124] 대로 분할했다. 신이 인간의 범죄를 폭로한 것[125]은, 같은 방식에 의한 것이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구약 성경》에서 신이 그의 의지를 선고한 방법이었다.

그러한 모든 방법을 그는 《신약 성경》에서도 사용했다. 처녀 마리아에 대해서는 천사의 환영에 의해서, 요셉에 대해서는 현몽으로서, 또 바울에 대해서는 다마스

120 〈민수기〉 11장 16절.
121 〈출애굽기〉 18장 24절.
122 〈사무엘상〉 16장 13~14절.
123 〈사무엘상〉 14장 43절.
124 〈여호수아〉 18장 10절.
125 〈여호수아〉 7장 16절.

쿠스로 가는 길에서 우리들의 구세주의 환영으로서, 그리고 베드로에 대해서는 깨끗한 짐승과 속된 짐승의 가지가지 형상을 지닌 여러 종류의 육류(肉類)가 든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큰 보자기라는 환영으로서 또 감옥에 갇혔을 때는 천사의 환영으로서였다. 그리고 모든 사도들과 《신약 성경》의 모든 저작자에 대해서는, 그의 영의 은총으로서 또는 사도들에 대해서도, 또 *(이 가룟의 유다 대신에 마태를 선정할 때에 있어서)* 제비를 뽑는 것으로서 그러했다.

각자는 예언자의 소명과 주장하는 것이 참인가 아닌가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여, 모든 예언은 환영(幻影) 또는 *꿈(이 두 가지는 이들이 자연적일 경우에는 동일하다)*, 혹은 어떤 특별한 신의 선물*(천부의 재능)*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그것들은 인류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드물게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였을 때는 감탄하게 된다는 것, 또 그러한 선물이 가장 이상한 꿈 및 환영으로서 나타나는 것은 신으로부터 그의 초자연적이며 직접적인 작용에 의해서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연적인 작용에 의해서 또한 부차적인 여러 원인의 매개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자연적인 선물과 초자연적인 그것, 자연적인 환영 또는 꿈과 초자연적인 그것을 분별하기 위한 이성과 판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스스로 예언자라고 말하는 자가, 그가 신의 이름으로서 우리에게 행복에의 길이라고 말하는 그 길에 있어서, 신에 따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 그의 목소리에 따르게 될 때에는 사람들은 지극히 조심스럽고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즉 그와 같이 크나큰 지복(至福)에의 길을 사람들에게 가르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들을 통치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그것을 바꾸어 말하면 그들의 위에 지배하고 군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니 이것은 모든 사람이 본성으로서 의욕하는 것들이며, 따라서 야심과 사기에 대해서도 의심받을 만한 사항인 것이다. 그러므로 각자가 순종을 그들에게 부여하기 전에, 각자에 의해서 검토되고 검증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그 예언자가 정치적 주권(Civil Sovereign)인가 정치적 주권자에 의해서 권위가 지워진 것인가의 경우처럼 각자가 이미 순종을 코먼웰스의 설립으로서 그에게 주어 버렸다면 다르다. 그리고 예언자나 영에 대한 이 검토가 백성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들이 누구에게 따를 것이며, 누구에게 따르

지 않을 것인가를 한 사람 한 사람이 구별할 수 있는 표적을 정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때문에 예언자를 알기 위해서,[126] 영을 알기 위해서[127] 그러한 표적이 정하여진 것을 보면, 또 《구약 성경》에서 저토록 많은 예언이 행해지고, 《신약 성경》 가운데서 예언자에 반대하는 설교가 저토록 많이 행해진 것, 거짓 예언자의 수가 참된 예언자의 수보다 훨씬 많은 것이 보통이었던 것들로 보아서 각자는 그들 자신의 위험에 있어서, 예언자들의 지시에 따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첫째, 참된 예언자보다도 거짓의 그것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은 아합이 400인의 예언자들에게 상담했을 때,[128] 미가야만을 제외하고 그들은 모두 거짓 사기사였다는 것으로서 명백하다. 그리고 사로잡히기 조금 전에 예언자들은 보통 거짓말쟁이였다.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129] 신은 백성에게 대하여 예언자 예레미야의 입에 의해 그들에게 따르지 말라고 명령할 정도였다. '만군(萬軍)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130]

주권적 예언자의 것을 제외하고, 모든 예언은 신민 각자에 의해서 검토되어야 한다

거기서 《구약 성경》의 시대에는, 미가야와 400인 중의 나머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처럼 환영에 의한 예언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 영이 언제 자신에게서 떠나 네게로 옮겨졌는가라고 물으면서 서로 다투었다는 것, 그처럼 서로 거짓말을 했다는 것,[131] 그리고 오늘날 《신약 성경》에 있어서, 영에 의한 예언자들 사이에 저와 같이 논쟁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각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예언에 대하여 신

126 〈신명기〉 13장 1절 등등.
127 〈요한1서〉 4장 1절 등등.
128 〈열왕기상〉 22장 6절.
129 〈예레미야〉 14장 14절.
130 〈예레미야〉 23장 16절
131 〈예레미야〉 14장 14절.

이 그 진위를 구별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규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의 자연의 이성(理性)을 사용하도록 구속되어 있었으며, 구속되어 있는 것이다. 《구약성경》에 있어서의 그 여러 규칙 중의 하나는, 주권적 예언자인 모세가 그들에게 가르쳐 준 교의(敎義)에 일치하는 교의를 말하며 또 한 가지는 신이 가져다주려고 하는 일을 먼저 앞질러 말하는 기적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며, 그것은 내가 〈신명기〉 13장 1절, 그 밖에 의해서 이미 밝혀 둔 그대로이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있어서는 다만 한 가지의 표적밖에 없으니, 그것은 '예수'는 '그리스도(구세주)'다. 즉 '구약(舊約)에서 약속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이 교의를 설교하는 것이었다. 누구이든, 이 조항을 부정한다면 그는 거짓 예언자이며, 어떠한 기적을 그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려고 하더라도, 그러하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친 자가, 참다운 예언자인 것이다. 그러므로 성 요한은, 영들이 신의 것인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방법에 대하여 명백히 말하고, 그가 그들에게 거짓 예언자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알린 뒤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132] 즉 신의 예언자로서 승인되고 허용된다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이것,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공언하고, 혹은 설교하기 위하여 그가 신앙심 깊은 인간 혹은 선택된 자의 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그는 공공연한 예언자라고 하는 것뿐이다. 왜냐하면, 신은 때때로 그가 그 인격을 용인하지 않았던 예언자들에 의해서 말하기 때문이며, 그가 발람(Balaam)에 의해서 한 것[133]처럼 또 그가 엔돌의 마녀에 의해서 사울에게 사울의 죽음을 예시한 것[134]과 같다. 다음 절에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러므로 그 규칙은 양쪽에 대하여 완전한 것으로서 구세주가 이미 예수의 신분으로 왔다고 설교하는 것은 진실한 예언자인 것이며, 그가 온 것을 부정하고 그 명예를 거짓에 의해서 몸에 지니게 될 어느 미래

132 〈요한1서〉 4장 2절.
133 〈민수기〉 22장 22~24절.
134 〈사무엘상〉 28장 5절 이하.

의 사기사 중에서 그를 보는 자는 거짓 예언자인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 사도는, 그 사기사를 정당하게 반그리스도라 부르고 있다. 따라서 각자는 누가 주권적 예언자인가, 다시 말하면 지상에 있어서의 신의 대관(代官)으로서 그리스도 교도인 사람들을 통치하는 권위를 신에 대하여 가지는 것은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며, 그가 신의 이름으로서 가르치도록 명령한 교의를 규칙으로서 지켜야 하며,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자칭 예언자들이 기적을 동반하거나 혹은 동반하지 않고 어떠한 때에 제시하는 교의에 대해서도 그 진실성을 검토하고 검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사람들이, 그것이 저 규칙에 위반된다는 것을 발견했으면, 회막 속에서 예언할 권위를 사람들에 의해서 의심받고 있는 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을 모세에게 와서 호소한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서 그들이 모세에게 한 것처럼, 주권자가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 그들*(예언을 하는 자)*을 지지하든지 금지하든지를 주권자에게 위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가 그들을 거부한다면, 그때에는, 그 이상 그들의 목소리에 따를 필요가 없으며, 만일 그가 그들을 승인한다면 그때에는 그들에게 대하여 신이 자기들의 주권자의 영의 일부분을 부여받은 사람들에 대하는 것으로서 따라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교도인 사람들이, 그들의 주권자를 신의 예언자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하면 그들은, 그들 자신의 꿈을 그들이 그것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자 하는 예언으로 풀이되고, 그들 자신의 마음의 흥분을 신의 영으로 풀이할 것임이 틀림없다. 혹은 그들은 그들을 마술에 걸 수 있는 외국의 군주나 동포 신민 중의 누구인가에 의하여, 때때로 이상적(異常的)인 성공과 벌을 받지 않는 것 이외에는 그들의 소명을 확인할 아무런 기적이 없는 데도 정부를 중상함으로서 반란으로 이끌어지는 것을 달게 받을 것임이 틀림없으며, 그리고 이 방법으로 신의 법이나 인간의 법이 모두 파괴되어 모든 질서와 통치와 사회를 처음의 폭력과 내란의 혼돈 속에 되돌리게 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제37장 여러 기적(奇蹟) 및 그것들의 효용에 대하여

기적이란,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다 '여러 기적〔miracles〕'에 의해서 표현되는 것은 신의 감탄할 일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여러 경이(驚異, wonders)'라

고도 불린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거의 모두가 그것들이 없으면 사람들이 무엇을 그가 명령했는지 무엇을 명령하지 않았는지를 그들의 사적인 자연적 추리에 따라서 의심하기 쉬운 경우에 신의 명령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것들은《성경》가운데서는 보통 '기호〔signes〕'라고 불리는 것이며, 그것들이 전능하신 자가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미리 앞질러 나타내는 것으로써, 라틴 사람들에 의하여 '오스텐타(ostenta)' 및 '포르텐타(portenta)'라고 불리는 것과 같은 뜻에 따르는 것이다.

그리하여 따라서 희귀하지 않으면 안 되며, 자연적 원인이 아무것도 알려져 있지 않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따라서 무엇이 기적인가를 이해하자면, 우리는 먼저 사람들이 불가사의(不可思議)하게 생각하고, 감탄할 만한 것이라고 부를 일〔works〕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어떠한 생긴 일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기이하다고 생각되게 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 한 가지는 만일 그것이 눈에 익지 않은 것이라면, 다시 말하여 그것에 비슷한 것이 결코 혹은 좀처럼 생겨나지 않는 것이라면 그러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만일 그것이 생겨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자연적 수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신의 직접적인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밖에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면 또한 그러하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의 어떤 가능한 자연적인 원인을 볼 수 있다면, 그것에 비슷한 것이 아무리 드물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또는 그것에 대한 자연적 수단을 상상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것일지라도, 그것에 비슷한 것이 가끔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그 이상 그것을 기적으로서 경탄도 하지 않고 존경도 하지 않는다.

따라서 만일, 말〔馬〕이나 혹은 소가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 어느 것도, 그러한 일들은 눈에 익숙한 것이 아니고, 더구나 그 자연적 원인은 상상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산(生) 피조물의 어떤 새로운 형태를 생겨나게 하는 데 있어서의, 자연의 눈에 익지 않은 일탈(逸脫)을 보는 것도 또한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 또는 다른 동물이, 그것에 비슷한 것을 산출했을 때,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우리가 다른 동물 이상으로 모른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것은 통상적인 것이니까 그것은 기적은 아니다. 그와 같이 만일 어떤 사람이 형태

를 바꾸어서 돌(石)이나 혹은 기둥(柱)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것이기 때문에 기적이다. 그러나 만일 나무 조각(木片)이 그와 같이 바뀌어 진다면, 우리들은 그런 것을 때때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기적이 아니다. 더구나 그래도 우리는, 신의 어떠한 작용에 의해서 앞의 경우가 발생되는가를 뒤의 경우에 대해서보다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세계에서 처음 보인 무지개는 처음인 것이므로, 따라서 눈에 익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기적이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신의 표적으로서, 그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미 물에 의한 세계의 보편적 파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는 데에 보탬이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러한 것은 가끔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들의 자연적 여러 원인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기적은 아니다. 또 인간의 기술에 의하여 산출되는 많은 희귀한 일들이 있을 터이지만 그래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들이 어떻게 하여 이루어지는가의 수단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신의 직접적인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근로(勤勞)를 매개로 하여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한 사람에게 기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될지도 모른다 더욱이 감탄과 경이는 지식과 경험의 결과이며,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많이, 어떤 사람들은 적게 부여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볼 때, 필연적으로 동일한 사물이 어느 사람에게 있어서는 기적인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될 수 있는 것이다. 거기에서 또한, 무지하고 미신적인 사람들은 자연에서 발생하는 *(그것은 신의 직접적 일이 아니라 통상적인 일이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연 감탄하지 않는 작업에 대해서 크게 놀라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일식(日蝕)이나 월식(月蝕)이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초자연적인 일로 풀이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의 자연적인 여러 원인에서 그것들이 도달할 시각까지도 미리 앞질러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그러하며, 혹은 어떤 사람이 공모(共謀)나 비밀 정보에 의해서 어느 무지하고 조심성 없는 사람의 사적인 여러 행위에 대한 지식을 얻어서 그것으로 인해 그에게 그가 과거에 행

한 일을 말할 경우가 그러한 것이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기적적인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명하고 조심성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러한 것과 같은 기적은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적의 목적 또, 다음의 것이 기적의 본질에 속한다. 즉 그것이 신의 사자들, 대행자들, 예언자들에게 신용을 가지게 하여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신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고, 오게 하고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그들에게 따르고자 하는 기분이 일층 더 될 수 있도록 행해진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의 창조와 그다음에는 일반적인 홍수에 인해서의 산 모든 피조물의 파괴가 감탄할 작업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것들은 신의 어떠한 예언자 혹은 다른 대행자에게 신용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행해진 것은 아니므로 기적이라고 불려지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왜냐하면 어떠한 일이 아무리 감탄할 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감탄은 그것이 이루어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가 그것을 어떤 사람의 기도(祈禱)나 혹은 말에 대하여서 한 것에 있기 때문이며, 사람들은 전능자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당연히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모세의 손에 의한 이집트에서의 신의 일은 정말로 기적이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기도(企圖)가 있어서가 아니다. 신에 의해서 보내어진 자로서 왔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믿게 하기 위한 의도로서 행해졌던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신이 그에게 이스라엘 사람을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해방할 것을 명령한 뒤, 그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135]라고 했을 때, 신은 그에게 힘을 주어서 그가 손에 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그리고 다시 지팡이로 다시 만들었으며, 그의 손을 그의 품에 넣음으로써 문둥이를 만들고, 다시 그것을 꺼냄으로써 건강하게 하였던 것이며, 이것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5절에 있는 대로)* 그들의 선조인 신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 충분치 못했더라면, 신은 그에게 그들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힘을 주었던 것이다. 그리

135 〈출애굽기〉 4장 1절 이하.

고 그가 이러한 기적들을 행해 버리자, '백성이 믿었다*(31절)*'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Pharaoh)의 공포 때문에, 그들은 아직 감히 그에게 따르려 하지 않았다. 따라서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행한 다른 일들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정말로 기적인 것이다. 그와 같이하여 만일 우리가 사로잡힘에 이를 때까지, 모세와 그 밖의 예언자들의 손에 의해서 그리고 그 뒤에 우리의 구세주와 그의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든 기적을 고찰한다면, 우리는, 그것들의 목적이 항상, 그들이 자기 자신의 동기(動機)에서 온 것이 아니라 신에 의해서 보내졌다는 신앙을 생기게 하고, 혹은 확보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우리는 다시 《성경》 가운데, 여러 기적의 목적이 선택된 사람이나 버려진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신앙을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사람에게만, 다시 말하면 신이 그의 시민들이 될 것으로 결정해 둔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읽어서 알게 되는 것이다. 즉, 이집트의 그러한 기적적인 재해(災害)는 파라오의 개종(改宗)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으며, 왜냐하면 신은 앞에서, 그는 파라오의 마음을 굳게 할 것이므로 파라오는 백성이 떠나는 것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모세에게 일러 두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드디어 가는 것을 용서했을 때, 여러 기적이 그를 설득한 것이 아니라 여러 재해가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거기서 또 우리의 구세구에 대해서도, 그는 그 자신의 고향과 집에서는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고 쓰여 있으며,[136] 그리고 *(〈마가복음〉 6장 5절에서는)* '그는 많은 것을 행하지 않았다'의 대신에 '아무 권능*(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다. 그것은 그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는 것은 신에 대한 모독이었던 것이다. 또 여러 가지의 목적이 의심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로 개종시키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며, 왜냐하면 모세의 예언자들의, 우리의 구세주의, 그리고 그의 사도들의 모든 기적의 목적은 교회에 사람들을 더 모이게 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들의 기적의 목적이, 교회

136 〈마태복음〉 13장 58절.

에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구제받을 사람을, 즉 신이 선택해 놓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구세주가 그의 아버지로부터 보내어진이라는 것으로 볼 때, 그는 자신의 능력을 그의 아버지가 거부해 놓은 사람들의 개종에 사육할 수는 없었다. 성 마가의 이 부분을 설명하여,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행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대신에 그대로 둔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 말에 있어서의 실례가 없는 데도 그렇게 하며*(거기에서는 '하려고 하지 않았다'가, 때때로 의지를 지니지 않는 무생물에 있어서, '할 수 없었다'의 대신에 두나 '할 수 없었다'가 '하려 하지 않았다'의 대신에 그대로 둔 것은 결코 없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치 그리스도가 신앙심 깊은 사람들 사이가 아니면 기적을 행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여서, 약한 그리스도 교도 앞에 발길에 걸리는 돌을 놓아두는 것이다.

기적의 본성과 효용에 대하여, 내가 여기서 진술한 것으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의해도 좋을 것이다. 기적이란 '신의 작업이며 *(창조에 있어서 정해진 자연의 길에 의한 작용 이외에)* 그가 선택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구제를 위한 통상적이 아닌 대행자의 사명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행해진다.'

기적의 정의 그리고 이 정의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추론해도 좋을 것이다. 첫째, 모든 기적에 의해서 이루어진 작업은, 그 예언자에 있어서의 어떤 덕성(德性)의 효과도 아닌 것이며, 왜냐하면 그것은 신의 손에 의한 직접의 효과인 것이며, 다시 말하면 신이 그것을, 예언자를 종속적인 원인으로 하여 그 속에서 사용하지 않고, 행하였기 때문이다.

둘째로, 어떠한 악마, 천사, 혹은 그 밖의 만들어진 영(靈)도, 기적을 행할 수는 없다. 즉 그것은, 어떤 자연 과학의 힘에 의하든가, 주문, 즉 말의 힘에 의하든가의 어느 편임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만약 주문장이들이 그것을 그 자신의 독립된 힘으로 행한다면 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 어떤 힘이 있는 것이며, 그것을 모든 사람은 부정하기 때문이며, 혹은 만약 그들이 그것을 그들에게 주어진 힘으로 행한다고 하면, 그 경우에는 그 작업은 신의 직접적인 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이며, 따라서 기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의 놀라움*(신이 스스로 창조하는 직접적인 여러 기적 중의, 어떤 것과 같다)*을 창조하는 힘을, 마법이나 주문의 어떤 기술에 돌리고 있는 듯 생각되는 어떠한 《성경》 본문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모세의 지팡이가 지상에 던져져서 뱀이 된 뒤에 '그 이집트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했다'[137]라는 것을 읽을 때, 또, 모세가 이집트의 강, 하수, 못, 웅덩이의 물을 피로 만들어 버린 뒤에 '이집트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였다'[138]라는 것을 읽는 경우, 또는 모세가 신의 힘에 의해서, 개구리를 지상에 올라오게 해 버린 뒤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로 이집트 땅에 올라오게 했다'[139]는 것을 읽는 경우, 사람은 여러 기적을 주문에, 즉 말의 음(音)의 효과에 귀속시키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것이 이러한, 혹은 비슷한 다른 곳에서 대단히 잘 입증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지만 주문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하는, 《성경》의 대목이 아무 데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주문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점과 말에 의한 잘 알지 못하는 여러 효과의 작용이 아니라, 통상적인 수단으로써 만들어지는, 사기와 거짓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사기사들이 그것을 행하는 데 자연적인 여러 원인에 대하여 너무 많은 것을 연구할 필요 없이 다만 인류의 통상적 무지와 우매함과 미신을 연구하면 된다는 정도로 그것들이 초자연적인 것에서 멀다고 한다면, 마법, 마술, 주문의 힘에 호의적인 것처럼 보이는 여러 본문은 반드시 얼핏 보기에 그것이 지니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지님에 틀림없는 것이다.

사람들은 허위의 여러 기적에 속기 쉽다는 것 즉 언어는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면,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런 경우 그것은 말하는 사람들의 여러 의도 또는 여러 정념을 나타내며, 그렇게 함으로써 듣는 편 가운데 희망, 공포 혹은 그 밖의 여러 정념이나 여러 개념을 낳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효과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충분히 명백한 것이다. 따라서 지팡이가 뱀으로 보이

137 〈출애굽기〉 7장 11절.
138 〈출애굽기〉 7장 22절.
139 〈출애굽기〉 8장 7절.

다가, 물이 피로 보이다가, 무엇인가 다른 기적이 주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듯이 보이기도 하는 경우, 만일 그것이 신이 백성의 교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문을 걸리게 되는 것은, 즉 말에 의해서 작용을 받는 것은 지팡이도, 물도,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닌 그 관찰자인 것이다. 이렇게 하여 모든 기적은 이런 일, 즉 주문 장이*(呪文師)*가 사람을 속였다는 것에 있으며,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아주 손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즉,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그러나 특히 그들 중에서도 자연적인 여러 원인에 대하여, 그리고 사람들의 본성과 이해 관계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갖지 않는 사람의 무지와 과오를 범하기 쉬운 것은 여러 가지의 그리고 손쉬운 책략에 의해서 나쁘게 이용될 정도의 것이다. 별의 움직여 가는 길에 대한 과학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기 전에는 이 시각에 혹은 이 날에 태양이 어둡게 될 것이라고 어떤 사람이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기적적인 힘을 가졌다고 하는 것 이외에 어떠한 평판을 얻었다고 할 수 있었겠는가. 요술쟁이는, 그의 술잔이나 그 밖의 하잘것없는 물건을 잘 다루는 것으로서, 만약 그것이 지금 일반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의 놀라움(驚異)을 적어도 악귀의 힘으로써 행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스스로의 숨을 들이쉬는 것으로서 말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은, 지난 시대에는 '복화술자(腹話術者)'들이라고 불리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그의 목소리의 약함이, 말하는 여러 기관의 약한 자극으로서가 아니라, 거리의 멀리 떨어진 데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하는 사람은 대단히 많은 사람들을 그가 바라는 대로 그들에게 말하는 어떠한 것에도, 하늘에서의 목소리로 믿게 할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이 자기의 과거의 행위나 모험에 대하여 보통 다른 사람에게 하는 비밀이나 친근한 고백에 대하여서, 탐지꾼을 끼어 넣은 간지(奸智)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것을 그에게 다시 말한다는 것은 조금도 곤란할 것이 없다. 더구나 그러한 수단에 의해서 마법사라는 명성을 얻는 사람은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 사람들이 기적을 이룩하는 사람들, 즉 기이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의 종류를 하나하나 센다는 것은 너무 지루한 일이며, 그런데도 그들은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을 그들 자신만 유일한 기

교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만약 우리들이 공모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기를 관찰한다면, 행하여지는 것이 어떠한 불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믿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란 있을 수 없다. 즉 공모한 두 사람이 한쪽은 절름발이로 가장하고 다른 쪽은 그들 마력에 의해서 고친다고 가장한다면, 많은 사람을 속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공모해서, 한 사람이 절름발이로 가장하고, 또 한 사람은 그를 고치는 것처럼 가장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증언한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기적에 있어서의 기만(欺滿)에 대한 경계(警戒) 여러 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을 너무 성급하게 믿는, 인류의 이러한 경향에 있어서, 신이 처음에 모세에 의하여*(내가 전장(前章)에서 말해 둔 것처럼)* 〈신명기〉의 13장의 처음 1~3절과 18장의 마지막 22절에서 결정한 것보다 더 나은 경계는 있을 수 없으며, 나의 생각으로는 그것 이외에 경계는 있을 수 없다. 즉 우리는, 신의 대리인*(그것은 그때 모세였다)*이 확립한 것 이외의 어떤 종교를 가르치는 사람도, 또 *(그가 같은 종교를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그의 미리 알린*(豫報)*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은 것과 같은 그 누구도 예언자라고 해석하지 말도록 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모세가 그의 시대에 있어서, 아론과 그 계승자들이 그들의 시대에 있어서 신 자신의 바로 다음인 신의 백성의 주권적 통치자, 즉 교회의 윗사람이 모든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자칭 기적 혹은 자칭 예언자를 신용하기에 앞서 신이 확립해 놓은 교의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조언을 구해야 할 상대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들이 기적이라고 일컫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않으면 안 되며, 또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가 아닌가를 고찰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구나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떤 사람도 비슷한 것을 그의 자연의 힘으로서는 이룰 수 없고 신의 직접적 손을 필요로 하는 것과 같은 것인가 아닌가에 대하여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일에 있어서도 또한 우리는 신의 대리인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며, 모든 의심스러운 경우에 있는 우리는 그에게 우리의 사적인 여러 판단을 종속시킨다. 예를 들면, 만약 어떤 한 사람이 한 조각의 빵에 대하여 일정한 말이 지껄여진 뒤에,

신이 당장 그것을 빵이 아니라 신 혹은 인간으로, 또는 그 두 가지로 만들어 버렸다고 주장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이, 일찍이 그러했던 대로 빵인 것처럼 보인다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도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야 할 이유는 없으며, 또 그것이 이루어졌는가 아닌가를 그가 신의 대행자, 또는 대리인에 의해서 신에게 물어 보는 것까지는 그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만약 그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모세가 말한 것이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140] 만약 그가 그것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반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여서 또, 우리는 어떤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을 듣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합법적인 윗사람에게 우리가 어디까지 그 말하는 자를 신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조언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주로 오늘날 그리스도 교도인 주권자들 아래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적용된다. 즉 이 시대에 있어서는, 중용(中庸)의 이성(理性)밖에 갖추고 있지 않은 인간들까지도 초자연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무엇인가 놀라운 일들이 인간의 점(占)으로 해서, 말 또는 기도(祈禱)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일찍이 본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알지 못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문제는 이미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그것이 기적인가 아닌가, 우리가 듣든가 읽든가 하는 기적이 진실한 작업이며, 혀〔舌〕나 펜의 행위는 아니었던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용어로서 그 보고가 정말인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각자가 스스로의 사적인 이성 또는 양심을 판정자로 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성, 즉 신의 지고(至高)의 대리인의 이성을 판정자로 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에게, 우리의 평화와 방위에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한 주권을 주어 버렸다면, 우리는 실제로 그를 판정자로 정해 버린 것이다. 하나의 사인(私人)은 언제나 여러 기적으로서 제시되어 있는 여러 행위에 대하여, 그러한 것들을 주장한다든가 가장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편익이 사람들의 신앙에 의해서 귀속될 수 있는가를 그가 볼 것인가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그것들

140 〈신명기〉 18장 22절.

이 기적인가 거짓말인가를 그가 추측하는 것에 따라서 그의 마음속에서 믿기도 하고 믿지 않기도 하는 자유를 가진다*(사고는 자유이니까)*. 그러나 그 신념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에 이르르면 사적인 이성은 공공의 그것에, 즉 신의 대리인에게 종속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누가 이러한 신의 대리인이며 교회의 윗사람인가 하는 것은, 뒤에 적당한 곳에서 고찰하게 될 것이다.

제38장 《성경》에 있어서 영원한 생명, 지옥, 구원, 내세 및 속죄의 의미에 대하여

시민 사회의 유치는 정의에 의존하고, 그리고 정의는 코먼웰스의 주권을 지닌 사람들의 손에 있는 생살(生殺) 및 그 밖의 그보다 작은 여러 상벌(賞罰)의 권력에 의존하는 것이며, 주권자 이외의 누구인가가 생명보다 더 큰 보수를 주고 죽음보다 더 큰 처벌을 부과하는 권력을 가지는 곳에서는 코먼웰스가 존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영원의 생명은 현재의 생명'보다도 더 큰 보수이며, '영원의 고문은 자연의 죽음'보다도 더 큰 처벌이라는 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성경》에 있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의 고문'에 의해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대해서 범한 어떠한 범행에 대하여 인간은 '영원히 고문'당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행위에 대하여 그들은 '영원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인가라는 것은 *(권위에 따르는 것으로)*, 혼란과 내란의 재액(災厄)을 피하려고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충분한 고찰을 할 만한 가치 있는 일들이다.

아담의 영원성의 장소는, 그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하면 지상의 낙원이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아담이 다음과 같은 생명의 조건에서 창조되었다는 것이며, 그것에 따르던 그가 신의 계율을 깨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것을 영원히 에덴의 낙원에서 즐겼던 것이다. 즉 거기에는 '생명의 나무'가 있어서, 그는 그것을 먹는 것과, 그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았던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는 것을 참고 견디는 한 용서되었던 것이다. 때문에, 그가 그것을 먹어 버리자마자 곧 신은 그를 낙원에서 몰아 내고,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또 따먹고 영생하는 일

이 없도록'[141]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나 또는 그 밖의 모든, 《성경》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에 있어서, 내가 신민인 코먼웰스에 의해 권위가 지워진 성경 풀이에도 종속으로써)*, 아담은 만약 그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지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죽음의 운명은, 그의 최초의 죄에 의해서 그 자신 및 그의 자손을 사로잡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실제적인 죽음이 그때 왔다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경우에는 아담은 결코 아이들을 가질 수 없었는데도 반대로 그는 그 뒤 오랫동안 삶으로써 죽기 전에 다수의 자손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서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142]라고 말하고 있는 데에는, 필연적으로 그의 죽어야 할 운명, 죽음의 확실성의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거기서 영원한 생명이 죄를 짓게 됨으로써 아담의 추방에 의해서 상실된 것을 보면, 그 추방을 취소하는 것은 그것에 의해서 다시 그 생명을 회복했어야 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죄에 대하여 속죄를 했던 것이며, 따라서 모든 신자에 대하여 아담의 죄에 의해서 상실된 영원한 생명을 회복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런 뜻에서 성 바울의 비교가 타당한 것이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143] 그것은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21~22절에서)* 더욱 명백히, 다음의 말로써 전술되어 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신자들을 위한 영원한 생명의 장소에 관한 본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서 획득한 영원한 생명을 즐길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주장되고 있는 본문의 바로 앞의 것이 그것을 땅 위의 장소라고 여기고 있는 것같이 생각된다. 왜냐하면 만약, 아담의 경우에 있어서 모든 것이 죽어 가듯 낙원을 상실하고 지상에 있어서의 영원한 생명을 상실함 같이, 바로 그대로 그리스도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생명 있

141 〈창세기〉 3장 22절.
142 〈창세기〉 2장 17절.
143 〈로마서〉 5장 18~19절.

는 것같이 살게 된다면, 그런 경우에 모든 사람은 지상에서 생활하도록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비교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편〉 작자의 본문도 여기에 일치하는 듯 생각된다. '시온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144] 시온은 예루살렘에, 즉 지상에 있는 것이다. 성 요한의 그것도 역시 그러하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145] 이것은 아담의 영원한 생명나무였었으나 그의 생명은 지상의 것이어야 했다. 같은 것이 또한 성 요한에 의해서 확인되었다고 생각된다.[146] 거기에서 그는 말한다.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다시 10절도, 같은 것이 된다. 그는 마치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 같다. 새로운 예루살렘 신의 낙원이 그리스도의 재래(再來)에 즈음하여 신의 백성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올 예정이며, 그들이 지상에서 그리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백의(白衣)의 두 사람이 *(즉 두 천사가)*, 그리스도의 승천을 지켜보고 있던 사도들에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147] 고 한 것과 아무것도 다름이 없다. 그것은 마치 그들이, 그는 그의 아버지 밑에서 영원히 여기서 그들을 통치하기 위하여 내려올 것이라고 말한 것같이 들리며, 그들을 천상에서 통치하기 위하여 데리고 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것은 모세 아래에서 설립된 신의 왕국의 부활에 일치한다. 그 왕국은 지상에 있어서의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통치였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세주의 다음의 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148]라고 하는 것은 결혼이라는 점에 관하여 우리가 아담에 의해서 상실한 것과 비슷한 영원한 생명에 관한 서술인 것이다. 왜냐하면 아담과 이브는 만약 그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

144 〈시편〉 133장 3절.
145 〈요한계시록〉 2장 7절.
146 〈요한계시록〉 21장 2절.
147 〈사도행전〉 1장 11절.
148 〈마태복음〉 22장 30절.

더라면, 지상에서 영원히 그들의 각각의 육신에서 살았을 것이라고 본다면, 명백히 그들이 자신들의 종자를 끊임없이 증식(增殖)하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만약 불사의 것들이 인류가 지금 그러하듯 생식(生殖)한다고 하면, 지상은 짧은 기간에 그들에게 설 장소를 줄 수가 없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의 구세주에 대하여, 많은 형제와 결혼한 여인은 부활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가를 질문한 유대인들은, 영원한 생명의 여러 귀결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 까닭에 우리의 구세주는 불사에 대한 다음의 귀결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이며, 그것은 천사들의 사이에서 결혼이나 생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는 생식이 없을 것이며 따라서 결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아담이 상실한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구세주가 죽음에 대한 그의 승리에 의해서 되찾은 것과의 비교는, 다음 것에도 또한 적용되는 것이다. 즉 아담이 그의 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고 그래도 그 뒤 잠시 동안 살았던 것처럼, 신앙 깊은 그리스도 교도는 그리스도의 수난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을 되찾은 것이며, 그가 잠시 동안, 즉 부활까지는 자연의 죽음을 이루어 사망한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다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죽음이 아담의 유죄 판결부터 기산되고, 그 처형에서 오는 것은 아닌 것처럼, 생(生)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의 사면(赦免)에서가 아니라, 부활에서 기산(起算)되기 때문이다.

하늘에로의 상승(上昇) 부활 뒤에 사람들이 영원히 살게 될 장소가 천상(天上)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발견할 수 있는 어떠한 본문에서도 쉽사리 끄집어 낼 수 없으며, 그런 경우에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속에서도 지상에서 가장 멀고 별이 있는 부분이든가, 혹은 별의 그 위의 '정화천(淨火天)'*(그것에 대해서는《성경》에 진술되어 있지 않으며, 이성(理性)에 기초도 없다)*에 있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늘의 왕국이라고 뜻하는 것은 하늘에 사는 왕의 왕국인 것이며, 그리고 그의 왕국은 이스라엘의 백성이었다. 그들을 그는, 그의 대리인인 예언자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다. 먼저 모세에 의해서, 그의 뒤에는 엘르아살에 의해서, 그리고 사무엘의 시대에 그들이 반역해서 다른 여러 국민의 방식을 본받아 필연적으로 죽어야 할 한 사람을 그들의 왕으로 받들자고 할 때까지는 주권자인 제사들에 의해서 지

배를 받았다.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인 그리스도가, 그의 대행자들의 설교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그에 대한 복종에로 돌아오도록 설득하고, 이방인들을 그에 대한 복종을 위해 불러 모아 버렸을 경우에는 거기에 하늘의 새로운 왕국이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의 왕은, 하늘을 '왕좌'로 하는 신(神)일 것이기 때문이면, 인간이 신의 발판인 지상보다도 조금이라도 높게, 그의 행복을 향하여 상승한다고 하는, 어떤 필연성도 《성경》 가운데는 명백하지 않은 것이다. 반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149] 거기에서 나는 아울러 이러한 말들이 바로 앞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구세주의 것이 아니라, 성 요한 스스로의 것임을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그때 *(앞의 말을 했을 때)* 하늘에 있던 것이 아니라, 지상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것이 다윗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다.[150] 그 경우에는 성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승천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편〉 작자의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151]라는 말을 사용해서 그러한 말들이 *(다윗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유를 덧붙이고 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하여 사람은 손쉽게 대답하여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그들의 육신은 심판 일까지 승천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육체를 떠나자마자 하늘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며, 그것은 또 우리의 구세주가 모세의 말에서 부활을 증명한, 다음의 말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

149 〈요한복음〉 3장 13절.
150 〈사도행전〉 2장 34절.
151 〈시편〉 16장 10절.

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152] 그러나 이러한 말들이 영혼의 불사성(不死性)에만 관한 것이라고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우리의 구세주가 증명하려고 의도한 것을 조금도 증명하는 것은 아니며, 그 의도한 것이란 육신의 부활, 즉 인간의 불사성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구세주가 뜻하는 것은 족장(族長)들이 인류의 본질과 본성의 귀결로서의 고유성(固有性)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의 모든 은혜로서 신앙이 두터운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생각했던, 그러한 신의 의지에 따라서 불사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 그 족장들과 그 밖의 다른 많은 신앙이 두터운 사람들이 '죽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들은 이 본문에 있는 대로, '신에게 있어서는 살아 있었다.' 즉 그들은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과 더불어 생명의 서(書)에 기록됨으로써, 부활에 있어서의 영원한 생명으로 정해진 것이다. 인간의 영혼이 그 자신의 본성에 있어서 영원한 것이며, 육신에 의존하지 않는 산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또는 어떠한 평범한 사람도 최후의 날에는 부활에 의하지 않고도, 불사라고 하는 것은 *(에녹과 엘리야를 제외하고)*, 《성경》 가운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교의는 아니다. 〈욥기〉의 14장 전체는 그의 친구들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이야기이지만, 그것은 이 필연적으로 죽어야 할 본성에 대한 탄식인 것이며, 더욱 부활에 있어서의 불사성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라고 그는 7~10절에서 말한다)*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즉 그가 어디에 있느뇨.' 또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153] 그러나 하늘이 없어지기까지라고 하는 때가 언제인 것인가. 성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것은 모든 것의 부활에 있어서라고 말하고 있다. 즉 그의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있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152 〈누가복음〉 20장 37~38절.
153 〈욥기〉 14장 12절.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154] 따라서 욥이, 사람은 하늘이 이미 없어지기까지는 일어나지 않는다 함은, 불사의 생명*(그리고 《성경》에 있어서의 영혼과 생명과는 보통 같은 것을 뜻한다)*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부활까지 심판의 날까지 시작하지 않은 것이며, 또한 원인으로서 인간의 특수한 본성과 생식이 아니라 약속을 가지는 것이다라고 그가 말한 것과 완전히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성 베드로는, 우리가 *(본성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말하지 않고, 약속대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신의 왕국은 정치적 코먼웰스인 것으로서, 거기에서는 신 스스로가, 처음에는 옛 신약에 따라서, 그리고는 새로운 신약에 따라서 주권자인 것이며, 그런 경우 그는 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에 의해서 지배한다고 하는 것이, 이 책의 35장에서, 《성경》의 갖가지 명백한 여러 곳에서 이미 증명된 것을 본다면, 따라서 같은 곳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그의 위엄과 영광 속에 실제로, 그리고 영원히 지배하기 위해서 다시 온 이후에는, 신의 왕국은 지상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도 또한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교의는 *(《성경》의 조금도 애매하지도 않은 곳에서 증명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에게 있어서 신기한 것으로 보일 것이므로 나는 그것을 제의할 뿐이며, 이것은 또 다른 어떤 종교상의 이러저러한 어떠한 역설에서 어떤 것을 지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권위에 관한 검(劍)의 논쟁*(우리나라의 사람들 사이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의 종말에 주의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 권위란 모든 종류의 교의가 그것에 의해서 승인 또는 거부되어야 하며, 그리고 그러한 여러 명령들은, 말에 의하든 서면에 의하든 *(여러 사인(私人)의 의견이 어떻든)* 모든 사람, 즉 자신들의 여러 법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할 사람들에 의해서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즉, 신*(의)* 왕국에 관한 교의의 여

154 〈베드로후서〉 3장 12~13절.

러 논점은 인간의 왕국에 대하여 간단히 커다란 영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신의 아래서 주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만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신의 왕국 속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 혹은 그 안에 있다가 쫓겨난 사람들의 심판 뒤에 있어서의 장소 신의 왕국과 영원한 생명이 그러한 것과 같이 신의 적(敵)들과 심판 후에 있어서의 그들의 고문(拷問)도 또한 지상에 그 장소를 차지한다는 것이 《성경》에 의해서 알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부활까지 대지에 묻히든가 삼켜지든가 하여 머물러 있는 그 장소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성경》에 있어서는 '지하'를 표현하는 말로서 불리고 있다. 그것을 라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인페르누스(Infernus, 지하)' 및 '인페르니(Inferni, 지하의 사람들)'이라고 하며, 그리스 사람들은 '하데스(ἅδης)'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며, 무덤도 그 밖의 더욱 깊은 모든 장소와 같이 포함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영원한 죄에 정해진 사람들의 부활 후에 있어서의 장소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서나 《신약 성경》에서도, 상황의 어떤 표적에 의해서도 결정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동료들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을 뿐이다. 그것은 신 이전에 이상하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지표(地表)에서 멸망해 가 버린 것과 같은 사악한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 틀림없다고 하는 것과,

나락(奈落) 예를 들면, 그들이 '지옥(地獄)'에, 나락(Tartarus)에, 혹은 밑바닥이 없는 굴(穴)에 있다고 하는 것이며, 그 이유는 '고라(Korah)', '다단(Dathan)', '아비람(Abiram)'이 산 채로 땅 속에 삼켜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저작자들이 우리에게, 유한할 뿐만 아니라 *(별의 높이에 비교하면)* 별로 크지도 않은 대지의 구체(球體) 속에, 밑바닥이 없는 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도록 하고 싶었던 것은, 그리스 사람들이 그들의 '악마학(惡魔學)'에 있어서 *(즉 악마들에 관한 그들의 교의에 있어서)*, 그들 뒤에는 로마 사람들이 '나락'이라고 부른 것처럼 무한의 깊이를 가진 굴이며, 그것에 대하여 베르길리우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155]

155 《아이네이스(The Aeneis)》 6편 578~579면.

'지하로 향해서 뻥 하고 입을 열고, 천공(天空)에 치솟은 올림포스를 우러러 보는 높이의, 두 배나 암흑의 밑바닥에 뻗쳐 있는'. 즉, 그것은 대지의 하늘에 대한 비율로서는 측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러한 일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들을 신이 본을 보이기 위한 별을 과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무한정하게 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거인(巨人)들의 모임 또, 홍수 이전의 노아(Noath) 시대에 살고 있던 지상의 힘센 사람들*(그것을 그리스 사람들은 '영웅들'이라 부르고, 《성경》에는 '거인들'이라 부르며, 그리고 양자가 모두, 그들은 신의 자손들과 인간의 자손들의 결합에 의해서 생겼다고 한다)*은, 그들이 사악한 생활 때문에 보편적인 홍수에 의해서 멸망했다. 따라서 영원한 벌을 받은 사람의 장소는 때로는 그들의 죽은 거인들과 같이 사람으로서 구별되어 있기도 한다. 예를 들면, 〈잠언〉 21장 16절에서는,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명의 회중에 거하리라.' 그리고 〈욥기〉 26장 5절에서는, '음령들이 큰물과 수족 밑에서 떠나니…….' 여기서는, 영원한 벌을 받은 사람의 장소는 물밑이다. 또 〈이사야〉 14장 9절에서는, '아래의 음부가 너*(즉 바벨론 왕)*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옴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다.'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영원한 벌을 받은 자의 장소는 *(문자대로의 의미라면)* 물 밑이라는 것으로 된다.

불의 못(湖) 셋째로, 소돔(Sodom)과 고모라(Gomorrah)의 도시는 대단한 격노에 의해서 그들의 사악함 때문에 불과 유황(硫黃)으로써 불태워져 버렸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주변의 나라는 악취를 뿜는 역청(瀝靑)의 못으로 되어 버렸기 때문에, 영원의 벌을 받은 사람의 장소는 때로는 불, 또는 불의 못(湖)으로서 표현되어 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있어서,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예(參預)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따라서, 여기서 소돔의 진짜 불과 비유에 의해서 표현되고 있는 지옥의 불은 고문의 어떤 특정한 종류 또는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무한정한 파멸이라고 풀이되어야 한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의 대로이며,

거기에서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즉 폐기(廢棄)되고 파괴되었다라고 했다. 심판의 날에는 이미 사망하는 것이 있을 수 없으며, 지옥에 가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과 같다. 즉 이미 '사자(死者)의 나라'*(아마도 그 말 '하데스(Hades)'에서, 우리의 '지옥(hell)'이란 말이 나왔다)*로 갈 일이 없다는 것이며, 그것은 이미 사망한다는 것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완전한 암흑 넷째, 이집트 사람들에게 지워진 암흑의 재액에서, 심판 후에 있어서의 사악한 사람의 장소는 '완전한 암흑' 혹은*(원문이 그러한 것처럼)* '바깥 어둠'이라고 불린다. 그것에 대해서는 '캄캄한 흑암이 삼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156]라고 쓰여 있는 것이다. 그리고 왕이 그의 종들에게 명령할 때에도, 그렇게 표현된다. '혼례의 예복을 입지 않은 자의, 그 수족을 결박하여 그를 *(즉)* 외부적 암흑에, 혹은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157] 그것은 '전(全)적인 흑암'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 암흑이 '얼마만큼 거대한 것인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가를, 즉 신에 의해서 선택된 자들의 '주택의 바깥'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게헨나(Gehenna)와 도벳(Tophet)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의 근방에, '힌놈(Hinnom)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장소가 있었는데, '도벳'이라고 불리는 그 일부에서 유대 사람들은 그들의 어린이들을 몰록(Moloch) 우상의 산 제물로 해서 지극히 통탄할 우상 숭배를 범했던 것이며, 거기에서 신도 또한 그의 원수들을 지극히 통탄할 벌로써 괴롭혔던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요시야는, 몰록의 제사들을 그들 자신의 제단에서 불살라 버렸던 것이니, 〈열왕기하〉 23장에 상세히 나타나 있는 대로이다. 그곳은 후에 그 도시에서 거기에로 운반된 오물과 밥찌꺼기를 받는 곳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거기서 때때로 공기를 맑게 하고, 썩은 고기의 악취를 없애기 위하여 불태워지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 혐오할 장소에서 유대 사람들은 그 후

156 〈출애굽기〉 10장 23절.
157 〈마태복음〉 22장 13절.

에도 쭉 계속하여 영원의 벌을 받은 자의 장소를 '게헨나', 즉 '힌놈의 골짜기'라는 명칭으로 부르는 것이 통상적이었다. 그리고 이 '게헨나'는 현재에는 보통 지옥으로 번역되는 말이며, 거기서 때때로 타오르는 불에서 우리들은 '영원히 계속되는 꺼 버릴 수 없는 불'이라는 개념을 가지는 것이다.

지옥에 관한 《성경》의 문자대로의 뜻에 대하여 이렇게 하여 심판의 날 후에 사악한 자가 모두 영원히 힌놈의 골짜기에서 처벌될 것이라든가, 그들이 영원히 지하 또는 수중(水中)에 있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일어날 것이라든가 부활 후에는 그들은 이미 서로 보이지 않을 것이며, 하나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든가 하듯이, 《성경》을 해석하는 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나의 생각으로는, 극히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된다. 지옥의 불에 대하여 이와 같이 전해지고 있는 것은 비유적으로 이야기되어 있는 것이며, 따라서 *(모든 비유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참다운 근거가 있어서 그것은 정당한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장소'에 대해서도, '지옥의 고문' 및 '고문자'의 본성에 대해서도, 또한 같이 탐구해야 할 정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사탄(Satan), 악귀는 고유 명사가 아니라 총칭이다 그리고 먼저 고문자(拷問者)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들의 본성과 여러 고유성이, '적' 즉 '사탄', '고발자' 즉 '디아블스(Diabolus)', '파괴자' 즉 '아바돈(Abaddon)'이라는 명칭에 의해서, 정확하고 또한 적절하게 서술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 '사탄, 악귀, 아바돈'이라는 뜻이 있을 듯한 명칭은, 우리에게 대하여 고유 명사가 항상 그러하듯이 무엇인가 개별적인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직무 혹은 자격을 가리키는 것이며 따라서 총칭이다. 그것들은 라틴어 및 근대의 《성경》에 있어서 그러하듯이, 번역되지 않고 남겨 두었어야 했던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것들은 악마의 고유 명사처럼 보여지고, 사람들은 그만큼 더 한층 악귀에 대한 교의(教義)를 믿도록 유혹당하기 쉽게 되기 때문이며, 그 교의는 당시에 있어서의 이방인의 종교였으며, 모세 및 그리스도의 그것과는 반대되는 것이었다.

또한 '적, 고발자, 파괴자'들에 의해서 뜻하게 되는 것은 신의 왕국에 있을 사람들의 적(敵)이므로, 따라서 만약 앞의 *(장(章)에서 내가 《성경》에 의하여 그럴 것 같*

다는 것을 시사한 것처럼) 부활 후의 신의 왕국이 지상에 있다고 하면, 적과 그의 왕국도 또한 지상에 있을 것이 틀림없다. 곧 유대 사람들이 신을 폐해 버리기 전의 시대에는 그것은 역시 그러했다. 왜냐하면 신의 왕국은 팔레스티나에 있었던 것이며, 그것을 둘러싼 여러 국민은 적의 여러 왕국이었으며 따라서 '사탄'에 의하여 뜻하게 되는 것은 교회의 지상에 있어서의 모든 적인 것이다.

지옥의 고문 지옥의 고문은, 때로는 〈마태복음〉 8장 12절과 같이 '울며 이를 갊'이라는 것으로서 표현된다. 때로는, 〈이사야〉 66장 24절과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과 같이 '양심의 구더기'에 의해서, 때로는 지금 인용한 곳에서,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고 하는 것처럼, 또 그 밖의 많은 부분과 같이 '불'에 의해서 때로는 〈다니엘〉 12장 2절과 같이, '부끄러움과 수욕'에 위해서도 표현된다. 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이라고 했다. 그 모든 부분은 비유적으로 마음의 슬픔과 불만족을 그리려고 하는 것이며, 그것은 그들 자신의 불신앙과 불복종을 통하여 스스로 잃어버린, 영원의 지복(至福)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는 것으로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러한 지복은 그들 자신의 실제적인 비참과의 비교에 의한 것밖에는 느끼지 못하는 것이므로, 따라서 그들이 받아야 할 육체적인 고통과 재액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기 쉬운 것이다. 그 사람들이란 나쁜 잔혹한 통치자들 밑에서 생활할 뿐 아니라, 적으로서도 또한, 성자들의 영원한 왕이 신 전능의 신을 가진 사람들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 사악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2의 죽음이 또한 헤아려져야 할 것이다. 그것은, 《성경》은 보편적인 부활에 대해서 명백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신에게 버림받은 자들 가운데의 누구인가에 대하여 영원한 생이 약속되어 있는 것을 읽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성 바울이 어떠한 육체를 가지고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158]고 말하고 있으나, 영광과 힘은 사악한 자들의 육체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제2의 죽음이라는 명칭도 한 번밖에 결코 죽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비유적인 말로서는 재액으로 가득 찬 영원한 생이 영원한 죽음이라고 불려도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도저히 제2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해되지 않는다. 사악한 자들을 위해 준비된 불은 영원의 불이다. 바꾸어 말하면, 아무도 심신 쌍방의 고문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부활 이후에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러한 뜻에서 그 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며, 고문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서, 다음 것을 추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그 불속에 던져지든가 그러한 고문들로 하여 문책을 받을 사람이, 그러한 것들을 인내하고 저항하여서, 그것 때문에 영원히 불태워지고, 고문당하고, 그럼에도 멸망하지도 않고 사망하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원의 불과 고문*(그 속에 사람들이, 계속하여 다음에서 다음으로 영원히 던져질 것이다)*을 긍정하는 많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 속에 누구이든 개별적인 인물의 영원한 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긍정하는 곳을 한 부분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며, 반대로 제2의 죽음인 영원의 죽음에 대한 그것을 발견한다.

〈요한계시록〉 20장 13~14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것에 의해서 명백한 것은 심판 일에 유죄가 될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제2의 죽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며, 그 뒤에는 그도 이미 죽음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영원한 생의 환희와 구원과는 같은 것들이다 영생의 갖가지 환희는 구원에 있어서는 모두, 혹은 '구제받는 것'이란 명칭 속에 포괄되어 있다. 구제받는다는 것은, 특정의 여러 해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혹은 결핍, 질병 및 사망 그 자체를 포함하는 모든 해악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

죄로부터의 구제와 비참에서의 구제는 완전히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부패에

158 〈고린도전서〉 15장 42~43절.

도, 따라서, 그의 본성을 해체시키는 경향이 있는 어떠한 일에도 복종할 것이 없다는 불사의 상태로 창조된 것이며, 더구나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행복으로부터 전락한 것이므로, 거기서 당연히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은 모든 해악과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여러 재액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성경》에서 죄의 사면과 죽음 및 비참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은 같은 것이며, 그 점은 우리의 구세주의 다음의 말로써 명백한 그대로이다. 그는 우리의 구세주가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159]라고 하여 중풍병 환자를 치유시켰던 것이며, 그리고 사람이 죄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신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율법학자들이 풀이하고 있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160]라고 질문했다. 그것에 의해서, '네 죄는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는 것은 병자를 구원하는 것에 관해서는 완전히 동일했다는 것, 그리고 그가 그런 말의 형식을 사용한 것은 그가 죄를 용서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다시 다음과 같은 것은 당연히 명백한 것이다. 즉 죽음과 비참은 죄의 처벌이었으므로, 죄의 해제(解除)는 죽음과 비참의 해제, 바꾸어 말하면 심판 일에 신앙 깊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구원에 의해서 즐기는 것과 같은 절대적인 구원이 아니면 안 된다. 그는 그러한 이유로서, 우리의 구세주라고 불리는 것이다.

〈사무엘상〉 14장 39절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즉 그들의 현세의 적으로부터 그렇게 하는 '여호와의 살아 계심으로'라든가, 〈사무엘하〉 22장 3절 끝의,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라든가, 〈열왕기하〉 13장 5절의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라'든지, 그 밖의 비슷한 이른바 개별적인 구원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 종류의 본문의 해석을 왜곡시키는 것에는 곤란도 없고 이해도 관

159 〈마태복음〉 9장 2절.
160 〈마태복음〉 9장 5절.

심도 없기 때문이다.

영원한 구원의 장소 그러나 일반적 구원에 관하여는, 그것이 하늘의 왕국 가운데 있음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 장소에 대해서 커다란 곤란이 있다. 한편으로는 '왕국' *(그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적과 곤궁에 대한 그들의 영구한 안전 보장을 위해서 결정된 상태이다)*이라는 것에 의해서 이 구제가 지상의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구제라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정복에 의한 우리의 왕의 영광 있는 지배인 것이며, 도망에 의한 안전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구제를 바라고 기다릴 때, 우리는 개선(凱旋)을 바라고 기다릴 것임이 틀림없으며 그리고 개선에 앞서 승리를, 승리에 앞서 전투를 바라게 되는 것이 틀림없다. 그것이 하늘에 있어서 그럴 것이라고는 도저히 추측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유가 얼마나 훌륭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나는 《성경》의 지극히 명백한 여러 부분이 없이는 그것을 신뢰하고 싶지는 않다. 구원의 상태는, 〈이사야〉 33장 20~24절에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 성을 보라, 네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말뚝이 영영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기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은 마치 노질하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림 같을 것이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너의 돛대 줄이 풀렸었고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었고 돛을 달지 못하였었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민(居民)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이러한 말 가운데 우리들은, 구원이 거기에서 시작될 장소,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가지며, '옮겨지지 않을 장막'이라는 그것의 영원성을 지닌다. '여호와는, 그들의 재판장, 그들의 입법자, 그들의 왕, 그는 우리를 구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구원자를 가지며 '여호와는 그들에게 대하여 빠른 강물의 폭넓은 요새(要塞)로서 존재할 것이라는 등등'의 구원을 가지며, '그들의 돛대 줄이 풀렸었고 그들의 돛대는

약했고,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인, 그들의 적의 상태를 지녔었다. 구원된 자의 상태는,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라는 것이며, 그리고 최후에 이 모든 것은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죄의 사면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것으로서 명백한 것은, 구원은 지상에 있어서일 것이다라는 것 그러면 신이 지배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재래에 임해서)* 예루살렘에 있어서일 것이라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신의 왕국에 받아들여질 이방인의 구원이 진행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더욱더 명시적(明示的)으로 같은 예언자에 의해서, 〈이사야〉 66장 20~21절에도 선고되어 있는 대로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즉, 어떤 유대인도 노예로 한 일이 없는 이방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으로서 명백한 것은, 신의 왕국의 중요한 장소*(그것은 이방인이었던 우리의 구원이 거기서부터 시작될 장소이다)*는 예루살렘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며, 또 그와 같은 것은 우리의 구세주에 의해서도 신을 숭배하는 장소에 대해서의, 그와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대화에 있어서 확인된다. 그녀에게 대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마리아인은 무엇인지 그들이 모르는 것을 숭배했으나 유대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것을 숭배하는 것이며,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는 *(즉 유대 사람들에게 시작된)* 것[161]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그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처럼 생각된다. 당신들은 신을 숭배하지만, 그러나 누구에 의해서 그가 당신들을 구원하는가를 우리만큼은 모른다. 우리는 그것이 한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유대 씨족(氏族) 중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유대 사람에 의해서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런 까닭에, 그 여자도 또한 부적절하지 않게, 그에게 다시 대답한 것이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구세주가 말하는, '구원은 유대 사람에게서 난다'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로마

161 〈요한복음〉 4장 22절.

서〉 1장 16~17절과 같은 것이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 사람에게요 그리고 헬라 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즉 유대 사람의 신앙에 비롯해서 이방인의 신앙에 이르게 한다는 뜻이다. 비슷한 뜻에서 예언자 요엘이, 심판 일을 서술하고 있다. 신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162] 그는 32절을 첨가한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그리고 〈오바댜〉 17절도 같은 것을 말한다.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것은 이교도의 영지인 것이며, 그는 그 '영지'를 계승하는 여러 절에서, '에서의 산', '블레셋 인의 토지', '에브라임의 영토', '사마리아의 영토', '길르앗의 평야' 및 '남방의 여러 성읍'이라고 하는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 표현하고 다음의 말로써 결론한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러한 모든 곳은 구원과 지상에 있어서의 신의 왕국*(심판일 이후의)*에 대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나는 성자들의 하늘에의, 즉 정화천 혹은 다른 천상의 영역에의 어떠한 상승을 증명하기 위해 아마도 인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어떠한 본문도, 그것이 하늘의 왕국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발견하지 못했다. 그것은 다음의 이유로서 그 명칭을 지니는 것인지도 모른다. 즉 유대 사람의 왕이었던 신은 천사에 의해서 하늘로부터 모세에게 보내어지는 그의 명령에 의해서 그들을 통치했던 것이며, 그들의 반역에는 그들을 그 순종으로 환원시키기 위해서 하늘에서 그의 아들을 보냈던 것이며, 그리고 다시 거기에서 그를 그들 및 그 밖의 모든 신앙 깊은 사람들을 심판의 날로부터 영원히 지배하기 위하여 보낼 것이라는 것이다. 혹은 이상의 것으로서 우리의 이 위대한 왕의 왕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것에 대하여 대지는 그의 발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빼고는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신의 신민들이, 그의 왕좌와 동일하

162 〈요엘〉 2장 30~31절.

게 높은 혹은 그의 발판보다도 높은 어딘가의 장소를 가진다는 것은 왕인 자로서의 위엄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나도《성경》가운데서 그것을 지지하는 명백한 본문을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

신의 왕국에 대하여 그리고 구원에 대하여, 이제까지 전해 내려온 것으로부터, '오는 세계*(來世)*'에 의하여 뜻하는 것을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다.《성경》가운데는, 세 개의 세계를 들고 있다. '옛 세계', '현재의 세계', '오는 세계'인 것이다. 제1의 것에 대하여 성 베드로는 말한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163] 그러므로 제1의 세계는 아담에서 일반적 홍수까지였었다. 현재의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의 구세주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164]라고 말하고 있다. 즉 그는 다만 그의 교의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치고,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갱신(更新)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장차 올 세계에 대해서는 성 베드로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165]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하늘로부터 구름에 싸여 위대한 힘과 영광을 가지고 내리는 저 세계인 것이며, 거기에서 그리스도는 그의 천사들을 보내고, 사방에서 지상의 가장 먼 여러 부분에서 그의 선민(選民)들을 모을 것이며, 그 이후 쭉 그들을 *(그의 아버지 밑에서)* 영원히 지배할 것이다.

속죄(贖罪) 죄인의 '구원'은, 앞선*(先行)* 속죄를 상정한다.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 한 번 유죄였던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의 벌을 받아야 할 것이며 그리고 그는 그에 의해서 침범되고, 그를 자기의 세력하에 둔 사람이 요구하리라고 생각되는 배상을 *(혹은 누구인가 다른 사람이 그에게 대신해서)*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또한 침범된 인격(人格)이, 모든 것이 그 세력하에 있는 전능의 신이라는 것으로 본다면, 구원이 얻어지기 전에 지불되어야 할 배상은 선이 요구하시는 것뿐인 것이다. 이 배상에 의해서 의도(意圖)되고 있는 것은 침범에 대등한 죄의 보충이 아

163 〈베드로후서〉 2장 5절.
164 〈요한복음〉 18장 36절.
165 〈베드로후서〉 3장 13절.

니라, 그것은 어떠한 죄인도 그 스스로에 대하여, 혹은 정의로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결코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어떤 사람이 상대에게 준 손해는 그가 반환 또는 보상에 의해서 변상할 수 있으나 죄는 보상에 의해서 없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에 대한 사면(赦免)을, 판매(販賣)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죄는 회오(悔悟)하는 자에 대해서는 '무상(無償)'으로, 혹은 신이 받아들이시는 그대로의 형벌에 대하여 용서받을 수 있다. 신이 《구약 성경》에서 보통 받아들인 것은 어떤 희생, 즉 예물이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형별에 처한다고 하는 위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의롭지 못한 행위는 아니다. 사람들 사이에서조차 이익의 약속은 약속하는 것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해악의 위협, 즉 약속은 그들을 구속하지 않는다. 더구나, 사람들보다 무한히 자비 깊은 신을 그러한 것들이 구속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는 우리를 '변상' 시키기*(몸을 빼내기)* 위해서 다음의 뜻으로 사람들의 죄를 보충한 것은 아니었다. 즉 그의 죽음이 그 자체로서, 신이 죄인들을 영원한 죽음으로 벌하는 것을 신에게 있어서 부정한 것이 되게 할 수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는 처음 왔을 때에 자기를 희생하여 예물로 하였던 것이니, 그것은 그의 재래에 임하여 그동안 회오하고 그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이 요구하신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의 '속죄'의 이 행위는, 《성경》 가운데서 항상 '희생' 및 '예물'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격(價格)〔대가〕으로도 불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가격으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은 그가 침범된 그의 아버지로부터 우리를 용서할 권리를 그 가치(價値)〔대가〕에 의해서 주장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 무엇도 아니며, 아버지이신 신이 자비에 의해서 요구하신 가격이었던 것이다.

제39장 《성경》에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말의 뜻에 대하여

교회는 주의 집 '교회*(집회, Ecclesia)*'라는 말은 《성경》의 여러 편에서 갖가지 것들을 나타낸다. 때로는 *(자주는 아니지만)* '신의 집', 즉 그리스도 교도가 공공적(公共的)으로 신성한 의무를 행하기 위해서 집합하는 신전(神殿)으로 풀이된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 '당신들의 부인들에게 교회에서는 침묵을 지키도록 해

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것은 거기에 집합한 회중(會衆)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며, 그 이후 그리스도 교도의 신전과 우상 숭배자의 그것과를 구별하기 위하여 건물 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용되어 왔다. 예루살렘의 신전은 '신의 집'이었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집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서, 그리스도 교도들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숭배하는 데에 바쳐진 어떠한 건물도 '그리스도의 집'인 것이며, 따라서 그리스의 신부들은 그것을 '큐리아게에(Κυριακὴ)'를 '주의 집'이라고 부르며, 거기에서 우리의 언어로서는 그것은, 'kirk' 및 'church'라고 불리게 되었다.

집회(Ecclesia)란 본래 무엇인가 교회는 *(집이라고 풀이할 수 없을 때에는)* 그리스의 코먼웰스에서 '에클레시아'가 표현한 것과 같은 것을 나타낸다. 그것은 즉 시민의 회중 또는 합의체(合義體)인 것이며 위정자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소집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로마의 코먼웰스에 있어서 '콘키오(concio)'라고 불리었던 것이며, 말한 자가 '에클레시아스테스(ecclesiastes)' 및 '콘키오나토르(concionator)'이라고 불린 것과 서로 같다.[166] 그리고 그들이 합법적인 권위에 의해서 소집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은 '에클레시아 레기티마(Ecclesia legitima)', '합법적인 교회', '에노모스', '에클레시아'였다. 그러나 그들이 시끄러운 소란적인 외침에 의해서 흥분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은 혼란한 교회, '에클레시아', '슌케큐메네(Εκκλησία συγκεχυμένη)'였다.

그것은 또한 때로는, 실제로 합의하지 않더라도 회중의 한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풀이된다. 즉 어떻게 멀리 흩어져 있더라도, 그리스도교인 사람들의 군집(群集)의 전체를 말하는 것이며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167]라고 말하고 있는 경우와 같다. 그리고 그 뜻에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윗사람이라고 일컬어진다. 또 때로는 그리스도 교도 중의 일정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라고 풀이된다.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을'[168]이라고 말하고 있는 경우이다. 어느 때는 또

166 〈사도행전〉 19장 39절.
167 〈사도행전〉 8장 3절.
168 〈골로새서〉 4장 15절.

선민(選民)만의 것으로 풀이된다. '티도 주름살도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의 교회'[169]라고 말하고 있는 경우이며, 그것은 '승리한 교회' 즉 '장차 올 교회'를 뜻한다. 때로는 그리스도교의 신앙고백자의 합의된 회중의 것으로 풀이되는 것이며, 그것은 그들의 고백의 진위에 관계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18장 17절에서,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할 때는 이해되는 그대로이다.

어떤 뜻에서 교회는 하나의 인격인 것인가 그리고 이 마지막의 뜻에서만이, 교회는 하나의 인격으로 풀이될 수 있다. 즉 그것은 의지(意志)하고, 단정(斷定)하고, 명령하고, 복종하며, 여러 법을 만들고, 혹은 무엇이든 그 밖의 행위를 하는 힘을 가지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합법적인 회중으로부터 나온 권위가 없으면, 사람들의 집합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어떠한 것이든 거기에 출석하여서 그것의 수행에 도움이 된 모든 사람들 각자의 개별적인 행위인 것이며, 그들 모두의 총체의 일체(一體)인 것처럼 하는 행위는 아니다. 더구나 거기에 있지 않았던 자나 거기에 있었으면서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던 자의 행위는 아니다.

교회의 정의 이러한 뜻에 따라서 나는 교회를 다음과 같은 것으로 정의한다. '그리스도의 종교를 믿고 있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일단(一團)으로서, 하나의 주권자의 인격으로서, 합일(合一)된 것. 그의 명령에 의해서 그들은 합의해야 할 것이며, 그의 권위 없이는 그들은 합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모든 코먼웰스에 있어서, 정치적 주권자의 허가 없는 합의체는 불법이므로 그 합의를 금지해 버린 모든 코먼웰스에 있어서는 합의한 교회도 또한 불법인 합의체이다.

그리스도교의 코먼웰스와 교회는 완전히 같은 것이다 따라서 또한 지상에는, 모든 그리스도 교도가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보편적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상에는 다른 모든 코먼웰스가 신종(臣從)하는 권력은 없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저마다의 군주와 국가의 영토 속에 그리스도 교도들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각자는 그 자신이 성원(成員)인 코먼웰스에 신종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

169 〈에베소서〉 5장 27절.

서 다른 어떠한 인격의 명령에도 신종할 수 없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명령하기도 하고, 판결, 사면, 단죄하며, 혹은 다른 어떠한 행위를 하기도 할 수 있는 것으로서의 교회는 그리스도교인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정치적 코먼웰스와 동일물(同一物)인 것이며, 그 신민이 '인간'이기 때문에 정치 국가로 불리며, 그 신민이 '그리스도 교도'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불리는 것이다. '현세적' 및 '영적'인 통치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들의 '합법적 주권자'를, 이중(二重)으로 보고 오해하도록 이 세상에 가져오게 된 두 개의 말에 지나지 않는다. 확실히 신앙 깊은 사람들의 신체는 부활 후에는 영적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이겠으나 이 세상에서 그것들은 조잡하고 부패되어야 할 것들이었다.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국가에 대해서나 종교에 대해서도 현세적인 정부 이외에는 정부는 없으며, 그 국가와 그 종교와의 양쪽에 대해서 정부가 가르침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어떠한 교의(教義)의 교수(教授)도 어떤 신민에게 있어서도 합법적인 것은 아니다. 더구나 통치자는 하나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 반드시 코먼웰스 속에서 '교회'와 '국가'와의 사이, '영(靈) 쪽의 사람들'과 '현세 쪽의 사람들'과의 사이, '정의의 검'과 '신앙의 방패'와의 사이에, 그리고 *(그 위에)* 각자의 그리스도 교도인 인간 자신의 가슴속에서, '그리스도 교도'와 '인간'과의 사이에 분파와 내란이 일어난다. 교회의 박사들은 목자(牧者)라고 불리며, 정치적 주권자들도 또한 그러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목자들이 순서대로 종속하여 하나의 주목자(主牧者)가 되도록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상반하는 교의를 가르침받게 될 것이며 그중의 양자가 함께 허위일지도 모르며, 또한 한쪽은 반드시 허위이다. 누가 그러한 하나의 주목자인가는, 자연의 법에 따라서 이미 가르쳐져 있다. 즉 그것은 정치적 주권자인 것이다. 그리고 《성경》이 누구에게 그 직무를 나누어 주었는가를 우리는 다음의 여러 장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제40장 아브라함, 모세, 제사장들, 유대의 왕들에 있어서 신의 왕국의 여러 권리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주권적 여러 권리 신앙이 깊은 사람들의 아버지, 약정에 의한 신의 왕국의 최초의 사람은 아브라함이었다. 즉, 그와의 사이에 비로소 처음으로 약정이

맺어졌던 것이며, 거기에 있어서 그는 그 자신과 그 후의 자손을 신의 명령을 승인하고 복종하도록 의무를 지웠던 것이다. 그 신의 명령이라는 것은 그가 자연의 빛에 의해서*(도덕법으로서)* 알게 된 것뿐만 아니라, 신이 특별한 방식으로 현몽과 환영에 의해서 그에게 전달하는 것도 있다. 왜냐하면 도덕법에 대하여는 그들은 이미 구속되어 있던 것이며, 가나안 땅의 약속에 의해서 그 위에 또 계약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이다. 또는 그들과 그 이외의 모든 사람이 함께 전능의 신에게 복종하도록 자연에게 구속되어 있던 그 의무에 첨가하고 강조할 수 있는 어떠한 계약도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신과 맺은 신약은, 신의 이름으로써 꿈 또는 환영 속에서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신의 명령으로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의 가족에게 전달하여 그들에게 그것을 지키게 한다고 하는 것이었다.

아브라함과의 신의 이 계약 속에, 우리는 신의 백성의 통치에 있어서 중요한 귀결을 갖는 세 가지 점을 관찰할 수 있다. 첫째, 이 신약의 체결에 있어서 신은 아브라함에게만 말한 것이며, 따라서 그의 가족 또는 자손의 누구와도 다음과 같이 한 것 외에는 계약한 것은 아니다. 그 방식이란, 그들의 여러 의지*(그것이 모든 신약의 본질을 이룬다)*가 그 계약보다 앞서 아브라함의 의지 속에 포함되고, 따라서 그는 그가 그들에 대신하여 신약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수행시키는 합법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자라고 상정된다고 하는 방식인 것이다. 그것에 맞서서 신은 말한다.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170] 여기에서 이 제1의 점이 결론 내려질 수 있다. 즉 신이 직접 말하지 않은 사람들은 신의 실정적인 명령을 그들의 주권자로부터 받아 내야 할 것이며, 아브라함의 가족과 자손이 그들의 아버지이건 주이며 정치적 주권자인 아브라함으로부터, 한 것과 같다.

아브라함은 그 자신의 백성의 종교를 명령하는 유일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따라서 어떤 코먼웰스에 있어서도, 그 반대의 초자연적인 계시를 가지지 못한 사

170 〈창세기〉 18장 18~19절.

람들은 종교의 외적(外的) 행위와 고백에 있어서 그들 자신의 주권자의 여러 법에 복종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의 내면적인 '사상'과 '신앙'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인간인 통치자들이 알 수가 없는 것이며 *(왜냐하면 신만이 마음을 알고 있다)* 그것은 의지적이기는 하지만 여러 법의 효과도 아니며 계시되지 않은 의지에 의해서 신의 힘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의무가 지워질 수 없다.

아브라함의 종교에 대해서는 사적인 영을 주장할 수는 없다 거기에서 또 하나의 논점이 제기된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신민들 중의 누군가가 사적인 환영(幻影) 또는 영, 혹은 그 밖의 신의 계시를 주장하고 아브라함이 금지할 어떠한 교의를 지지한다든가 하는 경우 또는 누구이든 그러한 참칭자(僭稱者)에게 그들이 복종하든가 집착하든가 하는 경우 그들을 처벌하는 것은 아브라함으로서는 불법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주권자에 있어서, 여러 법에 자기의 사적인 영을 대립시키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처벌하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코먼웰스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 자신의 가족 가운데서 지녔던 것과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신이 말한 것에 대해서의 유일한 판정자이며 해석자이다 같은 것으로부터 제3의 논점도 또한 나온다. 즉 아브라함만이 그의 가족 가운데서 신의 말이 어떠한 것이며 또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교의 코먼웰스에서는 주권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신은 아브라함에게만 말한 것이며, 그만이 신이 말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그것을 그의 가족에 대하여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또한 코먼웰스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신이 말한 것에 대한 단 하나의 해석자인 것이다.

모세의 권위는 거기에 바탕을 둔다 같은 신약은 이삭과의 사이에서 갱신되고 후에는 야곱과의 사이에서 갱신되었으나 그 후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 사람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시나이 산의 기슭에 도착하기까지 일찍이 갱신되지는 않았던 것이며, 그리고 그때에는 그것은 모세에 의해서 *(내가 앞서 35장에서 말한 바대로)* 그때 이래 그들이 신의 특수한 왕국이 된다는 방식으로 갱신되었다. 그 신의 대행자가 모세 자신의 시대에는 모세였으며, 그 직무의 계승은 아론과 그의 뒤에는 그

상속자들에게 정해져서 신에게 있어서 영구히 제사의 왕국이어야만 했다.
이 기본 구조(基本構造)에 의해서, 하나의 왕국이 신의 밑에 들어갔다. 그러나 모세가 아브라함의 권리의 계승자로서, 이스라엘 사람을 통치하는 권위를 그는 상속에 의해서 그것을 주장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면 백성은 여전히 신이 그에게 말한 것을 믿지 않게 됨으로써 그를 신의 대행자로 이해하도록 의무 지워졌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리하여 그것 때문에 그의 권위는 *(그들이 신과 맺은 신약에도 불구하고)* 또 단순하게 그들이 그의 신성함에 대하여, 그의 신과의 회합의 현실성과 그의 여러 기적의 진실성에 대하여 가진 의견에 의존했다. 그 의견이 변하게 되면 그는 이미 그가 신의 이름으로서 그들에게 나타내 보인 어떠한 것도 신의 법이라고 해석하도록 의무 지우지는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의무의 그 밖의 어떤 근거가 있었는가를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그들을 의무 지울 수 있었던 것은 신의 명령일 수는 없었으니, 왜냐하면 신은 직접 그들과 말하지 않고 모세 자신의 매개에 의해서만 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는 그 자신에 대하여,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171]라고 말하고 있다. 더구나 모세가 그 자신에 대하여 증언한다면, *(특히, 신의 백성에 대하여 왕의 권력을 가진다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그의 증언은 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권위는 다른 모든 군주의 권위와 같이 백성의 동의와 그에 복종한다고 하는 그들의 약속과에 바탕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였다. 즉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 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172] 여기에 그들은 신의 명령으로서 그가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든 복종하도록 의무 지워진 것이었다.

171 〈요한복음〉 5장 31절.
172 〈출애굽기〉 20장 18~19절.

모세는 *(신의 밑에서)* 그 자신의 시대의 모든 것에 걸쳐서, 아론이 제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들의 주권자였다 그리고 신약이 제사의 왕국, 즉 아론에 세습될 왕국을 설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모세가 죽은 후의 계승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일이다. 왜냐하면 누구이든 코먼웰스의 최초의 설립자로서 *(그것이 황제이든, 귀족제이든, 민주제이든)* 정치의 질서를 잡고 수립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가 그것을 하고 있는 동안 백성에 대하여 주권을 장악하고 있을 것임이 틀림없다. 더구나 모세가 그의 시대의 모든 것에 걸쳐 그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성경》에서 명백히 긍정되는 것이다.

첫째, 조금 앞에 인용한 본문에 있어서이며, 왜냐하면 백성은 아론에서가 아니라 그에게 복종을 약속했었기 때문이다. 둘째,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173] 그것으로서 명백한 것은, 오로지 혼자서 신의 밑으로 부름을 받은 모세*(아론이 아니고, 다른 제사들도 아니고, 70인의 장로도 아니고, 올라오는 것이 금지된 백성도 아닌)*만이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신의 인격을 대표한다고 하는 것, 즉 신의 아래에서의 유일한 그들의 주권자였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뒤에는*(9~10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러한 것은 먼저 모세가 신을 보고 나서, 신이 그에게 이야기한 말을 백성들에게 일러 준 뒤가 되기까지는 없던 것이다. 그만이 백성의 여러 가지 일을 위해서 말했으며, 그 밖의 사람들은 그를 수행하는 귀족으로서 백성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던 그 특별한 은총에 참여하는 것을 명예로서 허용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다음 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신을 보고, 더구나 살아 있다고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

173 〈출애굽기〉 24장 1~2절.

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즉 살아 있었다)*라고 하였으나 그로부터 아무런 명령도 백성에게 전하지 않았다. 더욱 여러 곳에서 주가 '모세'에게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것은 통치에 대한 다른 모든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종교의 의식의 질서에 대해서도, 〈출애굽기〉 25~31장과 〈레위기〉의 전체에 포함되어 있다. 아론에 대해서는 좀처럼 없다. 아론이 만든 송아지를 모세는 불에 던져 버렸다.

끝으로 아론의 권위의 문제는 그의 및 미리암의 모세에 대해 반역했을 때, 주 자신에 의해서 모세를 지지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세도 백성과의 사이에 있어서 누가 백성을 지배하는 권리를 가지는가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고라, 다단, 아비람과 합의체의 250인의 군주가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리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174] 신은 대지에 고라, 다단, 아비람을 그들의 처자와 함께 산 채로 삼켜지게 하고, 250의 군주를 불러서 멸망시켰다. 따라서 아론도, 백성도 백성의 주요한 군주들이라는 어떤 귀족 제도도 아니고, 모세만이 신에 다음가는 이스라엘에 대한 주권을 가졌던 것이며, 더욱이 시민 정치의 여러 문제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종교의 여러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했다. 즉, 모세만이 신과 말한 것이며, 따라서 그만이 백성에게 신이 그들의 가까이에서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일러 줄 수 있었다.

누구도 죽음의 벌을 범해서까지, 신이 모세와 대화하는 산에 가까이 갈 정도로 건방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너는*(이라고 주는 말한다)*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녕 죽임을 당할 것이라.'[175] 다시 또 *(21절)*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申飭)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거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교적 코먼웰스에 있어서 모세의 지위를 지키는 것

174 〈민수기〉 16장 2~3절.
175 〈출애굽기〉 19장 12절.

은 누구이든 신의 단 하나의 사자이며, 그의 명령의 단 하나의 해석자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에 맞서서, 누구도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그들 각자의 주권자들에 의해서 설정되는 경계(境界)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즉 《성경》은, 신이 현재 그 가운데서 말하는 것이므로 시나이 산인 것이며 거기에 대한 경계는 지상에서 신의 인격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법인 것이다. 《성경》을 보고, 그 속에서 신의 놀라운 작업을 지켜보고 그를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허용되어 있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것, 즉 신이 그의 아래서 통치하도록 임명한 자에게 하는 것을 살피고, 자신들을 그가 신에 명령된 대로 통치하는가, 어떤가에 대해서의 심판자가 되는 것은, 신이 우리에게 대하여서 놓아 둔 경계의 침범이며, 불경스럽게 신을 바라보는 것이다.

모든 영은 모세의 영에 종속한다 모세 시대에는, 그가 승인하고 권위 지운 것 이외에는 예언자는 없었으며, 신의 영을 지녔다고 일컫는 사람도 없었다. 즉 그의 시대에는, 신의 영으로 의해서 예언한다고 하는 것은 70인 뿐이었으며, 이들은 모두 모세가 선정한 자들이었다. 그들에게 대하여 신은 모세에게 말했다.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네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오라.'[176] 이것들에 대하여 신은 그의 영을 나누어 주었으나 그것은 모세의 그것과 다른 영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177]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앞에 시사한 것처럼*(36장)* '영(靈)'이 뜻하는 것은 '정신'이며, 따라서 그곳에서의 의미는, 다음 것 외에 없는 것이다. 즉 신은 그들에게 모세의 정신에 순응하고 종속하는 정신을 내려 주어서 그들이 예언할 수 있도록, 즉 모세의 교의에 일치하는 교의를 *(모세의 대행자로서, 그의 권위에 의하여)* 가르친다는 방식으로, 신의 이름으로서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것이다.

176 〈민수기〉 11장 16절.
177 〈민수기〉 11장 25절.

그들은 대행자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들 가운데서 두 사람의 회막에서 예언했을 때, 그것은 새로운 불법적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 27~28절에 있는 대로,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비난받았으며, 여호수아는 그들이 모세의 영에 의해서 예언한 것을 알지 못하고, 모세에게 그들을 중지시키도록 충고했다. 그것에 의해서 명백한 것은 어떠한 신민도 신이 모세의 지위에 있게 한 사람에 의해서 수립된 교의에 어긋나서는 예언을 한다든가 영을 지녔다고 꾸며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모세 이후에는, 주권은 제사장에게 있었다 아론이 죽고 그의 후에 모세도 죽으니, 그 왕국은 제사의 왕국이었으므로 신약에 따라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Eleazar)에 계승되었다. 그리고 신은 그를 *(신 자신의 다음으로)* 주권자라고 선언하고, 아울러 여호수아를 그들의 군대의 장관에 임명했다.

즉 여호수아에 대하여, 신은 이렇게 밝히고 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 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178] 따라서 화전(和戰)을 행할 최고의 권력은 그 제사(祭司)에 있었다. 사법의 최고 권력도 또한 그 제사장에게 있었다. 왜냐하면 법전은 그들이 보존하고 있었으며, 제사들과 레위 사람들은 〈신명기〉 17장 8~10절에 명백한 대로, 민사 사건에 있어서의 종속적 재판관에 지나지 않았던 때문이다. 그리고 신을 숭배하는 형식에 대해서는 사울(Saul) 때까지 제사장이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의심도 결코 가질 수 없었다. 그러니까 정치적 및 교회적 권력은, 모두가 하나이면서 둘이 될 수 없는 인격, 즉 제사장에 있어서 결합되어 있었던 것이며 신성한 권리에 의해서 즉 신으로부터의 직접적 권위에 의해서, 통치하는 그 무엇에 있어서도 그러했어야 할 것이었다.

여호수아의 시대와 사울 시대 사이의 주권에 대하여 여호수아의 사후 사울의 때까

178 〈민수기〉 27장 21절.

지 사이의 시대는 〈사사기〉에 여러 번,[179]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때로는 다음의 추가를 수반한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것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왕이 없었다'고 말하는 경우에는, '이스라엘에 주권이 없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이 만약, 그러한 권력의 행위 및 실시를 고찰한다면, 역시 그대로였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및 엘르아살의 사후(*死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180]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성 바울이 알아차린 대로, 그들이 모세의 통치에 복종하려고 하던 점뿐 아니라 그들의 복종에 의해서 자신들을 의무 지운 후에도 또한, '표적을 요구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표적 및 기적이란 신앙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한 번 그들이 그것을 주어 버린 경우에는, 그것을 사람들이 파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자연의 법에 따라서 의무 지워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통치의 실시로서가 아니라 권리로서 고찰한다면, 주권은 여전히 제사장에 있었다. 따라서 어떠한 복종이 재판관들(*그들은 신에 의해서 일반적이 아니라 선택된 사람들이며, 그의 반란적인 신민들을 적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한 자들이다*)의 누군가에 대해 제공되더라도, 제사장이 정치와 종교의 두 가지의 모든 사항에 있어서, 주권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에 반대하는 논의 속으로, 그것을 끌어들일 수는 없다. 그리고 재판관들도, 사무엘 자신도 통치에 대한 통상적인 소명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중요한 소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에 의해서 복종이 지워진 것은 의무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지혜, 용기, 지복 가운데 나타난 신의 은총에의 존경으로서였다. 따라서 여기까지는 정치와 종교의 쌍방을 규제하는 권리는 분리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권리에 대하여 재판관들에는 국왕들이 계승되었다. 그리고 전

179 〈사사기〉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
180 〈사사기〉 2장 10~11절.

에는 종교와 정치 쌍방의 모든 권위가 제사장에게 있었던 것에 대하여 지금은 그것은 모두 국왕에게 있었다. 왜냐하면 전에는 신의 권력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 및 그의 지상의 대행관으로서 그에게 따르기로 한 제사장과의 개별적인 약속에 따르는 이 백성 세대 한 주권이, 백성에 의해서 신 자신의 동의를 얻어 폐기해 버렸기 때문이다. 즉 그들이 사무엘에게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181]라고 했을 때 그들이 제시한 것은, 그들은 이 이상 신의 이름으로서 제사에 의하여 그들에게 주어질 명령에 의해 통치받고 싶지 않으니, 다른 모들 국민들이 명령받고 있는 것과 동일한 형식으로 그들에게 명령할, 한 사람으로부터 통치를 받고 싶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왕의 권위를 가진 제사장을 배척하는 것으로서, 그들은 그 신의 특별한 통치를 배척한 것이다. 더구나 신은 사무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며, 그것에 동의했다.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국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182] 따라서 제사들이 신의 권리로 통치한 그 신을 거부해 버리고 나면, 제사들에게는 국왕이 그들에게 허용한 만큼의 권위밖에 남겨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 권위는 많은 것이든 적은 것이든 국왕들이 좋은가 나쁜가에 맞섰다. 그리고 정치적인 여러 문제를 통치함에 있어서, 그것이 모두 국왕의 수중에 있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즉 같은 장의 20절에서, 그들은 모든 국민들과 동일하게 되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의 국왕이 그들의 재판관이고 그들의 앞에 서서 그들의 전투를 싸워야 할 것이다. 즉 그가 화전(和戰) 쌍방에 있어서의 전(全) 권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 가운데는 종교의 질서도 포함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모세의 율법 외에는 종교를 규제할 신의 말은 없었으며, 모세의 법은 그들의 시민법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는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쫓아 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183]를 읽는다. 그런 까닭에 그는 제사장에 대하여, 다른 어떤 신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며, 그것은 종교에 있어

181 〈사무엘상〉 8장 5절.
182 〈사무엘상〉 8장 7절.
183 〈열왕기상〉 2장 27절.

서의 지상성(至上性)의 커다란 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가 신전(神殿)을 헌상한 일, 그가 백성을 축복한 일, 그 스스로 모든 교회 그리고 예배당의 성별(聖別)에서 쓰이고 있는 그 훌륭한 기도의 말씀을 만들어 낸 것[184]을 읽음으로써 그것은 종교에 있어서 지상성의 또 하나의 큰 표적인 것이다. 다시 우리는 신전 가운데서 발견된 법전에 관한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는 제사장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요시야는 그와 다른 사람들을 그것에 대해서 여자 예언자 훌다(Heldah)에게 물어 보게 하기 위하여 보냈다는 것[185]을 읽는 것이며 그것은 종교에 있어서의 지상성의 또 하나의 표적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윗이 하사바와 그의 형제, 즉 헤브론 사람을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게' 하여, 서쪽의 이스라엘을 주관하는 관리로 삼은 것[186]을 읽는다. 그가 다른 헤브론 사람들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이들은 요르단의 저편에 살던 이스라엘의 나머지 사람들이었다)*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한' 것*(32절)*도 마찬가지다. 이 완전한 권력은 그것을 분할하고 싶어 하던 사람들이 반가워하는 것으로 보면, '현세적임'과 동시에 '영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결론적으로 신의 왕국이 최초의 설립으로부터 사로잡힘에 이르기까지, 종교에 대해서의 지상성은 정치적 주권에 대한 그것과 같은 수중에 있었다. 그리하여 제사의 직무는 사울이 선택된 후에는 위정자적(爲政者的)이 아니고 대행자적(代行者的)이었다.

종교에 있어서의 지상성의 실행은, 왕들의 시대에 있어서의 그것에 대한 권리에 대응하지 않았다 정치와 종교의 쌍방에 있어서의 통치가 처음은 제사장들에 의해서, 다음에는 국왕들에 의해서 권리에 관한 한에는 결합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성한 역사에서 보아 백성이 그것을 이해하지 않았던 것이 명백해진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커다란 부분, 아마도 최대 부분이 그들의 통치자들의 일 가운데 위대한 기적, 혹은 *(기적에 대등한 것)* 위대한 능력, 혹은 위대한 지복을 보는 한도밖에는 모세의 명성에도, 신과 제사들의 회담에도 충분한 신용을 하지 않았으

184 〈열왕기상〉 8장.
185 〈열왕기하〉 22장.
186 〈역대상〉 26장 30절.

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통치자들이 자신들을 불쾌하게 할 적마다 그 기회를 이용하여, 때로는 정치를 때로는 종교를 비난하는 것으로서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통치를 변경하기도 하고, 복종을 어기기도 했다. 그리하여 거기에서 때때로, 그 국민의 정치적인 분쟁, 분열, 재액이 생기게 되었다. 예를 들면 엘르아살과 요시야의 죽고 난 후, 신의 기적을 보지 않고 자기 자신들의 약한 이성대로 버려 버린 다음의 세대는, 그들 자신이 제사의 왕국의 신약에 의해서 의무 지워진 것을 모르고, 이미 제사의 명령도, 모세의 어떠한 율법도 존중하지 않고, 각자가 그들 자신의 바른 소견대로 행위를 했다. 그리고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는, 그때그때에 그들이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던 인근의 여러 국민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복종하였으며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신에게는 상의하지 않고 장차 닥쳐 올 일들을 예시하였으니, 예언자일 것이라고 그들이 추측한 남자와 여자에게 상의했다. 또 그들은 자신들의 예배당에 하나의 우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래도, 만약 그들이 그 예배당 목자로서 레위 사람들을 지키고 있다고 하면, 자신들은 이스라엘의 신을 숭배하고 있다고 변명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후에 그들이 여러 나라 국민의 방식을 본받아서 국왕을 요구했을 때, 그래도 그것은 그들의 국왕인 신의 숭배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었으며, 그들은 사무엘의 자식들의 재판에 절망했기 때문에 사회적 여러 행위에 있어서 그들을 재판하는 국왕을 받들고자 생각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모세에 의해서 그들에게 추대되었다고 생각하던 종교를, 그들의 국왕이 변경시키는 것을 용서하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항상 정의나 혹은 종교의 구실을 갖추어 놓고, 그들이 우세해질 가망이 있으면 언제나, 자신들이 복종으로부터 해제되도록 했다. 백성이 국왕을 희망했으므로 사무엘은 그들을 불쾌하게 생각했다. *(왜냐하면 신이 이미 그들의 국왕이었고 사무엘은 그 아래서 권위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이 신이 명령한 대로 아각(Agag)을 멸망시키는 데 있어서 그의 충고를 지키지 않았을 때, 또 한 사람의 왕, 즉 다윗에게 기름을 발라 그(사울)의 상속자들로부터 계승을 빼앗아 버렸다. 르호보암(Rehoboam)은 우상 숭배자는 아니었지만 백성이 그를 억압자라고 생각했

을 때, 그 정치적인 주장은 열 지파*(10氏族)*를 그로부터 이탈하여 우상 숭배자 여로보암(Jeroboam)을 섬기게 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대의 그것도 이스라엘의 그것과 같이, 여러 국왕의 역사 전체를 통하여 언제나 예언자가 있어서 국왕을 종교의 침범에 대해서 또 때로는 국가의 오류에 대해서 통제했다.[187] 예를 들면 여호사밧(Jehoshaphat)은 시리아 사람들에 대항하여 이스라엘의 국왕을 구조한 것에 대해서, 예언자 예후(Jehu)에게 문책을 받았으며, 히스기야(Hozekiah)는 이사야(Isaiah)에 의해서, 그의 보물을 바벨론의 대사(代使)에게 내보인 것에 대하여 그렇게 당했다. 그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국가와 종교의 쌍방에 대한 권력은 국왕에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 중의 한 사람도 그것의 사용에 있어서 통제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다만 그들 자신의 태어나면서부터의 능력 또는 지복에 대하여 신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별도였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시대의 관행에서 보아 종교에 있어서의 지상권이 국왕들에게 없었다고 하는 논거를 꺼내는 것은 우리들이 그것을 예언자들에게 있어서, 다음과 같이 결론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즉 케루빔(Cherubim)〔그들〕 앞에서 주에게 기도한 히스기야가 거기서 답을 얻지 못하고, 후에 예언자 이사야에 의해서 답을 받았으므로 이사야가 교회의 최고의 수장이었다든가, 혹은 요시야가 법전에 대하여 여자 예언자 훌다에 상담했으므로 그도 제사장도 아닌 여자 예언자 훌다가 종교의 여러 일에 대하여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든지 하는 결론이다. 그것은 나의 생각으로서는, 어떠한 박사의 의견도 아니다.

포로가 된 이후, 유대 사람들은 아무것도 정착된 코먼웰스를 지니지 않았다 사로잡힘 동안, 유대 사람들은 전연 코먼웰스를 가지지 않았다. 그리고 귀환한 뒤에는, 그들은 신과 그들의 신약을 갱신했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에스드라(Esdras)에 대해서도, 다른 누구에게 대해서도 복종에 대하여 이루어진 약속은 없었다. 그리고 그 뒤 곧, 그들은 그리스 사람의 신민이 되었다. *(그리스 사람의 관습과 악마학에서, 또 유대의 신비주의자의 교의에서 그들의 종교는 크게 부패하게 되었다)* 국가와 종교

187 〈역대하〉 19장 2절.

의 양쪽에 있어서의 그들의 혼란에서, 어느 쪽의 지상성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추측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그렇게 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 관한 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려도 좋을 것이다. 즉 유대 사람들 중 코먼웰스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일이지만 신의 외면적인 숭배에 대한 사항에 있어서의 최고 권위를 가지며 신의 인격(人格), 즉 아버지이신 신의 인격을 대표한 것이다. 더욱이 즉 그는 인류를 그들의 죄에서 구속하고 그의 영원한 왕국에 그들을 인도하여 금후 영구히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낼 때까지는 아버지라는 명칭으로서 불리지 않았다. 그것에 대하여 우리들은 다음 장에서 말하게 될 것이다.

제41장 우리의 축복받은 구세주의 직무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직무의 세 부분 우리들은 《성경》 가운데서 '구세주(Messiah)의 직무'의 세 가지 부분을 본다. 제1은 '속죄자(贖罪者)〔redeemer, 되사들인 사람〕', 즉, '구제자〔Saviour〕'라는 직무, 제2는 '목자〔paster〕', '조언자〔counsellor〕', 혹은 '교사〔teacher〕'라고 하는 직무이며, 그것은 신이 구원을 위해 선정한 사람들을 개종(改宗)시키기 위해서 신으로부터 보내어진 예언자라는 직무이다. 제3은 '왕(King)', '영원한 왕(eternal King).' 그러나 그의 아버지 아래서의 직무이며, 모세와 제사장들이 그들 각자의 시대에 있어서 그러했던 것과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부분에 세 가지의 시대가 맞선다. 즉 그가 처음으로 왔을 때에 그가 희생으로서 행한 우리의 속죄, 그 희생에 있어서 그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그 자신을 십자가 위에 바쳤다. 그가, 일부는 그때 그 자신의 인격으로서 행하였으며, 일부는 현재 그의 대행자에 의해서 행하고, 그의 재래(再來)까지 계속해서 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재래 이후에는, 그의 선민(選民)에 대하여 영원히 계속되어야 할 그의 영광스런 지배가 시작될 것이다.

속죄자로서의 그의 직무 '속죄자', 다시 말해서 죄의 배상을*(그 배상은 죽음이다)* 지불하는 자의 '직무'에 대하여는, 그가 희생이 되었다는 것, 그것으로서 우리의 불공정(不公正)을 우리 신이 요구한 대로의 방식으로 그의 머리 위에 이고, 우리로부터

가져가 버린 것이 그에 속하는 것이다.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범행을 정의(正義)의 지엄(至嚴)함으로써 보상된다는 것이 아니라, 신의 자비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며, 그 신의 자비는 죄에 대하여 그가 자비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희생을 정한 것이다. 구(舊)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레위기〉 16장에서 읽은 것과 같이)* 주는 제사와 그 밖의 모든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매년 한 번씩의 죄 값을 치르도록 요구했다. 그것을 함에 있어서, 아론만이 그와 제사들을 위해서 거세(去勢)한 수송아지를 희생으로 할 것이며, 백성 중의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는 그들로부터 두 마리의 염소를 받아야 될 것이며, 그 한 마리를 그가 '희생으로 해야' 되었다. 그러나 또 한 마리에 대해서 말하면 그것은 '속죄의 염소(*도망시키는 염소*)'인 것이며, 그는 그 머리에 그의 양손을 얹고 백성의 불공정을 고백하는 것으로서, 그 모든 것을 그 머리 위에 얹고, 그리고 그 염소를 누군가 적당한 사람에게 광야에 몰고 가게 하여, 거기서 '도망'가게 하여서, 그것과 더불어 백성의 불공평을 가져가 버리게 하도록 하여야 했다. 한 마리의 염소의 희생이, 전 이스라엘의 배상으로서 충분한*(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었으므로)* 값어치였던 것처럼, 구세주의 죽음은 전 인류의 죄에 대한 충분한 값어치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상은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구세주인 그리스도의 여러 수난은, 여기에 이삭(Isaac)의 봉납, 혹은 《구약 성경》에 있어서의 그와 같은 어떠한 다른 봉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그려지는 것같이 생각된다. 그는 희생한 염소와 속죄의 염소와의 두 양이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188] 여기서는, 그는 '희생의 염소'이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189] 다시 *(16절)*,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하여 그는 '속죄의 염소'이다. '그가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8절)*' 거기에서 그는 다시 '희생

188 〈이사야〉 53장 7절.
189 〈이사야〉 53장 4절.

의 염소'이다. 그리고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11절)*.' 그는 '속죄의 염소'인 것이다. 이렇게 하여, 신의 어린 양들은 그러한 염소들의 쌍방에 동일한 것이며, 그가 죽은 것에 의해서 희생이 되고, 그의 부활에 있어서 면한 자가 되는 것이다. 때를 얻어서 그의 아버지에 의해 일어나고, 사람들의 사는 곳으로부터 그의 승천으로 옮겨진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속죄'하는 사람은, '속죄당하는 자'에 대해서 '속죄'에 앞서 배상이 지불되기 전에는 권리를 가지지 않는 것이며, 그리고 그 배상은 속죄하는 사람의 죽음이었으므로, 우리의 구세주*(인간으로서의)*는 그가 죽음을 받기 전에는 즉, 그가 지상에서 육체화(肉體化)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그가 속죄한 사람들의 왕이 아니었음은 명백하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때 그는, 신앙 깊은 사람들이 세례에 의해서 그와 맺는 약속에 의한 현존의 국왕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과의 약속을 세례로서 갱신하는 것으로서, 그들은*(그의 아버지 아래서의)* 국왕으로서의 그에게 복종하도록 의무 지워진 것이며, 그것은 언제든지 그가, 왕국을 차지하고 산다고 생각만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것에 맞서서 우리의 구세주 스스로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190]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런데 《성경》이 두 개의 세계만, 즉 지금 존재하며 심판의 날까지 *(그러므로 그것은 최후의 날이라고도 불린다)* 존속할 이 세계와, 심판의 날 후에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존재할 그때에 존재하게 될 저 세계라는 그 두 개만을 들고 있을 뿐인 것을 보면, 그리스도의 왕국은 보편적 부활까지는 시작되지 않을 것이었다. 그리하여 우리의 구세주가 말하는 것은 그것인 것이다.[191]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자에게 각자의 일에 따라서 보답을 주는 것은 왕의 직무를 집행하는 것이며, 이것은 그가 그의 아버지의 영광 속에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올 때까지는 없는 것이다. 우리의 구세주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

190 〈요한복음〉 18장 36절.
191 〈마태복음〉 16장 27절.

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가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192] 라고 하는 경우, 그는 그때에 있어서의 국왕의 권력을 그가 자신에게 아니라, 그들에게 귀속시키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193]라고 하는 경우,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함이로다'[194]라고 할 경우, 그는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래도 우리 구세주는, 장차 올 세상에서 국왕 및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온 것이니, 그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신의 기름을 바른 제사(祭司)로서 주권적 예언자였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그는 예언자 모세와, 모세를 계승한 제사장들과, 제사들을 계승한 국왕들과 더불어 모든 권력을 가져야 할 것이었다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 요한은, 명백히 말한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느니라.'[195] 그리고 이것은,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오지 않았다'고 하는 저 다른 장의 그 부분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현재의 세계에 대한 말인 것이며, 다른 쪽은 장차 올 세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재래에 임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196]

그리스도가 온 목적은, 신의 왕국에 대한 신약을 갱신하는 것이며, 선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것이니, 그것이 그의 직무의 제2의 부분이었다 그러면 만약 그리스도가 지상에 있던 동안, 이 세상의 왕국을 가지지 않았었다고 하면, 그가 처음 온 목적은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새로운 신약에 의해서 왕국을 신에게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며, 그 왕국은, 묵은(舊) 신약에 의해서 그의 것이면서도 사울의 선

192 〈마태복음〉 23장 2~3절.
193 〈누가복음〉 12장 14절.
194 〈요한복음〉 12장 47절.
195 〈요한복음〉 5장 22절.
196 〈마태복음〉 19장 28절.

출에 있어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역에 의해서 분리되었던 것이다.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그는 그들에게 향하여 자신이 '구세주'라는 것, 즉 예언자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약속된 국왕이라고 하는 것을 설교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며, 마음속으로부터 자신들을 그것에 복종시킬 사람들의 죄에 대한 희생으로서 그들 자신을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그리고 그 국민이 모조리 그를 거부한다면, 이방인들 중에서 그를 믿게 될 사람들의 그에게의 복종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세주가 지상에 있는 동안의 그의 직무에는 두 가지 부분이 있다. 하나는 그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 또 하나는 가르침으로써 기적을 이룩하는 것으로서, 그가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수령(受領)하기 위하여 위엄을 지니고 찾아올 때 신자들이 즐겨야 할 불사성(不死性)에 값어치가 될 만한 생활을 하여 설득하고 준비하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그의 설교의 시기(時期)가 가끔 그 자신에 의해서 '재생(再生)'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진짜의 왕국은 아닌 것이고, 따라서 그때 위정자였던 자들에게의 복종을 부정하는 근거도 아니며, *(왜냐하면 그는, 그때 모세의 자리에 앉았던 자에게 복종하고, 카이사르에게 공납(貢納)을 지불하도록 명령했기 때문이다)* 신이 그의 제자이며 그를 신앙한다는 은총을 준 사람들에게 대하여, 앞으로 올 신의 왕국에 대한 보증에 불과했다. 그 이유 때문에 신앙 깊은 사람들은, 그 천상의 왕국에 귀화(歸化)한 것처럼 이미 '은총의 왕국'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설교는 그 당시의 유대 사람들의 법에도, 카이사르의 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까지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가르쳐진 것으로서 유대 사람들의, 혹은 카이사르의 정치적 권리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즉 그 당시 유대 사람들 사이에 있던 코먼웰스에 대해서는, 그들 중에서 지배를 하고 있던 사람들도 통치를 받고 있던 사람들도 모두 구세주와 신의 왕국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며, 그것은 만약 그들의 법이 그에게*(그가 왔을 때에)* 그 자신을 명백히 나타내고 선고하는 것을 금지시켰다면, 그들이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가 설교와 기적에 의해서 자기가 구세주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면 그는 그런 경우

에 아무것도 그들의 법에 어긋나는 것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가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한 왕국은 또 다른 세계에 있어야 했다. 그때까지의 사이에는,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따르라고 그는 모든 사람에게 가르쳤다. 그는 그들이 카이사르에게 공납하는 것을 용서했으며, 스스로 재판관이 되는 것을 거부했다. 그러면 어떻게 그의 말과 행위가 소란한 것이었던가, 혹은 그들의 당시의 정치적 통치를 뒤엎는 방향으로 향했던 일들이 있을 수가 있었는가. 그러나 신은, 그의 선민들을 이전의 신약에 의한 순종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그의 희생을 결의해 버렸으므로, 그 효과를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들의 악의와 망은(忘恩)을 이용한 것이다. 이것은 또 카이사르의 법에도 위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빌라도(Pilate) 자신이 *(유대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에 걸려야 한다고 선고했지만, 그래도 빌라도는 그렇게 하기 전에 자기는 그의 나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공언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의 단죄(斷罪)의 근거를, 유대 사람들이 요구한 것처럼 '왕이라고 거짓말한 일'로서가 아니라, 다만 그는 '유대 사람들의 왕이었다'는 것으로 하여 그들이 소란을 피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변경하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쓴 것은 그런 그대로이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의 직무의 제3의 부분은 *(그의 아버지 밑에서)* 선민들의 왕이 되는 것이었다 그의 직무의 제3의 부분에 대하여서 말하면, 그것은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었지만, 나는 이미 그의 왕국이 부활까지는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가리킨 바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그는 왕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은 신으로서 그의 전능성(全能性)에 의해 지상의 모든 왕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다. 즉 그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미 국왕이었고 장래 계속해서 국왕이어야 하지만, 그것뿐 아니라 특별히 그 자신의 선민의 국왕이 되는 것이므로, 그들이 세례에 의해서, 그와 맺은 약속에 의하여 그러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구세주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197] 그의 사도들은 열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고 말하는 것이며, 그것으로서

197 〈마태복음〉 19장 28절.

그는 그때 자신이 그 인간 본성에 의해서 통치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었다. 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198]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것이다. 같은 것을 우리는, 〈마가복음〉 13장 26절과 14장 62절에, 또 시간(時間)에 대하여 더욱 명백하게는 〈누가복음〉 22장 29~30절에서 읽을 수 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것으로서 명백한 것은, 그의 아버지에 의해서 그에게 위임될 그리스도의 왕국은 인자(人子)가 영광 속에서 다가와 그의 사도들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심판자가 될 때보다,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사람은 다음과 같이 물을지도 모른다. 하늘의 왕국에서는, 결혼이 없다는 것으로 볼 때, 그런 경우 사람들은 먹고 마실 것인가.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구세주에 의해서 그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에, 설명되어 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199]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식탁에서 먹는다는 것으로서 뜻하는 것은, 생명의 나무에서 먹는 것 즉, 인자(人子)의 왕국에서 불사를 즐기는 것이다. 그 부분과 그 밖의 많은 다른 부분에 의해서 우리의 구세주의 왕국이 그에 의하여 그의 인간적인 본성에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하다.

신의 왕국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권위는, 그의 아버지의 권위에 종속한다 또 그가 그 경우 국왕이라는 것은, 모세가 황야(荒野)에서 그러했듯이, 사울의 다스림 앞에서 제사장들이 그러했듯이, 그 뒤에 왕들이 그러했듯이 아버지이신 신의 종속자, 즉 대행관으로서의 그 밖의 방식으로서는 하지 않았다. 즉 그가 *(직무에 있어서)* 모세에 비슷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하나인 것이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198 〈마태복음〉 16장 27절.
199 〈요한복음〉 6장 27절

그 입에 두리라'*(라고 주는 〈신명기〉 18장 18절에서 말한다)* 그리하여 모세와의 이 유사성은, 우리의 구세주가 지상에서 친교를 맺고 있는 동안의, 그 자신의 여러 행위에 있어서도 명백한 것이다. 즉 모세가 그의 아래서 통치하기 위하여 여러 지파의 열두 사람의 군주를 선정한 것처럼 우리의 구세주도 열두 보좌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할 열두 사도를 선정했다. 그리고 모세가 신의 영을 받아서 백성에게 예언하기 위하여, 즉 *(내가 앞에 말해 둔 것처럼)* 신의 이름으로서 그들에게 말하기 위하여 70인의 장로에게 권위 지운 것처럼, 우리의 구세주는 그의 왕국과 구원을 모든 국민에게 설교하기 위하여 70인의 제자를 정했다. 그리고 그 70인 중에 이스라엘의 회막 속에서 예언한 사람들에 대하여 모세에게 불만이 나왔을 때, 그가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서 그의 통치에 소용이 된다고 하여 그들을 시인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세주도 또한 성 요한이 그에게 그의 이름으로 악귀를 쫓아 낸 어느 사람에게 대하여 불만을 표했을 때,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200]라고 말하여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을 시인했다.

다시 우리의 구세주는 신의 왕국에의 '허용'과, 그의 선민을 그 비참한 상태에서 그가 구출한 '기념'의 그 두 가지에 대한 여러 성례(聖禮)의 설립에 있어서 모세를 닮았다. 이스라엘의 어린이들은, 모세의 시대 이전에 신의 왕국에의 그들의 받아들임에 대한 성례로서 '할례(割禮, Cireumeision)'의 의식을 가졌으며, 그 의식을 광야에서는 제외되어 있었지만, 그들이 약속한 땅에 이르자마자 곧 부흥되었다. 그와 같이 유대 사람도 또한 우리의 구세주가 오기 이전에 '세례'의 의식, 즉 이방인이면서 이스라엘의 신을 받드는 모든 사람들을 물로 씻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 의식을 세례의 성 요한은, 그리스도에게 자신들의 이름을 고하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사용하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가 이미 이 세상에 온 것을 설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구세주는 같은 것을 그를 신앙하는 모든 것에 의하여 해야 될 성례로서 설립한 것이다. 어떠한 원인으로 처음 세례의

200 〈누가복음〉 9장 50절.

의식이 생겼는가는《성경》속에 정식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으나 그것은 아마도 나병에 걸린 사람에 관한 모세의 법의 모방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그 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일정의 기간 이스라엘의 회막 밖에 머물러 있도록 명령을 받았고, 그 기간 후에는 제사에 의해서 청결하다고 판단이 되며 엄숙히 씻은 뒤에 회막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받았던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세례에 있어서 씻는 것의 원형일 것이다. 그런 때에는, 죄인 나병을 신앙으로서 정결하게 된 사람들이 세례의 엄숙함을 가지고 교회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이따금씩밖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의 이방인의 의례에서, 또 하나의 추측이 이끌어진다. 그리고 그것은 죽었다고 생각되었던 사람이 우연히 되살아난 경우, 그가 있음으로써 인간의 수(數)에 다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그와 대화하는 것을 유령과 대화하는 것처럼 주저했다고 하는 것이며, 새로 태어난 어린이들이 그들의 출산의 불결을 씻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일종의 신생(新生)이었다. 그리스 사람들의 이 의례가 유대 지역이 알렉산더와 그리스 사람들의 지배하에 있던 시대에, 유대인들의 종교 가운데 스며들었다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구세주가 이교도의 의식을 장려하리라는 것은 있을 법도 하지 않으므로, 그것은 나병 뒤의 세례의 법률상의 의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리고 '유월절에 어린 양을 먹는다'는 또 하나의 성례에 대해서는, 그것은 명백히 주의 만찬이라는 성례에서 모방되어 있다. 그 가운데는 빵을 찢는 것과 포도주를 붓는 것이 그리스도의 수난에 의하여 우리가 죄의 비참에서 구출된 것을 기억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며, 그것은 유월절의 어린 양을 먹는 것이, 이집트의 구속에서 유대인이 구출된 것을 기억에 머물도록 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모세의 권위가 종속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그가 신의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볼 때, 인간으로서의 그 권위가 모세의 그것과 닮았을 것이고 그리스도는, 마찬가지로 그의 아버지의 권위에 종속하는 자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된다. 그와 같은 것이 더욱 확실하게는 그가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고 있는 다음의 것으로서 나타나 있다. '아버지여, 당신의 왕국이 오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왕국, 그 권세, 그 영광은 영원히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또 성 바울이 말하는

다음 것에 의해서도 그러하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201] 다른 많은, 극히 명백한 곳에 의해서도 그러한 것이다.

바로 동일한 신이 모세에 의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대표하고 있는 인격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구세주는 가르치는 것과 지배하는 것과의 두 가지에 있어서, *(모세가 한 것과 같이)* 신의 인격을 대표한다. 그 신은 그때 이후, 그러나 그전에서는 아니고, 아버지라고 불린다. 그리고 또한 바로 동일한 실체(實體)이면서 모세에 의해서 대표된 것으로서의 인격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에 의해서 대표된 것으로서의 인격과는 별도인 것이다. 왜냐하면 '인격'은, '대표자'에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바로 동일한 실제의 인격이라 하더라도, 복수(複數)의 인격이 있다는 것이, 대표자가 복수라는 것에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42장 교회 권력에 대하여

교회 권력(Power Ecclesiastical)에 대하여, 그것이 무엇이며 누구에게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의 승천 이래의 시기를 두 부분으로 구분해야 할 것이다. 한 부분은 국왕들 및 주권적 정치 권력이 주어진 사람들이 개종하기 이전이며, 다른 한 부분은 그들의 개종 뒤이다. 즉 국왕 또는 정치적 주권자의 누구인가가 그리스도 종교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공공적으로 허용한 것은, 승천보다 훨씬 뒤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사도들에게 옮겨 간 성령에 대하여 그리고 그 동안의 시기에 대하여는 다음의 것이 명백하다. 즉, '교회 권력'은 사도들에게 있었던 것이며, 그들 뒤에는 그들에게 의해서 복음을 설교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교로 개종시키고, 개종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지도하도록 지정된 자에게 있었으며, 다시 이러한 사람들의 후에는 그 권력은 다시,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었다. 이 전달은 그렇게 정해진 사람들의 위에 손을 얹는 것으로서 이루어졌으며, 그것으로서 나타

201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나게 된 것은 성령 즉 신의 영을, 그의 왕국을 앞 장서 이끌어 갈 신의 대행자와 그들이 결정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었다. 따라서 손을 얹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교하고 그의 교의를 가르치는 데 대해서의 그들의 위임의 표적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손을 얹는다고 하는 그 의례에 의해서, 성령을 주는 것은 모세가 행한 의례(儀禮)의 하나의 모방이었다. 왜냐하면 모세는 같은 의례를 우리가 〈신명기〉 34장 9절에서 읽는 것과 같이, 그의 대행자 여호수아에게 대하여 사용했기 때문이다. '모세가 눈(Nun)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했다. 따라서 우리의 구세주는 그의 부활과 승천과의 사이에, 그의 영을 사도들에게 주었다. 처음은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202]라고 하는 것으로서였으며, 그의 승천한 뒤에는, 그들 위에 '급하고 강한 바람'과, '불의 혀'를 보내는 것으로서였다.[203] 그리하며 손을 얹는 것으로서는 아니었던 것이며, 신도 또한 모세의 위에 손을 얹지도 않았던 그대로이다. 그의 사도들은 뒤에 같은 영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대하여 한 것처럼 손을 얹는 것으로서 전달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서, 그리스도교의 코먼웰스가 아무것도 없었던 그러한 초기의 시대에는 교회 권력은 계속해서 누구에게 있었던가가 명백한 것이다. 즉, 그와 같은 것을 사도들로부터 계속 손을 얹는 것으로서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였다.

삼위일체(三位一體)에 대하여 여기서 우리는, 이제야 세 번째로, 생겨난 신의 인격을 갖는다. 즉 모세와 제자들이 구약 시대에서 신의 대표였고, 우리의 구세주가 그의 지상에 머무는 동안에 인간으로서 그러하였던 것처럼, 그 이후 쭉 성령(Holy Ghost)이, 다시 말하면 성혼(Holy Spirit)을 받은 사도들과 설교와 교화의 직무에 있어서의 그들의 계승자들이 그를 대표하여 왔다. 그러나 하나의 인격은 *(내가 먼저 16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것에 의해서 대표되는 사람인 것이며, 그가 대표될 적마다 그러한 것이다. 따라서 세 번을 대표되어 온 *(즉 인격화되어 온)* 신은, '인격'이라는 말이나 '삼위일체'란 말도, 《성경》 가운데는 그에게 귀착되어 있는 것이 아

202 〈요한복음〉 20장 22절.
203 〈사도행전〉 2장 2~3절.

니라 하더라도, 세 개의 인격이라고 해도 충분히 정당할 것이다. 성 요한은 정확하게 '증언하는 것이 하늘에 세 개가 있으니 아버지의 말과 성령인 것이며 이 셋은 하나이다'[204]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것은 인격의 올바른 뜻, 즉 다른 사람에 의해서 대표된 것이라는 뜻에 있어서 세 개의 인격에 일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조화를 이룩한다. 즉 그렇게 하여서 아버지인 신은 모세에 의해서 대표된 것으로서 하나의 인격이며, 그의 아들에 의하여 대표된 것으로서 또 하나의 인격이며, 그리고 사도들에 의해서, 또 그들로부터 이끌어 나온 권위에 의해 가르친 박사들에 의해서 대표된 것으로서 제3의 인격인 것이다. 더구나 여기에 있어서의 각 인격은 바로 같은 신의 인격인 것이다. 그렇지만 사람은 여기서, 이러한 세 개는 무엇으로서 입증한 것인가라고 물을지도 모른다. 성 요한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205]으로 입증한다고 일러 주고 있다. 다시 만약 그 증거가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고 질문을 받는다고 하면, 그 대답은 손쉬운 것이다. 즉 그는 같은 것을 그가 행한 여러 기적에 의해서 입증한 것이며, 첫째로, 모세에 의해서, 둘째에는 그의 아들 자신에 의해서, 최후로 성령을 받은 그의 사도들에 의해서였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그들의 시대에 있어서 신의 인격을 대표한 것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든가 설교하든가 한 것이다. 그리고 사도들에 대해서 말하면, 그의 부활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열두 사람의 최초로 위대한 사도들에 있어서의 사도다운 성격이었다. 성 베드로가 이스가리옷의 유다(Judas Iscariot) 대신에 새로운 사도가 선출되어야 할 때에, 다음 말을 사용하고 있는 곳에서, 명백하게 알 수 있는 대로이다.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206] 이러한 말들이 성 요한에 의해서 진술된, '증언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같은 부분에서, 지상에 있어서의 증언자의 또 하나의 삼위일체가 말해지고 있다. 즉 '지

204 〈요한1서〉 5장 7~8절.
205 《요한1서》 5장 11절.
206 〈사도행전〉 1장 21~22절.

상에서 증거하는 이는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207] 바꾸어 말하면 신의 영의 은총과 두 가지의 성례, 즉 세례와 주의 만찬이며, 그것들은 모두 신앙 있는 사람들의 양심에 영생을 보증한다고 하는 하나의 증언에 있어서 일치한다. 그 증언에 대하여 그는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10절)*.' 이 지상의 삼위일체에 있어서는, 통일성이란, 물질의 통일성이 아니다. 왜냐하면 영과 물과 피는, 같은 증언을 부여하는 것일지라도 같은 실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늘의 삼위일체에 있어서는, 그 여러 인격은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시기와 기회에서 대표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바로 동일한 신의 여러 인격인 것이다. 결론을 내린다면 삼위일체에 대한 교의는《성경》에서 직접 추론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항상 바로 동일한 신은 모세에 의해서 대표되는 인격, 육화(肉化)한 그의 아들에 의해서 대표되는 인격, 사도들에 의해서 대표되는 인격이었다. 사도들에 의해서 대표될 경우에는, 그들이 그것에 의해서 말한 성령이 신인 것이며, 그의 아들*(그것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었다)*에 의해서 대표될 경우에는 아들이 그 신이며, 모세 및 제사장들에 의해서 대표된 경우에는 아버지, 즉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그의 신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신성(神性)이란 의미에 있어서의 '아버지 · 아들 · 성령'이라고 하는 명칭이 결코《구약 성경》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이유를 추측할 수 있다. 즉 그러한 것들은 인격인 것이며, 그것은 그들이 그 명칭을 대표하는 데서 얻는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한 것은 갖가지 사람이 신의 아래서 지배하고 지도함에 임하여, 그의 인격을 대표해 버리기까지는 없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교회 권력이 우리의 구세주에 의하여 사도들에게 맡겨졌던가, 어떻게 해서 그들이 *(그들이 그 권력을 그만큼 잘 행사할 수 있도록)*, 성령이 주어졌던가를 아는 것이다. 그 성령은 그러한 이유로서 때때로《신약 성경》가운데서 '원조자', 즉 구원을 청하여 외치는 것을 나타내는 '파라클레토스(paracletus)'라고 불리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위로하는 자'로 번역되는 것이 보

207 〈요한1서〉 5장 8절.

통일 것이다. 거기서 우리는 그 권력 자체를 고찰해 보기로 하자. 그것은 무엇이던가, 그리고 누구에게 대한 것이었던가.

교회 권력이란 가르치는 권력에 지나지 않는다 벨라르미노 추기경은, 그의 일반적 논쟁 제3에서,[208] 로마 법황의 교회 권력에 관한 극히 많은 문제를 취급했다. 그리고 그것이 왕정적, 귀족 정치적, 민주 정치적인 것의 어느 것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권력의 그러한 종류는, 모두 주관적이며 강제적이다. 거기서 만약, 우리의 구세주에 의해서 그들에게는 아무런 강제 권력도 남겨지지 않고, 다음과 같은 권력, 즉 그리스도의 왕국을 포고(布告)하고, 사람들이 스스로 그것에 복종하도록 그들을 설득하고, 복종한 사람들에게 계율과 훌륭한 충고에 의해서 신의 왕국에 왔을 때에 그것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권력만이 남겨져 있다는 것, 그리고 사도들이나 그 밖의 복음 대행자들이, 우리의 학교 교사이지 우리의 지휘자는 아니며, 그들의 계율이 법이 아니라 유익한 충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히 된다고 하면, 그 경우에는 그러한 논의들은 모두 헛된 짓일 것이다.

그것에 대한 논의는, 그리스도 자신의 권력이다 나는 이미 *(앞 장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 세상의 것은 아닌 것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그의 대행자들도 *(그들이 국왕이 아닌 한)*, 그의 이름으로서 복종을 요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만약 최고의 국왕이, 이 세상에서 그의 국왕으로서의 권력을 갖지 않는다면, 어떠한 권위에 의해서 그의 관리들에게 복종이 요구되겠는가. 나의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이라고 우리의 구세주는 말한다)*, 나는 너희들을 보낸다. 그런데 우리의 구세주는 유대 사람들을 그의 아버지의 왕국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고 이방인에게 그 왕국을 받아들이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니, 심판의 날까지는 국왕의 위엄에 있어서, 그보다 더 그의 아버지의 대리로서도 지배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208 S. Roberto Francesco Romdo Bellarmino(1542~1621). 그가 그의 저서에서 법황의 정치 권력을 주장한 것을 뜻함.

재생(再生)이라고 하는 명칭에서 승천과 보편적 부활의 사이의 시기는, 지배가 아니라 재생이라고 불린다. 그것은 〈마태복음〉 19장 28절의 우리의 구세주의 말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심판의 날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두 번째의, 그리고 영광 있는 도래(到來)에 대하여 사람들을 준비하는 것이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으리라.' 또 성 바울의,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209]라고 하는 말에서도 그러한 것이다.

그것과 물고기를 잡는 것, 누룩으로 부풀게 하는 것, 씨를 뿌리는 것과의 비교에서 또 그것은 우리의 구세주에 의해서 불고기를 잡는 것으로 비유되고 있다. 즉, 사람들을 강제와 처벌에 의해서가 아니라 설득으로서 사람들을 이끌게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그의 사도들에게 대하여, 자신이 그들을 그만큼 되는 수(數)의 니므롯(Nimrods), 즉 '인간의 사냥꾼'으로 하려고는 말하지 않고, '인간의 어부'로 하려고 말한 것이다. 그것은 또 누룩으로 부풀게 하는 것, 한 알의 겨자씨의 증대에도 비유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에 의해서 강제는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그 때에는, 실제의 지배는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스도의 대행자들의 사업은 복음 전도, 즉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와 그의 재래에의 준비이다. 세례 요한의 복음 전도가 그의 최초의 도래에의 준비였었던 것과 마찬가지이다.

신앙의 본질에서 다시 이 세상에 있어서의 그리스도 대행자들의 직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대하여 신앙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강제 혹은 명령과는 조금도 관계없고 조금도 의존하지 않는 것이며, 이성(理性)에서, 혹은 사람들이 이미 믿고 있는 어떠한 것에서 이끌어 낸 여러 논거의 확실성 또는 개연성만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의 대행자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든가 그것에 반대한다든가에 대해서 그 칭호에 의하여 그 누구도 처벌할 권력을 주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행자라는 그 칭호에 의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권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나는 말하고 있는 것이며, 그러나 만약 그들이 정치적 제도에 의해서 주권적 정치 권력을 가지

209 〈에베소서〉 6장 15절.

고 있다고 하면, 그 경우에는 그들은 확실히, 그들의 여러 법이 어떠한 것이든 그것에 대한 어떠한 반대에도 합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성 바울은, 그 자신 및 당시의 복음 설교자인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명백한 말로서,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210] 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가 정치적 군주에게 맡겨 둔 권위에서 이 현재의 세상에 있어서의 그리스도 대행자들이, 명령하는 권리를 가지지 않았다고 하는 또 하나의 논거는, 그리스도가 모든 군주들에게 그리스도 교도이든, 신자가 아니든 똑같이 위임한 합법적인 권위에서 이끌어 낼 수 있다. 성 바울은 말한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211] 또, 22절에서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말한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주인으로 가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며, 더구나 그들은 '모든 일에 대하여', 주인들에게 순종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 군주들에게의 순종에 대하여,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212]고 권고하여, 그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는 것, 및 '노(怒)를 위하여만 할 것이 아니오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성 베드로는, 당신들은,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그가 보낸 방객(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213]라고 말한다. 다시 또 성 바울은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214]라고 말한다. 성 베드로 및 성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러 군주와 여러 권력은, 모두

210 〈고린도후서〉 1장 24절
211 〈골로새서〉 3장 20절.
212 〈로마서〉 13장 1~6절.
213 〈베드로전서〉 2장 13~15절.
214 〈디도서〉 3장 1절.

불신심자(不信心者)들이었다. 따라서 우리에게 대하여 주권을 가진 자라고 신이 정한, 그러한 그리스도 교도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은 더구나 말할 나위 없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 성원(成員)이며, 그것에 의해서 보호를 의존하고 있는 코먼웰스의 국왕 또는 다른 주권자 대표의 명령에 어긋나는 어떠한 일에도, 만일 누구이든지 그리스도의 대행자가 우리에게 그것을 하라고 명령한다면, 우리는 왜 그것에 순종하도록 구속을 받는 것일까. 때문에 명백히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있어서의 그의 대행자들에게는 그들이 정치적 권위도 부여받지 않은 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어떠한 권위도 위임하지 않았던 것이다.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교도는 무엇을 하면 좋은가 그러나 만약 어느 국왕, 혹은 원로원, 혹은 그 밖의 주권자 인격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금지한다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어떤 사람들은 반대할지 모른다)*. 이것에 대하여 나는, 그러한 금지는 효과가 없는 것이며, 왜냐하면 신(信) · 불신(不信)은 결코 인간들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신앙은 신의 선물로서, 사람은 그것을 보수의 약속이나 고문(拷問)의 위협으로서 부여할 수도 되빼앗을 수도 없는 것이다. 또 만약 우리가 합법적인 군주에 의해서, 자신의 혀를 놀려 믿지 않는다고 말하라고 명령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다시 질문을 받는다고 하자. 우리는 그러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혀에 의한 고백은 외부적인 일이며, 우리의 순종을 나타내는 다른 어떠한 몸짓에도 훌륭한 것은 아니며, 그리고 거기에서 그리스도 교도는,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신앙을 굳게 지니면서 예언자 엘리사(Elisha)가 시리아 사람인 나아만(Naaman)에게 용서한 것과 같은 자유를 가지는 것이다. 나아만은 그 마음으로서, 이스라엘의 신으로 개종했다. 즉,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Rimmon)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하

시기를 원하나이다.'[215] 그 예언자는 이것을 승인하고 그에게 평화롭게 행동하기를 명령했다. 여기서 나아만은 그 마음속에서 믿었던 것이나 림몬의 우상 앞에서 예배하는 것으로서 외견상 진실한 신을 부정하였던 것이며, 그것은 바로 그가 그 입술로서 한 것 같았다. 그렇지만 그렇다면 우리의 구세주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216]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해도 좋다. 즉, 나아만이 그러했던 것처럼, 신민인 자가 그의 주권자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행하도록 강제당하고, 그리고 그 자신의 마음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의 법에 따라서 행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주권자의 행위이며, 이런 경우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그가 아니라 그의 통치자이며 그의 국법인 것이다. 만약 누구인가가 이 학설을 진실하고 거짓 없는 그리스도교에 배반되는 것으로서 비난한다면 나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묻겠다. 만일 어디에 그리스도교적 코먼웰스 속의 한 신민이, 그의 마음속에서 내면적으로 마호메트 교도라고 한다면 그의 주권자가 그에게 그리스도 교회의 신에게의 예배에 출석하라 하고, 더구나 사형으로서 명령하는 경우에, 마호메트 교도는 양심에 따르면 그의 합법적인 군주의 그 명령에 따르기보다는 차라리 그 대의를 위해서 죽음을 받아들이도록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그 사람은 생각할 것인가. 만약 그 사람이, 그(마호메트 교도)는 차라리 죽음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런 경우 모든 사사로운 개인이 진위를 따질 것 없이 자신들의 종교를 주장하여, 그들의 군주들에게 순종치 않을 것을 승인하는 것이다. 만일 그 사람이, 그는 순종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그는 상대에 대하여 거부한 것을 자신에 대해서는 용서하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의 구세주의, '너희들이 사람들로부터 바라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너희도 사람들에게 행하라'라고 하는 말에 어긋나고, 또 '상대가 너희에

215 〈열왕기하〉 5장 17~18절.
216 〈마태복음〉 10장 33절.

게 대해 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면, 너희도 상대에 향해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자연법*(그것은 의심할 여지없는 영구한 신의 법이다)*에 어긋나는 것이다.

순교자들에 대하여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진술된 것을 읽은 바와 같은 모든 순교자에 대하여, 우리는 그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내동댕이쳤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대답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 대의(大義)를 위해 사형된 사람들 중에서 다음의 구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 중의 어떤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그리스도의 왕국을 설교하고 고백한다고 하는 소명을 받았던 것이며, 다른 사람들은 그러한 소명을 받은 일 없이 그들 자신의 신앙 이상의 것을 요구받지 않았던 것이다. 앞의 종류의 사람들은, 만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소생한다는 바로 그 일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사형이 된 것이라면, 참다운 순교자인 것이다. 즉 '순교자'라는 것은 *(그 말의 진실한 정의를 내린다면)*, 구세주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인 것이며, 그것은 지상에서 그와 대화를 나누었고, 그가 소생한 뒤에 그를 보았던 사람들 이외에는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증인은 그가 증언하는 것을 본 일이 있는 것이 아니면 안 되며, 그렇지 않고서는 그의 증언은 유효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 이외에는 누구도 정당하게는 그리스도의 순교자라고 불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성 베드로의 말로서 명백하다. '이러하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와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217] 거기에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실성, 즉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종교의 이 근본 조항의 진실성의, 증인이 되어야 할 사람은, 그와 대화하고, 부활 전후에 그를 본 어느 제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 따라서 그의 직접 제자들 중의 한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것에 반하여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들의 앞서 간 사람들이 말한 것 이상으로는 증언할 수 없으며,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증언의 증인일 뿐인 것이다. 그리고 이차적

217 〈사도행전〉 1장 21~22절.

(二次的) 순교자, 즉 그리스도의 증인들에게 대한 순교자일 뿐이다.
우리의 구세주의 생애의 역사에서 그리고 사도들의 행동이나 편지에서, 스스로 이끌어 낸 교의, 혹은 어느 사사로운 개인의 권위에 바탕을 두고 자신이 믿는 교의를 어떠한 것이든 주장하기 위하여, 시민 국가(Civill State)의 법과 권위에 반대하는 것은, 도저히 그리스도의 순교자, 또는 그의 순교자들의 순보자일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죽어야 할 일, 그와 같이 명예로운 이름을 붙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다만 하나의 신앙 조항으로서, 그 조항은 이것, 즉 '예수는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이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를 속죄한 자,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그의 영광 있는 왕국에서 영원한 생을 주기 위하여 또다시 올 자인 것이다. 성직자들의 야심이나 이익에 보탬이 되는 어떠한 교의를 위해서 죽는 것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또 증인의 죽음이 아니라 증언 그 자체가, 그를 순교자로 만드는 것이므로,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뜻하는 것은, 증언을 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으며 그가 그 증언을 위해서 사형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 근본 조항을 설교하기 위하여 보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의 사적인 권위(私的權威)에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비록 그가 그리스도의 일차적인 증인이며 따라서 순교자라 하더라도, 혹은 그의 사도들이나 제자들이나 또는 그들의 계승자들의 이차적인 증인이라 하더라도 그는 그 대의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는 것이 의무 지워지지는 않았다. 그와 같이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닌 까닭에, 그 스스로 그것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는 또한 그를 결코 일을 시킨 일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그가 기대하고 있는 보수를, 설령 잃는다 하더라도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육화(肉化)되어 온 것을 설교하는 인가(認可)를 가지지 않는 자, 즉 불신심자의 개종을 위하여 보내어진 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일차의 순교자도 이차의 순교자도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믿고 있고 그러한 까닭에 증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는 누구도 증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는 누구도 증인이 아닌 것이므로, 그것을 부정하고 혹은 의심하고 혹은 듣지도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증인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그의 사도들과 그의 70인의 제자를 설교하는 권위를 주어 보냈던 것이지, 그는 모든 믿는 사람을 보낸 것

은 아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냈다. 즉 '내가 너희들을 *(이라고 주는 말한다)*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218] 하였으며, 양으로서 다른 양에게로 보낸 것은 아니다.

그들의 위임된 여러 항목으로부터의 논증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위임된 여러 항목은 복음 가운데 명확히 가르쳐져 있는 것처럼, 그 어느 하나도 회중을 초월한 어떤 권위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설교하는 것 우리는 먼저 열두 사람의 사도가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어졌다는 것, 그리고 '신의 왕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설교하도록 명령받은 것에 마주친다.[219] 그런데 설교한다고 하는 것은 본시 포고인(布告人) · 사자(使者) 혹은 그 밖의 관리가 국왕의 존재를 포고하는데, 공공적으로 행하는 것을 보통으로 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포고인은 누구를 명령하는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또 70인의 제자는 '추수할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일꾼으로서' 보내어지며,[220]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221]라고 말할 것을 명령받는다. 그리고 왕국이 여기에서 뜻하는 것은, 은총의 왕국이 아니라 영광의 왕국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여러 도시에 대하여서 위협으로서 그 왕국을 선언하고*(11절)*, 그것은 그 날에는 그러한 도시에 대하여서보다도 소돔(Sodom)에 대하여 더 관대할 것이라라고 말하도록 명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222] 또 우리의 구세주는 지위의 우월을 요구한 그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직무는 대행하는 것이며,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자 온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223] 그러므로 설교자들은 위정자의 권력이 아니라 대행자의 권력을 가진다.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우리의 구세주가 말하는)* 너희 지도자는

218 〈마태복음〉 10장 16절.
219 〈마태복음〉 10장 6~7절.
220 〈누가복음〉 10장 2절.
221 〈누가복음〉 10장 9절.
222 〈누가복음〉 10장 12절.
223 〈마태복음〉 20장 28절.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224]

가르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위임된 또 한 가지 항목은, 〈마태복음〉 28장 19절 혹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있어서 그러한 대로 '모든 국민에게 가르치는 일이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따라서 가르치는 것과 설교하는 것은 동일한 것이다. 즉, 왕의 도래(到來)를 포고하는 자는 만일 그들이 그에게 대하여 사람들이 복종하리라는 것을 기대한다면, 어떤 권리에 의해서 그가 왔다는 것도 함께 알리지 않으면 안 된다. 성 바울이 다음 경우에 데살로니가(Thessalonica)의 유대 사람들에 대하여 한 것처럼이다. 그는 '세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225] 그렇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즉 국왕)*인 것, 사자(死者)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구약 성경》으로서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은 후에는 그들의 주권자들의 법과 명령에 반대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자에게 복종하도록 그들을 의무 지운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부터의 그리스도의 도래를 인내와 신앙으로서, 그들의 현재의 위정자들에게 대한 복종을 가지고 기대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다.

세례한다는 것 그들의 위임된 또 하나의 항목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한다'는 것이다. 세례라는 것은 무엇인가. 물에 적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명칭으로서 사람을 물에 적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세례에 대한 이런 것들의 뜻은 이렇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인간 및 충성스런 신민이 되는 표적으로서, 물에 적셔지기도 하고 씻겨지기도 하는 것이며, 그 충성스런 신민이란 신에 대하여 충성스런 신민인 것이며, 그 신의 인격은 그가 유대인을 지배하던 옛날에는 모세에 의해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대표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며 신이며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충성스러운 신민인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속죄했으며, 부활 뒤에는 그의 왕국 속에서 그의 아버지의 인격을 그의

224 〈마태복음〉 23장 10절.
225 〈사도행전〉 17장 2~3절.

인간적 본성으로 대표할 것이다. 더욱 사도들의 교의를 그 왕국에 이르는 하나밖에 없는, 그리고 보증된 길로서 승인하는 새로운 인간 및 충성스러운 신민이 되는 표적인 것이며, 사도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靈)의 도움을 받아 우리를 그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안내인으로서 남겨졌던 것이다. 이것이 세례에 있어서의 우리의 약속이며, 지상(地上) 주권자의 권위는 심판의 날까지는 넘어지지 않는 것이므로, 왜냐하면 그것은 성 바울에 의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2~24절에서 명확하게 단정되어 있다. 거기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우리가 세례에서, 이 세상에 있어서 우리의 외면적 행위를 통치할 또 한 가지의 권위를 우리 위에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교의를 영원한 생명에로의 길에 있어서의 안내자로 삼는다고 하는 약속을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죄를 용서하기도 하고, 그냥 두기도 하는 것 그리고 '죄의 사면(赦免)'과 '보류'의 권력은 또한 '해제(解除)'와 '구속(拘束)'의 권력이라고도 불리며, 때로는 '하늘의 왕국'에의 열쇠라고 불리나, 그것은 세례를 하기도 하고 세례를 거부하기도 하는 권위의 한 귀결이다. 왜냐하면 세례는 신의 왕국으로,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으로, 또다시 말하면 죄의 사면으로 받아들여질 사람들의 충성의 성례(聖禮)인 까닭이다. 즉 영원한 생명이 사람들의 죄의 범행으로서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것은 사면으로서 회복되는 것이다. 세례의 목적은 죄의 사면이다. 따라서 성 베드로는 오순절 날 그의 설교에 의해서 개종한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물었을 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라고 그들에게 충고했다. 그러므로 세례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신의 왕국으로 받아들인다는 선고이며, 세례를 거부하는 것은 그들의 배제(排除)의 선고라는 것으로 보아서, 당연히 그들이 쫓아 내게 되었는가, 또는 그 속에 머물러 유지되었는가를 선고하는 권력이, 같은 사도들, 그리고 그들의 대리인들 및 계승자들에게 주

어진 것이 된다. 따라서 우리 구세주는 '성령을 받으라'[226] 하고 그들에게 숨을 내신 뒤, 다음의 절에서 덧붙이고 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 말에 의해서 죄를 사람의 마음과 그의 참회 및 개종의 진실성을 알고 있는 신이, 용서하든가 보류하든가 하는 단순하고도 또한 절대적으로 용서하든가 하는 권위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으로, 즉 참회한 자에 대하여 그렇게 하는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용서, 즉 해제는 해제된 자가 거짓 후회밖에 가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제자의 별도의 행위 또는 판결 없이 그것에 의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구원에의 효과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며, 거꾸로 그의 죄에 대하여 가중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은 후회의 외면적인 표적만에 따를 것이며,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 있으면, 그들은 해제를 거부할 권위를 가지지 않는다. 그리고 만일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들은 해제할 권위를 가지지 않는다. 같은 것이 세례에 있어서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개종한 유대인, 혹은 이방인에 대하여 사도들은 세례를 거부할 권력을 가지지 못했으며, 그것을 참회하지 않는 자에게 주는 권력도 가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누구도 다른 사람의 후회의 진실성을 그의 언어 및 행위에서 나타난 외부적인 표적을 넘어서서 구별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언어와 행위는 위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보면, 또 한 가지의 의문이 생길 것이다. 그러한 표적들에 관하여 제도를 만든 심판관은 누구인가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의문은 우리의 구세주 자신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 '네 형제가*(라고 그는 말한다)*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227] 이것으로서 후회의 진실성에 관한 심판은 어떠한 한 사람에게도 속하지 않고, 교회에 즉 신앙 깊은 것의

226 〈요한복음〉 20장 22절.
227 〈마태복음〉 18장 15~17절.

합의체, 혹은 그들의 대표자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속한다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심판 이외에 판결문의 포고도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항상 사회자로서의 구도, 혹은 교회의 어떤 목자에 속한 것이며, 이것에 대하여 우리의 구세주는 18절에서 말하고 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다시 이것에 일치하는 것이 성 바울의 실천이었다. 거기에서 그는 말하고 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228] 다시 말하면 그를 교회의 밖으로, 죄를 용서받지 못할 사람으로서 내쫓아 버리는 것이다. 바울은 여기서 판결문을 포고하고 있는데, 합의체가 먼저 사건을 심리한 *(성 바울은 없었기 때문에)* 것이며, 그 귀결로서 그를 유죄로 한 것이다. 그러나 같은 장에서*(11~12절)* 그러한 경우의 심판은, 좀 더 명확하게 합의체에게 돌려져 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람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 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따라서 사람이 그것에 의해서 교회 밖으로 내쫓기는 판결문은 사도 또는 목자에 의해 포고되었으나 그 소송 사건에 비리(非理)의 심판은 교회에, 즉 *(그 시대는, 국왕들 및 코먼웰스에 있어서 주권자의 권위를 지니고 있던 사람들의 개종하기 전이었으므로)* 같은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 교도의 합의체에 있었다. 예를 들면, 고린도(Corinth)에서는, 고린도의 그리스도 교도의 합의체에 있었던 것이다.

파문에 대하여 열쇠(鍵)[229]에 대한 권력의 이 부분에 의해서 사람들은 신의 왕국으로부터 쫓겨났던 것이나 이 부분은 '파문(破門)'이라고 불리는 부분이다. 그리고 파문한다는 것은 원어에서 아포슈나고오곤 포이에인(ἀποσυνάγωγον ποιειν), '회당

228 〈고린도전서〉 5장 3~5절.

229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그리스도가 베드로에서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는 것으로 미루어서 교회 권력을 열쇠라고 부른다.

(會堂)에서 내쫓기는 것', 즉 예배의 장소에서 내쫓기는 것이다. 그것은 유대인의 관습에서 이끌어 나온 말이므로 그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태도나 교의에 있어서 그들이 전염성 있는 병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들의 회당으로부터 던져 버리는 것이다. 그것은 나병 환자들이 모세의 법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모임에서 분리되어 그들이 제사에 의해서 청결하다고 포고될 때까지 그렇게 버려 두었던 것과 마찬가지이다.

정치 권력을 수반하지 않는 파문의 효용 파문의 효용과 효과는 그것이 아직 정치 권력에 의해서 강화되지 않았는 한, 파문되지 않은 사람들은 파문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상은 아니었다. 그들을 일찍이 그리스도 교도가 된 일이 없는 이교도로서 여기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그러한 이교도와는 그들은 음식을 함께 해도 좋았으나 파문된 사람들과는 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성 바울의 말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그대로이다.[230] 거기에서 그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즉 이전에 그는 그들에게 '간음자들과 어울리는 것'을 못 하게 한 일이 있으나 *(그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나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형제 가운데 있는 간음자들이나 그 밖의 악덕한 사람들에 한정했다는 것이다. '그런 자와는' *(그는 말한다)* 그들은 어울리지도 말 것이며, '함께 먹지도 말라.'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구세주가 너희들에게 있어서 그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231]라고 말한 것과 다름이 없다. 즉, 세리(稅吏)*(그것은 코먼웰스 수입의 청부인 · 영수인을 말한다)*는 그것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유대인에 의해서 대단히 미움받고 혐오를 받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세리와 죄인'과는 그들 사이에서는 같은 사람들이라고 해석될 정도였다. 우리의 구세주가 세리장 삭개오(Zacchaeus)의 초대를 받았을 때,[232] 그것은 그를 개종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범죄로서 반대를 받을 정도였다. 따라서 우리의 구세주가 '이교도'에 '세리'를 덧붙일 경우, 그는 사람들에 대하여, 파

230 〈고린도전서〉 5장 9~10절 이하.
231 〈마태복음〉 18장 17절.
232 〈누가복음〉 19장 5절.

문된 사람과 함께 먹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그들을 그들의 회당, 즉 합의의 장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리스도 교도이건 이교도이건 그 장소의 소유자의 권력 외에는 그들은 그렇게 할 권력을 가지지 않았다. 그리고 모든 장소는 당연히 코먼웰스의 영토 내에 있으므로 파문된 자도, 일찍이 세련된 일이 없는 자도 마찬가지로 시민적 위정자(市民的爲政者)로부터의 위임에 따라서 그러한 장소에 들어가도 좋았던 것이다.[233] 그것은 바울이 그의 개종 전에 제사장의 위임에 의하여, 그리스도 교도를 남녀를 가리지 않고 묶어서 예루살렘에 보내기 위하여 다마스쿠스(Damascus)에서 그들의 여러 회당에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이다.

배교자(背敎者)에게는 아무런 효과도 없다 그것으로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교도로서, 배교자가 되는 자에 대해서는 정치 권력이 교회를 박해했거나 돕지 않은 곳에서는 파문의 효과 중에는, 이 세상에 있어서의 어떠한 손해나 공포도 없었다는 것이다. 공포가 없다는 것은 그들의 불신앙에 의하는 것이며 손해가 없다는 것은 그들이 그것으로서 세상이 지지하는 대로 되돌아간 때문이며, 그리고 장차 올 세계에서도 그들은 결코 믿어 본 일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나쁜 상태가 될 이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손해는 오히려 그들이 내쫓아 버림으로써 그들의 악의(惡意)를 마음대로 자행한 사람들의 도전(挑戰)에 의하여 교회에로 되돌아갔다.

신앙 깊은 사람에게 대하여서만이다 따라서 파문이 효과를 가진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믿고 있던 사람들에 대하여서뿐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생자(生者)와 사자(死者)들을 함께 지배하고 심판하기 위하여 영광(榮光) 속으로 다시 올 것이라는 것, 따라서 죄가 보류되어 있는 사람들, 즉 교회에 의해서 파문된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그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던 사람이다. 성 바울이 파문을, 파문된 사람의 사탄(Satan)에의 인도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왕국 이외에는, 심판 후의 다른 모든 왕국은 사탄의 왕국으로 이해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앙 깊은 사람들이, 그들이 파문

233 〈사도행전〉 9장 2절.

된 채 그대로 있는 한, 다시 말하면 그들의 죄가 용서되지 않는 상태로 있는 한,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있던 것은 이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것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교가 정치적 권력에 의해서 권위 지워지지 않은 때의 파문은, 의견에 의한 잘못으로서가 아니라 태도를 바로하기 위해서만이 사용됐다는 적을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구세주가 세계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또 오는 것을 믿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처벌인 때문이며,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던 사람들은, 구원되기 위해서는 생활의 바름(正)일 뿐, 다른 어떠한 의견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떠한 잘못에 대하여 파문은 있는가 부정의에 대하여 파문은 있다. 예를 들면 만일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것을 그에게 가만히 일러 주고, 그러고 나서 증인을 동반하여 일러 주고, 최후로 교회에 고하도록 하라. 그리고 그때에도 순종하지 않거든 그를 너희들에게 있어서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234] 또, 추잡한 생활에 대해서도 파문은 있다. 예를 들면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람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235] 그렇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이 근본을 신봉하는 사람을, 그 근본을 파괴하지 않는 다른 점에서의 의견 차이 때문에 파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 가운데 아무런 권위도 찾아볼 수 없으며, 사도 가운데도 아무런 실례도 발견되지 않는다. 실로 성 바울 가운데는, 그 반대라고 생각되는 본문이 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236] 즉 이단자(異端者)는 교회의 구성원이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금지한 어떤 사적인 의견을 가르치는 자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한 번 또는 두 번째의 훈계를 한 후에 '멀리하라'고 성 바울은 디도(Titus)에게 충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멀리하라'는 것은 *(여기서는)*, 그 사람을 파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훈계하는 것을 단념하는 것', '그를 혼자로 해 두는 것', 자기에 의해서밖에 설득될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와 의논

234 〈마태복음〉 18장 15~17절.
235 〈고린도전서〉 5장 11절.
236 〈디도서〉 3장 10절.

하는 것을 정지하는 것'이다. 같은 사도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237]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버리라(reject)'는 말과, 앞에 나온 '멀리하라(reject)'고 하는 말은, 원어로는 같은 '파레투(παραιτοῦ)'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질문은, 파문 없이도 배제될 수 있다. 또다시 '어리석은 문제를 피하라'[238]라는 경우의 원어(原語)의 페리스타소(περιΐστασο)*('그런 것들을 배제한다')*는 앞에서의 '멀리하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근본을 믿고 있는 신앙 깊은 사람들을, 아마도 선량하고 경건한 양심으로부터 온 그들 자신의 독자적 상부 구조만을 위해서 교회의 밖으로 내쫓기는 것을 지지하는 데 있어, 이만큼 사실적으로 그려질 수 있는 부분은 다른 데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과 반대로 그러한 논쟁을 피하도록 명령한 모든 부분은 *(디모데와 디도가 그러했듯이)*, 목자들에 대한 교훈으로서 쓰인 것이며, 하나하나 작은 논쟁을 결정하는 것에 의해서 새로운 여러 신앙 조항을 만들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러한 신앙 조항은 사람들을 불필요한 양심의 무거운 부담으로 의무 지우며, 혹은 그들을 도발하여 교회의 통일을 깨뜨리게 한다. 그 교훈을 사도들 자신은 잘 지켰다. 성 베드로와 성 바울은 그들의 논쟁은 커다란 것이었을지라도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읽을 수 있는 대로)*, 그들은 서로 상대를 교회 밖으로 내쫓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시대 동안에, 그것을 지키지 않은 다른 목자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디오드레베(Diotrephes)이며, 그는 성 요한 자신이 교회에로 받아들이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한 사람을, 우월성에 대하여 그가 지닌 자랑으로서 교회의 밖으로 내쫓았다.[239] 허영과 야심이 그리스도의 교회 속에 이르는 입구를 찾아 낸 것은 이처럼 빨랐던 것이다.

파문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파문을 받아야 할 사람이 되려면, 많은 조건이 필요하다. 제일의 조건으로서, 그가 파문되어야 할 그 원인에 대하여 심판하는 힘을 가진 어떤 공공 단체, 다시 말하면 어느 합법적인 합의체, 또다시 말하면 어느 그리스도 교회의 성원일 것이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없는 곳에서는

237 〈디모데후서〉 2장 23절.
238 〈디도서〉 3장 9절.
239 〈요한3서〉 9~10절.

파문*(공동체로부터의 배제)*은 있을 수 없으며, 또 심판하는 힘이 없는 곳에서는 판결문을 줄 어떠한 힘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다음의 것이 나온다. 즉 하나의 교회가 다른 교회에 의해서 파문된다고 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므로, 왜냐하면 그들이 서로가 파문할 평등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 경우에는 파문은 징계도 권위 있는 행위도 아닌 교회 분립이며, 자혜(慈惠)의 해체이다. 그렇지 않고서 한쪽이 다른 쪽에 종속하고 있어서 양자가 하나의 소리(聲)를 가진 정도라면, 그때는 그것들은 하나의 교회에 지나지 않으며, 그리고 파문된 부분은 이미 하나의 교회가 아닌 개개의 인간의 흩어진 수(數)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파문의 판결문은 파문되는 사람의 동료가 되어서는 안 된다든가, 함께 음식을 먹는 것조차 안 된다고 하는 충고를 하는 것이므로, 주권자인 군주 또는 합의체가 파문된다고 하면 그 판결문은 아무런 효과도 없다. 왜냐하면, 모든 신민은 그들 자신의 주권자와 *(그가 요구한다면)* 동석(同席)하고, 면접하도록 자연의 법에 의해서 구속되어 있기 때문이며, 그들은 현세(現世)의 것이든 신성한 것이든 그 자신의 영토의 어떠한 부분에서도 그를 추방하는 것이라든가, 그의 영토에서 그의 허가 없이 나가는 것도 합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이며, 그와 식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만약 그가 그 명예에 그들을 누리게 하려고 한다면)* 더욱 불가능하다. 그리고 다른 여러 왕국과 여러 국가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들은 동일한 집회의 여러 부분은 아니니까 그들이 파문된 국가의 동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는, 어떤 다른 판결문은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설립 그 자체가 많은 사람을 하나로 합하여 하나의 공동체로 함과 동시에, 하나의 공동체를 다른 공동체에서 분리하는 것이므로, 여러 국왕, 여러 국가를 하나하나 흩어지게 하는 데는, 파문은 필요하지 않은 것이며, 군주들을 서로 전쟁하도록 선동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파문은 정치 그 자체의 본질 속에 있는 효과 외에 어떠한 효과도 지니지 않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 교도인 신민이 그 자신의 주권자의 여러 법에, 그 주권자가 그리스도 교도이건 이교도이건 순종하고 있다고 하면, 그의 파문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만약 그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영'을 가졌으며,[240]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241]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 하나님 안에 사는 자, 하나님이 그 안에 사는 자는 사람들로부터 파문에 의하여 아무런 피해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자는 파문된 사람을 위협하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유이다. 그것을 믿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 교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진실하고 거짓 없는 그리스도 교도는 파문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말로 명백히 밝힌 그리스도 교도인 자도 그의 위선이 그 태도에 나타날 때까지는, 즉 그의 행동이 그의 주권자의 법에 위반될 때까지는 마찬가지이며, 그 법은 태도의 규칙인 것이며 그것에 신종하는 것을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이 우리에게 명령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외부적인 행위에 의해서만 태도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며, 그 행위는 그러한 것들이 그 코먼웰스의 법에 위반하는 경우가 아니면 결코 불법일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사람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 또는 주인이 파문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아이들은 그들과 어울리는 것도,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개의 경우)*, 음식물을 얻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전연 아무것도 먹지 않을 것을 의무 지우는 것처럼 되며, 그들이 사도들의 법규에 위반하여 그들의 양친과 주인에 복종하지 않는 것을 권위 지우는 것과 같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파문의 권력은 교회의 사도들과 목자들이 그들의 사명을 우리의 구세주로부터 받은 그 목적을 넘어서서 확대할 수는 없다. 그 사명이란, 명령과 강제에 의하여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세계에 있어서의 구원에의 길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방향 지워 주는 것으로서 지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과학 교사일지라도 그의 제자가 그가 지도하는 것의 실시(實施)를 완강히 무시한다면 그 제자를 버려도 좋지만, 그러나 그 제자는 결코 그에게 복종하도록 구속된 것은 아니니까 부

240 〈요한1서〉 5장 1절.
241 〈요한1서〉 4장 15절.

정의라는 비난을 제자에 대하여 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이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교의 교의를 가르치는 교사도 완강히 비그리스도교적인 생활을 계속하는 그의 제자들을 버려도 좋으나 그는 그들이 그에게 대하여 부정(不正)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의무 지워지지는 않았기 때문이다.[242] 즉 그와 같이 불행을 말하는 교사에게는 그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사무엘에게 주는 신의 답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린' 것이다. 따라서 파문은 그것이 정치 권력의 도움을 결여할 때는 어느 그리스도교적인 국가 또는 군주가 외국의 권위에 의해서 파문되는 경우에 그러한 것처럼 효과가 없으며, 따라서 공포를 동반하지 않는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Fulmen excommunicationis'라고 하는 명칭 즉 *(파문의 뇌전(雷電))*은 그것을 최초로 사용한 로마 주교인 그가 여러 왕의 왕이라고 하는 상상에서 나온 것이며 그 상상은, 이교도가 유피테르를 신들의 왕으로 그들의 시와 그림 가운데서 뇌전을 그에게 돌리고 그것으로서 그가 그의 권력을 굳이 거부하는 거인(巨人)들을 정복하고 처벌하도록 한 것과 같은 것이다. 이 상상은 두 가지 잘못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세상의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써, 그것은 '나의 왕국은 이 세상의 것은 아니라'고 하는 우리의 구세주의 말에 반대된다. 또 한 가지는 그가 그 자신의 신민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세계의 전 그리스도 교도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대리(vicar)라고 하는 것이니, 그것에 대하여는《성경》가운데 아무런 근거도 없고, 그 반대되는 것이 적당한 곳에서 증명될 것이다.

정치적 주권자가 그리스도 교도로 되기 이전에 있어서 성경의 해석자에 대하여 성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이 있던 데살로니가에 와서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세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243] 하는 것을 설명하고 주장했다. 여기서 언급된《성경》은 유

242 〈사무엘상〉 8장 7절.
243 〈사도행전〉 17장 2~3절.

대인의 성경, 즉 《구약 성경》이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그가 입증할 상대의 사람들도 역시 유대인이었으며, 《구약 성경》이 신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미 믿고 있었다. 여기에서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 어떤 자는 믿고 *(5절에 있듯이)* 어떤 자는 믿지 않았다. 그들 모두가 《성경》을 믿고 있을 경우에 그들이 모두 동일하게 믿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용한 성 바울의 해석을 어떤 자는 승인하고 다른 자는 승인하지 않으면서, 각자가 따로따로 자신이 성경을 해석한 이유는 무엇이었던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성 바울은 그들에게로 아무런 법적인 위임 없이 그리고 명령으로서가 아니라 설득하려는 태도로서 찾아 왔던 것이다.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반드시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하여 한 것대로, 그들이 그의 권위를 신의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 볼 수 있도록 기적에 의하든가, 혹은 그들의 그의 교의의 진실성을 신의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도록 이미 받아들여진 《성경》에 의해서 추리하든가의, 어느 쪽이 아니면 안 되었다. 그런데 글로 쓰여 있는 여러 원리로부터의 추리에 의하여 설득하는 자는 누구이든 그러한 원리들의 의미에 대해서도, 또한 그것들에 바탕을 둔 그의 추론의 힘에 대해서도, 그가 말하는 그 상대를 심판자로 하는 것이다. 만일 이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그 밖에 누가 성 바울의 《성경》에 바탕을 두고 주장한 것의 심판자였던가. 만일 성 바울이 그렇다면, 그의 교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어떤 부분을 인용할 그 어떠한 필요가 그에게 있었던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만으로서 충분했던 것이다. 나는 《성경》 가운데, 즉 너희들의 여러 법 가운데에서 그것이 그러하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나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내어진 자로서 《성경》의 해석자이다. 따라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이 그 해석을 고집하도록 얽매어 있던, 그러한 해석자는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이다. 각자는 여러 주장이 주장되는 부분의 뜻과 일치한다고 그에게 생각되든가, 또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든가에 따라서, 믿어도 좋고 믿지 않아도 좋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회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무엇인가의 증거가 있다고 일컫는 것은, 그가 이야기를 건네는 상대를 그의 증거에 대한 심판자로 하는 것이다. 또 유대인의 특별

한 경우에 대하여 말하면, 그들은 분명히 밝혀진 말에 의해서[244] 모든 어려운 문제에 대한 결정을, 우선 이스라엘의 제사 및 재판관으로부터 받도록 얽매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개종되지 않았던 유대인에게 대하여 이해되어야 할 일이다.

이방인들을 개종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믿지 않고 있는 《성경》에 바탕을 두고 주장하는 것은 효과가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우상 숭배를 논박하는 데 있어 사도들은 이성에 의해서 노력하였으며, 그것이 끝나면 그리스도의 생애와 부활에 대한 사도들의 증언에 의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신앙에로 설득하기에 노력한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그가 불신앙일 동안은, 그의 국가의 법에 대한 주권자의 해석을 별도로 한다면, 어떤 사람의 어떤 서적의 해석에도 순종하도록 구속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면, 거기에는 아직 《성경》을 해석하는 권위에 대하여서의 아무런 논쟁도 있을 수 없었다.

그런데 우리는 개종 그 자체를 고찰하고, 그 가운데에 그러한 의무 지울 원인이 될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있었던가를 보기로 하자. 사람들이 개종한 것은 사도들이 설교한 사항에 대한 신앙이며, 그 이외의 것은 아니며 그리고 사도들이 설교한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즉 그들을 구원하고 장차 올 세상에서 그들을 영원히 지배해야 할 왕이라는 것, 따라서 그는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 하늘에 올라간 것이며, 다시 또 어떤 날 이 세상 *(그것도 또한 심판받기 위해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다)*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가와서, 각자에게 그 한 일에 따른 보수를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들 중의 어느 한 사람도, 그 자신 또는 다른 사도의 누군가가 그리스도교가 된 모든 자에 의해서 법으로 받아들여야 할 해석을 하는 성경 해석자라고는 설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여러 법을 해석하는 것은 현존하는 왕국의 행정의 일부이며, 그것은 사도들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때, 그리고 그 이후 계속해서 다른 모든 목자는 '당신의 왕국이 오도록'이라고 기도했으며, 그들의 개종자들에 대하여 당

244 〈신명기〉 17장.

시에 있어서의 그들의 이교도의 군주들에게 순종할 것을 권고했다. 《신약 성경》은 또한 한 권의 책으로서 공간(公刊)되지 않았다. 복음전도자의 각자가 그 자신의 복음의 해석자이며, 각 사도가 그 자신의 편지의 해석자였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대하여는, 우리의 구세주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245] 만약 그가 그들이 성경을 해석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더라면 그는 그들에게 대하여 그때부터,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를 얻도록 명령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스스로 성경을 해석하든가, 제사(祭司)들의 해석에 의거하든가의 어느 쪽이었을 것이다.

곤란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은 함께 합의하여, 무엇을 설교하고 가르칠 것인가, 백성에 대하여 어떻게 그들이 성경을 해석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결정했으나 백성이 자신들로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자유를 그들로부터 빼앗지는 않았다. 사도들은 여러 교회에 갖가지 편지를 보내고, 그러한 것들을 지도하기 위하여 다른 여러 저서를 보냈다. 만약 여러 교회가 그러한 것들을 해석하는 일 즉, 그런 것들의 의미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었다면, 그것들은 부질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사도들의 시대에 그러했던 것처럼, 한 사람의 해석자를 권위 지워 주게 되고, 그의 해석이 일반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목자들이 나올 때까지 그러했을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은 국왕들이 목자들이며, 혹은 목자들이 국왕들인 것과 같은 때가 될 때까지는 불가능했었다.

성경을 법이 되게 하는 권력에 대하여 하나의 저서가 '교회정전〔教會正典〕적(canonical)'이라고 불리는 데는 두 가지의 뜻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전'은 '규칙(規則)'을 나타내며, 그리고 규칙은 사람이 그것으로 의하여 어떤 행위든 간에 지도를 받고 방향 지워지는 규정인 때문이다. 그러한 규정은 스승에 의해서 그의 제자에게, 조언자에 의해서 그의 친구에게 그런 것들을 지키도록 그를 강제하는 권력을 수반하지 않고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전인 것이며,

245 〈요한복음〉 5장 39절.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여러 규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그러한 것들은 여러 규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자가 복종하도록 구속되어 있는 어떤 자에 의해서 주어질 때에는 그러한 정전(正典)들은, 규칙일 뿐만 아니라 법인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문제는, 《성경》*(그것은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여러 규칙이다)*를, 여러 법이 되게 하는 권력에 대한 것이다.

십계명(十誡命)에 대하여 《성경》 가운데서 최초의 법이었던 부분은 두 개의 석판(石板)에 쓰여지고, 신 자신에 의해서 모세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모세에 의해서 백성에게 알려진 십계명이었다. 그때 이전에는 기록된 신의 법은 없었던 것이며, 그는 아직 어떤 백성도 그의 특별한 왕국으로 선택되어 있지 않고 있었으므로, 각자 자신의 심장에 쓰여진 자연의 법, 즉 자연 이성의 규정 외에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법도 주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두 개의 판 가운데 첫째의 것은 주권의 법을 내용으로 한다.

(1) Non habebis deos alienos coram me, 즉 '너희들은 나 이외의, 다른 여러 국민이 숭배하는 신들을 신들로서 가져서는 안 된다'[246]라는 말에서, 그들은 다른 여러 국민의 신들에게 복종해도, 명예를 부여해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말들에 의해서 그들은 그때 모세에 의해서, 뒤에는 제사장에 의해서 그들에게 말한 신 이외에는 어떤 신도 그들의 왕 및 통치자로서 복종하거나 명예를 부여하는 것이 금지되었던 것이다.

(2) 그들은 '그를 대표시키기 위하여 어떤 상(像)을 만들어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며, 즉 그들은 하늘에 있어서도, 땅에 있어서도 그들 자신의 공상에 의한 어떤 대표자도 자신들을 위하여 선택할 수 없으며 그가 그 직무에 임명해 둔 모세와 아론에게 따라야 할 것이었다.

(3) '그들은 신의 이름을 용무가 없는데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므로, 즉 그들은 그들의 왕에 대하여 경솔하게 말하든가, 그의 권리 혹은 그의 대리인인 모세와 아론의 위임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든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246 〈출애굽기〉 20장 3절.

(4) '그들은 칠일(七日)마다 그들의 통상의 노동을 쉬고', 그 시간을, 그에게 대한 공공적인 존경을 행하는 데에 사용'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제2의 판(板)은 '양친을 존경하라', '죽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거짓증언으로 재판을 타락시키지 말라', 그리고 최후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 어떠한 침해를 행할 것을 마음속에 꾸미는 것조차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대한 의무를 내용으로 한다. 여기서의 문제는 이러한 기록된 판에 여러 법의 구속력을 부여한 것은 누구였던가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들이 신 자신에 의해서 여러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법은 그것을 주권자의 행위로서 인정하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누구에게 대해서도 의무 지우는 것이라 하더라도 법이 아니므로 신이 모세에게 말하는 것을 듣기 위하여, 산에 가까이 가는 것을 금지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모세가 제시한 그러한 모든 법에의 복종을, 의무 지워진다는 것이 어떻게 하여 가능했던가. 그러한 것들 중의 몇 가지는 제2의 판의 모든 것처럼 확실히 자연의 여러 법이었으며,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대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 대한 신의 여러 법으로서 인정되어야 했다. 그렇지만 제1의 판의 그것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는 특유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제시된 바로 다음에, 그들이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247]라고 하는 말에 있어서, 자신들은 모세에게 복종하도록 의무 지워 버린 것을 제외하면 그 문제는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짧은 서책을 이스라엘의 코먼웰스에서 법이 되게 하는 권력을 지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때는 모세뿐이고 그의 뒤에는 제사장들뿐이었던 것이며, 그들에게 대해서는 신이 *(모세에 의해서)* 이러한 그의 특별한 왕국을 관리할 것을 널리 알렸던 것이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과 그들에 뒤이어진 제사장들은 정치적 주권자였다. 그러했으므로 여기까지는 정전화(正典化)하는 것, 즉《성경》을 법이 되게 하는 것은 정치적 주권자에 속했던 것이다.

247 〈출애굽기〉 20장 19절.

재판의 법과 의례(儀禮)의 법에 대하여 재판의 법〔the Judiciall Law〕, 즉 신이 이스라엘의 위정자들에게 그들의 재판의 운영에 대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송에 있어서 그들이 포고할 판결문 또는 심판에 대한 규칙으로서 정한 법과 의례의 법〔the Leviticall Law〕, 즉 제사장들과 그 보조자들의 전례 의식(典禮儀式)에 관하여 신이 정한 규칙이라는 것은, 모두 모세만에 의하여 그들에게 전달되었던 것이며, 따라서 역시 모세에 대한 복종과 꼭 같은 약속의 힘에 의해서 법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법들이 그때 기록되어 있었던가, 혹은 기록되지 않고 모세에 의해서 *(산중에 신과 함께 있었던 그의 40일 뒤에)* 백성에게 입을 통해서 전해진 것인지는, 본문에는 명백히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실정법이었으며, 《성경》에 똑같이 정치적 주권자 모세에 의해서 정전(正典)이 되었던 것이다.

제2의 법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Jericho) 맞은편 모압(Moab)의 평원에 와서 약속된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 된 뒤에, 모세는 이전의 여러 법에 다른 여러 가지 법을 첨가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듀테로노미(Deuteronomy)' 즉 '제2의 율법'이라고 불린다. 그리고 그것들은 *(〈신명기〉 29장 1절에 쓰여 있는 것처럼)* '호렙(Horeb)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즉 그러한 이전의 여러 법들을 〈신명기〉의 처음에서 설명했으며, 그는 같은 책의 12장에서 시작하여 26장의 끝까지 계속되는 다른 여러 법을 덧붙였다. 이 법을 그들은 그들이 요단을 건넜을 때에 석회를 바른 돌에 쓰도록 명령했다.[248] 이 법은 또한 모세 자신에 의해서 하나의 서책에 기록되어 '제사들'의 손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전달되어,[249] '언약궤 곁에 둘 것'[250]을 명령했다. 왜냐하면 언약궤 그 속에는 십계명 이외에는 아무것도 들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모세가 사본(寫本)을 보존하도록 명령한 법인 것이었다.[251] 그리고 이것이 오랫동안 잃어

248 〈신명기〉 29장 1절.
249 〈신명기〉 31장 9절.
250 〈신명기〉 31장 26절.
251 〈신명기〉 17장 18절.

버려져 있었다가 여호수아 때에 신전에서 다시 발견되어, 그의 권위로서 신의 법으로 받아들인 법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기록될 때의 모세도, 그것의 재발견에 있어서의 여호수아도, 두 사람 모두가 정치적 주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여기까지는《성경》을 정전으로 만드는 권력은 정치적 주권자들에게 있었던 것이다. 이 법의 서적 이외에는 모세 때부터 사로잡힘 이후에 이르기까지 유대 사람들 사이에서 신의 법으로서 받아들여진 서적은 없었다. 왜냐하면 예언자들은 *(소수를 제외하고)* 사로잡히는 그 자체의 그때에 살아 있었으며, 그 밖의 사람은 그 조금 전에 살아 있었으며, 그리고 그들 예언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커녕, 그들의 신변(身邊)의 일부는 거짓 예언자들에 의해서, 일부는 거짓 예언자들에게 현혹된 왕들에 의해서 박해당하기까지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호수아에 의해 신의 법으로서 확인된 이 서적 자체도, 그것과 함께 신의 작업의 모든 역사가 사로잡힐 때와 예루살렘 약탈 때 상실되었다. 그것은 〈에스드라 후서〉 14장 21절에 의해서 알 수 있는 대로이다. '너희들의 법은 태워진다. 따라서 누구도 너희들에 대해서 행해지는 사물 혹은 지금으로부터 시작될 일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 또 사로잡히기 전에 법이 상실되었을 때*(그것은《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아마도 이집트 왕 시삭(Shishak)이 신전을 약탈한, 르호보암(Rehoboam) 때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와, 그것이 다시 발견된 여호수아 때와의 사이에는 그들은 기록된 신의 말씀을 갖지 않았지만 그들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혹은 그들 각자가 예언자라고 생각한 사람들의 지도에 의해서 지배한 것이다.[252]

구약은 언제 정전이 되었는가 여기에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오늘날 가지고 있는《구약 성경》의 여러 편이 유대 사람들이 사로잡힘에서 돌아와서 신과의 신약을 갱신하고, 에스드라(Esdras) 아래서 그들의 코먼웰스를 부흥하기까지에는, 그들에게 대하여 정전적인 것도, 법도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후로 그것들은 유대인의 법으로 생각되고, 그러한 것으로서 유대의 70인의 장로들에 의해서 그리스 말로 번역되어 알렉산드리아(Alexandria)에 있는 프톨레마

252 〈열왕기상〉 14장 26절.

이오스(Ptolemy)의 도서관에 소장되고, 신의 말씀으로서 승인된 것이다. 그런데 에스드라는 제사장이었고, 제사장은 그들의 정치적 주권자였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러한 여러 편들은 주권자의 정치 권력에 의해서가 아니면, 결코 법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신약은 그리스도 교도인 주권자들 밑에서 처음으로 정전(正典)적인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종교가 콘스탄티누스 황제(Constantine the Emperour)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권위 지워지기 이전의 시대에 살았던 신부(神父)들의 저작에 의하면, 우리는 신약에 관하여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편이 그 시대의 그리스도 교도에 의하여 *(소수의 사람을 제외한다는 것이며 그 소수자는 수가 적었기 때문에 나머지가 보편 교회(the Catholique Chunch)로 불리고, 다른 쪽은 이단자(Haeretiques)로 불렸다)* 성령의 지시로서, 따라서 신앙의 규범 또는 규칙으로서 생각되고 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이 자신들의 교사들에 대하여 지녔던 존경과 의견은, 일반적으로 제자들이 교사로부터 받는 모든 종류의 교의에 있어서의 최초의 교사들에 대하여 지니는 존경이 작은 것이 아님과 똑같다. 따라서 성 바울이 그가 개종시킨 여러 교회에 대하여 쓰고, 혹은 그리스도의 사도 또는 제자 가운데의 누군가가 당시 그리스도를 신봉하고 있던 사람들에 대하여 썼을 경우, 그들의 그러한 여러 저작을 사람들이 진실한 그리스도교의 교의로서 받아들인 것은 의심할 바 아니다. 그러나 그때 즉 교사의 권력과 권위에서가 아니라, 듣는 청중 측의 신앙이 그들로 하여금 받아들이도록 한 경우에는, 사도들이 그를 자신의 저작을 정전적인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개종자가 그것들을 그 자신들에게 있어서도 그러한 것으로 만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문제는, 어떤 그리스도 교도가 무엇을 그 자신들로 하여금, 법 혹은 규범으로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그는 그것을 받아들인 것과 같은 권리에 의해서 다시 거부할 수도 있었다)*, 그들이 부정의 없이는 그것과 반대되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었던 것과 같이 그들에 대한 정전이 된 것은 무엇이었던가 하는 것이다. 《신약 성경》이 이런 의미에서 정전적이어야 한다는 것, 즉 코먼웰스의 법이 그것을 법으로 삼지 않았던 곳에 있어서도, 법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법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법이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주권자의 권위를 부여해 준 사람 또는 합의체의 명령이기 때문이었으며, 그 권위는 우리의 행위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그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로의 여러 규칙을 만들기 위한 것이며, 우리가 그 여러 규칙을 위반하는 것을 무엇인가 했을 경우, 우리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누군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주권적 지배자가 규정해 두지 않았던 어떠한 다른 여러 규칙을 제공한다면, 그것들은 조언 및 충고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그것들이 좋건 나쁘건 조언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지킬 것을 거부하더라도 부정의는 아닌 것이며, 이미 확립된 여러 법에 위반될 경우에는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려고 하더라도 부정의 없이는 지킬 수 없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런 경우에 그는 그것을 그의 여러 행위에서 지키든가, 또는 다른 사람과의 그의 주고받는 말 가운데서 지키든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며, 다만 그는 그의 사적인 교사들을 믿고 그들의 충고를 실행하는 자유를 가지기를 원하며, 그것이 법으로서 공공적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해도 비난을 받지는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속의 신앙은 그 자체가 본성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모든 인간적인 재판권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에 반해서,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말과 행위는 우리의 정치적 복종의 파기로서, 신과 인간과의 쌍방 앞에서 부정의인 것이다. 거기서 우리의 구세주가 그의 왕국이 이 세상의 것임을 부정한 것으로부터, 또 그가 그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그는 우리를 코먼웰스의 모든 법 이외의 여러 법에 신종시킨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즉 유대 사람들을 모세의 법에*(그것에 대하여 그는, 자신이 그것을 파괴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수행하기 위하여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253]*)* 다른 여러 국민을 그들 각자의 주권자의 여러 법에 그리고 모든 사람을 자연의 여러 법에 신종시킨 것이며, 그러한 것들을 지킬 것을 최후의 날에 그의 영원한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에 의하여 용서받기 위한 필요한 조건으로서, 그 자신과 그의 사도들이 함께 그들의 가르

253 〈마태복음〉 5장 17절.

침 가운데서 우리에게 권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왕국 가운데는 영원한 보호와 생명이 필연적으로 있어야만 한다.

거기서 우리의 구세주와 그의 사도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의무 지우는 새로운 여러 법을 남기지 않고, 다음 세상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하는 새로운 교의를 남겼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그 교의를 내용으로 하는 《신약성경》의 여러 편은, 신이 지상에 있어서 입법자가 될 권력을 부여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들에의 복종을 위한 명령이 내려진 때까지는 의무적인 규범, 즉 법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에의 길로 방향을 정해 주기 위한 선량하고 안전한 충고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며, 그것들을 모든 사람들은 그 자신의 위험을 당하여 채택하든지, 거부하든지, 부정의를 저지르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우리의 구세주인 그리스도가 그의 사도들과 제자들에 대하여 위탁한 것은, 그의 *(현재의 것이 아니라)* 장차 올 왕국을 포고하는 것, 모든 국민에게 가르치는 것, 신앙하는 사람들을 세례하는 것, 그들을 받아들이는 집에 들어가는 것, 그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곳에서 그는 사람들에 대하여 발의 티끌을 털어 버릴 것이며, 그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불을 얻도록 요구하는 것도 또 그 사람들에게 칼로써 복종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것들의 모든 것에 있어서 권력에 의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설득에 의하는 것뿐이었다. 그는 그들을 국왕으로서 그 신민 가운데로가 아니라, 양으로서 이리의 속으로 보내졌던 것이다. 그들은 여러 법을 만드는 것을 위탁받지도 않았으며, 만들어진 여러 법에 복종하는 것과, 복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위탁받은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여러 저서를 주권적 정치 권력의 도움 없이, 의무적인 정전(正典)으로 만들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신약은 합법적인 정치 권력이 그것을 법으로 만들었다는 곳에서만이 법인 것이다. 거기서는 또한 국왕 또는 주권자는 그것을 그 자신에 대한 법으로 만든 것이며, 그것에 의해서 그는 자신을, 그를 개종시킨 박사 또는 사도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신 자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도들 자신이 한 것처럼 직접적으로 복종시키는 것이다.

성경을 법이 되도록 하라는 조언의 힘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교의를 신봉하고 있던

사람들에 관하여 신약에 법으로서의 강한 힘을, 박해(迫害)의 때와 장소에서 준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그들의 회당(Synods) 안에서 자신들 사이에 만든 종령(宗令, decrees)인 것이다. 즉 우리는 사도들, 장로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자문(諮問) 회의의 양식이 다음과 같은 것을 읽는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254] 그것은 그들의 교의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부담을 지울 권력을 나타내는 양식이다. 그런데 '상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의무 지우는 것'과 똑같은 것처럼 생각된다. 따라서 그 자문 회의의 결의는 당시의 그리스도 교도에게 있어서는 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계율을 지켜라', '복음을 신앙하라', '나에게로 오라',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라',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또 '나에게 따라 오라'라고 하는, 별도의 이러한 규정이 그러한 것 이상으로는, 법이 되지 않았다. 그것들은 명령이 아니라, 〈이사야〉 55장 1절의 그것과 같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교에로 초대하고 불러들이는 것이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첫째로, 사도들의 권력은 우리의 구세주의 그것과 다름이 없었던 것이므로, 신의 왕국을 신봉하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었다. 그 왕국이 *(현세의 것이 아니라)* 장차 올 왕국이라는 것은 그들 자신이 인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왕국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한 여러 법도 만들 수 없었다. 또 둘째, 만일 그들의 자문 회의의 결의가 여러 법이었다고 하면, 그것들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지 않고는 불가능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어디에서도 읽지 않으며, 읽는 것은 그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복종해야 할 여러 법에 위반한 그들의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법들은 자연의 여러 법 및 국가의 여러 시민법이며, 그것에 대하여 모든 그리스도 교도인 인간은, 약속에 의해서 자기를 종속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들

254 〈사도행전〉 15장 28절.

이 그들이 개종시킨 사람들에게 지워 주었으리라는 부담이라는 것은, 여러 법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구한 사람들에게 제시된 여러 조건이라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 여러 조건을 그들은 그들 자신의 위험에 당해서 받아들이거나 거부해도 관계없었던 것이며, 그것은 새로운 죄를 수반하지 않았다. 그들의 과거의 죄 때문에 유죄가 되고, 신의 왕국으로부터 쫓겨난다고 하는 위험을 수반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때문에 불신심자(不信心者)에 대하여서는, 성 요한은 신의 진노가 그들 위에 '오리라'라고는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며[255] 그들은 유죄로 될 것이라고 하지 않고, '그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256] 또 신앙의 은전(銀錢)이 '죄의 사면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동시에 또한 불신심(不信心)의 손해가 '같은 죄의 보류'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사도들 그리고 그들의 시대 이후에는 교회의 다른 목자들이 신앙과 태도의 쌍방에 대한 어떤 교의가 가르쳐져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합의하기 위해서 함께 모인다는 것은, 만일 누구도 그들의 종령(宗令)을 지키도록 의무 지워지지 않았다고 하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어떤 사람은 물을 것이다)*. 이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해도 좋을 것이다. 그 자문 회의의 사도들 및 장로들은 그들이 거기에 들어간 그 자체에 의해서, 거기서 결론짓고,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으로 선고된 교의를 그들이 복종을 바치도록 의무 지워진 선행(先行)의 법으로서 그것에 반대하는 자가 없는 한, 가르칠 것을 의무 지워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모든 그리스도 교도가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지키도록, 의무 지워진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각자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하여 숙려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숙려하는 것은 그들의 합의체가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가지는 것은 정치적 주권자들 이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불가능했다. 즉 신은 세계 전부의 주

255 〈요한복음〉 3장 36절.
256 〈요한복음〉 3장 18절.

권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각자가 신의 이름으로서 제시하는 어떠한 것도, 신의 법이라고 해석하도록 구속되어 있지는 않으며, 신이 우리에게 분명한 말로서 시민법에의 복종을 명령한, 그 시민법에 어긋나는 어떠한 것도 그렇게 하도록 구속되어 있지는 않은 것이다.

그리하여 사도들의 자문 회의의 여러 결의는, 그때는 법이 아니라 조언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아서, 더구나 그 이후의 누군가 다른 박사들 혹은 자문 회의의 여러 결의는, 정치적 주권자의 권위 없이 회의를 한 것이면, 법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신약 성경》의 여러 편은 그리스도교 교의의 지극히 완전한 여러 규칙이긴 하지만, 왕들 혹은 주권적 여러 합의체의 권위 이외의 어떤 권위에 의해서도 여러 법으로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성경》을 정전(正典)으로 한 최초의 자문 회의는, 남아 있지 않고 있다. 즉, 성 베드로 뒤의 최초의 로마 주교인 클레멘스에 귀속되는 사도들의 여러 정전의 묶음은 의심스러운 것이며, 왜냐하면 거기에 정전적인 여러 편이 들어 있다고는 하나, '성직자나 속인을 불문하고, 당신들 모든 이에게 의해서 이 서적들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등등'이라는 말은 성직자와 속인과의 구별을 포함하며, 그 구별은 성 베드로 시대의 그것만큼 가까운 데에서 사용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정전으로 《성경》을 결정하기 위한 최초의 자문 회의에서, 아직 남아 있는 것은 라오디게아(Laodicea)의 그것이며, 즉 여러 교회 속에서 그것 이외의 여러 편을 읽을 것을 금지한, 교회법 제59조이다. 그것은 각자 그리스도 교도에게 시달된 지령이 아니라, 교회 속에서 공공하게 무엇을 읽을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다시 말하면 교회인들에게만 시달린 지령이다.

사도들의 시대에 있어서 교회의 역원(役員)을 구성하는 권위에 대하여 사도들의 시대에 있어서의 교회 역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위정자적(爲政者的)이며, 어떤 사람들은 대행자적이었다. 위정자적이었던 것은 불신심자(不信心者)에 대하여 신의 왕국에 관한 복음을 설교하는 직무이며, 성례와 예배를 관리하는 직무이고, 개종된 사람들에게 신앙과 태도의 여러 규칙을 가르치는 직무였다. 대행자적(代行者的)인 것은 교회 집사들의, 즉 교회의 세속적인 필요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서 임명

된 사람들의 직무이며, 그것은 그들이 신앙 두터운 사람들의 자발적인 갹출(醵出)에서 얻은, 화폐의 공동 저축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던 그러한 시대에서 임명되었던 것이다.

위정자적인 역원들 가운데서, 제1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었다. 그것은 처음에는 열두 사람 밖에 없었으며,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구세주 자신에 의해서, 선택되고 구성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직무는 설교하고, 가르치고, 세례하는 것뿐만 아니라, 순교자*(우리의 구세주의 부활의 증인)*인 것이기도 했다. 이 증언은 사도의 지위를 다른 교회적 위정자의 지위로부터 구별한, 특별하고 없어서는 아니 될 표적이었다. 사도라는 인물에 있어서, 우리의 구세주를 그의 부활한 뒤에 본 일이 있든가 그전에 그와 사권 일이 있어서 그의 작업(works) 및 그 밖의 그의 신성(神性)의 증거를 본 일이 있든가의, 어느 쪽이어야 한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것에 따라서 그들은, 만족스러운 증인이라고 해석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스가리옷의 유다에 대신하는 새로운 사도를 선출함에 있어서, 성 베드로는 말하고 있다.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257] 거기에서, 이 '하여야 하리라'라는 말로서 뜻하는 것은, 사도로서의 하나의 필연적인 속성인 것이며, 그것은 우리의 구세주가 육체 가운데서 그를 나타낸 때에 있어서, 처음의 중요한 사도들의 동료였다고 하는 것이다.

맛디아(Mathias)는 집회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다 그리스도가 지상에 있던 동안에 그에 의해서 구성되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서, 최초의 사도는 다음과 같이하여 선출된 맛디아였다. 예루살렘에서 약 120인의 그리스도 교도가, 회의하고 있었다.[258] 이런 사람들이 두 사람, 즉 '정의(正義)'의 요셉과 맛디아를 지명하고,[259] 제비를 뽑게 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 맛디아를 얻으니 저가 열한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

257 〈사도행전〉 1장 21~22절.
258 〈사도행전〉 1장 15절.
259 〈사도행전〉 1장 23절.

라.'[260] 그리하여 우리는 여기서, 이 사도의 서임(敍任)이 총회의 행위이며 그 합의체의 성원으로서가 아닌 성 베드로의 행위나 또는 열한 사람의 행위도 아닌 것을 보는 것이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의 교회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다 그의 뒤에는 바울과 바나바(Barnabas)를 제외하고는, 결코 다른 누구도 사도로 서임되지 않았던 것이므로, 그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3절을 읽는 것과 같이)* 다음과 같이하여 행해졌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의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것으로서 명백한 것은, 그들은 성령에 의해서 소명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소명은 그들에 대하여 선고되고, 그들의 사명은 안디옥의 개별 교회에 의해서 권위지워진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소명이, 사도의 신분으로서의 그것이었다는 것은, 그들이 함께 사도라고 불린 것[261]에 의해서 명백하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였었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의 이 행위 때문이라는 것을 성 바울은 명백히, 성령이 그의 소명에 임해서 사용한 말을 그가 사용했다는 데서 선언하고 있다. 즉 그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등등'[262]이라는 성령의 말에 언급하고, 자신을 신의 복음을 위해서 구별된 사도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다. 그러나 사도된 사람의 일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여기서 사람은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도 있다. 우리의 구세주와 그의 수난하기 전에 교제하지 않은 성 바울이, 그가 일어섰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쉽사리 다음의 일로서 대답할 수 있다. 우리의 구세주 스스로가 그의 승천 뒤에, 다마스쿠스에로의 도중에 있는 그에게 대하여 하늘로부

260 〈사도행전〉 1장 26절.
261 〈사도행전〉 14장 14절.
262 〈로마서〉 1장 1절.

터 나타나,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그리스도〕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263]는 것이며, 따라서*(주를 그의 수난 뒤에 보았으므로)*, 그의 부활에 대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증인이었다. 바나바에 대하여 말하자면, 그는 수난 이전의 제자였다.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였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디아가 예루살렘의 교회에 의해서 선출되고 권위 지워진 것과 마찬가지로(최초의 사도들만으로서가 아니라), 안디옥의 교회에 의해서 선출되고 권위 지워졌다고 하는 것은, 명백하다.

교회에 있어서의 어떠한 직무가 위정자적인 것인가 우리의 언어에 있어서 그리스말의 '에피스코포스(episcopus)〔감독자〕'에서 만들어진 '주교(主敎, bishop)'는, 어떠한 업무의 감독자 혹은 관리자를, 그리고 특히 목자 혹은 양치는 자〔牧羊者〕를 나타내는 것이며, 그것으로부터 비유에 의하여 원래 양치는 자였던 유대 사람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이교도 사이에서도, 왕 혹은 그 밖의 백성의 지배자 또는 지도자의 직무를, 그가 법에 의해서 지배하든 교의에 의해서 지배하든, 그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되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서 설정된 그리스도교의 최초의 주교였다. 그 뜻에서 유대의 사도로서의 지위는, '그의 주교직〔bishoprick〕'으로 불리는 것이다.[264] 그리고 뒤에 이르러서 그리스도교의 여러 교회 가운데 장로들이 구성되고, 그들의 교의와 충고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양의 무리를 인도하는 책무를 졌을 때, 이들 장로들도 또한 주교로 불리었다. 디모데(Timothy)는 장로였다*(그 '장로'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 있어서는 연령의 명칭일 뿐 아니라, 직무의 명칭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는 또한 주교이기도 했다. 그리고 주교들은 그 당시 장로의 칭호로서 만족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에게 사랑받던 사도인 성 요한 스스로가 그의 〈요한2서〉를,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라는 말로서 시작하고 있다. 그것에 의해 명백한 것은 주교 · 목자 · 장로 · 박사, 즉 교사는, 사도들 시대에 있어서의 같

263 〈사도행전〉 9장 15절.
264 〈사도행전〉 1장 20절.

은 직무에 대한 그만한 수의 갖가지 명칭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는 강제에 의한 통치는 없고, 교의 및 설득만에 의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신의 왕국은 아직 새로운 세계에서 이제부터 와야 할 것이므로, 따라서 코먼웰스가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받들게 될 때까지는 어느 교회 가운데서도, 강제하는 권위는 있을 수 없었다. 따라서 거기에는 임무의 다양성은 있었던 것이나 권위의 다양성은 있을 수 없었다.

교회에 있어서의 이러한 위정자적 임무 외에는, 우리는《신약 성경》가운데 다른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읽은 것이 없으며, 특히 그들의 임무란, 즉 사도들 · 주교들 · 장로들 · 목자들 · 박사들로서, 그들의 소명은 유대인이나 불신심자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널리 알리고, 믿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것이었다. 즉 '복음 전도자(evangelists)' 및 '예언자(prophets)'라고 하는 여러 명칭에 의해서 표현되는 것은, 어떠한 직무에서가 아니라 각자의 타고난 자질인 것이며, 그것 때문에 몇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유익한 자였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복음 전도자들은 우리의 구세주의 생애와 행위를 쓰는 것으로서 그러했다. 사도의 성 마태 및 성 요한, 제자인 성 마가 및 성 누가가 그러했으며, 그 밖의 누구라도 그 주제(主題)에 대하여 쓴 사람*(성 토마스와 성 바나바가 교회는 그들의 이름 아래 행하여지고 있던 여러 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썼다고 전해지는 것처럼)*이, 그러했던 것이다. 예언자들은《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자질에 있어 그러했으며, 때로는 그들의 특별한 계시를 교회에 대하여 선고하는 것으로서 그러했다. 즉 이러한 자질 중의 어느 것도, 또한 언어에 대한 자질이나 악귀를 내쫓는다든가 다른 병을 고치는 등의 자질도, 또한 다른 병을 고치는 등의 자질도, 또한 다른 어떤 것도 가르친다고 하는 책무를 위한 정당한 소명과 선택만을 별도로 한다면, 교회의 역원을 임명하지는 않았다.

교사들의 서임(叙任) 맛디아, 바울, 바나바와 같은 사도들이 우리의 구세주 스스로에 의해서 임명되지 않고 교회에 의해서, 즉 그리스도 교도의 합의체에 의해서, 맛디아는 예루살렘의 교회에 의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의 교회에 의하여 임명된 것처럼, 다른 여러 도시에 있어서의 '장로(presbyters)'와 '목자(pastors)'도 또

한 그러한 도시의 교회에 의해서 선출되었다. 그러한 증거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첫째로, 성 바울이 그가 사람들을 그리스도교의 신앙으로 개종시킨 여러 도시에서, 그와 바나바가 사도의 직위를 얻은 직후에 장로의 서임을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고찰하자. 우리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바 주께 부탁하고'[265]라는 것을 읽는다. 그것은 얼핏 보아 그들 스스로가 그 사람을 뽑아, 그의 권위를 준 논거로 풀이될지 모른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원문을 고찰한다면, 그 사람들이 각 도시의 그리스도 교도의 합의체에 의해서 권위 지워지고 선출된 것은 명백하다. 왜냐하면, 거기의 말은, Χειροτονήσαντες ἄυτσῖς πρε-σβυτέρους κατ' ἐκκλησίαν, 즉 '그들이 각 집회에 있어서의 거수에 의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장로를 선임했을 때'이기 때문이다. 그 모든 도시에 있어서 위정자와 관원을 선출하는 양식은, 투표의 다수성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찬성표를 반대표로부터 구별하는 보통 방법은 거수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 도시의 어느 것에 있어서도 어떤 관리의 서임이란, 투표의 다수성에 의해서 그를 선출하기 위하여 백성들을 모으는 것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 투표의 다수성이 올려진 손의 다수성에 의하는 것인지, 목소리의 다수성에 의하는 것인지, 찬부의 표적을 한 그릇에 각자가 함께 던져 넣는 구슬 · 콩 · 잔돌의 다수성에 의하는 것인가에 관계없으며, 왜냐하면 갖가지 도시는 그 점에 있어서 갖가지 관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충분히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합의체가 그들 자신의 장로를 선출한 것이며, 사도들은 그러한 선거를 위해서 그들을 불러 모으고, 선출된 자들을 널리 알리고, 그 사람들에게 지금은 성별(聖別)이라고 불리는 축복을 주기 위한 합의체의 사회자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이유에 의해서 *(사도들이 부재일 때에)*, 장로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 합의체의 사회자는 '프로에스토테스(προεστῶῖες)' 그리고 라틴어로는 '안티스티테스(Antistites)'라고 불리었다. 그러한 어구(語句)가 나타내는 것은, 합의체에 있어서의 주요 인물인 것이며, 그의 직무는 표를 세는 것, 그것으로서 누가 선출되었는가를 선고하는 것이었으며, 그리고 표

265 〈사도행전〉 14장 23절.

가 같을 때는 그 자신의 표를 더하는 것으로서 문제의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었다. 그것은 회의의 사회자 직무이다. 그리고 *(모든 교회는 같은 방식으로 선임된 그들의 장로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ἵνα καταστήσῃς κατὰ πόλιν πρεσβυτέρους '내가 너를 그레타(Crete)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設定)* 하려 함이니'[266]*(와 같이)* 세운다*(設定)*라는 말일 경우에는, 우리는 같은 것을, 즉 그가 신앙이 두터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투표의 다수성에 의하여 그들에게 대해서 장로들을 서임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위정자도 합의체에 의하는 이외의 방식으로 선출된 것을 아마도 결코 사람들이 보지 않았던, 어느 도시에서, 만일 그 도시 가운데서 그리스도 교도가 된 사람들이 그들의 교사 및 지도자, 즉 그들의 장로*(별도의 호칭으로는 주교)*의 선거에 대하여 성 바울에 의해서 거수하여 선출했다〔χειροτονήσαντες〕고 하는 말[267]에서 암시된, 이 투표의 다수성 이외의 방식을 생각해 낼 정도라고 한다면, 기묘한 일일 것이다. 또, 주교들을 선출하는 데 *(황제들이 주교들 사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을 규제할 필요를 느끼기 이전에는)*, 각자의 도시에 있어서의 그리스도 교도의 여러 합의체에 따르는 그 밖의 선출 방법이 일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와 같은 것은 또, 로마 주교들의 선거에 있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 행해지는 관행에 의해서도 또한 확인되는 것이다. 즉 그것은, 만일 어떤 곳의 주교가 어딘가의 도시에서 와서 그 직무를 다른 곳에 창설하기 위하여 갈 때에, 거기〔원래의 도시〕에서의 목자의 직무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그 계승자로 선택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그는 그가 최후에 거주하다 죽어 간 곳에서의 그의 계승자를 임명하는 권리를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며, 그런데 우리는, 로마의 어떤 주교도 일찍이 그 계승자를 임명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즉 그들은 오랫동안 백성에 의해서 선출된 것이며, 우리가 선거에 대한 다마수스(Damasus)와 우르시키누스(Ursicinus) 사이에 일어난 소란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그대로이다. 그

266 〈디도서〉 1장 5절.
267 〈사도행전〉 14장 23절.

것은 암미아누스 마르셀리누스(Ammianus Marcellinus)의 말하는 바에서는 대단히 큰 문제였으며, 그 때문에 지사(知事) 유벤티우스(Juventius)는, 그 두 사람 사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없어서, 도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여지없이 당하게 될 정도였으며 그 교회 자체 내에서, 그때 백 명 이상의 사람이 사망했음이 알려졌을 정도였다. 그리고 그들, '주교들'은 뒤에, 처음은 로마의 전 성직자에 의해서, 다음은 추기경들에 의해서, 선출되었다고는 하나, 누구도 그의 선행자에 의해서 계승자로 임명되는 일은 없었다. 따라서 만일 그들이 그들 자신의 계승자들을 임명하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면 내가 무엇인가 새로운 권력을 물려받지 않고서는, 그들은 다른 사교들의 계승자를 임명하는 권리를 갖지 않았다고 결론짓는 것은 타당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 권력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교회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교회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명령하는 합법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뿐이며, 가르치기도 하고 명령하기도 하는 것은 정치적 주권자만이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교회의 대행자들이란 무엇인가 원래는 '디아코노스(Διάκονος)'인 '대행자(Minister)'라고 하는 말이, 본래의 디아코노스에서 표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업무를 자발적으로 행하는 사람이며, 사환과 다른 점은 다음과 같은 것뿐이다. 즉 사환들은 그들의 지위에 따라서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는 것에 대하여 의무 지워지지만, 다른 편으로는 대행자들은 그들이 도맡은 일에 대하여서만이 의무 지워지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이 도맡아 버린 것 이상의 일들에는 구속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교회의 세속적인 일들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함께 대행자이긴 하나, 그들은 따로따로의 인격의 대행자인 것이다. 즉, '말씀에 대한 대행자들'[268]이라고 불린다. 교회의 목자들은, 그리스도의 대행자들이며 그것은 그의 말씀인 것이다. 그러나, '식탁의 봉사'[269]로 불리는 집사(執事)의 임무는, 교회 혹은 회중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봉사이다. 그러므로 어떤 한 사람도, 교회 전

268 〈사도행전〉 6장 4절.
269 〈사도행전〉 6장 2절.

체도 그들의 목자에 대하여 그가 그들의 대행자였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었으나 집사에 대하여는 그가 도맡은 책무가 다음 중의 어떤 것이었던가에 구애되지 않고, 회중 전체는 그를 그들의 대행자라고 불러도 정당했을 것이다. 즉 그것이 식탁에 봉사하는 것이었든가, 그리스도 교도가 초기(初期)와 같이 각자의 도시에서 공동 재산 혹은 탁발(托鉢)에 의해서 생활하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생활 자료를 분배하는 것이었든가, 예배당이나 수입이나 그 밖의 교회의 현세적인 업무에 관하여 배려하는 것이었든가에 구애되지 않고, 그러한 것이다.

즉 집사로서의 그들의 업무는 회중에 봉사하는 것이며, 다만 때때로 그들은 복음을 설교하고, 그리스도의 교의를 주장하는 것을 피하지는 않았다. 각 사람은 그 자질에 따라서 성 스데반(Stephen)이 한 것처럼 그렇게 했으며, 또 설교와 세례를 함께 빌립(Philip)이 한 것처럼 행했던 것이다. 즉 그것은 사마리아(Samaria)에서 복음을 설교하고[270] 내시(宦官)에게 세례를 받게 한 *(38절)*, 그 빌립은 집사 빌립이지 사도 빌립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즉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설교했을 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으며, *(14절)* 그들은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낸 것'이며, 두 사람이 안수(按手)하는 것으로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15절)* 성례(聖禮)를 받았다. 그것을 그들은, 전에 빌립의 세례에 의해서는 받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다. 왜냐하면 성령의 수여를 위해서는, 그들의 세례가 교회의 대행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씀의 대행자에 의해서, 관리 혹은 확인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사 빌립이 세례를 해준 사람들의 세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도들은 그들 자신의 동료인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보냈던 것이며, 두 사람은 전에 세례를 받기만 했던 사람들에게 성령의 표적인 은총을 수여했다. 성령은 그 당시 모든 진실한 신앙자에게는 따르고 있었던 것이며, 그것들이 무엇이었던가는 성 마가(Mark)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271]에 의하여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270 〈사도행전〉 8장 5절.
271 〈마가복음〉 16장 17~18절.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와 같은 것은 빌립이 줄 수는 없으며, 사도들은 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나 보이듯이)*, 사도들은 그것을 실제적으로 진실되게 믿으며, 그리스도 자신의 대행자에 의해서 세례된 사람들에게 주었던 것이다. 그 힘은, 현대의 그리스도 대행자들이 수여할 수 없는 것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혀 조금밖에 진실한 신앙자가 없든가 또는 그리스도가 전혀 조금밖에 대행자를 가지고 있지 않든가의 어느 경우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여 선출되는가 최초의 집사들이 사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자들(disciples)의 합의체에 의해서 선출되었다고 하는 것, 즉 모든 종류의 그리스도 교도로 성립된 집회에 의해서 선출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6장에서 명백한 것이다. 거기에서 '열두 사람'이, 제자의 수가 증가된 후에 그들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대하여, 사도들이 신의 말씀을 떠나서 식탁에 봉사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말한 후부터는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우리는 읽는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3절)*.' 여기서 분명한 것은, 사도들이 그들을 선출된 자로서 선고하기는 했으나 집회가 그들을 선출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것은 또한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그들은 일곱 사람을 택하여 등등*(5절)*'이라고 기록된 곳에서 더욱 명백하게 하고 있다.

모세의 여러 법 아래서의 교회 수입에 대하여 《구약 성경》 아래서는 레위 지파만이 제사(祭司)의 지위 및 그 밖의, 더욱 하급의 교회 직무에 부임할 수 있었다. 토지는 *(레위를 빼놓고)* 다른 여러 지파 사이에 나누어지고, 그것은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Ephraim)과 므낫세(Manasseh)에의 재분할에 의해서, 계속 열둘(十二)이었다. 레위 지파에게는 그들의 거주를 위해서 일정한 여러 도시가 그들의 가축을 위한 교외(郊外)와 더불어 할당되었다. 그렇지만 그들의 분여 재산(分與財産)으로서는, 그들은 그들 형제들의 토지 수확의 10분의 1을 받을 것으로 되어 있었다. 다시 제사들은 그들의 생활 자료로서 그 10분의 1의 10분의 1을, 희사(喜捨)와 예물의 일부분과 더불어 얻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신은 아론(Aaron)에게 '너는 이스라

엘 자손의 땅의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272]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즉 그때 신은 왕이었으며, 그의 공공적 대행자로서 레위 지파를 설정한 것이므로, 그는 그들에게 그 생활 자료로서 공공 수입을, 즉 신이 그 자신에게 보류해 두었던 부분을 허용한 것이다. 그것이 10분의 1세(稅)와 봉납인 것이며, 신이, 내가 너의 기업〔世襲財産〕이라고 말하는 경우에 뜻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레위 사람에게, 클레로스(Κλῆρος)에서 온 성직자(clergy)라는 명칭을 귀속시켜도 부적당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클레로스는 제비〔抽籤〕 또는 세습 재산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신의 왕국의 세습자(世襲者)였기 때문이 아니라, 신의 세습 재산이 그들의 생활 자료였기 때문인 것이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신 스스로가 그들의 왕이었다는 것, 모세, 아론 및 후계의 제사장들이 그의 대리였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10분의 1세 및 봉납에 대한 권리는, 정치 권력에 의해서 설정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다.

그들이 국왕을 요구하는 데 있어 신을 거절한 뒤에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 수입을 즐겼으나 그것에 대한 권리는 국왕들이 그것을 그들로부터 결코 빼앗아 버리지 않았다는 데서 나온 것이다. 왜냐하면 공공 수입은 공공적 인격이었던 것, 그리고 *(사로잡힘까지는)* 국왕이었던 자의 처리에 맡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사로잡힘에서 돌아온 뒤에는, 그들은 그 10분의 1세를 전과 같이 제사에게 지불했다. 여기까지는 교회의 급여는 정치적 주권자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우리의 구세주 시대에 있어서, 그리고 그 이후 우리의 구세주와 그의 사도들의 생활 자료에 대하여는, 그들이 한 개의 지갑을 가지고 있었던 것*(그것은 이스가리옷 유다가 갖고 다녔었다)*, 사도들 중에서 어부였던 사람과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때때로 그들의 생업을 이용한 것,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가 열두 사도를 설교하려고 부릴 때에 그가 그들에게 대하여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므로 너희

272 〈민수기〉 18장 20절.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를 가지지 말라"[273]라고 금지한 것을 읽을 뿐이다. 그것에 의하면 아마도 그들의 통상 생활 자료는, 그들의 업무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업무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8절)*'고 하는 것이었으며, 그들의 생활 자료는 그들이 그들의 구세주인 메시아의 도래에 대하여 선전하고 다닌 좋은 소식을 믿은 사람들의 '무상의 증여'인 것이었다.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가 병을 고쳐 준 사람들에 의해서 감사의 뜻으로 헌납된 것을 덧붙여도 좋을 것이다. 그 헌납에 대해서는 '악귀를 쫓아 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막달라 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274]라고 언급되어 있다.

우리의 구세주의 승천 뒤, 각 도시의 그리스도 교도들은 그들의 토지와 재산의 매각(賣却)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사도들의 발밑에 의무로서가 아니라 선의에서 던져진 화폐에 의해서, 공동의 생활을 이끌었다.[275] 즉,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성 바울이 아나니아(Ananiah)에게 말한다)*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 없더냐"[276]라고 하는 것이 가리키는 것은, 그는 자신이 스스로 희망하지 않는 한, 전혀 아무것도 헌납하도록 구속되어 있지 않으므로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서, 그의 토지 또는 그의 화폐를 보존할 필요는 없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도들의 시대에 그러했던 것과 같이 그 후에도 계속해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교회의 주교들과 목자들의 생활 자료가 그들의 교의를 신봉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헌납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는 또한 10분의 1세에 대한 언급은 아무것도 없으며, 콘스탄티누스와 그 아들의 시대에는 그리스도들이 그들의 목자에 대하여 지녔던 애착은, 암미아누스 마르셀리누스(Ammianus Marcellinus)가 *(주교직에 대한 '다*

273 〈마태복음〉 10장 9~10절.
274 〈누가복음〉 8장 2~3절.
275 〈사도행전〉 4장 34~35절.
276 〈사도행전〉 5장 4절.

마수스(Damasus)'와 '우르시키누스' 사이에 일어난 소란을 서술하여) 말하고 있는 그대로이며, 즉 그러한 시대의 주교들은 그들의 양들(신자들), 특히 기혼 여성들의 돈 잘 내는 베푸는 마음에 의해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마차로 옮겨지고 의식(衣食)에 있어서 호화스러웠으므로 그것은 그들이 경쟁할 만한 것이었다. **복음 대행자들은 그들의 신자들의 희사(喜捨)에 의해서 생활했다** 그러나, 여기서 어떤 사람은 목자는 그때 자선에 의해서 살아간 것과 같이 자발적 헌납에 의해서 살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라고 물을지도 모른다. '누가*(라고 성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7절에서 말한다)*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먹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 떼를 기르고 그 양 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다시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277] 다시 말하면, 제단에 바친 것의 일부를 그들의 생활 자료로서 얻는 것을 모르는가? 그리고, 그는 결론으로 내린다. (같은 장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여기서 확실히, 교회의 목자들은 그들의 신자들에 의해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추론할 수 있으나 그 목자들이 그들 자신의 급여의 양(量) 혹은 종류를 결정할 것이며, *(말하자면)* 그들 자신의 식사 분배자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추론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의 급여는 필연적으로, 그들의 신자들 중의 각각의 개인의 감사 및 베푸는 마음에 의해서, 그렇지 않으면 합의체의 전체에 의해서 결정되었을 것이 틀림없다. 그것은 합의체의 전체에 의해서만이 결정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결의는 그때는 법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자들의 생활 자료는, 황제 및 정치적 주권자가, 그것을 정하는 여러 법을 만들기까지는 희사(benevolence)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었다. 제단에 봉사한 사람들은 바쳐진 것으로서 생활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목자들은 또한, 그들의 신자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바쳐지는 것을 받아도 좋으나 바쳐지지 않을 것을 수탈해서는 안 된다. 재판관을 갖고 있지 않던 사람들은 어떤 법정에 그것에 대하여 소송해야 하였던가. 혹

277 〈고린도전서〉 9장 13절.

은 만일 그들이, 그들 가운데 중재자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 관리들을 무장시키는 권력을 가지지 않았을 경우에, 누가 그 중재자들의 판결을 성행해야 할 것인가. 따라서 교회의 어떤 목자에 대해서도 합의체의 전체에 의한 것 외에는, 일정한 생활 자료가 할당될 수는 없었으며, 그것은 그들의 포고가 *('정전(正典)'에서뿐만 아니라)* '법'의 힘을 가진 경우라야만 했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남는 것이다. 그 여러 법은, 황제, 국왕 혹은 그 밖의 정치적 주권자에 의해서가 아니면 만들지 못했던 것이다. 모세의 법에 있어서의 10분의 1세의 권리는 당시의 복음 대행자들에게는 적용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모세와 제사장들은 신의 아래서 백성의 정치적 주권자였으며, 유대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 신의 왕국은 현존의 것이었으나 이것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의한 신의 왕국은 아직 이제부터 도래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는 다음과 같은 것이 가르쳐져 왔다. 무엇이 교회의 목자인가, 그들의 위임된 여러 항목은 무엇인가 *(그들이 각자의 합의체에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세례하고 사회자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과 같은)* 교회에 의한 비난, 즉 파문이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교가 시민법에 의해서 금지되었던 곳에서는, 자신들을 파문된 사람들의 동료로부터 쫓아 내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교가 시민법에 의해서 명령되어 있는 곳에서는 파문된 사람들을 그리스도 교도의 합의체로부터 쫓아 내는 것이란 무엇인가, 누가 교회의 목자 및 대행자를 선출했는가*(그것은 합의체였다)*, 누가 그들을 성별(聖別)하고 축복했는가*(그것은 목자였다)*, 무엇이 그들의 정당한 수입이었던가*(그것은 그들 자신의 재산 및 그들 자신의 노동과, 귀의(歸依)하여 감사에 넘치는 그리스도 교도의 자발적인 헌납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거기서 우리는, 정치적 주권자이면서 더구나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받드는 사람들의 교회에서의 직무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된다.

그리스도 교도인 정치적 주권자는 목자를 임명하는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여러 교의가 평화에 적합하고, 신민들에게 가르쳐지는데 적합한가를 심판하는 권리는 모두 코먼웰스에 있어서, 주권자의 정치 권력에, 그 권력이 한 사람에게 있든, 사람들의 합의체에 있든 간에 불가분(不可分)하게 결

부되어 있는 것*(이미 제18장에서 증명된 것과 같이)*이라고 하는 것이다. 즉 가장 낮은 능력으로도 다음 것은 명백하다. 사람들의 여러 행위는, 그러한 행위에서 그들 자신에게 돌려지는 이해에 대하여, 그들이 지니는 의견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 그리고 따라서 주권에 대한 자신들의 복종이 그들의 불복종보다도 유해(有害)하리라고 하는 의견에 한번 사로잡힌 사람들은 여러 법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 때문에 코먼웰스를 뒤엎고, 혼란과 내란을 불러들일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시민 정부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설정된 것이었다. 그래서 이교도의 모든 코먼웰스에 있어서, 주권자들은 백성의 목자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의 허가와 권위에 의하지 않고서는 합법적으로 백성에게 가르칠 수 있는 신민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교도의 왕들의 이러한 권리는 그리스도의 신앙에 대한 그들의 개종에 의해서, 그들로부터 빼앗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는 결코 왕들이 그를 믿었기 때문에 폐위되어야 한다는 것, 즉 그 자신 이외의 누구에게 신종해야 한다든가, 또는 *(전적으로 같은 것이지만)* 그들 신민들 사이의 평화의 유지와, 외적에 대한 그들의 방위에 필요한 권력을 빼앗겨야 한다고는 정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교도인 국왕들은 변함없이 그들의 백성의 최고 목자인 것이며, 교회에서 가르치기 위해, 즉 그들의 책무에 위임될 백성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의 희망하는 대로의 목자들을 서임하는 권력을 가지는 것이다.

또, 그들을 선출할 권리가 *(왕들의 개종하기 전과 같이)* 교회에 있다고 하자. 이미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사도들 자신의 시대에 그러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그 권리는 그리스도 교도인 정치적 주권자에게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 교도이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허용하는 것이며, 그는 주권자이므로, *(그것은 교회가 대표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가 선출하는 교사들은 교회에 의해서 선출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교도의 합의체가, 그리스도 교도의 코먼웰스에 있어서 그들의 목자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그를 선출하는 것은 주권자이며,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권위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어느 도시에서 그들의 시장을 선출하는 경우와 같은 것으로서, 그것은 주권을 가진 사람

의 행위인 것이다. 즉 행해지는 모든 행위는, 그 행위가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의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역사 가운데 백성에 의한, 혹은 성직자에 의한 목자들의 선거에 관하여 어떠한 정치적 주권자의 권리에 반대하는 논거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선출한 사람들은 그의 권위에 의해서 그것을 행했기 때문이다.

거기서 각각의 코먼웰스에 있어서, 정치적 주권자가 최고의 목자이며, 그의 신민들이라고 하는 양 떼의 전체가 그의 책무에 위탁되고, 따라서 그의 권위에 의하여 다른 모든 목자가 만들어지고 가르치는 권력을 가지며, 다른 모든 목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으로 보면 당연히 또한 다음의 것이 나오게 된다. 즉 다른 모든 목자가, 그 직무에 속하는 교수, 설교, 그 밖의 여러 기능에 대한 권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은 정치적 주권자로부터라는 것, 그들은 그의 대행자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은 여러 도시의 위정자, 여러 법정의 재판관, 여러 군대의 지휘관이 모든 코먼웰스 전체의 위정자이며 전 소송 사건의 재판관이며 전군(軍)의 지휘관인 사람의, 대관자(代官者)들에 지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므로, 그 사람이란 언제나 정치적 주권자라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이유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신의 시민이기 때문이 아니라 배우게 될 사람들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즉 그리스도 교도인 국왕이, 그의 영토 안에서 목자들을 임명하는 권위를 다른 왕에게 위임한다고 가정하자*(갖가지 그리스도 교도인 국왕이, 그 권력을 법왕에게 허용해 준 것처럼)*.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자신 위에 목자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 위에 주권적 목자를 설정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자신으로부터 정치적 권력을 빼앗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 정치적 권력은, 사람들이 그에의 의무에 대하여 가지는 의견과, 저 세상에 있어서의 처벌에의 공포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박사들의 수완과 충성에 의존할 것이다. 박사들은 다른 어떤 종류의 사람들에게도 못지않게, 야심뿐만 아니라 무지에도 사로잡히기 쉬운 것이다. 그러므로 외래자(外來者)가 교사들을 임명하는 권위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것은 그에 대하여 그가 가르치고 있는 여러 영토의 주권자에 의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교의 박사들은, 그리스도교에 대한 학교 교사이다. 그러나 국왕

들은 여러 가족의 아버지이며, 그들의 신민들을 위한 학교 교사들을, 한 사람의 외래자의 추천에 의하여 받아들일는지도 모르나, 그 외래자의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특히 그들에게 대한 나쁜 교수법이, 그 학교 교사들을 추천하는 자의 크고 명백한 이익이 될 경우에는 그러할 것이다. 그 학교 교수들은, 공공의 이익이 되는 것보다는 장기간을 유지하여 두도록 국왕들은 의무 지워지는 것도 아니다. 그들이 주권에 있어서 본질적인 어떠한 다른 권리를 보유하는 한, 그들은 공공의 이익에 대하여 배려하도록 다시 책무를 지는 것이다.

주권자의 목자로서의 권리만이 신권(神權, jure divino)에 의하는 것이며, 다른 목자의 그것은 정치적 권리(jure civili)이다 따라서 만일 목자가 그 직무를 집행하고 있을 때에, 사람이 목자에 대하여, 마치 우리의 구세주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물은 것처럼,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278]라고 묻는다고 하면, 그가 할 수 있는 정당한 답변은, 그는 그것을 코먼웰스를 대표하는 국왕 혹은 회중에 의해서 그에게 주어진, 코먼웰스의 권위에 의해서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는 없다. 최고의 목자를 제외한 모든 목자는 정치적 주권자의 권리에 있어서, 즉 그의 권위에 의해서, 즉 '정치적 권리(Jure Civili)'에 의해서 그 책무를 집행한다, 그러나 국왕 및 다른 모든 주권자는, 최고의 목자라는 그의 직무를 신으로부터 나오는 직접적인 권위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신의 권리(in Gods Rights)' 즉 '신권(Jure Divino)'에 의해서 집행한다. 따라서 왕들 이외에는 누구도, 그들의 칭호 가운데 *(신에게만 대한 그들의 복종의 표적)* '신의 은혜에 의한 왕 등등(Dei gratiâ Rex, dc)'을 넣을 수는 없는 것이다. 주교들은 그들의 신자에게 보내는 편지의 처음에 있어서, '국왕 폐하의 은덕에 의하여 그러한 주교구의 주교는'이라든가, 정치적 대행자들과 같이 '폐하의 이름으로서'라든가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신의 배려'라고 할 때에 그것은 '신의 은혜'와 같은 것이나 그들은 위장되어 있긴 하지만, 자신들이 그 권위를 정치적 국가로부터 받은 것을 부정하는 것이며, 그리고 코먼웰스의 통일과 방위에 반하여, 교활하게 그들의 정치적 복

278 〈마태복음〉 21장 23절.

종의 목걸이를 살짝 빠져 나오는 것이다.

그리스도 교도인 왕들은, 목자의 기능을 모든 방식으로 집행하는 권력을 가진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 교도인 주권자의 각자가, 그 자신의 신민들의 최고의 목자라고 한다면, 그는 설교하는 권위도*(그것은 아마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가질 뿐 아니라, 또한 세례하고, 주의 만찬의 성례를 운영하고, 여러 신전, 여러 목자를 신에의 봉사를 위하여 성별(聖別)하는 권위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을 대개의 사람은 부정하는 것이며, 그 이유의 일부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통상적이 아닌 까닭이며, 또 일부는 성례의 운영 및 신성한 용도를 위한 사람이나 장소의 성별(聖別)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손을 얹게 되는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이란 같은 양식으로 손을 얹게 됨으로써, 사도의 시대로부터 이어서 같은 모양의 대행자의 지위에 임명되어 온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리스도 교도인 왕이, 세례하고 성별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명으로서, 나는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하지 않는가, 또 안수하는 통상 의식 없이 그들이 그렇게 하고자 생각할 때는,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의, 두 가지에 대하여 이유를 제출해야 한다.

어떤 왕이라도, 만일 그가 여러 과학에 있어서 유능하다면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도록 다른 사람을 권위 지우는 것과 같은 그의 직무의 권리에 의해서 스스로 강의를 해도 좋았다고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먼웰스의 업무의 전체에의 배려가 그의 시간의 전부를 차지해 버리기 때문에, 그로서는 스스로 그 개별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불편했던 것이다. 국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한, 그가 희망한다면 모든 양식의 소송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재판을 담당해도 좋은 것이며, 그것은 그의 이름으로서 그것을 하기 위한 권위를 다른 사람에게 부여해도 좋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져 있는 지위와 통치의 책무는 그가 항상 배의 방향을 잡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대행자의 여러 직무를 그의 밑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것처럼 구속하는 것이다. 그와 같이하여 우리의 구세주*(그는 틀림없이 세례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그 자신

이외에는 누구도 세례하지 않고[279] 그의 사도들 및 제자들을, 세례하기 위하여 보냈던 것이다. 그렇게 하여 또 성 바울도, 갖가지 더구나 먼 장소에서 설교할 필요 때문에, 조금밖에 세례하지 않았다. 모든 고린도 사람 중에서, 그가 세례한 것은 그리스보(Crispus), 가이오(Caius), 스데바나(Stephanas)뿐이며,[280] 그 이유는, 그의 주요한 책무가 설교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281] 그것으로서 명백한 것은 *(교회의 통치라고 하는 것과 같은)* 커다란 책무는 비교적 적은 책무를 면제한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 교도인 국왕이, 왜 항상 한결같이 세례하지 않는가 하는 이유는 명백한 것이며, 오늘날 주교들에 의해서 세례받는 사람은 극히 적으며, 법황에 의해서는 더욱 적다는 것과 같은 이유인 것이다.

그리고 손을 얹는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왕을 세례하고 성별하도록 권위를 지우는 것이 필요했던가 아닌가를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고찰해도 좋을 것이다.

손을 얹는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 사이의 극히 오래된 공공의 의식이었으며, 그것에 의해서 어떤 사람의 기도, 축복, 희생, 성별, 단죄 및 그 밖의 것이 명시되고 명확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와 같이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함에 있어서, '우수(右手)를 펴서 차자(次子)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左手)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은'[282] 것이며, 이것을 그는 *(그것을 하기 위하여 그의 양팔을 교차시켜 펴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가 요셉에 의해서 그에게 가르쳐진 것이라 하더라도)* 알면서 그가 누구 편에 더 큰 축복을 겨눈 것인가를, 명시하기 위하여 행한 것이었다. 또 그와 같이 아론은, 구은 예물을 희생으로서 바침에 있어서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283] 그리고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15절)*'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것으로는 또, 〈레위기〉 1장 4절 및 8장 14절에서도 되풀이되어 있다. 그와 같이하여 모세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사람의 주장(主將)에 임명했을 때, 즉 신에게

279 〈요한복음〉 4장 2절.
280 〈고린도전서〉 1장 14~16절.
281 〈고린도전서〉 1장 17절.
282 〈창세기〉 48장 14절.
283 〈출애굽기〉 29장 10절.

부림을 받도록 그를 성별했을 때,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284] 그것은 싸움에서 그들이 복종할 자가 누구인가를 명시하고 명확하게 한 것이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의 성별에 있어서, 신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들에게 안수케 할 것'[285]을 명령했다. 그리고 주를 더럽힌 자를 단죄함에 있어서는, 신은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286]라고 명령했다. 왜 제사, 보조 사제 혹은 다른 재판의 대행자가 아니라, 차라리 그를 들은 자들만이 손을 그의 위에 얹어 안수해야 하는가라고 말하면 그 밖에는 누구도 집합자의 눈에 대하여 신을 저주하고, 그리고 죽어야 할 자가 누구인가를 명시하고 증명할 수 없었던 것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 혹은 어떠한 다른 사람을 손에 의해서 눈에 명시하는 것은, 그것이 이름으로서 귀에 대고 행하는 경우보다도 틀리기 쉬운 것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의식은 다음과 같이 잘 지켜졌다. 즉, 일시에 전체 회중을 축복하는 것은, 안수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287]이었다. 다시 우리는 또 이교도 사이에서의 신전(神殿)의 성별과 같은 양식의 의식에 대하여 읽는 것이며, 예를 들면 제사가 그 신전의 어느 기둥에 그의 손을 얹고, 그러는 동안 내내 그는 성별의 말을 되이고 있었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신에 대한 공공적 봉사'예배'에 관한 일들에 있어서 손으로서 눈에 대해 보증하는 것은 말로서 귀에 알리는 것보다도 무엇인가 개별적인 것을 밝히는 데에는 이와 같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 의식은 따라서 우리의 구세주의 시대에는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즉 딸이 병이 들었던 야이로(Jairus)는, 우리의 구세주에 대하여 *(그녀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288] 하고 간구한 것이다. 또 '사

284 〈민수기〉 27장 23절.
285 〈민수기〉 8장 10절.
286 〈레위기〉 24장 14절.
287 〈레위기〉 9장 22절.
288 〈마가복음〉 5장 23절.

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옴에"[289]이다. 이 오래된 전례(典禮)에 의해서, 사도들, 장로들 및 장로회의 자체가 목자에 임명한 사람들에게, 또한 성령을 받게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손을 얹은 것이다. 더구나 단 한 번이 아니라 새로운 필요가 생길 경우에는 때로는 더 많이 그렇게 했으나 목적은 역시 같은 것이었다. 즉 목자의 책무 일반에게, 혹은 하나의 특정한 사명에게 서임된 그 인물의 움직일 수 없는 종교적인 명시였다. 그와 같이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290]라는 것이며 그것이 행하여진 것은, 그들에게 성령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바로 그 앞의 3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선출되기 전에 성령에 가득 차 있었으므로)* 그들을 그 직무에 대하여 명시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교회 집사 빌립이 일정한 사람들을 사마리아에서 개종시킨 뒤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에 가서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291] 또 사도뿐만 아니라 장로도 이런 힘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성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292] 즉 성급히 누구를 목자의 직무로 명시*(임명)*해서도 안 된다고 충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로회의 전체가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그들의 손을 디모데 위에 얹었으나 이것은 어떤 사람이 장로회의의 임명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한 일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며, 그 사람은 그들의 프로에스토스(προεστὼς 〔prolocutor〕) 즉 사회자였을 가능성이 극히 많으며, 그 사회자는 바울 자신이었을 것이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가운데, 그는 디모데에게 말한다.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잇달아 말하면 거기에서 성령이 뜻하는 것은 삼위일체에서의 제3의 인격이 아니라, 목자의 직무에서 필요한 선물이라는 것을 주의해 주기 바란다. 우리는 또 성 바울이, 두 번 손을 얹어진 것을 읽는다. 한 번은 그의 세례에 임해서 다마스쿠스

289 〈마태복음〉 19장 13절.
290 〈사도행전〉 6장 6절.
291 〈사도행전〉 8장 17절.
292 〈디모데전서〉 5장 22절.

에서 아나니아로부터[293] 다음에는 안디옥에서 그가 처음 설교를 위해 보내어졌을 때이다.[294] 그 당시 목자의 임명에 있어서 고려된 이 의식의 용도는, 그들이 그러한 힘을 준 인물을 명시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만약 그때, 전에 이미 가르치는 힘을 얻어 버린 어느 그리스도교가 있었다고 하면, 그를 세례하는 일, 즉 그리스도 교도로서 하는 일은 그에게 무슨 새로운 힘을 준 것이 아니라 그가 진실한 교의를 설교하도록, 즉 그의 힘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손을 얹는 것은 불필요했던 것이며, 세례 그 자체로서 충분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각 주권자는 그리스도교 이전에, 가르치는 권력, 교사 임명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며, 따라서 그리스도교는 그들에게 새로운 권리를 준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르치는 길에 그들을 인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목자의 기능이 어느 일부분을 실시하는 데에도, 즉 가령 세례 및 성별을 하는 데 그들을 권위 지우기 위해서 *(세례를 하는 것 이외에)* 손을 얹을 필요는 없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주권이 제사장에게 있던 기간은 제사만이 성별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래도 주권이 왕에게 있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 즉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읽는 것이다. 솔로몬은 백성을 축복하고 신전을 성별하고 그리고 현재에서는 모든 그리스도교의 교회와 예배당을 성별하기 위한 모범인, 저 공공의 기도를 선언했다.[295] 그것에 따라서 명백한 것은 그가 교회 통치의 권력뿐 아니라, 교회 기능을 행사하는 권리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다.

정치적 주권자가 만일 그리스도 교도라고 하면, 그 자신의 영토에 있어서의 교회의 장(長)이다 그리스도 교도인 주권자들에 있어서의 정치적 권리와 교회적 권리와의 이 통합에서, 정치와 종교와의 양쪽에 있어서 사람들의 외적 행위(外的行爲)를 통치하기 위하여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한도의, 모든 양식의 권력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리고 그들은 코먼웰스로서 그리고 교회로서의, 그들 자신의 신민들을 통치하기 위하여 그들이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여러

293 〈사도행전〉 9장 17~18절.
294 〈사도행전〉 13장 3절.
295 〈열왕기상〉 8장.

법을 만들어도 좋은 것이며 국가와 교회는 같은 사람들인 것이다.
따라서 만일 그들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들은 *(지금 많은 그리스도 교도인 왕이 하는 것과 같이)* 종교의 여러 가지 사항들에 관한 그들 자신의 신민의 통치를, 법왕에게 위탁해도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경우에는 법왕은 그 점에서는 그들에게 종속하며, 다른 사람의 그 영토에서 그 부탁을 '정치적 권리에 의해서' 즉 정치적 주권자의 권리(jure civili)에 있어서 행사하는 것이며, '신적 권리(神的權利)에 의해서' 즉 신의 권리(jure divino)에서는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주권자가 그들의 신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법황은 그 직무를 해제시킬 수 있다. 그들은 또한 그렇게 하고자 하면 종교에 대한 배려를 한 사람의 최고의 목자 또는 목자들의 한 합의체에 위탁해도 좋은 것이며, 그것들에게 교회에 대한 어떤 권력을 수여하고, 한쪽에게 다른 쪽에 대한 어떤 권력을 수여해도 그들이 가장 형편에 알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여도 좋은 것이다. 또 대주교 · 주교 · 제사 · 장로와 같은 어떤 명예로운 칭호라도 마음 내키는 대로 수여해도 좋으며, 그러한 사람들을 10분의 1세 또는 다른 것에 의해서 유지하는 법률을 그들이 바라는 대로 만들어도 좋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그것을 진실한 양심에서 행하고, 양심에 대하여서는, 신만이 판정자인 것이다. 정치적 주권자가 심판자를 임명하고, 《성경》의 정전적(Canonicall)인 여러 편의 해석자를 임명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문서들을 법으로 만드는 것은 그이기 때문이다. 파문에 대하여 힘을 주는 것도 또한 그인 것이며, 파문은 완고한 자유주의자를 쓰러뜨리고, 그들을 교회 속의 다른 자들과 합일(合一)시킬 만큼의, 법과 벌이 없다고 하면 경멸을 받았을 것이다. 요컨대 그는 교회적이건 정치적이건 모든 소송 사건에 있어서, 행위와 말에 관한 한, 최고의 권력을 갖는 것이다. 즉 행위와 말만이 알려지는 것이며, 비난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며, 그것에 대하여 비난하기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마음을 헤아리는 신 이외에는 심판자가 전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는, 군주이든 합의체이든 모든 주권자에게 부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의 그리스도교 국민의 대표자들은 그 교회의 대표자들이기 때문이며, 그리스도교 국민으로부터 이룩되는 하나의 교회와, 하나의 코먼웰스와는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추기경 벨라르미노의 《최고의 주교에 대하여서(De Summo Pontifice)》의 고찰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한 것 및 이 책의 다른 여러 곳에서 말한 것은 최고의 교회 권력이 그리스도교인 주권자들의 것이라고 하는 주장으로서, 충분히 명백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권력이 보편적인 것이라고 하는 로마법황의 반론이, 주로 더구나 나의 생각으로서는 가능한 한, 강하게 추기경 벨라르미노에 의해서, 그의 《최고의 주교에 대하여서》의 논쟁에서 주장되어 왔으므로, 나는 스스로 될 수 있는 한, 간단히 그의 논술의 여러 근거와 강함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왔다.

제1편 이 주제에 대하여 그가 쓴 5편 가운데, 첫째는 세 가지의 질문을 내용으로 한다. 한 가지는, 군주 정치 · 귀족 정치 · 민주 정치 가운데서 간단히 말해서 어느 것이 최고의 통치인가라는 것이며, 이들 모두가 혼합된 통치 이외에는 어느 것도 그렇지 않다고 결론한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것들 중의 어느 것이 가장 좋은 교회 통치인가라고 하는 것으로서, 혼합되어 있기는 하지만 군주 정치를 가장 많이 가미시킨 것이 그렇다고 결론한다. 셋째는, 이 혼합 군주 정치에 있어서 성 베드로가 군주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다. 그의 첫째의 결론에 관하여는, 나는 이미, *(18장)* 사람들이 복종하도록 구속되어 있는 모든 통치는 단순하고도 절대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했다. 군주 정치에 있어서는 하나의 사람만이 최고인 것이며, 그 국가 중에서 어떠한 종류의 권력을 가지는 다른 모든 사람은 그 권력을 그의 위임에 의해서 그가 바라는 기간 동안 소유하는 것이며, 그것을 그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귀족 정치 및 민주 정치에 있어서는 군주 정치에서 군주에 속하는 것과 같은 권력을 가진 다만 하나의 최고 합의체가 있으며, 그것은 혼합 주권이 아니라 절대 주권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는, 이미 그러한 것들 중의 어느 하나가 수립된 곳에서는 논의될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것이 항상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고, 최선의 것으로 생각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의 파괴되도록 하는 어떠한 것도, 자연의 법과 신이 실정법의 쌍방에게 어긋나기 까닭이다. 그 밖에 어떤 통치가 가장 좋은 것인가는, 어떠한 목자의 권력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불러일으키지 않는

다*(그가 정치적 주권을 가지지 않는 한)*. 왜냐하면 그들의 소명은 명령에 의해서 사람들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르치고, 논거에 의해서 그들을 설득하며, 그리고 가르쳐진 교의를 그들이 신봉하느냐 거부하느냐를 그들의 숙고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군주 정치, 귀족 정치, 민주 정치는 우리에게 대하여, 주권자의 세 가지 종류를 구별하는 것이며, 목자의 그것은 아니다. 혹은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해도 좋을 것이다. 가족의 주인의 세 가지 종류를 말하는 것이지 그들의 어린이에 대한 학교 교사의 세 가지 종류는 아닌 것이다.

따라서 둘째의, 교회의 가장 좋은 통치 형태에 관한 결론은 자기의 영토 밖에 있어서의 법황의 권력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즉 다른 모든 코먼웰스에 있어서는 그의 권력은 *(만약 그가 얼마간의 권력을 가진다고 하면)* 학교 교사의 그것이며 가족의 주인의 그것은 아닌 것이다.

성 베드로가 교회의 군주였었다고 하는 셋째의 결론에 대해서는, 그는 자신의 중요한 논거로서, 〈마태복음〉 16장 18~19절을 생각나게 한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조항은 잘 고찰하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 기초로서 다만 한 가지 조항밖에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즉 베드로가 모든 사도의 이름으로서 고백한 그것이 우리의 구세주가 여기에 인용한 말을 이야기하는 기회를 만든 것이며, 그것은 우리가 다음의 것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때문이며, 그것이란 우리의 구세주가 스스로 세례 요한에 의해서, 그의 사도들에 의해서 설교한 것은 '그는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이 신앙 조항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모든 조항은 그것에 바탕을 둔 것 이외의 어떠한 신앙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세례 요한이 먼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296]라고 하는 것만을 설교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 우리의 구세주

296 〈마태복음〉 3장 2절.

자신이, 같은 것을 설교했다.[297] 그리고 그의 열두 사람의 사도에 대해서는, 그가 그들에게 위임을 수여했을 때 그 이하의 어떠한 조항에 대한 설교에도 언급하지 않았다.[298] 이것이 근본 조항, 즉 교회의 신앙의 근본이었던 것이다. 뒤에 사도들이 그에게 돌아왔을 때 그는 베드로에게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299]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베드로에게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에게 물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300] 따라서 베드로가 *(그들 모두를 대신하여)* 대답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것을 나는 교회 전체의 신앙의 기초라고 말한 것이며, 우리의 구세주는 그로부터 기회를 얻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말한 것이다. 그 말에 의해서, 교회의 초석(礎石)을 뜻하는 것은 교회의 신앙의 근본 조항이었다는 것이 명백한 것이다. 그러나 그러면 왜*(라고 어떤 사람은 반대할 것이다)*, 우리의 구세주는 '너는 베드로라'라고 하는 말을 삽입하는 것일까? 만일 이 본문의 원전(原典)이 엄격히 번역되어 있었다고 하면, 그 이유는 손쉽게 명백히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시몬의 이름이 '돌'(石), *그것은 시리아어의 '게바(Cephas)', 그리스어의 '페트로스(Petrus, Πετρος)'의 뜻이다)*이었던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구세주는 저 근본 조항의 고백 뒤에, 그의 이름에 언급하여 다음과 같이 *(영어로 한 것이라면)* 말했던 것이다. 당신은 '돌'*(石)*이며, 이 돌 위에 '나는 자신의 교회를 세우리라.' 그것은 '나는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이 조항은, 나의 교회의 구성원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요구하는 모든 신앙의 기초인이라고 하는 것과 꼭 같은 것이다. 이름에 관한 이 언급도 보통 이야기 중에서 흔히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구세주가 그의 교회를 성 베드로의 인격 위에 세울 것을 의도하여, '너는 돌이니 이 돌 위에 나는 나의 교회를 세

297 〈마태복음〉 4장 17절.
298 〈마태복음〉 10장 7절.
299 〈마태복음〉 16장 13~14절.
300 〈마태복음〉 16장 15절.

우리라'라고 한 것이라면 그것은 귀에 익지 않은 애매한 이야기였을 것이다. 그 경우에는, '나는 너의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하는 편이, 애매함이 없고 대단히 명백했던 것이며, 더구나 그의 이름에 관한 같은 언급은 역시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이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구세주가 그의 제자들 가운데의 나머지의 모두에게도 준 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301]라고 하는 것 이상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떻게 해석되든, 여기서 주어진 권력은 모든 그리스도교인 정치적 주권자가 그들 자신의 영토 안에서 최고 목자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최고 목자에게 속한다는 것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성 베드로, 혹은 우리의 구세주가 그들 중의 누구인가를 개종시켜서 그의 왕국을 승인시킨 것과도 같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의 왕국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므로, 그는 *그(주권자)*의 신민들을 개종시키는 데에 대한 최고의 배려를 그 이외의 누구에게도 위탁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그의 주권을 박탈하였음에 틀림없고, 권리에는 가르치는 권리가 불가분하게 결부되어 있던 것이다. 그리고 그(벨라르미노)의 제1편에 대한 반론으로서는 이것으로 그친다. 거기에서 그가 논증하고자 한 것은, 성 베드로가 교회의 보편적 군주였다는 것, 다시 말하면 세계에 있어서의 그리스도 교도의 보편적 군주였다는 것이다.

제2편 제2편은 두 개의 결론을 갖는다. 하나는 성 베드로는 로마 주교였으며, 거기에서 사망했다는 것, 또 하나는 로마 법황들은 그의 계승자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한 것들은 원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논쟁이 계속되어 왔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진실이라고 상정하더라도, 만일 로마의 주교에 의해서 이해되는 것이, 교회의 군주이든가 그것의 최고 목자라고 한다면, 실베스테르(Silvester)가 아니라 콘스탄티누스*(그는 최초의 그리스도 교도 황제였다)*가 그 주교였던 것이며, 그리고 콘스탄티누스와 같이 다른 모든 그리스도 교도인 황제는, 당연한 권리를 가

301 〈마태복음〉 18장 18절.

지고 로마 제국의 최고 주교였던 것이다. 나는 로마 제국의 '권리'라고 말하는 것이지, 전 그리스도교계의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교도인 다른 주권자들은, 그들의 각기의 영토 안에서 그들의 주권에 본질적으로 따르는 하나의 직무에 대하여,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그의 제2편에 대한 대답으로서 도움이 될 것이다.

제3편 제3편에서 그는 법황이 반그리스도인가 아닌가의 문제를 다룬다. 나로서는 《성경》이 그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뜻에서, 그가 그러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어떠한 논거도 나는 알지 못하며, 또한 나는 반그리스도의 성질에서 그가 누군가 다른 군주, 혹은 국가의 영지(領地) 안에서 행사하고 있는, 혹은 이제까지 행사하여 온 권위에 대립하는 어떠한 논거도 꺼내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예시하고 유대인들이 그를 기대했던 것은 명백하다. 그는 그들 사이에 신의 왕국을 재건해야 했으며, 그 왕국은 그들이 사무엘의 시대에 다른 여러 국민의 방식을 본받아 왕을 요구했을 때, 그들에게 의해서 거부당했던 것이다. 그들의 이 기대는 그들을 다음과 같은 모든 사람의 기만(欺瞞)에 걸리기 쉽게 했다. 그 사람들이란 그 왕국에의 도달을 꾸미려고 하는 야심과 거짓 기적이나 위선적인 생활이 나를 가장 그럴듯한 화법과 교의에 의해서 백성을 속이는 기술 등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구세주는, 또한 그의 사도들은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미리 경고했다. 거짓 그리스도들이란 '그리스도'라고 칭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며, '반그리스도'로 불리는 것이 정당하다. 그것은, 두 사람의 법황 선거에 의해서 교회에 분열이 일어날 경우, 한쪽이 다른 쪽을 '반법황' 혹은 가짜 법황으로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인 의미에서이다. 따라서 정당한 의미에 있어서의 반그리스도는, 두 가지의 없어서는 안 될 표적을 갖는다. 하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가 부인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그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공언하는 것이다. 첫째의 표적은 '성 요한'에 의해서 〈요한1서〉 4장 3절에 기록되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또 한 가지의 표적은 우리의 구세주의 말 가운데에 명언되어 있다. '많

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302] 할 것이며 그리고 또 *(23절)*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따라서 반그리스도란 거짓 그리스도, 즉 자신들이 그리스도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중의 누구 한 사람일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이 두 개의 표적,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 및 '자신이 그리스도이다라고 단언하는 것'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나오는 것은, 그는 또한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의 적대자이기도 한 것에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이며, 그것은 반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또 하나의 일반적인 뜻이다. 그러나 그러한 많은 반그리스도 가운데서 하나의 특별한 반그리스도(호안티그리스도(ὁ Αντίχριστος))가 있다. 이 반그리스도는 어느 한 인격으로서의 특정적인 반그리스도가 있으며, 그것은 부정적인 반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는 아니다. 그런데, 로마 법황이 그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으로 볼 때, 나는 그가 왜 반그리스도라고 불리게 되는가를 이해할 수 없다. 그 말이 뜻하는 것은, '그의(His)' 대위자(代位者, lieutenant) 또는 총대리인(vicar general)이라고 사칭(詐稱)하는 것이 아니라, '그(He)'라고 사칭하는 사람인 것이다. 이 특별한 반그리스도에는, 때(時)에 관하여 무엇인가의 표적도 또한 붙어 있다. 예를 들면, 예언자 다니엘에 의해서 전해진,[303] 저 혐오해야 할 파괴자가 신성한 장소에 설 때라는 것[304]과 같이, 그리고 세상의 창조 이래 아직 일어난 일도 없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지 않을 그러한 고난이며, 그것은 오래 계속될 것 같으며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305]라고 한 것과 같다. 그러나 이 고난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며, 왜냐하면 그 직후에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이 떨어지고, 하늘이 동요하며, 우리의 구세주가 구름을 타고 영광으로 다시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법황

302 〈마태복음〉 24장 5절.
303 〈다니엘〉 9장 27절.
304 〈마태복음〉 24장 15절.
305 〈마태복음〉 24장 22절.

은 왔다가 가고 하지만, 그 반그리스도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확실히 법황은 모든 그리스도 교도인 국왕과 국민에게 여러 법을 수여하는 것을 떠맡을 때, 이 세상의 하나의 왕국을 빼앗는 것이며, 그것을 그리스도는 자신이 떠맡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그리스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는 것이며, 그런 경우 거기에는 반그리스도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제4편 제4편에 있어서, 법황이 신앙과 태도에 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최고의 심판자라는 것*('그것은 이 세상에 있어서 모든 그리스도 교도의 절대 군주라고 하는 것과 같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는 세 가지의 명제를 제시한다. 첫째 그의 심판은 잘못을 저지를 수 없다는 것, 둘째 그는 진정한 여러 법을 만들 수 있으며 그것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다는 것, 셋째 우리의 구세주는 모든 교회적 사법권을 로마 법황에게 수여한 것이다.

신앙의 여러 항목에 있어서의 법황 심판이 잘못을 저지를 수 없다는 것을 위한 본문 그의 심판의 잘못을 저지를 수 없다는 것(Infallibility)에 대하여, *그(벨라르미노)*는 《성경》을, 그리고 첫째로, 〈누가복음〉 22장 31~32절을 내세운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것은, 벨라르미노의 설명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여기서 시몬 베드로(Simon Peter)에게, 두 가지의 특권을 주었다는 것이다. 한 가지는 그의 신앙도, 그의 계승자들 가운데의 누구의 신앙도 실추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며, 또 한 가지는 그도, 그의 계승자들 가운데의 누구도 신앙 또는 태도에 관한 어떠한 항목도, 잘못으로 혹은 이전의 법황의 규정에 반하여 규정하는 일이 결코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보기 드문 그리고 대단히 억지 같은 해석이다. 그러나 주의하여 그 장을 읽는 사람은 바로 이 부분 이상으로 법황의 권위에 반대되는 부분을 성경 전체 가운데서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제사들과 율법학자들은 유월절에 있어서 우리의 구세주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유다는 그를 배신할 결의를 품고 있었다. 그리고 죽일 날인 유월절의 제사가 왔으므로, 우리의 구세주는 그것을 사도들과 함께 축복했다. 그것에 대하여 그는, 신의 왕국이 올 때까지 그는 다시 그렇게 하는 일이 없으리라고

말했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그들에게, 그들 중의 한 사람이 그를 배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기서 그들은, 그것은 그들 중의 누구냐고 질문하고, 다시 *(그들의 스승이 다음에 축복할 유월절에는, 그가 국왕이 될 때이므로)* 그 경우에 누가 가장 훌륭한 사람일 것인가 하고 논쟁을 시작했다. 따라서 우리의 구세주는 그들에게 다음의 것을 이야기했다. 여러 국민의 국왕들은, 그들의 신민들에게 대하여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히브리 말로서는)* 은혜 깊은 자를 뜻하는 명칭으로서 불리나 나는 너희들에게 대하여 그러한 사람일 수는 없다. 너희들은 서로 봉사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의 왕국을 정했으나 그것은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대하여 정해 둔 것과 같은 것으로서, 그 왕국을 나는 지금 내 자신의 피로서 사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때 너희들은 나의 식탁에서 음식하고, 왕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그는 성 베드로에게 향하여 말하는 것이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Satan)은 현재의 지배를 암시하는 것으로서, 미래에 대한 너의 신앙을 약하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너의 신앙이 좌절되지 않도록 기도해 두었다. 따라서 너는 *(이것에 주의하라)* 다시 개심(改心)하게 되어서, 나의 왕국이 저 세상의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바로 그 신앙을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굳혀라. 그것에 대하여 베드로는 대답했다*(이미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권위도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서)*.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이것으로서 명백한 것은 성 베드로가 이 세상에서 그에게 주어진 어떠한 사법권도 가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도들도 또한 그것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칠 책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앙의 사항에 관한 성 베드로의 결정적인 판결의 잘못을 저지를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서, 이 본문에서 그것에 귀착시킬 것으로서는, 베드로가 다음의 항목, 즉 그리스도가 다시 와서 심판의 날에 왕국을 소유한다고 하는 항목에 대한 신조(信條)를 계속한다는 것 이상은 없다. 그것은 이 본문에 의해서 그의 모든 계승자에게 주어지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이 그것을, 지금 존재하는 세계에서 주장하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둘째 조항은, 〈마태복음〉 16장의 18절이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것으로서 증명되는 것은*(내가 이미 이 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 말의 동기가 된 베드로의 고백, 즉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대하여, 지옥의 문도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상의 것은 아니다.

제3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6~17절의, '내 양을 치라'이며, 그것은 가르치는 것의 위임 이상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나머지의 사도들이 이 양(羊)이라는 이름 속에 포함되는 것을 허용한다면, 그 경우에는 그것은 가르치는 최고의 권력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그 지상성(至上性, Supremacy)을 소유한 그리스도 교도인 주권자들이, 없을 때에 한한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미 다음의 것을 증명하여 두었다. 즉 그리스도 교도인 주권자들은 그들 자신의 영토 내에서 최고의 목자이며, 그들이 세례를 받고 있다는 것으로서 따로 손을 얹히게 되는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지위에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손을 얹는다는 것은 그 인물을 명시하는 의식이므로, 그가 이미 그의 신민들에 대한 하나의 절대 권력의 지위에 오르는 것으로서, 그가 희망하는 어떤 교의도 가르친다고 하는 권력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요 없는 것이다. 즉 내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주권자들은 그들의 직무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최고의 교사인 것이며, 그런 까닭에 *(그들의 세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교의를 가르치는 의무를 진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들은 그것을 그들 자신의 영혼의 위험 때문에 허용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신은 가족의 장(長)들의 손에서, *그(그들)*의 어린이들과 하인들의 지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것이다. 신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에 대한 것이며, 그의 고용인에게 대하여서는 아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306]

제4의 부분은, 〈출애굽기〉 28장 30절이다. '너는 우림(Urim)과 둠밈(Thummim)

306 〈창세기〉 18장 19절.

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이다. 그가 말하고 있는 그것은 70인 번역(성경)에 의해서, δηλωσιν καί ἀλήθειαν 즉 '증거와 진리'로 해석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신이 증거와 진리*(그것은 거의 잘못을 저지를 수 없다는 것과 같다)*를 제사장에게 수여해 둔 것이라고 결론한다. 그러나 주어진 것이 증거와 진리 그 자체라고 하더라도, 또한 그것이 확실히 알고 바르게 심판을 주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제사에의 권고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제사장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정치적 주권자에게 주어진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코먼웰스에 있어서 그렇게 신에게 보고하는 것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이며, 증거와 진리에 대한, 즉 정치적 주권자들이 그들 자신의 신민에 대하여 가지는 교회적 지상성에 대한 주장은, 법황이 거짓된 권력에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이, 신앙이라는 점에서의 법황의 심판의 잘못을 저지를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그가 이끌어 낸 본문의 전부인 것이다.

태도의 점에서의 같은 것(잘못을 저지를 수 없다는 것)을 위한 본문 태도에 관한 그*(법황)*의 심판의 잘못을 저지를 수 없다는 것을 지지하는 데에, 그는 하나의 본문을 참고로 내세운다. 그것은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본문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이다. 거기에서 모든 진리에 의해서 뜻하는 것은*(이라고 그는 말한다)*, 적어도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진리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완화(緩和)로서 그가 법황에 귀속시키는 잘못을 저지를 수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고백하고 단죄되지 않을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 귀속시키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아니다. 즉 만일 누구인가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구원을 위해 필요한 어떤 한 점에서 잘못을 저지른다면, 그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구원에 필요한 것이며, 그것 없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점인가를 나는 다음 장에서, 《성경》으로부터 이끌어 내어 명확히 논술할 것이다. 여기서는, 나는 다음과 같은 것을 논술하는 데 그치고자 한다. 즉 법황이, 가령 잘못을 가르치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것은 그에게 대하여 다른 군주의 여러 영토에 있어서의 어떠한 관할권에 대한 권리를 수여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모든 경우에 가장 훌륭한 직업인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양심적으로 의무 지워져 있

으며, 그가 앞서 그 일을 다른 직업인에게 약속해 버린 경우에서조차 또한 그러한 것이라고, 만일 우리가 동시에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한, 지금 말한 그대로이다.

이 본문 이외에, 그는 추리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만일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 법황이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고 하면, 그 경우에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구원을 위해서 충분하게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그는 교회에 대하여 법황의 지휘에 복종하도록 명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추리는, 그리스도가 언제 어디서 그것을 명령했는가 혹은 애당초 법황이라고 하는 것에 얼마만큼이라도 주의를 하였던가를 나타내지 않는 한, 무효이다. 그뿐 아니라 성 베드로에게 수여된 것은 무엇이나 법황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아직 《성경》 가운데는 성 베드로에게 따르라고 하는 그 누구에게 대한 명령도 없는 것을 보면, 그의 여러 명령이 자신의 합법적인 주권자의 여러 명령에 반대되는 경우, 그에게 복종하는 것은 누구이든 정당하지는 않는 것이다.

끝으로 교회에 의해서나, 법황 자신에 의해서나, 그가 세계에 있어서의 모든 그리스도 교도의 정치적 주권자라고 밝혀진 일은 없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 교도는 태도의 점에 있어서 그의 관할권(Jurisdiction)을 승인하도록 구속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정치적 주권과 태도에 대한 여러 논쟁에 있어서의 최고 사법권과는 같은 것이다. 그리고 여러 시민법의 입법자들은, 여러 행위의 정의(justice)와 부정의(injustice)의 선고자일 뿐만 아니라 창조자이기도 하다. 사람들의 태도 가운데는, 주권자의 법에의 일치성을 별도로 한다면 그것을 정당한 것, 혹은 정당하지 못한 것이 되게 하는 어떠한 것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도에 대한 여러 논쟁에 있어서 지상성을 다투는 법황이 정치적 주권자에 복종하지 않을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친다고 하면, 그것은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우리의 구세주 및 그의 사도들의 많은 법규에 어긋나는 잘못된 교의인 것이다.

법황이 여러 법을 만드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는 여러 곳을 참고로 내세운다. 첫째로서는, 〈신명기〉 17장 12절이다.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것에 대한 답으로서 우리가 생각해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제사장이 *(직접 신의 다음으로)* 정치적 주권자이며, 모든 심판자는 그에 의해서 설정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고로 내세운 말은, 다음과 같이 들린다. '우선 정치적 주권자에게 복종하지 않겠다고 우줄거리거나 그의 관리들의 누군가가 그들의 지위를 집행하는 데 복종하지 않으려고 거만하게 구는 사람은 죽여야 한다.' 그것은 명백하게 법황의 일반적 권력에 반대하여 정치적 주권자를 지지하는 말인 것이다.

둘째로서 그는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네가 맨 어떤 것에도…….'을 참고로 내세워서 그것을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에게 돌리는 것과 같은, '묶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운다.'[307] 그것으로서 여러 법을 만드는 것으로 뜻하고*(라고 그는 말하며)*, 거기에서 법황은 여러 법을 만들 수 있다고 결론한다. 그렇지만 이것도 또한 정치적 주권자의 입법 권력에 있어서만 유리한 것이다. 왜냐하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모세는 신의 바로 아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였으며, 따라서 우리의 구세주는 그들에게 대하여,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이 말하는 모든 것을,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아니나 행하도록 명령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즉 그들의 여러 법에 복종해야 하겠지만, 그들의 실례에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셋째의 부분은 〈요한복음〉 21장 16절이다. '나의 양을 치라.' 그것은 여러 법을 만드는 권력이 아니라 가르치도록 하라는 명령인 것이다. 여러 법을 만드는 것은, 가족의 주인에게 속하는 것으로서, 그는 자신의 재량으로서 그의 예배당 목사를 뽑는다. 그것은 그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 교사를 뽑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넷째 부분인 〈요한복음〉 20장 21절은, 그에게 대립한다. 그 말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구세주가 보내어진 것은, 믿는 자를 *(그의 죽음으로서)* 속죄하기 때문이며, 그 자신과 그의 사도들의 설교에 의해서 그들이 그의 왕국에 들어가도록 준비하기 위해서이며, 그 왕

307 〈마태복음〉 23장 4절.

국은 그 자신이 이 세상의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금후에 있어서 그것의 도래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가르쳤던 것이며, 다만 그의 사도들에게 대하여는, 그것이 언제 오는가를 말하는 것을 그는 거부했던 것이다. 그것이 왔을 때는 열두 사도는 이스라엘의 지파를 심판하기 위하여, 열두 왕좌*(아마도 그 각자는 성 베드로의 그것과 같은 높은 지위일 것이다)*에 앉을 것이다.[308] 거기서, 아버지이신 신이 우리의 구세주를, 이 현재의 세계에서 여러 법을 만들기 위하여 보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 본문으로부터 다음같이 결론하여도 좋을 것이다. 즉 우리의 구세주도 성 베드로를, 여기서 여러 법을 만들기 위해 보낸 것이 아니라 그의 재래(再來)를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기대하도록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선은 사람들이 만일 신민이라면 그들의 군주들에게 복종하도록, 또한 만약 군주일 경우에는 그것을 스스로 믿음과 아울러 그들의 신민들을 같이 믿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교사라는 것의 직무인 것이다. 따라서 그 부분은, 추기경 벨라르미노가 그것을 참고로 이끌어 내서 주장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교회에 관한 지상성을 정치적 주권에 결합하는 것을 지극히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이다.

다섯째의 부분은, 〈사도행전〉 15장 28절이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여기서 그는 짐을 지운다라고 하는 말을, 입법 권력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읽고 사도들의 이 표현 형식이, 여러 법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사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절하게 조언을 준다는 것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 못할 수 있을 것인가. 법이라고 하는 것의 표현 형식은, '우리는 명령한다'이지만, '우리는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충고를 하기만 하는 사람들의 일반 표현 형식이다. 그리고 충고를 하는 사람들은 조건을 앞세운다 할지라도 즉, 만약 그들이 그것을 주려고 하는 상대방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적에 이르고자 할지라도, 부담을 주는 것이다. 목 달

308 〈사도행전〉 1장 6~7절.

아 죽인 자 및 피를 피한다고 하는 부담은 그러한 것이며,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싶지 않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나는 앞에서, 법은 다음의 점에서 조언과는 구별된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25장)*. 즉 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유는 그것을 규정하는 자의 의도와 이익으로부터 찾아지지만, 조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유는 그 조언이 주어지는 사람의 의도와 이익에서 찾아진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들은 개종한 이방인들의 이익, 즉 그들의 구제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노력을 해버리고 나면, 그들이 복종되든 그렇지 않든, 그들은 자신들의 보답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회의의 여러 결의는, 법이 아니고 조언이었다.

여섯째의 부분은, 〈로마서〉 13장 1절이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이다. 그것은 세속적인 군주에 관해서뿐 아니라, 교회적인 군주에 관해서도 뜻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것에 대해서 나는 답한다. 첫째로, 동시에 정치적 주권자이기도 한 사람들 이외에는, 교회적 왕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의 군주로서의 지배는, 그들의 정치적 주권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 그러한 경계 밖에서는 그들은 박사로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있을지 모르나, 군주로서 승인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즉 우리가 자신들의 군주에게도, 법황에게도, 아울러 신종해야 한다는 것을 만일 사도가 의미한 적이라고 하면, 그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로 향하여 불가능하다고 말한 교의를 가르친 것이다. 그것은 '두 사람의 주인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도가 다른 부분에서, '나는 이러한 사물들을 부재(不在)일 때 쓴 것이며 그것은 내가 거기에 있어서 신이 수여해 둔 힘에 의하여 통렬한 기세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가 그들 중의 누구인가를 죽이고, 투옥하고, 추방하고, 매질하고, 혹은 과료에 처하는 권력, 즉 처벌하는 권력을 요구한 때문이 아니라, 단순하게 파문하는 권력만을 요구했었기 때문이다. 파문한다고 하는 것은 *(정치 권력 없이는)* 그들의 동료를 떠난다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하나의 이교도 혹은 세리(稅吏)에 대하여서와 마찬가지로 그 동료에 대하여,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은 많은 경우에, 파문당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고통이 보다 더 컸는지도 모른다.

일곱째의 부분은, 〈고린도전서〉 4장 21절이다.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렇지만 여기서도 또한, 위범자들을 처벌하는 위정자의 권력이, 매에 의한 것이라고 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뜻하는 것은 파문의 권력뿐인 것이다. 파문은 그 자체의 본질에 있어서는 처벌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심판의 날에 그의 왕국을 소유할 때에 과할 처벌에 대한 경고에 지나지 않는다. 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도, 그것은 법을 어긴 시민에게 대하는 것과 같은 본래의 처벌이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가 그 왕국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부정하는 적 혹은 반역자에 대하는 것과 같은 복수인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정치적 권력도 아울러 가지지 않는 어떠한 주교의 입법 권력을 증명하는 것도 아닌 것이다.

여덟째의 조항은 〈디모데전서〉 3장 2절의,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雅淡)하며……'인 것이며 그는 그것을 법이었다고 한다. 나는 교회에 있어서 법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교회의 군주인 성 베드로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만약 이 명령이, 성 베드로의 권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자. 그래도 나는, 디모데가 성 바울의 신민이 아니라 제자였던 것으로 볼 때, 또한 디모데의 책무 아래에 있던 신도의 무리들이, 왕국에 있어서의 그의 신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학교에 있어서의 그의 학생이었던 것으로 보아, 나에게는 그것이 충고보다 차라리 법으로 불리게 될 이유를 알 수 없다. 만일 그가 디모데에게 준 모든 명령이 법이라고 한다면, '너의 건강을 위해서 금후로는 물을 마시지 말고 소량의 포도주를 사용하도록 하라'고 하는 것 역시 왜 법이 아니었더란 말인가. 그리고 훌륭한 명의(名醫)의 명령도 또한, 그만큼의 수의 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명령적인 말투에서가 아니라 어느 인물에 대한 절대적인 신종이 명령을 법일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그와 같이 아홉 번째의 부분인, 〈디모데전서〉 5장 19절,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라고 하는 것도 현명한 명령이긴 하나 법은 아니다.

열 번째의 부분은, 〈누가복음〉 10장 16절이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

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내진 사람들의 조언을 가볍게 여기는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의 조언을 가볍게 여기는 자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렇다면 합법적 권위에 의해서 목자에 임명된 사람들을 제외하고, 현재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내진 사람들이란 누구인 것인가. 주권자인 목자에 의해서 임명되는 것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임명되는 사람들이란 누구인 것인가. 하나의 그리스도교적 코먼웰스에 있어서, 그것의 주권자 권위에 의해서 임명되는 것이 아니고, 주권자인 목자에 의해서 임명되는 사람이란 누구인 것인가. 따라서 이 조항에서 당연히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 교도인 그의 주권자에 청종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 청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교도인 그의 국왕이 권위 지운 교의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벨라르미노가 여기서 증명하고자 의도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도저히 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신민들의 목자 및 교사로서의 그리스도 교도인 국왕은, 그러하다는 것으로서, 그의 여러 교의를 법으로 만들지는 않는 것이다. 그는 사람들을 믿도록 의무 지울 수는 없다. 정치적 주권자로서 그는 자기의 교의에 적합한 여러 법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 교의는, 사람들을 일정한 여러 행위에 대하여 의무 지울 것이고, 때로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 행위에 대하여 의무 지울 것이다. 또한 그 교의는, 그가 명령해야 할 일은 아니다. 그래도 그러한 것들이 명령된 경우에는 그러한 것들은 법인 것이며, 그것들에게 복종하고 내면적 시인(是認)을 수반하지 않고 이루어진 외면적 여러 행위는 그 주권자의 여러 행위인 것이며, 신민은 그런 경우에는 도구(道具)와 마찬가지이며, 그 자신의 아무런 운동도 가지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신이 그것들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해 두었기 때문이다.

열한 번째는, 사도가 사람들이 명령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을 조언으로서 진술하는 경우, 혹은 그의 조언에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때의 모든 부분이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이끌어 내고 있다. 즉,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키므로 너희를 칭찬하노라'라는 것이다. 그리스 말로는, '나는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사물을 내

가 전한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을 칭찬한다'인 것이다. 그것은 그러한 일들이 법이었다는 것, 혹은 훌륭한 조언 이외의 그 무엇이었다는 것을, 전혀 나타내지는 않는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의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의 그리스 말은,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사물들(παρεδώκαμεν)'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παραγγελίας έδώκαμεν'이며, 그것은 바로 앞에서 언급된 부분에 있어서와 같이 사도들의 여러 가지의 전한 것들이 조언을 얼마간이라도 넘은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에서, '그러한 것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라고 말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세주 자신이 이 세상에서 심판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죄인들에 대신하는 희생으로 하기 위해, 그리고 그의 교회 안에 박사들을 남겨 놓고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몰아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도하기 위하여, 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결코 강제된 행위*(그것이 법이 만들어 내는 모든 것이다)*를 받아들이는 일은 없으며, 마음의 내면적 개종을 받아들이는 것이므로, 그것은 법의 작업이 아니라 조언과 교의의 작업인 것이다.

또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 즉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라는 부분에서는, 그는 '순종한다'는 말에서, 이 편지는 데살로니가 인에게 대한 하나의 법이었다고 하는 것을 내세우려고 하여 양보하지 않는다. 황제들의 편지는 확실히 법이었다. 그러므로 만일 성 바울의 편지도 또한 법이었다고 하면, 그들은 두 사람의 주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순종'이라는 말은, 그리스 말에 있어서 히파쿠에이(ὑπακούει)가 그러하듯이 처벌의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해서 명령된 것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위한 조언이라는 방법으로 전해진 것에도 '귀를 기울일 것', 혹은 '그것을 실행에 옮길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 바울은 순종하지 않는 자를 죽이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그를 때리라고도, 투옥하라고도, 벌금을 받으라고도, 요구하지 않았던 것이며, 그것들은 모두 입법자가 해서 좋은 일이다. 성 바울이 요구한 것은 그의 동료가 되지 말고 그를 부끄럽게 하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으로서 명백한 것은 그리스도 교도가 두려워한 것은, 한 사람의 사도의 제국이 아니라 신앙 깊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의 명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마지막 부분은, 〈히브리서〉 13장 17절이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같이 하느니라.' 그리고 여기서도 또한 복종에 의하여 의도되어 있는 것은, 그들의 조언에 순종하는 것이다. 즉 우리의 복종의 이유는 우리의 목자들의 의지와 명령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편익에서 이끌어 나오는 것이므로, 그것은 그들이 지켜보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며, 그들 자신의 권력 및 권위를 드높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여기서 그들이 가르치는 모든 것이 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뜻하고 있다고 하면, 그 경우에는 법황뿐만 아니라, 각 목자가 그의 교구에 있어서 입법권을 가졌었음이 틀림없다. 다시 자신들의 목자들에게 순종하도록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여러 명령을 검토하는 권리를 갖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성 요한*(〈요한1서〉 4장 1절)*에 대하여 무어라고 말해야 할 것인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따라서, 우리는 자신들의 목자의 교의에 대하여는 논쟁해도 좋으나 어떤 사람도 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명백하다. 정치적 주권의 여러 명령은 모든 측면에서 법으로서 인정된다. 만일 누구인가 다른 사람이 그 자신과 나란히 법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코먼웰스의 모든 것, 따라서 평화와 정의의 모든 것이 소멸할 것이 틀림없고, 그것은 신과 인간과의 쌍방의 모든 법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그 어떤 성경 구절도, 법황의 여러 포고(布告)가 그가 정치적 주권까지도 동시에 가지고 있지 않은 곳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아무것도 내세울 수는 없다.

법황과 다른 주교들과의 사이의 우월성의 문제 그가 증명하려고 노력한 최후의 점은 다음의 점 즉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는 교회적 관할권을 직접으로 법황만에게 위임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그 경우에 그는 법황과 그리스도교 여러 국왕과의 사이에서가 아니라, 법황과 다른 주교들과의 사이의 우월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

다. 그리고 첫째로, 그는, 주교들의 관할권이 적어도 개괄적으로는 '신의 권리에 의한 것', 즉 신의 권리에 있어서라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그것을 지지하는 것으로서 그는, 성 바울의 〈에베소서〉 4장 11절을 참고로 내세우는 것이므로, 거기서 성 바울은, 그리스도는 그의 승천 뒤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거기에서 *그(벨라르미노)*는, 그들이 실로 그 관할권을 신의 권리에서 가지는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신으로부터 직접 가지는 것을 인정하려고는 하지 않고, 법황을 통하여 이끌어 낸 것을,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만일 사람이 그의 관할권을 '신의 권리'에 의해서 가진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서가 아니라면, 그리스도교 코먼웰스에 있어서 정치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합법적인 관할권으로서 동시에 '신의 권리에 의한 것'이 아닐 수 있겠는가. 즉 그리스도 교도인 국왕들은 그들의 정치 권력을 신으로부터 직접 얻고 있는 것이며, 그의 밑에 있는 위정자들은 그들의 각각의 책무를 그의 위임에 의해서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경우에 그들이 행하는 것은, '매개된 신의 권리에 의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주교들이 법황의 임명에 바탕을 두고 행하는 것보다 못한 것은 아니다. 모든 합법적 권력은 신으로부터 나온 것으로서 최고 통치자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그의 아래서 권위를 가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간접적으로 그러한 것이다. 따라서 그는, 그 국가에 있어서의 모든 관리들이 그 권리를 신의 권리를 위해 보유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그는 법황 자신 이외의 어떠한 주교라도 그와 같이하여 보유하는 그 권리를, 자신은 보유하지 않는 것이 틀림없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관할권을 법황에게만 남겼는가 다른 주교들에게도 남겼는가라고 하는 이 논쟁의 전체를 만일 법황이 정치적 주권을 소유하는 장소의 밖에서 고찰한다면, '산양(山羊)의 털에 대한' 시비이다. 왜냐하면 그들 중의 누구도, *(그들이 주권자가 아닌 데에서는)* 어떠한 관할권도 전혀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즉 관할권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송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권력인 것이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사람에게만 속할 수 있다. 그 사람이란 옳고 그른 여러 규칙을

규정하는 권력, 즉 여러 법을 만드는 권력을 가지며, 그리고 그 자신에 의해서, 혹은 그가 그것을 위해서 임명한 재판관들에 의해서 선고된, 그의 여러 결정에 복종하도록 사람들을 강제하기 위한 정의의 칼을 수반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한 것은 정치적 주권자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합법적으로는 행할 수 없다.

따라서 그가 〈누가복음〉 6장을 참고로 내세워 우리의 구세주는 그의 제자를 불러 모으고, 그들 가운데서 열두 사람을 뽑아 그들을 사도로 이름을 붙였다고 주장할 때 그가 입증하는 것은, *그(구세주)*가 그들을 *(맛디아, 바울, 바나바를 제외한 모두)* 뽑아서 설교하는 권력과 지휘권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이며,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의 소송 사건을 재판하는 그것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누가 나를 너희들 사이의 심판자 혹은 분배자로 하였는가'라고 말하며, 다른 부분에서는 '나의 왕국은 이 세상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스스로 떠맡는 것을 거부했던 권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송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권력을 가지지 않는 자는, 전혀 아무런 관할권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 더욱 그 밖에, 이것은 우리의 구세주가 그들에게 세계의 모든 부분에서 설교하는 권력을 그들이 거기서 그들 자신의 합법적인 주권자에 의해서 금지되지 않았다고 상정하여 주었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즉 우리 자신의 주권자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자신과 그의 사도들이 갖가지의 곳에서 명언적(明言的)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했기 때문이다.

주교들이 그들의 관할권을 법황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을 그가 증명하려고 노력한 여러 논거는 *(법황이 다른 여러 군주의 영토 안에서는, 자신으로서는 관할권을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으로 보아)* 모두가 헛된 일이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반대로 모든 주교가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들의 정치적 주권자들로부터 받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므로, 나는 그것에 대한 상세한 논술을 제외하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첫째는, 〈민수기〉 11장에서의 것이며, 거기서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국민에 관한 사항을 운영한다고 하는, 전부의 부담을 혼자서 견디는 것은 불가능했으므로, 신은 그에게 70인의 장로를 선출할 것을 명하고, 모세의 영의 부분을 떼어서 그것을

그들 70인의 장로 위에 두었던 것이다. 그것으로서 이해되는 것은 신이 모세의 영을 약화시켰다고 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그를 안심시키는 일은 절대로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그들이 모조리, 그들의 권위를 그에게서 얻었다고 하는 것이며, 이렇게 했을 때 *그(벨라르미노)*는, 그 부분을 진실하고 꾸밈없이 해석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모세가 유대인의 코먼웰스에 있어서 완전한 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으로 볼 때, 그들이 그들의 권리를 정치적 주권자로부터 얻었다는 것을, 그것이 나타내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그 부분이 증명하는 것은 어떤 그리스도교 코먼웰스에 있어서도 주교들은, 그들의 권위를 그 정치적 주권자로부터 얻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법황으로부터는 그 자신의 영토 내에서만 그렇게 한 것이며 다른 어떤 나라의 영토 내에 있어서도 그렇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이다.

둘째의 논거는 군주 정치의 본성으로부터의 것이다. 거기에서는 모든 권위가 한 사람에게 있으며, 그로부터 이끌어 냄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통치는 군주 정치적인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 교도인 군주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진실로 그들 자신의 백성의, 즉 그들 자신의 교회의 *(교회는 그리스도 교도인 한 국민과 같은 것이므로)* 군주이지만, 이것에 반하여 법황의 권력은, 그가 성 베드로라 할지언정 군주 정치가 아니고, 또한 '수장적(首長的, archical)' 혹은 '지배자적(支配者的, cratical)'인 그 어떤 것도 아니며, '교사적(教師的, didactical)'인 그 무엇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은 강제된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복종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성 베드로의 '주교반(主教盤)'이 성 키프리아누스(Cyprian)에 의해서, 주교들의 권위가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머리(頭)·근원(源)·뿌리(根)·태양(太陽)으로 불리고 있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의 법*(그것은 하나의 인간에 지나지 않는 어떤 박사의 말보다도 훌륭한, 옳고 그른 것에 관한 원리이다)*에 의하면, 각각의 코먼웰스에 있어서의 정치적 주권자가, 전 관할권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머리(頭)'이며, '근원(源)'이며, '뿌리(根)'이며, '태양(太陽)'인 것이다. 따라서 사교들의 관할권은 정치적 주권자로부터 나오게 된다.

넷째는, 그들의 관할권의 불평등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즉 만일, 신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것을 그들에게 직접 수여해 두었다고 하면, 관할권에 대해서도 위계(位階)에 대한 것과 같은 평등성을 주었던 것이나 우리가 보는 것은 어떤 사람은 다만 *(하나의)* 도시의 주교이고, 어떤 사람은 백(百)의 도시의 주교이며, 어떤 사람들은 많은 전 속주(屬州)의 사교이라고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차이는 신의 명령에 의해서 결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관할권은, 신에게로부터가 아니라 사람으로부터의 것이다. 그리고 교회 군주의 뜻대로 한 사람은 커다란, 또 한 사람은 적은 그것을 가진다. 이 논거는, 만일 그들이 먼저 법황은 모든 그리스도 교도에 대한 일반적인 관할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했더라면, 그의 목적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증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또한 법황의 커다란 관할권이 그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즉 로마 형제들에 의해서 그에게 주어졌었다고 하는 것이 악명 높게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서*(왜냐하면, 콘스탄티노플의 교부(敎父)는 같은 자격에 바탕을 두고, 즉 그 제국의 수도, 황제의 주요 소재지의 주교라고 하는 자격에 바탕을 두고, 그와 동등하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다)*, 당연히 다른 모든 주교는 그들의 관할권을 그들이 그것을 행사하는 장소의 주권자들로부터 얻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그 이유로서 그들이 권위를, '신의 권리에 의해서'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법황도 그가 동시에 정치적 주권자이기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그것을 '신의 권리에 의해서'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의 다섯째의 논거는, 다음의 것이다. '만일 주교들이 그들의 관할권을 직접 신으로부터 얻고 있었더라면 법황은 그것을 그들로부터 회수하는 일은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신의 명령에 반대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추론은 훌륭한 것이고 충분히 증명되어 있다. '그런데*(라고 그는 말한다)* 법황은 이것을 할 수 있으며, 그것을 하여 왔다.' 그것을 그가 그 자신의 영토 안에서 혹은 그에게 그 권력을 주어 버린 어떤 다른 군주의 영지 안에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또 허용되지만, 그러나 법황 신분(popedome)의 권리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권력은 그리스도 교도인 각 주권자에

게 그 자신의 경계 안에서 소속하는 것이며, 주권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국민이 *(사무엘에 대한 신의 명령에 의해서)* 그들 자신 위에, 다른 여러 국민의 방식을 본받아서 국왕을 설치하여 버리기까지는, 제사장이 정치적 통치를 가지고 있어서, 그 이외의 누구도 하급의 제사를 임면하는 것은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뒤에는 그 권력은, 벨라르미노의 같은 그 논거에 의해서 증명되는 그대로, 국왕에게 있었다. 즉 만일 제사가 *(그가 제사장이든 다른 누구이든)*, 그의 관할권을 직접 신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면, 그 경우에 국왕은 그것을 그에게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신의 명령에 반대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솔로몬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Abiathar)로부터 그 직무를 빼앗고,[309] 그의 대신에 사독(Zadok)을 둔*(35절)* 것은, 확실한 것이다. 따라서 국왕들은 같은 방식으로 그들의 신민들을 잘 통치하는 데에 적당하다고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주교들을 임명하고 박탈해도 좋은 것이다.

그의 여섯째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만일 주교들이 그들의 관할권을 '신의 권리에 의해서' *(즉 '신으로부터 직접으로')* 받는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는 사람들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와야 할 것이나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올 수가 없다. 그 논거는 훌륭한 것이며, 따라서 나는 그것에 반대할 말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그것은 법황 스스로가 어떠한 다른 군주의 영지 내에서도, 아무런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같이 통용하는 논거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논거로서 두 사람의 법황, 즉 인노센토(Innocent)와 레오(Leo)의 증언을 가지고 온다. 그리고 나는 그가 똑같은 훌륭한 이유로서, 거의 성 베드로 이래의 모든 법황의 증언을 참고로 내세울 수 있었으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권력에의 애착이 인류에게 생겨나면서부터 심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누가 법황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는 같은 견해를 가지도록 유혹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경우에, 인노센트와 레오가 한

309 〈열왕기상〉 2장 26~27절.

것처럼 자신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그들의 증언은 통용할 리가 없는 것이다.

법황의 현세적 권력에 대하여 제5편에서, 그는 네 개의 결론을 가진다. 첫째는, '법황은 전 세계의 주는 아니라는 것', 둘째는 '법황은 전 그리스도교계의 주는 아니라는 것', 셋째는 '법황은 *(그 자신의 영토 밖에서는)* 어떠한 현세적 관할권도 직접으로는 가지지 않는다는 것', 넷째는 '법황은 *(다른 군주들의 영토 안에서는)* 최고의 현세적 권력을 간접으로 가지는 것'이다. 마지막의 것은 그가 간접적으로라고 하는 것으로서 간접의 수단에 의해서 그것을 얻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정되며,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또한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이해로서는, 그가 그것을 '간접적으로' 가진다고 할 때, *그(벨라르미노)*가 의미하는 것은, 그러한 현세적 관할권이 *그(법황)*에게, 권리로서 소속하지만, 다만 이 권리는 그의 목자적 권위의 귀결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그 권위를 그는 그것과 함께 다른 쪽도 가지는 것이 아니면 행사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목자적 권위*(그것을 그는 영적이라고 부른다)*에, 정치적 최고 권력은 필요적으로 결부되어 있고 그리하여 그것에 의해서, 그는 영혼*(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그것들을 어떤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박탈하기도 하여 여러 왕국을 바꾸는 권리를 가진다고 하는 것이다.

그가 이 교의를 증명하려고 하는 여러 논거를 고찰하기 시작하기 전에, 그것의 여러 귀결을 명백히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은 아닐 것이다. 즉 그들의 각각의 코먼웰스에 있어서 정치적 주권을 가지는 여러 군주 및 여러 국가가 그것을 용인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편리한가 어떤가 심판의 날에 그들이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될 그들의 신민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가 어떤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법황은 최고 정치 권력을 *(다른 여러 국가의 영토 내에서는)* '직접으로'는 가지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통치를 받아야 할 사람들의 그것에 대한 원래의 복종을 이유로 하여, 다른 정치적 주권자들이 하는 것처럼은 그는 그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즉 모든 주권자들의 권

리는 통치를 받아야 할 사람들 각자의 동의에서 근원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며, 이 논문에서 이미 충분히 증명되어 왔다. 그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또는 그 개인들의 합의체를 임명함으로써 그들 사이에서 일치하는 경우와 같이, 적에 대한 그들의 공동 방위를 위해 하든, 혹은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정복자인 적에의 복종에 의해서 하든, 다름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법황은 다른 여러 국가에 대한 최고 정치 권력을, '직접적으로' 다투지 않는 경우, 그가 부정하는 것은, 그의 권리가 그러한 경로로서 그에게로 온다고 하는 것뿐이다. 여전히 그는 그것을 별도의 경로에서 요구하는 것을 그만두지는 않는다. 그리고 별도의 경로란, *(통치를 받을 사람들의 동의 없이)* 신에 의해서 그에게 주어진 권리에 의하여, *(그것을 그는 '간접적으로'라고 부른다)* 그가 법황의 지위에 오르는 데에 있어서인 것이다. 그렇지만 어떠한 경로에 의해서 그가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 권력은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는 *(만약 그것이 그의 권리로서 용인되는 것이라면)* 여러 군주와 여러 국가를 영혼의 구제를 위한 것인 한, 몇 번이고 즉 그가 하고자 생각하는 한, 몇 번이고 폐위하여도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이 사람들 영혼의 구제를 위해서 유익한가 아닌가에 대하여 심판하는 유일한 권력까지도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벨라르미노가 여기서 가르치고, 다른 많은 박사가 그들의 설교와 책 가운데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몇몇의 회의가 포고한 일이 있으며, 법황들이 그것에 따라서, 기회가 그에게 도움이 될 때에는 실행에 옮겨 온 교의인 것이다. 즉 법황 인노센트 3세의 아래서 열린 제4회 라테란 회의(Councel of Lateran)는, *(〈이단자에 대하여〉 3장 가운데)* 이 정전(正典)*(교회법)*을 가지고 있다. '만약 국왕이 법황의 권고를 받고도 그의 왕국에서 이단자를 추방하지 않고, 그것에 의해서 파문되어 1년 이내에 참회의 고행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의 선민들은 그의 복종이 해제된다.' 그리고 그 실행은 이제까지 갖가지의 기회에서 볼 수 있었다. 프랑스 왕 실페릭의 폐위에 있어서, 샤를마뉴 대제에로의 로마 제국의 이전에 있어서, 잉글랜드 왕 존의 억압에 있어서, 나바르(Navarre) 왕국의 이양(移讓)에 있어서, 또 근년에 대해서는, 프랑스의 앙리 3세에 대항하는 *(구교)* 동맹에 있어서, 또한 보다 많은 여러 가지의 사건 발생에 있어

서와 같은 것이다. 나는 이것을 부정하고 경우에 어긋난 것으로 보지 않는 군주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모두 국왕이나 신민으로 분해되기를 희망한다. 사람들은 두 사람의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따라서 그들은, 통치의 고삐의 전체를 그들 자신의 손에 거머쥐고 있으므로 해서 혹은 그것들을 전적으로 법황의 손에 넘겨주는 것으로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순종에 의해서 보호를 받도록 하게 하여, 사람들을 편안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현세적 권력과 영적 권력과의 이 구별은 말뿐인 것이다. 권력은 다른 '간접적' 권력을 나누어 가지므로 해서 '직접적'인 그것을 나누어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로 분할되는 것이며, 모든 목적에 대해 위험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그의 여러 논거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첫째는 다음의 것이다. '정치 권력은 영적 권력에 신종한다. 따라서 영적인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은 현세적 여러 군주에 명령하는 권리와, 그들의 현세적 권력을 영적인 그것의 처치하는 권리를 가진다.' 현세적과 영적과의 구별에 대해서는, 현세적 즉 정치적 권력이 영적인 그것에 신종(臣從)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뜻으로 이해되도록 말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고찰하자. 그러한 말들이 뜻을 지니게 할 수 있기에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즉 우리가 하나의 권력이 또 하나의 다른 권력에 신종한다고 할 경우, 그 뜻은 한쪽을 가진 사람이 다른 쪽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신종하고 있다는 것인가 혹은 한쪽의 권력이 다른 쪽 권력에 대하여, 수단이 목적에 대하는 것처럼 신종하고 있는가의 어느 쪽인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의 권력이 또 하나의 권력에 대하여 권력을 가진다든가, 하나의 권력이 또 하나의 권력에 대하여 진리 혹은 지휘권을 가질 수 있다든가,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 신종 · 지휘 · 권리 · 권력은, 여러 권력이 아니라 여러 인격의 우유성(偶有性)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권력은 또 하나의 권력에 대해서 마구직(馬具職)의 기술이, 기수(騎手)의 기술에 대해 그러한 것처럼, 종속적일지도 모른다. 그 경우, 만일 정치적 통치가 우리에게 영적 지복(靈的至福)을 가져오는 수단으로서 정해진다고 하는 것이 만약 용인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서 당연히 다음과 같은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 즉 만일 어느 국왕이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고, 법

황이 영적인 그것을 가진다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그 국왕은 모든 마구직이 모든 기수에게 따르는 것 이상으로 법황에게 순종하도록 구속된다고는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의 종속성으로부터 그 전문가의 신종을 추론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그가 정치 권력은 영적인 그것에 신종한다고 하는 경우, 그 의도는, 정치적 주권자가 영적 주권자에 신종한다고 하는 것이다. 거기서 그 논거는 이러한 것이 된다. '정치적 주권자는 영적인 그것에 신종한다. 따라서 영적 군주는 현세적 여러 군주를 지휘할 수 있다.' 결론은, 그가 증명한 바 있는 선행 사항(先行事項)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증명하는 데에 있어 그는 먼저 다음의 이유를 든다. '국왕들과 법황들, 성직자와 세속인은, 단 하나의 코먼웰스, 다시 말하면 다만 하나의 교회를 만든다. 그리고 모든 단체에 있어서 여러 구성원은 서로 의존한다. 그러나 영적인 사물은 현세적인 사물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현세적인 사물은 영적인 사물에 의존하며 따라서, 그러한 것들에 신종하는 것이다.' 이 입론(立論)에는 두 가지의 엄청난 오류가 있다. 하나는, 모든 그리스도 교도인 국왕, 법황, 성직자 및 다른 모든 그리스도 교도인 사람들이 단 하나뿐인 코먼웰스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프랑스가 하나의 코먼웰스이며, 스페인이 또 하나의, 베네치아가 제3의, 등등인 것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그리스도교로서 성립되고 따라서 또한 각각의 그리스도 교도의 단체, 즉 각각의 교회인 것이다. 그들의 각각의 주권자가 그들을 대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연인과 같이 지휘하고, 복종하고, 작용하고 괴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은 어떠한 일반적 혹은 보편적인 교회도 하나의 대표를 가지기까지는 할 수 없다. 그 교회는 그러한 대표를 지상에 있어서는 가지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그것이 가졌다고 하면, 전 그리스도교계가 하나의 코먼웰스인 것이고, 그 주권자는 영적인 것과 현세적인 것과의 쌍방의 사물에 있어서의, 지금 말한 대표일 것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법황은 그 자신을 이 대표로 하기에는 세 가지가 부족한 것이며, 그것들은 '지휘'하는 것과, '심판'하는 것과, '처벌'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구세주는, 그에게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파문에 의해서)* 멀어지도록 하라는 것을 제외하면, 그런 것들을 그에게 주지 않았었다. 즉, 법황은 그리

스도의 유일한 대리였다고 하더라도 그는 그의 통치를, 우리의 구세주의 재래까지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며, 그리고 그때에는 또 세계의 심판자이어야 할 사람은 법황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을 동반한 성 베드로 자신인 것이다.

이런 그의 첫째의 논의의 또 하나의 오류는, 그가 각 코먼웰스의 여러 구성원이, 하나의 자연의 육체의 사지(四肢)와 같이, 상호 간 서로가 의존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확실히 그는 함께 결합하고 있으나 그들은 코먼웰스의 혼인 주권자에게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이 없으면 그 코먼웰스는 해체하여 내란이 되고, 하나의 알려진 주권자에의 공통된 의존이 없기 때문에, 어느 사람도 다른 사람과 결합한다는 것이 아니다. 마치 자연의 육체의 사지가 그것들을 함께 해 두는 하나의 영혼의 결여 때문에, 해체하여 흙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이 유사성 가운데에는 거기에서 세속인의 성직자에의 의존 혹은 현세적 관리의 영적 관리에의 의존을 추론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만 쌍방의 정치적 주권자에의 의존을 추론할 수 있는 것만이 있다. 후자는 확실히 영혼의 구제를 위해 그의 정치적 지휘권을 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 자신 이외의 누구에게도 신종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여 당신들은, 첫째의 논거의 고심한 허위를 보았다. 그것은 목적에의 길에 있어서의 여러 행위의 종속 관계와, 수단의 운영에 있어서의 한 인격의 다른 인격에의 신종을 구별하지 않는 것같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것이다. 즉 모든 목적에 대하여서 수단은 자연에 의하여, 혹은 신 자신에 의하여 초자연적으로 결정되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그 수단을 하도록 하는 권력은, 각 국민에게 있어서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이 준 신의를 유린하는 것을 금지하는 자연법에 의해서)* 정치적 주권자에게 양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둘째의 논거는 다음의 것이다. '각 코먼웰스는 *(그것이 그 자신으로서 완전하며 충분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그것에 신종하지 않는 다른 어떠한 코먼웰스를 지휘하거나 그 통치의 운영을 바꾸도록 그것에 강제하거나 해도 좋으며, 그뿐 아니라, 그 군주를 폐하고 대신에 다른 군주를 두는 것도, 만일 그가 그들에게 대하여 행하고자 하는 침해로부터 자기를 방위하는 방법이, 달리 없을 것 같으면, 해도 좋다. 이것에 훨씬 우월하게, 영적 코먼웰스는 현세적 코먼웰스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는 영적 이익을 지킬 수 없을 때에는 그들의 통치의 운영을 바꾸도록 지휘해도 좋으며, 여러 왕후를 폐하고 다른 자를 설립해도 좋은 것이다.'

하나의 코먼웰스는, 여러 침해로부터 자기를 방위하기 위하여, 그가 여기서 말한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실인 것이며, 앞에서 진술된 것 중에서 이미 충분히 가리켜져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세계에 정치적 코먼웰스에서 구별된 영적 코먼웰스가 있다고 하는 것도 또한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그것의 군주는 그에게 대하여 행해진 침해에 즈음하여, 또는 장래에 있어서 침해가 그에게 대하여 행하여지지 못하도록 하는 주의의 결여에 즈음하여, 전쟁으로 그의 자신을 회복하고 확보함이 좋았을 것이다. 그것은 요컨대 폐위하고, 죽이고, 혹은 굴복시키고, 혹은 무엇인가의 적대 행위를 하는 일인 것이다. 그러나 같은 이유에 의해서, 비슷한 침해가 행하여지든가 행하여질 우려가 있든가 하는 경우에, 정치적 주권자로서는 영적 주권자에 대하여 전쟁을 하는 것이 전(前)에 못지않게 합법적일 것이다. 그것은 벨라르미노 추기경이 그 자신의 명제로부터 이끌어 내려고 한 것을 넘어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렇지만 영적 코먼웰스는 이 세상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왕국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며, 그 왕국은 그 자신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다음의 세상에서 부활 때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때 바르게 살아오고, 그를 그리스도라고 믿어 오고 있던 사람들은 *(그들은 자연의 육체로는 죽었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육체로서는 일어날 것이다. 그리하여 그때는 우리의 구세주가 세계를 심판하고 그의 적대자들을 정복하고, 영적 코먼웰스를 만들 때인 것이다. 그때까지에는 지상에는 누구도, 그 육체가 영적인 사람들은 없다는 것으로서 또한 육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영적인 코먼웰스는 있을 수 없다. 부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사람들을 가르치고, 준비한다고 하는 위탁을 받고 있는 설교자들을 우리의 하나의 코먼웰스라고 부르지 않는 한, 나는 이미 앞에서 그러한 코먼웰스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셋째의 논거는 다음의 것이다. '불신앙의 혹은 이단의 왕이 그리스도 교도들을 그의 이단(異端) 혹은 불신앙의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노력할 경우에, 그를 관용하는

것은, 그들로서는 합법적이 아니다. 그러나 어떤 국왕이 그의 신민들을 이단으로 끌어당기는가 어떤가를 심판하는 것은, 법황에 속한다. 따라서 법황은, 그 군주가 폐위되어야 할 것인가 폐위되지 않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권리를 가진다.'

이것에 대해서 나는, 이러한 주장은 쌍방 모두 거짓이라고 대답한다. 즉 그리스도 교도들*(혹은 어떠한 종교를 가지는 사람들이라도)*은, 그들의 국왕이 어떠한 법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비록 종교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만일 그들이 *그(국왕)*를 관용하지 않으면 그들의 신의를 파기하는 것이며, 그것은 '자연적' 및 '실정적'인 신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신민들 사이에서의 이단에 대한 심판자는, 그들 자신의 정치 주권자 이외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단'이란, '공공적 인격(共公的人格)*(다시 말하면 그 코먼웰스의 대표자)*이,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명령한 의견에 반대하여, 완강히 지켜진 사적인 의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으로서 명백한 것은, 가르침을 받는 자로서 공공적으로 지시된 의견은, 이단일 수는 없으며, 그것들을 권위 지운 주권자인 군주들은, 이단자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단자들이란, 자신들의 합법적인 주권자에 의해서 금지된 어느 교의를 완고하게 옹호하는 사적인 사람들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교도들은 불신앙인 혹은 이단의 국왕들을 관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는 〈신명기〉 17장 15절을 내세운다. 거기에서 신은 유대 사람들에게, 그들이 자신들 위에 국왕을 둘 경우에, 낯선 사람을 선출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그리스도교가 아닌 국왕을 선출하는 것은, 그리스도 교도로서 합법적이 아니라고 추론한다. 확실히 그리스도 교도인 사람, 즉 우리의 구세주가 오실 때에, 그를 자기의 국왕으로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이미 자기를 의무 지워 버린 사람으로서는, 그가 신의(信義)를 파기하도록 공포와 설득과의 쌍방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라고, 그가 알고 있는 인물을 이 세상의 국왕으로서 선택한다는 것은, 너무나 많이 신을 시험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교도가 아닌 자를 국왕으로서 택하는 것과, 그가 선출되었을 경우에 그를 폐위시키지 않는 것과는 같은 위험이다(라고 그는 말한다). 이것에 대해서 나는, 문제는 그를 폐위시키지 않는 위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폐위하는 정의

에 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를 택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부정일지 모르나, 그를 폐위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항상 신의의 파기이며, 그 결과로서 영원한 신의 법인 자연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우리는 사도들의 시대에도, 또는 로마 황제들의 시대에도 법황이 로마의 정치적 주권을 가지는 데 이르기까지는 그러한 어떤 교의도 그리스도교적인 것으로서 생각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읽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그는 대답했었다. 즉 오래된 그리스도 교도들이 네로(Nero)도, 디오클레티아누스(Diocletian)도, 유리아누스(Julian)도, 아리아 사람인 발렌스(Valens)도 폐위하지 않은 것은, 그가 현세적인 강한 힘을 가지지 않았다고 하는 이 이유만이 원인이 되는 것이다. 아마도 그럴 것이다. 그렇지만 자신을 돕는 12군단(軍團)의 불사불패(不死不敗)의 천사를, 요청에 응해서 얻을 수 있었던 우리의 구세주는, 카이사르를 혹은 적어도 빌라도를 폐위하기 위한 강한 힘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빌라도는 부정(不正)하게도 그에게서 결함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를 십자가에 걸리도록 유대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던 것이다. 혹은 만일 사도들이 네로를 폐위하기 위한 현세적인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들로서는 새로 만들어진 그리스도 교도들에게 보내는 그들의 편지에서, 사람들 위에 설정된 여러 권력에 *(네로는 그 시대에 있어서 그들 중의 한 사람이었다)* 복종하라고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가르치는 것이,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권력들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그것들의 진노를 두려워함에서가 아니라 양심 때문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필요했던 것일까? 그들은 강한 힘이 없었기 때문에 복종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것을 가르치기도 했다고 우리는 말해야 할 것인가? 그러므로 그리스도 교도가 그들의 이교도인 군주, 혹은 오류를 가르치는 것을 권위 지워 준 군주*(나는 누구이든 그의 교의가 공공적 교의인 사람을 이단자라고 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를, 관용해야 했던 것은 강한 힘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었다. 그리고 법황의 현세적 권력에 대해서는, 그는 다시 성 바울이 그 시대의 이교도 군주의 아래에서 그러한 군주들에 의하여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

을 임명했다[310]고 주장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 바울은 그들에게 대하여, 그들의 동포 중의 몇몇을 골라서 중재자로서 그들의 엇갈림을 조정하도록 하라고 충고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교도의 재판관들 앞에서 서로 고소질하기보다 차라리 그것은 건전한 명령이며, 자비에 넘쳐 있고,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교 코먼웰스에 있어서도 실행할 수 있기에 적합한 것이다. 그리고 신민이 이교도의, 혹은 오류를 범한 군주를 관용하는 것으로서 종교에 대하여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한 신민이 그것에 대한 능력 있는 재판관이 아닌, 논점인 것이며, 혹은 만일 그가 그렇다고 하면, 법황의 현세적 신민들은, 법황의 교의에 대해서도 재판을 해도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앞에서 증명한 것처럼, 그리스도 교도인 각 군주는 그들 스스로의 신민들의 최고 목자이라는 데에 있어서 법황이 그의 신민들의 그것이라는 것에 뒤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넷째의 논거는, 국왕들의 세례로부터 이끌어 내고 있다. 거기에서 그들은 그리스도 교도가 되기 위해서, 그들의 왕권(scepters)을 그리스도의 밑에 두는 것이며,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유지하고 방위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이것은 진실한 것이며, 그리스도 교도인 국왕들은 그리스도의 신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법황의 동료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자신의 신민의 최고 목자이며, 그리고 법황은 로마 자체에서도, 국왕이며 목자라고 하는 그 이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섯째의 논거는, 우리의 구세주에 의해서 말씀된, '나의 양을 치라'라고 하는 말에서 이끌어 낼 수 있다. 그것에 의해서 목자에게 필요한 모든 권력이 주어진 것이며, 그 권력이란, 예를 들면 이단자와 같은 이리(狼)를 내쫓는 권력, 나쁜 *(그리스도 교도이긴 하지만)* 국왕들과 같이 미치기도 하다가 불로 다른 양을 들이받기도 하는 경우의 어린 양들을 가두는 권력, 양의 떼에게 먹기 좋은 식물을 주는 권력이다. 여기에서 그는 성 베드로가 이러한 세 권력을, 그리스도에 의해서 수여되었다고 추론한다.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이러한 권력들 중 마지막의 것은, 가르치는 권

310 〈고린도전서〉 6장.

력이라고 하기보다 차라리 가르치는 지휘권에 불과하다고 대답한다. 첫째의, 이리〔狼〕, 즉 이단자를 내쫓기 위한, 그것에 대하여 그가 인용하는 부분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311]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단자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며, 어떠한 예언자도 아닌 것이고, 또한 *(이리가 이단자를 뜻하는 것으로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사도들은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하든가 혹은 그들이 왕이라면 폐위하라고 명령한다든가 하지 않고,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로부터 도망치고 그들로부터 피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또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는 이 조언을, 그가 준 것은 성 베드로에 대해서도 아니며, 사도들 중의 누구에 대해서도 아니고, 그에게 따라서 산으로 들어간 유대인의 군중에 대한 것이었으며, 그들은 대부분이 아직 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만일 그것이 국왕들을 내쫓는 권력을 수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주어진 것은, 사적인 사람들에게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전혀 그리스도 교도가 아닌 사람들에 대한 것이었다. 그리고 광폭한 어린 양을 분리하여 가두어 넣는 권력*(그것으로서 그가 뜻하는 것은 로마의 목자에게 복종하는 것을 거부하는 그리스도 교도인 왕을 말하는 것이다)*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의 구세주는 그 권력을 이 세상에서 스스로 떠맡는 것을 거부하였던 것이며, 보리와 가라지를 심판의 날까지 함께 길러 놓도록 충고한 것이었다. 더구나 그가 그것을 성 베드로에게 준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성 베드로는 그것을 법황들에게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성 베드로 및 그 밖의 다른 모든 목자는, 교회에 복종하지 않는 그리스도 교도, 즉 *(그리스도 교도인 주권자에 복종하지 않는)* 그리스도 교도를 이교도로서 또는 세리와 같이 생각하도록 요구했다. 거기서 사람들이 법황에 대하여, 이교도인 군주들에 대한 어떠한 권위도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면, 그들은 이교도로 생각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주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가르치기만 하는 권력에서, 그는 법황에 있어서의 국왕들에 대한 강제 권력까지도 추론한다. 목자는*(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의 양의 무리에게 먹기 좋은 식

311 〈마태복음〉 7장 15절.

물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법황은 국왕들을, 그들의 의무를 행하도록 강제해도 좋은 것이며 강제해야 할 것이다. 거기에서 당연히 법황은 그리스도 교도들의 목자로서, 국왕들의 국왕이라는 것으로 된다. 그것을 모든 그리스도 교도인 국왕은 바로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스스로 최고의 목자인 책무를 각자 자신의 영토 안에서 인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의 여섯째의 그리고 마지막의 논거는, 실례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나는 답한다. 첫째로, 실례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는다. 둘째로, 그가 참고로 내세우는 실례는, 정의의 가능성조차 만들지 못한다. 아달랴(Athaliah)를 죽일 즈음의 여호야다(Jehoiada)의 행위[312]는, 왕 요아스(Joash)의 권위에 의한 것이었든가 혹은, *(왕 사울의 선출 뒤 계속하여)* 다만 신민에 지나지 않았던 제사장으로서의 무서운 범죄였었다. 데오도시우스(Theodosius) 황제를 파문했을 때의 성 암브로시우스(Ambrose)의 행위는 *(그가 그렇게 한 것이 진실이라면)*, 중대 범죄인 것이었다. 그리고 법황 그레고리(Gregory) 1세, 그레고리 2세, 자카리아(Zachary), 레오 3세로서는 그들의 판결은, 그들 스스로의 소송 사건에서 내려진 것이므로, 무효이며, 이 교의에 일치하여 그들에게 의해서 행해진 여러 행위는, *(특히 자카리아가 저지른 일은)* 인간 본성에 부수하는 한, 최대의 범죄이다. 그리하여 '교회 권력'에 대하여서는 이것으로 마친다. 거기에서 나는 벨라르미노의 다른 모든 그리스도교의 군주 및 국가에 대한 법황파의 전사(戰士)로서가 아니라, 사인(私人)으로서의 여러 논거를, 만일 그러한 것들이 그의 것이라 할지라도, 검토하는 것을 삼갔으므로, 비교적 짧았던 것이다.

제43장 사람이 하늘의 왕국에 수용되기 위해서 필요한 사물에 대하여

신과 인간에게 동시에 복종하는 것의 곤란 그리스도교적인 여러 코먼웰스에 있어서의 요란(擾亂)과 내란(內亂)의 가장 자주 이용되는 구실은, 오랫동안 신과 인간과의 계율이 서로 대립하는 경우에 있어서, 쌍방에게 동시에 복종하는 것의 곤란이

312 〈열왕기하〉 11장

라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그 곤란은 또한 충분히 해결되어 있지 않다. 한 사람이 두 가지의 상반되는 명령을 받고, 그러한 것들 중의 하나가 신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 그는 그것에 복종해야 할 것이며, 다른 쪽이 비록 그의 합법적인 주권자*(군주이건 주권 합의체이건)*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혹은 그의 아버지의 명령이더라도, 그것에는 복종할 것이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명백하다. 그러므로 곤란한 것은 다음과 같은 것에 있다. 즉 사람들이 신의 이름으로서 명령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 경우에서 명령이 과연 신으로부터서인가 혹은 명령하는 사람이 그 자신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신의 이름을 악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 않는가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교회에 있어서와 같이 많은 허위의 예언자가 있어서, 거짓 꿈이나 환영(幻影)에 의해서 백성의 평판을 얻으려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도 언제나 허위의 교사들이 있어서, 그들은 환상적이고 허위의 교의에 의해서 백성의 평판을 얻으려고 하며, 그리고 그러한 평판에 의해서, *(그것이 야심의 본질이므로)* 자신들의 사적 이득을 위해서 백성을 통치하려고 노력하여 왔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구제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가를 구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신과 지상의 정치적 주권과의 양자에 복종한다는 이 곤란은 '신의 왕국'에 자신들이 '수용'되는 데에,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정치적 주권자의 명령이, 영원한 생(生)을 상실함 없이 복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부정인 것이기 때문이며, '종들아 모든 일에 있어서 주인을 따르라' 및 '아이들아 모든 일에 있어서 양친에 따르라'라고 하는 사도의 가르침과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므로 모두 그들이 말하는 것을 지키고 행하라'라고 하는 우리의 구세주의 가르침이 의미를 가져온다. 그러나 만일 그 명령이 영원한 죽음으로 저주받지 않고서는 복종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경우에는 그것에 따른다는 것은 미친 일일 것이며, 우리의

구세주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313]라고 하는 충고가 의미를 가져온다. 따라서 그들이 지상의 주권자에게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어지게 될 벌과, 신에게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장차 올 세상에서 주어지게 될 법의, 양쪽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영원한 구제에 있어서 필요한 것과 필요치 않은 것과를, 잘 구별하도록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구제에 필요한 모든 것은 신앙과 복종 속에 포함되어 있다 '구제'에 필요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의 신앙'과 '법에의 복종'이라고 하는 두 개의 덕성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들 중의 후자는, 만일 그것이 완전한 것이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으로서 충분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신의 법에의 불복종에 대하여, 처음에는 아담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자신의 침범에 의해서도 또한, 죄가 있으므로 현재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나머지의 시대에 대한 '복종'뿐만 아니라 지나온 때에 대한 죄의 '사면(赦免)'도 얻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 사면은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보답인 것이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구제를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왕국이 죄인, 다시 말하면 법에 대한 불복종자나 침범자 이외에는 누구에 대해서도, 또한 그들이 후회하고 그리스도교의 신앙 조항에서 구제에 필요한 모두를 믿는다고 하면, 그들에게 대해서도 닫혀져 있지 않다는 것으로 미루어 명백하다.

어떠한 복종이 필요한 것인가 우리의 모든 행위에 있어서, 의지(意志)를 실행(實行)으로서 받아들이는 신에 의해서, 우리 측에 요구되고 있는 복종은, 그에게 복종하고자 하는 성실한 노력인 것이며 그 노력을 나타내는 것과 같은 모든 명칭에 의해서도 불려진다. 그러므로 복종이 어떤 때는 '자혜(慈惠)' 및 '사랑(愛)'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것이며, 그 이유는 그것들이 복종에의 의지(意志)를 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를 구세주 자신이 우리의 신에의 사랑과 서로 간의 사랑을, 법의 전체를 가득 채우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한 그것은 어느 때는 정당성이라는 명칭으로

313 〈마태복음〉 10장 28절.

도 불린다. 왜냐하면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에게 그 자신의 것을 주려고 하는 의지에 다를 바 없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법에 복종하고자 하는 의지이기 때문이다. 어떤 때는 '회개(悔改)'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것은 죄에서 몸을 돌려 멀어지는 것을 뜻하며, 그것은 복종하는 의지에의 복귀(復歸)와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의 계율의 실행을 거짓이 아니게 의도(意圖)하는 자, 자신의 침범(侵犯)을 진실로 스스로 회개하는 자, 신을 그의 마음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랑하고, 그 이웃을 그 스스로와 같이 사랑하는 자는, 누구나 모두 신의 왕국에 수용되는 데 필요한 복종을 가지고 있다. 즉 그것은 만일 신이 완전한 순결을 요구한다고 하면, 구원될 육(肉)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여러 법에 대한 것인가 그렇지만 신이 우리에게 준 여러 계율이란 어떤 것인가. 모세의 손에 의해서 유대 사람들에게 주어진 법의 모두가 신의 계율인 것인가. 만약 그것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 교도들은 왜 그것들에 복종하도록 가르쳐지지 않는가. 만일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자연의 법 이외에 무엇이 그런 것인가. 즉 우리의 구세주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여러 법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종하는 여러 법에, 다시 말하면 자연의 여러 법 및 우리의 각자의 주권자의 여러 법에 순종하도록 하라는 충고를 준 것이다. 그는 또한, 그의 산상(山上)의 설교에서, 유대 사람들에 대하여 어떠한 새로운 법을 만든 것도 아니며, 그들이 앞에 신종하고 있던 모세의 여러 법을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의 여러 법이란, 자연의 여러 법에 지나지 않고, 그 중심은 우리가 자신들의 신앙을 유린해서는 안 된다는 것, 즉 우리 사이에서의 상호적 계약에 의해서 우리 위에 설립한 우리의 정치적 주권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계율인 것이다. 그리고 시민법에의 복종을 명령하는 이 신의 법은, 그 귀결로서 《성경》의 모든 법규에의 복종을 명령한다. 그것은 *(앞 장에서 입증한 것처럼)* 정치적 주권자가 이것을 법으로 만든 곳에서만 법인 것이며, 다른 곳에서는 충고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은 그 자신의 위험에 있어서 그 충고에 복종하는 것을 거부해도, 부정의는 아닌 것이다.

그리스도 교도의 신앙에 있어서 믿을 수 있는 인격은 누구인가 구제에 필요한 복종

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누구에게 향해져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지금 알고 있으므로 다음의 신앙에 대하여, 누구를 무엇 때문에 우리가 믿는가를, 그리고 구제될 사람들이 꼭 믿어야 할 필요한 여러 조항 또는 여러 항목은 무엇인가를 고찰하게 된다. 그리고 우선 우리가 믿는 인격에 대하여 말하자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우리가 알기 전에는 어떠한 인격을 믿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은 일이 있는 사람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및 예언자들이 믿은 인격은, 그들에게 초자연적으로 말을 한 신 자신이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대화를 주고받은 사도들 및 제자들이 믿은 인격은, 우리의 구세주 자신이었다. 그렇지만 아버지이신 신도 우리의 구세주와도 일찍이 대화한 적이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그들이 믿은 인격이 신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들은 사도들을 믿었고, 그 후에는 교회의 목자들, 박사들을 믿었고, 후자는《구약 성경》및《신약 성경》의 이야기를 그들이 신앙하도록 권장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교도들의 신앙은, 우리의 구세주 때부터 계속해서 그 기초로서, 처음은 그들의 목자들의 명성을, 뒤에는《구약 성경》과《신약 성경》의 규칙으로서 받아들이도록 한 사람들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그리스도교적 주권자들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었으며, 그 때문에 그들은 최고의 목자이며, 현재에서는 그리스도 교도가 신으로부터의 말씀을 듣는 유일한 인격인 것이다. 오늘날 신이 초자연적으로 말을 하는 것 같은 사람들은 별도이지만, 그러나 '세상에 나온' 거짓의 예언자들이 많이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은 그런 영(靈)에 대하여 *(성 요한이 〈요한1서〉 4장 1절에서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나 시험하라'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거기서, 교의의 검토가 최고의 목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면, 특별한 계시를 가지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할 인격은 *(어떤 코먼웰스에 있어서도)* 최고의 목자, 다시 말하면 정치적 주권자인 것이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여러 원인 사람들이 왜 어떤 그리스도교의 교의를 믿는가 하는 원인은 각양각색이다. 왜냐하면 신앙은 신의 선물인 것이며, 그는 그것을 각자의 사람 가운데, 그 사람 자신에게 있어서 선(善)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불어넣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어떤 점에 관해서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일반적인

직접적 원인은, 우리가 《성경》을 신의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왜 우리가 《성경》을 신의 말씀이라고 믿는가는 잘 훌륭하게 진술되어 있지 않은 모든 질문이 반드시 그렇게 필요로 하고 있는 것같이 크게 논쟁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질문을, '왜 우리는 그것을 믿는가'라고는 하지 않고, 마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완전히 같은 것처럼,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아는가'라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쪽이 그들의 지식의 기초를 교회의 무류성(無謬性)에 두고, 다른 쪽이 사적인 영의 입증에 두면서, 어느 쪽도 자신이 주장하는 것에 결론으로서 도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먼저 《성경》의 무류성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교회의 무류성을 알 수 있겠는가. 또한 어떤 사람이 그 자신의 사적인 영이, 그의 교사들의 권위와 논의에, 혹은 그 자신이 신의 선물을 가지고 있다는 추정에 바탕을 둔 신념 이외의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 밖에 《성경》 가운데는, 우리가 거기에서 교회의 무류성을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며, 어떤 특정한 교회의 무류성에 대하여서는 더욱 그 이상으로는 없으며, 특히 누구인가 특정한 인간의 무류성에 대하여서는 전연 없는 것이다.

신앙은 듣는 것으로부터 온다 따라서 다음 것은 명백하다. 그리스도 교도인 사람들은, 《성경》이 신의 말씀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믿게 하는 수단으로서 신이 보통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자연의 방법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그들의 교사들로부터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교 신앙 일반에 관한 성 바울의 교의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314] 즉 우리의 합법적인 목자들의 말하는 것을 들음으로써 나온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315]라고도 말한다. 그것으로서 명백한 것은, 《성경》이 신의 말씀이라고 믿는 일반적인 원인은, 우리의 신앙의 다른 모든 조항을 믿는 원인과 같은 것, 즉 우리의 양친이 그들의 집에서, 우리의 목자들이 교회

314 〈로마서〉 10장 17절
315 〈로마서〉 10장 14~15절.

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법에 의해서 허용되고 임명된 사람들을, 듣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경험에 의해서 다시 명백해진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의 여러 코먼웰스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성경》이 신의 말씀이라고 믿든가, 혹은 적어도 그렇게 공언하고 있으며, 다른 여러 코먼웰스에서는, 거의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를 그리스도교의 코먼웰스에서는 그들이 그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다른 곳에서는 다르게 가르치는 것 이외의 무엇에 귀착시킬 수 있을까.

그러나 만일 가르치는 것이 신앙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왜 모든 사람이 믿지 않는가. 그러므로 확실히 신앙의 신의 선물인 것이며, 그는 그것을 그가 주고 싶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만 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주는 사람들에 대하여 교사들을 통해서 주므로, 신앙의 직접적 원인은 듣는 것이다. 학교에서 많은 사람이 가르침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이익을 얻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는 않으나 이익을 얻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식의 원인은 교사인 것이다. 그래도 거기에서 학식은 신의 선물이 아니라고 추론할 수는 없다. 모든 선한 사물은 신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는 모든 자가 자신들은 영감을 얻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은 초자연적인 선물, 신의 직접적 도움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을 일컫는 것은 예언자인 것을 주장하는 것이며, 교회에 의해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성경》이 신의 말씀인 것을 '알고' 있든지, '믿고' 있든지, '인용(認容)'하고 있든지 간에, 만일 그러한 것들 중에 애매함이 없는 부분에서 어떤 신앙조항이 구제를 위해 필요한가. 그리고 그것만으로서 충분하다는 것을 내가 가르친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동일한 것을 '알고', '믿고' 혹은 '인용'하면 충분한 것임이 틀림없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유일한 필요 조항 《성경》이 구제를 위해서 이것만은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필요한 유일의 것(unum neccessarium)'*), 신앙의 유일한 조항은 다음의 것, 즉 예수는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칭에 의해서 국왕이 이해되는 것이며, 신은 이전에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국

왕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자신의 아래서 영원히 *(유대 사람들 그리고 다른 여러 국민 가운데서 만일 그를 믿는 자가 있으면 그 한도의 사람들을)* 통치하고, 아담의 죄에 의해서 상실한 영원한 생을 그에게 준다고 약속한 것이다. 그것을《성경》에 의해서 증명하고 난 다음, 나는 몇몇의 다른 조항이 어떠한 경우에 어떤 의미로 또한 '필요'하다고 불릴 수 있는가를 가리키고자 한다.

복음 전도자들의 의도에서 증명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이 조항에 대한 신념이, 구제를 위해 요구되는 신앙의 전부라고 하는 것의 증거로서의 나의 첫째의 논거는, 복음 전도자들의 의도로부터의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구세주의 생애의 서술에 의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항목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성 마태의 복음 요약은 다음의 것이다.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며 처녀로부터 태어난 것으로서 그러한 것들은 참 그리스도의 표적이다. '동방의 현자(賢者)들(the Magi)'이 그를 유대인의 국왕으로서 존경하기 위하여 왔었다는 것, 헤롯이 같은 이유로 그를 죽이려고 한 것, 세례 요한이 그가 그렇다는 것을 포고한 것, 그가 스스로 또는 사도들에 의해서, 그가 그 국왕이라는 것을 설교한 것, 그가 법을 율법학자로서가 아니라 권세 있는 사람으로서 가르친 것, 그가 그의 말씀만으로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그 밖에도 많은 기적을 이룩해서 그것들이 그리스도가 행할 것으로서 미리 이야기되어 있었다는 것,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국왕으로서 환호를 받은 것, 그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라고 자칭하는 다른 모든 자에게 경계하도록 앞질러 미리 경고한 것, 그가 자신은 왕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체포되어 고소되고 사형에 처해진 것, 십자가에 쓰여진 그의 유죄 선고의 이유는 나사렛의 예수 유대인의 국왕이었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도록 하는 것 이외의 목적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것이 성 마태의 복음의 의도였다. 그런데 모든 복음 전도자의 의도는, *(그들을 읽음으로써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같았던 것이다. 따라서 복음 전체의 의도는, 그 유일한 조항으로 확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성 요한은 명언적(明言的)으로 그것을 그의 결론으로 하고 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 그것이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사도들의 설교에서 나의 둘째의 논거는, 우리의 구세주가 지상에 살아 있을 때와 그의 승천한 뒤의, 두 경우에 있어서의 사도들의 설교 주제에서 얻을 수 있다. 사도들은 우리의 구세주 때에, 〈누가복음〉 9장 2절과 같이 신의 왕국을 설교하기 위해 보내어졌다. 이것은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도, 그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 이외의 아무런 위탁도 주지 않았다. 그것은, '너희들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즉 '예수'는 와야 할 분이던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라고 '말하여 설교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의 승천한 뒤에도 또한 그들의 설교가 같았던 것은, 〈사도행전〉 17장 6~7절에서 명백하다. '그들은 *(성 누가는 말한다)*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또한 같은 장의 2~3절에서도 명백한 것으로서,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곧,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세안식 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그의 말을 자신이 설교하고 있다)*가 곧 그리스도라.'

그 교의의 수월함으로부터 셋째의 논거는 구제를 위해서 요구되는 신앙의 모든 것은 수월해야 한다는 것을 선고한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얻어진다. 즉 만일 그리스도교의 신앙에 대하여 지금 가르치는 모든 교의*(그 절대적으로 많은 부분은 논쟁이 되고 있다)*에 대한, 내면적인 동의가 구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교도이기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을 것이다. 십자가 위의 도둑은 후회는 할지언정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하는 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할 것으로 되었을 것이다. 그것에 의해서 그가 증언한 것은, '예수는 왕이다'라고 하는 이 조항 이외의 어떠한 조항의 신앙도 아니었다. 혹은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멍에는 쉽고 그의 짐은 가벼움이라'라고 하는 것도 말하지 못했을 것이다. 혹은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그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것이다. 혹은 성 바울이,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316]라고 말한 것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혹은 성 바울 스스로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고 더욱 그와 같이 도저히 교회의 그렇게 훌륭한 박사가 되는 일은 있을 수 없었다. 더구나 실체화(實體化)도 연옥(煉獄)도 그 밖의 많은 지금 강요받고 있는 조항에 대하여도 아마도 결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정식(正式)적이고 명백한 본문에서 넷째의 논거는, 예를 들면 먼저 〈요한복음〉 5장 39절과 같이, 명언적이고 해석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 같은 여러 부분에서 얻어진다. '성경의 여러 편을 찾으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우리의 구세주는 여기에서 《구약 성경》만의 《성경》 여러 편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때의 유대 사람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던 《신약 성경》의 여러 편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가 왔을 때에 사람들이 그를 알 수 있도록 한 것과 같은 한 표적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 그러한 표적은, 예를 들면 그가 다윗의 자손일 것이며,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며, 동정녀로부터 탄생할 것이며, 많은 여러 기적을 행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와 비슷한 것들이다. 따라서 이 예수가 그였다고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에 있어서 충분했다. 그러나 충분 이상의 것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따라서 어떤 다른 조항은 요구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317]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에 있어서 충분한 신앙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 귀결로서 그 이상의 신앙은 필요하지 않으며,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과는, 곧 다음에 계속될 여러 절에서 알 수 있듯이, 전적으로 같은 것이다. 즉 우리의 구세주가 마르다(Martha)를 향하여, '이것을 네가 믿느냐*(26절)*'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대답한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27절).*' 따라서 이 조항만으로서 영원한 생명에 있어서 필요한 신앙인 것이며, 충분한 것 이

316 〈고린도전서〉 1장 21절.
317 〈요한복음〉 11장 26절.

상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셋째로, 〈요한복음〉 20장 31절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거기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이 생명을 얻는 데 충분한 신앙인 것이며, 따라서 다른 조항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넷째로, 〈요한1서〉 4장 2절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또 〈요한1서〉 5장 1절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5절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다섯째로, 〈사도행전〉 8장 36~37절의 '보라 *(내시가 말한다)*.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거기서, '빌립이 가로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인 줄 믿노라.'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믿게 된 조항은 세례에 있어서 충분한 것이며, 즉 우리가 신의 왕국에 받아들여지는 데에 충분한 것이니, 그 귀결로서 필요한 유일의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누구인가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했다'라고 할 경우의 모든 조항에서 그가 그것을 말하는 이유는, 어떤 고백이며 그것이 직접 혹은 귀결로서 '예수는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신앙을 뜻하는 것이다.

그것이 다른 모든 조항의 기본이라는 데에서 마지막의 논거는, 이 조항이 신앙의 기본이 되어 있는 여러 부분으로부터이다. 즉 그 기본을 받드는 사람은 구원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부분들은, 첫째로, 〈마태복음〉 24장 23절이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등등.'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이 조항, 설령 그것과 반대의 것을 가르치는 자가 큰 여러 기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신봉(信奉)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둘째의 부분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이다.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데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설교한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

다'라고 하는 이 조항뿐이었다. 따라서 이 조항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는 만일 반대의 것을 가르친다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의 권위도 거부해야 하는 것이며, 더구나 누구이든 죽어야 할 인간의 권위는 말할 나위가 없이 더욱 그러하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기본 조항인 것이다. 셋째의 부분은, 〈요한1서〉 4장 1~2절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것으로서 분명한 것은 이 조항은, 다른 모든 조항을 평가하고 검토할 척도이며 규준(規準)이라고 하는 것, 따라서 유일한 기본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넷째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이며 거기서는 성 베드로가, 우리의 구세주에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말하여 이 조항을 고백한 뒤에 우리의 구세주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대답한 것이다. 거기에서 내가 추론하는 것은 이 조항이 그 위에 교회의 다른 모든 조항이 그러한 것들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 것처럼, 세워져 있다고 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318] 그러한 말들은 부분적으로는 꾸밈이 없고 이해하기 쉬우며 부분적으로는 비유적이며 어려우므로 꾸밈이 없는 부분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이 기초를 가르치는 목자들은, 그들이 거기에서 거짓의 여러 귀결을 끄집어 내었다고 하더라도*(모든 사람이 때때로 그렇게 되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될 수 있는 것이며, 더구나 목자가 아닌 듣는 사람이니, 그들의 합법적인 목자들이 가르치는 대로 믿는 사람

318 〈고린도전서〉 3장 11~15절.

들은 훨씬 더 좋게 구원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조항의 신앙으로 충분한 것이므로 그 귀결로서 구제를 위하여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신앙 조항은 이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고 하는 것 및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나 불 가운데서, 즉 불을 통하여*(라고 하는 것은 원어가 디아 퓨로스(δἰὰ πυρὸς)이므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비유적인 부분에 대하여 말하면, 그것은 내가 그 밖의 꾸밈이 없는 말에서 이끌어 낸 이 결론에 반대되는 것을 어떤 것도 만들어 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바탕을 두고, 연옥(煉獄)의 불을 입증하기 위한 논거가 나오는 것이므로, 나는 다시 여기서 당신들에게 여러 교의의 이 시련과 불에 의한 사람들의 구제와의 뜻에 관하여, 나의 추측을 제시하기로 한다. 여기에서의 천사라는 것은 〈스가랴〉 13장 8~9절에서, 신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예언자 스가랴의 말을 어슴푸레 비치고 있는 듯 생각된다. '이 온 땅에서 삼분의 이는 멸절하고 삼분의 일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삼분의 일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라.' 심판의 날은 신의 왕국의 부활의 날이다. 그리고 성 베드로가 우리에게 세계의 대화재(大火災)가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 사악한 자는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319]은, 그날을 말함이다. 그러나 신이 구원하려고 하는 나머지 부분은, 그 불 가운데를 아무런 상해 없이 지나고, 그 가운데서 *(은과 금이 불에 의해서 그것들의 찌꺼기를 떼고 정련되는 것처럼)* 시험되고 그들의 우상 숭배에서 순화되고, 진실한 신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암시하면서 성 베드로는 여기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다. 그날 *(즉 심판의 날, 우리의 구세주가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신의 왕국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는 위대한 날)*은, 각자의 교의를 시험하여, 어느 것이 금인지 은인지 보석인지 나무인지 풀인지 짚인지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 진실한 기초 위에 거짓 여러 귀결을 세운 사람들은, 그때의 여러 교의가 단죄(斷罪)되는 것을 볼 것이나

319 〈베드로후서〉 3장 7~1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은 구원되고 이 보편적인 불 가운데를 상처 입지 않고 지나고, 그리고 영원에 살며, 진실하고 유일한 신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 뜻에서 거기에는 성경 이외의 부분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또 연옥의 불의 어떠한 불빛도 없는 것이다.

어떤 뜻에서 다른 여러 조항이 필요라고 불릴 수 있는가 그러나 여기서 사람은, 다음과 같이 질문할지도 모른다. 신이 전능이시고 이 세상의 창조자인 것,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 다른 모든 사람들이 최후의 날에 죽음에서 다시 소생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고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제를 위해 필요하지는 않을까. 그것에 대하여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그러한 것들은 필요한 것이며, 다른 많은 조항도 그러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이 하나의 조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곤란이 많으냐 적으냐의 차는 있어도 그곳에서 이끌어 낼 수는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가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물의 전능이신 창조자를 신으로 가지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또한 신이 만물의 전능이신 창조자인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없는 자가 어디에 있겠는가? 혹은 예수가 영원히 통치할 국왕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사자에서 다시 소생했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서, 어떻게 사람이 믿을 수 있겠는가? 사자(死者)는 국왕의 직무를 집행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예수는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이 기초를 지지하는 자는 그가 정당하게 거기에서 이끌어 내는 것을 알 수 있는 모두들 명언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며, 그것의 귀결로서의 모든 것을, 그는 그 결과를 분별하는 충분한 기량이 없다고 하더라도, 암암리에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하나의 조항을 믿는 것이, '회개자'에게 있어서 죄를 사면받는 데에 충분하고 따라서 그들을 하늘의 왕국에 불러들이는 데에 필요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타당한 것이 된다.

신앙과 복종의 두 가지 모두가 구제에 필요하다는 것 그런데 구제를 위해서 요구되는 모든 복종이, 신의 법에 복종하고자 하는 의지, 즉 회개에 있으며, 같은 것을 위해서 요구되는 모든 신앙이, 이 '예수는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조항의 신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가르쳤으므로, 다시 나는 복음 가운데서 구제

에 필요한 모든 것은, 이것들 두 가지가 함께한 것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부분을 명백히 주장하려고 생각한다. 우리의 구세주가 승천한 다음의 오순절 날에 성 베드로가 설교한 사람들은, 그와 다른 사도들에게 질문하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말했다.[320] 성 베드로는 그들에게 대답했다.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따라서 회개와 세례, 즉 '예수는 그리스도이다'라고 믿는 것이 구제에 필요한 모든 것이다. 또한 우리의 구세주는, 어느 관원에게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321]라고 질문을 받고 '네가 계명을 아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20절)*'라고 대답했다. 그가 그것들을 지켜 왔다고 말하자 우리 구세주는 덧붙여 말했다.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것은 국왕인 나에게 의지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따라서 법을 실행하고 예수가 국왕이다라고 믿는 것이, 사람을 영원한 생으로 초치(招致)하는 데에 요구되는 모든 것이다. 셋째로, 성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322]라고 한다. 모든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과 '정의'*(그것은 '바르고자 하는 의지' 혹은 '회개'이다)*가 영생에 필요한 모두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323]라고 말하여 설교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왔다고 하는 기쁜 소식이다. 따라서 회개하는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구제를 위해서 요구되는 모두인 것이다.

그것들의 각각은 어떻게 하여서 그것에 공헌하는가 거기서, 신앙과 복종*(회개라는 말에 포함된)*과는 함께 어울리는 것이 구제에 필요하다고 알았으므로, 두 가지 중 어느 것에 의해서, 우리는 의(義)가 되는가라는 문제가, 논의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320 〈사도행전〉 2장 37절.
321 〈누가복음〉 18장 18절.
322 〈로마서〉 1장 17절.
323 〈마가복음〉 1장 15절.

않는 짓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각각 어떠한 방식으로 그것에 공헌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한쪽 또는 다른 쪽에 의해서 의(義)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에서인가를 분명히 하는 것은 공연한 짓은 아닐 것이다. 그리하여 먼저, 정당성에 의해서 행위 자체의 정의(正義)가 이해된다고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은 없다. 왜냐하면, 신의 법을 침범한 일이 없는 인간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행위에 의해서 의(義)가 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의지(意志)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신은 선인(善人)에게 있어서도, 악인(惡人)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항상 의지를 행위 그 자체로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의미에서만, 어느 사람이 '바르다' 혹은 '부정(不正)하다'고 불리는 것이며, 이 의미에서만 그의 정의(正義)가 그를 의(義)가 되는, 즉 신에게 받아들여지는 정의(正義)의 칭호를 그에게 주는 것이며, 그를 그가 그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신앙에 의해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의(正義)가 의(義)가 된다는 것은, '의(義)를 하는' 것이 사람을 '바르다고 이름 짓는 것'과 같다고 하는 뜻에 있어서이며, 법을 해제(解除)한다고 하는 뜻에서가 아니다. 뒤의 경우에는 그의 죄를 벌하는 것이 부정(不正)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람은 그의 변명이, 그 자체로서는 불충분한 것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여졌을 경우에는 역시 의(義)가 되었다고 말한다. 우리가 법을 실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이 있었다고 변명하고, 우리의 실패에 대하여 회개하고, 신이 그것을 수행 그 자체로서 받아들이는 경우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신은 신앙 깊은 자에게서가 아니면, 의지를 실행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므로 따라서 우리의 변명을 유효한 것으로 하는 것은, 신앙인 것이며, 이 의미에서 신앙만이 의(義)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과 '복종'을 함께 구제에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각각이 의(義)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제 나름의 의미에 있어서인 것이다.

그리스도 교도라 할지라도 신과 정치적 주권자에의 복종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여, 구제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가르쳐 주었으므로, 신에 대한 우리의 복종을, 정치적 주권자에 대한 우리의 복종과 조정(調停)하는 것은, 그 주권자가 그리스도 교도이든 불신심자이든, 곤란한 것은 아니다. 만일 그가 그리스

도 교도라고 하면 그는 '예수는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이 조항 그리고 그것에 포함되어 있든가, 그것으로부터의 분명한 귀결로서 추론되는 모든 조항을 믿는 것을 허용한다. 그것이 구제에 필요한 신앙의 모두인 것이다. 그리고 그는 주권자이므로 그 자신의 모든 것, 즉 모든 시민법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그 가운데는, 모든 자연법, 즉 모든 신의 법도 또한 포함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연법과, 시민법의 일부인 교회법*(법을 만들 수 있는 교회는 코먼웰스이므로)* 이외에는 신의 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그리스도 교도인 주권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누구든지 그것에 의해서, 신을 믿는 것도 신에 복종하는 것도, 방해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 교도인 국왕이, '예수는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이 기초에서 무엇인가 허위의 여러 귀결을 이끌어 내고 바꾸어 말하면, 풀 또는 풀을 베어 낸 그루터기에서 무엇인가 상부 구조를 만들어, 그것을 가르치도록 명령한다고 가정하자. 그래도 성 바울은, 그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의 명령으로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자는 훨씬 더 많이 구원될 것이다. 가르치지 않고 자신의 합법적인 교사를 믿기만 하는 자는, 그것보다도 더욱 구원받을 것이다. 거기에, 신민이 정치적 주권자에 의해서 그러한 그의 의견 가운데 있는 것들을 공언하는 것이 금지당하는 경우, 어떠한 정당한 근거에 바탕을 두고 그는 복종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스도 교도인 국왕들이, 귀결을 이끌어 내는데 있어서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으나 누가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인가? 문제가 그 자신의 복종에 관한 것일 때, 한 사인(私人)이 판결해야 할 것인가? 혹은 교회에 의해서, 바꾸어 말하면 그것을 대표하는 정치적 주권자에 의해서, 그것을 위해서 임명되는 자 이외의 누가 판결해야 할 것인가? 혹은, 만일 법황 또는 사도가 판결해야 한다고 하면, 그가 귀결을 이끌어 내는데 있어서 잘못하는 일은 없을 것인가? 성 바울이 성 베드로에게 정면으로 거역했을 때, 두 사람 중의 한 사람, 성 베드로나 성 바울이 상부 구조에 있어서 잘못되어 있던 것은 아닐까? 따라서 신의 법과 그리스도교의 코먼웰스의 법과의 사이에는, 모순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혹은 주권자가 불신심자일 경우에도 그리고, 정치적 주권자가 불신심자의 경우, 그에게 저항하는 그 자신의 신민의 모두는, 신의 법*(그것은 자연법에 따른 것이 아*

*니기 때문)*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며, 또한 모든 그리스도 교도는 그들의 군주에 복종하도록, 모든 어린이와 종은 모든 사물에 있어서 그들의 양부모와 주인에게 복종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사도들의 충고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에 대하여 말하면, 그것은 내면적이고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나아만(Naaman)이 받은 용서로써 그 신앙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험에 빠뜨릴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그 보수를 하늘에다 기대해야 할 것이며, 그들의 합법적 주권자에 대하여 불평을 말할 것이 아니라 더구나 그에게 전쟁을 걸어서는 안 된다. 즉, 순교(殉敎)의 어떤 정당한 기회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공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그 자신의 불순에 어떤 색채를 띠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불신심자인 국왕이, 자기가 다음과 같은 신민을 거느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 그러한 신민을 사형한다든가, 박해를 한다든가 할 정도로, 비이성적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신민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세상이 불태워지고 난 뒤의, 그리스도의 재래를 기다리고 그때에 그에게 복종하려고 의도하며, *(그것은 예수가 구세주라고 믿는 것의 의도이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자신이 그 불신심자인 국왕의 여러 법에 복종하도록 구속되어 있다고 *(모든 그리스도 교도는 양심상으로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의무 지워져 있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만으로, 신의 왕국과 교회 정치에 대해서는 충분한 것이다. 이상에서 나는 내 자신의 어떠한 견해도 제시하려고 굳이 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그리스도교 정치학〔Christian Politiques〕의 여러 원리*(《성경》이다)*에서 정치적 주권자의 권력 및 그들의 신민의 의무의 확충으로서,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나에게 생각된 여러 귀결을 제시하려고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언급에 있어서 나는 애매한 구절이나 해석이 논쟁되고 있는 구절을 제외하도록 또한 극히 꾸밈없이 그리스도에 있어서 신의 왕국의 재건을 위하여, 기록된 《성경》 전체의 조화와 목적에 일치하도록 하는 뜻 이외에는 어디에도 언급하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 내가 이렇게 노력한 것은 어떤 저작에서도 그것이 해석되게끔 진실한 빛을 주는 것은, 말뿐인 것이 아니라 저작자의 목적인 것이기 때문이며, 중요한 기도(企圖)를 고려하지

않고 낱낱의 구절에 고집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아무것도 명백하게 이끌어 내지 못하고 오히려 《성경》의 여러 원자(原子)를 사람들의 눈앞에 티끌처럼 내던지는 것으로서, 모든 것을 실제로 그러한 것보다도 애매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진리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통상적 기교인 것이다.

제 4 부

암흑의 왕국에 대하여

올재 후원하러 가기

제44장 《성경》의 그릇된 해석에서 오는 영적인 암흑에 대하여

암흑의 왕국이란 무엇인가 지금까지 내가 논술한 '신'의 주권과 '인간'의 주권 이외에, 《성경》에서는 또 다른 권력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즉 '이 세상의 암흑 통치자',[1] '사탄(Satan)의 왕국',[2] 그리고 악령들, 즉 공중에 나타나는 유령들을 '지배하는 바알세불(Beelzebub)의 권력'[3] 등이다. 그러기 때문에 사탄은 또한 '공중(空中)의 권력을 가지는 왕'[4]이라 불리고 그리고 *(그는 이 세상의 암흑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왕'이라고 불린다. 이러한 것 때문에 사탄의 지배 밑에 있는 사람들은 *('빛의 아들인')* 충실한 신자와 대조적으로 '암흑의 아들'이라고 불린다. 바알세불은 유령의 두목이기 때문에 그가 지배하는 공중이나 암흑의 주민(住民)들도, 암흑의 아들도, 또 이들의 악령이나 유령 또는 환상에 의한 영들도 같은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생각한다면 《성경》의 여기저기에서 말하고 있는 암흑의 왕국이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하여 사악하고 그릇된 교의에 의하여 사람들로부터 자연의 빛과 복음의 빛을 빼앗아 그들이 신의 왕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사기꾼들의 연합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교회는 아직도 완전히 암흑으로부터 해방되어 있지 않다 태어나면서부터 육체의 눈으로부터 빛을 모두 빼앗긴 사람은 빛이라는 관념을 전혀 가지지 못하고, 또 누구도 어떠한 어느 기회에 자기가 그 외적인 감각에 의하여 지각한 그 이상의 강한 빛을, 자기의 심상(心像) 속에 그릴 수 없는 것과 같이 복음의 빛이나 이해(理解)의 빛에 관해서도 또한, 사람은 스스로 이미 도달하고 있는 것보다 더욱 높은 차원의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 여기에서부터 다음과 같이 된다. 즉 사람은 그의 인생의 도중에서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부터 추리하는 것 이외는 자기 자신의 암흑을 아는 어떠한 다른 방법도 갖지 못한다. 사탄의 왕국에서 가장 심한 암흑의 부분은 신의 교회의 외부 부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나

1 〈에베소서〉 6장 12절.
2 〈마태복음〉 12장 26절.
3 〈마태복음〉 9장 34절.
4 〈에베소서〉 2장 2절.

라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교회가 *(고센(Goshen)의 땅과 같이)* 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일들을 수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빛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리스도교의 세계에 있어서 거의 사도의 시대로부터 바깥의 전쟁이나 내란의 두 가지에 의하여 서로 다른 사람들을 밀어 내거나 자기 스스로의 사소한 난감이나 다른 사람의 운명의 사소한 우월을 당할 때마다, 주저하거나 같은 표지인 지복(至福, felicity)에 이르는 데 있어서 그렇게 여러 갈래의 길이 있었다는 것은, 만일 우리에게 밤이 아니었다면, 적어도 안개가 없었다면, 왜 그런 것인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암흑의 속에 있는 것이다.

영적인 암흑의 네 가지 원인 원수는 여기에서 우리의 타고난 무지(無知)라고 하는 밤〔암흑〕' 속에 있어서 영적인 오류의 가라지(tares)[5]를 뿌린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첫째로, 《성경》의 빛을 남용하고 그것을 꺼지게 하는 것으로서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성경》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이다. 둘째로, 이교도인 시인(詩人)들의 귀신학(鬼神學, demonology), 즉 사자(死者)의 망령, 요정(妖精), 그 밖의 허황한 전설의 다른 사물들과 같은, 인간의 상상이 아닌, 그들 자신의 실재하는 본성을 가지지 않는, 뇌수(腦髓)의 단순한 환영이나 환상에 지나지 않는 악령에 관한 신비로운 교의를 받아들인 데서 비롯한다. 셋째로는, 《성경》은 종교의 여러 가지 유물,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헛되고 잘못으로 가득 찬 철학을 혼합한 데서 비롯한다. 넷째로는, 이 두 가지, 즉 거짓되고 확실하지 않는 전통과 허구에 차고 또는 불확실한 역사를 혼합함으로써 비롯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람을 속이는 영에게 정신을 빼앗기고 또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는 그러한 *(또는 〈디모데전서〉 4장 1~2절의 원문에서 거짓말하는 자들과 같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의식함으로,' 즉 그들 자신의 지식에 어긋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귀신학에 정신을 빼앗겨, 잘못을 일으키는 것이 된다. 위의 첫째, 즉 《성경》의 오용에 의하여 사람들을 어지럽히는 것에 관해서, 이 장(章)에서 간단하게 말하려고 한다.

5 〈마태복음〉 13장 25~36절.

신의 왕국에 관하여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한 데서 오는 오류 《성경》의 가장 크고 그리고 주된 오용, 그리고 그 밖의 대부분의 모든 오용은 그 결과로서 나타나거나 또는 그것을 조작하는 것이지만, 그 오용은 《성경》 속에서 드물게 언급되고 있는 신의 왕국이 지금 있는 교회에 관한 일이라든가 또는 지금 생존하고 있는, 혹은 지금은 죽어 있지만 최후의 날에 또다시 재생하는 여러 그리스도 교도에 관한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성경의 뜻을 왜곡하여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의 왕국은 처음에는 모세의 봉사(ministery)에 의하여, 유대 사람들만을 위해서 설립된 것이며,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그의 특별한 백성으로 불리었다. 그리고 그 후에, 신의 왕국은 유대 사람들이 사울(Saul)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 이상 신의 지배가 이어지는 것을 거절하고, 다른 국민을 따라서 한 사람의 왕을 요구했고, 그것으로써 신 스스로가, 내가 앞의 35장에서 보다 상세하게 증명한 것과 같이 동의한 그때 이후에 끝난 것이다. 그때 이후에는 이 세상에 있어서 신의 왕국은 어떠한 약속에 의해서도 또는 신이 그의 무한한 힘에 의하여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지배함으로써 과거에도 모든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의 왕이었고, 현재도 왕이며, 또 미래에도 왕이어야 한다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도 신의 왕국은 그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 그의 예언자들에 의하여 이러한 그의 통치를 그들(유대 사람들)에게 부활시킬 것을 약속했었다. 즉 그것은 그가 그의 은밀한 계획 속에서 정해 놓았던 때가 무르익고 또 그가 회개하여 삶을 고쳐 신에게로 되돌아올 때이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신은 이방인에게 대해서 개종과 회개라고 하는 같은 조건 밑에서 그의 통치 밑에 들어와 그 행복을 즐기도록 초청했다. 또 그는 또한 그의 아들을 이 세계에 보낼 것을 약속했으며, 그것은 그의 죽음에 의하여 모든 사람들과의 죄가 속죄되기 때문이며, 또 그의 교의에 의하여 그들을 그의 재래를 맞이하여 그를 받아들이도록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재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신의 왕국은 아직 오지 않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우리의 정치적 주권자 이외에는 약속에 의하여 어떠한 다른 왕의 지배 밑에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리스도 교도만이 그의 재래를 당하여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하는 한, 은총의 왕국(the Kingdom

of Grace)에 있는 것이다.

신의 왕국이 현재의 교회라고 하는 것 현재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왕국이다라는 이러한 오류에 따라 우리의 구세주*(지금은 하늘에 있다)*가 그의 입을 통해서 말하기를, 법을 주고 또 그의 인격을 모든 그리스도 교도들에 대하여 대표하는 한 사람, 그리고 합의체가 있어야 한다든가, 또는 그리스도교 세계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하여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사람들이나 합의체가 있어야 한다는 귀결이 나오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밑에 있는 왕권은 보편적으로 법황(法皇)에 의하여 또는 개별적인 코먼웰스에 있어서, 그곳의 목자들의 합의체에 의하여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고*(《성경》에서는 정치적 주권자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그것을 부여하지 않았다)*, 자연의 빛을 끌 정도로 정열적으로 논쟁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스스로 누구에게 복종을 약속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의 큰 암흑을, 그들의 이해 속에서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법황이 그리스도의 총대행자라는 것 법황을 현재의 교회*(그것은 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로 향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생각되고 있다)*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총대행자라고 하는 이 주장에 따라 그리스도 교도의 왕은 사교로부터 그 왕관을 받아야 한다는 교의가 나온다. 그것은 마치 왕이 그의 칭호 속의 신의 '은총에 의하여(Dei gratiâ)'라고 하는 구절을 이 의식(儀式)에서 이끌어 내는 것과 같은 것이며, 또 이 세상의 신의 보편적인 대행자(vicegerent)의 권위에 의하여 왕관을 받을 경우에 한해서만이 그는 신의 은총에 의하여 왕이 되는 것과 같으며, 또한 그 주권자가 누구이든 모든 사교는 성별(consecration)될 때, 법황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의 서약을 한다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것의 귀결은 법황 인노센트 3세 밑에서 개최되었던 제4차 라테란 회의의 다음과 같은 교의이다. '왕이 법황의 경고를 받고도 자기 나라의 이단자를 추방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파문당해도 일 년 이내에 만족스러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의 신민들은 그의 복종의 속박을 해제된다'*(〈이단자에 대하여〉 3장)*는 것이다. 여기서 이단(異端)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교회가 그 믿음을 금지해 버린 모든 견해에 관한 것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단에 의하여 가끔 있는 일이지만, 법황과 그 밖의 그리스도교 군주와

의 정책 사이에서 어떤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 신민들 사이에 안개가 나타나, 분명한 판단을 할 수 없게 되어, 그들의 합법적인 군주의 왕좌를 차지한 사람과의 구별도 못 하고,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암흑 때문에 신민들은 그들의 원수를 그들의 편과 구별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사람의 야심의 조종 때문에 서로 투쟁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목자들은 성직자들이라는 것 현재의 교회는 신의 왕국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견해에서 다음과 같은 것에로 이르게 된다. 즉 목자, 교회 집사,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다른 교회의 대행자들은 그들 스스로를 '성직자(Clergy)'라 부르고, 그 밖의 그리스도 교도들에게는 '세속인(Laity)', 즉 단순한 '사람들(People)'이라고 이름 붙인다. 성직자라는 것은 그의 생계(生計)를 다음과 같은 수입에 의하여 유지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다. 그 수입이라는 것은 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을 무렵에 그 스스로가 확보해 놓고 레위 사람의 지파*(신의 공적인 대행자가 될 것을 예정하고, 그리고 그의 동포가 가지고 있었던 것과 같은 살기 위하여 구획한 토지의 몫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에게 그들의 재산이 되도록 나누어 준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법황이 *(이스라엘의 왕국과 같이 지금의 교회도 신의 왕국이라고 사칭하고 있는)* 신의 유산으로서의 수입을 그 자신 및 그의 종속적인 대행자들을 위해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성직자라는 명칭은 그 문구에 알맞은 명칭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신의 권리로서 레위 지파에게 지불되던 10분의 1세 그 밖의 공납이 교회인들(Ecclesiastiques)에 의하여, Jure divino, 즉 신의 권리에 있어서 그리스도 교도들로부터 오랫동안 요구되고 받아들여져 온 것은 그 때문이었다. 그 수단에 의하면 사람들은 어디에서든지 하나는 국가에 또 다른 것은 성직자에게의 이중의 공납 의무의 의무를 지고 있었다. 사람들의 수입의 10분의 1세에 해당하는 성직자에의 공납은 어떤 아테네의 왕*(그리고 전제자(專制者)라고 볼 수 있는)*이 공공의 모든 비용을 꾸려 가기 위하여, 신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인 것의 두 배에 해당한다. 즉 그는 20분의 1이상은 요구하지 않았고, 그래도 그것으로써 코먼웰스를 풍족하게 유지했었다. 그리고 신은 신정적 지배(sacerdotal regime)를 하고 있었던 동안의 유대 사람들의 왕국에 있어서는 10

분의 1세와 공납물이 국가의 수입의 전부였던 것이다.

현재의 교회와 신의 왕국과를 잘못 안 것으로부터 또 '시민법과 교회법(Civill and the Canon Laws)'의 구별이 나온다. 시민법은 주권자의 영토에 있어서의 '주권자'의 법령(Acts)이며 교회법은 같은 왕토에 있어서의 '법황'의 법령이다. 그리고 이 교회법은 정전(正典), 즉 '제안된 규칙(Rules Propounded)'에 지나지 않으며, 제국이 샤를마뉴 대제의 손으로 옮겨질 때까지는 그리스도교 왕후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에 지나지 않았으나 후에 법황의 권력이 증대(增大)됨에 따라 '명령된 규칙(Rules Commanded)'이 되었고, 그리고 황제들 그들 스스로 (*맹목적인 민중이 꾐에 빠질, 보다 더 큰 해악을 피하기 위하여*) 그 규칙을 법률로써 시행할 것을 강요했던 것이다.

여기에서 법황의 교회적 권력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든 영토에 있어서는 유대 사람, 터키 사람,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들의 종교상의 실천과 신앙 고백이 정치 권력에 대해 배반하지 않는 한, 그들의 종교에 있어서 로마 교회에 의하여 묵인되지만, 한편에 있어서 그리스도 교도라면 비록 외래자라 하더라도 로마의 종교를 신봉하지 않을 때는 무거운 죄가 된다. 왜냐하면 법황은 모든 그리스도 교도는 그의 신민이라고 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나라의 종교를 고백했다고 해서 그리스도 교도인 외래자를 처벌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를 처벌하는 등과는 관계없이 여러 국민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 된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편이기 때문에 더욱 여러 국민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 된다.

위에서 논술한 것과 같은 것으로부터, 모든 그리스도교의 국가에서는 교회인의 자유에 의하여 시민 국가의 세(稅)나 재판에 복종하는 것을 면제받은 어떠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수도사(monks)와 탁발 수도사(friars) 이외에 세속적인 성직자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것은 마치 전투적 교회가 자기들 혹은 그 군주에 대하여 전쟁을 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군대를, 필요하다면 그들로부터서만 모을 수 있을 정도인 것이다.

신에게 바치기 위한 성별(聖別)과 마법을 잘못 아는 데서 오는 오류 둘째의 일반적인 《성경》의 오용은 성별을 마법 또는 마술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다. '성별한다(consecrate)'는 것은 《성경》에 있어서는 경건하고 신중한 말과 몸짓으로 사람이나 또는 그 밖의 것을 일반적인 용도로부터 구별하여 신에게 바치고, 제공하고 또는 봉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에게 바치는 것 또는 그것을 신의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며 또 신이 그의 공공적인 대행자*(이미 내가 35장에서 상세하게 확증한 것과 같이)*에 의해서만이 사용되는 것이며 그것에 의하여 성별된 사물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만이 세속적이고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신성하고 신의 봉사를 위해 특별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말로써 사물 그 자체의 본질과 속성이 바꾸어진다고 위장할 때에는 그것은 성별이 아니고 신의 보통이 아닌 일들이 아니면 공허하고 불경스러운 마법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성별에 있어서 본질의 변화를 자주 위장하기 때문에)* 그것은 보통이 아닌 일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것은 '마법' 또는 '마술'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거기에서 그들은 사람의 시각이나 그 밖의 모든 감각의 증거에 모순이 된다 해도, 사람들로 하여금 본질의 변화를 믿도록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제사가 주의 만찬의 성례(聖禮)*(그것은 빵과 포도주를 일반적인 사용 방법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즉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그의 육체를 부수어 피를 흘린 그리스도의 수난에 의한 죄의 구제를 나타내고, 다시 말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을 되새기게 하기 위한 분리인 것이다)*에 있어서 신에게 특별한 봉사를 위해 빵과 포도주를 성별하는 대신에 '이것은 나의 육체이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피이다'라고 하는 우리 구세주의 말씀을 함으로써, 빵의 본질은 이미 없어지고 그의 육체 그 자체가 된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은 그것을 받는 시각이나 그 밖의 감각에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마법의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고, 그리고 물을 피로 바꾸었다고 하는 이집트의 마술사는 사물을 거짓되게 보임으로써 관찰자의 감각을 속인 것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술사라고 생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의 지팡이가 뱀으로 보이지 않고, 마술이 걸린 물이 피 또는 물 이외의 다

른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면, 이것은 지팡이 같이 보이는 뱀이다, 이것은 물과 같이 보이는 피이다라고 그는 국왕을 무섭게 으르렀을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마법임과 아울러 거짓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제사는 일상의 행위에 있어서 신성한 말을 마법의 주문, 그것은 감각에 대하여 어떠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지 않지만, 그것으로 바꾸어 꼭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빵을 사람으로, 아니 그보다도 더욱 신으로 바꾸었다고 무섭게 으르고 그것이 현존하는 신과 사람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의 구세주인 것처럼 예배하기를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그것으로써 가장 바보스러운 우상 숭배를 저지르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이제 빵이 아니고 신이라고 말한다면, 우상 숭배의 구실이 충분하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집트 사람들이 예배하는 부추나 양파는 부추나 양파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들의 씨(種)나 또는 그것과 비슷한 것 속에 있는 신성(神性)이었다고 뻔뻔스럽게 말하는 경우에 그들은 그와 같은 구실을 사용해서 안 된다는 이유가 어디 있을 것인가? '이것은 나의 육체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나의 육체를 나타내고, 나의 육체를 뜻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것은 말의 평범한 비유이다. 그러나 글자의 뜻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오용이며 또 그와 같이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스스로가 그의 손으로써 성별한 빵이라는 것 이상으로 그것을 확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어떠한 제사라 하더라도 '이것은 나의 육체이다' 또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육체이다'라고 하여 어떠한 빵에 관하여 같은 것을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곧바로 성변화(聖變化)된다(transubstantiated)고 그는 결코 말하고 있지 않다. 로마 교회는 인노센트 3세의 시대까지는 아직도 이 화체설(化體說, transubstantiation)을 확립하지 않았다. 그것은 500년 이전의 앞의 일이 아니라 그때 법황의 권력은 최고조에 있었고, 그리고 그 시대의 암흑은 아주 넓게 커져서 사람들은 먹기 위해 주어졌던 빵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였다. 특히 그 빵은 그리스도의 육체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나무까지 화체되었다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려는 것과 같이, 거기에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의 조상(彫像)이 각인되어 있을 때에는 더욱 그러하며 사람들은 성례에서 그 두 가지를 아울러 먹었다.

세례의 의식에 있어서의 주문(況文) 성별(聖別)의 대신에 그와 비슷한 주문이 또한 세례의 의식에 있어서 사용되고 있다. 거기에서는 각자의 이름 사이에 십자가의 기적을 가지고 삼위일체의 전체 속에서도 또 몇몇 사람의 각자에 있어서도 신의 이름을 악용하여 마력을 만들어 내고 있다. 처음으로 그들이 성수(聖水)를 만들 때 제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즉 '나는 물의 피조물인 너에게, 전능의 아버지인 신의 이름에 있어서, 그리고 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어서 그리고, 또 성령의 힘에 의하여 명령하는 너는 마법의 물이 되어, 모든 적의 권력을 내쫓고, 그리고 적을 근절하고 그것을 대신하라 등등', 또한 그와 같이 그것과 섞어야 할 소금〔鹽〕의 성별식에 있어서는 '너는 마법의 소금이 되라. 모든 유령, 그리고 악귀의 간계는 너의 뿌려진 곳으로부터 날아가 버리고 떠나도록 하라. 그리고 모든 더럽혀진 영은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재판하기 위하여 오는 자에 의하여 마법이 걸려야 할 것이다. 또 같이, 기름을 사용하는 성별식에 있어서는 모든 악마의 힘, 모든 악귀의 큰 무리, 모든 사탄의 습격과 유령은 이 기름의 아들에 의하여 추방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는 유아(幼兒)에 대하여 많은 주문이 그에게 걸리게 된다. 첫째로, 교회의 문 앞에서 제사는 아이들의 얼굴에 세 번 생기를 불어넣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가거라. 더럽혀진 영아, 위안의 주인 성령에게 자리를 양보하라.' 마치 모든 아이들이 제사에 의하여 생기가 불어넣어질 때까지는 악마에 의하여 사로잡혀 있는 것과 같다. 또 교회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까와 같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너에게 명령한다 등등, 이 신의 종으로부터 나가 그리고 떠나라.' 그리고 또다시 같은 귀신 물리기〔exorcism〕는 그가 세례를 받기 전에 다시 한 번 되풀이된다. 위와 같은 그리고 어떤 다른 주문은 세례식의 성체식과 주의 만찬을 거행함에 있어서 축복과 성별 대신에 사용되는 것이다. 거기에서 이러한 신성을 위해 쓰이는 모든 것은 *(제사의 더럽혀진 침은 빼놓고)* 귀신 물리기의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

결혼식, 병문안 및 장소의 성별에 있어서 결혼식, 마지막의 기름 부음〔塗油〕, 병문안, 교회나 그 경내(境內)의 성별, 그리고 그와 같은 그 밖의 의식들도 마법에 걸리는 것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유령과 환상의 영들을 추방하는 데 있

어 효력이 있는 사물들과 같이 그들의 의식에 있어서 십자가나 다윗(David)의 신성한 말, 즉 '주여, 히솝풀로써 나에게 물을 뿌려 주소서(Asperges me, Domine, hyssopo)'[6]〔관수식(灌水式)의 성가〕의 오용으로서 마법이 걸린 기름과 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원의 삶 및 영겁(永劫)의 죽음의 오해에서 오는 오류 또 다른 일반적인 오류는 '영원의 삶, 영겁의 죽음' 그리고 제2의 죽음이라는 말의 오해에서 온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꾸밈없이 읽는다면 다음과 같다. 신은 조건부, 다시 말하면 아담이 그의 명령을 어기지 않는다면 영원한 삶의 상태에 그를 창조한다는 것,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없어서는 아니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나무, 즉 그가 죄를 짓지 않는 한 그는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가졌다는 그 나무에 의해 결과했다는 것, 그리고 그가 죄를 지은 후에는 그는 그 열매를 먹지 않도록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없도록 낙원으로부터 쫓겨났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수난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의 면제이며, 그것에 따라 모든 신앙이 깊은 사람들에 대하여 그리고 그들에게만 영원의 삶이 되살아난다는 것 등 그와 같은 것은 명백하게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교의는, 오늘날에는 그리고 오랫동안 다른 것이 되어 버렸다. 특히 모든 사람은 그의 혼이 죽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부터 영원의 삶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기 때문에 낙원의 입구에서 타오르는 칼은 생명의 나무에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것을 방해하지만, 사람이 그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신은 그들로부터 빼앗은 불사성을 방해하는 일도 없으며, 또 사람이 그 불사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희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된다. 결과적으로 성실하고 올바른 사람뿐만 아니라 사악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어떠한 죽음도 없이 영원한 삶을 즐겨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의 그리고 영겁의 죽음도 없이 영원한 삶을 즐기는 것이 된다. 이 의문을 눈가림하기 위하여 '둘째'의 그리고 '영겁의'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고뇌 속의 둘째의 그리고 영겁의 삶을 뜻하는 것이며, 이러한 그 경우 이외에는 결코 사용되지 않는 상징이다.

6 〈시편〉 51장 7절.

이 교의의 모든 것은《신약 성경》의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부분 중의 몇 부분에만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성경》의 전체의 의도를 조심스럽게 생각하면 서로 다른 뜻이라는 것이 충분히 밝혀지고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거기에는 그의 시체 밖에는 남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하여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신은 그의 말에 의하여 생명이 없는 먼지와 흙을 되살리고, 그리고 또 다른 말에 의하여 손쉽게 시체를 되살려 그로 하여금 영원하게 계속 살아남게 하거나 또는 그로 하여금 또다시 죽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인가?《성경》에 있어서 '영혼'이라는 것은 언제나 생명이나 또 생명 있는 피조물을 나타내며, 또 육체와 영혼을 합하여 말할 때는 '살아 있는 육체'를 나타내고 있다. 천지 창조의 5일째에 신은 말하기를, '물은 그 속에 살아 있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기어가는 사물(reptile animae viventis)을 만들어 내라'라고 했다. 그것을 영어로는 '생명을 가진 것(생물)'이라고 옮기고 있다.[7] 그리고 또 신은 굉장히 큰 물고기와, 영어로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omnem animam viventem)'을 창조했다.[8] 그리고 그와 같이 신은 대지(大地)의 먼지로 사람을 만들어 그의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어 그리고, 즉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factus est homo in animam viventem)',[9] 또 노아가 방주(方舟)에서 나온 후에, 신은 이제, 즉 '모든 생물(omnem animam viventem)'을 쳐부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10] 그리고 신은 〈신명기〉 12장 23절에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영혼, Souls)'인즉, 즉 '영혼(생명, the Life)'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와 같은 부분에서 만일 '영혼'이 육체와 분리된 존재를 가지는 '무형의 실체(incorporeal substance)'를 뜻한다면, 인간과 같은 어떤 다른 살아 있는 피조물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앙심이 깊은 사람의 영혼은 그들 스스로 본래 부터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신의 특별한 은총에 의하여 부활로부터 모든 영원으로까지 그들의 육체

7 〈창세기〉 1장 20~25절.
8 〈창세기〉 13장 21절.
9 〈창세기〉 2장 7절.
10 〈창세기〉 8장 21절.

에 머물러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미 38장에서 《성경》으로부터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사람은 육체와 영혼을 지옥의 불 속에 던진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것은 육체와 생명, 다시 말하면 살아 있으면서 초열지옥(焦熱地獄, Gehenna)의 영원의 불 속에 던진다는 것이다.

연옥의 교의, 그리고 귀신 물리기 그리고 또 성인의 기원으로서 이러한 창(窓)이야말로 다음과 같은 음험(陰險)한 교의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첫째로, 영원한 고뇌, 그리고 그 뒤에는 연옥의 교의이며, 그 결과로서 사자(死者)의 유령, 특히 성별된, 쓸쓸하고 또 음울한 곳에서 거닐며 방황하는 음험한 교의인 것이다. 그것에 의하여 죽은 사람을 위한 기원이나 귀신 물리기나 유령에 거는 마법에 대한 구실이 생긴다. 또 속량(贖良)의 교의, 다시 말하면, 이러한 무형의 실체가 거기에서 깨끗해져 천국에 알맞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불태워진다고 하는 연옥의 불로부터 일시적인 또는 영원한 면제라는 교의도 나타난다. 우리 구세주 시대의 이전에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리스의 악마학의 전염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지니게 된다. 즉 인간의 영혼은 그들의 육체와는 구별되는 실체이며, 그러기 때문에 그 육체가 죽을 때는 각 사람의 영혼은 믿는 마음이 깊은 사람이든 또는 사악한 사람이든 그들 자신의 본성에 따라서 어딘가에서 생활해 가야만 하고, 그 속에서 신의 어떠한 초자연적인 선물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교회의 박사들도 오랫동안 부활에 있어서 그들의 육체와 다시 결합할 때까지 영혼은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가의 의문을 품었다. 그리고 당분간 그들은 영혼은 제단(祭壇) 밑에 누워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후에, 로마의 교회는 이 연옥의 장소를 만드는 것이 더욱 이득이 된다고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 연옥의 장소는 근래에 와서 파괴되고 말았다.

앞에서 말한 교의들을 위해 내세워진 본문들에 대해서는 이미 전에 대답했다 내가 여기에서 언급한 그러한 세 가지의 일반적인 오류를 더욱 확인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성경의 본문에 관하여 깊이 생각해 보기로 하자. 추기경 벨라르미노 추기경은 법황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현재의 신의 왕국을 위해 내세웠던 본문들*(그것들보다 더 앞서 훌륭한 증명을 보인 것은 없다)*에 대해서는 나는 이미 그들에게 대답했었다. 그리고 모세에 의하여 설립된 신의 왕국은 사울을 뽑음으로써 끝나고, 그 시

기 이후, 제사는 자기의 권위에 의하여 결코 어떠한 왕을 폐지한 일은 없었다는 것을 증명했었다. 제사장이 아달랴에게 한 것은 그의 스스로의 권리에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아들인 젊은 왕 요아스의 권리에 있어서 한 것이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자신의 권리에 있어서 제사장 아비아달을 폐위하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앉게 했다. 그리스도에 의한 신의 왕국이 이 미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내세워진 것 중에서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곳은 벨라르미노나 로마 교회의 어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베자(Theodorus Beza)에 의하여, 즉 그리스도에 의한 신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부활부터 시작한다는 것에 따라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 그가 장로에게 제네바의 코먼웰스에 있어서의 최고의 교회 권력을 주고 *(따라서 모든 다른 코먼웰스에 있어서의 모든 장로들에게도)* 또는 군주 그리고 그 밖의 정치적 주권자(Civill Soveraigns)에게 주려고 하는 것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장로는 그들 자신의 왕을 파문하는 권력을 감히 요구하고 또 그들이 교회 통치의 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법황이 보편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과 같이 종교에 있어서의 최고의 조정자가 되는 권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자가 그리스도의 왕국은 부활에서 시작했다고 추론한 것에 관한 성경 본문에 대한 답변 그 말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11] 이 말은 문법적으로 다루어 보면, 그때에 그리스도의 옆에서 있던 사람들 중의 약간은 아직도 생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신의 왕국이 지금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다 어려운 또 다른 부분이 있다. 즉 우리의 구세주의 부활 이후에 그리고 그의 승천의 제전에 사도들이 우리의 구세주에게 물으며 말한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12] 그는 그들에게 대답하여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11 〈마가복음〉 9장 1절.
12 〈사도행전〉 1장 6절.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과 같다. 즉 나의 왕국은 아직 오지 않았고, 또 그것이 언제 올 것인가는 여러분에게는 미리 알릴 수 없는 것으로서, 그것은 밤중에 도적처럼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 성령을 보낼 것이며,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나의 부활에 대하여 또 내가 한 일, 내가 가르친 교의를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믿고 나의 재래의 때에 영원의 삶을 기대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설교하는 것으로서)* 모든 세계에 증명하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일은 부활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왕국이 오고 있다는 것에 어떻게 일치하는 것인가? 또 성 바울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면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13]라고 말하는 경우, 신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가 권력을 가진 왕이 되어 오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이지만, 만일 그의 왕국이 그때 현존하고 있었더라면 그것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베자가 그 부분 〈마가복음〉 9장 1절에 관하여 말한 바와 같이)* 신의 왕국이 부활에서 시작했었다면, 그리스도 교도들에게 부활 이후 계속 그들의 기도 속에서 '너희 나라가 오도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 그러기 때문에 성 마가의 말은 그와 같이 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여기에서 있는 사람들 중의 약간은 신의 나라가 권력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때까지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우리의 구세주는 말하고 있다)*. 만일 그때 이 왕국이 그리스도의 부활 때 와 있었다면, 왜 모두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들 중의 약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가 소생한 후까지 살아 있었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9장에 있어서 그 본문 부분의 설명 그러나 이 성경의 본문의 정확한 해석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우리의 구세주가 성 요한에 관하여 성 베드로에게 한 것과 같은 말, 즉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13 〈데살로니가전서〉 1장 9~10절

[14]를 먼저 해석하도록 해 보자. 이 말은 그(요한)가 죽지 않는다라는 소문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문의 진실성은 그들 말의 근거가 확인되지도 않았고, 또한 그 말의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고 논박되지도 않았고, 다만 이해되지 않은 말로서 남아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어려움은 성 마가의 본문 부분에도 또한 있다. 그리고 만일 이 부분 그리고 성 누가(Luke)에 있어서 같은 것이 또 다시 되풀이되고 있는 부분의 두 부분이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의하여 그들의 뜻을 추측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하면, 그것들이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구절에 쓰여 있는 그리스도의 변형(transfiguration)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있음직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15] 그러므로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니 그리스도가 또 올 때와 같이 영광과 위엄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 구세주의 약속은 선견(先見, vision)에 의하여 이룩되었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 즉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이야기[16]를 말하며 베드로와 그와 같이 있었던 그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그러한 선견이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은 〈마태복음〉 17장 9절*(거기에서도 같은 것이 또다시 관련되어 있다)*에서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우리의 구세주는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어떻게 추론하더라도 위의 것으로부터는 신의 왕국이 심판의 날까지에는 시작한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이끌어 낼 수 없다.

법황의 권력의 옹호에 있어서 다른 약간의 성경 본문의 악용 법황의 권력이 정치적 주권의 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른 약간의 성경 본문*(벨라르미노의*

14 〈요한복음〉 21장 22절.
15 〈마태복음〉 17장 1~3절.
16 〈누가복음〉 9장 32절

*구절 이외에)*이 있다. 즉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이 그들 간에 가지고 있던 두 자루의 칼에는 정신적인 칼과 세속적인 칼이 있고 그것들은 성 베드로가 그리스도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두 개의 빛 중에서 보다 강한 빛을 비치는 것은 법황을 뜻하고 약한 빛을 비치는 것은 국왕이라고 말하는 것이 곧 그것이다. 여기에 관해서 사람들은《성경》의 첫 구절부터 하늘은 법황을 뜻하고 땅은 국왕을 뜻한다고 추론해도 좋다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성경》에서부터 나오는 논의가 아니라, 국왕에 대한 부질없는 모욕이다. 그것은 법황이 모든 그리스도교의 국왕을 경멸할 정도로 그들의 큰 힘의 보존을 위해 커진 후에 나타나게 된 모습이다. 또 〈시편〉 91장 13절의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라는 말에서 황제들의 목을 짓누르며 그들과《성경》을 조롱하려는 것이다.

성경 속에서의 성별의 방법에는 귀신 물리기는 없었다 성별(聖別)의 여러 의식은 대부분 교회 통치자들의 재량과 판단에 따르는 것이지《성경》에 근거를 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회 통치자들은 의식, 말, 몸짓은 품위 있고 뜻을 지녀야 하고, 또는 적어도 그 의식에 알맞은 그러한 행동 방침에 따르도록 의무가 지워져 있다. 모세가 그들에게 속하는 막사의 신전(神殿), 제단, 제기(祭器)를 성별할 때, 그는 신이 그 목적을 위하여 만들도록 명령한 기름 부음을 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성스러워졌다.[17] 그러나 그때 유령을 내쫓기 위한 귀신 물리기는 없었다. 그와 꼭 같은 모세*(이스라엘의 시민적 주권자였던)*가 아론*(제사장인)*과 그의 아들들을 성별할 때, 물*(귀신 물리기를 한 물이 아님)*로써 그들을 씻고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름 부음을 했다. 그들은 이 제사의 직무에 올라 신에게 봉사하도록 성스러워졌다. 위에서 말한 것은 모세가 그들의 신의 종이 되도록 신에게 바쳐지기 전에 행해진 단순하고 품위 있게, 깨끗하고 그리고 꾸미는 것이었다. 솔로몬 왕*(이스라엘의 시민적 주권자)*이 그가 세운 신전을 성별할 때 그는 이스라엘의 회중(會衆) 앞에 서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고 난 후, 신에게 그것을 세우도록

17 〈출애굽기〉 40장 9절.

자기의 아버지에게 마음을 넣어 주고 또 신이 그것을 완성하도록 자기에게 은총을 준 것을 신에게 감사하고,[18]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 먼저 이 신전은 신의 무한한 위대함에 알맞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받아들여 주기를 기도했고 또 그곳에서 또는 *(만일에 그들이 거기에 없다면)* 그쪽을 향하여 기도를 하는 그들의 종들의 기도를 들어 주도록 기도했다. 그리고 끝으로 그는 신에게 바치는 감사의 희생을 갖추어 그것으로써 그 신전이 바쳐졌다. 거기에는 어떠한 행렬 성가(行列聖歌)도 없었다. 국왕은 그가 처음 섰던 곳에 그대로 서 있었고, 귀신 물리기 한 물도 없었고 '나에게 성수를 뿌려 주소서〔Asperges me〕'도 없었고, 다른 기회에 말했던 말들을 적절하지 않게 쓰는 일도 없었다. 그 대신 품위 있고 도리에 맞는 말과 새롭게 세워진 신전을 신에게 바치는 데 있어 그 경우에 가장 알맞은 것들만이 있었다.

우리가 읽는 바로는 성 요한이 요르단의 물을 귀신 물리기 한 것이나 빌립이 그 환관(宦官)을 세례한 하천의 물을 귀신 물리기 한 것이라고도 쓰여 있지 않다. 또 사도의 시대의 어떠한 제사도 그의 침을 빼내, 그것을 세례받으려는 사람들의 코 위에 놓고, 그리고 '신에게 바치는 감미로운 향기를 위하여〔In odorem suavitatis〕'라고 말하지 않았다. 거기에 있어서 침의 의식[19]은 불결하기 때문에 그러한 《성경》의 적용은 경솔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권위에 의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었다.

인간의 혼의 불멸(不滅)은 성경에 있어서 자연의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은총에 의하는 것이다 육체로부터 분리된 혼이 영원히 산다는 것을 뽑힌 자의 혼이 특별한 은총에 의하여, 즉 아담이 죄 때문에 잃어버렸지만, 우리의 구세주는 자기 스스로의 희생으로써 믿음 있는 자에게 돌려 준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의하여 그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이 저버린 자의 혼도 인류의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준 은총 이외의 특별한 신의 은총은 없다 하더라도 인간 본질의 당연한 귀결로써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한 〔성경의〕 부분은 처음 보기에는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만족스럽게 보탬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들은 내가 앞*(38장)*에서 〈욥기〉

18 〈열왕기상〉 8장.
19 〈마가복음〉 7장 33절.

의 14장에서 내세운 것과 비교하는 경우에는, 그것들은 나에게는 욥의 말보다도 여러 가지의 풀이를 보다 많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솔로몬의 말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20] 이 말은 *(거기에 직접적으로 반대되는 성경의 본문이 별도로 없다면)*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의 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신만이 안다*(사람은 모른다)*는 풀이를 충분히 잘 버티어 나갈 것이다. 솔로몬은 또한 같은 편(篇)에서 나의 풀이와 같은 뜻으로 그 구절을 말하고 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21] 즉 그것은 신 이외의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것으로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신만이 아는 것(what)이나 신만이 알고 있는 곳(where)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구절은 아니다. 〈창세기〉 5장 24절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가 그러했으며,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해설하고 있다. 즉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것은 혼의 불멸과 같이 육체의 불멸도 지지하여 이 〔에녹의〕 옮겨짐은 신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에게 특유한 것으로서 사악한 사람들에게 통상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은총에 따르는 것이지, 자연에 따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솔로몬의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들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의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22]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의 풀이 이외에 다시 우리에게 어떠한 풀이를 줄 것인가. 문자 그대로 풀이한다면, 여기에는 혼의 자연적 불멸은 전혀 없고, 더욱이 뽑힌 사람이 은총에 의하여 영원의 생명을 즐기는 것은 조금도 모순되지 않는다. 또 '이 둘보다도 출생하지 아

20 〈전도서〉 12장 7절.
21 〈전도서〉 3장 20~21절.
22 〈전도서〉 3장 19절.

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하였노라'[23]고 하는 것은 만일 이제까지 살아 온 모든 사람들의 혼이 불멸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경우에는 불멸의 혼을 가진다는 것은 전적으로 혼을 가지지 않는 것보다도 나쁜 일이 되기 때문이다. 또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24] 즉 본래 또는 육체의 부활 전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혼의 자연적인 불멸을 유리하게 풀이하는 부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이 살아 있다고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것은 신의 약속, 그들이 부활한다는 확신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아담이 금단(禁斷)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에 그는 확실히 죽는다라고 신이 아담에게 말한 것과 같은 뜻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아담은 그때 이후, 선고에 의하여 죽은 자였으나 거의 천년 이후가 될 때까지에는 처형에 의한 죽은 자는 아니었다. 그와 같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때, 즉 그리스도가 말했을 때는 약속에 의하여 살고 있었던 것이지, 부활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적으로 살아 있지는 않는다. 또 디베스(Dives)와 나사로(Lazarus)의 역사[25]는 우리가 *(그대로)* 만일 이야기 그대로 생각한다면 위에서 말한 것에 결코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불멸의 사악한 사람에게도 직접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그들은 부활하리라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밖에 사람들은 '영구의 불, 영구의 고문, 영구의 죄, 양심의 가책은 결코 죽지 않으리라'라고 많은 부분에서 말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이러한 것은 '영구의 죽음'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고, 이 말은 통상적으로 '고통 속의 영구의 삶'이라고 풀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영구한 고문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자비의 아버지이며 하늘의 위나 땅 위에서도 그가 뜻하는 대로 모든 것

23 〈전도서〉 4장 3절.
24 〈전도서〉 9장 5절.
25 〈누가복음〉 16장 19~31절.

을 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그의 마음대로 움직이고 사람들이 하기를 원하고 뜻하는 것에도 작용하는 신, 즉 그의 무상의 선물 없이는 사람들은 선(善)으로 향하는 것도 또한 악(惡)에 대한 후회도 없는 그러한 신이 인간의 침해에 대하여 어떤 시간의 종말도 없이 벌을 주고 또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고문으로 벌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영구의 불'이라든가 또는 그 밖의 비슷한《성경》의 구절에 대하여 어떠한 뜻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나는 이미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 바 있다. 즉 그리스도에 의한 신의 왕국은 심판의 날에 시작한다는 것, 믿음이 깊은 사람은 그날에 영광스러운 영적인 육체를 가지고 또다시 부활하며 영원해야 할 그의 왕국에서 그의 신민이 된다는 것, 사람들은 그 자연적인 육체 속에서 한 것과 같이 장가가거나 또는 시집가거나 먹거나 마시거나 하는 일 없이 생식에 의한 종자(種子)의 영원성 없이, 그들의 개인적인 인격 속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 또 버림받은 사람들도 그들의 죄에 대한 벌을 받기 위하여 또다시 부활한다는 것, 또한 뽑힌 사람들도 그날에 땅 위의 육체로서 재생하여 그들의 육체에 급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 영적이고 불멸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 등이다. 그러나 사탄(악마)의 왕국을 만드는 신에게 버림받은 사람의 육체가 영광스러운 영적인 육체가 된다는 것, 또는 그들은 신의 천사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생식(生殖)도 하지 않는다는 것, 또는 그들의 생명은 모든 믿음이 깊은 사람의 생명이 그러한 것과 같이 또는 아담이 만일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그러했던 것과 같이 그들의 개개의 인격에 있어서 영원했을 것이라는 것과 같이《성경》의 어느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을 증명할 수 없다. 다만 영원의 고문에 관한 부분이 있을 뿐이고 그것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것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뽑힌 사람들은 부활 후에는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에로 되돌아가는 것과 같이 신에게 버림받은 사람은 아담과 그의 자손들이 죄를 지은 이후에 있었던 상태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은 아담과 그리고 그를 믿고 후회하여 속신(贖身)하는 그의 자손에게 속죄하는 사람들을 약속하고, 신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이 죄를 안 채

로 죽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이다.

영원한 고문이란 무엇인가 '영원의 불', '영원의 고문', 또는 '결코 견디어 내지 못하는 벌레'에 관하여 말한 성경의 본문은 죽음이라고 하는 말의 정당하고 자연적인 뜻에 있어서, 제2의 영구의 죽음이라는 교의(敎義)와는 모순되지 않는다. '게헨나', '힌놈', '도벳(Tophet)'[26] 또는 그곳이 어디이든, 사악한 사람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불이나 또는 고문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나 또는 어떤 사람이 영원하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문을 받게 되는 사악한 사람들도 결코 견디어 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악한 사람은 아담의 원죄 이후에 있었던 그 상태에 남겨져, 부활을 맞이하고도, 이전에 한 이것과 같이, 결혼하고 또 모든 인류가 오늘날 그러한 것같이 더럽혀지고, 부패하기 쉬운 육체를 가질 것이므로 따라서 부활 후에 온 그들이 이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영구히 생식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것에 반대되는 것은 《성경》의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다. 즉 성 바울은 부활에 관해 말하고 있으나 *(〈고린도전서〉 15장)* 그는 그것을 벌을 받기 위한 부활이 아니라 영원의 생명으로의 부활이라고만 풀이하고 있다. 영원의 생명으로의 부활에 대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 육체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심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27] 벌을 받기 위하여 다시 일어나는 자의 육체에 관하여 그와 같은 것을 말할 수는 없다. 또한 우리의 구세주도 부활 이후의 인간의 본성에 관하여 말할 때 영원의 삶으로의 부활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며 벌을 받기 위한 부활에 관해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성경의 본문은 〈누가복음〉 20장 34~36절에 있고, 풍부한 내용의 본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제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26 〈열왕기하〉 23장 10절.

27 〈고린도전서〉 15장 42~44절.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아담이 남겨 놓은 그대로의 상태에 있는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는, 즉 타락하고 다음으로 생식을 이어 계속한다. 그것은 종속(種屬)의 불멸이지만, 인간의 인격의 불멸은 아닌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불순종으로서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기 위한 목적만을 위해, 아주 짧은 기간만을 그 세상에 들어가 같이 살며, 또 죽은 자들 속에서 절대적으로 부활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 없다. 뽑힌 사람들만이 부활의 아들들, 즉 영원의 삶의 유일한 상속인들인 것이다. 그들만이 그 이상 죽는 일이 없이, 신의 천사들과 같이 신의 아들들이며, 신에게 버림받은 자들은 그렇지 않다. 신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은 부활 이후에 '제2의'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남아 있다. 그 부활과 제2의 영원한 죽음 사이에는 벌과 고문의 때밖에는 없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인간이 번식에 의하여 존속하는 한, 죄 있는 사람들의 계승이 이어지는 것이며, 이것은 영원히 이어진다.

연옥을 주장하기 위하여 내세워진 성경 본문에 답한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연옥의 교의는 이 분리된 혼(魂)의 자연적인 영원의 교의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은총에 의한 영원의 삶만을 상정한다면 육체의 생명 이외에는 생명은 없고, 또 부활까지는 어떠한 불멸도 없기 때문이다. 벨라르미노 추기경에 의하여 《구약 성경》의 정전성서(正典聖書)에서 이끌어 내세워진 연옥에 관한 성경의 본문은 먼저*(〈사무엘하〉 1장 12절에서 말한)*에서 말한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다윗의 단식과 또 아브넬의 죽음을 위한 다윗의 단식이다.[28] 그(벨라르미노)가 말하기를 '다윗'의 단식은 그의 죽음 이후에 어떠한 신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의 아들의 회복을 얻기 위하여 단식한 후 그가 그의 아들의 죽음을 알자마자 식사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것으로 미루어 보아 혼은 육체와는 분리된 다른 존재를 가지며 그리고 이미 하늘이나 또는 지옥에 있는 혼을 위하여 인간이 단식을 해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늘에나 지옥에도 없는 죽은 사람의 혼이 있다는 것이 되며 그러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혼은 그것이 연옥이 틀

28 〈사무엘하〉 3장 35절.

림없는 제3의 장소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 그는 어렵게 억지 해석하여 이들의 장소를 연옥의 증거라고 왜곡하였다. 그러나 애도와 단식의 의식은 그의 삶이 애도하는 사람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하여 활용될 때에는, 그 죽은 사람의 인격의 명예를 위해 활용되는 것이며, 또 그의 삶이 애도하는 사람에 이득이 된 사람의 죽음을 위해 이루어질 때에는 그것은 그들의 특별한 손상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단식으로써 사울과 아브넬의 영광을 주어 그들 스스로의 아들의 죽음에 있어서 그들은 일상적인 식사를 받음으로써 스스로를 위안했다.

그〔벨라르미노〕가 《구약 성경》으로부터 이끌어 내세우고 있는 그 밖의 여러 부분에도 어떠한 증거가 되는 외관이나 색깔마저도 없다. 그들은 신부들이 설교에서만, 수사적으로 그것을 이미 믿게 되어 있는 연옥의 이론에 적용하고 있을 경우에 '분노' 또는 '불' 또는 '불태움' 또는 '씻어 줌' 또는 '청결하게 함'과 같은 말이 있는 모든 성경의 본문을 가져오는 것이다. 〈시편〉 38장 1절의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라고 하는 것은 만일 아우구스티누스가 '진노'를 연옥의 불에 적용하지 않고, '불쾌'를 연옥의 불에 적용하지 않았더라면 연옥에 어떤 관계가 있었던가? 또 〈시편〉 66장 12절의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 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라고 하는 본문이나 또 *(이 시대의 박사들이 자기들의 설교나 주석에 꾸미거나 과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의 목적을 위해 재치의 힘으로 억지로 이끌어 냈던, 다른 비슷한 여러 본문은 연옥에 대해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인가?

연옥을 주장하는 《신약 성경》의 여러 부분의 해답 그러나 그는 그렇게 손쉽게 해명할 수 없는 《신약 성경》의 다른 여러 부분을 내세워 주장한다. 먼저 〈마태복음〉 12장 32절의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가 그것이다. 여기에서 그는 연옥을 오는 세상이라고 하고 거기에서는 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용서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세 세상밖에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즉 하나는 창세로부터 노아의 홍수까지로서, 그것은 물에

의하여 파괴되어, 《성경》에서는 '구세계(舊世界)'라고 불리고 있다. 다른 것은 노아의 홍수로부터 심판의 날까지로서 그것은 '현세계'이며 불에 의해서 파괴할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심판의 날 이후 영원히 계속되는 것으로서 그것은 '오는 세계'라고 불린다. 그리고 거기에는 연옥 같은 것은 없다는 데에 모든 사람들에 의하여 동의받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는 세계와 연옥과는 모순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면 이들의 우리의 구세주의 말은 무슨 뜻인가? 나는 이들의 말을 지금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든 교의와 일치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성경》의 깊은 뜻은 인간의 불충분한 이해력에 의해서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다고 고백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성경》의 본문 자체가 시사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나는 그러한 것들을 보다 많이 배운 학식 있는 신학자들의 고찰을 믿을 것을 제안해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먼저 성령에 대해 항변하는 것은 그것이 삼위일체의 제3의 인격이기 때문에 성령이 살고 있는 교회에 대해 항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 그 스스로가 이 세상을 가르칠 때, 즉 이 세상에 있을 때, 그에게 행해진 박해를 참아 견디어 낸 그 안락과 그 이후의 목자들의 성령에서 나오는 그들의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준엄함과의 사이에서 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마치 그는 나의 권력을 부정하고, 그보다 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도 참회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면 나에 의해서 용서받게 되지만, 만일 이 이후 성령에 의하여 당신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의 권력을 부정한다면 그들은 당신을 냉혹하게 용서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당신을 박해하고 또 오는 세상의 벌*(죄를 범하고 있는 것과 같이)*을 면죄하지 않고 *(비록 당신이 나에게로 되돌아오고 그들 옆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대로 놓아 두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러한 말들은 그들이 그리스도 교회 속에 같이 있었던 시대에 관한 예언 또는 예보라고 생각될지도 모른다. 또는 만일 이 말이 그러한 뜻이 아니라면 *(왜냐하면 나는 그러한 곤란한 곳에서 강제적이어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도 부활 후에 죄인들의 참회를 위해 남겨 놓은 장소가 있을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또 거기에 동의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또 다른 장소가 있을 것이다. 즉 성 바울의 다음과 같은 말, 즉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뇨'[29]를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이 한 것과 같이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성 바울의 시대에는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이 믿을 능력이 없는 유아의 신앙의 보증인이나 책임자가 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구세주가 다시 올 때에는 즐거이 복종하고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같이 죽은 친구들의 인격을 보증하는 습관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는 세상에 있어서의 죄를 용서받는 데는 연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해석에는 많은 역설이 들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들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나 나는 이들 해석에 모순되는 명백한 부분이 있는지 혹은 없는지를 구명하기 위하여 《성경》에 철저하게 정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들 해석을 제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의 것에 관해서는 나를 납득시키기에 충분한 많은 것들을 명백히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 즉 여기 《성경》의 본문에도 그 밖의 부분에도 연옥이라는 말이나 연옥이라는 것도 없고, 육체가 없는 혼을 위하여, 즉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흘 동안 나사로의 혼을 위하여 또는 로마 교회가 오늘날 연옥 속에서 고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혼을 위한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는 것이다. 즉 한 주먹의 흙에게 생명을 줄 수 있었던 신은 아울러 죽은 자에게 또다시 생명을 주어 생명이 없는 썩은 시체를 영광스러운 영적인 불멸의 육체에게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밖에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람이 진실 위에 그루터기나 마른 풀 등등으로 세운다면 그 일은 멸망할 것이며,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30]라고 말한 부분이 있다. 이 불이 연옥의 불이라고 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은 내가 이미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스가랴〉 13장 9절의 '내가 그 삼분의 일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라고 스가랴가 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언급인 것이다. 이것은 힘과 영광을 가진 메시아의 도래에 관해서

29 〈고린도전서〉 15장 29절.
30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하고 있는 것으로서, 즉 심판의 날 또 이 세상의 대화재 때의 일이며, 그때 뽑힌 자는 소멸하지 않고 연단되며, 즉 그들의 잘못된 교의나 전통을 버리고, 말하자면 파기하고 그다음에 참다운 신의 이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이 사도 바울도 '예수는 그리스도이다'라는 이 바탕을 굳게 지키면서 그 위에 잘못된 다른 교의를 세우는 사람들에게 관하여 그들은 이 세상을 새롭게 다시 만드는 불 속에서 소멸하지 않고, 그 불 속을 지나 구원하러 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이전의 잘못을 알고 그것을 버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건축하는 사람은 목자들이며 그 바탕은 '예수는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이 된다. 그루터기나 마른 풀 등은 '무지나 또는 도덕적 취약에서 오는 잘못된 결과'이며, 금과 은과 보석은 그들의 '참다운 교의'이며, 연단하거나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그들의 잘못을 버린다'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것에서 형태가 없는 것, 즉 분리할 수 없는 혼을 태우기 위한 어떠한 색조(色調)도 전연 없는 것이다.

죽은 자를 위한 세례는 어떻게 이해되는가 셋째의 부분은 앞에서 말한 바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의 죽은 자를 위한 세례에 관한 문제가 있다. 거기에서 그〔벨라르미노〕는 먼저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것으로부터 연옥의 불이 있다는 것을 결론하는 것이지만, 어느 것이나 정당하지 않다. 세례라고 하는 말에 관한 여러 해석 중에서 그는 첫째로, 세례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참회의 세례를 뜻하는 것이며 사람들은 이러한 뜻으로 단식하고 기도하고 시주할 때 세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한 세례와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비유인 것이며, 그것에 관해서는《성경》속에서나 그 밖의 말의 사용에 있어서도 어떠한 실례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성경》과도 일치하지 않고 그 목적에도 적합하지 않는다. 세례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있었던 것과 같이 또 대부분의 사도가 그들에 대한 증언을 했기 때문에 한 것처럼 자기 스스로의 피에 적시는 것에 관해 쓰이고 있다.[31] 그러나 기도, 단식, 그리고 시주 등

31 〈마가복음〉 10장 38절, 〈누가복음〉 12장 50절.

이 적시기와 같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세례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 3장 11절*(그것은 어느 정도 연옥이라는 생각이 되고 있지만)*, 불로서 씻어 내는 것은 예언자 스가랴가 *(13장 9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그 삼분의 일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이라고 한 것과 같은 것은 명백하다. 또 스가랴 이후에도 성 베드로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함이라'[32] 했다. 또 성 바울도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33] 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성 베드로와 바울도 그리스도의 재래의 때의 불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며 예언자 스가랴는 심판의 날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이 부분은 그와 같이 해석되어야 하고 그리고 연옥의 불의 필요성은 전연 없는 것이다.

죽은 자를 위한 세례의 또 다른 해석은 내가 앞에서 말한 바 있는 것으로서 가능성이 있는 둘째 부분의 그(벨라르미노)가 좋아하여 택한 것이며 거기에서 또한 그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하는 사람의 효용(效用)을 추론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무것도 듣지 않고 또는 그를 믿지도 않고 있는데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받아들여지는 자가 있다면 그들의 죽음 이후, 그들이 다시 살아 날 때까지 친구들이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헛된 일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믿음이 깊은 사람의 기도에서 신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설교하는 것을 들은 일이 없고 따라서 그리스도를 거부하려고 해도 결과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개종할 수 있을 것이며 또 그러한 점에 있어서의 사람들의 자비로움을 비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연옥에 관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죽음으로부터 삶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과 연옥으로부터 삶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삶으로부터 삶으로, 즉 고난의 삶으로부터 즐거움의 삶으로의 다시

32 〈베드로전서〉 1장 7절.
33 〈고린도전서〉 3장 13절.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의 부분은 〈마태복음〉 5장 25~26절이다. '너를 송사(訟事)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私和)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 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 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비유담에서 송사를 당하는 사람은 '죄인'이고, 송사를 하는 사람과 재판관은 둘이 모두 신이다. 그 길은 이 '삶(세상)'이며 옥은 '무덤'이며 옥리는 '죽음'이다. 그 죽음으로부터 죄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또는 그리스도가 그 수난에 의하여, 즉 그 수난은 그 죄가 가볍든 무겁든 모든 종류의 죄에 대한 완전한 죄의 속죄로서 그러한 모든 범죄는 어떤 것이든 그리스도의 수난에 의하여 똑같이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수난에 의하여 그를 위해 갚지 않으면 영원의 삶으로 다시 살아날 수 없으며 두 번째의 죽음을 위해 다시 살아나는 것뿐이다.

다섯 번째의 부분은 〈마태복음〉 5장 22절이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Racha)(바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들 말에서 세 가지의 죄와 세 가지의 벌을 그는 추론하고 또 이들 죄 중에서 마지막의 것을 빼놓고는 지옥의 불, 게헨나의 불로써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이 죽음 이후에 그것보다 가벼운 죄의 벌은 연옥에서 이루어진다고 추론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추리는 이제까지 그것에 관하여 해 왔던 어떠한 해석의 비슷한 색조도 없다. 우리의 구세주의 시대에 유대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범죄에 관하여 듣고, 결정하기 위하여 재판관이나 회의 등의 구별이 있었던 것처럼 죽음 이후의 재판소에도 구별이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재판권을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에게 속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기 때문에 이 《성경》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것을 고립시켜 떼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과 뒤의 말들과 관련시켜 생각해야 한다. 우리의 구세주는 이 장(章)에 있어서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세의 율법을 유대 사람들은 입법자의 선고나 뜻에는 어긋나고 있지만, 율법의 율법적인 뜻

에만 위반하지 않으면, 모두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제6계명은 어기지 않았고 자기의 처가 아닌 부인과 자지만 않으면 제7계명은 어기지 않았다고 유대 사람들은 생각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의 구세주는 정당한 이유도 없이 형제들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노하는 것은 살인 행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말한다)*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살인하는 사람은 모두 재판관 앞에서' 또는 70인 법정 앞에서 '죄를 선고받게 된다'라고 모세의 율법은 당신들이 듣고 있는 그대로이지만, 그러나 나는 당신들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즉 이유도 없이 사람의 형제에게 대하여 진노하거나 또 'Racha' 또는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도 살인 행위로서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의 법정에서 지옥의 불로써 벌을 받게 되리라고 그리스도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34] 따라서 이들의 말은 여러 가지의 범죄와 여러 가지의 법정, 그리고 여러 가지의 형벌 간에는 여러 가지의 구별이 있다고 하는 것과 같이 구별하기 위하여 쓰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 사람들이 신에게 복종하는 데 있어서 의지의 서로 다른 것으로부터가 아니라 그들의 세속적인 법정의 서로 다른 것으로부터 구별해 온 죄와 죄 간의 구별을 비난하기 위하여 쓰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말들은 그의 형제를 해치기 위한 의지를 지녔던 사람, 비록 그 결과는 욕을 할 때만이 밖으로 나타나고 그렇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만, 심판의 날의 법정과 같은 재판관이나 법정에 의하여 지옥의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생각한다면 이 《성경》의 본문으로부터 연옥을 주장하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이끌어 내세울 수 있는가를 나는 상상할 수 없다.

여섯 번째의 부분은 〈누가복음〉 16장 9절이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것은 그가 세상을 죽어 떠난 성자들의 신의 도움을 비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뜻은 우리가 우리의 부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그럼으로써 그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그들의 기도를 바라야 한다는 것은

34 〈마태복음〉 5장 21~22절.

분명하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사람은 주 예수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일곱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42절이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따라서 이 삶(현세) 이후에 죄의 사면이 있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이 귀결은 옳지 않다. 우리의 구세주는 그때 그(예수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은 죄인의 한 사람)를 용서했다. 그리고 영광 속에서 그(예수)가 다시 올 때 그(예수)는 그를 생각하여 영원의 삶으로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이다.
여덟 번째는 〈사도행전〉 2장 24절인데 거기에서 성 베드로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여기에 관하여 그는 연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혼을 풀어 주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연옥에로의 내려가심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풀린 것은 그리스도이었으며 또 죽음이나 무덤에 묶일 수 없는 것도 그였으며, 또한 연옥 속의 혼도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만일 베자가 이 부분의 주석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잘 관찰하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속박'이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성경》의 본문 속에서 연옥을 찾아 내야 할 그 이상의 어떠한 이유도 없는 것이다.

제45장 악마학 및 그 밖의 이교도의 종교의 유물에 대하여

악마학의 근원 투명한 물체에 의하여 시각 기관(視覺器官)의 위에 이루어진 인상은 그것이 한 줄기의 직선이든 혹은 불투명체로부터 반사된, 또는 투명체를 통해 굴절된 많은 선이든 간에, 신이 이러한 기관을 붙여 준 살아 있는 피조물 속에서 그 인상의 근원이 되고 있는 대상의 영상(映像)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 영상이 '시각(視覺, sight)'이라고 불리는 것이며, 그것은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우리의 외부에 있는 물체 그 자체인 것같이 생각되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자기의 눈을 강하게 압박을 하면 그의 외부의 눈앞에 어떤 빛이 나타나, 그 빛은 자기 스스로 이외는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과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외에는 실제로는 그러한 것은 없고 다만 바깥쪽으로 퉁기는 저항에 의한 압박이라고 하는 그에게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내부 기관에 있어서의 운동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

다. 그리고 이 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운동이 그 압박을 불러일으킨 대상을 제거하고 난 후까지 계속될 때에는 우리는 그것을 상상력(想像力), 기억(記憶)이라 부르고 그 운동이 *(잠자고 있을 때 또는 때로는 병이나 흥분에 의하여 기관의 상태가 크게 벗어나 있을 때)* 이루어지면 그것을 꿈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여기에 관해서는 나는 이미 2장과 3장에서 간략하게 말했다.

시각의 이러한 본질은 자연의 지식을 가진 척한 고대 사람들에 의하여 발견되어 본 적이 없었다. 더욱 *(그 지식이 그러한 바와 같이)* 자기들의 현재의 유용성으로부터 그렇게 많이 동떨어져 있는 사물들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우리의 외부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사물이 아니라, 환상이나 관념 속의 이러한 상상(想像)을 마음속에 품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 곤란한 일이었다. 이러한 것들은 *(그것들이 어디에도 또는 어떻게 하여 그렇게 되는가를 사람들이 모르는 채 사라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무형의 것, 즉 비물질적(Immaterial)인 것, 또는 내용이 없는 형태이며, 색깔이나 모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색깔이나 모양을 가지는 형체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사람들이 바랄 때는 우리의 육안에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의 의상으로서)* 얄팍한 물체를 입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또 그 밖의 사람들은 그것을 물체이며, 살아 있는 피조물이며, 공기일 뿐이라든가 또는 더욱 미묘하고 얇은 물체, 즉 그것이 볼 수 있을 때에는 응결되어 있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두 가지는 모두가 일반적인 하나의 명칭 악마(demons)라는 점에서 의견을 모으고 있다. 그것은 마치 사람들이 꿈속에서 보는 죽음은 그들 스스로의 두뇌 속에 깃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이나 하늘이나 지옥 속에 머물러 있는 것 같으며 또 환각(phantasms)이 아니라 유령(ghosts)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마치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할 만큼의 이유를 붙이고 있는 것과 같다. 즉 그는 거울 속에서 자기의 유령을 보았다든가, 강 속에서 별의 유령을 보았다고 말하거나 또는 1피트 정도의 부피로 보이는 태양의 일상적인 해돋이를 모든 볼 수 있는 세계를 비치는 그 큰 태양의 악마 또는 유령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미지(未知)의 힘, 즉 자기들에게 착한 일이나 또 해로

운 일의 어느 것을 해낼 수 있는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 결과 이교(異敎)의 코먼웰스의 지배자들에게 공공의 평화와 신민들에게 필요한 복종을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위하여 악마학*(그것에 관해서는 시인들이 이교의 사제장으로서 특별히 쓰이고 있거나 또는 존경을 받고 있다)*을 확립함으로써 이 사람들의 공포를 통제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은 좋은 악마에게, 또 다른 사람은 나쁜 악마에게, 즉 앞의 것은 법률을 지키기 위한 박차로서 그리고 뒤의 것은 사람들이 법률을 침해하지 않도록 억누르기 위한 고삐로서 그 악마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고대인의 악마란 무엇이었는가 '악마'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들에게 어떠한 종류들이 있었는가는 일부에서는 그리스 사람들 중 가장 오래된 시인의 한 사람인 헤시오도스(Hesiod)가 쓴 그들의 신들의 계보 속에 나타나 있고, 또 다른 일부는 여러 가지의 이야깃거리 중에서, 즉 그중의 소수의 것에 관하여 나는 앞에서 이 논술의 12장에서 고찰한 것 속에 나타나 있다.

어떻게 하여 그 교의는 번져 갔는가 그리스 사람들은 그들의 식민과 정복 등에 의하여 그들의 말이나 저작들을 아시아, 이집트, 이탈리아 등에 전했다. 그때 필연적인 결과로서 그들의 '악마학' 또는 *(성 바울이 불렀던 것처럼)* 그들의 '귀신의 가르침'〔악마의 교의〕이라고 전해졌던 것이다.[35] 그리고 그러한 방법으로 〔악마학의〕 감화는 유대 사람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사람들, 그 밖의 그들이 흩어져 있던 곳의 사람들에게도 번져 나갔다.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졌던가 그러나 '악마'라는 이름을 그들은 *(그리스 사람들처럼)* 선과 악의 두 개의 영으로 돌리지는 않고 악의 영에게만 그러했던 것이다. 그리고 좋은 악마에 대해서는 그들은 신의 영의 이름을 주었고, 그리고 그것이 들어 있는 육체를 가진 사람들을 예언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요약하여, 그들은 모든 특이성을, 만일 그것이 좋은 것이라면 '신의 영'으로 돌리고, 만일 나쁜 것이라면 어떤 '악마'에게로, 그러나 κακοδάιμων, 나쁜 악마, 즉 '귀신'에

35 〈디모데전서〉 4장 1절.

게로 돌렸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미친 사람 또는 발광하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나 혹은 지랄병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 또는 이해력의 결여 때문에 불합리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을 '악마가 들된 사람' 또는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불렀다. 또한 소문날 정도로 깨끗하지 못한 사람에 관해서도 그들은, 저 사람은 깨끗하지 못한 영을 가졌다든가 또는 벙어리에 관해서는 벙어리의 귀신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이 일쑤였다. 또 '세례를 받은 요한'에 관해서도 그의 단식의 특이성 때문에 저 사람은 귀신에게 사로잡혔다고 말하고[36] 우리 구세주에 대해서도.

〈요한복음〉 8장 52절 그가 말한 것을 지킨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이라고 말했고 또한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37]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라고 답을 하고 있다. 이상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것이 분명해진다. 즉 유대 사람들은 환각에 관하여 〔그리스 사람들과〕 같은 의견, 즉 유령은 환각이 아니라는 것, 다시 말하면 두뇌의 우상(idols)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 환상으로부터 분리된 것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왜 우리의 구세주는 그것을 다스리지 않았던가 이 교의(敎義)가, 만일 그것이 참되지 않았더라면, 왜 우리의 구세주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지만 그것도 부인하고, 반대되는 일을 가르치지 않았는지? 그것뿐만 아니라, 왜 여러 가지의 경우에 그것을 확인한다고 생각되는 것과 같은 말의 형태를 쓰고 있는가? 이러한 것에 대하여 나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 즉 먼저 그리스도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38]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비록 그는 영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그것들이 육체가 아니라는 것을 부인하고 있다. 또 성 바울이 '심령한 몸으로 다시 사

36 〈마태복음〉 11장 18절.
37 〈요한복음〉 7장 19~20절.
38 〈누가복음〉 24장 39절.

나니'[39]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그는 영의 본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육체를 가진 영이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공기나 많은 그 밖의 것들은 살이나 뼈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또한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는 아니지만 물체이기는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구세주가 귀신에게 말하고 그리고 그에게 사람으로부터 떠나가라고 명령하고 있을 때, 그 귀신이 정신 이상이나 미친 짓과 같은 병이나 또 형태를 갖춘 영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 말은 정당한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별은 들을 수 있는 것인가? 이미 생명이 있고 동물적인 영이 가득 찬 살이나 뼈를 가진 육체 속에 형태를 갖춘 영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따라서 육체도 가지지 않고 단순한 상상력만도 아닌 영은 없는 것이 아닌가? 첫째의 물음에 대하여 나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 즉 우리의 구세주가 직접 말을 하고 명령하여 광기나 정신 이상을 치료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열병(熱病)이나 바람, 그리고 바다를 꾸짖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어느 것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이것은 빛이나 창공이나 태양이나 별들에 대하여 나타나라고 한 신의 명령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존재하기 이전에는 들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이야기가 부적당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신의 말의 힘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미친 짓이나 또는 정신 이상에 대하여 *(그것들은 그 당시 언제나와 같이 귀신이라는 호칭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사람의 육체로부터 떨어져 나가라고 명령하는 것은 또한 부적당한 것이 아니다. 둘째의 물음, 즉 영의 비육체적 상태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성경》속의 어떠한 부분에서도 아직 볼 수 없었다. 그러한 것들은《성경》속에서는 어떠한 사람이 일찍이 자신의 영 이외의 어떠한 다른 형태를 갖춘 영을 지니고 있고, 그럼으로써 그의 육체가 자연적으로 움직여졌다는 것들을 수집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성경은 영이 무형태적이라는 것을 가르치지는 않았다 우리의 구세주는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그에게 내려온 직후에 성 마태에 따르면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

39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40]라고 말하고 있다. 또 같은 것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41]라는 말로서 이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것으로부터 여기에서 말하는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뜻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이것을 홀림(possession)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성령이란 하나의 그리고 같은 신성(神性)에 지나지 않으며, 하나의 신성 또는 신체(神體)가 다른 것에 의하여 홀림을 당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에 이어지는 절(節)에서 그는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42]라고 말하고 있으나 거기에서 우리는 그가 귀신에게 홀림을 당했다든가 혹은 폭력에 의하여 거기에로 이끌려갔던 것이라고 결론해야 할 것인가? 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天下萬國)과 그 영광을 보여'[43]라고 말하고 있으나 우리는 예수가 귀신에게 홀림을 당했다든가 혹은 귀신에 의하여 강요당해 이끌려 갔다고 믿을 수는 없고 또 어떠한 산도 문자의 뜻대로 그가 전체 지구의 절반을 볼 수 있을 정도의 높이라고는 믿을 수 없다. 그렇다면 그는 스스로 광야에 갔던 것이며, 또 그는 광야에서 도시(都市)에로,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산으로 운반되었다는 것은 환상이다라는 것 이외에는 이 부분의 뜻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또 성 누가의 구절에서 그는 영에 '의해서(by the Spirit)'가 아니라, 영의 '속에서(in the Spirit)' 광야에로 이끌리시다[44]라는 것도 이것과 일치하고 있다.[45] 그와 반면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갔다든가 그리고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든가에 대해서는 그(누가)도 성 마태가 말하는 것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것은 환상의 본질에 적합

40 〈마태복음〉 4장 1절.
41 〈누가복음〉 4장 1절.
42 〈마태복음〉 4장 5절.
43 〈마태복음〉 4장 8절.
44 〈누가복음〉 4장 1절.
45 홉스는 라틴어 성경을 근거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KJV성경》에는 이 부분도 'by the Spirit'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불가타 성경》에는 'in Spirit', 즉 'in the Spirit'으로 되어있다.(나남, 2012. 354~355면 참고.)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성 누가가 이스가리옷의 유다에 관하여,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매'[46]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탄(敵人)이 유다에 들어간 것은 주를 팔아넘기는 〔유다의〕 적개심에 불타는 배반적인 의도를 뜻한다. 왜냐하면 성령이라고 할 때, 성령에 의하여 주어진 은총이나 착한 성향을 뜻하는 것이라고 가끔 《성경》 속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사탄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나 그의 제자들에게 대항하는 사악한 획책과 계획이라고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거기에서 유다가 그러한 적개심에 불타는 계획을 하기 전에 귀신이 유다 속으로 들어갔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유다는 먼저 그리스도에 대하여 적대적인 생각을 마음속에 가졌고 그다음에 귀신이 유다 속으로 들어갔다고 말하는 것도 적절하지 못하다. 그러기 때문에 사탄이 유다 속으로 들어간 것과 그의 사악한 목적은 하나이며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만일 비물질적인 영이라 하더라도, 또는 어떠한 형태적인 영이 사람의 육체에게 홀림을 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왜 우리의 구세주와 사도들은 그와 같이 또 그것들에 관하여 사람들이 의심을 갖지 않도록 명확한 말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던가 하고 다시 물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질문은 그리스도 교도의 구제를 위해 필요한 그 이상의 호기심에 의한 질문인 것이다. 사람은 왜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 믿는 마음, 그리고 모든 종류의 정신적인 덕(德)을 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만 주고 모든 사람에는 꾸지 않는가, 또 왜 그리스도는 자연적인 원인이나 과학을 탐구하는 것을 인간의 자연적인 이성과 근면에만 맡기고 그리고 그것을 초자연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혹은 어떤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인가, 그리고 그 밖의 그와 비슷한 질문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고 또 종교적인 이유를 내걸어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갔을 때, 신은 그 땅 안에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민족을 정복함으로써 그 안전을 보장하지 않고 때때로 그들의

46 〈누가복음〉 22장 3~4절.

경건함과 근면성을 일깨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민족을 남겨 놓은 것과 같이 우리의 구세주가 우리를 그의 하늘의 왕국으로 이끌어 감에 있어 그는 자연적인 문제에 관한 모든 어려움을 파괴하지 않고 그것들은 우리의 근면과 이성(理性)을 활용하도록 맡겨 놓았다. 그의 설교의 목적은 우리에게 구제에 이르는 이 평면적이고 직접적인 방법, 즉 '그는 살아있는 신의 아들, 그리스도이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스스로를 희생시키기 위하여 이리 세상에 보내진 것이며, 또 그의 재래를 당하여 광영(光榮)스럽게 그의 뽑힌 자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그들의 영원의 적으로부터 구제한다'라는 이 항목을 가리키는 것뿐이다. 여기에 대해 영이나 환각에 의하여 홀림을 당한다는 생각은 결코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가는 길을 벗어나 그들 스스로의 잘못된 발견을 따라야 하는 그러한 경우가 된다. 만일, 신의 명령을 완수하려고 할 때 우리를 난처하게 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것과 모든 질문에 관하여 우리가 《성경》에 설명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마치 대지와 바다와 사람과 짐승들의 창조에 관해서와 같이, 그러한 영의 창조의 때를 기록해 놓지 않았다는 것을 모세에게 불평을 해도 좋다는 것과 같다. 결론적으로 나는 《성경》 속에서 천사나 선악의 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암흑 속에서나 꿈속에서나, 환상 속에서 사람이 보는 환영(幻影), 즉 그것을 라틴 사람들은 '스펙트라(spectra)'라고 부르고 그리고 '악마〔demons〕'라고 생각했던 그 환영과 같이 무형태의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리고 나는 *(미묘하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형태가 있는 영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육체가 그것들에 의하여 홀림을 당했다든가 또는 머물러 살도록 했다는 것을 찾아 낼 수는 없다. 그리고 성도들의 신체는 성 바울이 부르는 것처럼 영적인 신체가 되리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귀신을 몰아 낼 수 있는 힘은 초기 교회에 있어서와 같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교의, 즉 무형태적인 영이 있을 수 있다는 교의가 이제까지 교회에서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귀신 물리기*(즉 말하자면 주문에 의하여 귀신을 쫓아 낸다는 것)*의 활용이 이루어질 정도였다. 그리고 *(비록 드물게 그리고 희미하게밖에는 실시되지 않았지만)* 아직도 완전하게는 그만둔 것은 아니었다. 초기의 교회에

있어서는 악마에 홀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미치광이나 그 밖의 그것과 비슷한 기묘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에 근래에는 미치광이가 많고 악마에게 홀린 사람들이 적다고 듣거나 또는 보거나 하지만 그것은 자연계의 변화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명칭이 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이제까지 사도들 그리고 그 후 한참 동안은 교회의 목사들이, 현재에는 그들이 그러한 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지만, 그 기묘한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쳤다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그와 똑같이, 왜 그때 믿음이 깊은 사람이 이룩한 모든 일, 즉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47]라고 말한 바와 같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모든 참다운 믿는 자에게 지금 없는 것인가. 그리고 모든 이러한 것들이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라고만 말하는 것도 또한 문제이다. 교회에게 이러한 이상한 재능이 주어졌다는 것은 사람들이 전면적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의 더없는 행복을 그의 왕국으로의 재래에서만 구하려고 했던 기간 동안뿐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권위와 재산을 쫓아 이 세상의 왕국을 위해 그들 스스로의 교활함을 신뢰했을 때, 이러한 초자연적인 신의 준 것〔선물〕이 또다시 그들로부터 없어졌던 것이다.

이교주의자(異敎主義者)의 또 다른 유물, 즉 상상(想像)의 숭배는 교회 속에 남겨진 것이지, 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니다 이방인들의 또 다른 유물은 '상상의 숭배'인데 그것은 구약 시대의 모세에 의해서나 또는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더욱이 이방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것도 아니며 그리스도에게 그들의〔우상의〕 명칭을 주어 버린 후에 그들 사이에 남겨진 것이었다. 우리의 구세주가 설교하기 이전에 사람들의 감각 기관 위에 외적인 물체가 각인(刻印)을 함으로써 생기게 된 뇌 속에 남는 환상을 신이라고 숭배하는 것이 이방인의 일반적인 종교였다. 그리고 그것들은 '관념〔ideas〕', '우상〔idols〕', '환각〔phantasms〕', '기상(奇想, conceits)'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으로서 이것들을 일으키게 하는 외적인 물체

47 〈마가복음〉 16장 17~18절.

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들 속에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치 꿈속에 사물들이 우리 앞에서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성 바울이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48]라고 말한 까닭인 것이다. 그는 금속이나 돌이나 나무로 된 상상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상상에 있어서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신을 위해서 가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꾸며 낸 일에 지나지 않으며 장소나 거주(居住)나 운동이나 존재도 없는 두뇌의 운동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신의 영광을 지니는 이러한 숭배는《성경》속에서는 우상 숭배(idolatry)라고 불리고 있는 것이며 신에 대한 반란인 것이다. 왜냐하면 신은 유대 사람들의 왕이며 그의 대리인은 처음에는 모세이고 그 후에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만일 백성들이 *(그들 스스로의 환상을 나타내는)* 상상을 숭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그들은 그 이상 어떠한 비슷한 것도 있을 수 없는 참다운 신에게도 또는 그의 첫째의 대리인 모세나 제사장에게도 의존하지 않게 되고, 모든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의 욕구에 따라서 스스로를 다스렸기 때문에 코먼웰스는 완전히 파괴되게 되고 그리고 통일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도 붕괴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의 첫째의 법은 '아리에노스 데오스(alienos deos)', 즉 '다른 민족의 신들을 신으로 생각해서는 아니되고 모세와 대화를 하도록 하여 그를 통해서 그들의 평화와 그들의 적으로부터의 구제를 위하여 그들에게 여러 법과 여러 지시를 준 참다운 신만을 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의 법은 '그들 스스로의 만들어 꾸며 낸 것으로써 숭배하기 위한 어떤 상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왕이 인접 민족에 의하여 설립된 것이든 혹은 우리 스스로에 의해 설립된 것이든 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한쪽의 왕을 폐위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상상을 지지하는 것같이 생각되는 어떠한 본문에 대한 대답 《성경》에서는 상상을 설정해 놓고 그것을 숭배하도록 하고, 또는 일단은 신이 숭배를 받고 있는 곳에서는 상상이 설정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묵인하는 것처럼 하는 부분들이 있다. 먼저

48 〈고린도전서〉 8장 4절.

두 가지의 예를 들면, 하나는 신의 방주(方舟) 위에 있는 그룹(케루빔),[49] 또 하나는 놋쇠 뱀이 그것이다. 둘째로, 우리가 신의 발판을 숭배하는 것과 같이 신과의 관계가 있는 어떤 피조물을 숭배하도록 명령을 하고 있는 몇몇 부분 등이다. 마지막으로 신성한 것을 종교적으로 영광되게 하는 것을 권위 있게 한 다른 본문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참뜻을 증명하기 위하여 검토하기 전에 먼저 '숭배한다'는 것에 의하여 무엇이 이해되어야 하며, 또 상상과 우상에 의하여 무엇이 이해되어야 하는가를 먼저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숭배란 무엇인가 나는 이미 이 논고의 20장에서 명예를 준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권력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며, 또 그와 같은 가치는 그것과 다른 사람의 그것과를 비교함으로써 헤아릴 수 있다라고 논한 바 있다. 그러나 권력에 있어서 신과 비교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보다도 작은 어떤 가치에 의하여 신에게 명예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치욕을 주는 것이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 명예를 준다는 것은 그 본질에 있어서 정당하게는 마음속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의 일이다. 그러나 그들의 말이나 행위에 있어서 밖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내적인 사고는 우리가 명예를 주고 있는 표지이며 그리고 이것들은 '숭배(worship)', 라틴 말로는 '쿨투스(cultus)'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으로서 맹세하고 복종하고 봉사에 있어서 근면하고 친절을 베푸는 것, 요약하면 감정을 해치는 것을 두려워하고, 즐겁게 하기를 바라는 말이나 행위는 성실한 것이든 혹은 꾸민 것이든 '숭배'가 된다. 그리고 그러한 말이나 행위는 명예를 주는 표지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으로 또한 '명예'라고 불린다.

신적인 숭배와 정치적 숭배와의 구별 우리가 인간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왕 그리고 권위를 가지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숭배는 정치적 숭배이다. 그러나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나타내는 숭배는 그 말이나 의식이나 몸가짐, 그 밖의 어떤 행위이든 '신적인 숭배'이다. 왕, 즉 인간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앞에서 자세를 낮추어 엎드리는 것은 정치적 숭배에 지나

49 〈출애굽기〉 25장 18~22절.

지 않는다. 그리고 교회를 신의 신전으로 생각하고 그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의 모자를 벗는 사람은 신의 숭배로서 숭배하는 것이다. 신적인 숭배와 정치적 숭배의 구별은 숭배자의 의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둘레이아(δουλεία, 신의 노예)'라는 말과 '라트레이아(λατρεία, 봉사)'라는 말에 있어서 그들 스스로〔구별하려는 그들〕를 속이고 있다. 왜냐하면 봉사자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 하나는 전쟁에서 사로잡힌 노예나 그들의 자손과 같이 전적으로 그 주인의 권력 밑에 있는 봉사자로서, 그의 육체는 *(그들의 생명은 조그마한 불복종 때문에도 잃게 될 정도로 그들의 주인의 뜻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의 지배 밑에 없는 자들과 가축과 같이 사고 팔 수가 있는 봉사자로서 그들은 '둘로이(δοῦλοι)'라고 불려 그것은 본래의 노예였으며, 그리고 그들의 봉사는 '둘레이아(δοῦλεία)'라고 불리었다. 또 하나의 종류는 *(그들의 주인으로부터 급료를 받거나 또는 이익을 얻을 것을 바라고)*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그들은 '테테스(θήτες)', 즉 집안의 봉사자라 불리고 주인은 그들의 봉사에 대하여 그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신약(新約) 속에 들어 있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그 이상의 권력을 가지지 않는다. 이들 두 종류의 봉사자는 그들의 노동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명령을 받는다는 것으로 두 경우에 많은 공통된 것이 있다. 그리고 '라테이스(λάτείς)'라는 말은 노예이든 자발적인 봉사자이든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뜻하는 두 경우에 공통되는 명칭인 것이다. 따라서 '라트레이아(λατρεία)'는 대부분의 경우, 모든 봉사를 뜻하지만 '둘레이아(δουλεία)'는 노예의 봉사뿐이며, 그리고 노예의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성경》 속에서는 *(우리의 신에의 봉사를 뜻하는 것으로서)* 무차별하게 쓰이고 있는 것이다. 즉 '둘레이아'는 우리가 신의 노예이기 때문에, '라트레이아'는 우리가 그에게 봉사하기 때문에 쓰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봉사에는 복종뿐만 아니라 숭배, 즉 명예〔존경〕를 뜻하는 것과 같은 행위, 몸짓, 그리고 말들이 들어 있다.

상상이란 무엇인가. 환각 상상이란 *(그 말의 가장 엄격한 뜻에 있어서)*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에 닮은 것으로서 그러한 뜻에 있어서 환각적인 형태, 유령 또는 시각에 보이는 물체와 같이 생각되는 것은 '상상〔images〕'에 지나지 않다. 그러한 것들

은 반사나 굴절에 의하여 물속에서 사람이나 또는 그 밖의 물건들이 보이는 것과 같은 것이며, 또는 태양이나 별을 직접적인 상상력에 의하여 공중에서 보이는 것이다. 즉 보인 것들 중에는 사실적인 실재는 아무것도 없고 그것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는 곳에도 사실적인 실재는 없고 또 그것들의 크기나 형태도 그 물체의 크기나 형태와는 같지 않으며 시각 기관의 변화나 안경에 의하여 변할 수 있으며, 또 그 물체가 없을 때에도 때때로 우리의 상상(想像)이나 꿈속에 모습을 나타내어 환상에만 의존하는 물건들과 같이 여러 가지의 색깔이나 모형으로 변해 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이 원래부터 그리고 가장 정당하게 '관념(ideas)', '우상(idols)'이라 불리는 상상인 것이며, 그것은 그리스 말의 '본다(see)'를 뜻하는 '에이도(Εἴδω)'라는 말로부터 이끌어진 것이다. 그것은 또한 '환각(phantasms)'이라 불리고, 그것은 같은 말에 있어서 '유령(apparition)'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상(想像)이란 인간 본성의 능력의 하나인 것이며 '상상력(magination)'이라고 불리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것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룩된 상상은 없고 또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또한 무한의 것으로부터 이룩된 어떠한 상상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의 인상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상상과 환각은 모두 모습이 있는 것이며, 그 모습은 모든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신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사람의 혼에 관해서도, 또 영에 관해서도 상상은 있을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체, 다시 말하면 그 스스로 빛을 지니거나 또는 그러한 것에 의해서 빛을 내고 있는 물체의 상상만이 존재할 수 없다.

가상(假想) 사람은 다른 여러 가지의 피조물의 여러 부분으로 하나의 모습을 만들어 내, 그가 본 일도 없는 형상을 생각할 수 있지만, 시인(詩人)이 이제까지 본 일도 없는 반인반마(伴人半馬)의 괴물, 키메라(Chimaera)의 괴물, 그리고 그 밖의 요괴를 만드는 것과 같이 그는 또 그들의 모습으로 재료를 줄 수 있으며, 그것들을 나무나 흙이나 금속으로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것이다.

물질적인 상상 그리고 이것들은 또 어떠한 형태적인 물체를 닮았다고 해서가 아니라 만드는 사람의 두뇌 속의 환상적인 거주자를 닮았기 때문에 상상이라고 불린

다. 그러나 이러한 우상 속에는 원래부터 두뇌 속에 있는 경우와 물질에 있어 채색되고 조각되고 본이 떠지고 주조(鑄造)되고 하는 경우로서 서로 유사성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체는 자연에 의하여 만들어진 환상적인 우상의 상상이라고 말해진다.

그러나 말의 보다 넓은 사용에 있어서 상상이란 또한 다른 것에 의하여 어떤 하나를 나타내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지상의 주권자는 신의 상상이라고 불릴 것이고 하급 위정자는 지상의 주권자의 상상이라고 불릴 수 있다. 이방인의 우상숭배에 있어서는 흔히 그들의 물질적인 우상과 그들의 환상 속의 우상과의 유사성에 관하여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의 것은 뒤의 것의 상상이라고 불리고 있었다. 조각되지 않은 돌이 바다의 신으로 세워졌고 그들의 신에 관하여 그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형상과는 크게 다른 여러 가지의 형상을 세웠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처녀 마리아나 그 밖의 다른 성자들이 서로 닮지 않고 어떠한 한 사람의 환상과도 상응하지 않는 많은 상상을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워진 목적을 위하여 충분히 보탬이 되고 있다. 그 목적은 역사 속에 언급되어 있는 여러 사람을 그들의 이름만으로서 나타내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 이름에 대하여 모든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생각나는 정신적인 상상을 맞추거나 혹은 아무것도 맞추지 않든가의 어느 하나에 지나지 않다. 그렇게 하여 상상이란 가장 넓은 뜻에 있어서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에 관하여 비슷하고 대표하는 것도, 또는 대부분의 경우가 그러한 것처럼, 비슷함과 아울러 대표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상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있어서는 더욱 넓게 쓰고 있다. 태양이나 별이나 그 밖의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눈에 보이든 혹은 안 보이든, 그것들이 신으로서 숭배를 받고 있을 때는 우상이라는 것은 그것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상 숭배란 무엇인가 '숭배'란 무엇인지 '상상'이란 무엇인지를 말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들을 합쳐 《성경》의 제2계명이나 그 밖의 항목에서 금하고 있는 우상 숭배를 이끌어 내 그것이 무엇인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나무, 들, 금속 또 그 밖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피조물이며, 그 상상의 재료가 또는 두뇌의 환각, 즉 그것과 비슷하거나 그것을 대표하기 위하

여 그 재료가 형성되고 모양을 이룩한 그 상상 중의 어느 하나를 또는 육체와 혼으로 짜여져 있는 것과 같이 재료와 환각으로 짜여져 있는 하나의 생물체와 같이 그 두 가지를 아울러 가짐으로써 명예를 주는 표지가 되는 외적인 행위를 의도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앞에서 또는 군주의 왕자 앞에서, 또는 그 밖에 그가 자리를 비우고 없을 동안에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그가 정해 놓은 곳에서 모자를 벗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나 군주를 정치적 숭배로써 숭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발판이나 장소를 존경하고 있다는 표지가 아니라 그 사람을 존경하고 있다는 표지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아닌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발판 속에 군주의 혼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청원(請願)을 발판에게 제출한다든가 하면 그것은 신적인 숭배이며 우상 숭배인 것이다.

왕이 우리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의 앞에서 스스로 엎드려도 그것은 정치적 숭배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에게는 인간적인 이외의 어떠한 힘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쾌청한 일기가 되도록 그에게 기도하거나 신만이 우리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그에게 기도하거나 하는 것은 신적인 숭배이며 우상 숭배이다. 또 다른 편으로 만일 왕이 죽음의 공포나 그 밖의 무거운 체형(體刑)에 의하여 사람에게 대한 숭배를 강요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다. 왜냐하면 주권자가 그의 여러 가지 법이라고 하는 공포를 가지고 그를 위하여 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숭배는, 그에게 복종하는 것이 그를 속으로 신으로서 명예롭게 하는 표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를 죽음으로부터 또는 비참한 삶으로부터 구제하고 싶다는 것을 빌고 있는 표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면적으로 명예롭게 하는 표지가 아닌 것은 숭배가 아니며 따라서 우상 숭배가 아니다. 또 그것을 하는 사람은 형제들을 더럽혀 욕되게 하는 것이라든가 또는 그들 앞에 장애가 되는 돌을 놓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방법으로 숭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현명하고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가 그것을 승인하고 있다고 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는 그것을 공포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그것은 그의 행위가 아니

라 그의 주권자의 행위인 것이다.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신을 숭배한다는 것 또는 사람의 얼굴을 상상이나 어떠한 정해진 장소에로 향하게 하는 것은 그 장소나 상상을 숭배하는 것, 또는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신성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 즉 그 상상이나 장소를 보통의 사용 방법과 구별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신성'이라는 말의 뜻이기 때문이다. 즉 그 말은 장소나 상상에 있어서 어떠한 새로운 성질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신을 위하여 전용(專用)하게 하는 어떠한 새로운 관계를 뜻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다. 그와 같이 놋쇠 뱀 앞에서 신을 숭배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었다. 또한 자기 스스로의 나라를 떠나 온 유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의 얼굴을 예루살렘의 신전을 향해 돌리도록 한 것 또는 시나이 산, 즉 신은 이곳을 골라 나타나 그의 율법을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주고, 그러기 때문에 본래의 신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의 사용을 위해 성별함으로써 성지가 된 그 시나이 산의 땅의 타오르는 불 앞에서 모세가 그의 신을 벗은 것, 또 왕의 권위에 따라 또는 다른 교회의 참다운 대표에 의하여 그 목적을 위해 한때 장엄하게 신에게 바쳐진 교회에서 그리스도 교도들이 예배하는 것도 우상 숭배는 아닌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상이나 장소에 신이 생명을 불어넣고 또는 살도록 하는 것과 같이 다시 말하면, 유한한 장소 안의 무한한 존재로서 그러하는 것처럼 신을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인 것이다. 그러한 유한한 신들은 두뇌의 우상에 지나지 않으며 전혀 실체적인 것이 아니고 또한 그것들은《성경》속에서는 한결같이 '공허한 것', '거짓말', 그리고 '허무한 것'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 신이 그 장소나 상상에 생명을 불어넣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지 않게 우리의 주권자인 목자들의 권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적인 권위에 의해서 그 장소나 상상이 바쳐져 마련되는 경우에 자기의 일이나 자기가 한 일을 마음에 간직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신을 예배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인 것이다. 왜냐하면 계율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50]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은 모세에게 놋쇠 뱀

50 〈출애굽기〉 20장 4절.

을 만들 것을 명령하고, 모세는 그것을 스스로 만들지 않았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계율에 어긋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아론과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신으로부터 받은 권위 없이 한 것이므로 우상 숭배였다. 그들은 그것을 신이라고 생각했다는 이유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주권자인 신으로부터나 신의 대리인인 모세로부터의 허가도 없이 그것을 종교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방인들은 유피테르나 그 밖의 살아 있는 동안에 아마도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행위를 한 사람들을 신으로서 숭배했다. 그리고 불사의 신과 필연적으로 죽는 사람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여러 남자와 여자를 신의 아들이라고 숭배했다. 이것은 우상 숭배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으로부터의 권위도 없이, 이성(理性)의 신의 영원한 법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신의 명백하고 계시적인 뜻에 있어서도 따르지 않고 그들 스스로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구세주는 인간인데 우리는 그를 또한 불사의 신 그리고 신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의 환상이나 판단의 위에서가 아니라《성경》속에 계시된 신의 말 위에서 그 신앙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성례(聖禮)의 예배에 관해서도 만일 그리스도가 '이것은 나의 육신이다'[51]라는 말이 '그 스스로 그의 손에 있는 외견상의 빵,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있었던, 또 앞으로 제사들에 의하여 깨끗해지리라는 모든 외견상만의 빵은 그 수만큼의 그리스도의 몸이며 더욱 그들 모든 것은 같은 육신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을 뜻한다면 그 경우에 그것은 결코 우상 숭배는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구세주에 의하여 권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본문이 그것을 뜻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관해서 이끌어 내세워지고 있는 부분은 그 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그것은 사람이 설립한 숭배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상 숭배인 것이다. 신은 빵을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성변화(聖變化)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이방인도 또한 신은 전능하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며,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나무나 돌의, 전능의 신으로의 성변화를 주장하는 것으로써 다른 사

51 〈마태복음〉 26장 26절.

람들에게 뒤떨어지지 않고 그 근거에 바탕을 두고 그들의 우상 숭배의 변명을 그런 대로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의 영감이란 초자연적으로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것은 교의와 연구에 의하여 신의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꾸며대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들은 대단히 위험한 모순 속에 들어 있다. 왜냐하면 만일 그들이 그와 같이하여 영감을 주고 있다고 믿는 사람을 숭배하지 않으면 신의 초자연적인 존재를 숭배하지 않음으로써 불신심(不信心)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다시 만일 그들이 그를 숭배한다면 그들은 우상 숭배를 범하게 된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그와 같이하여 숭배받기를 결코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다음과 같이 믿는 것이다. 즉 신이 사도들에게 성령을 주었을 때 사도들에게 비둘기들의 내려앉음으로써 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감의 불어넣음에 의해서 또 손을 올려놓음〔안수〕으로써 영감을 주게 되는 것에 의하여 이해되는 것은 신이 사용될 수 있는 자리를 주거나 사용하라고 명령한 그의 약속의 표지라고 믿는 것이다. 이 약속이란 그러한 사람들이 그의 왕국을 설교하기 위하여 연구할 때 또 그들의 교제(交際)에 있어서 그들을 도와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욕되게 하지 않고 유익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명예롭지 못한 상상의 숭배 상상의 우상 숭배와 같은 숭배 이외에 또 사람들의 명예롭지 못한 상상의 그러한 숭배가 있다. 그것은 역시 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상 숭배는 아니다. '우상 숭배〔idolatry〕'는 내적이며 현실적인 존경의 표지에 의하여 숭배하는 것이며, 그러나 '명예롭지 못한 숭배〔scandalous worship〕'는 겉으로의 숭배에 지나지 않으며 또 때때로 그것이 신에게 바쳐진 상상과 환각적인 악마 또는 우상의 그 두 가지에 대한 안으로 그리고 마음으로부터의 혐오와 연결될 수 있으며 그리고 죽음이나 그 밖의 무거운 벌에 대한 공포로부터 나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지도자로 보고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숭배를 하면 죄가 된다. 그들의 길을 그의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으로서는 사람들은 종교의 길에서 비틀거리며 넘어지지 않을 수 없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의 실례는 우리에게는 전연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고 우리는 자기

자신의 근면과 주의심에 맡겨 놓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우리의 타락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을 가리켜 이끌도록 정당하게 소명을 받은 목자나 또는 그의 탁월한 지식이 높이 평가되고 있는 다른 사람이 공포에 의한 우상에 대해 외면적으로 명예를 준다면 그는 그것에 대한 공포와 불쾌를 그것의 숭배와 같이 똑같이 명확히 하지 않으면 그는 우상 숭배를 인정하는 것같이 보이게 함으로써 그들의 동료를 명예롭지 못하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선생이나 또는 지식이 탁월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사람의 행위에 바탕하여 논의를 하는 그들의 형제는 그것만으로써 그것이 그 자체가 합법적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명예롭지 못한 일은 죄이며, 그리고 '주어진 명예롭지 못한 일'이다. 그러나 만일 목자도 아니고 그리스도교의 교의에 있어서의 지식에 관해서도 뛰어난 명성도 없는 사람이 같은 짓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를 따른다면 이것은 결코 주어진 명예롭지 못한 상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러한 사람의 예를 따라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명예롭지 못한 상상을 꾸미는 것같이 보일 뿐이며, 그는 그것을 사람들 안에서 구실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나 국가의 지배 밑에 있는 배우지 못한 사람이 만일 우상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을 죽음의 고통이라는 대가로 명령을 받아 그가 마음속으로 그 우상을 혐오하고 있다면, 그는 훌륭하게 행동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만일 그가 그것을 숭배하기보다는 오히려 사형에 처해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불굴의 정신을 지녔더라면, 그는 보다 더 훌륭한 행동을 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모든 국민에게 그리스도의 교의를 가르치는 책임을 지고 있는 목자가 같은 일을 한다면 그것은 다른 그리스도 교도의 양심이라는 점에 관하여 다른 사람의 신앙을 명예롭지 못하게 하는 죄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의 책무의 성실치 못한 포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상상 숭배에 관하여, 여기까지 내가 논해 온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즉 상상 또는 어떠한 피조물 속에서 그 내용이 그 속에 살고 있다고 그가 생각하는 스스로의 환상이, 혹은 그 두 가지 모두를 숭배하는 사람, 또는 그러한 것들이 귀나

눈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의 기도를 듣거나 자기의 귀의(歸依)를 본다고 믿고 있는 사람은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또 죄를 받는 공포에서 그러한 숭배를 위장하는 사람은, 만일 그의 모범이 그의 형제들 사이에서 힘을 가질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만들거나 또는 선택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신의 말에 의한 명령으로부터 얻어 낸 상상 앞에서, 혹은 그러한 장소 속에서, 예를 들면 유대 사람들이 케루빔〔그룹〕 앞에서, 또는 어떤 때는 놋쇠 뱀 앞에서 신을 예배하고, 비록 한때이기는 했지만, 예루살렘의 신전의 속이나 또는 그쪽을 향하여 신을 예배할 때 그들이 한 것과 같이 세계의 창조주를 예배하는 사람은 우상적인 숭배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로마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자들, 상상, 유물 그 밖의 사물들에 대한 예배에 관해서는 나는 그것들을 신의 말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또 거기에서 가르친 교의로부터 로마 교회에 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이방인의 최초의 개종(改宗) 때 그 속에 남아 있던 것이며 그 후에 로마 교회의 주교들에 의하여 장려되고 확인되고 강화된 것들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케루빔 및 놋쇠 뱀에 바탕을 둔 논의에 대한 답변 《성경》으로부터 내세워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증거, 특히 신에 의하여 명령을 받은 이들의 상상의 예에 관하여 말한다면, 이들의 상상은 백성들이나 또는 어떤 사람이 예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계약의 궤〔ark〕 위의 케루빔〔그룹〕이나 놋쇠 뱀의 앞에서 한 것과 같이 신 스스로를 예배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사나 그 밖의 누군가가 케루빔〔그룹〕을 예배했다는 것을 읽지 않고 반대로 우리는 히스기야(Hezekiah)는 모세가 만든 놋쇠 뱀을 향하여 향(香)을 피우고 있었기 때문에 부숴 버렸다[52]고 읽기 때문이다. 그 밖에 이러한 예는 그것들 앞에서 신을 예배한다는 구실 밑에 우리도 상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고 우리가 모방하도

52 〈열왕기하〉 18장 4절.

록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53] 이라고 한 제2계명은 신이 만들라고 명령한 상상과 우리 스스로가 만든 상상과를 구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케루빔(그룹)이나 놋쇠 뱀으로부터 사람이 궁리해 낸 상상으로, 또 신이 명령한 숭배로부터 인간의 자발적인 숭배에로라고 하는 그러한 논의는 옳지 못하다. 또 다음과 같은 것 이상이 될 수 있다. 즉 히스기야는 유대 사람들이 그것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이상 그러하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놋쇠 뱀을 부숴 버렸지만, 또한 그리스도 교도인 주권자도 그의 신민들이 우상 숭배의 기회를 갖지 못하도록 숭배하기에 습관이 되어 버린 상상을 부숴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상상이 숭배를 받고 있는 곳에서는 무지몽매한 백성들은 신적인 힘이 상상 속에 있다고 사실로 믿고 있으며, 또 상상 중의 어느 것이 말을 했다든가 피를 흘렸다든가, 기적이 그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든가 하는 것이 그들의 목자에 의하여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의 기적은 사람들이 상상 그 자체라든가 또는 그 속에 있다든가 하고 생각하고 있는 성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그들은 이해하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을 때, 그들은 이집트에서 데려온 신을 숭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상 숭배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송아지를 신이었다고 생각했든가, 또는 그 배(腹) 속에 신을 품고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 백성들이 상상을 신이나 성인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그러한 생각으로 숭배할 정도로 어리석다고는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을는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그 반대되는 것이 명백히 나타나 있다. 예를 들면 금송아지가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은 '이스라엘아 너희 신이로다'[54]라고 말했고, 또 라반(Laban)의 상상은 그의 신으로 불리었다.[55] 그리고 우리는 매일같이 경험에 의해서 여러 가지의 종류의 백성들 속에서, 먹는 일과 편하게 지내는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연구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합리한 것을 검토하려고 하는 어려움을 기뻐하려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불합

53 〈출애굽기〉 20장 4절.
54 〈출애굽기〉 32장 4절.
55 〈창세기〉 31장 30절.

리한 것을 믿어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마치 명문의 새로운 법에 의하는 것 이외는 한사상속(限嗣相續)에 의하여 양도할 수 없다고 하는 것과 같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환상의 그림 그리기는 우상 숭배는 아니지만, 그것을 종교적인 숭배를 위해 악용하는 것은 그러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다른 부분에서, 예를 들면 신이 정원을 거닐었다든가, 야곱은 사다리의 꼭대기에서 신을 보았다든가, 또 그 밖의 통찰력과 꿈에서와 같이 천사나 신 스스로를 그린다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추론한다. 그러나 통찰력과 꿈은 자연적이든 또는 초자연적이든 환각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한 환각의 어떠한 상상을 그리고 있는 사람은 신의 상상이 아니라 그 자신의 환각의 상상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서 그것은 하나의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나는 환상을 좇아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죄가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렸을 때는 그것은 신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제2계명에 어긋나는 것이며, 숭배하는 것 이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또 그와 같은 것은 천사나 죽은 사람의 상상에 관해서도, 그것이 친구들이나 또는 회상의 값어치가 있는 사람들의 기념상(monuments)으로서가 아니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상상의 활용은 상상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는 없는 과거의 인물에게 정치적인 명예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성자(聖者)의 상상을 만들어 그는 죽어 있어 감각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에게 주는 명예를 즐거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외의 어떠한 다른 이유도 없이 예배할 때는 우리는 그에게 인간적인 힘 이상을 돌리고 있으며,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우상 숭배인 것이다.

따라서 모세의 율법 속에나 또는 복음 속에도 사람들 스스로 만든 상상과 그 밖의 신을 대표하는 것을 종교적으로 숭배하는 것에 관하여, 또는 하늘 위나 땅 위에서 또는 지옥에 있어서 어떠한 피조물의 상상을 숭배하는 것에 관하여 어떠한 권위를 지울 수도 없다. 또 다른 편에 있어서 신의 살아 있는 대리자인 그리스도 교도인 왕은, 필연적으로 죽는 사람의 본성이 가능한 그 이상의 큰 존경을 그의 권력에게 주는 것을 나타내는 어떠한 행위에 의하여 신민으로부터 숭배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현재 행해지고 있는 종교적 숭배는《성경》의 오해에 의하여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그러기 때문에 상상을 숭배하고 있던 이방인들의 개종 때, 상상 그 자체를 파괴하지 않음으로써 교회 속에 남겨진 것이다라는 것이다.

어떻게 하여 우상 숭배가 교회 속에 남겨졌는가 그 원인은 그들의 기량에 대하여 주어지는 지나친 평가와 값어치였다. 그것 때문에 *(이제까지 악마들에 대하여 종교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과 같이 그것들을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개종했지만)* 그 소유자들은 그것들을 그리스도나 처녀 마리아나 사도들, 그 밖의 초기 교회의 재사들의 명예를 주는 데 있어 그것을 행하는 것같이 꾸미고,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해 놓았던 것이다.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줌으로써, 이전에는 아마도 '비너스(Venus)'나 '큐피드(Cupid)'의 상이라 불리고 있던 것을 '처녀 마리아'의 상, 그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상으로서, 그리고 주피터의 상을 바나바의 상으로 삼고 머큐리의 상을 바울로 삼는 등은 손 쉬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속적인 야심이 목자들의 속으로 점차적으로 스며들어 그들은 새롭게 만들어진 그리스도 교도들을 즐겁게 하려고 노력하게 되었고, 또 그들도 이미 그것을 이미 획득한 사람들과 같이 죽고 난 후에 획득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이러한 종류의 명예를 좋아하게 되고, 이와 같이하여 그리스도나 그 사도들의 상상을 숭배하는 것이 더욱 더 우상 숭배적인 것이 되었다. 더욱 콘스탄틴 대제의 시대가 조금 지나 여러 황제와 주교와 회의는 그러한 숭배를 불법적인 것으로 보아 반대했지만, 이미 때 늦었고 또 그 반대는 너무나 약했던 것이다.

성자를 시성(諡聖)하는 것 '성자의 시성〔canonizing〕'은 이교(異敎)적인 것의 또 다른 유물이다. 그것은《성경》에 관한 오해도 아니며, 로마 교회의 새로운 발명도 아니며, 로마의 코먼웰스와 더불어 고대로부터의 습관이었다. 로마에서 일찍이 시성이 된 최초의 사람은 '로물루스(Romulus)'였으며, 그것은 원로원 앞에서 선서했던 율리우스 프로클루스(Julius Proculus)의 이야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 프로클루스는 이미 죽은 로물루스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로물루스는 하늘에 살고 있고, 거기에서는 '퀴리누스(Quirinus)'라 불리고 그들의 새로운 도시의 상태에 관하여 호의

적이었을 것이라고 확언을 받았다. 거기에서 원로원은 로물루스의 신성함에 대하여 공적인 증언을 주었던 것이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나 그의 뒤를 이은 황제들도 그와 같은 '증언'을 얻었으며, 즉 성인들의 시성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그러한 증언은 시성이라고 정의되고 있고, 또한 이교도의 '아포데오시스(Αποθέωσις, 신이 되는 것)'와 같은 것이다.

제사장의 명칭 법황이 최고의 제사장(pontifex maximus)의 명칭과 권한을 받은 것도 로마의 이교도로부터이다. 이것은 로마의 고대 코먼웰스에 있어서 원로원과 백성 밑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의 명칭으로서, 그는 종교에 관한 모든 의식과 교의를 규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Augustus Caesar)가 그의 국가를 군주 정치로 바꾸었을 때 그는 그의 직무와 백성의 호민관(Tribune of the People)의 직무*(즉 국가와 종교의 최고 권력)*를 잡은 것에 지나지 않다. 그리고 뒤를 이은 황제들도 같은 것을 즐겨 누렸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를 믿을 것을 공언하고 그것을 공인한 최초의 사람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살아 있었을 때에는 *(그의 권위 밑에서)* 로마의 주교로 하여금 종교를 규제시키는 것은 그의 종교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곧바로 '제사장(pontifex)'의 명칭을 갖게 된 것같이는 보이지 않고, 그것은 오히려 뒤를 이은 주교들이 로마 교구(教區)의 주교들에게 대하여 행사한 권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그 명칭을 가졌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와 같은 다른 주교들을 지배하는 권위를 준 것은 성 베드로의 어떤 특전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황제들이 언제나 스스로 지지한 로마 시의 특권에 의한 것이었다. 즉 그것은 황제가 콘스탄티노플을 제국의 수도로 만들었을 때에 콘스탄티노플의 주교가 로마의 주교와 같은 서열이라고 주장한 것으로써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드디어는, 다투는 일 없이 법황이 그것을 쟁취하여 '최고의 제사장'이 되었지만, 그러나 황제의 권한에만 근거하는 것으로서 제국의 영토 밖이나 또 황제가 로마에 있어서의 그의 권력을 잃고 난 후에는, 어떤 영토에도 그 이상 미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로부터 그의 권력을 빼앗은 사람은 법황 스스로였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법황 스스로가 정치적 주권자인 영역, 또 정치적 주권을 가지고 있는 황제가 그의 통치 밑에서 그의 그리스도교 신

민들의 목자의 우두머리로서 법황을 분명하게 선정한 영역을 제외하고는, 다른 주교들에 대하여 법황이 우월해야 할 여지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상상의 행렬 '행렬(procession)'을 이루어 상상을 운반하고 다니는 것은 그리스 사람과 로마 사람들의 종교의 또 하나의 유물이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들의 우상을 전차(戰車)와 같은 것, 즉 그것은 우상을 운반하고 다니기 위하여 특히 신에게 헌납된 것으로서 라틴 말로는 '신성한 수레', '신에게 헌납된 수레(thensa, vehiculum deorum)'라고 불리는 것에 실려 이곳에서 저곳으로 운반되고, 그리고 상상은 그들이 '운반대(運搬臺, ferculum)'라 불리는 나무로 만들어진 틀 또는 성스러운 유물을 넣는 상자 속에 안치되고 또 그들이 '행렬'이라 부르는 것은 오늘날 '행렬(pompa)'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과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원로원에 의하여 주어진 신적인 명예 중의 하나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다. 즉 고대 로마의 대경기 대회(Circaean games) 때의 행렬(pompa) *(또는 행렬(procession))* 때, 그들은 '신성한 수레(Thensa)'와 '성스러운 유물을 넣는 상자(ferculum)'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신과 같이 운반하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이며 그것은 마치 오늘날 법황이 닫집 밑에서 스위스 사람의 위병에 의하여 운반되는 것과 같다.

불이 켜진 양초와 횃불 이러한 행렬이 있을 때 신의 상상 앞을 불타고 있는 횃불과 양초를 가지고 거니는 것도 그리스 사람과 로마 사람들 사이에서 행해진 유물에 속한다. 왜냐하면, 후일에 로마의 황제들은 같은 명예를 받았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칼리굴라(Caligula) 황제에 관하여 읽을 때, 그가 제국에서의 영접을 받을 때 미세눔(Misenum)으로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백성들의 군중과 제단에 바쳐진 물건들과 희생으로 바쳐진 가축과 불타고 있는 횃불로 둘러싸인 길을 따라 운반되었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카라칼라(Caracalla) 황제에 대하여서는 그는 알렉산드리아에 있어서 향로와 꽃 던지기 그리고 '다도우키아이(δαδουχίαίς)', 즉 횃불로 환영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다. 즉 그 횃불이라는 것은 '다도우코이(Δαδουχοί)', 다시 말하면 그리스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들의 신들의 행렬에 있어 불이 켜진 횃불을 운반하고 다녔던 사람들을 말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독실하지만 무

지한 백성은 자주, 그들의 주교들을 그와 똑같은 양초의 행렬로서 존경했고, 또 교회 그 자체에 있어서도 우리의 구세주나 성자들의 상상을 명예롭게 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양초의 사용이 행해지게 되었고, 어떤 여러 회의에서 확립되게 되었다.

이교도들은 또한 'aqua lustralis' 즉 말하자면 '성수(聖水)'를 가지고 있었다. 로마의 교회는 '성일(聖日)'에 이교도들을 흉내 냈다. 그들은 '바카날(Bacchanalia)' 제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는 그들에게 대응하는 '헌당 기념 축제(wakes)'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농신제(農神祭, Saturnalia)'를 가지고 있었으나 우리는 '사육제(謝肉祭, Carnivals)'와 종복들의 '참회 화요일'의 하인의 자유(Shrove Tuesdays liberty of servants)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프리아포스(Priapus)[56]의 행렬을 가지고 있었으나 우리는 '5월제의 기둥(May-poles)'을 돌며 춤을 춘다. 즉 춤을 추는 것이 예배의 한 종류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논밭 순회제(Ambarvalia)'라 불리는 행렬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기도성주(祈禱聖週, Rogation week)'에 논밭을 돌며 행렬했다. 이것들이 이방인의 그리스도 교도에로의 최초의 개종으로부터 교회에 남겨진 모든 의식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오늘날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의식이다. 그리고 만일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과 로마 사람들의 종교적 의식에 관하여 역사 속에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들을 잘 생각하면 이방인들의 행한 이들의 낡은 빈 병, 즉 로마 교회의 박사들은 태만하거나 야심에 찬 그 어느 것에 의해 그들은 그것들을 그리스도교의 새로운 포도주로 또다시 가득 채워 둔 그러한 빈 병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하여 이 새로운 포도주는 그때에 반드시 그것들을 깨 버리고 말 것이다.

제46장 공허한 철학과 허구의 전설 등에서 오는 암흑에 대하여

철학이란 무엇인가 철학이란 것이 이해될 때는 '어떤 사물의 생성의 방법으로부터 그 고유의 속성에 이르기까지, 또는 그 속성으로부터 어떤 같은 사물의 고유의 속

56 남성의 생산 능력의 신.

성의 생성의 어떠한 가능한 방법에 이르기까지의 추리에 의하여 얻어질 수 있는 지식으로서 목적하는 바는 물질적인 내용과 인간의 힘이 용납하는 한, 인간 생활이 필요로 하는 여러 효과를 결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하학자는 여러 도형의 구성으로부터 그것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의 특이성을 찾아 내고 또 그러한 특이성으로부터 추리에 의하여 그것들을 구성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 내고 마지막으로는 토지와 수량을 측정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밖의 무한한 활용 방법에 이르게 된다. 그와 꼭 같이 천문학자들은 하늘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태양이나 별들의 떠오르는 것, 떨어지는 것, 움직이는 것 등으로부터 낮과 밤의 여러 가지 원인, 그리고 한 해의 서로 다른 계절의 원인을 찾아 내는 것이며, 그것으로써 그는 시간을 재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과학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신중성은 철학의 일부가 아니다 이 정의에 의해서 명백한 것이란 우리는 경험이라 불리는 근원적인 지식을 그것'철학'의 일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신중성은 그 경험 속에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추리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성이 없는 야수에 있어서와 같이 인간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은 지나간 과거의 시간적인 여러 사건들의 계속의 기억에 지나지 않으며, 그 속의 어떠한 작은 사정이 결여되어도 그 결과를 변화시키는 것이므로 가장 신중한 사람의 기대를 좌절시킨다. 여기에 반해 정당한 추리로부터는 일반적으로 영구적이며 불변의 진리 이외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허위의 교의는 철학의 일부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또한 그러한 '철학적' 명칭을 어떠한 허위의 결론에 대하여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스스로 이해하는 말에 있어서 정당하게 추리하는 사람은 오류를 결론짓는 일은 결코 없기 때문이다.

초자연적인 계시도 또한 같다 어떠한 사람이 초자연적인 계시에 의하여 아는 것에 대하여서도 또한 같다. 왜냐하면 그것은 추리에 의하여 얻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저자들에 대한 신용에서 얻어진 학식 또한 같다 서적들의 권위에서 나오는 추리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도 또한 그러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원인으로부터 결과에로의 추리에 의한 것도 아니고, 결과로부터 원인에로의 추리에 의한 것도 아니며, 따라서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신앙이기 때문이다.

철학의 시작과 진전에 관하여 추리 능력은 말의 사용의 귀결이기 때문에 언어 그 자체와 거의 같을 정도로 오래된 어느 정도의 보편적인 진리가 추리에 의하여 발견되어야 할 것이며, 그 밖의 것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의 야만인들은 어떠한 선량한 도덕적인 의견을 갖지 않는 것은 아니며, 또한 별로 크지 않는 수의 더하기하고, 나누기하기 위한 산수(算數)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철학자가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곡물이나 포도의 식물은 사람들이 그것들의 효능을 알거나 또는 사람들의 영양을 위해 사용하거나 또 그것들을 별도로 뜰과 과수원에 심기 전에는 그들은 도토리를 길러 식량으로 삼고 물을 음료로 삼았던 그때에다 뜰이나 숲에 조금밖에는 흩어져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이 여러 가지의 진실하고 일반적이며, 이득이 되는 사색이, 인간 이성의 자연적인 생장과 같기 때문에 시초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처음에는 수에 있어서 많지 않았으며 사람들은 다듬어지지 않은 경험에 따라 살아 있었다. 거기에는 방법도 없었으며, 다시 말하면 오류와 추측이라는 보통의 식물과는 별도의 지식 그 자체에 따르는 씨뿌리기나 나무심기도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것의 원인은 생활필수품을 조달하고, 그들의 이웃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를 방위하는 것으로부터 생기는 여가를 갖지 못한 데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코먼웰스를 세우기 전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었다. '여가'는 '철학'의 어머니이며, 그리고 코먼웰스는 '평화'와 '여가'의 어머니이다. 처음으로 거대하고 번창한 '도시들'이 있었던 곳에 처음으로 '철학'의 연구가 있었다. '인도의 나체 수도 고행자〔Gymnosophists〕', '페르시아의 마기 승려(魔技僧侶, Magi)', '칼데아(Chaldea)' 및 '이집트의 승려들〔Priests〕'은 가장 오래된 철학자들로 꼽혔다. 그리고 이들 나라들은 가장 오래된 왕국들이었다. 그리스 사람들이나 그 밖의 서방(西方)의 백성들의 여러 '코먼웰스들*(물론 루카나 제네바보다 크지 않은)*'에서는 그들 서로 간의 공포가 같은 때를 제외하고는 결코 평화를 갖는 일이 없었고, 서로 관찰하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관찰하는 '여가'가 없었기 때문에 '철학'은 그들에게서 나오지 않았다. 결국에는 전쟁은 이들 그리스의 보다 작은 도시들을 그것들보다 큰 것으로 통일시켰을 때 그리스의 여러 지방에서 온 '7인'이 '현자(賢者)'라는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그들 중의 어떤 자는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문장에 대하여, 그 밖의 자들은 칼데아 사람들이나 이집트 사람들이 학식, 즉 '천문학'과 '기하학'에 관한 그러한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어떠한 '철학 학교(학파)'에 관해 듣지 못했다.

아테네 사람들 중에서의 철학의 학교에 관하여 아테네의 사람들이 페르시아군을 무너뜨림으로써 해상의 지배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도해(多島海, archipelago) 의 모든 섬들과 연안의 여러 도시들의 지배를 아시아는 물론 유럽에서도 아울러 갖게 되어 부유하게 된 이후에는, 국내에 있어서나 국외에 있어서도 일터를 갖지 않은 사람들은 *(〈사도행전〉 17장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소식들을 말하고 들으며' 또는 그 도시의 젊은이들에게 공공연하게 '철학'에 관해 강술(講述)하는 등의 이외에는 그들 스스로 거의 하는 일들이 없었다. 각 교사들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 약간의 장소를 가지고 있었다. 플라톤은 '아카데모스(Academus)'에서 온 '아카데미아(Academia)'라고 불리는 어떤 공공 구역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리시움(Lyeum)'이라 불리는 판(Pan)의 사원(寺院)의 구역에서, 그 밖의 사람들은 '스토아(Stoa)' 또는 지붕이 덮여 있는 구역으로서 상인들이 재화를 가지고 와 놓아 두는 곳에서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곳에서 그러했던 것이며 거기에서 그들은 그들의 여가의 시간을 그들의 의견을 가르치거나 논의하는 데 보냈고, 또 그 도시의 젊은이들을 그들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하여 모일 수 있다면 어떤 곳에서나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다. '카르네아데스(Carneades)'도 또한 이러한 일을 그가 대사였을 때 로마에서 했으며, 그것이 원인이 되어 그가 훌륭한 일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에 관해 말하는 것을 듣고 기뻐하는 젊은 사람들의 생활태도를 타락시키는 것이 아닌가의 두려움 때문에, 카토(Cato)는 원로원에 대해 그를 조속히 파견하도록 충고했던 것이다.

그들 중 누군가가 가르치고 논의한 곳을 그들의 말로서 '여가'를 나타내는 '스콜라(schola)'라고 불렀고, 그들의 논의가 '디아트리베(diatribe)', 다시 말하면, '시간을 보낸다'라고 말하게 된 것도 여기에서부터였다. 철학자 스스로도 그들 파(派)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 중의 어느 것은 그들의 학교의 이름에서 얻

었다. 플라톤의 교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아카데미 학파(Academiques)'라 불렀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추종자들은 그가 가르친 구역에서 딴 '소요 학파(逍遙學派, Peripatetiques)'라 불렀다. 제논(Zenon)이 가르친 사람들은 '스토아(Stoa)'에서 '스토아학파(Stoiques)'라 불렸다. 그것은 사람들이 거기에 자주 모여 지껄이고 어정거린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황무지(Moor-fields)', '바울 교회(Pauls Church)', '교환소(Exchange)'에서 따온 이름을 붙여 부르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러한 관습에 많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모든 유럽과 아프리카의 대부분으로 번졌고, 거의 대부분의 모든 코먼웰스에 있어서도 강의와 논의를 위하여 학교들이 공공연하게 세워지고 유지되게 되었던 것이다.

유대 사람들의 학교에 관하여 옛날에 우리 구세주의 시대의 전에나 후에도 '유대' 사람들 중에는 역시 학교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들의 율법에 관한 학교였다. 즉 그것들은 '시나고그(Synagogue)', 다시 말하면, 백성들의 집회라고 불리는 것이었지만, 그것들 안에서 안식일(安息日, Sabbath day)마다 매번 법을 읽거나 해설하거나 논의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은 공공의 학교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다만 명칭에 있어서만이 달랐다. 그리고 그것들은 예루살렘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유대 사람들이 살고 있던 이방인들의 모든 도시에도 있었다. 그러한 학교들이 다마스쿠스에 있었고, 거기에 바울이 박해를 받기 위하여 들어갔었다. 안디옥(Antioch), 이고니온(Lconium), 그리고 데살로니가 등에 그러한 것들이 있었고, 그들은 논의하기 위하여 거기에 들어갔다. 그리하여 그러한 것들은 해방 노예(Libertines), 구레네 사람(Cyrenians), 알렉산드리아 사람(Alexandriaus), 길리기아 사람들(Cilicians) 그리고 아시아의 사람들의 시나고그,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는 이방인이었던 해방 노예의 학교 또는 유대 사람의 학교였다. 성 스데반과 논의한 사람들은 이 학교의 사람들이었다.[57]

그리스 사람들의 학교는 유익하지 않다 그러나 이들 학교의 효용성은 어떤 것이었

57 〈사도행전〉 6장 9절.

던가? 그들의 독서와 논의에 의하여 오늘날 어떠한 과학이 얻어지는 것인가? 모든 자연 과학의 어머니인 기하학에 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 학교의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 그리스의 가장 훌륭한 철학자였던 플라톤은 이미 어느 정도의 기하학자들이 아니면 그의 학교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했다. 이 과학을 연구하여 인류에게 위대한 이득을 준 사람들은 많았으나 그들의 학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언급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어떠한 기하학자들의 파도 없다. 또 그때 그들은 철학자들의 이름으로 통용되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이들 학교의 자연 과학은 학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꿈이었으며, 감각 없고 뜻 없는 언어로 논하고 있다. 그것은 철학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 기하학에 있어서의 많은 지식을 얻어놓지 않으면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자연은 운동에 의하여 작용하는 것이며, 그 진로나 정도는 선과 도형의 비율과 속성에 관한 지식 없이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도덕 철학은 그들 스스로의 정념의 서술에 지나지 않다. 정치적 통치 밖의 생활 태도에 관한 규칙은 자연법이며, 그 속에 있어서는 시민법이며, 그것은 무엇이 '정직'이며 '부정직'인가, 무엇이 '정의'이고 '부정의'이며, 그리고 일반적으로 무엇이 '선'이고 '악'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거기에 반하여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따라서 '선'과 '악'의 규칙을 만든다. 그 기호가 너무나 크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 수단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각 사람은 자기의 눈에 좋은 것으로 보이면 무엇이든지 *(그가 하고 싶은 한도 내에 있어서)* 하면서, 코먼웰스의 붕괴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들의 '논리학(Logiques)은 추리하는 방법이 되어야 하며, 말의 표제이며 그들을 궁지에 빠뜨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머리를 짜내게 할 것인가를 고안해 내는 것에 지나지 않다. 결론을 내리자면 낡은 철학자들이 *(스스로 그중의 한 사람이었던 키케로가 말한 것처럼)* 그것들 중의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터무니없는 일은 없다. 그리고 내가 믿는 바로는 자연적인 철학에 있어서 오늘날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보다 더욱 터무니없는 일은 거의 말할 수 없고, 또 그가 그의 정치학(Politiques) 속에서 말한 것처럼 통치에 대해 모순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또, 그의 윤리학(Ethiques)의

속에서 말한 대부분처럼 무지한 것도 거의 있을 수 없다.

유대 사람들의 학교는 유익하지 않다 유대 사람들의 학교는 원래는 모세의 율법에 관한 학교였다. 그는 매 7년째 해의 끝날 무렵에 초막절에서 그것이 모든 백성들에게 읽혀야 하고, 그들이 그것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명령했다.[58] 매 안식일에 그 법*(그것은 사로잡힘 후에 쓰였다)*을 따라서 읽는 것은 백성들에게 그들이 복종해야 할 계율을 익히 알게 하는 것과 예언자들의 저술을 그들에게 해설하기 위한 것 이외에 어떠한 다른 목적을 가질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 구세주의 그들에 대한 많은 비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것이 명백해진다. 즉 그들이 그 법의 원문을 그릇된 해설과 공허한 전설 등으로 더럽혀진 것, 또 예언자들은 거의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리스도도 그가 행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모임에 있어서의 그들의 강의와 논의들에 의하여 그들은 그들의 법에 관한 교의를 신과 영의 이해할 수 없는 본성에 관한 환각적인 종류의 철학으로 전화(轉化)시킨 것이며, 그것을 그들은 그리스 사람들의 공허한 철학과 신학을 그들 스스로의 환상과 섞어 꾸며 만든 것이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의 환상은 성경의 애매하고 그들의 목적을 위하여 가장 많이 손쉽게 왜곡된 곳에서, 그리고 그들의 선조들의 허구의 전설에서 이끌어 냈던 것이다.

대학이란 무엇인가 오늘날 '대학〔University〕'이라 불리고 있는 것은 하나의 같은 도회, 또는 도시 속에 있는 많은 공공 학교를 하나의 통치 밑에 모두 합쳐 일체화한 것이다. 그중에서 주요한 학교들은 세 가지의 전문 직업, 즉 로마의 종교, 로마의 법, 그리고 의술(醫術)에 관한 것으로 정했던 것이다. 그리고 철학의 연구에 관해서는 그것은 로마의 종교의 시녀로서의 지위밖에 갖지 못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권위만이 통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연구는 정당하게는 철학*(그 본성은 저자들에 의존하지 않는)*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학(學)〔Arstotelity〕인 것이다. 그리고 기하학에 관해서는 그것은 극히 최근까지 전적으로 그 장소를 갖지 못했다. 기하학은 엄격한 진리 이외에는 어느 것에도 종속하는

58 〈신명기〉 31장 10절.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일 누군가가 그 스스로의 본성에 바탕을 둔 창의성에 의하여 그것에 관한 어느 정도의 완전한 경지에 이르면 그는 마술사라든가 그의 기술은 악마적이라든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상적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으로부터 종교에로 가지고 들어온 여러 오류 그렇다면, 부분적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또 부분적으로는 이해력의 무지로부터 이끌어 내 여러 대학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교회에로 들어간 공허한 철학의 특정 교의를 상세하게 논술하기 위하여 먼저 그들의 여러 원리를 고찰해야 하겠다. 거기에는 어떤 '제1철학(philosophia prima)'이라는 것이 있어, 다른 모든 철학은 그것에 의존해야 하고 그것은 주로 다른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명칭 또는 명사의 뜻을 정당하게 한정(limiting)하는 것이다. 그 한정은 추리에 있어서 애매함이나 양의성(兩義性)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서,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정의(definition)이라 불린다. 그 정의는 물체 · 시간 · 장소 · 물질 · 형식 · 본질 · 주체 · 실질 · 우연성 · 힘 · 행위 · 유한 · 무한 · 양 · 질 · 운동 · 작용 · 정념 및 그 밖의 다른 것들의 정의들이며, 그것들은 여러 물체의 본성과 발생에 관한 인간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다. 그것 및 그것과 비슷한 용어를 설명하는 것 *(즉 다시 말하면 뜻을 분명히 하는 것)*은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형이상학'이라 불린다. 그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일부로서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뜻으로 그렇게 불리고 있는 것이며, 왜냐하면 거기에서 뜻하고 있는 것은 '그의 자연 철학의 후에 쓰인 것, 또는 그 뒤에 놓인 여러 편(篇)'이라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메타피지쿠스(Metaphysiques)'라는 말은 이 두 가지의 뜻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쓰여 있는 것은 그 대부분이 도저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연의 이성에 대해서도 그렇게 모순되는 것으로서, 누군가가 그것에 의해서 이해되어야 할 그 무엇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것이다.

추상적인 본질에 관한 여러 가지 오류 이와 같은 형이상학이 《성경》과 섞여 스콜라 철학이 된 것이지만, 우리가 그 형이상학으로부터 듣는 것은 이 세상에는 물체로부터 분리된 어떤 본질이 존재한다는 것으로서 그것들은 '추상적인 본질(abstract

essences〕' 및 '실체적 형상〔substantial forms〕'이라고 불린다. 이 뜻을 '알 수 없는 말〔jargon〕'을 통역하기 위해서는 이곳에 있어서의 일상적인 주의력을 어느 정도 넘어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종류의 논구에 익숙해 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의탁할 것을 용서받고자 한다. 세계〔the world〕*(이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세계적인 인간'이라고 이름 붙인 것과 같은 그러한 '대지(the earth)'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the universe)', 즉 존재하는 모든 사물의 전체적인 덩어리를 뜻한다)*는 형태적인 것, 다시 말하면 물체이며, 크기의 여러 차원 즉 길이, 넓이 및 깊이 등을 가진다. 물체의 모든 부분은 또한 물체와 같이, 비슷한 여러 차원을 가진다. 따라서 우주의 모든 부분은 물체이며, 물체가 아닌 것은 우주의 부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모든 것〔all〕이기 때문에 그것의 부분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nothing〕'이며 따라서 '어디에도 없다〔no where〕'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것으로부터 여러 영(靈)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나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여러 차원을 가지며 따라서 사실상의 '물체'이기 때문이며, 그러나 그 이름은 통상적인 말 속에서는 눈에 보인다든가 손으로 만질 수 있다든가, 즉 어느 정도의 불투명성을 가지는 그러한 물체에게만 주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영에 대하여 그들은 비형태적인 것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더욱 명예 있는 이름이며, 따라서 신 스스로에게 돌리는 것이 더욱 독실한 것이 될 것이다. 신의 경우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의 본성을 어떤 속성이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가를 고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명예를 주었다고 하는 우리의 욕망을 무엇이 가장 훌륭하게 나타내고 있는가를 고찰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어떠한 근거에서 '추상적인 본질'이나 '실체적인 형상'이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러한 말들이 올바르게 무엇을 뜻하는가를 고찰해야 한다. 말의 효용은 우리 마음의 사고(思考)와 개념을 우리 스스로에게 기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명백히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말들 중의 어느 것은 모든 종류의 물체의 이름과 같이 인식된 여러 사물의 명칭들이며, 그러한 물체는 감각에 작용하여 상상력 속에 인상을 남기는 것이다. 그 밖의 것은 상상력,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고 기억하는 모든 사물에 관해서 우리가 가지는 관념 또는 심적인 상상의 명칭들이다. 그

리고 그 밖의 것들은 명칭의 이름들이거나 말의 서로 다른 종류의 이름들이다. '보편적 복수 · 단수' 등이 명사의 이름이며, '정의 · 금정 · 부정 · 진실 · 허위 · 삼단논법 · 의문 · 약속 · 신약' 등은 말의 어떤 형상의 이름인 것이다. 그 밖의 것은 하나의 명사가 다른 명사에 대한 연속 또는 모순되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인간은 물체이다'라고 말할 때, 그가 의도하는 것은 '물체'라고 하는 명칭이 같은 사물, 즉 '인간'에 대한 몇 가지 명칭에 지나지 않으므로 '인간'이라고 하는 명사에 필연적으로 연속된다는 것으로 그 연속성은 그것을 '이다〔is〕'라는 말로서 짝지워짐으로써 나타난다. 그리고 우리가 동사〔is〕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라틴 사람들은 그들의 동사〔est〕를, 그리스 사람들은 그들의 동사'Εστι'를, 그것들의 변화를 통해 사용하는 것이다. 세계의 다른 모든 국민들이 그들 각기의 언어에 있어서 그것에 대응하는 하나의 언어를 가지느냐 갖지 않느냐를 나는 말할 수 없으나 그들은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한다. 왜냐하면, 두 개의 명사를 순서 바르게 정해 놓는 것은, 만일 그것이 관습이라면 *(그 말들에게 그 힘을 붙여 준다는 것은 관습이기 때문에)* 'is'나 또는 'be' 또는 'are'이라든가 그 밖에 그와 비슷한 말과 같이, 그들의 연속을 나타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est'나 'is'나 또는 'be'에 대응할 수 있는 동사가 없는 언어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한 사람들은 추론이나 결론이나 모든 종류의 추리를 할 수 있다는 데에서 그리스 사람이나 라틴 사람들보다도 조금도 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 거기로부터 나오는 실재〔entity〕, 본질〔essence〕, 본질적〔essential〕, 본질성〔essentiality〕 등의 용어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그들 용어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이들 용어와 더불어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보다 많은 용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들은 따라서 사물의 명사가 아니라 표지이며, 그 표지에 의하여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의 이름 또는 속성이 다른 그것으로의 연속을 마음속에 그리게 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인간은 살아 있는 물체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 우리는 '인간'이 하나의 사물이라는 것을 뜻하지 않으며, '살아 있는 물체'가 또 있다는 것도 뜻하지 않으며, 또 '있다〔is〕' 또는 '존재하고 있다〔being〕'는 것은 제3의 사물이라는 것을 뜻하지도 않고, 그 '인간'

과 '살아 있는 물체'가 같은 것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그가 인간이라면, 그는 살아 있는 물체이다'라는 연속은 '있다(is)'라는 말에 의하여 뜻이 나타나는 참된 연속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체인 것, 걷는 것, 말하고 있는 것, 사는 것, 보는 것' 그리고 그와 비슷한 부정법(不定法, infinitives)과 그것들과 아주 똑같은 것의 뜻을 나타내는 형태성(形態性), 걷기, 말하기, 생명, 외관(外觀) 그리고 그와 비슷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nothing)'의 이름들이며, 나는 다른 곳에서 보다 상세하게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의 연구에 있어서 그러한 세밀한 구별은 내가 통치와 복종에 관한 학설에 필요한 것 이외는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연 어떠한 목적을 위한 것인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것이다. 즉 사람들이 마치 몸에 꼭 끼는 웃옷, 모자, 구부러진 지팡이로 놀라게 하여 새들을 곡물로부터 쫓는 것과 같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허한 철학 위에 쌓아올린 '분리된 여러 본질'에 관한 이러한 학설에 따라 내용 없는 여러 가지의 명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여 그들의 나라의 법에 복종하는 것으로부터 멀리 쫓아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이상 나에게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근거 위에서, 사람이 죽어 매장되었을 때, 그들은 그들의 *혼(즉 그의 생명)*이 그의 신체로부터 떨어져 나가 걸을 수 있고, 그것은 밤에는 무덤들 사이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같은 근거 위에서, 한 조각의 빵의 모양, 색깔, 및 맛들이, 빵이 없다고 그들이 말하는 그 장소에 존재하고 있다고 그들은 말한다. 그리고 또한 같은 근거에서, 신앙이나 지혜나 그 밖의 여러 덕성(德性)은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때로는 '힘이 주어지고', 때로는 '생기가 불어넣어졌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마치 덕이 있는 사람과 그의 덕성을 산산이 조각나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신민들이 그들 나라의 주권에 의존하는 것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과 같은 그 밖의 극히 많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복종이 그의 속에 주어졌다든가 또는 불어넣어지기를 기대한다면, 누가 법에 복종하려고 노력할 것인가? 또는 신을 만들 수 있는 제사에 대하여 누가 오히려 그의 주권자에 대해서보다도, 아니 신 스스로에 대해서보다도

복종하려고 하지 않을 것인가? 또는 유령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 그것들을 그들로부터 물리치는 성수(聖水)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큰 존경을 보내려고 하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재'와 '본질'로부터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여러 오류의 한 예로서 충분한 것이다. 또 그는 그것이 허구의 철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그들의 종교와 일치시켜 그것을 보강하는 것으로 썼던 것이며, 소크라테스와 같은 운명이 되는 것을 두려워했었다.

한 번 이러한 '분리된 본질(separated essences)'이라는 오류에 빠지면, 그들은 그것들에 의해 필연적으로 그것을 따르는 많은 그 밖의 불합리성에 말려들어 가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러한 형상을 현실적인 것으로서 가지리라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들은 그것들에게 '어떠한 장소'를 할당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양(量)의 모든 차원을 갖지 않는 비형태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서, 모든 사람들은 그 장소가 차원인 것이지, 형태적인 것에 의하여 가득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들이 어디에 있어서나 '한계 획정적(限界劃定的)'인 것이 아니라 '정의적(定義的)'인 것이라는 구별에 대한 그들의 신을 지지하도록 몰아치고 있다. 그러한 용어는 단순한 말일 뿐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 아무것도 뜻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그것들의 공허함이 감추어질 수 있는 바와 같이 라틴 말로서만이 말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어떤 사물의 한계 획정이란 그 자체의 장소의 결정 또는 정의에 지나지 않으며, 구별에 관한 그 두 용어는 같은 것이다. 그리고 특히, 인간의 본질,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의 혼이 그러하지만, 그들은 그것의 모든 것이 그의 작은 손가락 속에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그의 신체의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모든 부분 속에 있으며, 더욱 그 전신(全身) 속에는 이들 부분의 어느 하나 속에 있는 것 이상의 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단언하고 있다. 신이 그러한 불합리성에 의하여 봉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누가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신체로부터 분리된 비형태적인 혼의 실재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 믿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여 비형태적인 실체가 고통을 가질 수 있게 되는가, 또 지옥이나 연옥의 불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가를 설명해야 할 때에 이르게 되

면 왜 불은 혼을 태울 수가 있는가를 알 수 없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그는 대답할 수 없다.

또한 운동은 장소의 변화이며, 비형태적인 실체는 장소를 가질 수 없는데 하늘이나 지옥이나 또는 연옥에 이르는 것, 또 사람들의 유령들이 *(그리고 나는 그들이 입고 나타나는 옷을 덧붙일 수 있다)* 밤에 교회나 교회의 뜰, 그리고 그 밖의 매 장터를 거닐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일 수 있도록 그들은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그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이상, 무엇을 대답할 수 있을 것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 즉 그것들은 '한계 획정적'이 아니라 '정의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걷는다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터무니없는 구별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지(停止)하고 있는 현재 '영원성'의 뜻에 대하여 그들은 그것이 시간의 무한한 계속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 경우에 신의 뜻과 오려고 하는 사물들의 예정이, 그들이 그와 꼭 같은 것들을 예지하기 전에 효과 이전의 유효원인(有效原因)으로서, 또는 행위 이전의 행위자로서 존재하지 않는가라든가, 또는 신의 이해하지 못하는 본성에 관한 다른 많은 그들의 대담한 의견에 대해 왜 그 이유를 줄 수 없는 것인가 등이다. 그러나 영원성이라는 것은 현재의 시간의 서 있는 상태*(스콜라 학파가 그것들을 부르고 있는 것처럼)* '정지하고 있는 현재(nunc-stans)'라고 그들은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한다. 그것을 그들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장소의 무한한 크기에 대해 '정지하고 있는 여기(hic-stans)'를 그가 이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과 같다.

많은 장소에 있는 하나의 물체와 동시에 한 장소에 있는 많은 물체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의 사고 속에서 하나의 물체의 여러 부분을 헤아리고, 그들의 부분을 헤아릴 때, 가득 채워질 장소의 여러 부분도 또한 헤아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물체를 쪼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많은 부분을 만드는 데 있어 우리는 또한 그 부분들의 많은 장소를 만들지 않을 수 없다. 그 경우, 어떤 사람의 마음에도 거기에 장소가 비어 있다는 것보다 더 많이 또는 더 적은 부분들이 마음에 떠오를 수는 없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신의 전능한 힘에 의하여 하나의 물체가 하나의 같은 시간

에 많은 장소에 있을 수 있고 여러 물체가 하나의 같은 시간에 하나의 장소에 존재할 수 있다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한다. 그것은 마치 있는 것을 없다고 하거나 존재했던 것을 없었다고 하는 것이 신의 힘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것들은 그들이 신적(神的)이고 이해할 수 없는 본성을 찬양하는 대신, 철학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이 억지로 이끌려 간 종교적인 반대 가운데에서 극히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한 본성의 여러 속성은 그가 어떤 사람인가 밝힐 수 없으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명칭을 가지고 그에게 명예를 주고자 하는 우리의 의욕을 나타내려는 것에 지나지 않다. 그러나 무리하게, 그의 본성에 대하여 추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최초의 시도에 있어서 그들의 이해력을 상실하고 하나의 불편으로부터 다른 불편으로 휩쓸려 들어가 끝을 알지 못하고 수(數)도 알지 못한다. 그것은 궁정(宮廷)의 의식(儀式)을 모르는 사람이 평소에 흔히 상대하는 사람들보다 위대한 사람의 면전에서 물러나 돌아가거나 들어 갈 때 망설이다가 넘어지려는 스스로를 겨누다가 그의 외투를 떨어뜨리고, 외투를 되잡으려다가 모자를 떨어뜨리고 하여 차례로 혼란을 일으켜 스스로의 소스라침과 교양 없음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중력(重力)의 원인인 인력(引力)과 같은 자연 철학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의 불합리성 그리고 '자연학{Physiques}', 즉 자연의 여러 사상(事象)의 종속적이고 제2차적인 원인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 그들은 무의미한 낱말 이외에는 전적으로 아무것도 제공해 주지 않는다. 만일 당신이 어떠한 종류의 물체가 자연적으로 대지를 향하여 밑의 쪽으로 가라앉고 그 밖의 다른 것들은 자연적으로 대지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은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알고자 한다면, 스콜라 학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부터 이끌어 내, 밑의 쪽으로 가라앉는 물체는 '무겁고', 이 무게는 그 물체로 하여금 낙하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들에게 '무게'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를 묻는다면 그들은 그것을 대지의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정의할 것이다. 그와 같이하여 밑의 쪽으로 사물이 가라앉는 원인은 낮게 되려고 하는 노력이다라는 것이 되며, 그것은 물체가 낙하하거나 상승하는 것은 그것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 또는

그들은 당신에게 대지의 중심은 무거운 물체들의 휴식 장소이며 보존의 장소이며, 따라서 그것들은 거기에로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돌과 금속이 의욕을 가졌다든가 또는 인간이 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존재하고자 생각하는 장소를 구별할 수 있을 것이고, 또는 한쪽의 유리 조각이 거리 위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창속에 있는 것이 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이미 만들어진 물체 속에 넣는 양(量) 만일, 왜 같은 물체가 *(아무것도 더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크게, 다른 때는 작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고자 한다면, 그들은 그것이 작게 보일 때는 '압축되어' 있고, 크게 보일 때는 '희박해지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압축되어 있다', 그리고 '희박해졌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압축되어 있다는 것은 똑같은 물질 속에, 앞서보다도 적은 양이 들어 있는 경우이고, 그리고 희박해졌다는 것은 앞서보다도 많은 경우이다. 그것은 마치 양이 물질의 한계 결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어떤 결정된 양을 갖지 않는 물질이 있을 수 있었던 것과 같다. 바꾸어 말하면 양은 물체의 한계 결정이며, 그것에 의하여 우리는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보다 이 만큼 또는 이 크기만큼 크다든가 작다든가라고 말하는 것이다. 또는 그것은 마치 물체가 어떠한 양도 전혀 갖지 않고 만들어졌고, 나중에 이 물체의 밀도를 크게 한다든가 적게 한다든가 하는 의도하는 데 따라 많이 또는 적게 양을 넣는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혼의 쏟아 넣기 인간의 혼의 원인에 관하여 그들은 'Creatur Infundendo' 및 'Creando Infunditur'라고 한다. 그것은 '그것을 쏟아 넣음으로써 창조되었다' 및 '창조에 의하여 쏟아 넣어졌다'라는 것이다.

현출(現出)의 편재 감각의 원인에 관해서는 종(種), 즉 대상의 '나타내기(shews)' 또는 현출의 편재이다. 그것이 눈에 대한 현출일 때에는 '시각'이고, 귀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청각'이며, 입천장에 대해서는 '미각'이며, 콧구멍에 대해서는 '후각'이며, 신체의 나머지에 대해서는 '촉각'이다.

의지(意志)하는 것의 원인인 의지 어떤 특정의 행위를 이룩하려고 하는 의지, 그것은 '결의(volitio)'라 불리는 것의 원인에 대해서는, 그들은 어느 때에는 어떤 것을, 어떤 때에는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인간이 지니는 '기능(faculty)', 다시 말하

면 능력 일반을 할당해 주는 것으로서, 그것은 '의지력(voluntas)'이라 불리고, 그 '힘(power)'을 그 '행위(act)'의 원인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사람들의 선과 악의 행위의 원인으로서 그들이 그것을 하는 능력을 주어야 하는 것과 같다.

신비로운 원인으로서의 무지 많은 경우에 그들은 자연적인 여러 사상의 원인으로서 그들 자신의 무지의 탓으로 돌리고, 그러나 다른 말로 위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그들이 우연이라는 것은 뜻하지 않는 일들, 즉 그들이 어떠한 원인도 모르는 일들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경우나, 또는 그들이 많은 효과를 '신비로운 여러 성질'에 대해, 즉 그들에게는 알 수 없는 따라서 또한 *(그들이 생각하기로는)* 다른 어떤 인간에게도 알 수 없는 여러 성질에 귀속시키는 경우가 그러하다. 그리고 '공감', '반감', '반지속(反持續)', '특정적인 여러 성격', 그리고 그 밖의 비슷한 용어에로 귀속시키는 것으로서, 그것들은 그 여러 효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자는 물론 그들이 만들어 내는 작용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만일 그러한 '형이상학'과 '자연학' 등이 이와 같이 '공허한 철학'이 아니라면, 그러한 것은 결코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며, 성 바울이 그것을 피하도록 우리에게 경고를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한쪽은 사물을 일치하지 않도록 하고, 다른 쪽은 불일치를 만들어 낸다 그리고 그들의 도덕 및 정치 철학에 관해서는 그것은 같은 또는 보다 큰 불합리성을 가진다. 만일 사람이 부정의의 행위, 다시 말하면,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다면, 그들이 말하는 바로는 신은 법의 제1의 원인이며 또한 그 행위 및 그 밖의 모든 행위의 제1의 원인이지만, 결코 부정의의 원인은 아닌 것이며, 부정의는 법에 대한 행위의 비동조성(非同調性)이다. 이것은 공허한 철학이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한 사람은 곧은 선과 구부러진 선의 두 개를 만들고, 다른 사람은 그것들의 불일치를 만들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했다고 주장하면서 또 명예의 여러 속성으로부터 본성의 여러 속성을 만든다고 주장하면서 전제(前提)를 알기 전에 그들의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철학인 것이며, 이 구별은 자유 의지, 즉 신의 의지에 복종하지 않는 인간의 의지라고 학설을 지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사적인 욕구가 공공선(公共善)의 규칙이다 아리스토텔레스와 그 밖의 이교의 철학자들은 선과 악을 인간의 욕구에 따라 정의한다. 그리고 그들이 각기의 법에 따라 통치받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한 그것은 그것으로서 충분하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의 욕구 이외에 다른 법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에서 선과 악의 행위에 대한 어떠한 일반적인 규칙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어떤 코먼웰스 속에서는 이러한 척도는 그릇된 것이다. 사적인 사람의 욕구가 아니라, 국가의 의지와 욕구인 법이 척도인 것이다. 그러나 이 학설은 아직도 통용되고 있고,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의 정념에 의하여 그들 스스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행위의 선 또는 악, 코먼웰스 자체의 행위의 선악을 판단하고, 그리고 누구도 그 스스로의 눈에 그렇게 보인 것이 아니면 선 또는 악이라고 사람들은 부르지 않는다. 다만 일반 승려와 탁발 승려는 제외되며, 그들은 서약에 의하여 그들의 상좌(上佐)에 대한 무조건 복종에 구속되어 있는 것이다. 이 복종이라는 것은 모든 신민이 정치적 주권자에 대하여 하는 것과 같이 자연법에 의하여 구속되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선에 관한 이 사적인 척도는 공공 국가에 대한 공해일 뿐만 아니라 해로운 학설이기도 한 것이다.

그리고 합법적인 결혼이 부정(不貞)하다는 것 성직자에 대하여 결혼을 부정하는 근거로서 정결과 금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결혼이라는 일이 정결 또는 금욕에 모순된다고 말하고 그들을 도덕적인 악습이라고 하는 것도 또한 공허하고 허구의 철학인 것이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제단을 섬기고 주의 성찬의 운영에 봉사하는 이러한 신성한 성직에 대해 계속적인 정결과 금욕과 순결의 이름 밑에 여성으로부터의 끊임없는 절제를 요구하는 것은 교회의 설립 규약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처(妻)의 합법적인 활용을 정절과 금욕의 결여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와 같이 결혼을 하나의 죄 또는 적어도 불순하고 불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제단을 섬기는 데 부적당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만일 처의 활용이 금욕하는 것이 아니고, 정절에 반대된다는 이유 때문에 법이 만들어졌다고 하다면 모든 결혼은 도덕적인 악습인 것이다. 만일 그것이 신에 대하여 성화(聖化)된 사람에게 있어 지나치게 불순하고 불결한 것

이라면 모든 사람이 이룩하는 그 밖의 자연적이고, 필요하며 일상적인 일인 행위는, 그것들이 더 불결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제사가 될 만한 값어치가 없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사들의 결혼을 금지하는 이 감추어진 근거는 도덕 철학에 있어서와 같은 그러한 오류의 위에 가볍게 올려 놓은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성 바울, 즉 그는 그 박해의 때에 있어서 복음의 설교자였으며, 한 나라로부터 다른 나라에로 도망갈 것을 강요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처자의 돌봄으로 방해를 받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인가를 알고 있었던, 그의 지혜로부터 나온 것으로서 결혼의 상태보다도 단신 생활의 더 좋은 것에 근거가 있었다. 그 근거는 나중의 시대의 법황과 제사들의 기도(企圖) 위에 있었던 것이며, 그것은 그들을 성직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어서 신의 왕국의 유일한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꾸민 것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결혼의 활용을 빼앗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세주는 말하기를 그의 왕국이 올 때에는 신의 아들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으며 천국에 있어서의 신의 천사와 같이 되리라'라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일 것이라는 것이다. 거기에서 그들이 영적이라는 이름을 지녔다는 것으로 보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처의 소유가 인정되었던 것은 적당하지 않았다.

민중적인 것 이외의 모든 정부는 압정이다라는 것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 철학으로부터 그들은 민중적인 것 *(그때 아테네의 국가가 그러했던 것과 같이)* 이외의 모든 방식의 코먼웰스를 '압정(tyranny)'이라고 부르는 것을 배웠다. 모든 국왕을 그들은 압정자라고 불렀고, 그들을 라세데모니아의 사람들(Lacedemonians)에 의하여 거기에 설립된 30인의 통치자의 귀족 정치를 30인의 압정자라고 불렀다. 또한 민주 정치의 밑에 있는 백성들의 상태를 '자유(liberty)'라고 불렀다. '압정자(tyrant)'는 것은 근원적으로 '군주'를 뜻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나중에 그리스의 대부분은 그러한 종류의 통치가 폐지되었을 때, 이 이름은 이전에 이룩했었던 그러한 사물들뿐만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 민중적인 여러 국가들이 그것에 대하여 품고 있던 증오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국왕이라고 하는 이름이 로마에 있어서 여러

국왕의 제도가 폐지된 후 가증스러운 것이 된 것과 같은 것으로서 경멸을 가지고 강대한 적에 대해 주어지는 어떤 속성 속에 어떠한 큰 결함이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는 자연적인 일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같은 사람들이 민주 정치나 또는 귀족 정치의 운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면 그들은 그 노여움을 나타내기 위하여 수치스러운 이름을 찾으려고는 하지 않고 쉽사리 하나는 무정부라고 부르고 다른 것은 '과두 정치' 또는 '소수의 압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을 성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만 그들은 그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적당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대표자가 한 사람이 든 여러 사람들의 합의체이든,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것, 즉 제멋대로의 정부에 의하여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분히 내란의 조금 후에까지)* 그러한 제멋대로의 정부가 없었다면, 그와 같은 전쟁은 영구히 계속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말과 약속이 아니라 사람들과 무기가 여러 법의 힘과 권력 등을 만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윗사람들에게 나쁜 이름을 주는 것이다.

사람들이 아닌 법이 다스린다는 것 따라서 또한 그는 질서가 세워진 코먼웰스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법이 통치해야 한다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의 또 다른 오류이다. 어떤 사람이 쓰는 것도 읽는 것도 못 하지만, 타고난 감각을 가지고 있어, 그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가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더욱 그가 복종하지 않으면 그는 살해당하거나 또는 상해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믿게 될 것인가? 또는 어떠한 사람이 법, 다시 말하면 말과 종이가, 사람의 손이나 칼도 가지지 않고 그를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일은 많은 해로운 오류에 속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사람들이 그들의 통치자들을 좋아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 통치자들을 압정자(壓政者)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밀착하여 그들에게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합법적이라고 생각하도록 사람들을 꾀는 것이기 때문이며,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설교단으로부터 성직자들에 의하여 자주 소중히 여기게 된다.

양심을 지배하는 여러 법들 그들의 정치 철학에 있어서 또 다른 오류가 있는데 *(그*

들은 결코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또는 키케로로부터, 또는 이교도의 다른 것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행위에 관한 규칙인 법의 힘을 사람들의 사고와 양심에 그 자체에까지 뻗히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의 말과 행위의 순응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검사하고 '심문함(inquisition)'으로써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며, 그것으로서 사람들은 그들의 사고의 진실을 대답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거나 또는 처벌의 공포 때문에 진실이 아닌 것을 대답하도록 강요당하게 되는 것이다. 확실히 가르치는 것을 담당하는 대행자를 고용하려고 의도하는 위정자는 그들이 그렇고 그러한 학설을 설교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물어도 좋다. 그리고 거절당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고용을 거절해도 관계없다. 그러나 그의 행위가 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않다면 의견 때문에 그 스스로를 비난하도록 그를 강제하는 것은 자연의 법에 어긋난다. 만일 사람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한 조항에 관하여 그릇된 견해를 가진 채 죽는다면 영원의 또 극단적인 고문의 형벌에 처해져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왜냐하면 어떤 오류 속에는 그렇게 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 사람의 스스로에 대한 자연적인 배려에 의하여 그의 혼(魂)을 그의 단죄에 대해 관심이 없는 다른 어떠한 사람의 판단보다도 오히려 그 스스로의 판단에 맡기도록 강제당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을 것인가?

법의 사적인 해석 코먼웰스의 권위를 갖지 않는, 즉 바꾸어 말하면 그 대표로부터 허용되지 않는 한, 사적인 사람이 그 스스로의 정신에 의하여 법을 해석한다는 것은 정치학에 있어서 또 다른 오류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나 또는 어떤 그 밖의 이교도의 철학자들로부터도 이끌어 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 그 누구도 법을 만드는 권력 속에 필요하면 그것을 설명하는 권력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법이 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코먼웰스의 권위에 의하여 법이 되어 있고 따라서 시민법의 한 부분이 아닌가?

코먼웰스가 억압하고 있지 않았던 권력을 어느 누군가가 갖는다는 것을 주권자 이외의 누군가가 억압한다고 하는 경우도 또한 같은 종류의 것이다. 복음의 설교를,

법이 그것을 자유롭게 방치해 놓은 곳에 있어서, 한 특정 계층 사람들의 독점물로 하는 것과 같은 것이 그러한 것과 같다. 만일 국가가 나에게 설교하거나 가르치거나 하는 것을 나에게 맡긴다면, 즉 다시 말하면 그것이 나를 금지하지 않으면, 어떠한 사람도 나를 금지하지 못한다. 만일 내가 미국의 우상 숭배자들 속에 들어 있다면 나는 성직의 서열에 들어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 교도이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성직을 받을 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설교한다는 것은 죄가 된다고 생각해야 할 것인가? 또는 내가 설교한 후에 그들의 의문에 대답하고《성경》을 그들에게 해설하면 안 되는 것인가? 즉 나는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인가?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성례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러하듯, 그 필요는 충분한 사명으로서 평가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것도 또한 사실이다. 즉 어떤 일에 관해서도 필요의 대신에 특별한 면허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 만일 그것을 금지하는 법이 전혀 없다면 필요 대신에 특별한 면허도 소용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주권자가 이러한 기능을 부인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하여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합법적인 법을 떼어 없애는 것이며, 그것은 정치적 통치에 관한 학설에 반대하는 것이다.

공허한 철학에 관한 보다 많은 예는 스콜라 신학의 박사들에 의해 종교 속으로 가져 들어오게 한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만일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그들 스스로가 그것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스콜라 신학자들의 언어 나는 다만 다음과 같은 것만을 덧붙이고 싶다. 즉 스콜라 신학자들의 저술은 그 대부분이 낯선 야만스러운 말들이 라틴 말의 일상적인 사용이 아닌 달리 사용된 말의 뜻 없는 서열에 지나지 않으며, 키케로와 바로(Varro)나 고대 로마의 모든 문법학자를 시험해 보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만일 누군가가 그것이 증명되는 것을 보고자 한다면 *(내가 앞서 한 번 말한 바와 같이)* 그는 누군가의 어떤 스콜라 신학자가 프랑스 말이나 영어나 또는 그 밖의 어휘가 풍부한 언어와 같은 근대어의 어느 것으로 번역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케 하면 된다. 왜냐하면 이것들의 대부분의 것들 중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 것은 라틴 말에 있어서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언어의 그러한 무의미함은 비록 나는 그릇

된 철학으로서 기록해 놓을 수는 없다고 하지만, 진리를 감출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케 하고 그 이상의 연구를 그만두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전통으로부터의 오류 마지막으로 그릇되거나 또는 확실치 않는 역사로부터 가지고 들어오게 된 여러 오류에 대해서는, 성자들의 생애에 있어서의 꾸민 이야기 같은 기적의 모든 전설, 로마 교회의 박사들에 의해 주장된 지옥과 연옥과 귀신 물리기의 힘에 관한 학설과 또 이성이나 《성경》에 있어서나 아무것도 보증이 되지 않는 그 밖의 학설을 입증하기 위하여 주장하는 현출(現出)과 유령에 관한 모든 지나간 옛 이야기들은 그들이 쓸 수 없는 신의 말이라고 부르는 모든 전통과 같이, 늙은 할머니의 이야기 이외에 무엇인가? 그것에 관해서는 고대의 교부(敎父)들의 저술 속에 어느 정도 흩어져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 교부는 사람들로서 그릇된 기록을 지나치게 손쉽게 믿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그들이 믿고 있다는 증언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요한1서〉 4장 1절의 충고에 따르면)* 영을 시험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로마 교회의 권력*(그것의 남용을 그들은 의심하지도 않고 그것에 의한 이득으로 삼고 있다)*에 관련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기록을 너무나 성급하게 믿었다는 점에서 그들의 증언의 신용을 잃게 하는 힘밖에는 갖지 않는다. 거기에는 자연적인 여러 원인에 관한 지식을 갖지 않는 가장 성실한 사람들은 *(교부들이 그러했던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가장 흔히 빠지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가장 훌륭한 사람은 기만적인 목적에 관해서 적어도 의혹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법황 그레고리우스(Gregory)와 성 베르나르두스(St. Bernard)는 연옥에 있다고 하는 유령의 나타남과 같은 것을 지니고 있다. 우리의 비드(Bede)도 그러했다.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들의 기록에 따르는 것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들이나 또는 그 밖의 누군가가 그들 스스로의 지식에서 어떠한 그러한 이야깃거리를 관련 지운다면,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서 또한 보다 많은 공허한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결함이나 기만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

이성의 억압 허구의 철학을 도입하는 것을 우리는 진리의 판정자인 능력을 합법적

인 권위에 의해서 또는 충분한 연구에 의해서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진실의 철학을 억압하는 것과 결부시켜도 좋을 것이다. 대척자(對蹠者)가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의 여러 항해는 명백히 하고 있으며 인간의 여러 과학에 있어서 학식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나날이 더욱더 뚜렷해지는 것은 한 해와 하루가 대지의 운동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들의 저술 속에서 그러한 학설을 가정하여 그것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 이유를 밝혀 놓은 기회로 삼는다면, 그들은 그것 때문에 교회적인 권위에 따라 처벌되어 왔었다. 그러나 처벌을 위한 어떠한 이유가 있다는 것인가? 그러한 의견이 참다운 종교에 반대되는 것인가? 만일 그들이 진실이라면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먼저 진리를 능력 있는 판정자들에 의해 검사를 받거나 또는 반대의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반박하도록 하자. 그것은 그들이 기성종교에 대해 반대하기 때문인가?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복종하는 사람들의 법에 따라서, 즉 시민법에 따라서 그들을 침묵케 하자. 왜냐하면, 진실된 철학이라 하더라도 법을 어기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불복종은 합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반란이나 소란을 장려하는 것으로서 통치에 있어서의 무질서의 경향을 갖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 평정에 대한 배려가 위임되어 있는 사람의 권력에 의하여 그들로 하여금 침묵을 지키게 하고 교사들을 처벌하면 된다. 그것이 정치적인 권위인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 권력이 *(그들이 국가에 복종하는 곳은 어느 곳에 있어서나)* 그들 스스로의 권리에 대하여 자기들의 것으로 하는 모든 것은 그들이 그 권리를 신의 권리라고 부르고 있기는 하지만, 찬탈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제47장 그 같은 암흑에서 나오는 이익에 대하여 및 그 이익은 누구에게 귀속하는가

어떤 한 사실에 의하여 이득을 얻게 되는 사람은 그것의 장본인으로 추정된다 키케로는 로마 사람들 중에서 엄격한 재판관이었던 카시우스(Cassius) 집안의 한 사람에 대하여 명예로운 언급을 하고 있다. 그것은 형사 사건에 있어서 그가 가지고 있던 한 습관 때문이었으며, 그 습관이란 것은 *(목격자의 증언이 충분하지 못했을*

때) 고발자에 대해 '누가 그것 때문에 득을 보는가(cui bono)', 다시 말하면 어떠한 이익, 명예, 또는 그 밖의 만족을 피고가 그 범죄 사실에 의하여 획득 또는 기대했던가라고 묻는 것을 말한다. 즉 추정 중에는 그 행위에 의한 이득(benefit)만큼 누가 그것의 장본인인가를 명백하게 밝히는 것도 없다는 것 등이 들어 있다. 같은 규칙에 의하여 내가 여기에서 검토하고자 의도하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세계의 이 부분에서 그렇게 오래도록 백성을 인류의 평화로운 여러 사회에 반대되는 이러한 학설에 사로잡히게 한 것은 누구인가라는 것이다.

전투하고 있는 교회는 신의 왕국이다라고 한 것은 로마의 교회가 처음으로 가르친 것이다 그리고 첫째로, '지금 지상에서 전투하고 있는 현존하는 교회가 신의 왕국이다'*(즉 영광의 왕국 또는 약속의 땅이지, 땅의 약속에 지나지 않는 은총의 왕국은 아니다)*라는 이 오류에 다음과 같은 이 세상의 여러 이득을 덧붙이고 있다. 첫째로, 교회의 목자와 교사는 신의 공공적인 대행자로서, 그것에 의하여, 교회를 통치할 권리를 위한 자격이 주어지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교회와 코먼웰스는 같은 인격이기 때문에)* 코먼웰스의 교구 지도자 및 통치자를 위한 자격이 주어진다. 법황이 모든 그리스도교적인 군주들의 신민들을 설복시키고, 그에게 설복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 믿게 하여, 그와 그 밖의 군주들이 틀린 경우에는 모두 *('영적인 권력'이라는 말에 매혹되어)* 그들의 합법적인 주권자들을 포기시킨 것은 이 자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것은 사실상 모든 그리스도교의 세계에 걸친 하나의 보편적인 군주국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에 그리스도 교도인 황제들에 의하여 그리고 그들 밑에서 *(그들 스스로에 의하여 승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로마 제국의 한계 내에서 정치적 국가에 복종하는 관리였던 '최고 제사장(Pontifex Maximus)'의 칭호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교의에 관한 최고 교사가 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제국이 분할되고 난 후에는, 그들의 가장된 권력의 전체를 구제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미 로마의 제국으로서 통일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그리스도교적인 여러 지역에 미치기 위하여 이미 그들에게 복종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칭호, 즉 성 베드로의 권리를 억지로 강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이 하나의 보편적인 군주국

이라고 하는 이득은 *(지배에 대한 사람들의 욕망을 생각한다면)* 그것을 억지로 꾸며 오랫동안 그것을 향락한 법황들이 그것을 획득하는 수단이 되었던 학설, 특히 현재 땅 위에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왕국이다라고 한 학설의 장본인이라는 것을 추정하기에 충분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정된다면 그리스도의 계율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 그 대리인을 우리 중에서 갖는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교회가 법황의 이 보편적인 권력을 부인하고 난 후에는 그러한 교회의 모든 것에 있어서 정치적 주권자들이 *(그들이 무분별하게 손을 놓아 버리기 전에)* 그들 자신의 권리였던 것, 그리고 그들의 손아귀에 있었던 것들의 거의 대부분을 되찾은 것이라고 사람들은 당연히 기대할 것이다. 그리고 영국에 있어서는 그것은 실제로 그대로였다. 다만 국왕들이 종교 통치를 해 나가는 데 고용한 사람들이 그들의 업무가 신의 권리 속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정치 권력에 대한 최고성〔Supremacy〕은 아니라 하더라도 독립성을 찬탈하는 것같이 보인 것만은 별도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국왕에 대해 그들의 기능의 수행을 마음대로 그들로부터 박탈하는 권리를 인정한 것이므로 그것을 빼앗는 것같이 보였을 뿐이다.

장로회의에 의하여 유지되었다 그러나 장로회의〔Presbytery〕가 그 직무를 하게 된 그러한 곳에서는 로마 교회의 그 밖의 여러 교의를 가르치는 것이 금지되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미 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우리 구세주의 부활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 등의 교의만큼은 아직도 보존되고 있었다. 그러나 '누가 그것 때문에 득을 보는가?' 어떠한 이익을 그들은 그것으로부터 기대했던가? 법황들이 기대했던 것과 같은 것, 즉 백성들에 대해 주권을 갖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들의 합법적인 국왕을 파문하고, 그들 스스로의 왕국 안에서 신에게 대한 공공 봉사의 모든 장소로부터 나가라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리고 그가 힘을 가지고 그들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경우에, 힘을 가지고 그에게 저항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또 정치적 주권자로부터의 권위 없이 어떤 개인을 파문하고, 그로부터 그의 합법적인 자유를 빼앗고 다시 말하면 그들의 동포에 대한 비합법적인 권력을 찬탈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따라서 종교에 있어서 이 암흑의 창조자는 로마

와 장로파의 성직자들인 것이다.

무오류성 이 항목에 대하여 나는 이 영적인 주권이 얻어진 뒤에 그들이 그것을 소유하여 지켜 나가는 데 보탬이 되는 모든 교의를 참조하고자 한다. 첫째로는 '법황은 그의 공적인 자격에 있어서 오류를 저지를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이 진실이라고 믿는다면 그가 명령하는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기꺼이 그에게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가 있을 것인가?

주교들의 신종(臣從) 둘째로, 어떠한 코먼웰스에 있어서나 다른 모든 주교들은 그들의 권리를 직접적으로는 신으로부터나, 또는 간접적으로는 그들의 정치적 주권자로부터도 아니고 법황으로 받았다는 교의가 있으나 그것 때문에 법황이 비록 외국의 군주이기는 하나 그에게 의존하여 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많은 유력자*(그러한 사람들은 주교들이기 때문에)*가 어떠한 그리스도교적인 코먼웰스에도 존재하게 되는 것이며, 이것을 수단으로 하여 그는 *(자주 그 해 왔던 것처럼)* 그가 좋아하고 또 이익이 되는 것에 따라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굴복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내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성직자의 면제 셋째로, 이러한 그리고 그 밖의 제사들, 모든 일반 승려와 탁발승 등을 시민법의 권력으로부터 면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수단에 의하여 모든 코먼웰스에 있어서 그 대부분이 법의 이익을 즐기고 정치적 국가의 권력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비용의 어떠한 부분도 지불하지 않고 그들의 범죄에 대한 정당한 형벌에 따른 신민들과 같이 복종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는 법황 이외의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에게만 밀착하여 그의 보편적인 군주국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성스러운 사람들, 그리고 성화(聖化)라는 이름 넷째로, 그들의 제사들*(그것은 《신약성경》에서는 장로들, 즉 노인들에 지나지 않다)*에게 '성스러운 사람들', 즉 성화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주는 것이다. 그것은 유대 사람들 중에서는 신이 그들의 국왕이었던 것에 대해 정치적 주권자와 그의 공공 대행자들의 칭호였다. 또한 성찬을 성화한다는 것은 법황이 모든 그리스도 교도들에게 대하여 모세와 아론이 유대 사람들에 대해 가졌던 것과 같은 권력을, 바꾸어 말하면 제사장이 그때 가지고 있

던 것과 같은 정치적 및 교회적인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백성들에게 믿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결혼의 성례화(聖禮化) 다섯째로, 결혼이 하나의 성례라고 하는 가르침은 결혼의 합법성에 대한 판단을 성직자에게 위임하고 그것으로써 그 아들딸들이 적출(嫡出)인가 아닌가에 관해서, 세습제 왕국의 계승 권리에 관해서 판단을 위임하는 것이다.

제사들의 독신 생활 여섯째로, 제사들에 대한 결혼의 부정은 국왕에 대한 법황의 이 권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만일 국왕이 제사가 된다면 그는 결혼하여 그의 왕국을 그의 자손에게 전해 물려줄 수 없다. 만일 그가 제사가 될 수 없다면, 그 경우에는 법황은 그에 대한 이 교회적인 권위를 그의 백성에 대해서도 주장하는 것이다.

비밀의 참회 일곱째로, 비밀의 참회로부터 그들은 그들의 권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주들과 정치적인 국가의 유력한 사람들의 기도(企圖)에 관하여, 이들이 교회 국가의 기도에 관하여 가질 수 있는 것보다 더욱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자들의 시성(諡聖)과 순교자들의 선고 여덟째로, 성자들의 시성과 누가 순교자인가를 선고하는 것으로서 그들은 단순한 사람들을, 그들의 정치적 주권자들의 법과 명령에 반하여, 만일 뒤의 명령이 법황의 파문에 의하여 교회에 대한, 즉 *(그들이 그것을 해석하는 바와 같이)* 법황에 대한 이단자 또는 적이라는 것을 선고받게 되면, 죽음에 이른다 하더라도 끈질기게 반대하도록 권유함으로써 그들은 그 권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성변화(聖變化), 속죄, 사면 아홉째로, 그들은 같은 것을 그들이 모든 제사들에게 돌리고 그리스도를 만드는 힘, 그리고 속죄를 결정하는 힘, 죄를 용서하거나 보류하는 힘에 의하여 확보하는 것이다.

연옥, 면죄, 외면적인 일 열 번째로는 연옥, 외면적인 일들의 정당화, 그리고 면죄의 교의에의하여 성직자는 부유하게 된다.

악마학과 귀신 물리기 열한 번째로는 그들의 악마학과 그리고 거기에 속하는 귀신

물리기 및 그 밖의 일들을 활용함으로써 그들은 그들의 힘에 대한 보다 큰 두려움을 갖게 함으로써 *(그들은 그렇게 하려고 생각한다)* 유지하려고 한다.

스콜라 신학 마지막으로 대학*(그것은 법황의 권위에 의하여 설립되고 규제되어 왔다)*에서 가르치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윤리학, 정치학 및 스콜라 학자들의 경솔한 구별, 야만적인 용어, 그리고 애매한 언어 등은 그들이 그러한 오류들이 파헤쳐지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공허한 철학의 '도깨비 불(ignis fatuus)'을 복음의 빛으로 사람들을 잘못 생각케 하는 데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영적 암흑의 창조자들, 그들은 누구인가 이러한 일에 대하여, 만일 그것들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그들의 암흑의 여러 교의 중의 다른 것을 덧붙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교의의 이익은 명백히 그리스도교의 백성의 합법적인 주권자들의 위에, 하나의 비합법적인 권력을 설정하는 데에, 또는 그것이 설정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유지하는 데에, 또는 그것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이 세상의 재산과 명예와 권위에 대해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말한 '누가 그것 때문에 득을 보는가'라는 규칙에 따라, 우리는 모든 이 영적인 암흑의 장본인들로서 법황과 로마의 성직자와, 그 밖에는 지금 땅 위에 있는 교회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논급되고 있는 신의 왕국이라는 교의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잡게 하기 위하여 노력한 모든 사람들을 정당하게 공적으로 밝힐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황제들이나 그 밖의 그리스도 교도들의 주권자들은 그들의 통치 밑에서 그들의 오류나 그들의 직무에 대한 성직자들의 비슷한 침범이 처음에는 스며들어 그들의 소유물과 그들의 신민들의 평온 등을 교란하는 데까지 이르게 됨으로써 귀추에 대한 예견이 없거나 그들의 교사가 지니고 있는 기도에 대한 통찰이 없었기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의 그리고 공공의 손해에 대한 공모자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권위 없이는 처음에는 난동적인 교의가 공공연하게 설교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러한 것들을 처음에 저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나는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이 한 번 그들의 영적인 사람에 의하여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에는 적용될 수 있는 어떠한 인간적인 구제책을 그 누구도 창안해 내지 못했다. 그리고 진리에 어긋나는 사람들의

음모를 그가 하고자 할 때 모두 파괴하지 않고는 결코 그대로 두지 않는 신이 마련해 주는 구체책에 관하여, 우리는 그의 착한 뜻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그것은 자주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의 야심과 더불어 번영하여 대단한 높이까지 성장하여 그 난폭이 그들의 선행자들의 신중함에 의하여 이미 앞서 봉인된 눈을 뜨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고 또한 베드로의 그물이 너무나 많은 고기 떼들의 다툼 때문에 찢긴 것과 꼭 같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잡음으로써 모든 것을 도망가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다른 편으로 그들의 신민들의 눈이 뜨이기 전에 그러한 침범에 대해 저항하려고 애를 쓴 사람들은 그들이 저항하는 상대방의 힘을 증대시킨 것뿐이었다. 그러므로 나는 황제 프리드리히(Frederick)가 내 나라 사람인 법황 하드리아누스(Hadrian)의 안장의 발걸이를 받친 것에 대하여 그를 비난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때의 그의 신민들의 의향은 만일 그가 그러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제국을 계승하는 것은 있을 수 없었다라고 할 정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음에 그들의 권력이 완전했을 때, 그러한 여러 교의가 그들 스스로의 영토 안의 대학 등에서 꾸며 내는 것을 괴로워하면서 대대로 이어지는 모든 법황을 위한 안장의 발걸이를 받쳐 준 사람들을 나는 비난한다. 그때 법황들은 모든 그리스도교적인 주권자의 왕좌에 올라 마음 여기는 대로 그들과 그들의 백성의 양쪽을 애먹이고 피로하게 했다.

그러나 인간이 생각해 낸 것은 엮어 짤 수도 있는 것과 같이 흩뜨려 풀릴 수도 있는 것이다. 짜 가는 방법은 같으나 순서는 뒤집힌다. 직물(web)은 권력의 최초의 요소부터 시작된다. 그것은 현명, 겸양, 성실 그리고 그 밖의 사도들이 지니는 덕 등으로서 백성들은 그들에게 의무에 의해서가 아니라 존경으로부터 개종하고 복종했던 것이다. 그들의 양심은 자유로우며 그들의 말과 행위는 정치 권력 이외의 그 어느 것에도 복종하지 않았다. 나중에 장로들은 *(그리스도의 양 떼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숙고하기 위하여 모임을 갖고 그것에 의하여 그들의 합의체의 포고에 어긋나는 것은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도록 스스로 의무를 지워 그와 같이 함으로써 백성들은 그것에 따라 그들의 교의에 따르도록 의무 지워진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거부할 때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불복종이기 때문에 그들을 동료가 되기를 거절했다. *(그것은 당시에는 파문이라고 불리었다)* 그리고 장로의 수가 늘어나고 주요 도시나 또는 교구 지역의 장로들은 스스로 지방의 장로들에 대한 권위를 얻어 주교라고 하는 이름을 자기의 것으로 삼았다. 이것이 그리스도 교도의 자유에 관한 두 번째의 매듭〔어려운 일〕이었다. 끝으로 로마의 주교는 황제의 도시와의 관계에서 (*부분적으로는 황제들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그리고 '최고 제사장'의 자격에 의해서, 마지막으로는 황제들이 약해졌을 때에는 성 베드로의 여러 특권에 의하여)* 제국의 다른 모든 주교에 대한 권위를 떠맡았다. 그것이 세 번째의 그리고 마지막의 매듭〔어려운 일〕이었으며 제사 권력의 전체적인 '종합'이었고 '구축'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분석' 또는 '분해'는 같은 방법에 따르는 것이지만 잉글랜드에 있어서 초(超)정치적인 교회 통치의 해체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마지막으로 매어진 매듭〔어려운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첫째로, 법황의 권력은 엘리자베스 여왕에 의하여 전적으로 해체되었다. 그리고 주교들은 그 이전에 그들의 기능을 법황의 권리에 의하여 수행하고 있었지만, 그 후에는 같은 일을 여왕과 그 계승자의 권리에 의하여 수행했다. 다만 '신의 권리에 의하여'라는 말을 유보함으로써, 그들은 그것을 신으로부터의 직접적인 권리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하여 첫째의 매듭〔어려운 일〕은 풀렸다. 이것 후에 장로들이 잉글랜드에서 최근에 주교 감독제도〔Episcopacy〕의 폐지를 얻어 낸 것으로서, 이렇게 하여 둘째의 매듭〔어려운 일〕이 풀린 것이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권력을 장로들로부터 빼앗고, 그것으로서 우리는 원시 그리스도 교도의 독립성으로 되돌아가 모든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대로 바울이나 케페우스(Cephas)나 아폴론(Apollo)에게도 복종하는 것이 되었다. 만일 다투는 일 없이 또 그리스도 대행자의 인격에 대한 우리의 애착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교의를 헤아림*(〈고린도전서〉 1장 10~13절, 3장 3~5절에서 사도가 비난한 오류)* 없이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일 것이다. 첫째로, 사람들의 양심을 지배하는 것은, 말 그 자체, 즉 각 사람의 속에서 움직이는 신앙의 힘 이외에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말의 힘은 반드시 심고 물을 주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성장시키는 신 스스로의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것

이다. 둘째로, 모든 작은 오류에 있어서도 그러한 위험이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이성이 주어진 사람에게 어떤 다른 사람의 이성이나 또는 그 밖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의견의 이성에 따르도록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의 구제를 십자가와 화형의 더미에서 태우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한 교사들도 그들의 옛날 권위의 이러한 상실 때문에 결코 불쾌하게 여기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지만 그 권력은 그것을 획득한 것과 같은 여러 덕에 의하여, 즉 현명과 겸양과 교의의 명백함, 그리고 교류의 성실성 등에 의하여 유지되었던 것이며 자연의 여러 과학과 자연 이성의 도덕성과의 억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또한 언어의 애매함에 의해서도, 외모에서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꾸밈으로써 또는 종교를 구실로 삼는 기만에 의해서도, 또는 그 밖의 신의 교회의 목자들에게 있어서는 과오일 뿐만 아니라, 언젠가 그들의 권위의 억압 때문에 사람들을 비틀거리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다른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었다.

법황 제도와 요정(妖情)의 왕국과의 비교 그러나 '지금 전투하고 있는 교회가 《구약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의 왕국이다'라고 하는 이 교의가 현실 세계에서 받아들여진 후에는 거기에 속하는 직무 특히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위대한 직무를 위한 야심과 권유 운동,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의 주요한 공공 비용을 획득한 사람들의 허식이 점점 명백해졌기 때문에 그들은 목자의 기능에 대해 당연히 지불해야 할 내면적인 존경을 잃었던 것이다. 정치 국가에 있어서 어떠한 권력이든 그것을 갖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그들에 대한 그 이상의 복종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군주의 권위 이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다고 할 정도이다. 왜냐하면, 로마의 주교들이 성 베드로를 계승한다는 구실로서, 보편적인 주교로서 승인된 때로부터 그들의 전체적인 위계 질서 또는 암흑의 왕국은 '요정의 왕국', 다시 말하면 '유령'과 영과 그리고 그들이 밤에 갖는 향연에 관한 잉글랜드의 늙은 할멈의 '이야기'와 비교해도 어울리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일 이 위대한 교회 지배권의 근원을 고찰한다면 '법황 제도'는 죽어 망한 '로마 제국'의 '유령'으로서 그 무덤의 위에 왕관을 쓰고 앉아 있는 것에 지나지 않

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이하여 법황 제도는 그 이교 권력의 폐허에서 급작스럽게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들이 교회와 그들의 공공 행위의 두 경우에 쓰고 있는 언어도 또한 '라틴 말'로서, 그것은 오늘날 세계의 어떠한 국민에 의해서도 보통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그것을 낡은 '로마 언어의 유령' 이외는 아무것도 아니다.

'요정들'은 어떠한 국민 속에서 친하게 사귄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보편적인 국왕만이 가지는 것으로서, 그것을 우리나라의 어떤 시인은 '오베론(Oberon)' 왕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성경》은 악마의 군주, '바알세불(Beelzebub)'이라고 부른다. 그와 같이하여 성직자들은 어떠한 사람의 영토 안에 있든 한 사람의 보편적인 국왕인 법황만을 인정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성직자들'은 '영적인' 사람들이며 '유령과 같은' 신부들이다. 요정은 '영'이며 '유령'이다. '요정'과 '유령'은 암흑과 고독과 무덤 속에 산다. 성직자들은 교의의 애매함, 수도원, 교회 및 묘지 안을 거닌다.

성직자들은 그들의 주교 교좌 교회(主教教座教會)를 가진다. 그것은 어떠한 도읍에 세워지든 성수와 귀신 물리기라 불리는 어떠한 마력적인 힘에 의하여 그들의 도읍을, 다시 바꾸어 말하면 제국의 중심이 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요정들'도 또한 그들이 마법에 건 성(城)과 거대한 유령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그 주변의 지방을 지배하는 것이다.

요정들은 붙잡을 수가 없고 그들이 끼친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가져오게 할 수 없다. 그와 같이 성직자들도 시민적 재판의 법정으로부터 자취를 감추며 사라진다.

성직자들은 형이상학과 기적과 전통과 오용된 성경 구절로 이루어진 어떠한 매력으로써 젊은이들로부터 이성의 활용을 빼앗는 것이며,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성직자들이 그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집행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보탬이 안 된다. 그와 똑같이 요정들은 어린 아이들을 그들의 요람으로부터 이끌어 내서 그들을 타고난 어리석은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개구쟁이(elves)'라고 부르고 해악을 끼치기 마련이라고 한다.

요정들이 어떠한 일터 또 기계 조작실에서 어떠한 그들의 마력을 만들 것인가를

늙은 할멈들은 결정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성직자의 기계 조작실은 법황의 권위로부터 그들의 규율을 받아들인 대학이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요정들이 누군가에 대해 노여움을 갖게 될 때, 그들을 괴롭히기 위하여 그들의 개구쟁이를 보낸다고 말하고 있다. 성직자들이 어떠한 정치적인 국가에 대해 노여움을 살 때도 또한 그들의 개구쟁이, 즉 다시 말하면 미신적이고, 마력에 걸린 신민들을, 난동을 고취함으로써 그들의 군주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또는 어떤 군주를 약속으로 홀려 다른 군주를 괴롭히는 것이다.

요정들은 결혼하지 않지만, 그들 중에는 몽마(夢魔, incubi)가 있어서, 그것은 살과 피의 교합(交合)을 가지고 있다. 제사도 또한 결혼하지 않는다.

성직자들은 그들에게 대하여 항상 두려움을 품고 무지한 사람들의 헌납에 의해서 또 10분의 1세에 의해서, 토지의 가장 좋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와 꼭 같이, 요정들의 이야기에서도 그들은 우유 집에 들어가 그들이 밀크에서 걸러 낸 크림으로 향연을 베푼다.

어떠한 종류의 화폐가 요정들의 왕국에서 통용되고 있는가는 그 역사의 이야기 속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성직자들은 그들의 수입에 있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것과 같은 화폐를 받는다. 그러나 그들이 무엇인가 지불해야 할 때에는 시성(諡聖) · 면죄 · 미사로 지불한다.

법황 제도와 요정들의 왕국과의 비슷한 것에 관해 위에서 말한 것,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에 다음과 같은 것이 덧붙여질 수 있다. 즉, 그 요정들은 늙은 할멈이나 또는 늙은 시인들의 전설에서 나오는 무지한 사람들의 환상 속에서만이 실존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법황의 영적인 권한도 *(그 스스로의 정치적 영역의 경계 밖에서)* 또한 속인 사람이 그릇된 기적, 그릇된 전통, 그릇된《성경》의 풀이 등을 들고 그들의 파문에 대하여 품게 되는 두려움 속에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헨리 8세가 그의 귀신 물리기에 따라, 또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의 그것으로서 그들을 쫓아냈던 것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 밖으로 나아가, 전도의 신명을 받아 중국, 일본 그리고 인도 등과 같은 적은 과실을 생산해 내는 메마른 곳을 거닐고 있는 이 로마의 영이 또다시 돌아올 것인가, 또는

그보다 더 나쁜 영의 합의체가 들어가 이 깨끗하고 살기 좋은 집에 살면서, 그 장래를 처음보다 더 나쁘게 만들지 않는다고 그 누가 알고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신의 왕국이 이 세상의 왕국이라고 주장하고, 그것으로써 이 세상에서 정치적 국가의 권력과는 구별되는 권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로마의 성직자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정치(Politiques)의 학설에 관하여 내가 말하려고 기도했던 것의 모두이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을 총괄한 다음, 나는 스스로 우리 나라 사람들의 비판을 구하고자 한다.

총괄과 결론

올재 후원하러 가기

총괄과 결론

어떤 한 정념의 다른 정념에 대한 관계가 그러하듯, 마음의 자연적인 여러 능력 중의 어떤 것은 서로 모순된다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교류에 대한 그들의 관계로부터 누구든지 사람은 모든 종류의 시민적인 의무를 다하려고 하는 느낌을 충분히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추론하는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들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판단의 엄격성은 사람들을 시빗거리로 만들어 다른 사람의 오류나 약점을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쪽으로는 상상력이 신속하면 여러 사고는 옳고 그른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데 필요로 하는 확고성이 덜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숙고에 있어서 또 모든 변론에 있어서 확고한 추리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것이 없으면 사람들의 결단을 서두르게 되고 그들의 판단을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거기에 강력한 웅변이 있어 주의와 동의를 획득하지 못한다면 추리의 효과는 조그마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대립적인 능력으로서 앞의 것은 진리의 여러 가지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고, 뒤의 것은 진리이든 혹은 허위이든 이미 받아들여진 의견과 사람들의 서로 다르고 그리고 쉽게 변하기 마련인 정념과 이해 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여러 정념 중에서 '*용기(즉 상해나 변사를 가볍게 여기는 것을 뜻한다)*'는 사람들의 기분을 사적인 복수에로 기울게 하고 때로는 공공의 평화를 어지럽게 하려는 노력에로 기울게 한다. 그리고 '겁쟁이'는 자주 공공의 방위를 포기하려고 하는 생각을 생기게 한다. 이 두 가지 모두는 같은 한 사람 속에 같이 들어 있기란 불가능하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일반적인 의견과 생활 태도의 모순에 관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일들로서 서로 교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변하지 않는 시민적인 우호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으며, 그 일들은 명예와 재산과 권위를 위한 영구의 투쟁 이외에 거의 아무것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것에 대하여, 나는 이것들은 정말로 극히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일

은 아니라고 대답한다. 왜냐하면 교육과 훈련에 의하여, 그들은 화해될 수 있고 또 때로는 화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판단력과 상상력이란 같은 한 사람 속에서 존재할 수 있으나 그들이 목적으로 하는 목표에 따라 차례로 그렇게 된다.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때로는 벽돌을 만드는 그들의 노동에 얽매이고, 또 어떤 때는 짚을 모으기 위해 여러 곳을 배회하고 다닌 것과 같이 어떤 때는 판단력이 어떤 한 가지의 고찰에 고정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때는 상상력이 세계를 헤매고 있을 것이다. 또 그와 같이 추리와 웅변은 *(자연 과학에서는 그러하지 않지만 도덕적인 여러 과학에 있어서는)* 아주 잘 양립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디에서나 오류를 찬미하거나 선호하는 여지가 있는 곳에서는 진리를 찬미하고 선호하는 여지는 만일 찬미할 만한 진리가 있다면, 보다 더욱 클 것이다. 더욱 법을 두려워하는 것과 공공의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침해를 그만두는 것과 다른 사람의 그것을 용서하는 것 간에는 어떠한 모순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성은 몇몇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시민적인 의무와 그렇게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나는 판단의 명쾌함, 상상력의 크기, 추리의 세기, 그리고 우아한 웅변, 전쟁을 위한 용기와 법에 대한 두려움, 그 밖의 모든 것을 나는 한 사람이 탁월하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나의 보다 고귀하고 존경하는 친구 시드니 고돌핀 씨였다. 그는 어떠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았고, 누구로부터도 미움을 받지 않았으나 최근의 내란이 시작할 무렵 공공체의 싸움 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또 누구인가를 구별하지 않는 손에 의해서 불행하게도 살해당했던 것이다.

15장에서 밝힌 자연의 여러 법에 대하여 나는 다음과 같은 것을 덧붙이고자 한다. 즉 '모든 사람은 평화의 시기에 있어서 그 스스로가 보호를 받고 있는 권위를, 전시에 그가 가능한 한 보호를 하도록 자연에 의하여 구속되어 있다'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스스로의 신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자연의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힘에 의하여 스스로가 보존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파괴하는 자연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으며 그것은 명백히 자기 스스로의 모순인 것이다. 그리고 이 법은 거기에서 이미 언급한 여러 법 중의 몇 가지로부터 그 결과로서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가르치고 기억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인쇄된 여러 가지의 영국 책에 의에서 내가 알 수 없는 것은 신민이 정복자에게 복종하게 되는 것은 어떤 시점에서인가, 정복이란 무엇인가, 정복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의 여러 법에게 복종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가에 관하여 여러 내란은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기에 관하여 사람들을 더욱 만족시키기 위하여, 나는 어떤 사람이 정복자에게 복종하게 되는 시점이란, 그 사람이 그에게 굴복하는 자유를 가지고서 명백히 표현된 말이나 또는 그 밖의 만족스러운 표시에 의하여, 그의 신민이 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그 시점이라는 것이다. 한 사람이 굴복하는 자유를 가진다는 것은 언제인가 하는 것을 21장의 끝에서 설명했다. 특히 보통의 신민이 그의 이전의 주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것 이외의 의무를 갖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의 생활의 수단이 적의 감시나 요새 안에 들어갈 때의 경우이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그는 이전의 주권자로부터 그 이상의 보호를 받지 않고 그의 공납만큼의 보호를 반대의 쪽(적)으로부터 받게 된다. 따라서 그러한 공납이 어디에서든지 *(그것이 적에 대한 원조이라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일로서 합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전면적인 항복은 적에 대한 하나의 원조에 지나지 않으며 비합법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 밖에, 만일 항복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 전부를 가지고 원조하고 있는 데에 대해, 행복한 사람들은 그의 적을 그들의 재산의 일부만으로밖에 원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굴복 또는 타협을 원조라고 부를 만한 이유는 없는 것이며, 그것은 오히려 적에 대해서는 손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신민의 의무 이외에 병사의 새로운 의무를 지게 되면 낡은 권력이 그 진지(陣地)를 수비하고 있는 한, 또 그 군대나 수비대가 그에게 생존 수단을 주고 있는 한, 그는 새로운 권력에 복종하는 자유를 가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경우, 한 사람의 병사로서 보호와 생활 수단이 없다는 것을 불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일 또한 없어지면, 병사 또한 어디에서든지 그것을 보다 많이 갖고자 바라는 곳에서 그것을 찾아도 좋은 것이며, 그의 새로운 주인에게 그 스스로를 굴복하는 것도 합법적일 것이다. 그리고 그가 바란다면 그것을 합법적인

것이 될 수 있게 하는 시기는 어느 때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그치기로 한다. 따라서 만일 그가 그것을 한다면 그는 의심 없이 참된 신민이 되는 것을 의무 지워지게 된다.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이룩된 계약은 합법적으로 폐기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으로써 사람들이 정복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언제이며, 또 정복의 본성과 정복자의 권리는 무엇 속에 있는 것인가 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항복은 그런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정복은 승리 그 자체가 아니라, 승리에 의한 사람들의 신변에 대한 권리의 획득인 것이다. 따라서 살해하는 것은 이겨 내는 것이지 정복하는 것은 아니다. 사로 잡혀 투옥되거나 또 사슬에 묶이거나 하는 것은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 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끊임없이 원수이며, 가능하다면 그는 도망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종의 약속을 함에 있어서 그의 생명과 자유를 그에게 허락할 수 있는 것은, 그때에 정복당하고 또 신민이 되는 것이며, 그 이전에는 허락될 수 없다. 로마 사람들은 다음과 말하기 마련이었다. 즉 그들의 장군이 어떤 '교구의 지역을 평정했다', 즉 다시 말하면 영어로는 '정복했다' 그리고 한 나라의 백성이 '명령을 내리다', 즉 '로마의 백성들이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을 약속했을 때에는 그 나라는 승리에 의하여 '평정되었다'라고 했다. 바로 이것이 정복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약속은 명백하게 밝힌 것이거나 또는 암암리에 밝힌 것이 무관하다. 명백히 밝혀진 것이란 약속에 의한 것이고, 암암리에 밝힌 것이란 그 밖의 표지에 의한 것이다. 예를 들면, 그와 같이 명백하게 밝힌 약속을 하도록 요청을 받은 일이 없는 사람은 *(그는 그의 권력이 고려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들의 보호 밑에서 공공연하게 생활을 한다면, 그는 그 통치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그러나 만일 거기에서 비밀리에 생활하고 있다면, 그는 간첩에 대하여, 또한 국가의 원수에 대하여 할 수도 있는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가 이룩하는 어떠한 부당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공공연한 적대 행위는 그러한 이름을 지닐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당해도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의 나라가 정복을 당했을 때, 나라의

밖에 있었다면, 그는 정복을 당한 것도 또한 복종을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만일, 나라에로 돌아올 때 그가 그의 통치에 굴복한다면, 그는 그것에 복종하도록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복'이라는 것은 *(그것을 정의한다면)* 승리에 의하여 주권이라는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권리는 백성들의 굴복에 있어서 획득되는 것이며, 그들은 그 굴복에 의하여 승리자에 대하여 생명과 자유 대신에 복종을 약속하는 것이다.

29장에서 나는 여러 코먼웰스의 해체의 여러 원인의 하나로서 그 불완전한 생성을 들었지만, 그것은 절대적이고 제멋대로의 입법 권력이 없다는 데 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정치적 주권자는 정의의 칼을 일관성 없이 다루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지키기에는 너무나 뜨거웠던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한 것의 이유의 하나*(그것을 거기에서는 논하지 않았다)*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그들이 권력을 처음에 잡음으로써 일어나는 전쟁,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같이)* 그들의 권리가 소유에서가 아니라 그것에 의존하고 있다는 그 전쟁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영국의 국왕들의 권리는 정복자 윌리엄의 주장의 정당성에 의존했고, 그리고 그들이 그들로부터의 직계의 가장 직접적인 후손이라는 것에 의존하는 것과 같으면 그것으로써 오늘날 모든 세계에서는 신민들의 복종을 그들의 주권자에게 결부시키는 것은 아마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말할 필요 없이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야심은 어느 때이든 그들과 그들의 후계자들에게 대항하면서 일으키는 모든 성공적인 반란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어떠한 나라이든 죽음의 가장 효과적인 씨앗의 하나로서 정복자들이 장래를 위한 사람들의 행위를 그들에 대한 항복뿐만 아니라, 그들의 과거의 모든 행위의 승인을 또한 얻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경우 코먼웰스의 시초가 양심에 있어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이 세계에 흔하지 않다.

그리고 압정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권이 한 사람에게 있든 또는 여러 사람에게 있든 주권이라고 하는 명칭 그 자체를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게 나타내는 것으로서 다만 앞의 말을 쓰는 사람들은 그들이 압정자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게 대하여 화를 내고 있다고 이해한다는 점에서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압정에 대한 공공연한 증오를 관용한다는 것은 코먼웰스 일반에 대한 증오를 관용하는 것이며 앞의 경우와는 크게 다르지 않는 또 하나의 흉악한 씨앗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어떤 정복자의 대의명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정복을 당한 사람의 대의명분을 비난하는 것이 대부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누구도 정복을 당한 자의 복종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이 논구의 1부와 2부의 총괄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한 것은 이것뿐인 것이다.

35장에서 나는《성경》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것을 충분하게 밝혔다. 즉 유대 사람들의 코먼웰스에 있어서는 신 스스로가 백성과의 계약에 의하여 주권자를 만든 것이며, 따라서 그 백성은 그들을 세계의 다른 백성들로부터 구별하기 위하여 그의 '특별한 백성'이라 불리었던 것이며, 그것은 신이 그들에게 대하여, 그들의 동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군림한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이 왕국에 있어서 모세가 땅 위에 있어서의 신의 대리인이었던 것, 그리고 또한 그들이 지배를 받아야 할 어떠한 여러 가지 법을 신이 그들에게 지정했던가를 그들에게 말한 것은 바로 그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집행, 특히 사형에 있어서 집행을 하기 위하여 지명된 관리들이 누구였던가를 규정하는 것을 제의했다. 그것은 내가 그 후에 알게 된 것만큼 고찰해야 할 필요가 있을 일들이라고는 그때에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지만, 모든 코먼웰스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체형의 집행은 호위병이나 그 밖의 주권이 거느리는 병사들에게 주어지거나 또는 생활 수단이 없고 명예에 대한 경멸감, 마음의 냉혹함 등과 같은 것이 일어나 그와 같은 직무를 간청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서는 사형에 처할 만큼의 죄를 저지를 사람은 백성들에 의하여 죽음에 이를 때까지 돌을 던져야 하고, 그 증인들이 첫 돌을 던져야 하고, 증인들 다음에 그 밖의 사람들이 돌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권자인 신의 실정법이었다. 이것은 누가 집행자가 되어야 하는가를 예정한 법으로서 집회가 재판관인 곳에서 유죄 선고와 판결에 앞서 누군가가 그에게 돌을 던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집회 자체가 열리고 있는 데서 또는 합법적

인 재판관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저질러진 것이 아닌 이상 증인들은 그들이 집행하기 전에 심리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재판관 그들 이외에는 다른 증인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 절차의 방법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열정의 권리로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죽여도 좋다는 위험한 의견을 일으키게 했다. 그것은 마치 옛날의 왕국에서 위법자에 대한 집행이 주권적인 명령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사로운 열정의 권위로부터 나온 것과 같은 것으로서, 그것은 우리가 그것에게 이롭게 보이는 성경의 본문을 고찰한다면, 전적으로 정반대가 된다.

첫째로, 황금의 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던 백성을 레위 지파가 습격하여, 그들 중 3천 명을 살해했을 경우 〈출애굽기〉 32장 27절에서 명백한 바와 같이, 그것은 신의 입에서 나온 모세의 명령에 따랐던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한 부인의 아들이 신을 모독했을 때, 그것을 들은 사람은 그를 죽이지 않고, 모세 앞으로 데리고 왔고, 모세는 신이 그에게 대하여 판결을 내려야 할 때까지 그를 감금했던 것이며, 그것은 〈레위기〉 24장 11~12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다. 또한 비느하스가 시므리와 고스비를 죽였을 때 그것은 사사로운 열정의 권리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1] 그들의 범죄는 회의(會議)의 눈앞에서 저질러진 것이었으며, 거기에서는 증인이 필요하지 않았다. 법은 알려져 있었고, 그리고 그는 주권의 법적인 추정 상속인이었다. 또한 주요한 점은, 그의 행위의 합법성은 모세에 의한 추인(追認)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것이며, 그는 그것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어떠한 이유도 갖지 않았었다는 것이다. 장래의 승인에 대한 이 추정은 때로는 코먼웰스의 안전을 위해 필요했으며, 예를 들면, 갑자기 일어난 반란에 있어서 그것이 시작한 나라 안에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억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명백한 법이나 또는 위임 없이도, 그것을 행하고, 또 그것이 행해지고 있는 동안 또는 그것이 행해진 후에 승인 또는 용인될 수 있도록 대비해도 합법적이다. 그리고 〈민수기〉 35장 30절은 '사람을 죽인 자 곧 고발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라고 명백히 말

1 〈민수기〉 25장 6~7절.

하고 있으나 증인이라는 것은 정식의 재판을 상정하고, 결과적으로는 열정자(熱情者)의 권리(Jus Zelotarum)에 대한 그 주장을 비난하는 것이다. 우상 숭배(*즉 다시 말하면, 신의 왕국에 있어서 그의 충성을 포기하는 것*)를 부추기는 사람들에 관한 모세의 법은 그를 감추는 것을 금했고 고발자에 대하여 그에게 죽음이 주어지도록 이끌고, 그에게 처음의 돌을 던지도록 명령하고 있다.[2] 그러나 그가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는 그를 죽이라고 명령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항하는 소송 절차는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신이 백성에 대하여 재판관으로서 말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어떤 사람이 우상 숭배로 고발되면, 그 사실을 열심히 조사하고,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알게 되면 그때 그에게 돌을 던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며, 그러나 그래도 증인의 손이 처음의 돌을 던지는 것이다.[3] 이것은 사사로운 열성(熱誠)이 아니라 공적인 비난인 것이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아버지가 반항적인 아들을 가지는 경우의 법은 아버지가 그를 그 도시의 재판관 앞으로 데리고 와야 하고 그리고 그 도회지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져야 한다.[4] 마지막으로 이러한 법들에 의한다는 구실도 스데반은 돌을 맞았고, 사사로운 열성이라는 구실에 의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형의 집행을 위하여 이끌려 가기 전에 그는 제사장의 앞에서 그의 소명(疏明)을 변론했기 때문이다. 《성경》의 이 부분 또는 어떤 그 밖의 부분도 모두 사사로운 열성에 의한 집행을 장려하는 부분은 없다. 그것은 가끔 무지와 정념의 결합인 것이며, 코먼웰스의 정의와 평화의 양쪽에 반대되는 것이다.

36장에서 나는 신이 어떠한 방법으로 초자연적으로 모세에게 말했는가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것은 그가 다른 예언자들과 같이 모세에게 때로는 꿈과 환상에 의하여 또 초자연적인 소리로써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가 속죄소(the Mercy-Seat)로부터 모세에게 어떤 방법으로 말했는가는 〈민수기〉 7장 89절의 다음의 말 속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2 〈신명기〉 13장 8~9절.
3 〈신명기〉 17장 4~7절.
4 〈신명기〉 21장 18~21절.

즉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에게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그러나 모세에 대하여 신이 말하는 방법이 다른 예언자들, 예를 들면 사무엘과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방법보다 더욱 훌륭하다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그들에게 대해서도, 그는 소리쳐 *(즉 환상으로써)* 말했던 것이며, 그 차이가 환상의 명확성에 있다는 것이 아닌 이상 그러하다. 왜냐하면 '얼굴로부터 얼굴로' 그리고 '입으로부터 입으로'라는 것은 신의 본질인 무한정성과 비포괄성에 대하여 문제 그대로는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이 학설 전체에 관해서 나는 그것의 여러 원리가 진실하고 타당하며 이성적인 추리가 확고하다는 이외에는 아직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나는 주권자들의 정치적 권리와 신민들의 의무와 자유의 두 가지를 인류의 잘 알려진 자연적 성향과 자연법의 여러 조항의 바탕 위에 쌓아올린 것으로서 그것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그 개인의 가족을 다스리는 데 충분한 이성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지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또 같은 주권자들의 교회적 주권에 관해서, 나는 그것 스스로가 명백함과 동시에《성경》전체의 영역에 일치하는 그러한 본문 위에서 이룩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것에 의해서만이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그것을 읽는 사람은 그것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이 저술이나 또는 공공의 논구에 의해서 또는 그들의 눈에 띄는 행위에 의하여 반대의 의견을 주장하는 일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들은 그렇게 손쉽게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경우에는 그들이 전에 읽은 바 있는 것에 대한 반론을 찾아 내어 읽어 가면서 동시에 그들의 주의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들(반론들)은 사람들의 이해 관계가 변하게 되는 그때에는 *(새로운 통치의 수립에 보탬이 되는 그러한 학설의 대다수는 당연히 낡은 통치의 해체에로 이끌어 갔던 것에 반대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대단히 많은 것이 뽑히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교의 코먼웰스를 다루고 있는 부분 중에는 몇 가지의 새로운 학설이 있으

며, 그것들은 그것의 반대가 이미 충분히 결정된 국가에 있어서는 공포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신민으로서 잘못된 일이며, 그것은 교사의 지위를 찬탈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평화뿐만 아니라 진리도 또한 필요로 하고 있는 이때에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리고 분명히 평화와 충성에 대해 보탬이 되고, 또 깊이 생각 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려에 보탬이 되는 그러한 여러 학설을 제공하는 것은 새로운 통에 담아야 하는 새로운 포도주 등 그 모두가 보존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새롭고 신기한 것이 국가 안에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또는 무질서도 생겨나지 않을 때 새롭고 그리고 훌륭하게 증명된 진리보다 앞서는 옛날의 오류를 좋아하는 것같이 오래된 것을 좋아하는 경향을 일반적으로 갖지 않는다.

나는 나의 웅변술처럼 믿지 않는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쇄의 불운을 빼놓고)* 나는 그것이 애매하지 않다고 확신한다. 나는 최근의 습관에 반대하여 고대의 시인, 웅변가 및 철학자를 인용하는 장식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그것을 훌륭하게 했건 또는 잘못했건 간에)* 많은 여러 가지 이유에 바탕을 둔 나의 한탄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첫째로는, 학설의 진리라는 것은 모두 '이성'이나 또는 '성경'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며, 그 두 가지 모두가 많은 저작자들에게 신용을 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떠한 저작자들로부터도 그것을 결코 받지는 않는다. 둘째로, 문제가 되어 있는 일들은 '사실'에 관해서가 아니라 '권리'에 관한 것으로서, 거기에는 '증인'을 위한 여지는 없다. 오래된 저작자들의 어느 누구도 때로는 그들 스스로와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저작자들에게 모순되지 않는 것은 흔하지 않다. 그것은 그들의 증언을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만든다. 넷째로, 오래된 것의 신용이란 것에만 바탕을 둔 그러한 의견들은 그것들을 인용하는 사람들에게 고유한 판단이 아니라, 입으로부터 입으로 *(하품과 같이)* 건너가는 말들에 지나지 않다. 다섯째로, 사람들이 기만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들의 썩어 빠진 학설에게 다른 사람의 재치인 향료를 덧붙이는 일이 자주 있다. 여섯째로, 그들이 인용하는 고대 사람들은, 그들보다 앞서 저술한 사람들과 같은 것을 장식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나는 알지 못한다. 일곱째로, 그리스 및 라틴의 문장이 깊이 생각되지 않고 그들이 으레 하는 것처럼, 그

대로 다시 떠올라 오는 것은 소화 불량의 논거이다. 끝으로, 옛날 시대의 사람들이 명백하게 진리를 써 놓았거나 또는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찾아 낼 수 있는 보다 좋은 길로 우리를 들어서게 하든지 하는 것을 나는 존경하지만, 그러나 오래 되었다는 것 그 자체에게 돌릴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연령에 대해 경의를 나타낸다면 현재는 가장 많이 늙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 만일 저작자의 오래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명예가 주어지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지금 저술하고 있는 나보다도 그들이 저술했을 때에 더욱 오래된 사람이었는지 여부가 나에게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것을 잘 생각한다면, 옛날의 저술자들에 대한 찬양은 죽은 사람에 대한 존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살아 있는 자들의 경쟁과 서로의 질투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결론을 내리면, 이 논구의 전체 속에나 또는 내가 이전에 같은 제목에 관해 라틴말로 저술했던 논구(《시민론》) 속에서도, 내가 인식하는 한, 신의 말이나 또는 선량한 생활 태도에도 어긋나는 것은 없고 또는 공공의 평온을 어지럽히는 것도 없다. 따라서 나는 인쇄되는 것이 이로울 것이고, 또 여러 대학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이 더욱 이로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여러 대학이 사회적 및 도덕적인 여러 학설의 원천이며, 거기로부터 설교자들이나 명문층이 발견하는 데로 물을 뿜어 내 그것을 백성들에게 뿌리는 것을 보면 *(설교단으로부터, 또 서로의 교류에 있어서도)* 이교도의 정치가들의 독액(毒液)의 그 두 가지로부터, 그리고 또 기만하는 영의 주문으로부터도 그것을 순수하게 하기 위하여 확실하게 대단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의무를 알기 때문에 소수의 불만에 찬 사람들의 야망에 대해 국가에 반대되는 목적을 가지고 봉사하는 경향이 그만큼 적어질 것이고, 그들의 평화와 방위를 위해 필요로 하는 공납에 대해 불만을 품는 일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통치자 스스로는 외국의 적들의 침입이나 침범에 대하여 공공의 목적을 확보하는 데 필요로 하는 것보다 많은 군대를 공동의 부담으로 유지하는 이유가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나는 현재 이 시간의 혼란에 의하여 나타난 정치적 및 교회적인 통치에 관한 나의 논구를 치우침 없이 편향 없이 사람들의 눈앞에 보호와 복종 간의 상호 관계를 제시한다는 의도만으로서 끝까지 이끌어 왔다. 이 상호 관계에 관해서는 인간적인 자연의 상태와 신의 여러 가지 법*(자연법과 실정법 모두)*이 범할 수 없는 준수를 요구한다. 그리고 여러 국가의 변혁에 있어서 이러한 성질의 여러 진리가 그 밑에서 태어나게 되는 대단히 훌륭한 별자리란 있을 수 없으나 *(낡은 통치의 해체를 담당하는 자들로부터는 노여움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새로운 통치를 세우는 사람들의 뒷모습만을 보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현재에 있어서 학설의 공공적인 재판관에 의해서나 또는 공공의 평화 계속을 바라는 것에 의해서 비난받게 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희망 속에서 나는 나의 자연의 물체에 관하여 중단된 나의 사색《물체론》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며, 그 속에서 *(만일 신이 나에게 그것을 끝맺을 수 있는 건강을 준다면)* 새롭고 신기한 것이 이러한 인공적인 물체에 관한 학설에 있어서 가끔 성나게 하는 것과 같이 많은 기쁨을 주는 것을 나는 바라고 있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람의 이득이나 또는 즐거움에도 배반하지 않는 그러한 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은이 소개 | **토마스 홉스** (1588~1679)

영국의 맘즈베리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했다. 역사와 고전뿐만 아니라 기하학과 자연과학 등에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근대 시민 국가의 사상적 기반이 된 사회계약론의 틀을 만든 사상가이다. 《시민론》《리바이어던》《물질론》《인간론》《베헤모스》 등을 저술했으며 전제군주제를 이상적인 국가형태라 주장했다.

옮긴이 소개 | **이정식** (1931~2010)

전라남도 영광 출생. 정치학자겸 정치인이다. 서울대학교 문리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친 뒤 동국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동국대 교수를 지냈으며, 서원대 3대 총장을 역임하였다. 1976년부터 1979년까지 제9대, 10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 편저로 《해방30년사(제2공화국편)》《한국 정치 상황의 제단면》《한국의 민주주의》《정치학》 등이 있고, 역서에 《정치학개론》(공역) 《리바이어던》《민주주의의 모델》 등이 있다.

리바이어던

©사단법인 올재

발행 | 2014년 12월 15일
펴낸이 | 홍정욱
기획 · 편집 | 이상민 김화란
편집디자인 | 황인정
펴낸곳 | 사단법인 올재
출판등록 | 2011년 11월 4일 제300-2011-188호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4길 10
전화 | 02-720-8278
팩스 | 02-773-0250
홈페이지 | www.olje.or.kr
ISBN | 978-89-97876-37-2
* 표지 제호 저작권은 캘리그라퍼 강병인 님께 있습니다.